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정책 21-20

#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 (2021)

2021. 11.

한국장애인개발원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 연 구 진

연 구 책 임 : 김현지(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본부 정책연구부 조사패널팀장)

공동연구원 : 강정배(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본부 정책연구부장)
김태용(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본부 정책연구부 조사패널팀 선임연구원)
이혜수(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본부 정책연구부 조사패널팀 연구원)

# 발간사

1970년대부터 선진국에서 시작된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이 우선시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거주지 선택과 일상생활에 대한 선택은 인간의 당연한 권리이며, 탈시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조건 입니다.

2009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한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출발점 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정착한 탈시설 장애인이 어떻게 지역사회생활을 하고 있는지, 지역사회 정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에서 2018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서울시 복지재단과 협력하여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시 자립생활주택을 통해 지역사회 생활을 시작한 144명 장애인의 조사참여로 시작된 종단연구는 올해로 네 번째 조사 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의 조사를 통해,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종단연구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영위해 가는데 동반자 역할을 하는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주신 관계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11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최 경 숙**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 목 차

연구요약 ····· xvii

Ⅰ. 서론 ····· 1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Ⅱ.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 ····· 9

1. 서울시 장애인 지역자립 사업 ····· 11
2.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 ····· 20
3.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계획 ····· 28

Ⅲ. 조사개요 및 조사표 ····· 31

1. 자립생활주택 이용 현황 ····· 33
2. 조사표 변경사항 ····· 35

Ⅳ. 장애인 탈시설 조사결과(4차) ····· 39

1. 조사대상자 특성 ····· 41
2. 일반 현황 ····· 42
3. 사회관계 ····· 55
4. 주거 ····· 75
5. 건강 ····· 97
6. 의료 ····· 121
7. 심리상태 ····· 133
8. 일상생활 ····· 143
9. 여가활동 ····· 198
10. 평생교육 ····· 208

11. 고용 ····· 220
12. 경제상황 ····· 253
13. 사회참여 ····· 267

**Ⅴ. 결론 ····· 297**

**참고문헌 ····· 311**

**부록 ····· 315**

부록 1.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종단분석 ····· 317
부록 2.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 조사표 ····· 369

# 표목차

〈표 2-1〉 자립생활주택 유형별 운영현황(2021.11.) ····· 12
〈표 2-2〉 자립생활주택 가형별 운영현황(2021.11.) ····· 12
〈표 2-3〉 자립생활주택 다형별 운영형태(2021.11.) ····· 14
〈표 2-4〉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현황(2021년 9월말 기준) ····· 20
〈표 2-5〉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조건 ····· 22
〈표 2-6〉 지원주택 입주 관련 기본 규칙 ····· 23
〈표 2-7〉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내용 ····· 25
〈표 2-8〉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인력 자격기준 ····· 27
〈표 3-1〉 자립생활주택 이용 특성(2021년) ····· 34
〈표 3-2〉 자립생활주택 이용자 성별 및 연령(2021년) ····· 34
〈표 3-3〉 자립생활주택 이용자 장애유형(2021년) ····· 34
〈표 4-1〉 2021년 조사대상자 현황 ····· 41
〈표 4-2〉 응답자(패널) 특성 ····· 42
〈표 4-3〉 성별에 따른 장애유형,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연도별 ····· 43
〈표 4-4〉 성별에 따른 장애유형,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43
〈표 4-5〉 연령 - 연도별 ····· 44
〈표 4-6〉 연령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44
〈표 4-7〉 최종학력 - 연도별 ····· 45
〈표 4-8〉 최종학력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45
〈표 4-9〉 장애 발생원인 - 연도별 ····· 46
〈표 4-10〉 장애 발생원인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46
〈표 4-11〉 후천적 장애 발생 시기 - 연도별 ····· 47
〈표 4-12〉 후천적 장애 발생 시기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47
〈표 4-13〉 주 장애유형 - 연도별 ····· 48
〈표 4-14〉 주 장애정도 - 연도별 ····· 48
〈표 4-15〉 주 장애정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49
〈표 4-16〉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 (1순위) - 연도별 ····· 50

〈표 4-17〉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 (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50
〈표 4-18〉 장애인 시설 입소 연도 - 연도별 ····· 51
〈표 4-19〉 장애인 시설 입소 연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52
〈표 4-20〉 장애인 시설 퇴소 연도 - 연도별 ····· 52
〈표 4-21〉 장애인 시설 퇴소 연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53
〈표 4-22〉 가족관계 만족도 - 연도별 ····· 55
〈표 4-23〉 가족관계 만족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57
〈표 4-24〉 가족과 연락 빈도 - 연도별 ····· 58
〈표 4-25〉 가족과 연락 빈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59
〈표 4-26〉 가까이 지내는 친구, 이웃, 지인 수 - 연도별 ····· 59
〈표 4-27〉 가까이 지내는 친구, 이웃, 지인 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60
〈표 4-28〉 가까이 지내는 친구, 이웃, 지인과의 만남 빈도 - 연도별 ····· 60
〈표 4-29〉 가까이 지내는 친구, 이웃, 지인과의 만남 빈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61
〈표 4-30〉 어려움이 있을 때 주로 의논하는 사람 - 연도별(2020, 2021) ····· 62
〈표 4-31〉 어려움이 있을 때 주로 의논하는 사람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63
〈표 4-32〉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도움 및 지지 - 연도별 ····· 64
〈표 4-33〉 주변사람으로부터 정서적 도움 및 지지 - 연도별 ····· 64
〈표 4-3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부터 정서적 도움 및 지지 - 연도별 ····· 64
〈표 4-35〉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도움 및 지지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65
〈표 4-36〉 주변사람으로부터 정서적 도움 및 지지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66
〈표 4-3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부터 정서적 도움 및 지지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66
〈표 4-38〉 동네와 동네사람에 대한 생각 - 연도별(2019, 2020, 2021) ····· 68
〈표 4-39〉 동네와 동네사람에 대한 생각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70
〈표 4-40〉 단체 및 모임활동 참여 경험 (1순위) - 연도별 (2019, 2020, 2021) ····· 72
〈표 4-41〉 단체 및 모임활동 참여 경험 (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73
〈표 4-42〉 주택형태 - 연도별 ····· 75
〈표 4-43〉 주택형태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76
〈표 4-44〉 주택점유 형태 - 연도별 ····· 76
〈표 4-45〉 주택점유 형태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77
〈표 4-46〉 주택 마련 방법 (1순위) - 연도별 ····· 78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표 4-47〉 주택 마련 방법 (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78
〈표 4-48〉 주택 면적 - 연도별 ····· 79
〈표 4-49〉 주택 면적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80
〈표 4-50〉 주택 방의 개수 - 연도별 ····· 80
〈표 4-51〉 주택 방의 개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81
〈표 4-52〉 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 (중복응답) - 연도별 ····· 81
〈표 4-53〉 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 (중복응답)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82
〈표 4-54〉 동거인 수 - 연도별 ····· 83
〈표 4-55〉 동거인 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83
〈표 4-56〉 동거자와의 관계 - 연도별 ····· 84
〈표 4-57〉 동거자와의 관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84
〈표 4-58〉 이사 여부 및 이유 - 연도별 ····· 85
〈표 4-59〉 이사 여부 및 이유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85
〈표 4-60〉 향후 살고 싶은 주택형태 - 연도별 ····· 86
〈표 4-61〉 향후 살고 싶은 주택형태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86
〈표 4-62〉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 - 연도별 ····· 87
〈표 4-63〉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88
〈표 4-64〉 거주 지역에서의 일상생활 불편 정도 - 연도별 ····· 88
〈표 4-65〉 거주 지역에서의 일상생활 불편 정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89
〈표 4-66〉 거주 지역에서의 일상생활 불편 이유 (1순위) - 연도별 ····· 89
〈표 4-67〉 거주 지역에서의 일상생활 불편 이유 (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90
〈표 4-68〉 장애인 지원주택 서비스 인지여부 - 연도별(2020, 2021) ····· 91
〈표 4-69〉 장애인 지원주택 서비스 인지여부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91
〈표 4-70〉 향후 장애인 지원주택 서비스 이용의향 - 연도별(2020, 2021) ····· 92
〈표 4-71〉 향후 장애인 지원주택 서비스 이용의향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92
〈표 4-72〉 자립생활 유지에 필요한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1순위) - 연도별(2020, 2021) 93
〈표 4-73〉 자립생활 유지에 필요한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94
〈표 4-74〉 그 외 주거유지서비스 필요여부 - 연도별(2020, 2021) ····· 95
〈표 4-75〉 그 외 주거유지서비스 필요여부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95
〈표 4-76〉 지난 6개월 간 전반적인 건강상태 - 연도별 ····· 97

〈표 4-77〉 지난 6개월 간 전반적인 건강상태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97
〈표 4-78〉 앓고 있는 만성질병 (복수응답) - 연도별 ····· 98
〈표 4-79〉 앓고 있는 만성질병 (복수응답)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00
〈표 4-80〉 1주일 평균 운동 횟수 - 연도별 ····· 101
〈표 4-81〉 1주일 평균 운동 횟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01
〈표 4-82〉 1회 평균 운동 시간 - 연도별 ····· 102
〈표 4-83〉 1회 평균 운동 시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02
〈표 4-84〉 주로 하는 운동 유형 - 연도별 ····· 103
〈표 4-85〉 주로 하는 운동 유형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04
〈표 4-86〉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 연도별 ····· 104
〈표 4-87〉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05
〈표 4-88〉 자신의 주관적 몸무게 수준 - 연도별 ····· 106
〈표 4-89〉 자신의 주관적 몸무게 수준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06
〈표 4-90〉 하루 평균 수면시간 - 연도별 ····· 107
〈표 4-91〉 하루 평균 수면시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07
〈표 4-92〉 하루 평균 식사 횟수 - 연도별 ····· 108
〈표 4-93〉 하루 평균 식사 횟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08
〈표 4-94〉 하루 평균 식사량 - 연도별 ····· 109
〈표 4-95〉 하루 평균 식사량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09
〈표 4-96〉 1주일 평균 패스트푸드 섭취 수 - 연도별 ····· 110
〈표 4-97〉 1주일 평균 패스트푸드 섭취 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10
〈표 4-98〉 입안(치과)의 문제로 음식을 씹는데 불편함 - 연도별 ····· 111
〈표 4-99〉 입안(치과)의 문제로 음식을 씹는데 불편함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11
〈표 4-100〉 식생활 - 연도별 ····· 113
〈표 4-101〉 식생활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15
〈표 4-102〉 영양관리상태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16
〈표 4-103〉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 연도별 ····· 117
〈표 4-104〉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17
〈표 4-105〉 가입한 민간의료보험 개수 - 연도별 ····· 118
〈표 4-106〉 가입한 민간의료보험 개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18
〈표 4-107〉 민간의료보험 가입 거부 경험 - 연도별 ····· 119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표 4-108〉 민간의료보험 가입 거부 경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19
〈표 4-109〉 지난 6개월 간 의료기관 이용 여부 및 횟수/일수 - 연도별 ····· 121
〈표 4-110〉 지난 6개월 간 의료기관 이용 여부 및 횟수/일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22
〈표 4-111〉 지난 6개월 동안 의료기관 이용 이유 - 연도별 ····· 123
〈표 4-112〉 지난 6개월 동안 의료기관 이용 이유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24
〈표 4-113〉 지난 6개월 동안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 유형 - 연도별 ····· 124
〈표 4-114〉 지난 6개월 동안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 유형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25
〈표 4-115〉 지난 6개월 동안 이용한 재활치료 서비스 (1순위) - 연도별 ····· 125
〈표 4-116〉 지난 6개월 동안 이용한 재활치료 서비스 (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26
〈표 4-117〉 병원까지 평균 이동시간 - 연도별 ····· 127
〈표 4-118〉 병원까지 평균 이동시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27
〈표 4-119〉 3개월 이상 약 복용 유무 - 연도별 ····· 128
〈표 4-120〉 3개월 이상 약 복용 유무 및 개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28
〈표 4-121〉 건강검진 경험 여부, 시기 및 횟수 - 연도별 ····· 129
〈표 4-122〉 건강검진 경험 여부, 시기 및 횟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30
〈표 4-123〉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 - 연도별 ····· 130
〈표 4-124〉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31
〈표 4-125〉 자아존중감 - 연도별 ····· 133
〈표 4-126〉 자아존중감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35
〈표 4-127〉 자기결정 - 연도별 ····· 136
〈표 4-128〉 자기결정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40
〈표 4-129〉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 (1순위) - 연도별 ····· 143
〈표 4-130〉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 (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44
〈표 4-131〉 주로 받는 도움 유형 및 정도 - 연도별 ····· 145
〈표 4-132〉 주로 받는 도움 유형 및 정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46
〈표 4-133〉 1일 평균 도움 받는 시간 - 연도별 ····· 147
〈표 4-134〉 1일 평균 도움 받는 시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47
〈표 4-135〉 필요한 도움 유형/정도 - 연도별 ····· 148
〈표 4-136〉 필요한 도움 유형/정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50

〈표 4-137〉 1일 평균 도움 제공 희망 시간 - 연도별 ····· 151
〈표 4-138〉 1일 평균 도움 제공 희망 시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51
〈표 4-139〉 최근 1개월 동안 외출 빈도 - 연도별 ····· 152
〈표 4-140〉 최근 1개월 동안 외출 빈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53
〈표 4-141〉 최근 1개월 동안 자주 외출하지 않은 이유 (1순위) - 연도별 ····· 153
〈표 4-142〉 최근 1개월 동안 자주 외출하지 않은 이유 (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54
〈표 4-143〉 외출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1순위) - 연도별 ····· 155
〈표 4-144〉 외출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56
〈표 4-145〉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 여부 및 종류 - 연도별 ····· 157
〈표 4-146〉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 여부 및 종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58
〈표 4-147〉 장애인 보조기기 만족도 - 연도별 ····· 158
〈표 4-148〉 장애인 보조기기 만족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59
〈표 4-149〉 장애인 보조기기 불만족 이유 (1순위) - 연도별 ····· 159
〈표 4-150〉 장애인 보조기기 불만족 이유 (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60
〈표 4-151〉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필요 정책 - 연도별 ····· 160
〈표 4-152〉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필요 정책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161
〈표 4-153〉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 연도별 ····· 162
〈표 4-154〉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62
〈표 4-155〉 월평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간 - 연도별 ····· 163
〈표 4-156〉 월평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63
〈표 4-157〉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만족도 - 연도별 ····· 164
〈표 4-158〉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만족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64
〈표 4-159〉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시간 충분여부 및 추가 필요시간 - 연도별 ····· 165
〈표 4-160〉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시간 충분여부 및 추가 필요시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66
〈표 4-161〉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1순위) - 연도별 ····· 167
〈표 4-162〉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68
〈표 4-163〉 기관/시설 이동시간 - 연도별 ····· 169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4-164〉 기관/시설 이동시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70
〈표 4-165〉 현재 주된 걱정 (1순위) - 연도별 ····· 172
〈표 4-166〉 현재 주된 걱정 (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73
〈표 4-167〉 미래 준비 정도 - 연도별 ····· 174
〈표 4-168〉 미래 준비 정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74
〈표 4-169〉 필요한 지원 빈도 - 연도별 ····· 177
〈표 4-170〉 필요한 지원 빈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78
〈표 4-171〉 필요한 지원 빈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79
〈표 4-172〉 필요한 일일 지원 시간 - 연도별 ····· 184
〈표 4-173〉 필요한 일일 지원 시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86
〈표 4-174〉 필요한 지원 유형 - 연도별 ····· 191
〈표 4-175〉 필요한 지원 유형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193
〈표 4-176〉 지난 1개월간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1순위) - 연도별 ····· 199
〈표 4-177〉 지난 1개월간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평균시간(분) - 연도별 ····· 199
〈표 4-178〉 지난 1개월간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및 시간 (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00
〈표 4-179〉 여가활동 만족도 - 연도별 ····· 201
〈표 4-180〉 여가활동 만족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01
〈표 4-181〉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 연도별 ····· 202
〈표 4-182〉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03
〈표 4-183〉 여가활동 동반자 - 연도별 ····· 203
〈표 4-184〉 여가활동 동반자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04
〈표 4-185〉 여행 여부 - 연도별 ····· 205
〈표 4-186〉 여행 여부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05
〈표 4-187〉 여행횟수 및 일수 - 연도별 ····· 206
〈표 4-188〉 여행횟수 및 일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06
〈표 4-189〉 평생교육 참여 경험 - 연도별 ····· 208
〈표 4-190〉 평생교육 참여 경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08
〈표 4-191〉 평생교육 비 참여 이유 - 연도별 ····· 209
〈표 4-192〉 평생교육 비 참여 이유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10
〈표 4-193〉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1순위) - 연도별 ····· 210
〈표 4-194〉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11

〈표 4-195〉 참여한 평생교육 실시 기관 - 연도별 ····· 212
〈표 4-196〉 참여한 평생교육 실시 기관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12
〈표 4-197〉 평생교육 참여 빈도 - 연도별 ····· 213
〈표 4-198〉 평생교육 참여 빈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13
〈표 4-199〉 평생교육 학비 부담 - 연도별 ····· 214
〈표 4-200〉 평생교육 학비 부담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15
〈표 4-201〉 평생교육 참여를 위한 왕복 이동 시간 - 연도별 ····· 215
〈표 4-202〉 평생교육 참여를 위한 왕복 이동 시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16
〈표 4-203〉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연도별 ····· 217
〈표 4-204〉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17
〈표 4-205〉 참여 희망 평생교육 프로그램 (1순위) - 연도별 ····· 218
〈표 4-206〉 참여 희망 평생교육 프로그램 (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19
〈표 4-207〉 지난 주 1시간 이상 근로 여부 - 연도별 ····· 220
〈표 4-208〉 지난 주 1시간 이상 근로 여부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20
〈표 4-209〉 지난주에 근로하지 않은 이유 - 연도별(2019, 2020, 2021) ····· 221
〈표 4-210〉 지난주에 근로하지 않은 이유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21
〈표 4-211〉 근로 형태 및 근로시간 형태 - 연도별 ····· 222
〈표 4-212〉 근로 형태 및 근로시간 형태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23
〈표 4-213〉 현재 직업 적성 부합 정도 - 연도별 ····· 224
〈표 4-214〉 현재 직업 적성 부합 정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24
〈표 4-215〉 일주일 평균 근무 일수 및 하루 평균 근무 시간 - 연도별 ····· 225
〈표 4-216〉 일주일 평균 근무 일수 및 하루 평균 근무 시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25
〈표 4-217〉 주 36시간 미만 근로 이유 (1순위) - 연도별 ····· 226
〈표 4-218〉 주 36시간 미만 근로 이유 (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27
〈표 4-219〉 희망하는 주 평균 근로 시간 - 연도별 ····· 228
〈표 4-220〉 희망하는 주 평균 근로 시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29
〈표 4-221〉 직업 유형 - 연도별 ····· 229
〈표 4-222〉 직업 유형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30
〈표 4-223〉 현재 직장 근속 기간 - 연도별 ····· 230
〈표 4-224〉 현재 직장 근속 기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31
〈표 4-225〉 현재 직장 평균 급여 - 연도별 ····· 231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4-226〉 현재 직장 평균 급여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32
〈표 4-227〉 직장만족도 - 연도별 ····· 233
〈표 4-228〉 직장만족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34
〈표 4-229〉 근로나 고용유지를 위해 받은 지원 및 희망 여부 - 연도별 ····· 236
〈표 4-230〉 근로나 고용유지를 위해 받은 지원 및 희망 여부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39
〈표 4-231〉 자신의 근로 역량 - 연도별 ····· 243
〈표 4-232〉 자신의 근로 역량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43
〈표 4-233〉 근로 지원 필요 여부 및 항목 (1순위) - 연도별 ····· 244
〈표 4-234〉 근로 지원 필요 여부 및 항목 (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45
〈표 4-235〉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 여부 - 연도별 ····· 245
〈표 4-236〉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 여부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46
〈표 4-237〉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1순위) - 연도별 ····· 247
〈표 4-238〉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48
〈표 4-239〉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동안 실시한 활동 - 연도별 ····· 249
〈표 4-240〉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동안 실시한 활동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50
〈표 4-241〉 향후 구직 의향 - 연도별 ····· 250
〈표 4-242〉 향후 구직 의향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51
〈표 4-243〉 개인 월평균소득 - 연도별 ····· 253
〈표 4-244〉 개인 월평균소득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53
〈표 4-245〉 가구 소득 유무(총) - 연도별 ····· 254
〈표 4-246〉 가구 소득 유무(총)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54
〈표 4-247〉 가구 소득 유무(영역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55
〈표 4-248〉 가구 지출 유무(총) - 연도별 ····· 256
〈표 4-249〉 가구 지출 유무(총)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56
〈표 4-250〉 가구 지출 유무(영역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57
〈표 4-251〉 가구 월평균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 연도별 ····· 259
〈표 4-252〉 가구 월평균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59
〈표 4-253〉 가구 월평균 저축 - 연도별 ····· 260
〈표 4-254〉 가구 월평균 저축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60

〈표 4-255〉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 (1순위) - 연도별 ····· 261
〈표 4-256〉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 (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62
〈표 4-257〉 경제 관련 의사결정자 - 연도별(2020, 2021) ····· 264
〈표 4-258〉 경제 관련 의사결정자 (1. 생활비 지출)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64
〈표 4-259〉 경제 관련 의사결정자 (2. 주택구입 및 이사)-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65
〈표 4-260〉 경제 관련 의사결정자 (3. 금전관리)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65
〈표 4-261〉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률 및 만족도 - 연도별 ····· 269
〈표 4-262〉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률 및 만족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75
〈표 4-263〉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 연도별 ····· 283
〈표 4-264〉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83
〈표 4-265〉 사회복지시설 이용 경험 및 횟수 - 연도별 ····· 284
〈표 4-266〉 사회복지시설 이용 경험 및 횟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84
〈표 4-267〉 사회복지시설 이용 이유 (1순위) - 연도별 ····· 285
〈표 4-268〉 사회복지시설 이용 이유 (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86
〈표 4-269〉 사회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 연도별 ····· 287
〈표 4-270〉 사회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87
〈표 4-271〉 사회복지시설 불만족 이유 (1순위) - 연도별 ····· 288
〈표 4-272〉 사회복지시설 불만족 이유 (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88
〈표 4-273〉 하루 평균 지역사회 활동 시간 - 연도별(2019, 2020, 2021) ····· 289
〈표 4-274〉 하루 평균 지역사회 활동 시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89
〈표 4-275〉 지역사회 활동 중 주로 시간을 소비하는 활동(1순위) - 연도별(2019, 2020, 2021) ····· 290
〈표 4-276〉 지역사회 활동 중 주로 시간을 소비하는 활동(1순위) - 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90
〈표 4-277〉 지역사회 활동 만족도 - 연도별(2019, 2020, 2021) ····· 291
〈표 4-278〉 지역사회 활동 만족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91
〈표 4-279〉 삶의 만족도 - 연도별 ····· 292
〈표 4-280〉 삶의 만족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93
〈표 4-281〉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불만족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93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4-282〉 방역 관련 어려움 경험(정보획득)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294
〈표 4-283〉 방역 관련 어려움 경험(방역장비 구비 및 이용)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95
〈표 4-284〉 코로나19로 인해 걱정되는 것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 295
〈표 5-1〉 조사연도별 참여 인원 ····· 299
〈표 5-2〉 정서적 도움 및지지 - 연도별 ····· 300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 그림목차

[그림 2-1] 서울시 장애인 전환지원서비스 체계 ····· 11
[그림 2-2] 서울시 장애인 전환지원서비스 이용절차 ····· 17
[그림 2-3] 장애인 시민옹호활동가 육성사업 추진절차 ····· 18
[그림 2-4] 장애인 시민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추진절차 ····· 19
[그림 2-5]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 ····· 24
[그림 2-6]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 ····· 24
[그림 2-7]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추진방향 ····· 28
[그림 3-1] 연구대상자 현황 ····· 33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 연 구 요 약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 Ⅰ. 서 론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20세기 중반에 들어 중증장애인들이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통해 지역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역사회 자립생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짐

○ 한국은 2011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30인 이상의 시설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 소규모화 정책을 마련하였으나,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의 대안이 되지 못하여 시설장애인의 수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함

○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한국 정부에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하고, 정신 또는 지적 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박탈을 전제하고 있는 현행 법률 조항을 폐지하도록 권고함

○ 서울시는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 자립생활체험홈 제도를 실시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차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 추진을 완료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차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자립생활주택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 및 사회적 응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으로 정의됨

○ 국내에서는 탈시설 관련 연구가 현황이나 문제점 제시 수준이며, 실제 탈시설한 장애인이 어떠한 과정으로 탈시설을 하는지, 어떻게 지역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 분석이 부족함

-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가 탈시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탈시설한 장애인의 삶을 알아보고자 2018년부터 ‘서울시 탈시설 종단연구’를 시작하였고, 2021년 4차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2. 연구내용 및 방법

○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분석
- 서울시의 탈시설화 정책 과정과 지역사회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 변화 과정,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정책을 분석함

○ 조사표 개발 및 수정
-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이 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하면서 변화하는 삶을 분석할 수 있도록 조사표 구성함
- 1-3차 조사에서 활용한 조사표의 큰 틀을 유지하며, 2020년 조사표를 기준으로 수정·보완 및 삭제·추가가 필요한 문항 검토·분석함

○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조사 실시
- 2021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입주자, 퇴거자, 입주대기자를 대상으로 1:1 대면면접 조사를 실시함

○ 조사결과 분석 및 종단분석
- 4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결과를 분석하며, 2018-2020년 조사결과를 함께 제시하여 시계열적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1-3차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관적 삶의 만족도,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주제로 종단분석을 실시함

www.koo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 Ⅱ.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

## 1. 서울시 장애인 지역자립 사업

○ 전환서비스 목적

-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맞춤형 전환서비스인 자립생활주택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과 통합을 지원하는 것임

○ 전달체계

- 장애인전환지원서비스 지원센터에서 전환서비스 운영체계와 자립생활주택 운영지원, 자립생활주택 서비스 품질관리의 핵심 역할을 담당함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는 탈시설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
-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자립생활이 가능한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과정을 지원하며, 퇴소 이후의 사후관리와 위기 사례의 공동지원 역할을 담당함
- 서울시와 자치구는 관련 사업의 기획과 운영사업자를 지도·감독함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임
- 2021년 11월 기준으로 자립생활주택은 가형(29개), 다형(34개)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용자는 주택별 2~3인이 이용하고 있음

○ 장애인 시민옹호활동가 육성사업(옹심이)

- 시민옹호활동가(옹심이)를 육성하여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재가 장애인을 매칭 후 지역 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하고, 권익 침해 사항 발견 시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며, 지역사회 내 재가 장애인의 권익 옹호적 환경을 조사함. 또한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 확장을 지원함

○ 장애인 시민공동체 활동지원사업(Seoul Small Sparks)

- 서울스몰스파크는 장애인 문제를 지역사회 중심, 비장애인 참여, 공동체 중

심으로 접근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주민모임과 활동을 지원함

## 2.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

○ 배경 및 추진경과

- 장애인 지원주택은 지원주택 입주자에게 주거유지 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함
- 2016년 8월 지원주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7월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2017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함
- 2018년 5월「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공포하고, 2019년 4월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 계획을 수립함
- 2021년 9월말 기준, 서울시 7개 자치구에 공급형 지원주택 127호를 제공하고, 131명이 입주하고 있음

○ 지원주택 개념

- 지원주택은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를 결합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임
- 지원주택에서 제공되는 주거서비스는 주거관리 및 생활관리 전반에 대한 서비스로서 지원주택 입주자 개인별 욕구에 따라 상시 또는 간헐적으로 제공하는 주거관리 및 생활관리 전반에 대한 서비스로서, 지원주택과 관련한 주거편의 사항으로는 현관·욕실 문턱제거, 안전손잡이, 센서 등 리모컨, 음성인식 가스차단기, 핸드레일 등이 있음. 또한 지원주택에는 코디네이터가 배치되어 입주자의 서비스를 계획하고 점검함

○ 입주 조건 및 선정 절차

- (입주 조건) 장애인 지원주택의 입주 기본 조건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있는 자,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주거유지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1]임. 입주조건은 크게 장애유형, 연령, 거주욕구, 지원욕구, 소득 및 자산기준 등임

1)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장애인 및 서울시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독립거주(예정)자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 지원주택 입주자는 주택공급기관과 직접 계약을 하며, 기본 규칙에 대한 동일 전제로 함. 계약기간은 2년이며, 매 2년 단위로 갱신하여 최대 20년까지 계약이 가능함
- (입주자 선정 절차)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는 먼저 SH 공사에서 지원주택 입주신청을 받고, 서울시 · SH공사 ·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입주자의 소득, 자산, 서비스필요도 조사를 통해 적격성 심사를 함. 다음으로 지원주택 장애인분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고, 적절한 지원주택을 배치함. 이후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자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개별 통보하여, 입주 당사자와 SH공사간 계약을 체결함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 주거유지지원서비스는 지원주택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로, 입주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및 독립생활 보장을 원칙으로 제공
- 주거유지지원서비스는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①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② 주택시설관리 지원, ③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④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⑤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⑥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⑦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⑧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됨

## 3.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계획

○ 서울시는 1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2013년~2017년)을 통해 5년간 604명을 탈시설하고, 2차 5개년 계획(2018년~2022년)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1차 계획은 전국 최초 선도적 탈시설 정책추진으로 정부차원의 탈시설 정책추진 견인 및 타지자체에 사업 확산 등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 증진 기여 및 탈시설 추진 분위기 확산에 의의가 있음
- 2차 계획은 탈시설 가속화 및 거주시설 변환 중심을 목표로 탈시설 지원체계 내실화, 시설입소예방, 거주시설 변환 시범, 지역정착지원 확대를 추진함

# Ⅲ. 조사개요 및 조사표

## 1. 자립생활주택 이용 현황

○ 2021년 6월 기준으로 자립생활주택 이용자는 총 293명임. 이 중 170명은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한 이후 지역사회에 자립한 퇴거자이며, 현재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하고 있는 입주자는 119명, 이용대기자는 4명임

-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가 87명(29.7%)으로 가장 많고, 50대 이상 76명(25.9%), 40대 73명(24.9%), 20대 57명(19.5%) 순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191명(65.2%), 여자 102명(34.8%)임
-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가 165명(56.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뇌병변 장애 77명(26.3%), 지체장애 40명(13.7%) 순임

## 2. 조사표 변경사항

○ 1-3차 조사를 통해 조사표의 보완 필요성과 조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문항에 대한 항목 추가, 특정 문항 추가 과정을 진행함

- 장애인관련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문항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장애 관련 복지서비스 추가함
-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탈시설 장애인의 코로나19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기존 문항에 코로나19 영향력 문항을 추가하거나 신규 문항(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에 경험한 방역 관련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앞으로 어려움)을 추가함

# Ⅳ. 장애인 탈시설 조사결과(4차)

## 1. 조사대상자의 특성

○ 조사대상자 현황

- 조사대상자는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입주대기자, 현재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하는 입주자, 자립생활주택에서 나온 퇴거자 중에서 주소 불명 등으로 실제 조사 불가능한 68명을 제외한 225명임
- 조사대상자 분포를 살펴보면, 입주자가 전체의 약 5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분포는 남자가 65.3%를 차지함. 장애유형은 지적 78.0%, 뇌병변이 13.8%임

## 2. 일반현황

○ 인구사회학적 특성

- 2020년 최종적으로 조사에 참여하여 조사완료한 인원은 171명으로 응답률은 76.0% 수준임
- 응답자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61.4%)의 비중이 '여성'(38.6%) 보다 22.8%p 높음
-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2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20대(19~29세)'(25.1%), '30대'(24.0%), '50대'(17.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이 전체의 7.0%로 가장 낮음
- 학력수준은 '고등학교'가 41.5%로 비중이 가장 높고, '무학(만 7세 이상)'(22.8%), '초등학교'(16.4%), '중학교'(12.9%), '4년제 이상의 대학교'(4.7%), '3년제 이하의 전문대'(1.8%) 등의 순임

○ 장애 특성

- 장애 발생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선천적 원인'이라는 응답이 7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후천적 원인'(16.4%), '출생 시 원인'(6.4%) 순으로 조사됨

- 장애 발생 원인이 후천적인 경우의 장애발생 시기를 살펴보면, '출생 후 20년 이상'(42.9%) 장애 발생이 가장 많았고, '출생 후 5년 이내'(29.4%), '출생 후 20년 이내'(17.6%)의 순임
- 응답자의 주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64.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뇌병변장애'(21.6%), '지체장애'(11.7%), '자폐성장애'(1.2%), '언어장애'(0.6%)의 순으로 조사됨
- 응답자의 장애정도를 살펴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이 98.2%로 나타났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은 1.8%로 나타남
-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은 응답자 대부분이 음성(합계, 90.7%)을 매개로 의사소통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3. 사회관계

○ 가족관계
- 가족관계 만족도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에 대해 긍정(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적인 응답은 75.9%, '형제/자매/친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76.7%,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77.8%로 나타남
- 가족과 연락 빈도를 조사한 결과, '1주에 1회 이상' 연락한다는 비율이 2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만나지 않음'과 '1년에 2~3회 정도'가 각각 20.3%, '1개월 1회 정도' 17.6%, '1년에 1회 정도' 10.8%, '1개월에 2-3회 정도' 6.8% 순으로 나타남

○ 사회적 관계
- 개인적인 문제나 가족 문제, 진로 문제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의 수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23.4%가 '없음'으로 응답함
- 가까이 지내는 친구, 이웃, 지인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1주일에 1-2회 정도' 만남을 유지한다는 비율과 '거의 매일(주 4회 이상)' 만난다는 비율이 각가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개월에 1~2회 정도'(17.6%), '1년에 1~2회 정도'(1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어려움이 있을 때 주로 의논하는 사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7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주변 친구/지

인'(11.7%), '기타'(5.8%), '배우자'(2.3%)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정서적 도움 및 지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는다'는 문항에 대해 긍정(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적인 응답은 72.5%,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는다'는 88.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는다'는 95.8%로 나타남
- 지역사회 관계에 대해 '동네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은 35.4%, '거리에서 동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는 49.5%,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61.6%,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는 51.5%, '동네에 계속 살고 싶다'는 60.6%, '이웃끼리 서로 경계한다'는 문항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은 73.7%로 나타남
- 단체 및 모임활동 참여 경험과 같은 사회 연결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느 모임이나 단체에도 참여한 경험 없음'(37.4%), '자조모임'(33.3%), , '종교단체'(11.7%) 등의 순임

## 4. 주거

○ 주택형태

- 주택형태는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빌라 등'이 66.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파트'(29.2%), '영업 건물 내 주택(오피스텔 등)'(3.5%), '단독주택, 전원주택 등'(1.2%)의 순임

○ 주택점유형태

- 주택점유 형태는 '기타'(자립생활주택, 행복주택 등)의 경우가 6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민임대주택'(10.5%), '월세 · 반전세' (8.2%), '전세'(8.2%), '영구임대주택'(4.1%), '사글세'(0.6%) 등의 순임

○ 주택마련방법

- 응답자의 88.9%는 '정부제공'의 수단을 통하여 주택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인 스스로' 주택을 마련한 비중은 8.8%로 나타났고, '가족의 도움'으로 마련한 비중은 1.8%, '대출'로 마련한 비중은 0.6% 등으로 나타남

○ 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갖추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내부시설의 장

애인 편의'(50.3%), '위생시설의 장애인 편의'(46.8%), '매개시설의 장애인 편의'(43.9%), '안내시설의 장애인 편의'(36.3%) 등의 순임

○ 향후 살고 싶은 주택형태

- 향후 살고 싶은 주택 형태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2.0%가 '아파트'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연립주택, 빌라 등'(17.0%), '단독주택, 전원주택 등'(7.0%), '다세대주택'(7.0%) 등의 순임

○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

- 전체 응답자의 62.6%가 '임대주택 건설과 같은 주택제공'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주택자금 제공'(19.9%), '주택개조 사업 확대'와 '집 주변 편의시설 확대'가 각각 7.6%임

○ 거주 지역에서의 일상생활 불편한 정도

- 전체 응답자의 88.9%가 현재 거주 지역에서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다는 응답을 보임
-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시장, 마트, 은행 등 생활시설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불편'과 '대중교통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불편'이 각각 27.3%로 나타남

○ 장애인 지원주택 서비스 인지 여부 및 이용의향

- 전체 응답자 중 65.7%는 장애인 지원주택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79.8%는 향후 장애인 지원주택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자립생활 유지에 필요한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 자립생활 유지에 필요한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로는 '주택 알선 지원'이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설 관리(시설 수리 등)'와 '집안청소 및 관리'가 각각 9.1%, '공과금 및 임대료 관리'(7.1%), '식사 지원(식사준비, 먹기, 치우기)'(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5. 건강

○ 전반적인 건강상태
- 지난 6개월 간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 78.9%로 나타남

○ 만성질환
-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질병(질환)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의 49.1%가 '없음'으로 응답하였으며,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주요 질병(질환)은 기타를 제외하면 '고혈압, 저혈압'(15.2%), '정신질환(우울증 등)'(11.1%), '뇌전증(구 간질)' (8.8%) 등의 순임

○ 운동
- 지난 1주일 간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41.5%이며, 주기적으로 운동하지 않은 이유로는 '운동을 싫어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운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18.3%), '운동을 도와줄 보호자가 없어서'(1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식사량 및 영양관리상태
- 하루 3회의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74.3%로 조사됨
- 영양관리상태 양호가 34.5%, 영양관리주의가 32.2%, 33.3%가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6. 의료

○ 의료기관 이용
- 응답자 중 43.3%는 지난 6개월 간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난 6개월 동안 외래진료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이용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반적인 질병치료'가 75.7%로 가장 높으며,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 유형은 병/의원 50.0% 종합/대학병원 48.6% 순임

○ 병원까지 이동시간
- 집에서 병원까지 이동하는데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에 대해 '15분 ~ 30분미만'이 4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분 ~ 60분 미만'(33.9%), '15분 미

만'(16.4%), '1시간 ~ 2시간 미만'(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건강검진

- 조사 대상자 중 88.9%는 건강검진 경험이 있으며,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건강검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7. 심리상태

○ 자아존중감

- 전체 응답자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2.85점(4점 기준)이며, 성별로 남성 2.80점, 여성 2.92점으로 조사됨
-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장애 2.79점, 정신적장애 2.89점이며,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이 2.95점, 퇴거자 2.74점으로 나타남
-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10개 항목별로 살펴보면,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가 2.9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2.94점), '나는 내가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2.94점),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2.9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자기결정

-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32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나는 아침에 스스로 옷을 골라 입는다'(3.02점), '나는 가게에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살 줄 안다'(3.05점), '나는 자유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3.04점)의 점수가 높게 나타남
- 전체 자기결정 점수는 2.75점(4점 기준)이며, 성별로 남성 2.79점, 여성 2.69점이고,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장애 2.66점, 정신적장애 2.83점이며,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은 2.81점, 퇴거자는 2.69점으로 나타남

## 8. 일상생활

○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
- 자신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활동지원인'이 69.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사'(22.0%), '요양보호사'(2.3%) 등의 순임

○ 필요한 도움 유형/정도 및 시간
-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유형과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식사'(76.8%), '집안청소 및 관리'(68.7%) 등에서 도움 필요 정도가 높게 나타남

○ 외출
- 최근 1개월 동안 외출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거의 매일 외출한다는 비율이 4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 3-4회'(20.5%), '주 1-2회'(14.0%)순임
- 최근 1개월 동안 외출을 하지 않은 조사대상자들에게 외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타를 제외하고 '외출하고 싶지 않음'(22.2%), '외출을 도와줄 사람이 없음'과 '밖에 나가서 할 것이 없거나 만날 사람이 없음'이 각각 18.5%로 나타남

○ 장애인 보조기기
- 조사대상자 중 38.6%가 장애인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93.9%는 보조기기의 사용에 만족하고 있었음
- 장애인 보조기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수리비용 제공 확대'가 5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품목 확대'(24.0%)가 높게 나타남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조사대상자 중 84.2%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은 85.3%, 퇴거자는 82.3%가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하다는 의견이 89.5%로 불만족하다 10.5%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으로는 '주거지원'이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상생활 활동지원'(19.3%), '직업재활/취업'(1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현재 주된 걱정

- 현재 가장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상생활 지원'이 2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거'(21.1%), '건강 악화'(18.7%), '장래 재정'(12.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미래 준비 정도

- 향후 미래의 계획에 대해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일상생활 지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지역사회생활지원

- 지역사회생활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지원 빈도를 주요생활 영역별로 조사한 결과, 지원 빈도가 높은 영역인 주 1회 이상(일 1회 이상, 1시간 1회 이상 포함)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장소 이동하기(교통)'(57.9%)와 '물건과 서비스 쇼핑하고 구입하기'(56.1%)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요 생활 영역별로 필요한 일일 지원 시간을 조사한 결과, 일일 2시간 이상 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는 '친구와 가족 방문하기'가 2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관리 전략 배우기'(19.9%), '지역사회에서 레크리에이션/여가활동 참여하기'(19.3%), '지역사회 구성원과 상호작용하기'(1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요 생활 영역별로 필요한 지원 유형을 조사한 결과, '좋아하는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기'(31.0%), '친구와 가족 방문하기'(30.4%), '지역사회에서 장소 이동하기(교통)'(23.4%)가 필요한 지원 유형 '없음'의 비율이 높음

## 9. 여가활동

○ 참여한 여가활동 유형 및 시간

- 지난 1개월 동안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텔레비전 보기'가 4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컴퓨터 또는 인터넷'(18.7%), '스마

트기기를 이용한 여가 활동'(11.1%) 등의 순임

○ 여가활동 만족도

-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여가활동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의견이 89.8%로 높게 나타남
- 현재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몸이 아프거나 장애로 인해 참여할 수 없어서'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여가 정보 및 프로그램이 부족해서'(3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여가활동 동반자

-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로 누구와 여가활동을 하는지 조사한 결과, 48.8%가 '혼자' 여가활동을 한다고 응답하였고, '활동지원사/시설종사자'(39.4%), '친구/동료'(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0. 평생교육

○ 평생교육 참여 여부 및 비참여 이유

- 조사대상자 중 71.3%가 평생교육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함
-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41.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16.4%), '참여하고 싶은 교육프로그램이 없어서'(12.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평생교육 참여 빈도

- 평생교육에 참여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참여 빈도를 조사한 결과, '주 2회 이상'이 4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평생교육 학비 부담

- 평생교육에 참여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학비 부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55.1%가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하였고, 다음으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22.4%), '본인 스스로'(18.4%), '교육훈련기관'(4.1%) 순임

○ 향후 평생교육 참여 의향 및 참여 희망 평생교육 프로그램

- 향후 평생교육에 참여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63.7%는 참

여 의향을 보였고, 36.3%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함

- 향후 평생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조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취미 및 여가활동'이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득활동'(27.5%), '건강 및 체육활동'(17.4%) 등의 순임

## 11. 고용

○ 현재 근로상태

- 지난 주 돈을 벌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비율은 48.5%임
-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 39.7%, '정신적장애' 53.1%로, 정신적장애인의 근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 53.2%, '퇴거자' 40.3%로, '이용자 등'의 근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장이 있는 응답자의 고용 관련 사항

- 현재 직업이 자신의 적성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조사한 결과, '부합하다'는 의견이 90.7%로 전반적으로 높았음
- 주 36시간 미만 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장애로 인한 직업능력의 제한'(50.0%), '시간제 근로가 현재 직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므로'(15.8%) 등의 순임
- 응답자의 직업 유형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서비스 종사자 1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근로소득은 '50~100만원 미만'이 44.8%로 가장 높았고, '50만원 미만'(42.5%), '100~150만원 미만'(8.0%) 등의 순임
- 전반적인 직장만족도는 92.6%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근로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희망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출퇴근 이동지원'이 35.7%로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고용주와 동료들의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32.5%로 높게 나타남

○ 직장이 없는 응답자의 고용 관련 사항

- 직장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근로 역량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을

할 수 없다'가 71.1%로 '일을 할 수 있다'(28.9%)보다 42.2%p 높게 나타남
- 현재 직장이 없으나 일을 할 수 있다고 한 응답자 중 91.7%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작업환경 변화, 보조장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세부적으로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59.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83.8%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응답자의 고용 관련 사항
-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타를 제외하면 '자격요건이나 직업관련 경험 또는 기술 부족'이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장애나 질병 등 건강상 문제로 인해'와 '장애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해'가 각 15.0%로 높게 나타남
- 향후 구직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구직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55.0%, '잘 모르겠음' 25.0%, 구직 의향이 없다 20.0%로 나타남

## 12. 경제상황

○ 개인소득
- 개인의 월평균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84.2%(월평균 소득 없음 3.5% 포함)가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
- 소득이 발생하는 영역은 '공적이전소득'이 90.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근로소득'(66.1%), '개인재산/금융/연금 소득'(35.7%), '사적이전소득'(32.7%), '사업/부업소득'(32.2%), '비경상소득'(32.2%) 순임

○ 가구 생활비
- 지출이 발생하는 영역은 식료품비가 100.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생필품비'(86.5%), '교통/통신비'와 '의류비'가 각각 8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육 및 교육비'는 36.3%, '보조기기 구입, 유지비'는 36.8%로 상대적으로 지출 발생 비율이 낮게 나타남

- 생활비 중 부담되는 항목으로, 없음'(11.7%)를 제외하면, '식료품비'가 6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보건의료비'(8.2%), '집세, 월세'(5.3%) 등의 순암

○ 경제 관련 의사결정자

- 생활비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자를 조사한 결과, '전적으로 내가 결정함'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의논해서 함께 결정'(31.6%), '주로 내가 결정하고, 주변인이 약간 돕는 정도임'(1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택 구입 및 이사에 대한 의사결정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의논해서 함께 결정'(42.7%), '전적으로 내가 결정함'(26.3%), '주로 내가 결정하고, 주변인이 약간 돕는 정도임'(14.0%) 순으로 나타남
- 금전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자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의논해서 함께 결정'(45.0%), '전적으로 내가 결정함'(31.6%), '주로 내가 결정하고, 주변인이 약간 돕는 정도임'(1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3. 사회참여

○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

- 24가지 장애인 복지서비스별로 이용률을 살펴본 결과, '장애인활동지원'이 8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장애인 연금'(82.5%), '에너지 바우처'(7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용률이 10.0% 이상인 복지서비스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하는 비율이 높은 서비스로 '장애인의료비 지원'(96.0%), '가사/간병 방문 지원'(94.0%), '에너지 바우처'(90.0%) 등으로 나타난 반면,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72.7%)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음
-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만족하는 비율이 91.7%로 불만족하는 비율 8.3%보다 높게 나타남

○ 지역사회 활동

- 조사대상자의 하루 평균 지역사회 활동 시간을 조사한 결과,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주로 시간을 소비하는 활동으로

는 '일'이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사회 활동 만족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만족이 90.9%, 불만족이 9.1%로 나타남

○ 삶의 만족도

- 조사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를 10점 척도를 통해 조사하여 평균값을 구한 결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평균 7.05점으로 조사됨
- 영역별로는 '직업'(7.16점), '주거환경'(7.15점), '사회적 관계'(6.99점) 등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수입'(6.27점)의 만족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남

○ 코로나19 관련 어려움

-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에 경험한 방역 관련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정보 획득(감염 발생상황, 방역지침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32.7%이고, '방역장비 구비 · 이용(마스크, 손소독제의 구매 및 이용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6%임
- 코로나19로 인해 걱정되는 것을 조사한 결과 '걱정되는 부분 없음'(11.7%)을 제외하면, '감염위험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여가생활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29.2%), '교육 · 훈련 지연, 중단'(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Ⅴ. 결 론

○ 사회관계

- 가족, 친구/이웃,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정서적 도움 및 지지를 받고 있다고 여기는 비중(긍정)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18: 44.1% → '19: 37.2% → '20: 63% → '21: 68%)
- 가족관계 만족도 중 '부모와의 관계'와 '형제/자매/친척과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전년도(각각 61.7%, 62,3%) 대비 증가한 반면, '배우자와의 관계'는 전년도 (88.9%) 대비 11.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사회 내에서 이웃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 인식은 전체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19: 15.87점 → '20: 15.77점 → '21: 15.06점)
- 지역사회에서 구성원과의 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활동의 참여를 권장하고, 상호간에 친밀한 교류를 통해 정서적 지원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정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서비스 확대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주거

- 주택 마련방법은 88.9%가 정부제공이 가장 높게 나타남.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주택제공(62.6%)과 주택자금제공(19.9%%)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거주 지역에서의 일상생활 불편을 느끼는 이유로는 시장, 마트, 은행 등의 생활시설, 대중교통의 부족 등으로 응답한 비율이 2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장애인 지원주택 서비스에 대한 전체 인지율은 2020년에 비해 22.7%p 높은 65.7%이며, 향후 지원주택 서비스 이용 의향은 2020년에 비해 26.3%p 높은 79.8%임
- 전반적으로 주거 영역의 응답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 주거안정에 대한 지원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됨

○ 건강

- 전반적 건강상태에 대한 응답변화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에 따른 건강상태 긍정적 인율 격차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차이가 있음('18: 8.12%p → '19: 8.84%p → '20: 14.75%p → '21:

10%p)

- 영양관리상태 분류결과 '영영관리 개선'이 33.3%로 2020년(45.9%)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주기적으로 운동하지 않는 응답자는 전체의 41.5%로 2020년에 비해 소폭 감소함. 주기적으로 운동 하지 않는 이유의 29.6%가 '운동을 싫어해서', '운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18.3% 순임
- 건강영역의 응답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식생활 관리, 운동의 필요성, 운동 방법 등 건강수준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강증진 활동과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의료

- 지난 6개월 간 의료기관 이용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3.3%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질병치료'와 '장애, 합병증/후유증(재활)치료'가 각각 75.7%, 20.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건강검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47.4%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정보 부족'이 15.8%로 나타남
-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함. 당사자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만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이 증가하고, 만족할 만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임.
- 또한 장애인 당사자가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지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건강관리가 힘들 것으로 생각됨. 병원이용을 위한 이동 편의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 심리상태

- 자아존중감 정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퇴거자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자아존중감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지지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일상생활

-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도움 유형별로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집안청소 및 관리'(70.0%), '식사'(68.9%) 등에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서도 '집안청소 및 관리'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집안관리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보여짐
-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의 경우 '집안청소 및 관리'(85.7%), '식사'(81.0%)에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는 '금전관리'(68.8%), '식사'(58.3%)에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공통적으로 식사 지원에 대한 욕구가 크며, 장애유형에 따른 일상생활 지원을 받고 있는 분야에 차이가 있으며, 필요로 하는 도움의 유형과도 유사함
-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만족도는 93.9%로 2020년 85.1%, 2019년 70.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거자의 보조기기 만족도는 자립생활주택 '이용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일상생활에서 주로 도움을 받는 부분은 집안청소 및 관리(70.0%), 식사(68.9%) 순으로 나타남. 이는 퇴거자와 자립생활주택 '이용자 등'과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퇴거자의 경우 집안청소 및 관리, 식사, 전반적 일상생활에 대한 욕구가 '이용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장애유형에 따른('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 차이가 큰 항목은 '금전관리', '학습활동', '집안청소 및 관리'임. 주거공간 안에서 생활하는데 필요로 하는 도움에 대해서는 신체적장애인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금전관리' 항목에 대해서는 신체적장애인(40.9%)보다 정신적장애인(70.9%)의 도움 필요 욕구가 높음
- 자립생활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주거지원(36.6%)', '일상생활 활동지원(19.3%)', '직업재활/취업(10.5%)'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가장 걱정되는 항목과 유사한데, 현재 걱정되는 항목으로는 '일상생활 지원(22.8%)' '주거(21.1%)', '건강악화(18.7%)' 순임. 특히 퇴거자의 경우 건강악화(29.0%), 장래재정(22.6%)에 대한 걱정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건강관리를 위한 미래 준비 정도가 미비하다는 응답은 72.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현재 가장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상생활 지원’이 2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거’(21.1%), ‘건강 악화’(18.7%), ‘장래 재정’(12.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향후 미래의 계획에 대해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일상생활 지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음의 비율이 5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 이에 퇴거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건강 및 일상생활에 관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며, 시설 퇴소 이후 자립생활에서 주거와 재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재정과 건강관리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여가활동

- 여가활동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89.8%로 직전년도 80.5%와 비교하여 약 9%p 높게 나타남(이용자 등: 94.0%, 퇴거자: 85.4%).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 활동은 ‘텔레비전 보기’가 4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컴퓨터 또는 인터넷’(18.7%),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여가 활동’(11.1%) 등의 순임
-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로 누구와 여가활동을 하는지 조사한 결과, 48.8%가 ‘혼자’ 여가활동을 한다고 응답하였고, ‘활동지원사/시설종사자’(39.4%), ‘친구/동료’(9.4%) 등의 순임
- 텔레비전 보기 등 수동적 여가활동 보다는 야외활동 및 스포츠와 같은 능동적 여가활동이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됨(임영명, 차태현. (2018).에서 재인용). 이에 여가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와 야외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이 필요함

○ 평생교육

- 평생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7%로,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41.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16.4%), ‘참여하고 싶은 교육프로그램이 없어서’(1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중 63.7%는 향후 평생교육에 참여할 의향을 보이며(‘이용자 등’: 73.4%, 퇴거자: 46.7%), 이들 중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취미 및 여가활동’이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최근 들어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은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기반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으로 지역사회내 자립생활 뿐 아니라 사회통합 역시 강조하고 있음(최윤영과 이세희, 2020에서 재인용). 평생교육이 공통된 관심 주제에 대한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는 자립생활의 필요한 기능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

○ 고용

- 지난주 돈을 벌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다는 응답은 48.5%로 전년도(40.9%) 대비 근로 비율은 7.6%p 증가하나,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비율('18: 34% → '19: 52% → '20: 63.3% → '21: 71.6%)과 근로시간이 시간제('18: 37.1% → '19: 37.5% → '20: 68% → '21: 81.6%)인 경우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난주에 돈을 벌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했지만,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난주에 근로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기타(코로나로 인해)'가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직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업 유형을 조사한 결과, '단순노무 종사자'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서비스 종사자'(11.5%) 등의 순이며, 약 47% 이상이 1년 미만 근무로, 현재 직장의 평균 급여가 50만원 미만인 비율이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직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장 만족도를 영역별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만족도는 92.6%(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나, 총 보수와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근로를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일을 도와 줄 수 있는 사람', '탄력근무제·근무시간조정', '직업훈련/재훈련'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자격요건이나 직업관련 경험 또는 기술부족 등의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은 25.0%,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응답자 중 55.0%는 '구직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직업훈련 등 직업 경험을 통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구직을 원하지 않거나 취업 동기가 낮은 장애인들의 개인의 심리적 강점 또는 삶의 만족감을 향상시킨다면, 이를 통해 고용의 동기가 부여될 수 있을 것임(류승아, 2021)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 경제상황

- 지출이 가장 많은 영역은 식료품비 이며,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 역시 식료품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생활비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내가 결정한다가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남. 주택 구입 및 이사, 금전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회복지지시설 종사자와 의논해서 함께 결정' 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퇴거자'의 경우 생활비 지출, 주택구입 및 이사와 금전관리 모두 '전적으로 스스로 결정한다'는 비율이 각각 50%, 43.5%, 47%로 가장 높게 나타남. 자립생활 주택 이용자 중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의논하여 경제 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만, 퇴거이후에는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퇴거 이후 경제관리 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회참여

- 지역사회 활동의 참여는 자립생활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 지역사회 활동 중 주로 시간을 소비하는 활동으로는 '일'이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개인유지 활동'(21.1%), '문화관광 및 스포츠/레포츠 활동'(11.7%), '학습활동'(9.9%) 등의 순임.
- 지역사회 활동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9.1%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지역사회 활동의 참여를 통해 자립생활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에 경험한 방역 관련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정보획득(감염 발생상황, 방역지침 등)'의 경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32.7%로 나타났으며, '방역장비 구비 · 이용(마스크, 손소독제의 구매 및 이용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6%로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해 걱정되는 것으로는 '감염위험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생활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29.2%), '교육 · 훈련 지연, 중단'(7.6%) 등의 순임. 특히 '퇴거자'는 '이용자 등'에 비해 '정보획득'과 '방역장비 구비 및 이용'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비중이 약 1.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 Ⅰ. 서 론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2)]

20세기 중반에 들어 중증장애인들이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통해 지역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립생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졌다 (강정배 등, 2018; 이호영, 2017; Beadle-Brown J., Mansell J., Kozma A., 2007). 한국에서는 2011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30인 이상의 시설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 소규모화 정책을 마련하였으나, 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의 대안이 되지 못하여 2011년 25,345명이던 장애인이 2015년에는 26,775명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강정배 등, 2018).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2014년 한국 정부에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 수립', '탈시설을 위한 지원서비스 확대'를 권고하고 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하고, 정신 또는 지적 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박탈을 전제하고 있는 현행 법률 조항을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 자립생활체험홈 제도를 추진하였다.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1차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을 완료하였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차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5년간 추진하고 있다.[3)] 서울시복지재단[4)]은 자립생활주택을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입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개별 자립지원계획에 따른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강정배 등, 2018; 서울복지재단, 2018).

국내에서는 탈시설 정책의 초기단계이고, 서울시의 탈시설 5개년 계획을 통해 국내의 탈시설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5년간의 변화는 탈시설 목표 인원 600명을 설정하고 탈시설한 인원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현황이나 문제점

2) 「강정배 외 (2019).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췌하였다.
3)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4252598
4) 서울시복지재단은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로 전환서비스 체계운영, 자립생활주택 운영지원, 자립생활주택 품질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https://www.welfare.seoul.kr/idl/contents/change1-1.do

제시 수준의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최문정, 2011; 감정기, 최복천, 송정문, 2012; 미소, 2012; 장소현, 박종식, 이은주, 배은주, 이용갑, 2014; 이만우, 김은표, 2017; 이호영, 2017, 현명이, 김현승, 2018). 실제 탈시설한 장애인이 어떠한 과정으로 탈시설을 하는지, 어떻게 지역사회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이 부족하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여 장애인의 탈시설 과정과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정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은 어려운 상황이다. 펜허스트 종단연구와 같이 지역사회생활의 경험이 없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해가는 과정은 실태조사방식의 일회성 횡단면 조사만으로는 변화 분석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서울시가 탈시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탈시설한 장애인의 삶을 알아보고자 2018년부터 '서울시 탈시설 종단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 4차 조사를 실시하고, 1차-3차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정과 삶을 분석한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 1)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분석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5]과정과 지역사회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 변화과정,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정책을 분석한다.

### 2) 조사표 개발 및 수정

2021년 4차 조사의 조사표는 2018년 개발된 조사표를 기본으로 한다. 4차조사의 조사표는 본 연구가 종단연구임을 고려하여 1차-3차 조사에서 활용한 조사표의 큰 틀의 변경 없이 시계열 유지한다. 2020년 조사표를 기준으로 수정·보완 및 추가·삭제가 필요한 문항을 검토한다. 조사 문항 및 조사방법은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4차조사 조사표를 확정한다.

### 3)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조사 실시

조사대상은 2021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입주자와 퇴거자, 그리고 입주대기자 이다.[6] 자립생활주택 입주자와 입주대기자 정보는 서울시 복지재단과 자립생활센터 운영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확보하였다. 조사안내는 사전에 실시 한 후, 조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이를 통해 조사 대상자를 확정 한다. 조사도구는 TAPI를 활용하며, 조사원이 조사 대상자의 집 또는 생활공간을 방문하는 1:1대면면접 조사를 실시한다.[7] 실사는 전문 조사업체에서 진행한다.

---

5) 탈시설화: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당사자의 서비스 욕구 및 장애 특성에 맞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며 통합되어 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시책. (출처) 서울복지포럼. https://wis.seoul.go.kr/handicap

6) 2018년-2020년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역시 2021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이용한 경험이 있는바,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즉 2018년-2020년 본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2021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7) 2020년-2021년 조사는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조사가 병행하였다.

### 4) 4차년도 조사 결과 분석

4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결과를 분석하며, 2018년-2020년 조사결과를 함께 제시하여 시계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8)]

### 5) 종단분석[9)]

1차-3차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여[10)] 패널데이터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이용 경험이 있는 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8) 종단데이터 에디팅으로 일부 결과는 이전 차수의 결과와 상이 할 수 있다.
9) 종단분석은 정병철 교수(서울시립대 통계학과)가 수행하였으며, 해당 결과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10) 본 연구에서는 4차 조사가 함께 실시되었으며, 분석시점 실제 활용 가능한 데이터는 2018년(1차)-2020년(3차) 데이터 이다.

(5) 추진절차

| | |
|---|---|
| **연구계획 수립** | ▸연구계획(안) 수립 |
| ⬇ | |
| **조사표 수정개발** | ▸조사 문항 수정·보완 및 추가 |
| ⬇ | |
| **조사표 관련기관 협의** | ▸관계기관간 협의(조사 문항 수정·보완 등): 서울시 및 서울시 복지재단 |
| ⬇ | |
| **연구참여 동의 및 기초조사(유선조사)** | ▸연구참여 동의를 위한 유선컨택 실시 |
| ⬇ | |
| **TAPI 및 조사지침서 개발** | ▸TAPI 및 조사지침서 개발 |
| ⬇ | |
| **조사원 교육 및 간담회** | ▸조사원 선발 및 교육 실시 |
| ⬇ | |
| **방문조사** | ▸조사원에 의한 방문을 통한 1:1 대면면접 조사[11] |
| ⬇ | |
| **조사결과 취합 및 검증** | ▸취합된 조사결과 기반 데이터 검증 |
| ⬇ | |
| **조사결과 분석** | ▸조사결과 취합 및 조사결과 분석 |
| ⬇ | |
| **결과정리 및 보고서 작성** | ▸ 결과정리 및 보고서 작성 |

11) 2021년 조사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조사가 병행되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 Ⅱ.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

## 1 서울시 장애인 지역자립 사업[12)]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 장애인의 지역자립을 위해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과 장애인 지역통합 사업(장애인 시민옹호활동가 육성, 장애인 시민공동체 활동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1)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사업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맞춤형 전환서비스인 자립생활주택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과 통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화서비스 지원사업의 전달체계는 장애인전환지원서비스 지원센터에서 전환서비스 운영체계와 자립생활주택 운영지원 및 서비스 품질관리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자립생활주택운영사업자로 하여금 탈시설한 장애인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가능한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과정을 지원하며, 퇴소 이후의 사후관리와 위기사례의 공동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관련 사업의 기획과 운영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2-2] 서울시 장애인 전환지원서비스 체계

12)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 지역자립사업(https://www.welfare.seoul.kr/idl/main/index.do)을 정리함. 본 절은 강정배 외. (2020).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2020)의 Ⅱ장을 포괄적으로 발췌하여, 현행화 하였다.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이다. 2021년 11월 기준 가형, 다형 중심으로 운영되며 등록 장애인 중 서울시 관할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이 입주대상이다. 입주인원은 주택당 2~3명이다. 가형은 총 29개의 주택이 운영되고 있으며, 다형은 34개의 주택이 운영되고 있다.

〈표 2-1〉 자립생활주택 유형별 운영현황(2021.11.)

| 구분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가형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다형 |
|---|---|---|
| 입주대상 | 등록 장애인 중 서울시 관할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 | |
| 입주기간 | 기본 2년 | |
| 지원형태 | 기본적인 자기관리가 가능하며, 일정기간 경험과 훈련을 통해 사회적 자립역량을 지원하는 유형 지원인력의 간헐적 지원형태 (본인 혹은 활동보조를 통해 자기결정, 일상생활 관리가 가능) | 위생관리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나, 일정기간 경험과 훈련을 통해 개인적 자립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유형. 지원인력의 집중적 지원형태 (인지적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지원필요) |
| 서비스 내용 | 개별자립생활 체험 및 사회적응 지원 | 개별자립생활 체험 및 사회적응 지원 |
| 개소수 | 29개 | 34개 |
| 주택유형 | 일반임대 (다세대주택 등) 및 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
| 입주인원 | 3명 / 주택당 | 2명 / 주택당 |
| 운영형태 | 운영사업자 위탁운영 | |
| 지원인력 | 전담인력(코디네이터) 1명 | 전담인력(코디네이터) 1명 + 보조인력 |

자립생활주택 가형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2021.11 기준).

〈표 2-2〉 자립생활주택 가형별 운영현황(2021.11.)

| 연번 | 자립생활주택 주소 | 형태 | 휠체어 | 성별 | 입주자 현황 | | | 운영사업자 |
|---|---|---|---|---|---|---|---|---|
| 1 | 종로구 혜화로 | 다세대 /연립 | 가능 | 남 | 공실 | 공실 | 지적 | 노들IL |
| 2 | 종로구 창경궁로 | 아파트 | 가능 | 여 | 지적 | 지적 | 지적 | 노들IL |

| 연번 | 자립생활주택 주소 | 형태 | 휠체어 | 성별 | 입주자 현황 | | | 운영사업자 |
|---|---|---|---|---|---|---|---|---|
| 3 | 서초구 방배로 | 아파트 | 가능 | 남 | 뇌병변 | 공실 | 지체/뇌병변 | (사)해냄복지회 |
| 4 | 강서구 공항대로 | 아파트 | 가능 | 남 | 공실 | 지적 | 지적 | 남은재IL |
| 5 | 강북구 솔샘로 | 아파트 | 가능 | 남 | 지적 | 지적 | | 강북IL |
| 6 | 양천구 목동중앙서로 | 방없음 | 가능 | 남 | 공실 | 지체/지적 | 자폐 | 사람사랑양천IL |
| 7 | 성동구 마장로 | 아파트 | 가능 | 남 | 지적 | 지적/시각 | | 성동IL |
| 8 | 중랑구 겸재료 | 다세대/연립 | 가능 | 남 | 뇌병변/지적 | 공실 | 지적 | 굿잡IL |
| 9 | 성북구 동소문로 | 다세대/연립 | 불가능 | 남 | 지적 | 지적 | | 성북IL |
| 10 | 은형구 연서로 | 다세대/연립 | 가능 | 남 | 입주예정 | 뇌병변/지적 | 공실 | 은평IL |
| 11 | 은평구 갈현로 | 다세대/연립 | 불가능 | 남 | 입주예정 | 공실 | 지적 | 은평늘봄IL |
| 12 | 은평구 증산로 | 다세대/연립 | 가능 | 남 | 지적/지체 | 지적 | | 은평늘봄IL |
| 13 | 은평구 증산로 | 다세대/연립 | 불가능 | 남 | 공실 | 지적 | | 은평IL |
| 14 | 송파구 송파대로 | 아파트 | 가능 | 남 | 지체 | 지적 | 뇌병변 | 서울IL |
| 15 | 구로구 부일로 | 다세대/연립 | 가능 | 여 | 공실 | 뇌병변/지적 | | 구로IL |
| 16 | 구로구 부일로 | 다세대/연립 | 가능 | 남 | 뇌병변 | 뇌병변 | | 금천IL |
| 17 | 영등포구 도립로 | 아파트 | 가능 | 남 | 지체 | 공실 | 뇌병변 | 이음IL |
| 18 | 도봉구 방학로 | 아파트 | 가능 | 남 | 입주예정 | 지적 | 뇌병변 | 도봉노적성해IL |
| 19 | 관악구 은천로 | 아파트 | 가능 | 여 | 지적 | 지적 | 뇌병변 | 한울림IL |
| 20 | 광진구 능동로 | 다세대/연립 | 가능 | 남 | 뇌병변 | 지적 | | 광진IL |
| 21 | 강동구 올림픽로 | 다세대/연립 | 가능 | 남 | 지적 | 지체 | | 강동IL |
| 22 | 양천구 월정로 | 다세대/연립 | 가능 | 여 | 뇌병변/지적 | 지적/뇌병변 | | 사람사랑양천IL |

| 연번 | 자립생활주택 주소 | 형태 | 휠체어 | 성별 | 입주자 현황 | | | 운영사업자 |
|---|---|---|---|---|---|---|---|---|
| 23 | 구로구 부일로 | 다세대/연립 | 가능 | 남 | 뇌병변 | 지체 | | 구로조은IL |
| 24 | 성동구 광나루로 | 다세대/연립 | 불가능 | 남 | 공실 | 지적 | 지체/시각 | 중랑IL |
| 25 | 강서구 강서로 | 다세대/연립 | 가능 | 여 | 뇌병변 | 지적/지체 | | 남은자IL |
| 26 | 강동구 천중로 | 다세대/연립 | 가능 | 여 | 뇌병변 | 지적/뇌병변 | | 해뜨는양지IL |
| 27 | 강서구 화곡로 | 다세대/연립 | 가능 | 남 | 지체 | 지적 | | 누리IL |
| 28 | 강동구 고덕로 | 다세대/연립 | 가능 | 여 | 지적 | 지적/뇌병변 | | 해뜨는양지IL |
| 29 | 노원구 노원로 | 다세대/연립 | 불가능 | 여 | 지적 | 지적 | | 신세계중랑IL |

자립생활주택 다형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2021.11 기준).

〈표 2-3〉 자립생활주택 다형별 운영형태(2021.11.)

| 연번 | 자립생활주택 주소 | 형태 | 휠체어 | 성별 | 입주자 현황 | | 운영사업자 |
|---|---|---|---|---|---|---|---|
| 1 | 송파구 가락로 | 다세대/연립 | 가능 | 여 | 지적 | 지적 | 서울IL |
| 2 | 도봉구 우이천로 | 다세대/연립 | 불가능 | 여 | 지적 | 지적 | 도봉노적성해IL |
| 3 | 은평구 갈현로 | 다세대/연립 | 불가능 | 여 | 공실 | 지적 | 은평IL |
| 4 | 은평구 은평터널로 | 다세대/연립 | 불가능 | 여 | 입주예정 | 지적 | 은평늘봄IL |
| 5 | 동작구 상도로 | 다세대/연립 | 불가능 | 남 | 공실 | 공실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
| 6 | 양천구 오목로 | 다세대/연립 | 불가능 | 여 | 지적 | 지적 | 사람사랑양천IL |
| 7 | 강북구 삼양로 | 다세대/연립 | 가능 | 여 | 지적 | 지적 | (사)성민 |
| 8 | 강북구 삼양로 | 다세대/연립 | 가능 | 여 | 지적 | 지적 | (사)성민 |
| 9 | 송파구 동남로 | 다세대/연립 | 불가능 | 여 | 지적/뇌병변 | 지적 | 서울IL |

| 연번 | 자립생활주택 주소 | 형태 | 휠체어 | 성별 | 입주자 현황 | | 운영사업자 |
|---|---|---|---|---|---|---|---|
| 10 | 금천구 독산로 | 다세대/연립 | 가능 | 남 | 지적 | 공실 | 우리동작IL |
| 11 | 강북구 삼양로 | 다세대/연립 | 가능 | 남 | 지적 | 지적 | (사)성민 |
| 12 | 강동구 상암로 | 다세대/연립 | 불가능 | 여 | 지적 | 지적 | 강동IL |
| 13 | 양천구 오목로 | 다세대/연립 | 불가능 | 남 | 지적 | 지적 | 관악IL |
| 14 | 도봉구 우이천로 | 다세대/연립 | 불가능 | 여 | 지적/지체 | 지적 | 노원어울림IL |
| 15 | 도봉구 도봉로 | 다세대/연립 | 불가능 | 여 | 지적 | 지적 | 노원어울림IL |
| 16 | 강북구 노해로 | 다세대/연립 | 불가능 | 남 | 지적 | 지적 | 강북IL |
| 17 | 광진구 답십리로 | 다세대/연립 | 가능 | 여 | 지적 | 공실 | 송파솔루션IL |
| 18 | 영등포구 도신로 | 다세대/연립 | 불가능 | 남 | 지적 | 지적 | 이음IL |
| 19 | 강동구 상암로 | 다세대/연립 | 불가능 | 남 | 지적 | 지적 | 해뜨는양지IL |
| 20 | 금천구 탑골로 | 다세대/연립 | 불가능 | 남 | 자폐성 | 지적 | 구로IL |
| 21 | 성북구 화랑로 | 다세대/연립 | 불가능 | 남 | 지적 | 공실 | 중구길벗IL |
| 22 | 노원구 동일로 | 다세대/연립 | 불가능 | 여 | 지적 | 지적 | 신세계중랑IL |
| 23 | 구로구 고척로 | 다세대/연립 | 불가능 | 여 | 공실 | 공실 | 구로IL |
| 24 | 금천구 독산로 | 다세대/연립 | 불가능 | 남 | 지적 | 지적 | 금천IL |
| 25 | 금천구 독산로 | 다세대/연립 | 불가능 | 여 | 입주예정 | 공실 | 금천IL |
| 26 | 동대문구 한천로 | 다세대/연립 | 불가능 | 여 | 지적 | 지적 | 새날동대문IL |
| 27 | 강동구 양재대로 | 다세대/연립 | 불가능 | 남 | 지적 | 지적 | 해뜨는양지IL |
| 28 | 성북구 화랑로 | 다세대/연립 | 불가능 | 여 | 지적 | 지적 | IL판 |
| 29 | 강북구 삼양로 | 다세대/연립 | 불가능 | 남 | 지적 | 지적 | 노원중증IL |
| 30 | 강동구 명일로 | 다세대/연립 | 불가능 | 여 | 지적 | 지적 | 아우름강동장애인부모회 |
| 31 | 동대문구 답십리로 | 다세대/연립 | 불가능 | 남 | 지적 | 지적 | 새날동대문IL |
| 32 | 성동구 광나루로 | 다세대/연립 | 불가능 | 여 | 지적/지체 | 지적 | 성동IL |
| 33 | 관악구 서림로 | 다세대/연립 | 불가능 | 남 | 지적 | 지적 | 관악IL |
| 34 | 은평구 갈현로 | 다세대/연립 | 불가능 | 여 | 지적 | 지적 | 우리하나은평IL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의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거주시설에서는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당사자의 자립생활 욕구를 확인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자립생활 주택의 위치, 입주자 현황, 운영사업자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거주시설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할 주택을 선택하여 운영사업자와 일정을 조율한 후 당사자가 주택을 라운딩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당사자가 지원할 주택이 확정하면, 운영사업자는 서울시복지재단에 연계결과 공문을 제출한다.

주택운영사업자는 새롭게 신청한 당사자에게 개별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하고, 거주시설방문, 당사자 및 생활재활교사와의 상담을 1회 이상 실시한다. 또한, 당사자의 주택입주 및 초기적응을 지원하고자 사전입주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주택입주를 위한 개별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립생활주택 입주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13].

주택에 입주하여 입주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의 퇴거욕구를 확인하고 퇴거를 준비한다. 전환센터에서는 자립생활주택 퇴거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퇴거예정일 1년 전부터 퇴거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검토 및 공유한다. 운영사업자는 퇴거할 당사자의 이사준비를 지원하고, 사후지원계획을 수립한다.

13) 참석대상은 당사자, 내부 및 외부관계자(교수, 자치구, 복지재단, 유관서비스기관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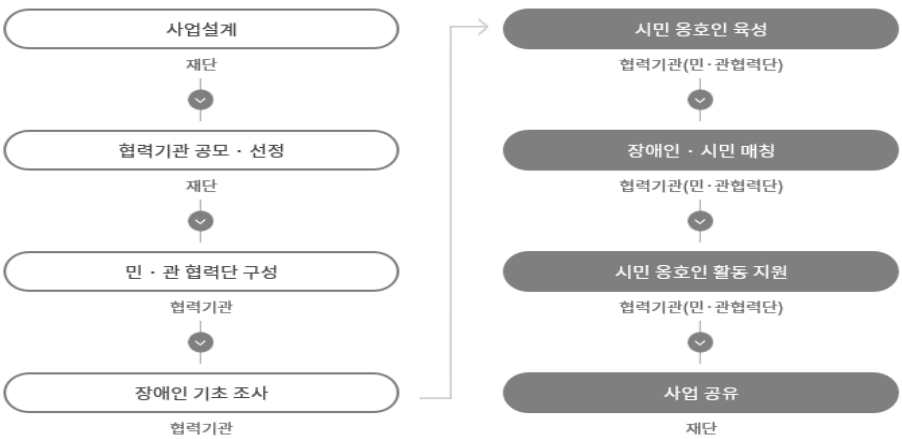
| 주체 | 이용절차 | 추진내용 |
|---|---|---|
| 거주시설 | 당사자 자립생활욕구 확인 | • 거주시설·IL 네트워크 사업 참여 등 |
| | ▼ | |
| | 정보제공 | • 홈페이지 운영현황 참조<br>(주택 우치, 입주자현황, 운영사업자 연락처 등) |
| | ▼ | |
| 거주시설/<br>주택<br>운영사업자 | 신청서 작성 | • 홈페이지 소통마당 참조<br>(서식/신청서 게시판) |
| | ▼ | |
| | 당사자 선택지원 | • 방문주택선택, 운영사업자와 방문일정조율<br>• 신청서 공문 제출(당사자 → 주택 운영사업자)<br>• 주택 라운딩 지원(공문 접수일자순) |
| | ▼ | |
| | 주택결정 | • 사전지원주택 확정(당사자·운영사업자)<br>• 연계결과 공문제출(운영사업자 → 재단) |
| 주택<br>운영사업자 | 사례회의 | • 개별자료 추가요청(주택운영사업자 → 당사자)<br>• 거주시설방문, 당사자 및 생활재활교사 상담<br>(1회 이상)<br>• 사례회의 개최(사전지원/타기관의뢰) |
| | ▼ | |
| | 사전입주지원 프로그램 | • 사전지원서비스 계약 및 실행<br>(주택입주 및 초기적응 지원) |
| | ▼ | |
| | 자립생활주택<br>입주지원위원회 | • 주택입주를 위한 개별지원방안 논의<br>• 참석대상 : 당사자, 내부 및 외부관계자<br>(교수, 자치구, 복지재단, 유관서비스기관) |
| | ▼ | |
| | 주택입주 | • 이사준비<br>(거주시설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연계준비,<br>운영사업자와 협력추진) |
| | ▼ | |
| | 퇴거준비 | • 당사자 퇴거욕구 확인. 주택 등 관련정보 탐색 |
| | ▼ | |
| 전환센터 | 자립생활주택<br>퇴거지원위원회 | • 퇴거예정일 최소 1년전 퇴거지원계획 수립<br>• 퇴거지원위원회 퇴거지원계획서 검토 및 공유 |
| | ▼ | |
| 운영사업자 | 주택퇴거 | • 이사준비, 사후지원계획 수립 |

[그림 2-5] 서울시 장애인 전환지원서비스 이용절차

### 2) 장애인 시민옹호활동가 육성사업(옹심이)

장애인의 일상적 삶 속에서 인권 침해 및 님비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역사회 내 재가 장애인을 위한 개별적 지원체계와 장기적으로 권익을 옹호할 기관이 부족하다. 이에 지역사회 내에서 친구처럼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해주는 시민 육성이 필요하여 옹심이를 추진하게 되었다. 옹심이란 장애인의 권익을 옹(옹)호하는 마음(심)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시민옹호활동가(옹심이)를 육성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재가 장애인을 매칭하여 지역 내 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생활 속 장애인 권익옹호를 지원하고 지역 통합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 내 옹심이를 육성하여 재가 장애인과 매칭 후 지역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하고, 권익 침해 사항 발견 시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며, 지역사회 내 재가 장애인의 권익 옹호적 환경을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 확장을 지원하다. 사업의 추진방법은 먼저 협력기관을 공모하고, 선정된 협력기관[14]이 지역 내 장애인 기초조사, 시민옹호인 모집 및 육성 매칭 및 활동 지원 등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민관협력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권익 침해사항을 이슈화하고 조정한다. 구체적인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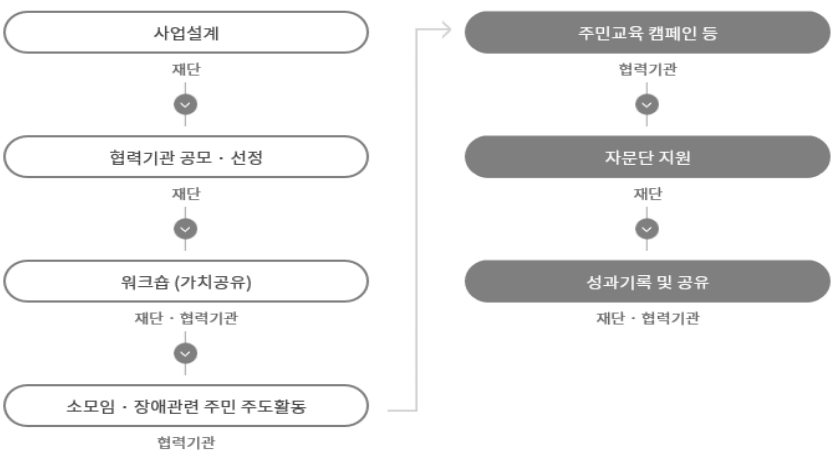



[그림 2-7] 장애인 시민옹호활동가 육성사업 추진절차

14) 수행기관은 총 4개로 강북구 1개(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성북구 2개(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성북장애인복지관), 중랑구 1개(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이다. (출처) https://www.welfacre.seoul.kr

### 3) 장애인 시민공동체 활동지원사업(Seoul Small Sparks)

서울스몰스파크(Seoul Small Sparks)는 작은 불꽃(Small Sparks)이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주민들이 함께 모여 지역 내에서 같이 활동하며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소규모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장애인 문제를 기존의 개인적 문제, 사례관리 대상자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 비장애인 참여, 공동체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추진 되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주민모임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지역 안에서 함께 통합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 추진방법은 첫째, 협력기관[15] 공모・선정, 소모임 및 장애관련 주민주도 활동 지원이다. 둘째, 사업비 지원, 워크숍, 간담회, 교육, 자문단 파견을 통해 협력기관 지원이다. 셋째, 상시적인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여 서울 시민이 참여하는 장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2-9] 장애인 시민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추진절차

15) 수행기관은 총 13개로 강남구 1개(충현복지관), 강서구 1개(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악구 1개(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노원구 1개(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도봉구 1개(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동대문구 1개(구리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동작구 4개(삼성소리샘복지관,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구 1개(성북장애인복지관), 중구 1개(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 중랑구 1개(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다. (출처) https://www.welfacre.seoul.kr

## 2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16)]

### 1) 배경 및 추진경과

장애인 지원주택은 지원주택 입주자에게 주거유지 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16년 8월 지원주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7월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2017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 없이 주거서비스만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하였다. 그리고 2018년 5월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공포함으로서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 계획을 수립(2019년 4월)하였다.

2019년 상반기, 3개 자치구(양천구, 구로구, 동대문구)에서 공급형 지원주택 24호와 서비스 제공기관 1개를 선정하여 장애인 당사자 32명이 입주하였다. 하반기에는 4개 자치구(양천구, 구로구, 강동구, 노원구)에 공급형 지원주택 44호와 서비스제공기관 2개를 선정하여 장애인 당사자 48명이 입주하였다. 2020년에는 4개 자치구(강동구, 성북구, 은평구, 양천구)에 공급형 지원주택 59호와 서비스 제공기관 4개를 선정하여 장애인 당사자 51명이 입주하였고, 2021년에는 공급형 지원주택 7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표 2-4〉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현황(2021년 9월말 기준)

| 공급 시기 | 운영기관(개) | 자치구(개) | 호수(호) | 입주자(명) | 종사자(명) |
|---|---|---|---|---|---|
| 계 | 5 | 7 | 127 | 131 | 82 |
| '19년 상반기 (24호) | 사복)프리웰 | 양천구 | 9 | 13 | 26 |
| | | 동대문구 | 9 | 9 | |
| | | 구로구 | 6 | 10 | |
| '19년 하반기 (44호) | 사복)프리웰 | 양천구 | 10 | 10 | |

16) 본 절은 2021년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계획(서울시, 2021)과 지원주택 운영 가이드(서울주택도시공사, 2019)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본 절은 강정배 외. (2020).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2020)의 Ⅱ장을 포괄적으로 발췌하여, 현행화 하였다.

| 공급 시기 | 운영기관(개) | 자치구(개) | 호수(호) | 입주자(명) | 종사자(명) |
|---|---|---|---|---|---|
| | | 구로구 | 10 | 13 | |
| | 사복)충현복지재단 | 강동구 | 12 | 14 | 18 |
| | | 노원구 | 12 | 11 | |
| '20년 하반기 (59호) | 사복)프리웰 | 양천구 | 2 | 2 | - |
| | 사복)엔젤스헤이븐 | 은평구 | 30 | 24 | 19 |
| | 사복)성민복지관 | 강동구 | 15 | 14 | 11 |
| | 사복)인강재단 | 성북구 | 12 | 11 | 8 |

주: 2021년 하반기 장애인지원주택 공급형 76호를 공급 할 예정임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

### 2) 지원주택 개념

지원주택은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를 결합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이다. 지원주택에서 제공되는 주거서비스는 지원주택 입주자 개인별 욕구에 따라 상시 또는 간헐적으로 제공하는 주거관리 및 생활관리 전반에 대한 서비스로서 지원주택 입주자 개인별 욕구에 따라 상시 또는 간헐적으로 제공하는 주거관리 및 생활관리 전반에 대한 서비스이다. 지원주택과 관련한 주거편의 사항으로는 현관·욕실 문턱제거, 안전손잡이, 센서 등 리모컨, 음성인식 가스차단기, 핸드레일 등이 있다. 또한 지원주택에는 코디네이터가 배치되어 입주자의 서비스를 계획하고 점검한다.

### 3) 입주 조건 및 선정 절차

#### (1) 입주 조건

장애인 지원주택의 입주 기본 조건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있는 자,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주거유지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17]이다. 입주조건은 크게 장애유형, 연령, 거주욕구, 지원욕구, 소득 및 자산기준 등으로 다음과 같다.

17)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장애인 및 서울시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독립거주(예정)자

〈표 2-5〉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조건

| 구 분 | 내 용 |
|---|---|
| 장애유형 | •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18]<br>•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1항에 해당되는 자[19] |
| 연령 | • 만 18세 이상<br>• 인권침해 및 시설폐지로 인해 입주 필요 시 만 18세 미만도 가능<br>(SH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 조건 우선)<br>※ 인권침해 - 인권옹호기관에서의 입주 의뢰 필수 |
| 거주욕구 | 지역사회 內 독립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원룸, 다세대 1실) |
| 지원욕구 | 독립생활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 |
| 소득 및 자산기준 | 공공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과 동일 |
| 기타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생활비 일체 본인 부담<br>• 임대보증금 : [시중전세가격(감정평가) × 30%] × 30%<br>• 임대료 : [시중전세가격(감정평가) × 30%] × 70% × 6.7% ÷ 12개월 |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입주대상으로 하고, 그 밖에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싶으나, 활동지원서비스만으로는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어 주거유지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지원 할 수 있다.

연령 조건은 만 18세 이상으로, 인권침해 및 시설폐지로 인해 입주 필요 시 만 18세 미만도 입주가 가능하다. 또한 지역사회 내 독립생활을 하고자 하는 거주 욕구가 있고, 독립생활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어야 한다.

소득 및 자산기준은 공공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과 동일하며, 기타

18) 「장애인복지법」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19) 「발달장애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조건으로 시설폐지로 지역거주 지원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장애인, 기존 지원주택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던 입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 하고 있다.

지원주택 입주자는 주택공급기관과 직접 계약을 하며, 기본 규칙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기본 규칙은 입주자의 안전과 안정적 생활을 위한 것이며, 제한 사항은 일반적인 주택계약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 지원주택 계약기간은 2년이며, 매 2년 단위로 갱신하여 최대 20년까지 계약이 가능하다.

〈표 2-6〉 지원주택 입주 관련 기본 규칙

- 임대료의 안정적 납부
- 입주자가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의 거주 공간 관리에 동의
- 입주자의 특성에 따라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를 주기적으로 만나야 함
  (주기적이란 1주일에 1회로 설정하되, 지원서비스제공기관과 입주자가 주기를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계약당사자 외에 장기간(1달 이상) 거주하는 동거인이 생길 경우, 주택공급기관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
- 가족관계(동거인 포함) 변동 등 개인 및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계획을 재수립 또는 조정할 수 있음을 입주자에게 알림
- 1주일 이상 주택을 비울 경우, 코디네이터에게 알림
- 병원방문 후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나 복용약물, 치료방법, 추후방문 등 병원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 코디네이터와 이야기함
- 함께 사는 다른 사람(동거인 포함)의 방(집)을 함부로 들어가지 않음
- 다른 입주자(동거인 포함)나 이웃에게 방해가 되는 소음 또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 입주자는 자타해 위험을 유발하지 않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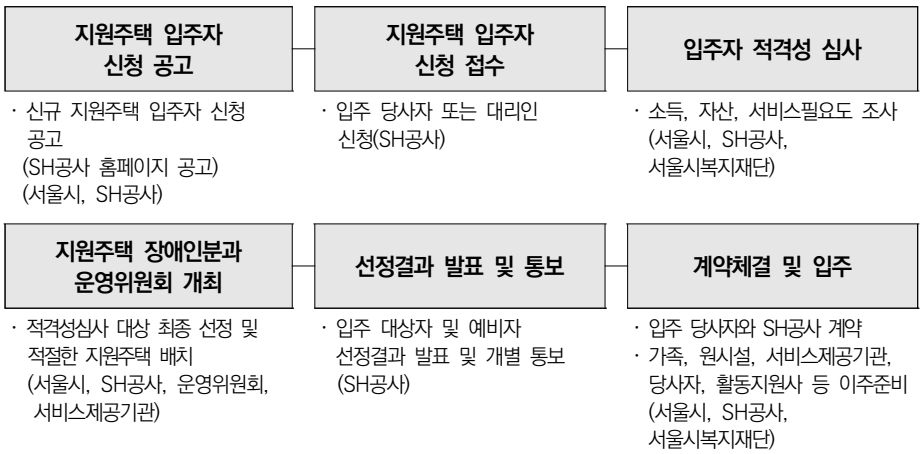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2019). 지원주택 운영 가이드.

### (2) 입주자 선정 절차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는 먼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주택 입주자 신청 공고를 내어 입주신청을 받고, 서울시 · SH공사 ·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입주자의 소득, 자산, 서비스필요도 조사를 통해 적격성 심사를 한다. 다음으로 지원주택 장애인분과 운영위원회[20]를 개최하여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고, 적절한 지원주택을 배치한다.[21]

20)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구성인원은 7명(당연직 1명, 위촉직 6명)임. 위원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함. 운영위원회는 입주자 및 서비스제공기관 서정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하며, 사업과 관련된 계획, 평가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후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자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개별 통보하여, 입주 당사자와 SH 공사간 계약을 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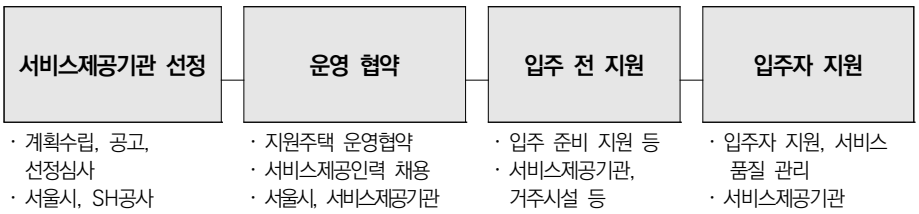



[그림 2-12]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

### 4)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내용 및 제공 절차

주거유지지원서비스는 지원주택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로, 입주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및 독립생활 보장을 원칙으로 제공한다. 입주자가 입주하기 전 서비스 제공기관은 입주 준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입주 후 14일 이내에 개인별서비스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21) 입주자 선정 권한은 서울시에 있으나 운영·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서비스 제공기관에 위임이 가능함. 입주자 선정기준은 시급성, 서비스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분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림 2-13]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

주거유지지원서비스는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①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② 주택시설관리 지원, ③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④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⑤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⑥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⑦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⑧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된다. 각 유형별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7〉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내용

(1)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① 입주 지원 서비스 : 지원주택 입주에 필요한 가구 구입, 임차인의 권리 등 초기 정착지원 서비스
② 개인별 서비스 계획(Individualized service plan for housing and independent living, ISP) : 주거생활과 독립생활을 위한 서비스 계획, 실행 및 점검
③ 퇴거지원서비스: 퇴거 이후에 주거 탐색 지원, 주거복지센터에 입주자를 의뢰하여, 퇴거 이후 주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뒤 입주자에게 제공

(2) 주택시설관리 지원
① 주택유지보수 확인 서비스 : 정기적인 방문이나 입주자의 요청에 의해 주택 내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 등 주택유지보수와 관련된 문제 확인
② 주택유지보수 서비스 연계 : 주택공급기관 혹은 주택유지보수업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지원

(3)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① 주거유지 및 퇴거예방 관련 서비스 : 공과금, 임대료 연체 관리 등을 통하여 주거유지와 관련한 문제 해결 지원

(4)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①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질환 입주자를 위한 동료상담지원서비스나 자조그룹 연계
② 알코올질환 거주자를 위한 폐해감소접근서비스

③ 정신적장애 거주자를 위한 회복기반서비스
④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용어, 책자 이용한 서비스 설명 및 제공
⑤ 노인들의 외로움 감소 및 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

(5)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① 신체적인 건강 및 정신건강 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 : 각 질환에 따른 약물복용 및 관리, 병원 동행, 운동 지원 등 건강유지 지원
② 증상에 대한 치료 등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연계 :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스템 연계, 정신건강 치료 전문가들과 연계, 지역 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과 연계된 건강관리 지원

(6)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① 재정관리 지원서비스 : 월 급여 또는 수급비 등 수입에 따른 예산계획/소비, 지출관리를 통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관리 지원
② 고용/교육지원 서비스 연계 :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관 등과 연계하여 고용지원 및 취업유지 서비스

(7)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종교활동, 지역사회 마을활동 연계 등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서비스 연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① 일상생활 및 주거내부환경 유지를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 식생활 유지, 개인위생 및 청결 유지, 주거내부환경 유지 등 일상생활 유지 지원
② 사회복지 제도 수급 신청 및 연계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 수당 등 정부보조금 신청 지원, 법적 지원 등
③ 정서지원 서비스 : 정기적 방문을 통하여 정서적 교류 및 필요시 상담 지원
④ 위기관리지원서비스
- 질환의 재발, 중독 등 건강 문제, 갈등관리, 기타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를 위한 위기관리 시스템 유지(예: 24시간 응급안전망 체계 구축)
- 지원주택 입주시 관련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와 입주자 사이에서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의사, 보호자, 관련 사람들의 연락처를 공유함
- 노인의 경우, 생명 관련한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의 인력이 직접 입주자의 방을 확인할 수 있음
⑤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 지역사회 복지관 등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필요한 입주자의 욕구에 기반한 사회복지서비스(예, 이동, 영양, 긴급재정지원, 법적, 위기중재) 연계
⑥ 행정지원서비스 연계: 주민센터 등과 연계하여 행정서비스 이용 지원
⑦ 기타 휴먼서비스 전문분야와 네트워크 구축
⑧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는 직간접 서비스 제공을 우선으로 하되, 기존 서비스(재가, 요양서비스 등) 부족시 직접 제공할 수 있음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2019). 지원주택 운영 가이드.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 5)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인력

지원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인력은 크게 운영총괄(총괄), 수퍼바이저(사례관리, 행정업무 담당), 주거코디네이터(사례관리, 직접서비스, 행정업무 겸임), 서비스제공기관 행정인력(행정업무 담당)이다. 상기 인력은 정규인력이며 이 인력 외에 원활한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주거코치를 채용한다. 운영인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2-8〉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인력 자격기준

〈운영총괄, 수퍼바이저〉
-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에서 이에 준하는 실무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자
- 사회복지관련 석사 이상 소지자로서 지원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5년 이상 경험을 가진 자 우선 고려

〈주거코디네이터〉
- 사회복지사 1급, 혹은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에서 이에 준하는 실무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자
- 사회복지관련 석사 이상 소지자로서 지원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3년 이상 경험을 가진 자 우선 고려

인력 배치 기준은 입주자의 활동보조시간 · 장애특성 · 서비스 욕구 등에 따라 배치한다. 일반적으로 운영기관당 운영총괄 1명, 행정인력 1명이며, 수퍼바이저는 공급시기별 주택총량 대비 1~2명을 배치한다. 주거코디네이터와 입주자의 비율은 가급적 1:6명 이하로 유지하며, 정규직 인력과 활동지원사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거코치를 추가적으로 배치한다.

## 3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계획[22)]

### 1) 개요

서울시의 1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으로 실시되었다. 2차 5개년 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1차('13~'17)에는 탈시설 목표인원인 600명 중 604명이 탈시설 하여 계획대비 100.6%를 달성하였다. 특히 전국 최초 선도적 탈시설 정책 추진으로 정부차원의 탈시설 정책 추진 견인 및 타지자체에 사업 확산 등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증진 기여하였으며,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탈시설 지원모델 개발 및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추진을 통해 탈시설 대상 확대, 탈시설 인식 향상, 시설 입소 예방 등 탈시설 추진 분위기를 확산하게 되었다.

반면 탈시설의 목표, 개념, 방법 등에 대한 장애인 운동단체와의 차이로 인해 공동생활가정의 인원 산정 유무에 따라 1차 계획의 목표인원 대비 실적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1차 계획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2차 계획을 수립하였다.

2차 계획은 장애인거주시설 41개소(2,137명)[23)]를 대상으로 2022년까지 800명 탈시설, 거주시설 변환 2개소를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탈시설 가속화 및 거주시설 변환 중심을 목표로 탈시설 지원체계 내실화, 시설입소예방, 거주시설 변환 시범, 지역정착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 1차 도입기('13~'17) | 2차발전기('18~'22) | 3차 확대기('23~) |
|---|---|---|
| • 자립체험공간 확보<br>• 탈시설 인식 조성 | • 탈시설 가속화<br>• 거주시설 변환 시범 | • 지역 거주정책 다양화<br>• 거주시설 변환 확대 |

[그림 2-16]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추진방향

22) 본 절은 서울시의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2017.12.)과「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2021년 시행계획(2021.3.)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본 절은 강정배 외. (2020).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2020)의 Ⅱ장을 포괄적으로 발췌하여, 현행화 하였다.

23) 장애영유아시설 2개소 제외

## 2) 서울시 탈시설의 정책적 개념정의

**〈정책 개념 정의〉**

❖ 탈시설화?
거주시설 장애인들이 당사자의 서비스 욕구 및 장애특성에 맞게 자립생활을 영위하며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시책
- 민·관 협치, 단계별 · 수행과제별 추진계획 수립, 제도 보완 · 마련 등을 통하여 실현

## 3) 정책비전 및 목표

| | |
|---|---|
| **비전** | **탈시설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통합** |
| **성과 목표** | **탈시설 가속화 및 거주시설의 변환 도모** |
| **추진 방향** | ▸ 일부(인지능력이 있는 지체·뇌병변장애인 중심) ➡ 전체(장애정도 및 종류 무관)<br>▸ 탈시설 과정 지원(자립이후 지원 미흡) ➡ 탈시설 환경 마련(지역 거주모형 확대, 사후관리)<br>▸ 일방(관주도, 시설 참여 미흡) ➡ 상호(협치 구조 마련, 시설 內 자립준비 강화)<br>▸ 소극적(신청자에 의존) ➡ 적극적(거주시설운영 개선, 거주시설 변환방안 모색) |
| **추진 전략** | 자립 동기 부여, 당사자 중심의 자립 지원<br>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개선<br>재가 장애인 시설입소 예방<br>탈시설 장애인 정착 지원 강화<br>정책 논의 협력 체계 구축<br>장애인거주시설 변환방안 마련 |

**정책과제 : 4개**
(세부과제 : 25개)

1. 탈시설 추진 강화 및 전환 지원체계 개선(8개)
2. 재가 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3개)
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개선 및 시설변환(7개)
4.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7개)

## 4) 과제별 세부추진계획(2021년 기준)

| 정책과제 | 세부과제(정상추진 21, 완료 2, 중단 2) | 추진상황 | 추진기관 |
|---|---|---|---|
| 1. 탈시설 정책 추진 강화 및 전환지원 체계 개선 (8개 사업) | ① 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 | 사업 완료[1] | 서울시 |
| | ② 탈시설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정상 추진 | 서울시 |
| | ③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개선 | 정상 추진 | 복지재단 |
| | ④ 자립생활주택 이용기간 및 절차 개선 | 사업 완료[2] | 서울시·복지재단 |
| | ⑤ 자립생활주택 지속 확대 | 정상 추진 | |
| | ⑥ 탈시설 체험 전용 주택 운영 | 사업 중단[3] | |
| | ⑦ 자립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확대 | 정상 추진 | 복지재단 |
| | ⑧ 지역별 서비스 연계 체계 마련 | 정상 추진 | 서울시·복지재단 |
| 2. 재가 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3개 사업) | ⑨ 발달장애인 신 거주모형 개발 | 정상 추진 | 서울시 |
| | ⑩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 확대 | 정상 추진 | 서울시 |
| | ⑪ 지원주택「통합서비스」확대 | 정상 추진 | 서울시 |
| 3. 장애인거주 시설 운영 개선 및 시설 변환 (7개 사업) | ⑫ 시설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수립 의무화 | 정상 추진 | 거주시설 |
| | ⑬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 정상 추진 | 서울시·거주시설 |
| | ⑭ 거주시설 장애인 정기 탈시설 욕구조사 | 정상 추진 | 복지재단 |
| | ⑮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의무 실시 | 정상 추진 | 서울시 |
| | ⑯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체험홈」확대 | 사업 중단[4] | |
| | ⑰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운영 | 정상 추진 | 서울시 |
| | ⑱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 운영 | 정상 추진 | 서울시 |
| 4.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7개 사업) | ⑲ 탈시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정상 추진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 | ⑳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 정상 추진 | 서울시·자치구 |
| | ㉑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 정상 추진 | 서울시 |
| | ㉒ (수급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확대 | 정상 추진 | 서울시 |
| | ㉓ (비수급 장애인) 초기 정착 생계비 지원 | 정상 추진 | 서울시 |
| | ㉔ 탈시설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 정상 추진 | 서울시 |
| | ㉕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 정상 추진 | 서울시·복지재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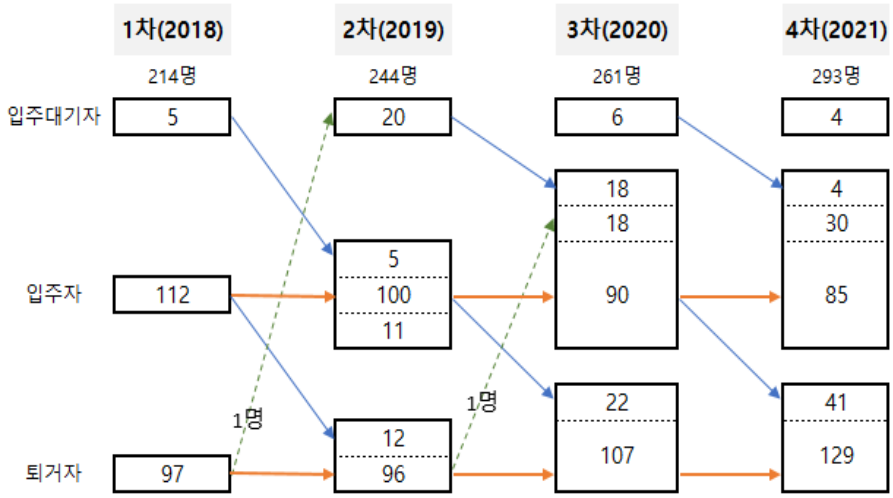
1) '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 완료('18.1월)
2) 자립생활주택 이용기간 개선('20.4월): 최장 7년→2년(2년 범위 1회 연장가능)
3) 운영상 부담(거주시설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 미지원)으로 사업 중단(1개소 자립생활주택으로 변경, 1개소 SH공사에 반납처리)
4) 보건복지부 지침변경(기능보강비 미지원)으로 사업 중단(⇒ 현행 유지)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 Ⅲ. 조사개요 및 조사표

## 1 자립생활주택 이용 현황[24]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이 지역사회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측면을 파악하고자 2018년 기준으로 자립생활주택 이용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중심[25]으로 1:1 대면면접 방식의 조사[26]를 실시한다. 서울시와 서울시 복지재단의 협조를 받아 시설 퇴소 후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한 대상자 정보를 추출하였다. 조사대상은 2018년 조사에 참여한 144명과 지난 조사 이후 자립생활주택 입주가 결정되어 생활하고 있는 입주자 및 입주대기자를 포함한 293명[27] 이다. 이중에서 2021년 신규 조사 대상자는 총 34명(입주대기자 4명, 입주자 30명) 이다.




[그림 3-2] 연구대상자 현황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립생활주택의 2021년 이용자는 총 293명이다. 여기서 사망자와 자립생활주택 이용 후 시설로 복귀한 인원은 제외하

24) 2021년 6월 30일 기준
25) 2018년 1차 년도에 실시한 생활시간조사와 질적 조사를 위한 인터뷰는 2019년 조사에서 부터는 실시하지 않는다. 생활시간조사를 제외한 사유는 조사시간이 오래 필요한데 반해,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분석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많은 예산의 투입이 필요한바 2019년 2차 조사 부터는 제외하였다. 질적 인터뷰 또한 연차비교 중심의 연구와 상이한바 조사방식에서 제외한다.
26) 2021년 조사는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조사가 병행되었다.
27) 사망자 8명은 제외하였다.

였다.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한 이후 지역사회에 자립한 인원(퇴거자)은 170명이며,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하고 있는 입주자는 119명이다.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대기자 4명을 포함하면 조사대상은 총 293명이다. 입주대기자, 입주자, 퇴거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1〉 자립생활주택 이용 특성(2021년)

| 구분 | 인원(명) | 비율(%) |
|---|---|---|
| 입주대기자 | 4 | 1.4 |
| 입주자 | 119 | 40.6 |
| 퇴거자 | 170 | 58.0 |
| 전체 | 293 | 100.0 |

〈표 3-2〉 자립생활주택 이용자 성별 및 연령(2021년)

| 연령대 | 인원(명) | 비율(%) | 성별 | 인원(명) | 비율(%) |
|---|---|---|---|---|---|
| 20대 | 57 | 19.5 | 남자 | 191 | 65.2 |
| 30대 | 87 | 29.7 | 여자 | 102 | 34.8 |
| 40대 | 73 | 24.9 | 전체 | 293 | 100.0 |
| 50대 이상 | 76 | 25.9 | | | |
| 전체 | 293 | 100.0 | | | |

〈표 3-3〉 자립생활주택 이용자 장애유형(2021년)

| 성별 | 인원(명) | 비율(%) |
|---|---|---|
| 지적장애 | 165 | 56.3 |
| 뇌병변장애 | 77 | 26.3 |
| 지체장애 | 40 | 13.7 |
| 청각장애 | 4 | 0.3 |
| 시각장애 | 3 | 1.0 |
| 정신장애 | 1 | 0.3 |
| 자폐성장애 | 2 | 0.7 |
| 언어장애 | 4 | 1.4 |
| 전체 | 293 | 100.0 |

주) 주장애유형을 기준으로 함

## 2 조사표 변경사항

1-3차 조사를 통해 조사표의 보완 필요성과 조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문항의 추가 및 변경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기본적인 조사 내용은 유지하되 일부 문항에 대한 항목 추가, 특정 문항 추가 과정을 진행하였다.

### (1) 조사문항 변경

장애인관련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문항의 경우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장애 관련 복지서비스에 대한 응답범주를 추가하였다. 서울시에서는 탈시설 장애인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세자금지원[28], 비수급자 초기정착 생계비 지원[29],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30] 등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서비스와 더불어 서울시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가해 이용경험 여부와 만족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28) 서울시 장애인전세자금지원은 탈시설 장애인 지원 확대를 위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 보증금을 일정 기간 무료로 제공하여 주거제공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 지원 대상: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중증 장애인(중복장애 포함)이고,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이하), 임차거주(전·월세, 무료임차)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지원 내용: 2인 이하 가구 최대 160백만원 이하, 3인 이상 가구 최대 170백만원 지급, 최대 6년까지 지원(2년 기준 2회 연장 가능)

* 해당 내용은 서울복지포털 사이트 관련 내용 및 「송인주, 오문준, 이경란, 고은.(2020).지원주택 운영지원 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발췌하여 작성함.

29) 서울시 비수급자 초기정착 생계비 지원 사업은 생계비 부담으로 탈시설을 꺼리는 비수급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초기 정착 생계비를 지원하여 탈시설 동기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 지원 대상: 탈시설 장애인중 비수급자(수급권자 및 서울형기초보장 대상자 제외)
- 지원 내용: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생계비 지원금에 준용(1인 274,175원/월, '21년 기준)하여 최대 1년간 지원

* 해당 내용은 서울복지포털 사이트 및「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2021년 시행계획(2021.3.)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함.

30)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사업은 탈시설 장애인에게 정착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 지역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 지원 대상: 지역정착을 준비 중이거나 완료한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으로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내용: 퇴소 전 또는 퇴소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하며, 13,000천원 지급(1회)

* 해당 내용은 서울복지포털 사이트 및「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2021년 시행계획(2021.3.)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함.

○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기존</td><td>문) 다음 장애인관련 복지서비스 중 이용한 경험이 있는 서비스와 그에 따른 만족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후략)
<table>
<tr><th rowspan="2">복 지 정 보</th><th colspan="2">이용경험</th><th colspan="3">만족도</th></tr>
<tr><th>있음</th><th>없음</th><th>매우 불만족</th><th>…</th><th>매우 만족</th></tr>
<tr><td>1. 장애인 연금</td><td>1</td><td>2</td><td>1</td><td>…</td><td>4</td></tr>
<tr><td>⋮</td><td>1</td><td>2</td><td>1</td><td>…</td><td>4</td></tr>
<tr><td>21.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td><td>1</td><td>2</td><td>1</td><td>…</td><td>4</td></tr>
<tr><td>22. 기타(　　)</td><td>1</td><td>2</td><td>1</td><td>…</td><td>4</td></tr>
</table></td></tr>
<tr><td>변경사유</td><td>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제도 및 서비스들에 대한 관련 서비스 추가</td></tr>
<tr><td>변경</td><td>문) 다음 장애인관련 복지서비스 중 이용한 경험이 있는 서비스와 그에 따른 만족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후략)
<table>
<tr><th rowspan="2">복 지 정 보</th><th colspan="2">이용경험</th><th colspan="3">만족도</th></tr>
<tr><th>있음</th><th>없음</th><th>매우 불만족</th><th>…</th><th>매우 만족</th></tr>
<tr><td>1. 장애인 연금</td><td>1</td><td>2</td><td>1</td><td>…</td><td>4</td></tr>
<tr><td>⋮</td><td>1</td><td>2</td><td>1</td><td>…</td><td>4</td></tr>
<tr><td>21.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td><td>1</td><td>2</td><td>1</td><td>…</td><td>4</td></tr>
<tr><td>22.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지원</td><td>1</td><td>2</td><td>1</td><td>…</td><td>4</td></tr>
<tr><td>23. 장애인전세자금지원</td><td>1</td><td>2</td><td>1</td><td>…</td><td>4</td></tr>
<tr><td>24. 비수급자 초기정착 생계비 지원</td><td>1</td><td>2</td><td>1</td><td>…</td><td>4</td></tr>
<tr><td>25.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td><td>1</td><td>2</td><td>1</td><td>…</td><td>4</td></tr>
<tr><td>26. 기타(　　)</td><td>1</td><td>2</td><td>1</td><td>…</td><td>4</td></tr>
</table></td></tr>
</table>

### (2) 코로나19관련 문항 추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탈시설 장애인의 코로나19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기존 문항에 코로나19 영향력 문항을 추가하거나 신규 문항을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에서 코로나19 조사문항을 추가하였다. 기존 조사표의 영역별 삶의 만족도 관련 문항에 만족도가 낮다(0~4점)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코로나19와 관련 여부를 묻는 하위문항을 추가하였다. 해당 영역은 건

강, 수입, 직업, 사회적 관계, 전반적 삶의 만족도이다.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기존</td><td>문) 다음은 현재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후략).
<table>
<tr><th rowspan="2">영역</th><th colspan="3">만족도</th><th rowspan="2">해당없음</th></tr>
<tr><th>매우 불만족</th><th>…</th><th>매우 만족</th></tr>
<tr><td>1. 건강</td><td>1</td><td>…</td><td>10</td><td></td></tr>
<tr><td>2. 수입</td><td>1</td><td>…</td><td>10</td><td>0</td></tr>
<tr><td>3. 주거환경</td><td>1</td><td>…</td><td>10</td><td></td></tr>
<tr><td>4. 학교생활(평생교육 포함)</td><td>1</td><td>…</td><td>10</td><td>0</td></tr>
<tr><td>5. 직업</td><td>1</td><td>…</td><td>10</td><td>0</td></tr>
<tr><td>6. 결혼생활</td><td>1</td><td>…</td><td>10</td><td>0</td></tr>
<tr><td>7. 사회적 관계</td><td>1</td><td>…</td><td>10</td><td></td></tr>
<tr><td>8. 전반적 삶의 만족도</td><td>1</td><td>…</td><td>10</td><td></td></tr>
</table></td></tr>
<tr><td>변경</td><td>문) 다음은 현재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후략).
<table>
<tr><th rowspan="2">영역</th><th rowspan="2">해당 없음</th><th colspan="3">만족도</th><th colspan="2">불만족하신 이유가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습니까?</th></tr>
<tr><th>매우 불만족</th><th>…</th><th>매우 만족</th><th>있음</th><th>없음</th></tr>
<tr><td>1. 건강</td><td></td><td>1</td><td>…</td><td>10</td><td>1</td><td>2</td></tr>
<tr><td>2. 수입</td><td>0</td><td>1</td><td>…</td><td>10</td><td>1</td><td>2</td></tr>
<tr><td>3. 주거환경</td><td></td><td>1</td><td>…</td><td>10</td><td></td><td></td></tr>
<tr><td>4. 학교생활(평생교육 포함)</td><td>0</td><td>1</td><td>…</td><td>10</td><td></td><td></td></tr>
<tr><td>5. 직업</td><td>0</td><td>1</td><td>…</td><td>10</td><td>1</td><td>2</td></tr>
<tr><td>6. 결혼생활</td><td>0</td><td>1</td><td>…</td><td>10</td><td></td><td></td></tr>
<tr><td>7. 사회적 관계</td><td></td><td>1</td><td>…</td><td>10</td><td>1</td><td>2</td></tr>
<tr><td>8. 전반적 삶의 만족도</td><td></td><td>1</td><td>…</td><td>10</td><td>1</td><td>2</td></tr>
</table></td></tr>
</table>

신규문항으로는 코로나19 감염확산 기간에 경험한 방역 관련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앞으로의 어려움에 대한 문항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신규문항</td><td>
문)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에 방역 관련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table>
<tr><th>영역</th><th>전혀 어려움 없음</th><th>다소 어려웠음</th><th>상당히 어려웠음</th></tr>
<tr><td>1) 정보 획득(감염 발생현황, 방역지침 등)</td><td>1</td><td>2</td><td>3</td></tr>
<tr><td>2) 방역장비 구비·이용(마스크, 손소독제의 구매 및 이용 등)</td><td>1</td><td>2</td><td>3</td></tr>
</table>
문) 코로나19로 인해 앞으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br><br>
1) 걱정되는 부분 없음<br>
2) 교육·훈련 지연, 중단<br>
3) 감염위험이나 건강상의 문제<br>
4) 여가생활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br>
5) 사회서비스 이용(예: 활동지원서비스, 돌봄 등)에서의 어려움<br>
6) 기타(  )
</td></tr>
</table>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 Ⅳ. 장애인 탈시설 조사결과(4차)

## 1 조사대상자 특성

2021년 6월 30일 기준 서울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예정이거나 자립생활주택 이용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293명이다[31]. 자립생활주택 이용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와, 자립생활주택에서 퇴소한 퇴거자로 구분한다.[32] 조사모집단은 주소 불명 등으로 조사 불가능한 68명을 제외한 225명으로 정의한다. 조사대상자 정보는 서울시와 서울시 복지재단의 협조를 통해 확보하였으며, 리스트에는 자립생활주택 이용 유형(입주대기자, 입주자, 퇴거자), 성, 장애유형, 생년월일, 주소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 조사대상자 정보 | |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2개) | 이용자 등(입주대기자, 입주자), 퇴거자 |
| 성별 (2개) | 남자, 여자 |
| 장애유형 (8개) | 지체, 뇌병변, 청각, 시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

주어진 리스트 정보에 기반한 조사대상자 분포는 다음과 같다. 입주자가 전체의 52.9%이며, 남자가 65.3%를 차지한다. 입주대기자와 입주자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전체의 78.0%가 지적, 13.8%가 뇌병변이다.

〈표 4-1〉 2021년 조사대상자 현황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 성별 | | 장애유형 | | | 연령대 | |
|---|---|---|---|---|---|---|---|---|
| 입주대기자 | 2 | 남자 | 147 | 신체적 장애 | 지체 | 30 | 20대 이하 | 59 |
| 입주자 | 121 | 여자 | 78 | | 뇌병변 | 51 | 30대 | 55 |
| 퇴거자 | 102 | 계 | 225 | | 시각 | 2 | 40대 | 59 |
| 계 | 225 | | | | 언어 | 1 | 50대 이상 | 52 |
| | | | | 정신적 장애 | 지적 | 138 | 계 | 225 |
| | | | | | 자폐성 | 2 | | |
| | | | | | 정신 | 1 | | |
| | | | | 계 | | 225 | | |

31) 사망자4명, 입소대기 중 입소를 포기한 4명 제외함
32)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할 예정인 경우는 “입주대기자”, 조사기간 현재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입주자”, 자립생활주택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퇴거자”로 정의한다.

## 2 일반 현황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2021년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 참여에 동의하여 최종 조사 완료된 인원은 171명이다.[33] 조사 완료한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는 입주대기자와 입주자를 '이용자 등'으로 분류한다.

〈표 4-2〉 응답자(패널) 특성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비율 |
|---|---|---|---|
| 전체 | | 171 | 100.0 |
| 성별 | 남성 | 105 | 61.4 |
| | 여성 | 66 | 38.6 |
| 연령 | 20대 이하 | 43 | 25.1 |
| | 30대 | 41 | 24.0 |
| | 40대 | 46 | 26.9 |
| | 50대 | 29 | 17.0 |
| | 60대 이상 | 12 | 7.0 |
| 최종학력 | 초등학교 졸업 | 28 | 16.4 |
| | 중학교 | 22 | 12.9 |
| | 고등학교 | 71 | 41.5 |
| | 전문대 이상 | 11 | 6.4 |
| | 무학 | 39 | 22.8 |
| 장애유형 | 신체적 장애* | 58 | 33.9 |
| | 정신적 장애** | 113 | 66.1 |
| 장애정도 | 장애정도가 심한장애 | 168 | 98.2 |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3 | 1.8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63.7 |
| | 퇴거자 | 62 | 36.3 |

* 신체적장애: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 정신적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 이용자 등: 자립생활주택 입주대기자, 입주자

33) 조사모집단 225명 중 171명 조사를 완료하였다. 응답률은 76.0%이다.

### (1) 성별

응답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61.4%)이 '여성'(38.6%) 대비 22.8%p 높게 나타났다. 전년도(남성 69.2%, 여성 30.8%) 대비 남성의 비율은 다소 감소, 여성은 증가하여 성차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성별에 따른 장애유형,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남자 | 여자 |
|---|---|---|---|---|
| 해당 연도 | 2018년 | 144 | 70.8 | 29.2 |
| | 2019년 | 152 | 66.4 | 33.6 |
| | 2020년 | 159 | 69.2 | 30.8 |
| | 2021년 | 171 | 61.4 | 38.6 |

장애 유형에 따른 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신체적 장애의 경우 '남성'이 77.6%로 '여성' 22.4%보다 55.2%p 높았고, 정신적 장애의 경우 역시 '남성'이 53.1%로 '여성' 46.9%보다 6.2%p 높았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살펴보면, '이용자 등'과 퇴거자 모두에서 '남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이용자 등'의 경우 '남성'이 51.4%로 '여성' 48.6%보다 2.8%p 높았고, 퇴거자의 경우에도 '남성'이 79.0%로 '여성' 21.0%보다 58.1%p 높게 나타났다.

〈표 4-4〉 성별에 따른 장애유형,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단위:명, %)

| 구분 | | 사례수 | 남자 | 여자 |
|---|---|---|---|---|
| 전체 | | 171 | 61.4 | 38.6 |
| 성별 | 남성 | 105 | 100.0 | 0.0 |
| | 여성 | 66 | 0.0 | 10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77.6 | 22.4 |
| | 정신적장애 | 113 | 53.1 | 46.9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51.4 | 48.6 |
| | 퇴거자 | 62 | 79.0 | 21.0 |

### (2) 연령

조사대상자의 연령대별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40대'가 2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20대(19~29세)'(25.1%), '30대'(24.0%), '50대'(17.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이 전체의 7.0%로 가장 낮았다.

연도별로 보면, 전체 평균 연령은 40.6세로 나타났으며, 전년도(평균 41.0세) 대비 다소 낮아졌다.

〈표 4-5〉 연령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19-29세 | 30대 | 40대 | 50대 | 60세 이상 | 평균(세) |
|---|---|---|---|---|---|---|---|---|
| 해당 연도 | 2018년 | 144 | 22.9 | 25.0 | 26.4 | 16.7 | 9.0 | 40.7 |
| | 2019년 | 152 | 27.6 | 23.7 | 26.3 | 15.8 | 6.6 | 39.1 |
| | 2020년 | 159 | 26.4 | 20.8 | 27.7 | 17.0 | 8.2 | 41.0 |
| | 2021년 | 171 | 25.1 | 24.0 | 26.9 | 17.0 | 7.0 | 40.6 |

성별 연령대 구성비는 남성의 경우 '40대'가 27.6%로 가장 많았고, 여성의 경우 '20대(19~29세)'가 27.3%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연령대 구성에서는 신체적 장애의 경우 '30대'가 24.1%, 정신적 장애의 경우 '40대'가 3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의 경우 '20대(19~29세)'가 32.1%로, 퇴거자의 경우 '40대'가 29.0%로 가장 많았다.

〈표 4-6〉 연령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19-29세 | 30대 | 40대 | 50대 | 60세 이상 | 평균(세) |
|---|---|---|---|---|---|---|---|---|
| 전체 | | 171 | 25.1 | 24.0 | 26.9 | 17.0 | 7.0 | 40.6 |
| 성별 | 남성 | 105 | 23.8 | 22.9 | 27.6 | 16.2 | 9.5 | 41.6 |
| | 여성 | 66 | 27.3 | 25.8 | 25.8 | 18.2 | 3.0 | 38.9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20.7 | 24.1 | 20.7 | 19.0 | 15.5 | 43.5 |
| | 정신적장애 | 113 | 27.4 | 23.9 | 30.1 | 15.9 | 2.7 | 39.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32.1 | 25.7 | 25.7 | 13.8 | 2.8 | 37.7 |
| | 퇴거자 | 62 | 12.9 | 21.0 | 29.0 | 22.6 | 14.5 | 45.6 |

### (3) 최종학력

최종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등학교'가 4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무학(만 7세 이상)'(22.8%), '초등학교'(16.4%), '중학교'(12.9%), '4년제 이상의 대학교'(4.7%), '3년제 이하의 전문대'(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7〉 최종학력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3년제 이하) | 대학교(4년제 이상) | 무학(만 7세 이상) |
|---|---|---|---|---|---|---|---|---|
| 해당 연도 | 2018년 | 144 | 20.1 | 13.2 | 40.3 | 6.9 | 3.5 | 16.0 |
| | 2019년 | 152 | 15.1 | 11.8 | 40.8 | 2.0 | 3.9 | 26.3 |
| | 2020년 | 159 | 18.2 | 15.1 | 40.3 | 3.1 | 5.7 | 17.6 |
| | 2021년 | 171 | 16.4 | 12.9 | 41.5 | 1.8 | 4.7 | 22.8 |

성별 최종학력 구성비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고등학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고등학교' 비율은 '남성'은 39.0%, '여성'의 경우 45.5%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장애의 경우 '고등학교' 비율은 32.8%, 정신적 장애의 경우 '고등학교' 비율은 46.0%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고등학교'의 비율은 이용자 등의 경우 45.9%이며, 퇴거자는 33.9%로 나타났다.

〈표 4-8〉 최종학력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3년제 이하) | 대학교(4년제 이상) | 무학(만 7세 이상) |
|---|---|---|---|---|---|---|---|---|
| 전체 | | 171 | 16.4 | 12.9 | 41.5 | 1.8 | 4.7 | 22.8 |
| 성별 | 남성 | 105 | 15.2 | 11.4 | 39.0 | 1.9 | 5.7 | 26.7 |
| | 여성 | 66 | 18.2 | 15.2 | 45.5 | 1.5 | 3.0 | 16.7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19.0 | 13.8 | 32.8 | 3.4 | 13.8 | 17.2 |
| | 정신적장애 | 113 | 15.0 | 12.4 | 46.0 | 0.9 | 0.0 | 25.7 |
| 자립생활 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11.9 | 10.1 | 45.9 | 1.8 | 5.5 | 24.8 |
| | 퇴거자 | 62 | 24.2 | 17.7 | 33.9 | 1.6 | 3.2 | 19.4 |

## 2) 장애 특성

### (1) 장애 발생원인

장애 발생원인으로는 '선천적 원인'이라는 응답이 7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후천적 원인'(16.4%), '출생 시 원인'(6.4%)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9〉 장애 발생원인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선천적 원인 | 출생 시 원인 | 후천적 원인 | 모름/ 무응답 |
|---|---|---|---|---|---|---|
| 해당 연도 | 2018년 | 144 | 59.7 | 5.6 | 27.1 | 7.6 |
| | 2019년 | 152 | 80.9 | 0.7 | 18.4 | 0.0 |
| | 2020년 | 159 | 73.0 | 5.7 | 21.4 | 0.0 |
| | 2021년 | 171 | 77.2 | 6.4 | 16.4 | 0.0 |

남성의 경우 '선천적 원인'(76.2%), '후천적 원인'(17.1%), '출생 시 원인'(6.7%), 여성의 경우 같은 항목에 대해 각각 78.8%, 15.2%, 6.1%로 응답하였다.

장애유형별 장애 발생 원인에 대해 신체적 장애의 경우 '선천적 원인'(63.8%), '후천적 원인'(27.6%), '출생 시 원인'(8.6%)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는 '선천적 원인'(84.1%), '후천적 원인'(10.6%), '출생 시 원인'(5.3%)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의 경우 85.3%, 퇴거자는 62.9%가 '선천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장애 발생원인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선천적 원인 | 출생 시 원인 | 후천적 원인 |
|---|---|---|---|---|---|
| 전체 | | 171 | 77.2 | 6.4 | 16.4 |
| 성별 | 남성 | 105 | 76.2 | 6.7 | 17.1 |
| | 여성 | 66 | 78.8 | 6.1 | 15.2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63.8 | 8.6 | 27.6 |
| | 정신적장애 | 113 | 84.1 | 5.3 | 10.6 |
| 자립생활 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85.3 | 7.3 | 7.3 |
| | 퇴거자 | 62 | 62.9 | 4.8 | 32.3 |

### (2) 후천적 장애 발생 시기

장애 발생원인이 후천적인 경우의 장애 발생 시기를 살펴보면, '출생 후 20년 이상'(42.9%)이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출생 후 5년 이내'(25.0%), '출생 후 20년 이내'(17.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1〉 후천적 장애 발생 시기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출생 후 5년 이내 | 출생 후 10년 이내 | 출생 후 20년 이내 | 출생 후 20년 이상 | 모름/무응답 | 평균(년) |
|---|---|---|---|---|---|---|---|---|
| 해당연도 | 2018년 | 39 | 35.9 | 15.4 | 15.4 | 23.1 | 10.3 | 12.6 |
| | 2019년 | 28 | 39.3 | 17.9 | 17.9 | 25.0 | 0.0 | 12.8 |
| | 2020년 | 34 | 29.4 | 14.7 | 17.6 | 38.2 | 0.0 | 15.5 |
| | 2021년 | 28 | 25.0 | 14.3 | 17.9 | 42.9 | 0.0 | 16.9 |

성별로 후천적 장애 발생 시기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출생 후 20년 이상'(50.0%), '출생 후 5년 이내'(27.8%), '출생 후 10년 이내'와 '출생 후 20년 이내'가 각각 11.1%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출생 후 20년 이내'와 '출생 후 20년 이상'이 각각 30.0%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후천적 장애 발생 시기는 신체적 장애의 경우 '출생 후 20년 이상'이 50.0%로 가장 높았고, 정신적 장애의 경우 '출생 후 20년 이상'이 33.3%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의 경우 '출생 후 5년 이내'와 '출생 후 20년 이상'이 각각 3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퇴거자의 경우 '출생 후 20년 이상'이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12〉 후천적 장애 발생 시기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출생 후 5년 이내 | 출생 후 10년 이내 | 출생 후 20년 이내 | 출생 후 20년 이상 | 평균(년) |
|---|---|---|---|---|---|---|---|
| 전체 | | 28 | 25.0 | 14.3 | 17.9 | 42.9 | 16.9 |
| 성별 | 남성 | 18 | 27.8 | 11.1 | 11.1 | 50.0 | 18.4 |
| | 여성 | 10 | 20.0 | 20.0 | 30.0 | 30.0 | 14.1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16 | 25.0 | 6.3 | 18.8 | 50.0 | 18.3 |
| | 정신적장애 | 12 | 25.0 | 25.0 | 16.7 | 33.3 | 15.1 |
| 자립생활주택 이용여부 | 이용자 등 | 8 | 37.5 | 25.0 | 0.0 | 37.5 | 13.3 |
| | 퇴거자 | 20 | 20.0 | 10.0 | 25.0 | 45.0 | 18.4 |

### (3) 주 장애유형

응답자의 주 장애유형으로는 '지적장애'가 64.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뇌병변장애'(21.6%), '지체장애'(11.7%), '자폐성장애'(1.2%), '언어장애'(0.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는 전년도(59.7%) 대비 증가하였으며, '뇌병변장애'는 전년도(21.4%)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주 장애유형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지체 장애 | 뇌병변 장애 | 시각 장애 | 언어 장애 | 지적 장애 | 자폐성 장애 | 정신 장애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18.1 | 27.1 | 1.4 | 0.7 | 51.4 | 0.7 | 0.7 |
| | 2019년 | 152 | 15.1 | 25.0 | 0.7 | 0.7 | 57.2 | 0.7 | 0.7 |
| | 2020년 | 159 | 15.7 | 21.4 | 0.6 | 0.6 | 59.7 | 1.3 | 0.6 |
| | 2021년 | 171 | 11.7 | 21.6 | 0.0 | 0.6 | 64.9 | 1.2 | 0.0 |

### (4) 장애정도

응답자의 장애정도를 살펴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이 98.2%로 나타났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은 1.8%로 나타났다.

〈표 4-14〉 주 장애정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97.9 | 2.1 |
| | 2019년 | 152 | 98.0 | 2.0 |
| | 2020년 | 159 | 98.7 | 1.3 |
| | 2021년 | 171 | 98.2 | 1.8 |

성별로 장애정도를 살펴보면, 남성은 97.1%, 여성은 100.0%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으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장애정도 구성비를 살펴보면, 신체적 장애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비율이 94.8%, 정신적 장애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비율이 100.0%를 차지하였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과 퇴거자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비율이 각각 100.0%, 95.2%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5〉 주 장애정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
| 전체 | | 171 | 98.2 | 1.8 |
| 성별 | 남성 | 105 | 97.1 | 2.9 |
| | 여성 | 66 | 100.0 | 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94.8 | 5.2 |
| | 정신적장애 | 113 | 100.0 | 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100.0 | 0.0 |
| | 퇴거자 | 62 | 95.2 | 4.8 |

### (5)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은 '음성-완전한 문장'이 5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음성-불완전한 수준'(40.4%), '몸짓'(4.1%), 'AAC(보완 대체 소통)'(2.9%), '필담', '수어'(각각 1.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 대부분이 음성(합계, 90.6%)을 매개로 하여 의사소통을 하고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음성(합계, 90.6%)을 매개로 의사소통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왔으며, 전년도(합계, 88.1%)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몸짓'(4.1%)과 'AAC(보완 대체 소통)'(2.9%)는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표 4-16〉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 (1순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음성 - 완전한 문장 | 음성 - 불완전한 수준 | 몸짓 | AAC (보완대체소통) | 필담 | 수어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59.0 | 34.0 | 4.2 | 0.7 | 2.1 | 0.0 |
| | 2019년 | 152 | 48.7 | 44.7 | 5.3 | 0.7 | 0.7 | 0.0 |
| | 2020년 | 159 | 53.5 | 34.6 | 5.0 | 3.1 | 1.9 | 1.9 |
| | 2021년 | 171 | 50.3 | 40.4 | 4.1 | 2.9 | 1.2 | 1.2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음성-완전한 문장'으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47.6% 및 54.5%로 가장 많은 가운데, '음성-불완전한 수준'은 각각 43.8%, 34.8%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의 경우와 정신적 장애 모두에서 '음성-완전한 문장'으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55.2%, 4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음성-불완전한 수준'은 각각 37.9%, 41.6%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의 경우 '음성-불완전한 수준'(44.0%), '음성-완전한 문장'(43.1%) 순으로 나타났으나, 퇴거자의 경우 '음성-완전한 문장'(62.9%), '음성-불완전한 수준'(33.9%)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4-17〉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 (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음성 - 완전한 문장 | 음성 - 불완전한 수준 | 몸짓 | AAC (보완 대체 소통) | 필담 | 수어 |
|---|---|---|---|---|---|---|---|---|
| 전체 | | 171 | 50.3 | 40.4 | 4.1 | 2.9 | 1.2 | 1.2 |
| 성별 | 남성 | 105 | 47.6 | 43.8 | 2.9 | 3.8 | 1.9 | 0.0 |
| | 여성 | 66 | 54.5 | 34.8 | 6.1 | 1.5 | 0.0 | 3.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55.2 | 37.9 | 3.4 | 1.7 | 1.7 | 0.0 |
| | 정신적장애 | 113 | 47.8 | 41.6 | 4.4 | 3.5 | 0.9 | 1.8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43.1 | 44.0 | 6.4 | 4.6 | 0.0 | 1.8 |
| | 퇴거자 | 62 | 62.9 | 33.9 | 0.0 | 0.0 | 3.2 | 0.0 |

### (6) 장애인 시설 입소 연도

응답자의 최근 장애인 시설 입소 시기는 '2000년대'가 28.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990년대'(26.3%), '1990년 이전'(20.5%), '2010년대' (13.5%), '2020~2021년'(11.1%)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18〉 장애인 시설 입소 연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1990년 이전 | 1990년대 | 2000년대 | 2010년대 | 2020~2021년 | 모름/무응답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31.3 | 19.4 | 22.9 | 9.7 | 0.0 | 16.7 |
| | 2019년 | 152 | 27.6 | 23.7 | 31.6 | 17.1 | 0.0 | 0.0 |
| | 2020년 | 159 | 21.4 | 27.0 | 32.7 | 17.6 | 1.3 | 0.0 |
| | 2021년 | 171 | 20.5 | 26.3 | 28.7 | 13.5 | 11.1 | 0.0 |

장애인 시설 입소 시기에 대해서는 남성의 경우 '2000년대'(31.4%), '1990년대'(27.6%)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1990년대'와 '2000년대'가 각각 24.2%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장애인 시설 입소 연도는 신체적 장애의 경우 '1990년대'와 '2000년대'가 각각 31.0%로 높게 나타났고, 정신적 장애의 경우 '2000년대'(27.4%), '1990년대'(2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의 경우 '2000년대'(27.5%), '1990년대'(25.7%) 등의 순인 반면, 퇴거자는 '1990년 이전'(35.5%), '2000년대'(3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9〉 장애인 시설 입소 연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1990년 이전 | 1990년대 | 2000년대 | 2010년대 | 2020~2021년 |
|---|---|---|---|---|---|---|---|
| 전체 | | 171 | 20.5 | 26.3 | 28.7 | 13.5 | 11.1 |
| 성별 | 남성 | 105 | 21.0 | 27.6 | 31.4 | 12.4 | 7.6 |
| | 여성 | 66 | 19.7 | 24.2 | 24.2 | 15.2 | 16.7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25.9 | 31.0 | 31.0 | 6.9 | 5.2 |
| | 정신적장애 | 113 | 17.7 | 23.9 | 27.4 | 16.8 | 14.2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11.9 | 25.7 | 27.5 | 17.4 | 17.4 |
| | 퇴거자 | 62 | 35.5 | 27.4 | 30.6 | 6.5 | 0.0 |

### (7) 장애인 시설 퇴소 연도

장애인 시설 퇴소 시기에 대해서는 '2016~2020년'에 퇴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5.5%로 가장 많았고, '2010~2015년'(25.7%), '2021년'(8.2%), '2010년 이전'(0.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20〉 장애인 시설 퇴소 연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2010년 이전 | 2010년~2015년 | 2016년~2020년 | 2021년 | 없음 | 모름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12.5 | 38.9 | 42.3 | 0.0 | 0.0 | 6.3 |
| | 2019년 | 152 | 7.2 | 30.9 | 58.6 | 0.0 | 3.3 | 0.0 |
| | 2020년 | 159 | 8.8 | 23.9 | 52.8 | 0.0 | 14.5 | 0.0 |
| | 2021년 | 171 | 0.6 | 25.7 | 65.5 | 8.2 | 0.0 | 0.0 |

남성의 경우 '2016~2020년'에 장애인 시설을 퇴소한 비율이 57.1%로 가장 많았고, '2010~2015년'(33.3%), '2021년'(8.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도 '2016~2020년'(78.8%), '2010~2015년'(13.6%), '2021년'(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의 경우 '2010~2015년'에 장애인 시설을 퇴소한 비율이 48.3%로 가장 많은 반면, 정신적 장애의 경우에는 '2016~2020년'에 시설을 퇴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7.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의 경우 '2016~2020년'에 퇴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85.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퇴거자의 경우 '2010~2015년'에 퇴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21〉 장애인 시설 퇴소 연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2010년 이전 | 2010년~2015년 | 2016년~2020년 | 2021년 |
|---|---|---|---|---|---|---|
| 전체 | | 171 | 0.6 | 25.7 | 65.5 | 8.2 |
| 성별 | 남성 | 105 | 1.0 | 33.3 | 57.1 | 8.6 |
| | 여성 | 66 | 0.0 | 13.6 | 78.8 | 7.6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1.7 | 48.3 | 43.1 | 6.9 |
| | 정신적장애 | 113 | 0.0 | 14.2 | 77.0 | 8.8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0.0 | 1.8 | 85.3 | 12.8 |
| | 퇴거자 | 62 | 1.6 | 67.7 | 30.6 | 0.0 |

### 3) 일반 현황 소결

2021년 조사의 응답자 일반현황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 61.4% 이 '여성' 38.6%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22.8%p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비율을 보면, '40대'가 26.9%로 가장 높고, 60대 이상이 7.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 평균 연령은 40.6세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최종학력을 살펴본 결과, 최종학력이 '고등학교'인 경우가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장애가 33.9%, 정신적장애가 66.1%로 정신적장애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적장애인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장애정도는 중증인 경우가 98.2%, 경증이 1.8%로 전년도(98.7%, 1.3%)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최근에 탈시설 하여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등'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정신적장애인의 비율이 78.3%인 반면, 퇴거자의 경우는 18.2%이며, 신체적적장애[34]는 81.8%인 것으로 나타났다.

34) 2020년 응답자의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이다.

응답자의 의사소통 수단에 대해 조사한 결과, 49.7%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년도(46.5%)에 비해 3.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수단으로는 불완전한 수준의 문장을 사용하는 비율이 40.4%, 몸짓 4.1%, AAC 사용 2.9%, 필담과 수어가 각각 1.2%로 나타났다.

# 3 사회관계

## 1) 가족관계

### (1)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부모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에 대해 긍정(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적인 응답은 75.9%, '형제/자매/친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76.7%,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77.8%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한 문항 중 '부모와의 관계'와 '형제/자매/친척과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전년도(각각 61.7%, 62.3%) 대비 증가한 반면, '배우자와의 관계'는 전년도 (88.9%) 대비 11.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가족관계 만족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나는 부모와 관계가 좋다 | | | | | | |
|---|---|---|---|---|---|---|---|---|
| | | 사례수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부정 | 긍정 |
| 해당연도 | 2018년 | 46 | 15.2 | 17.4 | 34.8 | 32.6 | 32.6 | 67.4 |
| | 2019년 | 52 | 17.3 | 28.8 | 36.5 | 17.3 | 46.2 | 53.8 |
| | 2020년 | 47 | 14.9 | 23.4 | 38.3 | 23.4 | 38.3 | 61.7 |
| | 2021년 | 29 | 6.9 | 17.2 | 51.7 | 24.1 | 24.1 | 75.9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 구분 | | 나는 형제/자매/친척과 관계가 좋다 | | | | | | |
|---|---|---|---|---|---|---|---|---|
| | | 사례수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부정 | 긍정 |
| 해당연도 | 2018년 | 58 | 20.7 | 22.4 | 32.8 | 24.1 | 43.1 | 56.9 |
| | 2019년 | 64 | 17.2 | 28.1 | 39.1 | 15.6 | 45.3 | 54.7 |
| | 2020년 | 53 | 9.4 | 28.3 | 45.3 | 17.0 | 37.7 | 62.3 |
| | 2021년 | 30 | 3.3 | 20.0 | 70.0 | 6.7 | 23.3 | 76.7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 구분 | | 나는 배우자와 관계가 좋다 | | | | | |
|---|---|---|---|---|---|---|---|
| | | 사례수 |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부정 | 긍정 |
| 해당연도 | 2018년 | 9 | 0.0 | 22.2 | 77.8 | 0.0 | 100.0 |
| | 2019년 | 8 | 0.0 | 75.0 | 25.0 | 0.0 | 100.0 |
| | 2020년 | 9 | 11.1 | 66.7 | 22.2 | 11.1 | 88.9 |
| | 2021년 | 9 | 22.2 | 66.7 | 11.1 | 22.2 | 77.8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성별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해서는 남성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을 기준으로 '부모와의 관계'는 85.0%, '형제/자매/친척과의 관계' 85.0%, '배우자와의 관계' 83.4%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관계' 55.6%, '형제/자매/친척과의 관계' 60.0%, '배우자와의 관계' 66.7%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장애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 64.3%, '형제/자매/친척과의 관계' 72.2%, '배우자와의 관계' 71.4%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 86.7%, '형제/자매/친척과의 관계' 83.3%, '배우자와의 관계'는 긍정 응답이 100.0%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 66.7%, '형제/자매/친척과의 관계' 90.0%이며, 퇴거자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 82.4%, '형제/자매/친척과의 관계'가 70.0%, '배우자와의 관계'는 77.8%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4-23〉 가족관계 만족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나는 부모와 관계가 좋다 | | | | | | |
|---|---|---|---|---|---|---|---|---|
| | | 사례수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부정 | 긍정 |
| 전체 | | 29 | 6.9 | 17.2 | 51.7 | 24.1 | 24.1 | 75.9 |
| 성별 | 남성 | 20 | 5.0 | 10.0 | 55.0 | 30.0 | 15.0 | 85.0 |
| | 여성 | 9 | 11.1 | 33.3 | 44.4 | 11.1 | 44.4 | 55.6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14 | 14.3 | 21.4 | 35.7 | 28.6 | 35.7 | 64.3 |
| | 정신적장애 | 15 | 0.0 | 13.3 | 66.7 | 20.0 | 13.3 | 86.7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2 | 8.3 | 25.0 | 58.3 | 8.3 | 33.3 | 66.7 |
| | 퇴거자 | 17 | 5.9 | 11.8 | 47.1 | 35.3 | 17.6 | 82.4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 구분 | | 나는 형제/자매/친척과 관계가 좋다 | | | | | | |
|---|---|---|---|---|---|---|---|---|
| | | 사례수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부정 | 긍정 |
| 전체 | | 30 | 3.3 | 20.0 | 70.0 | 6.7 | 23.3 | 76.7 |
| 성별 | 남성 | 20 | 0.0 | 15.0 | 80.0 | 5.0 | 15.0 | 85.0 |
| | 여성 | 10 | 10.0 | 30.0 | 50.0 | 10.0 | 40.0 | 6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18 | 5.6 | 22.2 | 72.2 | 0.0 | 27.8 | 72.2 |
| | 정신적장애 | 12 | 0.0 | 16.7 | 66.7 | 16.7 | 16.7 | 83.3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 | 0.0 | 10.0 | 80.0 | 10.0 | 10.0 | 90.0 |
| | 퇴거자 | 20 | 5.0 | 25.0 | 65.0 | 5.0 | 30.0 | 70.0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 구분 | | 나는 배우자와 관계가 좋다 | | | | | | |
|---|---|---|---|---|---|---|---|---|
| | | 사례수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부정 | 긍정 |
| 전체 | | 9 | 0.0 | 22.2 | 66.7 | 11.1 | 22.2 | 77.8 |
| 성별 | 남성 | 6 | 0.0 | 16.7 | 66.7 | 16.7 | 16.7 | 83.3 |
| | 여성 | 3 | 0.0 | 33.3 | 66.7 | 0.0 | 33.3 | 66.7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7 | 0.0 | 28.6 | 71.4 | 0.0 | 28.6 | 71.4 |
| | 정신적장애 | 2 | 0.0 | 0.0 | 50.0 | 50.0 | 0.0 | 10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퇴거자 | 9 | 0.0 | 22.2 | 66.7 | 11.1 | 22.2 | 77.8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 (2) 가족과 연락 빈도

가족과의 연락 빈도를 조사한 결과, '1주에 1회 이상' 연락한다는 비율이 2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만나지 않음'과 '1년에 2~3회 정도'가 각각 20.3%, '1개월 1회 정도' 17.6%, '1년에 1회 정도' 10.8%, '1개월에 2-3회 정도' 6.8%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4〉 가족과 연락 빈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만나지 않음 | 1년에 1회 정도 | 1년에 2~3회 정도 | 1개월 1회 정도 | 1개월 2~3회 정도 | 1주에 1회 이상 | 모름/ 무응답 |
|---|---|---|---|---|---|---|---|---|---|
| 해당연도 | 2018년 | 86 | 22.1 | 5.8 | 25.6 | 10.5 | 14.0 | 19.8 | 2.3 |
| | 2019년 | 80 | 22.5 | 15.0 | 28.8 | 7.5 | 12.5 | 13.8 | 0.0 |
| | 2020년 | 80 | 22.5 | 16.3 | 26.3 | 8.8 | 16.3 | 10.0 | 0.0 |
| | 2021년 | 74 | 20.3 | 10.8 | 20.3 | 17.6 | 6.8 | 24.3 | 0.0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만나지 않음'이 24.5%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1주에 1회 이상'의 비율이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성별로 차이를 보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는 '1년에 2~3회 정도'와 '1주에 1회 이상'이 각각 23.1%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는 '1주에 1회 이상'이 2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의 경우 '1개월 1회 정도'가 23.9%, '만나지 않음' 21.7%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퇴거자의 경우에는 '1주에 1회 이상' 32.1%, '1년에 2~3회 정도' 2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5〉 가족과 연락 빈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만나지 않음 | 1년에 1회 정도 | 1년에 2~3회 정도 | 1개월 1회 정도 | 1개월 2~3회 정도 | 1주에 1회 이상 |
|---|---|---|---|---|---|---|---|---|
| 전체 | | 74 | 20.3 | 10.8 | 20.3 | 17.6 | 6.8 | 24.3 |
| 성별 | 남성 | 49 | 24.5 | 8.2 | 20.4 | 20.4 | 6.1 | 20.4 |
| | 여성 | 25 | 12.0 | 16.0 | 20.0 | 12.0 | 8.0 | 32.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26 | 15.4 | 11.5 | 23.1 | 19.2 | 7.7 | 23.1 |
| | 정신적장애 | 48 | 22.9 | 10.4 | 18.8 | 16.7 | 6.3 | 25.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46 | 21.7 | 10.9 | 15.2 | 23.9 | 8.7 | 19.6 |
| | 퇴거자 | 28 | 17.9 | 10.7 | 28.6 | 7.1 | 3.6 | 32.1 |

## 2) 사회적 관계

### (1) 가까이 지내는 친구, 이웃, 지인 수 및 만남 빈도

개인적인 문제나 가족 문제, 진로 문제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의 수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23.4%가 '없음(0명)'으로 응답하였으며, '1명~3명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32.2%로 가장 많았고, '3명~5명 미만'(24.6%), '5명~10명 미만'(15.8%), '10명 이상'(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없음'(23.4%)은 전년도(20.8%) 대비 2.6%p 증가하였다.

〈표 4-26〉 가까이 지내는 친구, 이웃, 지인 수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없음 (0명) | 1명 이상 3명 미만 | 3명 이상 5명 미만 | 5명 이상 10명 미만 | 10명 이상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29.9 | 33.3 | 13.9 | 11.1 | 11.8 |
| | 2019년 | 152 | 34.4 | 33.1 | 15.9 | 7.3 | 9.3 |
| | 2020년 | 159 | 20.8 | 40.9 | 17.0 | 10.1 | 11.3 |
| | 2021년 | 171 | 23.4 | 32.2 | 24.6 | 15.8 | 4.1 |

주) 2019년 모름/무응답 0.7%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의 경우 모두 '없음(0명)'으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29.5%, 13.6%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의 경우 '없음(0명)'이 각각 24.1%, 23.0%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살펴보면, '이용자 등'의 경우 '없음(0명)'이 20.2%, 퇴거자의 경우는 29.0%로 나타나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표 4-27〉 가까이 지내는 친구, 이웃, 지인 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없음 (0명) | 1명 이상 3명 미만 | 3명 이상 5명 미만 | 5명 이상 10명 미만 | 10명 이상 |
|---|---|---|---|---|---|---|---|
| 전체 | | 171 | 23.4 | 32.2 | 24.6 | 15.8 | 4.1 |
| 성별 | 남성 | 105 | 29.5 | 30.5 | 23.8 | 11.4 | 4.8 |
| | 여성 | 66 | 13.6 | 34.8 | 25.8 | 22.7 | 3.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24.1 | 27.6 | 25.9 | 15.5 | 6.9 |
| | 정신적장애 | 113 | 23.0 | 34.5 | 23.9 | 15.9 | 2.7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20.2 | 35.8 | 24.8 | 15.6 | 3.7 |
| | 퇴거자 | 62 | 29.0 | 25.8 | 24.2 | 16.1 | 4.8 |

가까이 지내는 친구, 이웃, 지인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1주일에 1~2회 정도' 만남을 유지한다는 비율과 '거의 매일(주 4회 이상)' 만난다는 비율이 각각 29.0%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개월에 1~2회 정도'(17.6%), '1년에 1~2회 정도'(1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8〉 가까이 지내는 친구, 이웃, 지인과의 만남 빈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1년에 1-2회 정도 | 3개월에 1-2회 정도 | 1개월에 1-2회 정도 | 1주일에 1-2회 정도 | 거의 매일 (주4회 이상) | 모름/ 무응답 |
|---|---|---|---|---|---|---|---|---|
| 해당연도 | 2018년 | 101 | 20.8 | 8.9 | 14.9 | 24.8 | 27.7 | 3.0 |
| | 2019년 | 100 | 6.0 | 8.0 | 39.0 | 30.0 | 17.0 | 0.0 |
| | 2020년 | 126 | 14.3 | 7.9 | 19.0 | 31.0 | 27.8 | 0.0 |
| | 2021년 | 131 | 13.7 | 10.7 | 17.6 | 29.0 | 29.0 | 0.0 |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1주일에 1~2회 정도'가 31.1%로 가장 높았고, '거의 매일(주 4회 이상)'(25.7%), '1개월에 1~2회 정도'(18.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거의 매일(주 4회 이상)'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주일에 1~2회 정도'(26.3%), '1년에 1~2회 정도'(2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의 경우 '1주일에 1~2회 정도'가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개월에 1~2회 정도'(25.0%), '거의 매일(주4회 이상)'(20.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의 경우 '거의 매일(주 4회 이상)'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주일에 1~2회 정도'(28.7%), '1년에 1~2회 정도'(1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의 경우 '1주일에 1~2회 정도'와 '거의 매일(주 4회 이상)'이 각각 27.6%로 높게 나타났으며, 퇴거자의 경우는 '1주일에 1~2회 정도'와 '거의 매일(주 4회 이상)'이 각각 31.8%로 높게 나타났다.

〈표 4-29〉 가까이 지내는 친구, 이웃, 지인과의 만남 빈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1년에 1-2회 정도 | 3개월에 1-2회 정도 | 1개월에 1-2회 정도 | 1주일에 1-2회 정도 | 거의 매일 (주4회 이상) |
|---|---|---|---|---|---|---|---|
| 전체 | | 131 | 13.7 | 10.7 | 17.6 | 29.0 | 29.0 |
| 성별 | 남성 | 74 | 8.1 | 16.2 | 18.9 | 31.1 | 25.7 |
| | 여성 | 57 | 21.1 | 3.5 | 15.8 | 26.3 | 33.3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44 | 9.1 | 15.9 | 25.0 | 29.5 | 20.5 |
| | 정신적장애 | 87 | 16.1 | 8.0 | 13.8 | 28.7 | 33.3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87 | 14.9 | 10.3 | 19.5 | 27.6 | 27.6 |
| | 퇴거자 | 44 | 11.4 | 11.4 | 13.6 | 31.8 | 31.8 |

어려움이 있을 때 주로 의논하는 사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7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주변 친구/지인'(11.7%), '기타'(5.8%), '배우자'(2.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없음'은 4.7%로 나타났으며, 전년도(4.4%)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30〉 어려움이 있을 때 주로 의논하는 사람 - 연도별(2020, 2021)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주변 친구/지인 | 배우자 | 부모님 | 전문 상담사/ 의료진 |
|---|---|---|---|---|---|---|---|
| 해당연도 | 2020년 | 159 | 52.8 | 23.3 | 3.1 | 5.0 | 0.6 |
| | 2021년 | 171 | 70.2 | 11.7 | 2.3 | 1.8 | 1.8 |

| 구분 | | 사례수 | 형제, 자매 | 인터넷 모임/카페 | 기타 | 없음 |
|---|---|---|---|---|---|---|
| 해당연도 | 2020년 | 159 | 2.5 | 0.0 | 8.2 | 4.4 |
| | 2021년 | 171 | 1.2 | 0.6 | 5.8 | 4.7 |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의 경우 모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65.7%, 7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주변 친구/지인'(16.2%), '배우자'와 '부모님'이 각각 1.9%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주변 친구/지인'(4.5%), '배우자'와 '전문상담사/의료진'이 각각 3.0%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주변 친구/지인'(24.1%), '배우자'(6.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80.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변 친구/지인'(5.3%), '부모님'(2.7%)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살펴보면, '이용자 등'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77.1%), '주변 친구/지인'(8.3%) 순으로 나타났으며, 퇴거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58.1%), '주변 친구/지인'(17.7%)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31〉 어려움이 있을 때 주로 의논하는 사람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주변 친구/지인 | 배우자 | 부모님 | 전문상담사/의료진 |
|---|---|---|---|---|---|---|---|
| 전체 | | 171 | 70.2 | 11.7 | 2.3 | 1.8 | 1.8 |
| 성별 | 남성 | 105 | 65.7 | 16.2 | 1.9 | 1.9 | 1.0 |
| | 여성 | 66 | 77.3 | 4.5 | 3.0 | 1.5 | 3.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50.0 | 24.1 | 6.9 | 0.0 | 1.7 |
| | 정신적장애 | 113 | 80.5 | 5.3 | 0.0 | 2.7 | 1.8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77.1 | 8.3 | 0.0 | 1.8 | 0.9 |
| | 퇴거자 | 62 | 58.1 | 17.7 | 6.5 | 1.6 | 3.2 |

| 구분 | | 사례수 | 형제, 자매 | 인터넷 모임/카페 | 기타 | 없음 |
|---|---|---|---|---|---|---|
| 전체 | | 171 | 1.2 | 0.6 | 5.8 | 4.7 |
| 성별 | 남성 | 105 | 1.0 | 1.0 | 5.7 | 5.7 |
| | 여성 | 66 | 1.5 | 0.0 | 6.1 | 3.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1.7 | 0.0 | 5.2 | 10.3 |
| | 정신적장애 | 113 | 0.9 | 0.9 | 6.2 | 1.8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0.9 | 0.9 | 7.3 | 2.8 |
| | 퇴거자 | 62 | 1.6 | 0.0 | 3.2 | 8.1 |

### (2) 정서적 도움 및 지지

정서적 도움 및 지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는다'는 문항에 대해 긍정(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적인 응답은 72.5%,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는다'는 88.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는다'는 95.8%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특히,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는다'라는 응답이 전년도(60.7%) 대비 11.8%p 증가하였으며, 전년도와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2〉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도움 및 지지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나는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 | | | | | | |
|---|---|---|---|---|---|---|---|---|
| | | 사례수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부정 | 긍정 |
| 해당연도 | 2018년 | 66 | 22.7 | 30.3 | 28.8 | 18.2 | 53.0 | 47.0 |
| | 2019년 | 72 | 13.9 | 37.5 | 38.9 | 9.7 | 51.4 | 48.6 |
| | 2020년 | 56 | 21.4 | 17.9 | 21.4 | 39.3 | 39.3 | 60.7 |
| | 2021년 | 40 | 15.0 | 12.5 | 60.0 | 12.5 | 27.5 | 72.5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표 4-33〉 주변사람으로부터 정서적 도움 및 지지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 | | | | | | |
|---|---|---|---|---|---|---|---|---|
| | | 사례수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부정 | 긍정 |
| 해당연도 | 2018년 | 102 | 5.9 | 11.8 | 51.0 | 31.4 | 17.6 | 82.4 |
| | 2019년 | 120 | 4.2 | 10.8 | 55.8 | 29.2 | 15.0 | 85.0 |
| | 2020년 | 92 | 4.3 | 5.4 | 45.7 | 44.6 | 9.8 | 90.2 |
| | 2021년 | 87 | 2.3 | 9.2 | 57.5 | 31.0 | 11.5 | 88.5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표 4-3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부터 정서적 도움 및 지지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 | | | | | | |
|---|---|---|---|---|---|---|---|---|
| | | 사례수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부정 | 긍정 |
| 해당연도 | 2018년 | 111 | 4.5 | 6.3 | 54.1 | 35.1 | 10.8 | 89.2 |
| | 2019년 | 129 | 0.8 | 4.7 | 41.1 | 53.5 | 5.4 | 94.6 |
| | 2020년 | 98 | 6.1 | 6.1 | 41.8 | 45.9 | 12.2 | 87.8 |
| | 2021년 | 95 | 0.0 | 4.2 | 52.6 | 43.2 | 4.2 | 95.8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남성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9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변 사람들'(83.6%), '가족'(77.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00.0%), '주변 사람들'(96.9%), '가족'(6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92.7%), '주변 사람들'(87.2%), '가족'(81.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98.1%), '주변 사람들'(89.6%), '가족'(6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98.0%), '주변 사람들'(93.2%), '가족'(53.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퇴거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93.5%), '가족'(84.0%), '주변 사람들'(83.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5〉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도움 및 지지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나는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 | | | | | | |
|---|---|---|---|---|---|---|---|---|
| | | 사례수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부정 | 긍정 |
| 전체 | | 40 | 15.0 | 12.5 | 60.0 | 12.5 | 27.5 | 72.5 |
| 성별 | 남성 | 27 | 14.8 | 7.4 | 59.3 | 18.5 | 22.2 | 77.8 |
| | 여성 | 13 | 15.4 | 23.1 | 61.5 | 0.0 | 38.5 | 61.5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22 | 13.6 | 4.5 | 68.2 | 13.6 | 18.2 | 81.8 |
| | 정신적장애 | 18 | 16.7 | 22.2 | 50.0 | 11.1 | 38.9 | 61.1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5 | 20.0 | 26.7 | 53.3 | 0.0 | 46.7 | 53.3 |
| | 퇴거자 | 25 | 12.0 | 4.0 | 64.0 | 20.0 | 16.0 | 84.0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표 4-36〉 주변사람으로부터 정서적 도움 및 지지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 | | | | | | |
|---|---|---|---|---|---|---|---|---|
| | | 사례수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부정 | 긍정 |
| 전체 | | 87 | 2.3 | 9.2 | 57.5 | 31.0 | 11.5 | 88.5 |
| 성별 | 남성 | 55 | 3.6 | 12.7 | 50.9 | 32.7 | 16.4 | 83.6 |
| | 여성 | 32 | 0.0 | 3.1 | 68.8 | 28.1 | 3.1 | 96.9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39 | 2.6 | 10.3 | 59.0 | 28.2 | 12.8 | 87.2 |
| | 정신적장애 | 48 | 2.1 | 8.3 | 56.3 | 33.3 | 10.4 | 89.6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44 | 2.3 | 4.5 | 63.6 | 29.5 | 6.8 | 93.2 |
| | 퇴거자 | 43 | 2.3 | 14.0 | 51.2 | 32.6 | 16.3 | 83.7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표 4-3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부터 정서적 도움 및 지지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 | | | | | | |
|---|---|---|---|---|---|---|---|---|
| | | 사례수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부정 | 긍정 |
| 전체 | | 95 | 0.0 | 4.2 | 52.6 | 43.2 | 4.2 | 95.8 |
| 성별 | 남성 | 60 | 0.0 | 6.7 | 56.7 | 36.7 | 6.7 | 93.3 |
| | 여성 | 35 | 0.0 | 0.0 | 45.7 | 54.3 | 0.0 | 10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41 | 0.0 | 7.3 | 48.8 | 43.9 | 7.3 | 92.7 |
| | 정신적장애 | 54 | 0.0 | 1.9 | 55.6 | 42.6 | 1.9 | 98.1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49 | 0.0 | 2.0 | 42.9 | 55.1 | 2.0 | 98.0 |
| | 퇴거자 | 46 | 0.0 | 6.5 | 63.0 | 30.4 | 6.5 | 93.5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 (3) 지역사회 관계

지역사회 관계에 대해 '동네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 긍정(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적인 응답은 35.4%, '거리에서 동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는 49.5%,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61.6%,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는 51.5%, '동네에 계속 살고 싶다'는 60.6%로 나타났고, '이웃끼리 서로 경계한다'는 문항에 대해 부정(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적인 응답이 73.7%로 나타났다.

성별로 남성과 여성 각각에 대해 문항별로 살펴보면,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낀다'(각각 61.9%, 61.1%), '동네에 계속 살고 싶다'(각각 60.3%, 61.1%)가 긍정(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동네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다'(각각 68.3%, 58.3%), '이웃끼리 서로 경계한다'(각각 69.8%, 80.6%)는 부정(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거리에서 동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는 긍정(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적인 응답 기준 남성 46.0%, 여성 55.6%로 나타났으며,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는 남성 49.2%, 여성 55.6%로 성차를 보였다.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각각에 대해 문항별로 살펴보면,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낀다'(각각 68.2%, 56.4%), '동네에 계속 살고 싶다'(각각 50.0%, 69.1%)가 긍정(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동네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다'(각각 75.0%, 56.4%), '이웃끼리 서로 경계한다'(각각 81.8%, 67.3%)는 부정(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거리에서 동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는 긍정(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적인 응답 기준 신체적 장애 38.6%, 정신적 장애 58.2%로 나타났으며,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는 신체적 장애 40.9%, 정신적 장애 60.0%로 장애유형별 차이를 보였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과 퇴거자 각각에 대해 문항별로 살펴보면,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낀다'(각각 60.0%, 63.3%), '동네에 계속 살고 싶다'(각각 60.0%, 61.2%)가 긍정(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동네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다'(각각 68.0%, 61.2%), '이웃끼리 서로 경계한다'(각각 78.0%, 69.4%)는 부정(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거리에서 동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는 긍정(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적인 응답 기준 '이용자 등'은 48.0%, 퇴거자의 경우 51.0%로 나타났으며,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는 '이용자 등' 56.0%, 퇴거자 46.9%로 자립생활주택 이용여부별 차이를 보였다.

〈표 4-38〉 동네와 동네사람에 대한 생각 - 연도별(2019, 2020, 2021)

(단위: 명, %)

| 구분 | |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다 | | | | | | |
|---|---|---|---|---|---|---|---|---|
| | | 사례수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부정 | 긍정 |
| 해당연도 | 2019년 | 130 | 36.2 | 43.1 | 20.0 | 0.8 | 79.2 | 20.8 |
| | 2020년 | 114 | 25.4 | 40.4 | 28.9 | 5.3 | 65.8 | 34.2 |
| | 2021년 | 99 | 38.4 | 26.3 | 32.3 | 3.0 | 64.6 | 35.4 |

| 구분 | | 나는 거리에서 우리 동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 | | | | | | |
|---|---|---|---|---|---|---|---|---|
| | | 사례수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부정 | 긍정 |
| 해당연도 | 2019년 | 130 | 26.9 | 20.8 | 49.2 | 3.1 | 47.7 | 52.3 |
| | 2020년 | 114 | 16.7 | 27.2 | 48.2 | 7.9 | 43.9 | 56.1 |
| | 2021년 | 99 | 26.3 | 24.2 | 34.3 | 15.2 | 50.5 | 49.5 |

| 구분 | | 우리 동네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경계한다 | | | | | | |
|---|---|---|---|---|---|---|---|---|
| | | 사례수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부정 | 긍정 |
| 해당연도 | 2019년 | 130 | 36.9 | 58.5 | 4.6 | 0.0 | 95.4 | 4.6 |
| | 2020년 | 114 | 26.3 | 56.1 | 16.7 | 0.9 | 82.5 | 17.5 |
| | 2021년 | 99 | 42.4 | 31.3 | 24.2 | 2.0 | 73.7 | 26.3 |

| 구분 | | 나는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 | | | | | |
|---|---|---|---|---|---|---|---|---|
| | | 사례수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부정 | 긍정 |
| 해당연도 | 2019년 | 130 | 1.5 | 10.0 | 84.6 | 3.8 | 11.5 | 88.5 |
| | 2020년 | 114 | 5.3 | 18.4 | 66.7 | 9.6 | 23.7 | 76.3 |
| | 2021년 | 99 | 12.1 | 26.3 | 52.5 | 9.1 | 38.4 | 61.6 |

| 구분 | |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 | | | | | |
|---|---|---|---|---|---|---|---|---|
| | | 사례수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부정 | 긍정 |
| 해당연도 | 2019년 | 130 | 4.6 | 35.4 | 53.1 | 6.9 | 40.0 | 60.0 |
| | 2020년 | 114 | 12.3 | 26.3 | 54.4 | 7.0 | 38.6 | 61.4 |
| | 2021년 | 99 | 18.2 | 30.3 | 46.5 | 5.1 | 48.5 | 51.5 |

| 구분 | | 나는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 | | | | | | |
|---|---|---|---|---|---|---|---|---|
| | | 사례수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부정 | 긍정 |
| 해당연도 | 2019년 | 130 | 2.3 | 20.0 | 65.4 | 12.3 | 22.3 | 77.7 |
| | 2020년 | 114 | 9.6 | 22.8 | 54.4 | 13.2 | 32.5 | 67.5 |
| | 2021년 | 99 | 15.2 | 24.2 | 49.5 | 11.1 | 39.4 | 60.6 |

〈표 4-39〉 동네와 동네사람에 대한 생각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다 | | | | | | |
|---|---|---|---|---|---|---|---|---|
| | | 사례수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부정 | 긍정 |
| 전체 | | 99 | 38.4 | 26.3 | 32.3 | 3.0 | 64.6 | 35.4 |
| 성별 | 남성 | 63 | 38.1 | 30.2 | 28.6 | 3.2 | 68.3 | 31.7 |
| | 여성 | 36 | 38.9 | 19.4 | 38.9 | 2.8 | 58.3 | 41.7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44 | 45.5 | 29.5 | 20.5 | 4.5 | 75.0 | 25.0 |
| | 정신적장애 | 55 | 32.7 | 23.6 | 41.8 | 1.8 | 56.4 | 43.6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50 | 46.0 | 22.0 | 30.0 | 2.0 | 68.0 | 32.0 |
| | 퇴거자 | 49 | 30.6 | 30.6 | 34.7 | 4.1 | 61.2 | 38.8 |

| 구분 | |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 | | | | | |
|---|---|---|---|---|---|---|---|---|
| | | 사례수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부정 | 긍정 |
| 전체 | | 99 | 18.2 | 30.3 | 46.5 | 5.1 | 48.5 | 51.5 |
| 성별 | 남성 | 63 | 22.2 | 28.6 | 46.0 | 3.2 | 50.8 | 49.2 |
| | 여성 | 36 | 11.1 | 33.3 | 47.2 | 8.3 | 44.4 | 55.6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44 | 25.0 | 34.1 | 38.6 | 2.3 | 59.1 | 40.9 |
| | 정신적장애 | 55 | 12.7 | 27.3 | 52.7 | 7.3 | 40.0 | 6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50 | 20.0 | 24.0 | 52.0 | 4.0 | 44.0 | 56.0 |
| | 퇴거자 | 49 | 16.3 | 36.7 | 40.8 | 6.1 | 53.1 | 46.9 |

| 구분 | | 나는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 | | | | | | |
|---|---|---|---|---|---|---|---|---|
| | | 사례수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부정 | 긍정 |
| 전체 | | 99 | 15.2 | 24.2 | 49.5 | 11.1 | 39.4 | 60.6 |
| 성별 | 남성 | 63 | 17.5 | 22.2 | 50.8 | 9.5 | 39.7 | 60.3 |
| | 여성 | 36 | 11.1 | 27.8 | 47.2 | 13.9 | 38.9 | 61.1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44 | 18.2 | 31.8 | 40.9 | 9.1 | 50.0 | 50.0 |
| | 정신적장애 | 55 | 12.7 | 18.2 | 56.4 | 12.7 | 30.9 | 69.1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50 | 18.0 | 22.0 | 48.0 | 12.0 | 40.0 | 60.0 |
| | 퇴거자 | 49 | 12.2 | 26.5 | 51.0 | 10.2 | 38.8 | 61.2 |

| 구분 | | 나는 거리에서 우리 동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 | | | | | | |
|---|---|---|---|---|---|---|---|---|
| | | 사례수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부정 | 긍정 |
| 전체 | | 99 | 26.3 | 24.2 | 34.3 | 15.2 | 50.5 | 49.5 |
| 성별 | 남성 | 63 | 30.2 | 23.8 | 33.3 | 12.7 | 54.0 | 46.0 |
| | 여성 | 36 | 19.4 | 25.0 | 36.1 | 19.4 | 44.4 | 55.6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44 | 38.6 | 22.7 | 27.3 | 11.4 | 61.4 | 38.6 |
| | 정신적장애 | 55 | 16.4 | 25.5 | 40.0 | 18.2 | 41.8 | 58.2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50 | 26.0 | 26.0 | 34.0 | 14.0 | 52.0 | 48.0 |
| | 퇴거자 | 49 | 26.5 | 22.4 | 34.7 | 16.3 | 49.0 | 51.0 |

| 구분 | | 우리 동네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경계한다 | | | | | | |
|---|---|---|---|---|---|---|---|---|
| | | 사례수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부정 | 긍정 |
| 전체 | | 99 | 42.4 | 31.3 | 24.2 | 2.0 | 73.7 | 26.3 |
| 성별 | 남성 | 63 | 41.3 | 28.6 | 27.0 | 3.2 | 69.8 | 30.2 |
| | 여성 | 36 | 44.4 | 36.1 | 19.4 | 0.0 | 80.6 | 19.4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44 | 45.5 | 36.4 | 18.2 | 0.0 | 81.8 | 18.2 |
| | 정신적장애 | 55 | 40.0 | 27.3 | 29.1 | 3.6 | 67.3 | 32.7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50 | 48.0 | 30.0 | 20.0 | 2.0 | 78.0 | 22.0 |
| | 퇴거자 | 49 | 36.7 | 32.7 | 28.6 | 2.0 | 69.4 | 30.6 |

| 구분 | | 나는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 | | | | | |
|---|---|---|---|---|---|---|---|---|
| | | 사례수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부정 | 긍정 |
| 전체 | | 99 | 12.1 | 26.3 | 52.5 | 9.1 | 38.4 | 61.6 |
| 성별 | 남성 | 63 | 15.9 | 22.2 | 52.4 | 9.5 | 38.1 | 61.9 |
| | 여성 | 36 | 5.6 | 33.3 | 52.8 | 8.3 | 38.9 | 61.1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44 | 15.9 | 15.9 | 61.4 | 6.8 | 31.8 | 68.2 |
| | 정신적장애 | 55 | 9.1 | 34.5 | 45.5 | 10.9 | 43.6 | 56.4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50 | 10.0 | 30.0 | 54.0 | 6.0 | 40.0 | 60.0 |
| | 퇴거자 | 49 | 14.3 | 22.4 | 51.0 | 12.2 | 36.7 | 63.3 |

### (4) 사회연결망

단체 및 모임활동 참여 경험과 같은 사회 연결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느 모임이나 단체에도 참여한 경험 없음'이 37.4%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단체 및 모임의 유형으로는 '자조모임'(33.3%), '종교단체'(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참여한 경험 없음'이 전년도(21.4%)에 비해 16%p 높게 나타났다.

〈표 4-40〉 단체 및 모임활동 참여 경험 (1순위) - 연도별 (2019, 2020, 2021)

(단위: 명, %)

| 구분 | | 단체 및 모임활동 참여 경험 | | | | | | | | | |
|---|---|---|---|---|---|---|---|---|---|---|---|
| | | 사례수 | 자조 모임 | 종교 단체 | 친목회 / 친목계 | 온라인 커뮤 니티 | 동호회 | 자원 봉사 단체 | 시민 단체 | 기타 | 참여한 경험 없음 |
| 해당연도 | 2019년 | 152 | 52.6 | 26.3 | 2.0 | 0.7 | 2.0 | 0.0 | 0.7 | 0.7 | 15.1 |
| | 2020년 | 159 | 45.3 | 17.0 | 6.3 | 0.6 | 3.1 | 1.3 | 1.9 | 3.1 | 21.4 |
| | 2021년 | 171 | 33.3 | 11.7 | 3.5 | 3.5 | 2.3 | 1.2 | 0.6 | 6.4 | 37.4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참여한 경험 없음'이 41.0%로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자조모임'의 응답비율이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자조모임'(각각 34.5%, 32.7%), '참여한 경험 없음'(각각 48.3%, 31.9%), '종교단체'(각각 8.6%, 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과 퇴거자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자조모임'(각각 36.7%, 27.4%), '참여한 경험 없음'(각각 30.3%, 50.0%), '종교단체'(각각 12.8%, 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1〉 단체 및 모임활동 참여 경험 (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단체 및 모임활동 참여 경험 | | | | | | | | | |
|---|---|---|---|---|---|---|---|---|---|---|---|
| | | 사례수 | 자조 모임 | 종교 단체 | 친목회 / 친목계 | 온라인 커뮤니티 | 동호회 | 자원봉사 단체 | 시민 단체 | 기타 | 참여한 경험 없음 |
| 전체 | | 171 | 33.3 | 11.7 | 3.5 | 3.5 | 2.3 | 1.2 | 0.6 | 6.4 | 37.4 |
| 성별 | 남성 | 105 | 29.5 | 13.3 | 1.9 | 2.9 | 3.8 | 1.0 | 1.0 | 5.7 | 41.0 |
| | 여성 | 66 | 39.4 | 9.1 | 6.1 | 4.5 | 0.0 | 1.5 | 0.0 | 7.6 | 31.8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34.5 | 8.6 | 1.7 | 1.7 | 1.7 | 0.0 | 1.7 | 1.7 | 48.3 |
| | 정신적장애 | 113 | 32.7 | 13.3 | 4.4 | 4.4 | 2.7 | 1.8 | 0.0 | 8.8 | 31.9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36.7 | 12.8 | 5.5 | 5.5 | 2.8 | 0.9 | 0.0 | 5.5 | 30.3 |
| | 퇴거자 | 62 | 27.4 | 9.7 | 0.0 | 0.0 | 1.6 | 1.6 | 1.6 | 8.1 | 50.0 |

### 3) 사회관계 소결

먼저 가족관의 만족도를 종합해 보면,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75.9%, '형제/자매/친척과의 관계'는 76.7%로, 각각 전년도에 비해(61.7%, 62/3%) 14.2%p, 14.4%p 높아진 반면에 '배우자와의 관계'는 긍정적인 응답(77.8%)이 전년도(88.9%)에 비해 11.1.%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났다. 가족과의 연락 빈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주에 1회 이상' 만난다는 응답이 2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도(10.0%)에 비해 14.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사회적 관계에 대해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개인적인 문제, 가족문제, 진로 문제 등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 수에 대해 '1명 이상 3명 미만'이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도(40.9%)에 비해 7.7%p 낮게 나타났다. 또한 '없음(0명)'의 경우 23.4%로 전년도(20.8%)와 비교했을 때 2.8%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로 의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70.2%), '주변 친구/지인'(11.7%), '기타'(5.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없음'은 4.7%로 전년도(4.4%)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도움 및 지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60.7%, 주변사람들에 대해서는 88.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95.8%로 나타났다. 가족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긍정 응답은 전년도(60.7%, 87.8%)에 비해 높아진 반

면, 주변사람에 대한 응답은 전년도(90.2%)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관계에 대해 '동네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은 35.4%, '거리에서 동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는 49.5%,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61.6%,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는 51.5%, '동네에 계속 살고 싶다'는 60.6%, '이웃끼리 서로 경계한다'는 문항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은 73.7%로 나타났다. 전년도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긍정 응답이 전년도(76.3%)에 비해 14.7%p 낮아졌으며, 동네에서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의 경우 전년도(61.4%)에 비해 9.9%p 낮게 나타났다.

# 4 주거

## 1) 주택형태

주택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빌라 등'이 66.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파트'(29.2%), '영업 건물 내 주택(오피스텔 등)'(3.5%), '단독주택, 전원주택 등'(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세대주택, 연립 주택, 빌라 등'은 전년도(47.8%) 대비 18.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2〉 주택형태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빌라 등 | 아파트 | 영업 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 등) | 단독 주택, 전원 주택 등 | 장애인 거주 시설 | 기타 | 모름/ 무응답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43.7 | 38.9 | 1.4 | 2.8 | 3.5 | 8.3 | 1.4 |
| | 2019년 | 152 | 48.0 | 36.2 | 1.3 | 2.0 | 11.8 | 0.7 | 0.0 |
| | 2020년 | 159 | 47.8 | 31.4 | 1.9 | 1.9 | 3.1 | 13.8 | 0.0 |
| | 2021년 | 171 | 66.1 | 29.2 | 3.5 | 1.2 | 0.0 | 0.0 | 0.0 |

* '기타'에는 '자립생활주택' 등이 있음.

성별에 따른 주택형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빌라 등'이 각각 53.3%, 8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장애의 경우 46.6%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한 반면, 정신적 장애의 경우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빌라 등'의 거주자가 77.9%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의 경우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빌라 등'의 거주자가 86.3%로 높게 나타난 반면, 퇴거자의 경우 '아파트'가 58.1%로 높게 나타났다.

〈표 4-43〉 주택형태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빌라 등 | 아파트 | 영업 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 등) | 단독주택, 전원주택 등 |
|---|---|---|---|---|---|---|
| 전체 | | 171 | 66.1 | 29.2 | 3.5 | 1.2 |
| 성별 | 남성 | 105 | 53.4 | 41.9 | 2.9 | 1.9 |
| | 여성 | 66 | 86.4 | 9.1 | 4.5 | 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43.1 | 46.6 | 6.9 | 3.4 |
| | 정신적장애 | 113 | 77.9 | 20.4 | 1.8 | 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86.3 | 12.8 | 0.9 | 0.0 |
| | 퇴거자 | 62 | 30.6 | 58.1 | 8.1 | 3.2 |

## 2) 주택점유 형태

주택점유 형태는 '기타'(자립생활주택, 행복주택 등)의 경우가 6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민임대주택'(10.5%), '월세 · 반전세' (8.2%), '전세'(8.2%), '영구임대주택'(4.1%), '사글세'(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의 경우 전년도(72.7%) 대비 4.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4〉 주택점유 형태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국민 임대 주택 | 월세, 반전세 (보증금 있음) | 전세 | 영구 임대 주택 | 사글세 (보증금 없음) | 자가 (자기 집) | 기타 | 모름/ 무응답 |
|---|---|---|---|---|---|---|---|---|---|---|
| 해당연도 | 2018년 | 139 | 6.5 | 4.3 | 7.2 | 7.9 | 0.0 | 2.2 | 71.2 | 0.7 |
| | 2019년 | 134 | 10.4 | 6.0 | 8.2 | 8.2 | 0.0 | 0.0 | 67.2 | 0.0 |
| | 2020년 | 154 | 12.3 | 3.2 | 4.5 | 7.1 | 0.0 | 0.0 | 72.7 | 0.0 |
| | 2021년 | 171 | 10.5 | 8.2 | 8.2 | 4.1 | 0.6 | 0.0 | 68.4 | 0.0 |

* '기타'에는 '자립생활주택, 행복주택, 무상임차' 등이 있음.

성별 주택 점유형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기타'의 응답이 각각 59.0%, 8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임대주택'은 각각 14.3%, 4.5%, '월세 · 반전세'는 각각 8.6%, 7.6%, '전세'는 각각 13.3%, 0.0%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는 43.1%가, 정신적 장애는 81.4%가 각각 '기타'의 형태로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의 경우 99.1%, 퇴거자의 경우 14.5%가 기타의 형태로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45〉 주택점유 형태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국민임대주택 | 월세, 반전세(보증금 있음) | 전세 | 영구임대주택 | 사글세(보증금 없음) | 기타 |
|---|---|---|---|---|---|---|---|---|
| 전체 | | 171 | 10.5 | 8.2 | 8.2 | 4.1 | 0.6 | 68.4 |
| 성별 | 남성 | 105 | 14.3 | 8.6 | 13.3 | 4.8 | 0.0 | 59.0 |
| | 여성 | 66 | 4.5 | 7.6 | 0.0 | 3.0 | 1.5 | 83.3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22.4 | 12.1 | 13.8 | 6.9 | 1.7 | 43.1 |
| | 정신적장애 | 113 | 4.4 | 6.2 | 5.3 | 2.7 | 0.0 | 81.4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0.9 | 0.0 | 0.0 | 0.0 | 0.0 | 99.1 |
| | 퇴거자 | 62 | 27.4 | 22.6 | 22.6 | 11.3 | 1.6 | 14.5 |

### 3) 주택 마련 방법

주택 마련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대부분(88.9%)이 '정부 제공'의 수단을 통하여 주택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인 스스'로 주택을 마련한 비중은 8.8%로 나타났고, '가족의 도움으로 마련한 비중은 1.8%, '대출'로 마련한 비중은 0.6%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주택 마련 방법에 대해 '본인 스스로'라는 응답은 전년도(7.1%) 대비 1.7%p 증가한 8.8%로 나타났으며, '정부 제공'이라는 응답은 88.9%로 전년도(90.3%) 대비 1.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6〉 주택 마련 방법 (1순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정부 제공 | 본인 스스로 | 가족의 도움 | 대출 | 기타 |
|---|---|---|---|---|---|---|---|
| 해당연도 | 2018년 | 139 | 84.9 | 10.8 | 1.4 | 2.2 | 0.7 |
| | 2019년 | 134 | 94.8 | 3.7 | 0.0 | 0.7 | 0.7 |
| | 2020년 | 154 | 90.3 | 7.1 | 0.0 | 1.9 | 0.6 |
| | 2021년 | 171 | 88.9 | 8.8 | 1.8 | 0.6 | 0.0 |

성별 주택 마련 방법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정부 제공'의 응답이 각각 남성 85.7% 및 여성 9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는 가운데, '본인 스스로' 주택을 마련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남성 11.4%, 여성 4.5%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주택 마련 방법은 신체적 장애 및 정신적 장애 모두에서 '정부 제공'의 응답이 각각 82.8% 및 92.0%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역시 '이용자 등' 및 퇴거자 모두에서 '정부 제공'의 응답이 각각 100.0%, 69.4%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표 4-47〉 주택 마련 방법 (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정부 제공 | 본인 스스로 | 가족의 도움 | 대출 |
|---|---|---|---|---|---|---|
| 전체 | | 171 | 88.9 | 8.8 | 1.8 | 0.6 |
| 성별 | 남성 | 105 | 85.7 | 11.4 | 1.9 | 1.0 |
| | 여성 | 66 | 93.9 | 4.5 | 1.5 | 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82.8 | 12.1 | 3.4 | 1.7 |
| | 정신적장애 | 113 | 92.0 | 7.1 | 0.9 | 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100.0 | 0.0 | 0.0 | 0.0 |
| | 퇴거자 | 62 | 69.4 | 24.2 | 4.8 | 1.6 |

### 4) 주택 면적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면적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9.8%가 '40㎡(12평)이상 ~ 60㎡(18평)미만'의 주택에 거주한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는 '40㎡(12평)미만'(26.3%), '60㎡(18평)이상 ~ 80㎡(24평)미만'(2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거주 주택 면적의 평균은 약 54.8㎡ 정도로, 전년도(54.38㎡) 대비 약 0.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8〉 주택 면적 - 연도별

(단위: 명, %, ㎡)

| 구분 | | 사례수 | 40㎡ (12평) 미만 | 40㎡ (12평) 이상~ 60㎡ (18평) 미만 | 60㎡ (18평) 이상~ 80㎡ (24평) 미만 | 80㎡ (24평) 이상~ 100㎡ (30평) 미만 | 100㎡ (30평) 이상 | 무응답 | 평균 (㎡) |
|---|---|---|---|---|---|---|---|---|---|
| 해당연도 | 2018년 | 139 | 10.8 | 30.2 | 20.1 | 23.0 | 9.4 | 6.5 | 63.7 |
| | 2019년 | 134 | 12.7 | 27.6 | 18.7 | 26.9 | 7.5 | 6.7 | 63.6 |
| | 2020년 | 154 | 11.7 | 26.6 | 18.2 | 9.1 | 0.6 | 33.8 | 54.4 |
| | 2021년 | 171 | 26.3 | 39.8 | 21.1 | 9.9 | 2.9 | 0.0 | 54.8 |

성별 거주 주택의 면적은 남성의 경우, '40㎡(12평)이상 ~ 60㎡(18평)미만'(41.9%), '40㎡(12평)미만'(28.6%), '60㎡(18평)이상 ~ 80㎡(24평)미만'(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40㎡(12평)이상 ~ 60㎡(18평)미만'(36.4%), '60㎡(18평)이상 ~ 80㎡(24평)미만'(28.8%), '40㎡(12평)미만'(2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응답자의 거주 주택 면적은 '40㎡(12평)이상 ~ 60㎡(18평)미만'(41.4%), '40㎡(12평)미만'(34.5%), '80㎡(24평)이상 ~ 100㎡(30평)미만'(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정신적 장애의 경우 '40㎡(12평)이상 ~ 60㎡(18평)미만'(38.9%), '60㎡(18평)이상 ~ 80㎡(24평)미만'(27.4%), '40㎡(12평) 미만'(2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의 경우 '40㎡(12평)이상 ~ 60㎡(18평)미만'(37.6%)로 나타난 반면, 퇴거자의 경우 '40㎡(12평)미만' (53.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9〉 주택 면적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 구분 | | 사례수 | 40㎡ (12평) 미만 | 40㎡ (12평) 이상~ 60㎡ (18평) 미만 | 60㎡ (18평) 이상~ 80㎡ (24평) 미만 | 80㎡ (24평) 이상~ 100㎡ (30평) 미만 | 100㎡ (30평) 이상 | 평균 (㎡) |
|---|---|---|---|---|---|---|---|---|
| 전체 | | 171 | 26.3 | 39.8 | 21.1 | 9.9 | 2.9 | 54.8 |
| 성별 | 남성 | 105 | 28.6 | 41.9 | 16.2 | 11.4 | 1.9 | 53.4 |
| | 여성 | 66 | 22.7 | 36.4 | 28.8 | 7.6 | 4.5 | 57.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34.5 | 41.4 | 8.6 | 13.8 | 1.7 | 51.7 |
| | 정신적장애 | 113 | 22.1 | 38.9 | 27.4 | 8.0 | 3.5 | 56.4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11.0 | 37.6 | 33.0 | 15.6 | 2.8 | 62.7 |
| | 퇴거자 | 62 | 53.2 | 43.5 | 0.0 | 0.0 | 3.2 | 40.9 |

### 5) 방의 개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방 개수를 묻는 질문에 '3개'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40.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개'(31.6%), '1개'(27.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의 거주 주택의 방 개수 평균은 약 2.1개 정도로 조사되어 전년도와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표 4-50〉 주택 방의 개수 - 연도별

(단위: 명, %, 개)

| 구분 | | 사례수 | 1개 | 2개 | 3개 | 무응답 | 평균(개) |
|---|---|---|---|---|---|---|---|
| 해당연도 | 2018년 | 139 | 6.5 | 36.0 | 51.1 | 6.5 | 2.5 |
| | 2019년 | 134 | 9.7 | 39.6 | 50.7 | 0.0 | 2.4 |
| | 2020년 | 154 | 31.2 | 27.3 | 41.6 | 0.0 | 2.1 |
| | 2021년 | 171 | 27.5 | 31.6 | 40.9 | 0.0 | 2.1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방의 개수를 '1개'라고 응답한 비율이 36.2%로 가장 높았고, 여성의 경우 '3개'라고 응답한 비율이 50.0%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의 경우 '2개'가 39.7%로 나타난 반면, 정신적장애의

경우 '3개'가 47.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의 경우 '3개'가 62.4%로 높게 나타난 반면, 퇴거자의 경우 '1개'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51〉 주택 방의 개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개)

| 구분 | | 사례수 | 1개 | 2개 | 3개 | 평균(개) |
|---|---|---|---|---|---|---|
| 전체 | | 171 | 27.5 | 31.6 | 40.9 | 2.1 |
| 성별 | 남성 | 105 | 36.2 | 28.6 | 35.2 | 2.0 |
| | 여성 | 66 | 13.6 | 36.4 | 50.0 | 2.4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32.8 | 39.7 | 27.6 | 2.0 |
| | 정신적장애 | 113 | 24.8 | 27.4 | 47.8 | 2.2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14.7 | 22.9 | 62.4 | 2.5 |
| | 퇴거자 | 62 | 50.0 | 46.8 | 3.2 | 1.5 |

## 6) 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갖추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내부시설의 장애인 편의'(50.3%), '위생시설의 장애인 편의'(46.8%), '매개시설의 장애인 편의'(43.9%), '안내시설의 장애인 편의'(36.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22.8%로 조사되었다.

〈표 4-52〉 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 (중복응답)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내부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 위생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 매개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 안내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인 편의시설 없음 | 기타 장애인 편의시설 | 모름/ 무응답 |
|---|---|---|---|---|---|---|---|---|---|
| 해당연도 | 2018년 | 139 | 38.8 | 43.2 | 47.5 | 15.8 | 19.4 | 3.6 | 11.5 |
| | 2019년 | 134 | 53.0 | 33.6 | 48.5 | 18.7 | 31.3 | 0.7 | 0.0 |
| | 2020년 | 154 | 50.0 | 48.1 | 42.2 | 31.2 | 19.5 | 3.9 | 0.0 |
| | 2021년 | 171 | 50.3 | 46.8 | 43.9 | 36.3 | 22.8 | 1.8 | 0.0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매개시설의 장애인 편의'가 48.6%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내부시설의 장애인 편의'가 5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장애의 경우 '매개시설의 장애인 편의'가 53.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위생시설의 장애인 편의'(50.0%), '내부시설의 장애인 편의'(44.8%)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정신적 장애의 경우 '내부시설의 장애인 편의'(53.1%), '위생시설의 장애인 편의'(45.1%), '매개시설의 장애인 편의'(38.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의 경우 '내부시설의 장애인 편의'(53.2%), '위생시설의 장애인 편의'(48.6%)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퇴거자의 경우 '매개시설의 장애인 편의'(50.0%), '내부시설의 장애인 편의'(4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3〉 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 (중복응답)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내부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 위생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 매개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 안내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인 편의시설 없음 | 기타 장애인 편의시설 |
|---|---|---|---|---|---|---|---|---|
| 전체 | | 171 | 50.3 | 46.8 | 43.9 | 36.3 | 22.8 | 1.8 |
| 성별 | 남성 | 105 | 46.7 | 46.7 | 48.6 | 32.4 | 23.8 | 1.9 |
| | 여성 | 66 | 56.1 | 47.0 | 36.4 | 42.4 | 21.2 | 1.5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44.8 | 50.0 | 53.4 | 41.4 | 25.9 | 0.0 |
| | 정신적장애 | 113 | 53.1 | 45.1 | 38.9 | 33.6 | 21.2 | 2.7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53.2 | 48.6 | 40.4 | 39.4 | 19.3 | 1.8 |
| | 퇴거자 | 62 | 45.2 | 43.5 | 50.0 | 30.6 | 29.0 | 1.6 |

### 7) 동거인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수를 묻는 질문에는 '1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8.5%로 가장 많았고, '없음(0명)'(29.2%), '2명'(18.1%), '3명'(3.5%), '4명 이상'(0.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54〉 동거인 수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없음(0명) | 1명 | 2명 | 3명 | 4명 이상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21.5 | 20.1 | 23.6 | 30.6 | 4.2 |
| | 2019년 | 152 | 32.2 | 41.4 | 20.4 | 0.7 | 5.3 |
| | 2020년 | 159 | 39.0 | 31.4 | 23.3 | 5.0 | 1.3 |
| | 2021년 | 171 | 29.2 | 48.5 | 18.1 | 3.5 | 0.6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동거인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과 '1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8.1%로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1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모두 '1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1.4%, 52.2%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없음(0명)'의 응답비율이 각각 37.9%, 24.8%로 조사되었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의 경우 '1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1%로 가장 높았고, 퇴거자의 경우 '없음(0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55〉 동거인 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없음(0명) | 1명 | 2명 | 3명 | 4명 이상 |
|---|---|---|---|---|---|---|---|
| 전체 | | 171 | 29.2 | 48.5 | 18.1 | 3.5 | 0.6 |
| 성별 | 남성 | 105 | 38.1 | 38.1 | 21.9 | 1.9 | 0.0 |
| | 여성 | 66 | 15.2 | 65.2 | 12.1 | 6.1 | 1.5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37.9 | 41.4 | 19.0 | 1.7 | 0.0 |
| | 정신적장애 | 113 | 24.8 | 52.2 | 17.7 | 4.4 | 0.9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15.6 | 54.1 | 23.9 | 5.5 | 0.9 |
| | 퇴거자 | 62 | 53.2 | 38.7 | 8.1 | 0.0 | 0.0 |

함께 살고 있는 가족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85.1%가 긍정적인 응답(좋은 편이다 72.7%, 매우 좋다 12.4%)을 한 것으로 조사되어, 전년도(80.4%)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6〉 동거자와의 관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매우 좋지 않다 | 좋지 않은 편이다 | 좋은 편이다 | 매우 좋다 | 모름/ 무응답 | 부정 | 긍정 |
|---|---|---|---|---|---|---|---|---|---|
| 해당연도 | 2018년 | 113 | 0.9 | 3.5 | 63.7 | 23.9 | 8.0 | 4.4 | 87.6 |
| | 2019년 | 103 | 1.0 | 11.7 | 55.3 | 32.0 | 0.0 | 12.6 | 87.4 |
| | 2020년 | 97 | 3.1 | 16.5 | 57.7 | 22.7 | 0.0 | 19.6 | 80.4 |
| | 2021년 | 121 | 5.0 | 9.9 | 72.7 | 12.4 | 0.0 | 14.9 | 85.1 |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90.8%, 여성의 경우 78.6%가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의 경우 86.1%, 정신적 장애의 경우 84.7%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의 경우 81.5%, 퇴거자의 경우 96.6%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표 4-57〉 동거자와의 관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매우 좋지 않다 | 좋지 않은 편이다 | 좋은 편이다 | 매우 좋다 | 부정 | 긍정 |
|---|---|---|---|---|---|---|---|---|
| 전체 | | 121 | 5.0 | 9.9 | 72.7 | 12.4 | 14.9 | 85.1 |
| 성별 | 남성 | 65 | 6.2 | 3.1 | 78.5 | 12.3 | 9.2 | 90.8 |
| | 여성 | 56 | 3.6 | 17.9 | 66.1 | 12.5 | 21.4 | 78.6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36 | 2.8 | 11.1 | 69.4 | 16.7 | 13.9 | 86.1 |
| | 정신적장애 | 85 | 5.9 | 9.4 | 74.1 | 10.6 | 15.3 | 84.7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92 | 5.4 | 13.0 | 71.7 | 9.8 | 18.5 | 81.5 |
| | 퇴거자 | 29 | 3.4 | 0.0 | 75.9 | 20.7 | 3.4 | 96.6 |

### 8) 이사 여부 및 이유

지난 1년 사이에 이사를 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3.1%가 이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전년도(84.3%)보다 해당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사이에 이사를 한 이유로는 기타를 제외하면 '자립생활주택 이용 종료'가 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58〉 이사 여부 및 이유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1년 사이 이사 한적 없음 | 자립 생활 주택 이용 종료 | 집 계약이 만료 되어 | 내 집 마련을 위하여 | 직장 이동, 이직 등 | 교통이 불편 해서 | 소득이 줄어서 | 기타 | 모름/ 무응답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73.6 | 13.2 | 5.6 | 1.4 | 0.0 | 0.7 | 0.0 | 4.9 | 0.7 |
| | 2019년 | 152 | 82.2 | 7.9 | 3.9 | 2.6 | 0.0 | 0.7 | 0.0 | 2.6 | 0.0 |
| | 2020년 | 159 | 84.3 | 6.3 | 1.3 | 1.3 | 0.0 | 0.6 | 0.6 | 5.7 | 0.0 |
| | 2021년 | 171 | 73.1 | 5.8 | 4.7 | 1.2 | 0.6 | 0.0 | 0.0 | 14.6 | 0.0 |

'지난 1년 사이 이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남성 응답자의 비율은 67.6%, 여성은 81.8%로 나타났고, 장애 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의 경우 72.4%가, 정신적 장애의 경우 73.5%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의 79.8%, 퇴거자의 61.3%가 1년 사이 이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9〉 이사 여부 및 이유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1년 사이 이사한적 없음 | 자립생활 주택 이용 종료 | 집 계약이 만료되어 | 내 집 마련을 위하여 | 직장 이동, 이직 등 | 기타 |
|---|---|---|---|---|---|---|---|---|
| 전체 | | 171 | 73.1 | 5.8 | 4.7 | 1.2 | 0.6 | 14.6 |
| 성별 | 남성 | 105 | 67.6 | 8.6 | 6.7 | 1.9 | 1.0 | 14.3 |
| | 여성 | 66 | 81.8 | 1.5 | 1.5 | 0.0 | 0.0 | 15.2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72.4 | 3.4 | 6.9 | 1.7 | 0.0 | 15.5 |
| | 정신적장애 | 113 | 73.5 | 7.1 | 3.5 | 0.9 | 0.9 | 14.2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79.8 | 0.0 | 4.6 | 0.0 | 0.0 | 15.6 |
| | 퇴거자 | 62 | 61.3 | 16.1 | 4.8 | 3.2 | 1.6 | 12.9 |

### 9) 향후 살고 싶은 주거형태

향후 살고 싶은 주택 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62.0%가 '아파트'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연립주택, 빌라 등'(17.0%), '단독주택, 전원주택 등'(7.0%), '다세대주택'(7.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향후 살고 싶은 주택 형태 중 '아파트'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반면 '연립주택, 빌라 등'이라는 응답은 증가하였다.

〈표 4-60〉 향후 살고 싶은 주택형태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아파트 | 연립 주택, 빌라 등 | 단독 주택, 전원 주택 등 | 다세대 주택 | 영업 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 등) | 기타 | 모름/ 무응답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71.5 | 11.8 | 8.3 | 5.6 | 1.4 | 0.0 | 1.4 |
| | 2019년 | 152 | 66.4 | 23.7 | 8.6 | 1.3 | 0.0 | 0.0 | 0.0 |
| | 2020년 | 159 | 73.6 | 6.9 | 11.9 | 3.1 | 1.9 | 2.5 | 0.0 |
| | 2021년 | 171 | 62.0 | 17.0 | 7.0 | 7.0 | 0.6 | 6.4 | 0.0 |

향후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한 남성 응답자의 비율은 64.8%, 여성은 57.6%로 조사되었고,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 70.7%, 정신적 장애 57.5%가,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 54.1%, 퇴거자 75.8%가 향후 '아파트' 거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1〉 향후 살고 싶은 주택형태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아파트 | 연립 주택, 빌라 등 | 단독 주택, 전원 주택 등 | 다세대 주택 | 영업 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 등) | 기타 |
|---|---|---|---|---|---|---|---|---|
| 전체 | | 171 | 62.0 | 17.0 | 7.0 | 7.0 | 0.6 | 6.4 |
| 성별 | 남성 | 105 | 64.8 | 17.1 | 8.6 | 2.9 | 0.0 | 6.7 |
| | 여성 | 66 | 57.6 | 16.7 | 4.5 | 13.6 | 1.5 | 6.1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70.7 | 13.8 | 8.6 | 3.4 | 1.7 | 1.7 |
| | 정신적장애 | 113 | 57.5 | 18.6 | 6.2 | 8.8 | 0.0 | 8.8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54.1 | 22.9 | 8.3 | 7.3 | 0.0 | 7.3 |
| | 퇴거자 | 62 | 75.8 | 6.5 | 4.8 | 6.5 | 1.6 | 4.8 |

### 10)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62.6%가 '임대주택 건설과 같은 주택제공'이라고 응답하여 전년도에 이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주택자금 제공'(19.9%), '주택개조 사업 확대'와 '집 주변 편의시설 확대'가 각각 7.6%의 비율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임대주택 건설과 같은 주택제공'이라는 응답이 전년도(41.5%) 대비 21.1%p 증가한 반면, '주택자금 제공', '집주변 편의시설 확대'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2〉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임대 주택 건설과 같은 주택 제공 | 주택 자금 제공 | 주택 개조 사업 확대 | 집주변 편의 시설 확대 | 기타 | 모름/ 무응답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56.3 | 26.4 | 6.9 | 7.6 | 0.7 | 2.1 |
| | 2019년 | 152 | 72.4 | 20.4 | 3.9 | 3.3 | 0.0 | 0.0 |
| | 2020년 | 159 | 41.5 | 30.2 | 6.9 | 18.2 | 0.6 | 2.5 |
| | 2021년 | 171 | 62.6 | 19.9 | 7.6 | 7.6 | 2.3 | 0.0 |

성별로 살펴보면 '임대주택 건설과 같은 주택제공'이 향후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62.9%, 여성 62.1%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63.8%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61.9%가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임대주택 건설과 같은 주택제공'을 꼽았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의 경우 65.1%가, 퇴거자의 경우 58.1%가 '임대주택 건설과 같은 주택제공'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3〉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임대주택 건설과 같은 주택제공 | 주택자금 제공 | 주택개조 사업 확대 | 집주변 편의시설 확대 | 기타 |
|---|---|---|---|---|---|---|---|
| 전체 | | 171 | 62.6 | 19.9 | 7.6 | 7.6 | 2.3 |
| 성별 | 남성 | 105 | 62.9 | 19.0 | 9.5 | 6.7 | 1.9 |
| | 여성 | 66 | 62.1 | 21.2 | 4.5 | 9.1 | 3.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63.8 | 17.2 | 12.1 | 6.9 | 0.0 |
| | 정신적장애 | 113 | 61.9 | 21.2 | 5.3 | 8.0 | 3.5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65.1 | 19.3 | 7.3 | 4.6 | 3.7 |
| | 퇴거자 | 62 | 58.1 | 21.0 | 8.1 | 12.9 | 0.0 |

## 11) 거주 지역 일상생활 불편 정도 및 이유

현재 거주 지역에서의 일상생활이 불편한 정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8.9%가 불편하지 않다(편한 편이다 75.8%, 매우 편하다 13.1%)고 응답했다.

〈표 4-64〉 거주 지역에서의 일상생활 불편 정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매우 불편하다 | 불편한 편이다 | 편한 편이다 | 매우 편하다 | 불편 | 불편하지 않음 |
|---|---|---|---|---|---|---|---|---|
| 해당연도 | 2018년 | 113 | 6.2 | 21.2 | 56.6 | 15.9 | 27.4 | 72.6 |
| | 2019년 | 130 | 2.3 | 19.2 | 57.7 | 20.8 | 21.5 | 78.5 |
| | 2020년 | 114 | 2.6 | 28.1 | 55.3 | 14.0 | 30.7 | 69.3 |
| | 2021년 | 99 | 2.0 | 9.1 | 75.8 | 13.1 | 11.1 | 88.9 |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현재 거주 지역에서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88.9%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의 경우 각각 84.1%, 92.7%가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의 경우 90.0%가, 퇴거자의 경우 87.8%가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4-65〉 거주 지역에서의 일상생활 불편 정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매우 불편하다 | 불편한 편이다 | 편한 편이다 | 매우 편하다 | 불편 | 불편하지 않음 |
|---|---|---|---|---|---|---|---|---|
| 전체 | | 99 | 2.0 | 9.1 | 75.8 | 13.1 | 11.1 | 88.9 |
| 성별 | 남성 | 63 | 1.6 | 9.5 | 77.8 | 11.1 | 11.1 | 88.9 |
| | 여성 | 36 | 2.8 | 8.3 | 72.2 | 16.7 | 11.1 | 88.9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44 | 4.5 | 11.4 | 75.0 | 9.1 | 15.9 | 84.1 |
| | 정신적장애 | 55 | 0.0 | 7.3 | 76.4 | 16.4 | 7.3 | 92.7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50 | 0.0 | 10.0 | 72.0 | 18.0 | 10.0 | 90.0 |
| | 퇴거자 | 49 | 4.1 | 8.2 | 79.6 | 8.2 | 12.2 | 87.8 |

현재 거주 지역에서의 일상생활이 불편하다고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불편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시장, 마트, 은행 등 생활시설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불편'하다는 이유와 '대중교통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불편'하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27.3%로 높게 나타났다.

〈표 4-66〉 거주 지역에서의 일상생활 불편 이유 (1순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시장, 마트, 은행 등 생활시설 부족하거나 이용 불편 | 대중교통 부족하거나 이용 불편 | 병의원 등 의료기관 부족하거나 이용 불편 | 각종 사회복지시설 부족하거나 이용 불편 | 녹지 공간, 공원 등 부족하거나 이용 불편 | 기타 |
|---|---|---|---|---|---|---|---|---|
| 해당연도 | 2018년 | 31 | 38.7 | 16.1 | 6.5 | 9.7 | 6.5 | 22.6 |
| | 2019년 | 28 | 21.4 | 28.6 | 0.0 | 3.6 | 7.1 | 39.3 |
| | 2020년 | 35 | 34.3 | 14.3 | 5.7 | 11.4 | 25.7 | 8.6 |
| | 2021년 | 11 | 27.3 | 27.3 | 18.2 | 18.2 | 9.1 | 0.0 |

성별로 거주 지역에서의 일상생활이 불편한 이유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대중교통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불편'(42.9%)하다는 이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여성의 경우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불편'(50.0%)하다는 이유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시장, 마트, 은행 등 생활시설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불편'과 '대중교통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불편'하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42.9%로 높게 나타났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불편'과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불편'하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50.0%로 높게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의 경우 '대중교통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불편'과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불편'하다는 이유가 각각 40.0%로 높게 나타났으며, 퇴거자의 경우 '시장, 마트, 은행 등 생활시설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불편'하다는 이유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67〉 거주 지역에서의 일상생활 불편 이유 (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시장, 마트, 은행 등 생활시설 부족하거나 이용 불편 | 대중교통 부족하거나 이용 불편 | 병의원 등 의료기관 부족하거나 이용 불편 | 각종 사회 복지시설 부족하거나 이용 불편 | 녹지 공간, 공원 등 부족하거나 이용 불편 |
|---|---|---|---|---|---|---|---|
| 전체 | | 11 | 27.3 | 27.3 | 18.2 | 18.2 | 9.1 |
| 성별 | 남성 | 7 | 28.6 | 42.9 | 14.3 | 0.0 | 14.3 |
| | 여성 | 4 | 25.0 | 0.0 | 25.0 | 50.0 | 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7 | 42.9 | 42.9 | 0.0 | 0.0 | 14.3 |
| | 정신적장애 | 4 | 0.0 | 0.0 | 50.0 | 50.0 | 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5 | 0.0 | 40.0 | 20.0 | 40.0 | 0.0 |
| | 퇴거자 | 6 | 50.0 | 16.7 | 16.7 | 0.0 | 16.7 |

장애인 지원주택 서비스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65.7%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지원주택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년도(43.0%) 대비 22.7%p 증가하였다.

〈표 4-68〉 장애인 지원주택 서비스 인지여부 - 연도별(2020, 2021)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예 | 아니오 |
|---|---|---|---|---|
| 해당연도 | 2020년 | 114 | 43.0 | 57.0 |
| | 2021년 | 99 | 65.7 | 34.3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69.8%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58.3%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예' 68.2%, '아니오' 31.8%로 나타났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예' 63.6%, '아니오' 36.4%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은 '예' 62.0%, '아니오' 38.0%, 퇴거자의 경우 '예' 69.40%, '아니오' 30.6%로 나타났다.

〈표 4-69〉 장애인 지원주택 서비스 인지여부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예 | 아니오 |
|---|---|---|---|---|
| 전체 | | 99 | 65.7 | 34.3 |
| 성별 | 남성 | 63 | 69.8 | 30.2 |
| | 여성 | 36 | 58.3 | 41.7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44 | 68.2 | 31.8 |
| | 정신적장애 | 55 | 63.6 | 36.4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50 | 62.0 | 38.0 |
| | 퇴거자 | 49 | 69.4 | 30.6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향후 장애인 지원주택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비율은 79.8%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도(53.5%) 대비 26.3%p 증가한 수치이다.

〈표 4-70〉 향후 장애인 지원주택 서비스 이용의향 - 연도별(2020, 2021)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예 | 아니오 |
|---|---|---|---|---|
| 해당연도 | 2020년 | 114 | 53.5 | 46.5 |
| | 2021년 | 99 | 79.8 | 20.2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79.4%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80.6%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예' 77.3%, '아니오' 22.7%로 나타났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예' 81.8%, '아니오' 18.2%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의 경우 '예' 80.0%, '아니오' 20.0%, 퇴거자의 경우 '예' 79.6%, '아니오' 20.4%로 나타났다.

〈표 4-71〉 향후 장애인 지원주택 서비스 이용의향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예 | 아니오 |
|---|---|---|---|---|
| 전체 | | 99 | 79.8 | 20.2 |
| 성별 | 남성 | 63 | 79.4 | 20.6 |
| | 여성 | 36 | 80.6 | 19.4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44 | 77.3 | 22.7 |
| | 정신적장애 | 55 | 81.8 | 18.2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50 | 80.0 | 20.0 |
| | 퇴거자 | 49 | 79.6 | 20.4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자립생활 유지에 필요한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로는 '주택 알선 지원'이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설 관리(시설 수리 등)'와 '집안청소 및 관리'가 각각 9.1%로 나타났으며, '공과금 및 임대료 관리'(7.1%), '식사 지원(식사준비, 먹기, 치우기)'(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72〉 자립생활 유지에 필요한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1순위) - 연도별(2020, 2021)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주택 알선 지원 | 시설 관리 | 집안청소 및 관리 | 공과금 및 임대료 관리 | 식사 지원 | 금전관리 |
|---|---|---|---|---|---|---|---|---|
| 해당연도 | 2020년 | 114 | 40.4 | 7.0 | 2.6 | 7.9 | 8.8 | 6.1 |
| | 2021년 | 99 | 49.5 | 9.1 | 9.1 | 7.1 | 6.1 | 5.1 |
| 구분 | | 사례수 | 개인위생 관리 | 건강관리 | 의사소통 지원 | 이동 | 심리 상담 | 안전 대응 |
| 해당연도 | 2020년 | 114 | 1.8 | 2.6 | 1.8 | 2.6 | 1.8 | 0.9 |
| | 2021년 | 99 | 3.0 | 3.0 | 2.0 | 2.0 | 1.0 | 1.0 |
| 구분 | | 사례수 | 인권침해 대응 | 24시간 긴급 대응 지원 | 지역사회 모임 연계 | 학습활동 | 기타 |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 |
| 해당연도 | 2020년 | 114 | 0.9 | 9.6 | 1.8 | 1.8 | 1.8 | 0.0 |
| | 2021년 | 99 | 1.0 | 0.0 | 0.0 | 0.0 | 0.0 | 1.0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주택 알선 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0%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41.7%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주택 알선 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5.5%로 나타났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52.7%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의 경우 '주택 알선 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시설 관리(시설 수리 등)'와 '공과금 및 임대료 관리'가 각각 10.0%로 높게 나타났다. 퇴거자의 경우 '주택 알선 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집안청소 및 관리'와 '식사 지원(식사 준비, 먹기, 치우기)'이 각각 10.2%로 나타났다.

〈표 4-73〉 자립생활 유지에 필요한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주택 알선 지원 | 시설 관리 | 집안청소 및 관리 | 공과금 및 임대료 관리 | 식사 지원 | 금전관리 |
|---|---|---|---|---|---|---|---|---|
| 전체 | | 99 | 49.5 | 9.1 | 9.1 | 7.1 | 6.1 | 5.1 |
| 성별 | 남성 | 63 | 54.0 | 6.3 | 9.5 | 4.8 | 6.3 | 6.3 |
| | 여성 | 36 | 41.7 | 13.9 | 8.3 | 11.1 | 5.6 | 2.8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44 | 45.5 | 11.4 | 9.1 | 6.8 | 9.1 | 4.5 |
| | 정신적장애 | 55 | 52.7 | 7.3 | 9.1 | 7.3 | 3.6 | 5.5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50 | 52.0 | 10.0 | 8.0 | 10.0 | 2.0 | 8.0 |
| | 퇴거자 | 49 | 46.9 | 8.2 | 10.2 | 4.1 | 10.2 | 2.0 |

| 구분 | | 사례수 | 개인위생 관리 | 건강관리 | 의사소통 지원 | 이동 | 심리 상담 | 안전 대응 |
|---|---|---|---|---|---|---|---|---|
| 전체 | | 99 | 3.0 | 3.0 | 2.0 | 2.0 | 1.0 | 1.0 |
| 성별 | 남성 | 63 | 3.2 | 0.0 | 3.2 | 1.6 | 0.0 | 1.6 |
| | 여성 | 36 | 2.8 | 8.3 | 0.0 | 2.8 | 2.8 | 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44 | 4.5 | 2.3 | 2.3 | 0.0 | 0.0 | 2.3 |
| | 정신적장애 | 55 | 1.8 | 3.6 | 1.8 | 3.6 | 1.8 | 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50 | 2.0 | 4.0 | 2.0 | 0.0 | 2.0 | 0.0 |
| | 퇴거자 | 49 | 4.1 | 2.0 | 2.0 | 4.1 | 0.0 | 2.0 |

| 구분 | | 사례수 | 인권침해 대응 |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 |
|---|---|---|---|---|
| 전체 | | 99 | 1.0 | 1.0 |
| 성별 | 남성 | 63 | 1.6 | 1.6 |
| | 여성 | 36 | 0.0 | 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44 | 2.3 | 0.0 |
| | 정신적장애 | 55 | 0.0 | 1.8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50 | 0.0 | 0.0 |
| | 퇴거자 | 49 | 2.0 | 2.0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그 외 주거유지 서비스가 필요한지 조사한 결과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조사 결과인 11.4%에 비해 9.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4〉 그 외 주거유지서비스 필요여부 - 연도별(2020, 2021)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있음 | 없음 |
|---|---|---|---|---|
| 해당연도 | 2020년 | 114 | 11.4 | 88.6 |
| | 2021년 | 99 | 2.0 | 98.0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모두 그 외 주거유지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5.6%가 그 외 주거유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있음' 4.5%, '없음' 95.5%로 나타났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모두 그 외 주거유지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응답하였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과 퇴거자 모두 '있음' 2.0%, '없음' 98.0%로 나타났다.

〈표 4-75〉 그 외 주거유지서비스 필요여부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있음 | 없음 |
|---|---|---|---|---|
| 전체 | | 99 | 2.0 | 98.0 |
| 성별 | 남성 | 63 | 0.0 | 100.0 |
| | 여성 | 36 | 5.6 | 94.4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44 | 4.5 | 95.5 |
| | 정신적장애 | 55 | 0.0 | 10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50 | 2.0 | 98.0 |
| | 퇴거자 | 49 | 2.0 | 98.0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 12) 주거 소결

주거 관련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주택형태는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빌라 등'이 6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도(47.8%) 대비 18.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주택점유형태를 보면 '기타(자립생활주택, 행복주택 등)'인 경우가 6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택마련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정부 제공'이 8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도(90.3%)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면적을 묻는 질문에는 '40㎡(12평)이상 ~ 60㎡(18평)미만'이 39.8%가 주택에 거주한다고 응답했고 방 개수의 경우 평균 2.1개로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함께살고 있는 동거인 수는 '1명'이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도(31.4%)에 비해 17.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없음' 의 경우는 29.2%로 전년도(39.0%)에 비해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살고 싶은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6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 안정을 위한 필요 정책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건설과 같은 주택 제공'이 6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41.5%)에 비해 2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거주 지역 일상생활 불편하다는 응답이 11.1%로 전년도(30.7%)에 비해 19.6% 감소한 비율을 보였고, 불편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 마트, 은행 등 생활시설이 부족하거나 이용 불편'과 '대중교통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불편'하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27.3%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지원주택서비스 관련 문항을 살펴보면, 장애인 지원주택 서비스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해 '알고 있음'은 65.7%로 전년도(43.0%)에 비해 22.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자립생활주택 서비스 이용 의향에 대해서는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 역시 79.8%로 전년도 응답 비율인 53.5%에 비해 26.3%p 높게 나타났다. 자립생활유지에 필요한 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주택알선지원'이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5 건강

### 1) 전반적인 건강상태

2021년 조사 결과, 지난 6개월간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좋음'이 78.9%('좋은 편이다' 68.4%, '매우 좋다' 10.5%)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본 결과, 6개월간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년도(81.1%)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표 4-76〉 지난 6개월 간 전반적인 건강상태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매우 나쁘다 | 나쁜 편이다 | 좋은 편이다 | 매우 좋다 | 모름/무응답 | 나쁨 | 좋음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4.9 | 21.5 | 57.6 | 15.3 | 0.7 | 26.4 | 72.9 |
| | 2019년 | 152 | 0.7 | 23.0 | 59.9 | 16.4 | 0.0 | 23.7 | 76.3 |
| | 2020년 | 159 | 1.9 | 17.0 | 72.3 | 8.8 | 0.0 | 18.9 | 81.1 |
| | 2021년 | 171 | 1.8 | 19.3 | 68.4 | 10.5 | 0.0 | 21.1 | 78.9 |

성별로 남성의 경우 81.0%, 여성의 경우 75.8%가 지난 6개월간 건강상태가 좋았다고 응답했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의 경우 72.4%, 정신적 장애의 경우 82.3%가 지난 6개월간 건강상태가 좋았다고 응답했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의 경우 82.6%, 퇴거자의 경우 72.6%가 지난 6개월간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았다고 응답하였다.

〈표 4-77〉 지난 6개월 간 전반적인 건강상태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매우 나쁘다 | 나쁜 편이다 | 좋은 편이다 | 매우 좋다 | 나쁨 | 좋음 |
|---|---|---|---|---|---|---|---|---|
| 전체 | | 171 | 1.8 | 19.3 | 68.4 | 10.5 | 21.1 | 78.9 |
| 성별 | 남성 | 105 | 1.9 | 17.1 | 70.5 | 10.5 | 19.0 | 81.0 |
| | 여성 | 66 | 1.5 | 22.7 | 65.2 | 10.6 | 24.2 | 75.8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0.0 | 27.6 | 62.1 | 10.3 | 27.6 | 72.4 |
| | 정신적장애 | 113 | 2.7 | 15.0 | 71.7 | 10.6 | 17.7 | 82.3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0.9 | 16.5 | 69.7 | 12.8 | 17.4 | 82.6 |
| | 퇴거자 | 62 | 3.2 | 24.2 | 66.1 | 6.5 | 27.4 | 72.6 |

## 2) 만성질환

만성질병(질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의 49.1%가 '없음'으로 응답하였으며,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주요 만성질병(질환)은 기타를 제외하면 '고혈압, 저혈압'(15.2%), '정신질환(우울증 등)'(11.1%), '뇌전증(구 간질)' (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비교 결과, '없음'으로 응답한 사람은 49.1%로 전년도(43.4%) 대비 5.7%p 증가하였다. 현재 앓고 있는 주요 만성질병(질환)에서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의 비율이 전년도 대비 7,2%p 감소하였으며, '고혈압, 저혈압'은 4.5%p 증가하였다.

〈표 4-78〉 앓고 있는 만성질병 (복수응답)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없음 | 고혈압, 저혈압 | 정신질환 (우울증 등) | 뇌전증 (구 간질) | 당뇨병 | 갑상선 질환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44.4 | 6.9 | 9 | 4.2 | 3.5 | 3.5 |
| | 2019년 | 152 | 50.7 | 7.9 | 12.5 | 4.6 | 2.0 | 7.9 |
| | 2020년 | 159 | 43.4 | 10.7 | 9.4 | 11.9 | 5.0 | 5.7 |
| | 2021년 | 171 | 49.1 | 15.2 | 11.1 | 8.8 | 6.4 | 6.4 |
| 구분 | | 사례수 |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 | 골다공증 | 이상 지질혈증 (고지혈증) | 심근 경색증, 협심증 | 백내장, 녹내장 | 만성간염, 간경변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7.6 | 1.4 | 4.9 | 1.4 | 2.1 | 2.1 |
| | 2019년 | 152 | 3.3 | 1.3 | 4.6 | 0.0 | 1.3 | 1.3 |
| | 2020년 | 159 | 10.7 | 5.7 | 7.5 | 1.9 | 3.8 | 2.5 |
| | 2021년 | 171 | 3.5 | 3.5 | 3.5 | 2.3 | 2.3 | 1.8 |
| 구분 | | 사례수 | 만성 기관지염 (심한 가래,기침) | 만성 중이염 | 암 (위,간,폐, 기관지 등) | 위염, 위궤양, 십이장궤양 등 | 중풍, 뇌혈관 질환 | 천식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3.5 | 0.7 | 0.0 | 4.2 | 0.0 | 0.7 |
| | 2019년 | 152 | 1.3 | 1.3 | 0.0 | 3.9 | 0.7 | 2.6 |
| | 2020년 | 159 | 2.5 | 0.6 | 0.0 | 3.1 | 1.9 | 1.9 |
| | 2021년 | 171 | 1.8 | 1.8 | 1.2 | 1.2 | 1.2 | 1.2 |

| 구분 | | 사례수 | 만성 신부전증 (만성신 장질환) | 비염 | 빈혈 | 치질 | 기타* | 모름/ 무응답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0.0 | 0.0 | 0.0 | 0.0 | 20.1 | 2.1 |
| | 2019년 | 152 | 0.0 | 0.0 | 0.0 | 0.0 | 10.5 | 0.0 |
| | 2020년 | 159 | 0.0 | 1.3 | 1.3 | 1.9 | 10.1 | 0.0 |
| | 2021년 | 171 | 0.6 | 0.0 | 0.0 | 0.0 | 10.5 | 0.0 |

* '기타'에는 '욕창, 비만, 요실금' 등이 있음.

성별로 남성의 경우 현재 앓고 있는 만성질병(질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1.4%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45,5%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앓고 있는 주요 만성질병(질환)으로는 '고혈압, 저혈압'(20.0%), '정신질환(우울증 등)'(8.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우울증 등)'(15.2%), '뇌전증(구간질)'(13.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의 경우 만성질병(질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0.3%로 나타났고, 정신적 장애의 경우 43.4%로 나타났다.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응답자가 앓고 있는 주요 질병(질환)은 '고혈압, 저혈압'(13.8%), '당뇨병'(10.3%) 등의 순이었으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응답자의 경우 '고혈압, 저혈압'(15.9%), '정신질환(우울증 등)'(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살펴보면, '이용자 등'은 만성질환이 없다는 응답이 45.9%, 퇴거자는 54.8%로 나타났으며, '이용자 등'이 앓고 있는 주요 질병(질환)은 '고혈압, 저혈압'(14.7%), '정신질환(우울증 등)'(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퇴거자의 경우 '고혈압, 저혈압'(16.1%), '당뇨병'(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79〉 앓고 있는 만성질병 (복수응답)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없음 | 고혈압, 저혈압 | 정신질환 (우울증 등) | 뇌전증 (구 간질) | 당뇨병 |
|---|---|---|---|---|---|---|---|
| 전체 | | 171 | 49.1 | 15.2 | 11.1 | 8.8 | 6.4 |
| 성별 | 남성 | 105 | 51.4 | 20.0 | 8.6 | 5.7 | 7.6 |
| | 여성 | 66 | 45.5 | 7.6 | 15.2 | 13.6 | 4.5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60.3 | 13.8 | 3.4 | 5.2 | 10.3 |
| | 정신적장애 | 113 | 43.4 | 15.9 | 15.0 | 10.6 | 4.4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45.9 | 14.7 | 12.8 | 11.9 | 4.6 |
| | 퇴거자 | 62 | 54.8 | 16.1 | 8.1 | 3.2 | 9.7 |

| 구분 | | 사례수 | 갑상선 질환 |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 | 골다공증 | 이상 지질혈증 (고지혈증) | 심근 경색증, 협심증 |
|---|---|---|---|---|---|---|---|
| 전체 | | 171 | 6.4 | 3.5 | 3.5 | 3.5 | 2.3 |
| 성별 | 남성 | 105 | 2.9 | 1.9 | 3.8 | 2.9 | 2.9 |
| | 여성 | 66 | 12.1 | 6.1 | 3.0 | 4.5 | 1.5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0.0 | 0.0 | 3.4 | 5.2 | 5.2 |
| | 정신적장애 | 113 | 9.7 | 5.3 | 3.5 | 2.7 | 0.9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8.3 | 4.6 | 4.6 | 1.8 | 0.9 |
| | 퇴거자 | 62 | 3.2 | 1.6 | 1.6 | 6.5 | 4.8 |

| 구분 | | 사례수 | 백내장, 녹내장 | 만성간염, 간경변 | 만성 기관지염 (심한 가래,기침) | 만성 중이염 | 암 (위,간,폐, 기관지등) |
|---|---|---|---|---|---|---|---|
| 전체 | | 171 | 2.3 | 1.8 | 1.8 | 1.8 | 1.2 |
| 성별 | 남성 | 105 | 1.9 | 1.9 | 0.0 | 2.9 | 0.0 |
| | 여성 | 66 | 3.0 | 1.5 | 4.5 | 0.0 | 3.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0.0 | 0.0 | 1.7 | 3.4 | 0.0 |
| | 정신적장애 | 113 | 3.5 | 2.7 | 1.8 | 0.9 | 1.8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2.8 | 2.8 | 2.8 | 0.9 | 1.8 |
| | 퇴거자 | 62 | 1.6 | 0.0 | 0.0 | 3.2 | 0.0 |

| 구분 | | 사례수 | 위염, 위궤양, 십이장궤양 등 | 중풍,뇌혈관질환 | 천식 | 만성신부전증(만성신장질환) | 기타 |
|---|---|---|---|---|---|---|---|
| 전체 | | 171 | 1.2 | 1.2 | 1.2 | 0.6 | 10.5 |
| 성별 | 남성 | 105 | 1.0 | 1.9 | 1.9 | 1.0 | 8.6 |
| | 여성 | 66 | 1.5 | 0.0 | 0.0 | 0.0 | 13.6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1.7 | 0.0 | 0.0 | 1.7 | 6.9 |
| | 정신적장애 | 113 | 0.9 | 1.8 | 1.8 | 0.0 | 12.4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0.9 | 0.0 | 0.0 | 0.0 | 13.8 |
| | 퇴거자 | 62 | 1.6 | 3.2 | 3.2 | 1.6 | 4.8 |

### 3) 운동

지난 1주일간 주기적으로 한 운동 횟수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1.5%가 '0회'로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1주일에 '4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2.8%로 가장 많았고, 1주일에 '2회'(14.0%), '3회'(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비교 결과, '0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년도(55.3%) 대비 13.8%p 감소하였다.

〈표 4-80〉 1주일 평균 운동 횟수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0회 | 1회 | 2회 | 3회 | 4회 이상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46.5 | 13.9 | 13.9 | 9.7 | 16.0 |
| | 2019년 | 152 | 42.8 | 12.5 | 10.5 | 14.5 | 19.7 |
| | 2020년 | 159 | 55.3 | 9.4 | 7.5 | 11.9 | 15.7 |
| | 2021년 | 171 | 41.5 | 9.9 | 14.0 | 11.7 | 22.8 |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43.8%가 지난 1주일간 운동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37.9%가 1주일간 운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1주일간 운동 횟수를 살펴보면, 신체적 장애의 경우 운동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5.5%로 나타났고, 정신적 장애의 경우에는 29.2%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의 경우 34.9%가, 퇴거자의 경우 53.2%가 지난 1주일간 운동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4-81〉 1주일 평균 운동 횟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0회 | 1회 | 2회 | 3회 | 4회 이상 |
|---|---|---|---|---|---|---|---|
| 전체 | | 171 | 41.5 | 9.9 | 14.0 | 11.7 | 22.8 |
| 성별 | 남성 | 105 | 43.8 | 8.6 | 14.3 | 15.2 | 18.1 |
| | 여성 | 66 | 37.9 | 12.1 | 13.6 | 6.1 | 30.3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65.5 | 10.3 | 10.3 | 5.2 | 8.6 |
| | 정신적장애 | 113 | 29.2 | 9.7 | 15.9 | 15.0 | 30.1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34.9 | 10.1 | 13.8 | 11.0 | 30.3 |
| | 퇴거자 | 62 | 53.2 | 9.7 | 14.5 | 12.9 | 9.7 |

지난 1주일간 1회 이상 운동한 적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1회 평균 운동 시간을 조사한 결과, 1회 평균 '31분 이상 ~ 60분 이하' 운동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30분 이하'(37.0%), '61분 이상 120분 이하'(12.0%), '121분 이상'(6.0%)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비교 결과, '30분 이하'의 시간 동안 운동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년도(28.2%)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121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도(12.7%)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표 4-82〉 1회 평균 운동 시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30분 이하 | 31분 이상~60분 이하 | 61분 이상~120분 이하 | 121분 이상 |
|---|---|---|---|---|---|---|
| 해당연도 | 2018년 | 77 | 26.0 | 44.2 | 19.5 | 10.4 |
| | 2019년 | 87 | 19.5 | 49.4 | 21.8 | 9.2 |
| | 2020년 | 71 | 28.2 | 43.7 | 15.5 | 12.7 |
| | 2021년 | 100 | 37.0 | 45.0 | 12.0 | 6.0 |

1회 평균 운동 시간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31분 이상 60분 이하' 운동한다는 비율이 54.2%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30분 이하' 운동한다는 비율이 4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의 60.0%가 '31분 이상 60분 이하' 운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의 42.5%가 '30분 이하' 운동한다고 응답하였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살펴보면, '이용자 등'의 경우 42.3%, 퇴거자의 경우 51.7%가 '31분 이상 ~ 60분 이하' 운동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83〉 1회 평균 운동 시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30분 이하 | 31분 이상~60분 이하 | 61분 이상~120분 이하 | 121분 이상 |
|---|---|---|---|---|---|---|
| 전체 | | 100 | 37.0 | 45.0 | 12.0 | 6.0 |
| 성별 | 남성 | 59 | 28.8 | 54.2 | 10.2 | 6.8 |
| | 여성 | 41 | 48.8 | 31.7 | 14.6 | 4.9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20 | 15.0 | 60.0 | 10.0 | 15.0 |
| | 정신적장애 | 80 | 42.5 | 41.3 | 12.5 | 3.8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71 | 38.0 | 42.3 | 12.7 | 7.0 |
| | 퇴거자 | 29 | 34.5 | 51.7 | 10.3 | 3.4 |

2021년 조사 결과, 주로 하는 운동 유형으로는 '걷기'가 69.0%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를 제외하면 '자전거'(7.0%), '헬스 및 필라테스'(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비교 결과로는 '걷기'가 69.0%로 전년도(35.2%)에 비해 33.8%p 증가하였으며, '헬스 및 필라테스'가 4.0%로 전년도(14.1%) 대비 10.1%p 감소하였다.

〈표 4-84〉 주로 하는 운동 유형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걷기 | 자전거 | 헬스 및 필라테스 | 달리기 | 보치아 | 수영 | 등산 | 스트레칭 | 기타 |
|---|---|---|---|---|---|---|---|---|---|---|---|
| 해당연도 | 2018년 | 77 | 36.4 | 9.1 | 13.0 | 0.0 | 7.8 | 0.0 | 0.0 | 0.0 | 33.8 |
| | 2019년 | 87 | 27.6 | 6.9 | 19.5 | 1.1 | 11.5 | 6.9 | 0.0 | 0.0 | 26.4 |
| | 2020년 | 71 | 35.2 | 12.7 | 14.1 | 1.4 | 8.5 | 1.4 | 1.4 | 4.2 | 21.1 |
| | 2021년 | 100 | 69.0 | 7.0 | 4.0 | 3.0 | 3.0 | 1.0 | 1.0 | 0.0 | 12.0 |

* '기타'에는 '축구, 농구, 탁구, 클라이밍' 등이 있음.

성별에 따른 주 운동 유형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걷기'(64.4%), '자전거'(10.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걷기'(75.6%), '헬스 및 필라테스'(4.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의 경우 '걷기'(60.0%), '보치아'(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의 경우 '걷기'(71.3%), '자전거'(8.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의 경우 '걷기'(70.4%)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전거'(5.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퇴거자의 경우 '걷기'(65.5%), '자전거'(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85〉 주로 하는 운동 유형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걷기 | 자전거 | 헬스 및 필라테스 | 달리기 | 보치아 | 수영 | 등산 | 기타 |
|---|---|---|---|---|---|---|---|---|---|---|
| 전체 | | 100 | 69.0 | 7.0 | 4.0 | 3.0 | 3.0 | 1.0 | 1.0 | 12.0 |
| 성별 | 남성 | 59 | 64.4 | 10.2 | 3.4 | 3.4 | 5.1 | 1.7 | 1.7 | 10.2 |
| | 여성 | 41 | 75.6 | 2.4 | 4.9 | 2.4 | 0.0 | 0.0 | 0.0 | 14.6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20 | 60.0 | 0.0 | 5.0 | 5.0 | 10.0 | 5.0 | 0.0 | 15.0 |
| | 정신적장애 | 80 | 71.3 | 8.8 | 3.8 | 2.5 | 1.3 | 0.0 | 1.3 | 11.3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71 | 70.4 | 5.6 | 4.2 | 4.2 | 2.8 | 0.0 | 1.4 | 11.3 |
| | 퇴거자 | 29 | 65.5 | 10.3 | 3.4 | 0.0 | 3.4 | 3.4 | 0.0 | 13.8 |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운동을 싫어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운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18.3%), '운동을 도와줄 보호자가 없어서'(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86〉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운동을 싫어해서 | 운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 운동을 도와줄 보호자가 없어서 | 운동을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 운동 방법을 잘 몰라서 |
|---|---|---|---|---|---|---|---|
| 해당연도 | 2018년 | 67 | 23.9 | 37.3 | 13.4 | 6.0 | 1.5 |
| | 2019년 | 65 | 29.2 | 32.3 | 9.2 | 6.2 | 9.2 |
| | 2020년 | 86 | 33.7 | 12.8 | 4.7 | 1.2 | 10.5 |
| | 2021년 | 71 | 29.6 | 18.3 | 14.1 | 7.0 | 7.0 |
| 구분 | | 사례수 |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여 | 운동 할 장소가 부족하여 | 비용이 부담되어서 | 기타 | 모름/무응답 |
| 해당연도 | 2018년 | 67 | 9.0 | 7.5 | 0.0 | 0.0 | 1.5 |
| | 2019년 | 65 | 3.1 | 10.8 | 0.0 | 0.0 | 0.0 |
| | 2020년 | 86 | 3.5 | 15.1 | 2.3 | 16.3 | 0.0 |
| | 2021년 | 71 | 4.2 | 0.0 | 0.0 | 11.3 | 8.5 |

* '기타'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관절 등 통증 때문에' 등이 있음.

성별로 살펴보면, '운동을 싫어해서'라는 이유가 남성의 경우 28.3%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32.0%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의 경우 '운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21.1%)라는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의 경우 '운동을 싫어해서'(45.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은 '운동을 싫어해서'(39.5%)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퇴거자의 경우 '운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30.3%)라는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87〉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운동을 싫어해서 | 운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 운동을 도와줄 보호자가 없어서 | 운동을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
|---|---|---|---|---|---|---|
| 전체 | | 71 | 29.6 | 18.3 | 14.1 | 7.0 |
| 성별 | 남성 | 46 | 28.3 | 23.9 | 17.4 | 6.5 |
| | 여성 | 25 | 32.0 | 8.0 | 8.0 | 8.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38 | 15.8 | 21.1 | 18.4 | 13.2 |
| | 정신적장애 | 33 | 45.5 | 15.2 | 9.1 | 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38 | 39.5 | 7.9 | 13.2 | 0.0 |
| | 퇴거자 | 33 | 18.2 | 30.3 | 15.2 | 15.2 |

| 구분 | | 사례수 | 운동 방법을 잘 몰라서 |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여 | 기타 | 모름/무응답 |
|---|---|---|---|---|---|---|
| 전체 | | 71 | 7.0 | 4.2 | 11.3 | 8.5 |
| 성별 | 남성 | 46 | 8.7 | 2.2 | 8.7 | 4.3 |
| | 여성 | 25 | 4.0 | 8.0 | 16.0 | 16.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38 | 5.3 | 0.0 | 15.8 | 10.5 |
| | 정신적장애 | 33 | 9.1 | 9.1 | 6.1 | 6.1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38 | 10.5 | 5.3 | 13.2 | 10.5 |
| | 퇴거자 | 33 | 3.0 | 3.0 | 9.1 | 6.1 |

### 4) 주관적 몸무게

자신의 몸무게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3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체중이다'(39.2%), '저체중이다'(21.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88〉 자신의 주관적 몸무게 수준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적당하다 | 저체중이다 | 과체중이다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49.3 | 20.8 | 29.9 |
| | 2019년 | 152 | 57.9 | 15.8 | 26.3 |
| | 2020년 | 159 | 41.5 | 22.0 | 36.5 |
| | 2021년 | 171 | 39.8 | 21.1 | 39.2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과체중'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43.1%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45.1%가 '과체중'이라고 응답하였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의 경우 42.2%가 '과체중'이라고 응답하였고, 퇴거자의 경우 50.0%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9〉 자신의 주관적 몸무게 수준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적당하다 | 저체중이다 | 과체중이다 |
|---|---|---|---|---|---|
| 전체 | | 171 | 39.8 | 21.1 | 39.2 |
| 성별 | 남성 | 105 | 41.9 | 22.9 | 35.2 |
| | 여성 | 66 | 36.4 | 18.2 | 45.5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43.1 | 29.3 | 27.6 |
| | 정신적장애 | 113 | 38.1 | 16.8 | 45.1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33.9 | 23.9 | 42.2 |
| | 퇴거자 | 62 | 50.0 | 16.1 | 33.9 |

### 5) 수면시간

2021년 전체 응답자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이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수면시간은 약 450.4분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평균 수면시간(456.2분) 대비 5.9분 감소하였다.

〈표 4-90〉 하루 평균 수면시간 - 연도별

(단위: 명, %, 분)

| 구분 | | 사례수 | 6시간 미만 |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 10시간 이상 | 평균(분)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16.7 | 34.0 | 41.0 | 8.3 | 430.6 |
| | 2019년 | 152 | 13.2 | 29.6 | 52.0 | 5.3 | 447.2 |
| | 2020년 | 159 | 13.2 | 28.9 | 44.7 | 13.2 | 456.2 |
| | 2021년 | 171 | 4.7 | 48.5 | 36.8 | 9.9 | 450.4 |

성별로 남성과 여성의 경우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이 각각 48.6%, 48.5%로 가장 많았고, 평균 수면시간은 남성이 약 449.4분, 여성이 약 451.8분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모두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이 각각 51.7%, 4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평균 수면시간은 각각 약 450.0분, 450.5분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의 경우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이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수면시간은 약 456.9분으로 나타났고, 퇴거자의 경우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 59.7%로 높게 나타났고, 평균 수면시간은 약 438.9분으로 나타났다.

〈표 4-91〉 하루 평균 수면시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분)

| 구분 | | 사례수 | 6시간 미만 |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 10시간 이상 | 평균(분) |
|---|---|---|---|---|---|---|---|
| 전체 | | 171 | 4.7 | 48.5 | 36.8 | 9.9 | 450.4 |
| 성별 | 남성 | 105 | 4.8 | 48.6 | 37.1 | 9.5 | 449.4 |
| | 여성 | 66 | 4.5 | 48.5 | 36.4 | 10.6 | 451.8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6.9 | 51.7 | 29.3 | 12.1 | 450.0 |
| | 정신적장애 | 113 | 3.5 | 46.9 | 40.7 | 8.8 | 450.5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3.7 | 42.2 | 45.0 | 9.2 | 456.9 |
| | 퇴거자 | 62 | 6.5 | 59.7 | 22.6 | 11.3 | 438.9 |

### 6) 하루 식사 수 및 식사량

2021년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인 74.3%가 하루 '3회'의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2회'(21.6%), '1회'(2.9%), '4회 이상' (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비교 결과 하루 3회 식사를 한다는 응답이 74.3%로 전년도(59.1%) 대비 15.2%p 대폭 증가하였다.

〈표 4-92〉 하루 평균 식사 횟수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1회미만 | 1회 | 2회 | 3회 | 4회 이상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0.0 | 3.5 | 38.2 | 57.6 | 0.7 |
| | 2019년 | 152 | 0.0 | 0.7 | 34.2 | 64.5 | 0.7 |
| | 2020년 | 159 | 0.6 | 3.1 | 36.5 | 59.1 | 0.6 |
| | 2021년 | 171 | 0.0 | 2.9 | 21.6 | 74.3 | 1.2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응답자의 73.3%, 여성 응답자의 75.8%가 하루 평균 '3회'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하루 평균 '3회' 식사를 하는 비율이 신체적 장애의 경우 72.4%, 정신적 장애의 경우 75.2%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의 경우 74.3%, 퇴거자의 경우 74.2%가 하루 평균 '3회'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3〉 하루 평균 식사 횟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1회미만 | 1회 | 2회 | 3회 | 4회 이상 |
|---|---|---|---|---|---|---|---|
| 전체 | | 171 | 0.0 | 2.9 | 21.6 | 74.3 | 1.2 |
| 성별 | 남성 | 105 | 0.0 | 2.9 | 22.9 | 73.3 | 1.0 |
| | 여성 | 66 | 0.0 | 3.0 | 19.7 | 75.8 | 1.5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0.0 | 3.4 | 24.1 | 72.4 | 0.0 |
| | 정신적장애 | 113 | 0.0 | 2.7 | 20.4 | 75.2 | 1.8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0.0 | 2.8 | 21.1 | 74.3 | 1.8 |
| | 퇴거자 | 62 | 0.0 | 3.2 | 22.6 | 74.2 | 0.0 |

하루 평균 식사량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66.7%)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소식'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2%, '대식'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5.1%로 나타났다.

〈표 4-94〉 하루 평균 식사량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매우 적게 먹는다 | 적게 먹는다 | 적당하다 | 많이 먹는다 | 매우 많이 먹는다 | 소식 | 적당 | 대식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0.7 | 18.1 | 66.0 | 15.3 | 0.0 | 18.8 | 66.0 | 15.3 |
| | 2019년 | 152 | 0.7 | 12.5 | 73.7 | 13.2 | 0.0 | 13.2 | 73.7 | 13.2 |
| | 2020년 | 159 | 1.3 | 12.6 | 71.7 | 12.6 | 1.9 | 13.8 | 71.7 | 14.5 |
| | 2021년 | 171 | 0.0 | 8.2 | 66.7 | 24.0 | 1.2 | 8.2 | 66.7 | 25.1 |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식사량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9.5%, 여성의 경우 62.1%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경우 84.5%,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경우 57.5%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의 경우 61.5%, 퇴거자의 경우 75.8%가 하루 평균 식사량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4-95〉 하루 평균 식사량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매우 적게 먹는다 | 적게 먹는다 | 적당하다 | 많이 먹는다 | 매우 많이 먹는다 | 소식 | 적당 | 대식 |
|---|---|---|---|---|---|---|---|---|---|---|
| 전체 | | 171 | 0.0 | 8.2 | 66.7 | 24.0 | 1.2 | 8.2 | 66.7 | 25.1 |
| 성별 | 남성 | 105 | 0.0 | 7.6 | 69.5 | 21.9 | 1.0 | 7.6 | 69.5 | 22.9 |
| | 여성 | 66 | 0.0 | 9.1 | 62.1 | 27.3 | 1.5 | 9.1 | 62.1 | 28.8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0.0 | 6.9 | 84.5 | 8.6 | 0.0 | 6.9 | 84.5 | 8.6 |
| | 정신적장애 | 113 | 0.0 | 8.8 | 57.5 | 31.9 | 1.8 | 8.8 | 57.5 | 33.6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0.0 | 6.4 | 61.5 | 30.3 | 1.8 | 6.4 | 61.5 | 32.1 |
| | 퇴거자 | 62 | 0.0 | 11.3 | 75.8 | 12.9 | 0.0 | 11.3 | 75.8 | 12.9 |

### 7) 패스트푸드 섭취 수

1주일 평균 패스트푸드 섭취 횟수에 대해 '1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0회'(25.1%), '2회'(21.1%), 그리고 '3회'와 '4회 이상'이 각각 9.9%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0회'로 응답한 비율이 25.1%로 전년도(12.6%) 대비 12.5%p 증가한 반면, '2회'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도(28.9%) 대비 7.8%p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4-96〉 1주일 평균 패스트푸드 섭취 수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0회 | 1회 | 2회 | 3회 | 4회 이상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22.9 | 33.3 | 20.8 | 10.4 | 12.5 |
| | 2019년 | 152 | 33.6 | 36.2 | 15.1 | 7.2 | 7.9 |
| | 2020년 | 159 | 12.6 | 37.7 | 28.9 | 13.2 | 7.5 |
| | 2021년 | 171 | 25.1 | 33.9 | 21.1 | 9.9 | 9.9 |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1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8.6%,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응답자의 경우 '0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응답자의 경우 '1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의 경우 '1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퇴거자의 경우 '0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97〉 1주일 평균 패스트푸드 섭취 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0회 | 1회 | 2회 | 3회 | 4회 이상 |
|---|---|---|---|---|---|---|---|
| 전체 | | 171 | 25.1 | 33.9 | 21.1 | 9.9 | 9.9 |
| 성별 | 남성 | 105 | 24.8 | 28.6 | 21.9 | 13.3 | 11.4 |
| | 여성 | 66 | 25.8 | 42.4 | 19.7 | 4.5 | 7.6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46.6 | 25.9 | 17.2 | 5.2 | 5.2 |
| | 정신적장애 | 113 | 14.2 | 38.1 | 23.0 | 12.4 | 12.4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16.5 | 37.6 | 22.0 | 11.9 | 11.9 |
| | 퇴거자 | 62 | 40.3 | 27.4 | 19.4 | 6.5 | 6.5 |

## 8) 음식을 씹는데 불편함 정도

전체 응답자의 66.1%가 치아나 틀니, 잇몸 등 입안(치과)의 문제로 음식을 씹는데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연도별로는, '불편하지 않음'의 비율이 전년도(71.7%) 대비 5.6%p 감소하였고, '불편함'의 비율은 전년도(28.3%) 대비 5.6%p 증가하였다.

〈표 4-98〉 입안(치과)의 문제로 음식을 씹는데 불편함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전혀 불편하지 않다 | 거의 불편하지 않은 편이다 | 불편한 편이다 | 매우 불편하다 | 불편하지 않음 | 불편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47.2 | 29.9 | 16.0 | 6.9 | 77.1 | 22.9 |
| | 2019년 | 152 | 41.4 | 32.9 | 21.7 | 3.9 | 74.3 | 25.7 |
| | 2020년 | 159 | 41.5 | 30.2 | 24.5 | 3.8 | 71.7 | 28.3 |
| | 2021년 | 171 | 28.1 | 38.0 | 28.7 | 5.3 | 66.1 | 33.9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63.8%, 여성의 경우 69.7%가 입안(치과) 문제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의 경우 65.5%, 정신적 장애의 경우 66.4%가 입안(치과) 문제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입안(치과) 문제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용자 등'의 경우 64.2%, 퇴거자의 경우 69.4%로 나타났다.

〈표 4-99〉 입안(치과)의 문제로 음식을 씹는데 불편함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전혀 불편하지 않다 | 거의 불편하지 않은 편이다 | 불편한 편이다 | 매우 불편하다 | 불편하지 않음 | 불편 |
|---|---|---|---|---|---|---|---|---|
| 전체 | | 171 | 28.1 | 38.0 | 28.7 | 5.3 | 66.1 | 33.9 |
| 성별 | 남성 | 105 | 24.8 | 39.0 | 30.5 | 5.7 | 63.8 | 36.2 |
| | 여성 | 66 | 33.3 | 36.4 | 25.8 | 4.5 | 69.7 | 30.3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27.6 | 37.9 | 29.3 | 5.2 | 65.5 | 34.5 |
| | 정신적장애 | 113 | 28.3 | 38.1 | 28.3 | 5.3 | 66.4 | 33.6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30.3 | 33.9 | 31.2 | 4.6 | 64.2 | 35.8 |
| | 퇴거자 | 62 | 24.2 | 45.2 | 24.2 | 6.5 | 69.4 | 30.6 |

### 9) 식생활 및 영양관리상태

식생활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질병(건강) 때문에 먹는 음식의 양이나 종류를 바꾸고 있다'의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31.0%, '과일을 거의 먹지 않는다'의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15.8%, '채소를 거의 먹지 않는다'의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14.0%, '유제품을 거의 먹지 않는다'의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17.5%, '거의 매일 3잔 이상의 술을 마신다'의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3.5%, '돈이 부족해 필요한 음식을 구입 못할 때도 있다'의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12.3%, '거의 매번 혼자서 식사한다'의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29.2%, '하루에 세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약(처방 및 비처방)을 복용한다'의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20.5%, '지난 6개월 동안 몸무게가 5kg 이상 줄거나 늘었다'의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11.1%, '장보고, 음식 만들고, 식사하는 것이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다'의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30.4%,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이 먹거나 빨리 먹는다'의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23.4%로 조사되었다.

〈표 4-100〉 식생활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질병(건강) 때문에 먹는 음식의 양이나 종류를 바꾸고 있다 | | 과일을 거의 먹지 않는다 | | 채소를 거의 먹지 않는다 | | 유제품을 거의 먹지 않는다 | |
|---|---|---|---|---|---|---|---|---|---|---|
| |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 | - | - | - | - | - | - | - |
| | 2019년 | 152 | - | - | - | - | - | - | - | - |
| | 2020년 | 159 | 27.7 | 72.3 | 27.0 | 73.0 | 25.2 | 74.8 | 27.0 | 73.0 |
| | 2021년 | 171 | 31.0 | 69.0 | 15.8 | 84.2 | 14.0 | 86.0 | 17.5 | 82.5 |

| 구분 | | 사례수 | 거의 매일 3잔 이상의 술을 마신다 | | 돈이 부족해 필요한 음식을 구입 못할 때도 있다 | | 거의 매번 혼자서 식사한다 | | 하루에 세 가지 이상 다른 약 (처방 및 비처방)을 복용 한다 | |
|---|---|---|---|---|---|---|---|---|---|---|
| |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 | - | - | - | 50.0 | 50.0 | - | - |
| | 2019년 | 152 | - | - | - | - | 35.5 | 64.5 | - | - |
| | 2020년 | 159 | 6.3 | 93.7 | 20.1 | 79.9 | 26.4 | 73.6 | 20.1 | 79.9 |
| | 2021년 | 171 | 3.5 | 96.5 | 12.3 | 87.7 | 29.2 | 70.8 | 20.5 | 79.5 |

| 구분 | | 사례수 | 지난 6개월 사이 몸무게가 5kg 이상 줄거나 늘었다 | | 식사하는 것이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다 | |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이 먹거나 빨리 먹는다 | |
|---|---|---|---|---|---|---|---|---|
| |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13.2 | 86.8 | - | - | 32.6 | 67.4 |
| | 2019년 | 152 | 11.8 | 88.2 | - | - | 17.1 | 82.9 |
| | 2020년 | 159 | 15.7 | 84.3 | 39.0 | 61.0 | 28.3 | 71.7 |
| | 2021년 | 171 | 11.1 | 88.9 | 30.4 | 69.6 | 23.4 | 76.6 |

남성의 경우 '지난 6개월 동안 몸무게가 5kg 이상 줄거나 늘었다'(9.5%), '혼자서 밥을 먹는 경우가 많다'(35.2%),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이 먹거나 빨리 먹는다'(21.0%), '과일을 거의 먹지 않는다'(17.1%), '채소를 거의 먹지 않는다'(15.2%), '유제품을 거의 먹지 않는다'(17.1%)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지난 6개월 동안 몸무게가 5kg 이상 줄거나 늘었다'(13.6%), '혼자서 밥을 먹는 경우가 많다'(19.7%),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이 먹거나 빨리 먹는다'(27.3%), '과일을 거의 먹지 않는다'(13.6%), '채소를 거의 먹지 않는다'(12.1%), '유제품을 거의 먹지 않는다'(18.2%)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를 가진 경우 '지난 6개월 동안 몸무게가 5kg 이상 줄거나 늘었다'(5.2%), '혼자서 밥을 먹는 경우가 많다'(31.0%),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이 먹거나 빨리 먹는다'(15.5%), '과일을 거의 먹지 않는다'(19.0%), '채소를 거의 먹지 않는다'(15.5%), '유제품을 거의 먹지 않는다'(19.0%)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경우 '지난 6개월 동안 몸무게가 5kg 이상 줄거나 늘었다'(14.2%), '혼자서 밥을 먹는 경우가 많다'(28.3%),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이 먹거나 빨리 먹는다'(27.4%), '과일을 거의 먹지 않는다'(14.2%), '채소를 거의 먹지 않는다'(13.3%), '유제품을 거의 먹지 않는다'(16.8%)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의 경우 '지난 6개월 동안 몸무게가 5kg 이상 줄거나 늘었다'(11.9%), '혼자서 밥을 먹는 경우가 많다'(24.8%),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이 먹거나 빨리 먹는다'(22.9%), '과일을 거의 먹지 않는다'(16.5%), '채소를 거의 먹지 않는다'(13.8%), '유제품을 거의 먹지 않는다'(17.4%)로 나타났으며, 퇴거자는 '지난 6개월 동안 몸무게가 5kg 이상 줄거나 늘었다'(9.7%), '혼자서 밥을 먹는 경우가 많다'(37.1%),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이 먹거나 빨리 먹는다'(24.2%), '과일을 거의 먹지 않는다'(14.5%), '채소를 거의 먹지 않는다'(14.5%), '유제품을 거의 먹지 않는다'(17.7%)로 조사되었다.

〈표 4-101〉 식생활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질병(건강) 때문에 먹는 음식의 양이나 종류를 바꾸고 있다 | | 과일을 거의 먹지 않는다 | | 채소를 거의 먹지 않는다 | | 유제품을 거의 먹지 않는다 | |
|---|---|---|---|---|---|---|---|---|---|---|
| |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전체 | | 171 | 31.0 | 69.0 | 15.8 | 84.2 | 14.0 | 86.0 | 17.5 | 82.5 |
| 성별 | 남성 | 105 | 27.6 | 72.4 | 17.1 | 82.9 | 15.2 | 84.8 | 17.1 | 82.9 |
| | 여성 | 66 | 36.4 | 63.6 | 13.6 | 86.4 | 12.1 | 87.9 | 18.2 | 81.8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31.0 | 69.0 | 19.0 | 81.0 | 15.5 | 84.5 | 19.0 | 81.0 |
| | 정신적장애 | 113 | 31.0 | 69.0 | 14.2 | 85.8 | 13.3 | 86.7 | 16.8 | 83.2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38.5 | 61.5 | 16.5 | 83.5 | 13.8 | 86.2 | 17.4 | 82.6 |
| | 퇴거자 | 62 | 17.7 | 82.3 | 14.5 | 85.5 | 14.5 | 85.5 | 17.7 | 82.3 |

| 구분 | | 사례수 | 거의 매일 3잔 이상의 술을 마신다 | | 돈이 부족해 필요한 음식을 구입 못할 때도 있다 | | 거의 매번 혼자서 식사한다 | | 하루에 세 가지 이상 다른 약(처방 및 비처방)을 복용 한다 | |
|---|---|---|---|---|---|---|---|---|---|---|
| |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전체 | | 171 | 3.5 | 96.5 | 12.3 | 87.7 | 29.2 | 70.8 | 20.5 | 79.5 |
| 성별 | 남성 | 105 | 2.9 | 97.1 | 17.1 | 82.9 | 35.2 | 64.8 | 23.8 | 76.2 |
| | 여성 | 66 | 4.5 | 95.5 | 4.5 | 95.5 | 19.7 | 80.3 | 15.2 | 84.8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5.2 | 94.8 | 13.8 | 86.2 | 31.0 | 69.0 | 27.6 | 72.4 |
| | 정신적장애 | 113 | 2.7 | 97.3 | 11.5 | 88.5 | 28.3 | 71.7 | 16.8 | 83.2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1.8 | 98.2 | 9.2 | 90.8 | 24.8 | 75.2 | 20.2 | 79.8 |
| | 퇴거자 | 62 | 6.5 | 93.5 | 17.7 | 82.3 | 37.1 | 62.9 | 21.0 | 79.0 |

| 구분 | | 사례수 | 지난 6개월 사이 몸무게가 5kg 이상 줄거나 늘었다 | | 식사하는 것이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다 | |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이 먹거나 빨리 먹는다 | |
|---|---|---|---|---|---|---|---|---|
| |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전체 | | 171 | 11.1 | 88.9 | 30.4 | 69.6 | 23.4 | 76.6 |
| 성별 | 남성 | 105 | 9.5 | 90.5 | 33.3 | 66.7 | 21.0 | 79.0 |
| | 여성 | 66 | 13.6 | 86.4 | 25.8 | 74.2 | 27.3 | 72.7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5.2 | 94.8 | 36.2 | 63.8 | 15.5 | 84.5 |
| | 정신적장애 | 113 | 14.2 | 85.8 | 27.4 | 72.6 | 27.4 | 72.6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11.9 | 88.1 | 23.9 | 76.1 | 22.9 | 77.1 |
| | 퇴거자 | 62 | 9.7 | 90.3 | 41.9 | 58.1 | 24.2 | 75.8 |

영양관리상태를 살펴보면, 34.5%는 양호한 수준, 32.2%는 영양관리 주의가 요구되며, 33.3%는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영양관리 개선' 37.1%, '영양관리 주의' 32.4%, '양호' 30.5%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양호' 40.9%, '영양관리 주의' 31.8%, '영양관리 개선' 27.3%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장애를 가진 경우 '영양관리 주의'와 '영양관리 개선'이 각각 34.5%, '양호'는 31.0%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경우 '양호' 36.3%, '영양관리 개선' 32.7%, '영양관리 주의' 31.0%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의 경우 '양호' 35.8%, '영양관리 개선' 33.9%, '영양관리 주의' 30.3%로 나타났으며, 퇴거자는 '영양관리 주의' 35.5%, 그리고 '양호'와 '영양관리 개선'이 각각 32.3%로 나타났다.

〈표 4-102〉 영양관리상태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양호 | 영양관리 주의 | 영양관리 개선 |
|---|---|---|---|---|---|
| 전체 | | 171 | 34.5 | 32.2 | 33.3 |
| 성별 | 남성 | 105 | 30.5 | 32.4 | 37.1 |
| | 여성 | 66 | 40.9 | 31.8 | 27.3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31.0 | 34.5 | 34.5 |
| | 정신적장애 | 113 | 36.3 | 31.0 | 32.7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35.8 | 30.3 | 33.9 |
| | 퇴거자 | 62 | 32.3 | 35.5 | 32.3 |

* 10개 항목(문30, 문31, 문32)에 문항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총 21점을 기준으로 0~2점 '양호', 3~5점 '영양관리 주의', 6점이상은 '영양관리 개선'으로 구분함
* 문30의 '2회이하'(①, ②, ③)는 3점, '3회이상'(④, ⑤점)은 0점으로 배점 처리함
* 문31의 '불편하지 않은 경우'(①, ②) 0점, '불편한 경우'(③, ④) 2점으로 배점 처리함
* 문32의 경우 배점 처리는 다음과 같음

| 내용 | | | 배점 | |
|---|---|---|---|---|
| | | | 예 | 아니오 |
| 1. 질병(건강) 때문에 먹는 음식의 양이나 종류를 바꾸고 있다 | | | 2 | 0 |
| 2. 과일, 채소 또는 유제품(우유 등)을 거의 먹지 않는다 | | | 2 (하나라도 '예'인 경우) | 0 |
| 2-1. 과일 | 2-2. 채소 | 2-3. 유제품 | | |
| 3. 거의 매일 3잔 이상의 술을 마신다 | | | 2 | 0 |
| 4. 돈이 부족해 필요한 음식을 구입 못할 때도 있다 | | | 4 | 0 |
| 5. 거의 매번 혼자서 식사한다 | | | 1 | 0 |
| 6. 하루에 세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약(처방 및 비처방)을 복용 한다 | | | 1 | 0 |
| 7. 지난 6개월 사이 일부러 체중을 조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5kg 이상 줄거나 늘었다 | | | 2 | 0 |
| 8. 장보고, 음식 만들고, 식사하는 것이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다 | | | 2 | 0 |

### 10) 민간의료보험

암보험, 심혈관질환보험, 사고보장보험 등 의료비 보조를 위한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69.0%는 '가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가입하지 않았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69.0%로 전년도(67.3%) 대비 1.7%p 증가하였으며, '가입했음'의 비율은 17.5%로 전년도(17.0%) 대비 0.5%p 증가하였다.

〈표 4-103〉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가입했음 | 가입하지 않았음 | 모름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29.9 | 60.4 | 9.7 |
| | 2019년 | 152 | 14.5 | 80.3 | 5.3 |
| | 2020년 | 159 | 17.0 | 67.3 | 15.7 |
| | 2021년 | 171 | 17.5 | 69.0 | 13.5 |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70.5%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66.7%가 '가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경우는 75.9%,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경우 65.5%가 '가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의 70.6%가, 퇴거자의 66.1%가 '가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표 4-104〉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가입했음 | 가입하지 않았음 | 모름 |
|---|---|---|---|---|---|
| 전체 | | 171 | 17.5 | 69.0 | 13.5 |
| 성별 | 남성 | 105 | 15.2 | 70.5 | 14.3 |
| | 여성 | 66 | 21.2 | 66.7 | 12.1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15.5 | 75.9 | 8.6 |
| | 정신적장애 | 113 | 18.6 | 65.5 | 15.9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12.8 | 70.6 | 16.5 |
| | 퇴거자 | 62 | 25.8 | 66.1 | 8.1 |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입한 보험의 개수는 평균 1.3개로 나타났으며, 가입한 보험의 개수는 '1개'(83.3%), '2개'(6.7%), '3개'(6.7%), '4개 이상'(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가입한 보험의 개수는 평균 1.3개로 전년도(1.7개) 대비 0.4개 감소하였다.

〈표 4-105〉 가입한 민간의료보험 개수 - 연도별

(단위: 명, %, 개)

| 구분 | | 사례수 | 1개 | 2개 | 3개 | 4개이상 | 평균(개) |
|---|---|---|---|---|---|---|---|
| 해당연도 | 2018년 | 43 | 62.8 | 23.3 | 14.0 | 0.0 | 1.5 |
| | 2019년 | 22 | 68.2 | 27.3 | 4.5 | 0.0 | 1.4 |
| | 2020년 | 27 | 59.3 | 25.9 | 7.4 | 7.4 | 1.7 |
| | 2021년 | 30 | 83.3 | 6.7 | 6.7 | 3.3 | 1.3 |

성별로 남성은 '1개'인 경우가 75.0%, 평균 1.4개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1개'인 경우가 92.9%, 평균 1.3개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는 '1개'(100.0%), 평균 1.0개, 정신적 장애는 '1개'(76.2%), 평균 1.5개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은 '1개'(85.7%), 평균 1.4개, 퇴거자는 '1개'(81.3%), 평균 1.3개로 조사되었다.

〈표 4-106〉 가입한 민간의료보험 개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개)

| 구분 | | 사례수 | 1개 | 2개 | 3개 | 4개이상 | 평균(개) |
|---|---|---|---|---|---|---|---|
| 전체 | | 30 | 83.3 | 6.7 | 6.7 | 3.3 | 1.3 |
| 성별 | 남성 | 16 | 75.0 | 12.5 | 12.5 | 0.0 | 1.4 |
| | 여성 | 14 | 92.9 | 0.0 | 0.0 | 7.1 | 1.3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9 | 100.0 | 0.0 | 0.0 | 0.0 | 1.0 |
| | 정신적장애 | 21 | 76.2 | 9.5 | 9.5 | 4.8 | 1.5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4 | 85.7 | 0.0 | 7.1 | 7.1 | 1.4 |
| | 퇴거자 | 16 | 81.3 | 12.5 | 6.3 | 0.0 | 1.3 |

한편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에 가입하려다 장애로 인해 가입을 거부당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있다' 13.5%, '없다' 86.5%로 나타났다. 가입 거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5%로 전년도(14.9%) 대비 1.4%p 감소하였다.

〈표 4-107〉 민간의료보험 가입 거부 경험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예 | 아니오 | 모름/ 무응답 |
|---|---|---|---|---|---|
| 해당연도 | 2018년 | 130 | 21.5 | 76.9 | 1.5 |
| | 2019년 | 144 | 5.6 | 94.4 | 0.0 |
| | 2020년 | 134 | 14.9 | 85.1 | 0.0 |
| | 2021년 | 148 | 13.5 | 86.5 | 0.0 |

성별로 보험 가입 거부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6.7%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8.6%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응답자의 경우 20.8%, 정신적 장애를 가진 응답자의 경우 9.5%가 보험 가입 거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보험 가입 거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이용자 등'의 7.7%, 퇴거자의 22.8%로 나타났다.

〈표 4-108〉 민간의료보험 가입 거부 경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예 | 아니오 |
|---|---|---|---|---|
| 전체 | | 148 | 13.5 | 86.5 |
| 성별 | 남성 | 90 | 16.7 | 83.3 |
| | 여성 | 58 | 8.6 | 91.4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3 | 20.8 | 79.2 |
| | 정신적장애 | 95 | 9.5 | 90.5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91 | 7.7 | 92.3 |
| | 퇴거자 | 57 | 22.8 | 77.2 |

### 11) 건강 소결

건강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난 6개월간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해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8.9%로 전년도(81.1%)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만성질환(질병)에 대해서는 '없음'이 49.1%로 나타나 전년도(43.6%)보다 5.7%p 높게 나타났다. 만성질환이 있다는 응답자의 주요 질환은 '고혈압, 저혈압'이 1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신질환(우울증 등)'이 11.1%로 나타났다. 지난 1주일간 주기적으로 한 운동 횟수에 대해서는 0회가 41.5%로 전년도(55.3%)에 비해 13.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0회'를 제외하고는 '4회 이상'이 2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운동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1회 평균 운동 시간을 조사한 결과, '31분 이상 ~ 60분 이하' 운동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30분 이하'인 경우가 37.0%로 전년도(28.2%)에 비해 8.8%p 높게 나타났다. 주로 하는 운동 유형으로는 '걷기'가 69.0%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35.2%) 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자신의 몸무게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조사한 결과, '적당하다'는 응답이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루 평균 수면시간에 대해서는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이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수면시간은 약 450.4분으로 나타났다. 하루 식사 수 및 식사량에 대해 74.3%가 하루 '3회'의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사량에 대해서는 '적당하다'는 응답 비율이 66.8%로 나타났다.

영양관리 상태를 분석한 결과, 34.5%는 양호한 수준, 32.2%는 영양관리 주의가 요구되며, 33.3%는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17.5%로 전년도(17.0%)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6 의료

## 1) 의료기관 이용

### (1) 의료기관 이용 여부 및 횟수

2021년 조사참여자 중 43.3%는 지난 6개월간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의료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각 항목별 이용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외래진료' 이용률 98.6%, '응급실' 이용률 4.1%, '입원' 경험률 10.8%로 조사되었다.

각 항목별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 횟수 및 일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외래진료 횟수' 8.0회, 평균 '응급실 이용 횟수' 1.7회, 평균 '입원 횟수' 1.3회, 평균 '입원 일수' 15.3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3.3%로 전년도(52.2%) 대비 8.9%p 감소하였다. 각 항목별로 '외래진료' 이용률은 전년도 대비 증가한 반면, '응급실' 이용 및 '입원' 경험률은 모두 감소하였다.

〈표 4-109〉 지난 6개월 간 의료기관 이용 여부 및 횟수/일수 - 연도별

(단위: 명, %, 회, 일)

| 구분 | | 의료기관 이용 | | 구분 | 의료기관별 이용여부 및 횟수 | | | | | | |
|---|---|---|---|---|---|---|---|---|---|---|---|
| | | | | | 외래진료 | | 응급실 | | 입원 | | |
| | | 사례수 | 이용 | 사례수 | 이용함 | 외래 진료 횟수 (회) | 이용함 | 응급실 이용 횟수 (회) | 입원함 | 입원 횟수 (회) | 입원 일수 (일)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86.8 | 125 | 99.2 | 10.4 | 12.8 | 1.6 | 11.2 | 1.6 | 14.8 |
| | 2019년 | 152 | 77.6 | 118 | 100.0 | 10.0 | 5.1 | 1.0 | 7.6 | 1.1 | 12.3 |
| | 2020년 | 159 | 52.2 | 83 | 97.6 | 5.1 | 10.8 | 2.9 | 14.5 | 1.3 | 10.7 |
| | 2021년 | 171 | 43.3 | 74 | 98.6 | 8.0 | 4.1 | 1.7 | 10.8 | 1.3 | 15.3 |

주) 의료기관별 이용 횟수는 의료기관별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이에 전년도 보고서 결과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남성의 경우 평균 '외래진료 횟수' 8.1회, 평균 '응급실 이용 횟수' 1.0회, 평균 '입원 횟수' 1.0회, 평균 '입원 일수' 18.0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평균 '외래진료 횟수' 7.8회, 평균 '응급실 이용 횟수' 3.0회, 평균 '입원 횟수' 2.0회, 평균 '입원 일수' 7.0일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의 경우 평균 외래진료 횟수 10.0회, 평균 응급실 이용 횟수 1.0회, 평균 입원 횟수 1.0회, 평균 입원 일수 8.3일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의 경우 평균 외래진료 횟수 6.7회, 평균 응급실 이용 횟수 3.0회, 평균 입원 횟수 1.4회, 평균 입원 일수 19.4일로 조사되었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의 경우 평균 외래진료 횟수 6.9회, 평균 응급실 이용 횟수 3.0회, 평균 입원 횟수 1.5회, 평균 입원 일수 16.8일로 나타났으며, 퇴거자의 경우 평균 외래진료 횟수 10.2회, 평균 응급실 이용 횟수 1.0회, 평균 입원 횟수 1.0회, 평균 입원 일수 13.8일로 나타났다.

〈표 4-110〉 지난 6개월 간 의료기관 이용 여부 및 횟수/일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회, 일)

| 구분 | | 의료기관 이용 | | 구분 | 의료기관별 이용 여부 및 횟수 | | | | | | |
|---|---|---|---|---|---|---|---|---|---|---|---|
| | | | | | 외래진료 | | 응급실 | | 입원 | | |
| | | 사례수 | 이용 | 사례수 | 이용함 | 외래 진료 횟수 (회) | 이용함 | 응급실 이용 횟수 (회) | 입원함 | 입원 횟수 (회) | 입원 일수 (일) |
| 전체 | | 171 | 43.3 | 74 | 98.6 | 8.0 | 4.1 | 1.7 | 10.8 | 1.3 | 15.3 |
| 성별 | 남성 | 105 | 43.8 | 46 | 97.8 | 8.1 | 4.3 | 1.0 | 13.0 | 1.0 | 18.0 |
| | 여성 | 66 | 42.4 | 28 | 100.0 | 7.8 | 3.6 | 3.0 | 7.1 | 2.0 | 7.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48.3 | 28 | 100.0 | 10.0 | 7.1 | 1.0 | 10.7 | 1.0 | 8.3 |
| | 정신적장애 | 113 | 40.7 | 46 | 97.8 | 6.7 | 2.2 | 3.0 | 10.9 | 1.4 | 19.4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46.8 | 51 | 98.0 | 6.9 | 2.0 | 3.0 | 7.8 | 1.5 | 16.8 |
| | 퇴거자 | 62 | 37.1 | 23 | 100.0 | 10.2 | 8.7 | 1.0 | 17.4 | 1.0 | 13.8 |

주) 의료기관별 이용 횟수는 의료기관별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 (2) 의료기관 이용 이유

지난 6개월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이용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반적인 질병치료'가 75.7%로 가장 높았고, '장애, 합병증/후유증(재활)치료'(2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장애, 합병증/후유증(재활)치료'는 20.3%로 전년도(0.0%)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사고로 인한 치료'는 1.4%로 전년도(25.0%)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표 4-111〉 지난 6개월 동안 의료기관 이용 이유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일반적인 질병치료 | 장애, 합병증/후유증(재활)치료 | 사고로 인한 치료 | 성형/정형/고정 | 기타 |
|---|---|---|---|---|---|---|---|
| 해당연도 | 2018년 | 14 | 50.0 | 21.4 | 14.3 | 14.3 | 0.0 |
| | 2019년 | 9 | 44.4 | 33.3 | 11.1 | 11.1 | 0.0 |
| | 2020년 | 12 | 75.0 | 0.0 | 25.0 | 0.0 | 0.0 |
| | 2021년 | 74 | 75.7 | 20.3 | 1.4 | 1.4 | 1.4 |

주) 2018-2020년 결과는 '지난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한 이유'에 대한 수치임.
* '기타'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등이 있음.

성별로 살펴보면 '일반적인 질병치료'를 응답한 비율이 남성은 67.4%, 여성은 8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의 경우 '일반적인 질병치료'가 각각 67.9%, 80.4%로 높게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과 퇴거자의 경우도 '일반적인 질병치료'가 각각 76.5%, 7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112〉 지난 6개월 동안 의료기관 이용 이유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일반적인 질병치료 | 장애, 합병증/ 후유증 (재활)치료 | 사고로 인한 치료 | 성형/정형/ 고정 | 기타 |
|---|---|---|---|---|---|---|---|
| 전체 | | 74 | 75.7 | 20.3 | 1.4 | 1.4 | 1.4 |
| 성별 | 남성 | 46 | 67.4 | 26.1 | 2.2 | 2.2 | 2.2 |
| | 여성 | 28 | 89.3 | 10.7 | 0.0 | 0.0 | 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28 | 67.9 | 28.6 | 0.0 | 3.6 | 0.0 |
| | 정신적장애 | 46 | 80.4 | 15.2 | 2.2 | 0.0 | 2.2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51 | 76.5 | 21.6 | 0.0 | 0.0 | 2.0 |
| | 퇴거자 | 23 | 73.9 | 17.4 | 4.3 | 4.3 | 0.0 |

### (3) 이용한 의료기관 유형

지난 6개월 동안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 유형을 조사한 결과, '병/의원' 이용률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종합/대학병원'(4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13〉 지난 6개월 동안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 유형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병/의원 | 종합/ 대학병원 | 보건소/ 보건 의료원 | 한방 병/의원 | 기타 | 모름/ 무응답 |
|---|---|---|---|---|---|---|---|---|
| 해당연도 | 2018년 | 124 | 52.4 | 38.7 | 3.2 | 2.4 | 0.0 | 3.2 |
| | 2019년 | 118 | 53.4 | 39.8 | 2.5 | 2.5 | 1.7 | 0.0 |
| | 2020년 | 83 | 60.2 | 34.9 | 2.4 | 1.2 | 1.2 | 0.0 |
| | 2021년 | 74 | 50.0 | 48.6 | 0.0 | 0.0 | 1.4 | 0.0 |

* '기타'에는 '코로나 19 치료시설' 등이 있음.

성별로 남성의 경우 '병/의원'(52.2%)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종합/대학병원'(53.6%)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의 경우 '종합/대학병원'(57.1%)을 이용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정신적 장애의 경우 '병/의원'(54.3%)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살펴보면, '이용자 등'의 경우 '병/의원'(52.9%), 퇴거자의 경우 '종합/대학병원'(56.5%)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4-114〉 지난 6개월 동안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 유형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병/의원 | 종합/대학병원 | 기타 |
|---|---|---|---|---|---|
| 전체 | | 74 | 50.0 | 48.6 | 1.4 |
| 성별 | 남성 | 46 | 52.2 | 45.7 | 2.2 |
| | 여성 | 28 | 46.4 | 53.6 | 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28 | 42.9 | 57.1 | 0.0 |
| | 정신적장애 | 46 | 54.3 | 43.5 | 2.2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51 | 52.9 | 45.1 | 2.0 |
| | 퇴거자 | 23 | 43.5 | 56.5 | 0.0 |

### (4) 의료 관련 재활치료 서비스

지난 6개월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한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용 경험 없음'이 62.2%로 나타났고, 이용한 서비스 중에서는 '물리치료'가 2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이용 경험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62.2%로 전년도(54.2%) 대비 약 8.0%p 감소하였다.

〈표 4-115〉 지난 6개월 동안 이용한 재활치료 서비스 (1순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없음 | 물리치료 | 언어치료 | 운동치료 | 작업치료 | 음악치료 | 행동치료 | 놀이치료 | 미술치료 | 기타 |
|---|---|---|---|---|---|---|---|---|---|---|---|---|
| 해당연도 | 2018년 | 125 | 69.6 | 22.4 | 0.8 | 2.4 | 2.4 | 0.0 | 0.8 | 0.0 | 1.6 | 0.0 |
| | 2019년 | 118 | 72.0 | 18.6 | 1.7 | 1.7 | 1.7 | 0.0 | 0.8 | 0.0 | 1.7 | 1.7 |
| | 2020년 | 83 | 54.2 | 25.3 | 2.4 | 6.0 | 2.4 | 2.4 | 6.0 | 1.2 | 0.0 | 0.0 |
| | 2021년 | 74 | 62.2 | 23.0 | 5.4 | 2.7 | 1.4 | 1.4 | 1.4 | 0.0 | 0.0 | 2.7 |

* '기타'에는 '통증치료' 등이 있음.

성별로 남성의 경우 이용한 재활치료 서비스가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0.9%, 이용한 서비스 중에서 '물리치료'는 23.9%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없음'(64.3%), '물리치료'(21.4%)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의 경우 '없음'(57.1%), '물리치료'(28.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의 경우 '없음'(65.2%), '물리치료'(1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의 경우 '없음'(60.8%), '물리치료' (19.6%)로 나타났으며, 퇴거자의 경우 '없음'(65.2%), '물리치료'(30.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116〉 지난 6개월 동안 이용한 재활치료 서비스 (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없음 | 물리치료 | 언어치료 | 운동치료 | 작업치료 | 음악치료 | 행동치료 | 기타 |
|---|---|---|---|---|---|---|---|---|---|---|
| 전체 | | 74 | 62.2 | 23.0 | 5.4 | 2.7 | 1.4 | 1.4 | 1.4 | 2.7 |
| 성별 | 남성 | 46 | 60.9 | 23.9 | 8.7 | 0.0 | 2.2 | 0.0 | 2.2 | 2.2 |
| | 여성 | 28 | 64.3 | 21.4 | 0.0 | 7.1 | 0.0 | 3.6 | 0.0 | 3.6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28 | 57.1 | 28.6 | 3.6 | 3.6 | 3.6 | 0.0 | 0.0 | 3.6 |
| | 정신적장애 | 46 | 65.2 | 19.6 | 6.5 | 2.2 | 0.0 | 2.2 | 2.2 | 2.2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51 | 60.8 | 19.6 | 7.8 | 2.0 | 2.0 | 2.0 | 2.0 | 3.9 |
| | 퇴거자 | 23 | 65.2 | 30.4 | 0.0 | 4.3 | 0.0 | 0.0 | 0.0 | 0.0 |

### (5) 병원까지 이동시간

집에서 병원까지 이동하는데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15분 ~ 30분 미만'이 4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분 ~ 60분 미만'(33.9%), '15분 미만'(16.4%), '1시간 ~ 2시간 미만'(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비교 결과, '30분 ~ 60분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전년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15분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은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표 4-117〉 병원까지 평균 이동시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15분미만 | 15분 ~ 30분 미만 | 30분 ~ 60분 미만 | 1시간 ~ 2시간 미만 | 2시간 이상 | 모름/무응답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20.1 | 37.5 | 26.4 | 13.9 | 0.7 | 1.4 |
| | 2019년 | 152 | 18.4 | 42.1 | 23.7 | 15.1 | 0.7 | 0.0 |
| | 2020년 | 159 | 20.8 | 39.0 | 30.2 | 10.1 | 0.0 | 0.0 |
| | 2021년 | 171 | 16.4 | 40.4 | 33.9 | 9.4 | 0.0 | 0.0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15분 ~ 30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1.0%, 39.4%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의 경우 '30분 ~ 60분 미만'이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의 경우 '15분 ~ 30분 미만'의 비율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병원까지 평균 이동시간을 살펴보면 '15분 ~ 30분 미만'이라는 응답이 '이용자 등'과 퇴거자 각각 42.2%, 37.1%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18〉 병원까지 평균 이동시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15분 미만 | 15분 ~ 30분 미만 | 30분 ~ 60분 미만 | 1시간 ~ 2시간 미만 |
|---|---|---|---|---|---|---|
| 전체 | | 171 | 16.4 | 40.4 | 33.9 | 9.4 |
| 성별 | 남성 | 105 | 13.3 | 41.0 | 37.1 | 8.6 |
| | 여성 | 66 | 21.2 | 39.4 | 28.8 | 10.6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13.8 | 27.6 | 39.7 | 19.0 |
| | 정신적장애 | 113 | 17.7 | 46.9 | 31.0 | 4.4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15.6 | 42.2 | 33.0 | 9.2 |
| | 퇴거자 | 62 | 17.7 | 37.1 | 35.5 | 9.7 |

### (6) 약 복용

전체 응답자의 56.7%는 장애로 인해 처방받은 약을 3개월 이상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비교 결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56.7%로 전년도(52.2%) 대비 4.5%p 증가하였다.

〈표 4-119〉 3개월 이상 약 복용 유무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복용 유무 | | |
|---|---|---|---|---|
| | | 사례수 | 복용함 | 복용하지 않음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51.4 | 48.6 |
| | 2019년 | 152 | 34.9 | 65.1 |
| | 2020년 | 159 | 52.2 | 47.8 |
| | 2021년 | 171 | 56.7 | 43.3 |

성별로 3개월 이상 약 복용 유무 구성비를 살펴보면, 남성은 55.2%, 여성은 59.1%가 '복용함'으로 응답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응답자는 67.2%, 정신적 장애를 가진 응답자는 51.3%가 3개월 이상 장애로 인하여 처방된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의 경우 57.8%, 퇴거자의 경우 54.8%가 '복용함'을 응답하였다.

〈표 4-120〉 3개월 이상 약 복용 유무 및 개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복용 유무 | | |
|---|---|---|---|---|
| | | 사례수 | 복용함 | 복용하지 않음 |
| 전체 | | 171 | 56.7 | 43.3 |
| 성별 | 남성 | 105 | 55.2 | 44.8 |
| | 여성 | 66 | 59.1 | 40.9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67.2 | 32.8 |
| | 정신적장애 | 113 | 51.3 | 48.7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57.8 | 42.2 |
| | 퇴거자 | 62 | 54.8 | 45.2 |

## 2) 건강검진

### (1) 건강검진 경험

2021년 조사 대상자 중 88.9%는 건강검진 경험이 있으며, 최근 검진 시기는 평균 0.9년 전이고, 현재까지 받은 총 건강검진 횟수는 평균 4.1회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비교해본 결과, '경험 있음'이 전년도(69.8%) 대비 19.1%p 증가하였으며, 최근 검진 시기는 전년도(1.6년 전) 대비 0.7년 감소, 현재까지 받은 총 건강검진 횟수는 전년도(3.6회) 대비 0.5회 증가하였다.

〈표 4-121〉 건강검진 경험 여부, 시기 및 횟수 - 연도별

(단위: 명, %, 년, 회)

| 구분 | | 경험 여부 | | | 시기 및 횟수 | | |
|---|---|---|---|---|---|---|---|
| | | 사례수 | 경험 있음 | 경험 없음 | 사례수 | 시기(년전) | 총 횟수(회)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73.6 | 26.4 | 103 | 2.0 | 4.1 |
| | 2019년 | 152 | 80.9 | 19.1 | 123 | 1.3 | 4.8 |
| | 2020년 | 159 | 69.8 | 30.2 | 111 | 1.6 | 3.6 |
| | 2021년 | 171 | 88.9 | 11.1 | 152 | 0.9 | 4.1 |

성별로 남성의 경우 건강검진 경험은 89.5%, 평균 횟수는 4.2회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경험은 87.9%, 평균 횟수는 3.8회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의 경우 건강검진 경험은 82.8%, 평균 횟수는 4.7회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경험 92.0%, 평균 횟수는 3.8회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의 경우 건강검진 경험은 89.9%, 평균 횟수는 4.0회, 퇴거자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경험 87.1%, 평균 횟수는 4.2회로 조사되었다.

〈표 4-122〉 건강검진 경험 여부, 시기 및 횟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년, 회)

| 구분 | | 경험 여부 | | | 시기 및 횟수 | | |
|---|---|---|---|---|---|---|---|
| | | 사례수 | 경험 있음 | 경험 없음 | 사례수 | 시기(년전) | 총 횟수(회) |
| 전체 | | 171 | 88.9 | 11.1 | 152 | 0.9 | 4.1 |
| 성별 | 남성 | 105 | 89.5 | 10.5 | 94 | 1.0 | 4.2 |
| | 여성 | 66 | 87.9 | 12.1 | 58 | 0.8 | 3.8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82.8 | 17.2 | 48 | 1.0 | 4.7 |
| | 정신적장애 | 113 | 92.0 | 8.0 | 104 | 0.9 | 3.8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89.9 | 10.1 | 98 | 0.9 | 4.0 |
| | 퇴거자 | 62 | 87.1 | 12.9 | 54 | 1.0 | 4.2 |

### (2) 건강검진 받지 않은 이유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건강검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47.4%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정보 부족'이 15.8%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본 결과, '이동의 어려움'이 10.5%로 전년도(0.0%)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건강검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47.4%)는 전년도(64.6%)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표 4-123〉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건강검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 정보부족 | 이동의 어려움 | 장애인관련 전문 인력 부족 | 경제적 부담 |
|---|---|---|---|---|---|---|---|
| 해당연도 | 2018년 | 38 | 57.9 | 7.9 | 5.3 | 0.0 | 7.9 |
| | 2019년 | 29 | 65.5 | 6.9 | 6.9 | 6.9 | 0.0 |
| | 2020년 | 48 | 64.6 | 12.5 | 0.0 | 6.3 | 6.3 |
| | 2021년 | 19 | 47.4 | 15.8 | 10.5 | 10.5 | 5.3 |

| 구분 | | 사례수 | 의료장비 부족 | 이유 없이 거부당함 | 기타 | 모름/ 무응답 |
|---|---|---|---|---|---|---|
| 해당연도 | 2018년 | 38 | 2.6 | 2.6 | 13.2 | 2.6 |
| | 2019년 | 29 | 0.0 | 0.0 | 13.8 | 0.0 |
| | 2020년 | 48 | 2.1 | 2.1 | 4.2 | 2.1 |
| | 2021년 | 19 | 5.3 | 5.3 | 0.0 | 0.0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건강검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보 부족', '이동의 어려움', '장애인 관련 전문 인력 부족', '의료장비 부족', '이유 없이 거부당함'은 각 9.1%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건강검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7.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보 부족'(25.0%)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의 경우 '건강검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40.0%), '이동의 어려움'과 '장애인 관련 전문 인력 부족'이 각 20.0%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의 경우 '건강검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55.6%), '정보 부족'(22.2%)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과 퇴거자의 경우 '건강검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각각 36.4%, 6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124〉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건강검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 정보부족 | 이동의 어려움 | 장애인관련 전문 인력 부족 |
|---|---|---|---|---|---|---|
| 전체 | | 19 | 47.4 | 15.8 | 10.5 | 10.5 |
| 성별 | 남성 | 11 | 54.5 | 9.1 | 9.1 | 9.1 |
| | 여성 | 8 | 37.5 | 25.0 | 12.5 | 12.5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10 | 40.0 | 10.0 | 20.0 | 20.0 |
| | 정신적장애 | 9 | 55.6 | 22.2 | 0.0 | 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1 | 36.4 | 27.3 | 0.0 | 9.1 |
| | 퇴거자 | 8 | 62.5 | 0.0 | 25.0 | 12.5 |

| 구분 | | 사례수 | 경제적 부담 | 의료장비 부족 | 이유 없이 거부당함 |
|---|---|---|---|---|---|
| 전체 | | 19 | 5.3 | 5.3 | 5.3 |
| 성별 | 남성 | 11 | 0.0 | 9.1 | 9.1 |
| | 여성 | 8 | 12.5 | 0.0 | 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10 | 0.0 | 10.0 | 0.0 |
| | 정신적장애 | 9 | 11.1 | 0.0 | 11.1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1 | 9.1 | 9.1 | 9.1 |
| | 퇴거자 | 8 | 0.0 | 0.0 | 0.0 |

### 3) 의료 소결

의료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료기관 이용에 대해 살펴보면 지난 6개월간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가 43.3%로 전년도(52.2%)에 비해 8.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외래진료' 이용률 98.6%, '응급실' 이용률 4.1%, '입원' 경험률 1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이용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는 75.7%가 '일반적인 질병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의료기관 유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병/의원'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종합/대학병원'이 48.6%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여부별로 보면 '이용자 등'의 경우 '병/의원'(52.9%), 퇴거자의 경우 '종합/대학병원'(56.5%)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병원까지 평균 이동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 '15분 ~ 30분 미만'이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로 인해 처방받은 약을 3개월 이상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56.7%가 '복용함'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건강검진 경험에 대해 경험이 있는 경우가 88.9%로 나타났으며, 전년도(69.8%)에 비해 19.1%p 높게 나타났다.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건강검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47.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보부족'이 15.8%로 나타났다.

## 7 심리상태

### 1) 자아존중감

2021년 조사에서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10개 항목별로 살펴보면,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가 2.9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나는 내가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2.94점),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2.9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10개 항목의 총점은 2.85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2.88점) 대비 0.03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5〉 자아존중감 - 연도별

(단위: 명, 점)

| 구분 | | 사례수 |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2. 나는 내가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 3. 나는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 4.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다 | 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
|---|---|---|---|---|---|---|---|
| 해당연도 | 2018년 | 113 | 3.02 | 3.05 | 2.92 | 2.93 | 3.07 |
| | 2019년 | 130 | 3.04 | 3.05 | 2.87 | 2.84 | 2.97 |
| | 2020년 | 114 | 2.94 | 2.89 | 2.93 | 2.91 | 2.91 |
| | 2021년 | 99 | 2.99 | 2.94 | 2.87 | 2.88 | 2.93 |

| 구분 | | 6.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 7.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 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 9. 나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 10. 나는 나 자신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 평균*** (4점 기준) |
|---|---|---|---|---|---|---|---|
| 해당연도 | 2018년 | 2.48 | 2.84 | 3.04 | 2.99 | 3.04 | 2.94 |
| | 2019년 | 2.48 | 2.83 | 2.96 | 3.02 | 3.02 | 2.91 |
| | 2020년 | 2.61 | 2.81 | 2.96 | 2.90 | 2.91 | 2.88 |
| | 2021년 | 2.58 | 2.87 | 2.85 | 2.75 | 2.81 | 2.85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 4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렇다, ④매우 그렇다)로 점수화함
** 부정적 문항으로 역산함
*** 10개 문항의 평균을 계산함

남성의 경우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2.97점),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2.94점) 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2.51점), '나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2.65점)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3.03점), '나는 내가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3.03점) 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2.69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의 경우 '나는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2.93점), '나는 나 자신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2.91점) 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다'(2.68점),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2.57점)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정신적 장애의 경우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3.11점), '나는 내가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3.00점),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다'(3.04점),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3.02점) 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2.58점), '나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2.75점)', '나는 나 자신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2.73점)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의 경우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3.10점) 등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2.76점), '나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2.84점)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퇴거자의 경우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2.88점), '나는 내가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2.88점),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2.94점) 등의 항목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을 잘할 수 있다'(2.63점),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2.39점) 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4-126〉 자아존중감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점)

| 구분 | | 사례수 |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2. 나는 내가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 3. 나는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 4.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다 | 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
|---|---|---|---|---|---|---|---|
| 전체 | | 99 | 2.99 | 2.94 | 2.87 | 2.88 | 2.93 |
| 성별 | 남성 | 63 | 2.97 | 2.89 | 2.83 | 2.83 | 2.94 |
| | 여성 | 36 | 3.03 | 3.03 | 2.94 | 2.97 | 2.92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44 | 2.84 | 2.86 | 2.93 | 2.68 | 2.82 |
| | 정신적장애 | 55 | 3.11 | 3.00 | 2.82 | 3.04 | 3.02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50 | 3.10 | 3.00 | 3.02 | 3.12 | 2.92 |
| | 퇴거자 | 49 | 2.88 | 2.88 | 2.71 | 2.63 | 2.94 |

| 구분 | | 6.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 7.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 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 9. 나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 10. 나는 나 자신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평균*** (4점 기준) |
|---|---|---|---|---|---|---|---|
| 전체 | | 2.58 | 2.87 | 2.85 | 2.75 | 2.81 | 2.85 |
| 성별 | 남성 | 2.51 | 2.81 | 2.86 | 2.65 | 2.75 | 2.80 |
| | 여성 | 2.69 | 2.97 | 2.83 | 2.92 | 2.92 | 2.92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2.57 | 2.80 | 2.73 | 2.75 | 2.91 | 2.79 |
| | 정신적장애 | 2.58 | 2.93 | 2.95 | 2.75 | 2.73 | 2.89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2.76 | 2.98 | 2.88 | 2.84 | 2.90 | 2.95 |
| | 퇴거자 | 2.39 | 2.76 | 2.82 | 2.65 | 2.71 | 2.74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 4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렇다, ④매우 그렇다)로 점수화함
** 부정적 문항으로 역산함
*** 10개 문항의 평균을 계산함

## 2) 자기결정

2021년 조사에서 자기결정과 관련하여 32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나는 아침에 스스로 옷을 골라 입는다'(3.02점), '나는 가게에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살 줄 안다'(3.05점), '나는 자유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3.04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나는 동호회 활동 및 단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2.49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32개 항목의 총점은 2.75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2.78점) 대비 0.03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7〉 자기결정 - 연도별

(단위: 명, 점)

| 구분 | | 사례수 | 1. 나는 아침에 스스로 옷을 골라 입는다 | 2. 나는 집에서 내가 스스로 맡아서 하는 일이 있다 | 3. 나는 친구들을 잘 사귄다 | 4. 나는 가게에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살 줄 안다 | 5. 나는 자유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
|---|---|---|---|---|---|---|---|
| 해당연도 | 2018년 | 113 | 3.04 | 2.56 | 2.60 | 3.32 | 3.29 |
| | 2019년 | 130 | 3.35 | 2.49 | 2.78 | 3.02 | 3.05 |
| | 2020년 | 114 | 3.11 | 2.80 | 2.69 | 3.15 | 3.13 |
| | 2021년 | 99 | 3.02 | 2.85 | 2.66 | 3.05 | 3.04 |

| 구분 | | 사례수 | 6.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나서서 한다 | 7. 나는 동호회 활동 및 단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 8. 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 | 9. 나는 내방 정리를 스스로 한다 | 10. 나는 용돈을 스스로 계획하여 사용한다 |
|---|---|---|---|---|---|---|---|
| 해당연도 | 2018년 | 113 | 3.05 | 2.61 | 3.00 | 2.69 | 3.12 |
| | 2019년 | 130 | 2.95 | 2.65 | 2.75 | 2.54 | 2.87 |
| | 2020년 | 114 | 2.93 | 2.52 | 2.71 | 2.72 | 2.87 |
| | 2021년 | 99 | 2.94 | 2.49 | 2.70 | 2.71 | 2.76 |

| 구분 | | 사례수 | 11. 나는 평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 | 12. 나는 친구들과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잘 이야기한다 | 13. 나는 친구들이 나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친구들에게 기분이 나쁘다고 말한다 | 14. 나는 내가 할 일을 스스로 결정한다 | 15. 나는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 해당연도 | 2018년 | 113 | 3.12 | 2.74 | 2.69 | 3.13 | 3.04 |
| | 2019년 | 130 | 2.92 | 2.80 | 2.79 | 2.86 | 2.79 |
| | 2020년 | 114 | 3.00 | 2.65 | 2.69 | 3.01 | 2.92 |
| | 2021년 | 99 | 2.89 | 2.70 | 2.64 | 2.97 | 2.80 |

| 구분 | | 사례수 | 16.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17. 나는 친구들과 어울려 하는 활동을 잘 한다 | 18. 나는 새로운 친구를 잘 사귀는 법을 알고 있다 | 19.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 | 20.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기분을 표현 할 수 있다 |
|---|---|---|---|---|---|---|---|
| 해당연도 | 2018년 | 113 | 2.81 | 2.72 | 2.58 | 2.83 | 2.80 |
| | 2019년 | 130 | 2.72 | 2.77 | 2.64 | 2.72 | 2.77 |
| | 2020년 | 114 | 2.80 | 2.75 | 2.61 | 2.75 | 2.75 |
| | 2021년 | 99 | 2.61 | 2.61 | 2.53 | 2.72 | 2.78 |

| 구분 | | 사례수 | 21.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 | 22. 나는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좋다 | 23. 내가 좋아하는 친구는 그 친구도 나를 좋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4.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 25. 나는 나를 좋아한다 |
|---|---|---|---|---|---|---|---|
| 해당연도 | 2018년 | 113 | 2.80 | 3.02 | 2.51 | 3.04 | 3.04 |
| | 2019년 | 130 | 2.87 | 2.86 | 2.75 | 2.92 | 3.01 |
| | 2020년 | 114 | 2.71 | 2.94 | 2.59 | 2.84 | 2.92 |
| | 2021년 | 99 | 2.65 | 2.95 | 2.60 | 2.86 | 2.82 |

| 구분 | | 사례수 | 26. 다른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다 | 27. 나는 내가 무엇이든 잘 할 것이란 자신감이 있다 | 28. 내가 바라는 것과 가족(부모님 등)이 바라는 것이 다를 때나는 가족을 잘 설득하여 내가 바라는 일을 한다 | 29.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그 일을 하고야 만다 | 30. 친구들이 나에게 섭섭한 행동을 했을 때 나는 당황하지만 그 친구들과 다시 잘 지내는 법을 안다 |
|---|---|---|---|---|---|---|---|
| 해당연도 | 2018년 | 113 | 2.79 | 2.79 | 2.58 | 2.73 | 2.77 |
| | 2019년 | 130 | 2.82 | 2.75 | 2.66 | 2.77 | 2.70 |
| | 2020년 | 114 | 2.75 | 2.73 | 2.46 | 2.67 | 2.59 |
| | 2021년 | 99 | 2.80 | 2.73 | 2.51 | 2.79 | 2.58 |

| 구분 | | 사례수 | 31. 깜빡 잊고 준비물을 챙겨오지 못하면 나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물을 구한다 | 32. 나는 내가 바라는 미래계획(장례희망 등)이 있고 미래계획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 평균** (4점 기준) |
|---|---|---|---|---|---|
| 해당연도 | 2018년 | 113 | 2.75 | 2.95 | 2.86 |
| | 2019년 | 130 | 2.84 | 2.69 | 2.81 |
| | 2020년 | 114 | 2.62 | 2.72 | 2.78 |
| | 2021년 | 99 | 2.69 | 2.69 | 2.75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 4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렇다, ④매우 그렇다)로 점수화함
** 32개 문항의 평균을 계산함

성별로 남성의 경우 '나는 가게에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살 줄 안다'(3.11점), '나는 자유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3.08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나서서 한다'(3.06점), '나는 내가 할 일을 스스로 결정한다'(3.06점) 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나는 동호회 활동 및 단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2.56점), '나는 새로운 친구를 잘 사귀는 법을 알고 있다'(2.56점), '내가 좋아하는 친구는 그 친구도 나를 좋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2.57점) 등은 낮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나는 아침에 스스로 옷을 골라 입는다'(3.06점), '나는 자유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2.97점) 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나는 동호회 활동 및 단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2.39점), '친구들이 나에게 섭섭한 행동을 했을 때 나는 당황하지만 그 친구들과 다시 잘 지내는 법을 안다'(2.33점) 등은 낮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의 경우 '나는 자유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2.98점), '나는 내가 할 일을 스스로 결정한다'(3.02점)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나는 동호회 활동 및 단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2.30점), '내가 바라는 것과 가족(부모님 등)이 바라는 것이 다를 때 나는 가족을 잘 설득하여 내가 바라는 일을 한다'(2.39점)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정신적 장애의 경우 '나는 아침에 스스로 옷을 골라 입는다'(3.29점), '나는 집에서 내가 스스로 맡아서 하는 일이 있다'(3.16점) 등은 높게 나타났으며, '나는 새로운 친구를 잘 사귀는 법을 알고 있다'(2.58점), '친구들이 나에게 섭섭한 행동을 했을 때 나는 당황하지만 그 친구들과 다시 잘 지내는 법을 안다'(2.53점) 등은 낮게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의 경우 '나는 아침에 스스로 옷을 골라 입는다'(3.24점), '나는 자유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3.20점) 등은 높게 나타난 반면, '나는 새로운 친구를 잘 사귀는 법을 알고 있다'(2.50점), '친구들이 나에게 섭섭한 행동을 했을 때 나는 당황하지만 그 친구들과 다시 잘 지내는 법을 안다'(2.44점)는 낮게 나타났다. 퇴거자의 경우 '나는 가게에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살 줄 안다'(2.94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나서서 한다'(2.90점), '나는 내가 할 일을 스스로 결정한다'(2.90점) 등은 높게 나타난 반면, '나는 동호회 활동 및 단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2.31점), '내가 바라는 것과 가족(부모님 등)이 바라는 것이 다를 때 나는 가족을 잘 설득하여 내가 바라는 일을 한다'(2.41점) 등은 낮게 나타났다.

〈표 4-128〉 자기결정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점)

| 구분 | | 사례수 | 1. 나는 아침에 스스로 옷을 골라 입는다 | 2. 나는 집에서 내가 스스로 맡아서 하는 일이 있다 | 3. 나는 친구들을 잘 사귄다 | 4. 나는 가게에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살 줄 안다 | 5. 나는 자유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
|---|---|---|---|---|---|---|---|
| 전체 | | 99 | 3.02 | 2.85 | 2.66 | 3.05 | 3.04 |
| 성별 | 남성 | 63 | 3.00 | 2.83 | 2.63 | 3.11 | 3.08 |
| | 여성 | 36 | 3.06 | 2.89 | 2.69 | 2.94 | 2.97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44 | 2.68 | 2.45 | 2.48 | 2.95 | 2.98 |
| | 정신적장애 | 55 | 3.29 | 3.16 | 2.80 | 3.13 | 3.09 |
| 자립생활 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50 | 3.24 | 3.06 | 2.76 | 3.16 | 3.20 |
| | 퇴거자 | 49 | 2.80 | 2.63 | 2.55 | 2.94 | 2.88 |

| 구분 | | 사례수 | 6.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나서서 한다 | 7. 나는 동호회 활동 및 단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 8. 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 | 9. 나는 내방 정리를 스스로 한다 | 10. 나는 용돈을 스스로 계획하여 사용한다 |
|---|---|---|---|---|---|---|---|
| 전체 | | 99 | 2.94 | 2.49 | 2.70 | 2.71 | 2.76 |
| 성별 | 남성 | 63 | 3.06 | 2.56 | 2.73 | 2.73 | 2.79 |
| | 여성 | 36 | 2.72 | 2.39 | 2.64 | 2.67 | 2.69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44 | 2.82 | 2.30 | 2.70 | 2.50 | 2.80 |
| | 정신적장애 | 55 | 3.04 | 2.65 | 2.69 | 2.87 | 2.73 |
| 자립생활 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50 | 2.98 | 2.68 | 2.72 | 2.74 | 2.86 |
| | 퇴거자 | 49 | 2.90 | 2.31 | 2.67 | 2.67 | 2.65 |

| 구분 | | 사례수 | 11. 나는 평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 | 12. 나는 친구들과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잘 이야기한다 | 13. 나는 친구들이 나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친구들에게 기분이 나쁘다고 말한다 | 14. 나는 내가 할 일을 스스로 결정한다 | 15. 나는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 전체 | | 99 | 2.89 | 2.70 | 2.64 | 2.97 | 2.80 |
| 성별 | 남성 | 63 | 2.95 | 2.75 | 2.67 | 3.06 | 2.84 |
| | 여성 | 36 | 2.78 | 2.61 | 2.58 | 2.81 | 2.72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44 | 2.93 | 2.64 | 2.45 | 3.02 | 2.64 |
| | 정신적장애 | 55 | 2.85 | 2.75 | 2.78 | 2.93 | 2.93 |
| 자립생활 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50 | 2.96 | 2.74 | 2.74 | 3.04 | 2.88 |
| | 퇴거자 | 49 | 2.82 | 2.65 | 2.53 | 2.90 | 2.71 |

| 구분 | | 사례수 | 16.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17. 나는 친구들과 어울려 하는 활동을 잘 한다 | 18. 나는 새로운 친구를 잘 사귀는 법을 알고 있다 | 19. 나는 내가 생각한 것 보다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 | 20.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기분을 표현할 수 있다 |
|---|---|---|---|---|---|---|---|
| 전체 | | 99 | 2.61 | 2.61 | 2.53 | 2.72 | 2.78 |
| 성별 | 남성 | 63 | 2.65 | 2.60 | 2.56 | 2.73 | 2.76 |
| | 여성 | 36 | 2.53 | 2.61 | 2.47 | 2.69 | 2.81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44 | 2.45 | 2.48 | 2.45 | 2.68 | 2.68 |
| | 정신적장애 | 55 | 2.73 | 2.71 | 2.58 | 2.75 | 2.85 |
| 자립생활 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50 | 2.72 | 2.76 | 2.50 | 2.84 | 2.80 |
| | 퇴거자 | 49 | 2.49 | 2.45 | 2.55 | 2.59 | 2.76 |

| 구분 | | 사례수 | 21.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 | 22. 나는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좋다 | 23. 내가 좋아하는 친구는 그 친구도 나를 좋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4.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 25. 나는 나를 좋아한다 |
|---|---|---|---|---|---|---|---|
| 전체 | | 99 | 2.65 | 2.95 | 2.60 | 2.86 | 2.82 |
| 성별 | 남성 | 63 | 2.70 | 3.02 | 2.57 | 2.94 | 2.86 |
| | 여성 | 36 | 2.56 | 2.83 | 2.64 | 2.72 | 2.75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44 | 2.64 | 2.91 | 2.48 | 2.82 | 2.73 |
| | 정신적장애 | 55 | 2.65 | 2.98 | 2.69 | 2.89 | 2.89 |
| 자립생활 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50 | 2.56 | 3.02 | 2.54 | 2.90 | 2.78 |
| | 퇴거자 | 49 | 2.73 | 2.88 | 2.65 | 2.82 | 2.86 |

| 구분 | | 사례수 | 26. 다른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다 | 27. 나는 내가 무엇이든 잘 할 것이란 자신감이 있다 | 28. 내가 바라는 것과 가족(부모님 등)이 바라는 것이 다를 때나는 가족을 잘 설득하여 내가 바라는 일을 한다 | 29.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그 일을 하고야 만다 | 30. 친구들이 나에게 섭섭한 행동을 했을 때 나는 당황하지만 그 친구들과 다시 잘 지내는 법을 안다 |
|---|---|---|---|---|---|---|---|
| 전체 | | 99 | 2.80 | 2.73 | 2.51 | 2.79 | 2.58 |
| 성별 | 남성 | 63 | 2.83 | 2.71 | 2.54 | 2.79 | 2.71 |
| | 여성 | 36 | 2.75 | 2.75 | 2.44 | 2.78 | 2.33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44 | 2.66 | 2.59 | 2.39 | 2.70 | 2.64 |
| | 정신적장애 | 55 | 2.91 | 2.84 | 2.60 | 2.85 | 2.53 |
| 자립생활 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50 | 2.84 | 2.78 | 2.60 | 2.82 | 2.44 |
| | 퇴거자 | 49 | 2.76 | 2.67 | 2.41 | 2.76 | 2.71 |

| 구분 | | 사례수 | 31. 깜빡 잊고 준비물을 챙겨오지 못하면 나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물을 구한다 | 32. 나는 내가 바라는 미래계획(장례희망 등)이 있고 미래계획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 평균** (4점 기준) |
|---|---|---|---|---|---|
| 전체 | | 99 | 2.69 | 2.69 | 2.75 |
| 성별 | 남성 | 63 | 2.65 | 2.83 | 2.79 |
| | 여성 | 36 | 2.75 | 2.44 | 2.69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44 | 2.68 | 2.73 | 2.66 |
| | 정신적장애 | 55 | 2.69 | 2.65 | 2.83 |
| 자립생활 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50 | 2.66 | 2.66 | 2.81 |
| | 퇴거자 | 49 | 2.71 | 2.71 | 2.69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 4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렇다, ④매우 그렇다)로 점수화함
** 32개 문항의 평균을 계산함

### 3) 심리상태 소결

심리상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먼저 자아존중감에 대해 전체 평균은 2.85점으로 전년도(2.88점) 대비 0.03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전체 평균의 자립생활주택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은 2.95점, 퇴거자는 2.74점으로 퇴거자가 '이용자 등'에 비해 0.21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기결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기결정의 전체 평균은 2.75저믕로 전년도(2.78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나는 가게에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살 줄 안다'가 3.0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는 동호회 활동 및 단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가 2.49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보면 자기결정의 전체 평균은 '이용자 등'이 2.81점, 퇴거자는 2.69점으로 퇴거자가 '이용자 등'에 비해 0.12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8 일상생활

## 1) 일상생활

### (1)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

자신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활동보조인'이 69.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사'(22.0%), '요양보호사'(2.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활동보조인'이 69.6%로 전년도(62.9%) 대비 6.7%p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사'는 16.4%로 전년도(22.0%) 대비 5.6%p 감소하였다.

〈표 4-129〉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 (1순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활동 보조인 | 사회 복지사 | 요양 보호사 | 배우자 | 친구 및 이웃 | 유료 간병인/ 가정 봉사원 | 부모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64.6 | 12.5 | 0.0 | 1.4 | 2.1 | 0.0 | 1.4 |
| | 2019년 | 152 | 72.4 | 9.2 | 2.0 | 1.3 | 2.6 | 0.7 | 0.0 |
| | 2020년 | 159 | 62.9 | 22.0 | 0.6 | 1.3 | 3.1 | 1.3 | 3.8 |
| | 2021년 | 171 | 69.6 | 16.4 | 2.3 | 1.2 | 1.2 | 1.2 | 0.6 |

| 구분 | | 사례수 | 자녀 (며느리, 사위 포함) | 무료 간병인/ 가정 봉사원 | 종교 단체 관계자 | 친인척 | 형제 자매 | 기타 | 없음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0.0 | 0.0 | 0.7 | 0.7 | 0.0 | 1.4 | 15.3 |
| | 2019년 | 152 | 0.0 | 0.7 | 0.0 | 0 | 0.0 | 0.7 | 10.5 |
| | 2020년 | 159 | 0.0 | 0.0 | 1.3 | 0.6 | 0.6 | 0.6 | 1.9 |
| | 2021년 | 171 | 0.6 | 0.6 | 0.0 | 0.0 | 0.0 | 0.6 | 5.8 |

성별로 남성의 경우 '활동보조인'(65.7%), '사회복지사'(18.1%), '요양보호사'(2.9%)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활동보조인'(75.8%), '사회복지사'(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의 경우 '활동보조인'이 75.9%,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각각 6.9%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의 경우 '활동보조인'(66.4%), '사회복지사'(2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의 경우 '활동보조인'(71.6%), '사회복지사'(21.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퇴거자의 경우 '활동보조인'(66.1%), '사회복지사'(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30〉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 (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활동보조인 |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 배우자 | 친구 및 이웃 | 유료 간병인/가정 봉사원 |
|---|---|---|---|---|---|---|---|---|
| 전체 | | 171 | 69.6 | 16.4 | 2.3 | 1.2 | 1.2 | 1.2 |
| 성별 | 남성 | 105 | 65.7 | 18.1 | 2.9 | 1.0 | 1.9 | 1.9 |
| | 여성 | 66 | 75.8 | 13.6 | 1.5 | 1.5 | 0.0 | 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75.9 | 6.9 | 6.9 | 1.7 | 1.7 | 0.0 |
| | 정신적장애 | 113 | 66.4 | 21.2 | 0.0 | 0.9 | 0.9 | 1.8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71.6 | 21.1 | 0.0 | 0.0 | 0.9 | 0.9 |
| | 퇴거자 | 62 | 66.1 | 8.1 | 6.5 | 3.2 | 1.6 | 1.6 |

| 구분 | | 사례수 | 부모 | 자녀 (며느리, 사위 포함) | 무료 간병인/가정 봉사원 | 기타 | 없음 |
|---|---|---|---|---|---|---|---|
| 전체 | | 171 | 0.6 | 0.6 | 0.6 | 0.6 | 5.8 |
| 성별 | 남성 | 105 | 1.0 | 0.0 | 1.0 | 1.0 | 5.7 |
| | 여성 | 66 | 0.0 | 1.5 | 0.0 | 0.0 | 6.1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1.7 | 1.7 | 0.0 | 0.0 | 3.4 |
| | 정신적장애 | 113 | 0.0 | 0.0 | 0.9 | 0.9 | 7.1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0.0 | 0.0 | 0.0 | 0.9 | 4.6 |
| | 퇴거자 | 62 | 1.6 | 1.6 | 1.6 | 0.0 | 8.1 |

### (2) 주로 받는 도움 유형/정도 및 시간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도움 유형별로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집안청소 및 관리'(70.0%), '식사'(68.9%) 등에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육아/양육'(23.3%), '학습활동'(37.8%) 등은 상대적으로 도움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일상생활에 대한 도움 정도는 '도움받음'(도움받고 있는 편임+전적으로 도움받음)이 63.3%, '도움받지 않음'(전혀 도움받지 않음+거의 도움받지 않는 편임)이 36.7%로 나타났다.

연도별 비교 결과, 유형별로 '도움받음' 비율을 살펴보면 '육아/양육'이 전년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식사'가 전년도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표 4-131〉 주로 받는 도움 유형 및 정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세면 및 개인위생 관리 | 이동 | 의사소통 | 집안청소 및 관리 | 건강관리 | 학습활동 |
|---|---|---|---|---|---|---|---|---|
| 해당연도 | 2018년 | 92 | 51.1 | 58.2 | 30.4 | 72.8 | 60.9 | 40.7 |
| | 2019년 | 114 | 50.9 | 64.0 | 37.7 | 82.5 | 56.1 | 38.6 |
| | 2020년 | 112 | 45.5 | 53.6 | 44.6 | 74.1 | 52.7 | 35.7 |
| | 2021년 | 90 | 47.8 | 53.3 | 51.1 | 70.0 | 53.3 | 37.8 |
| 구분 | | 사례수 | 금전관리 | 여가 및 사회참여 | 육아/양육 | 식사 | 옷 입고 벗기 | 전반적 일상생활 |
| 해당연도 | 2018년 | 92 | 55.4 | 76.1 | 8.5 | 77.2 | 39.1 | 70.7 |
| | 2019년 | 114 | 47.4 | 73.7 | 28.1 | 86.0 | 39.5 | 74.6 |
| | 2020년 | 112 | 54.5 | 59.8 | 10.7 | 75.9 | 32.1 | 62.5 |
| | 2021년 | 90 | 57.8 | 61.1 | 23.3 | 68.9 | 42.2 | 63.3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성별로 남성의 경우 '집안청소 및 관리'(69.0%)와 '식사'(67.2%) 등에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이동', '집안청소 및 관리', '금전관리', '식사'(각 71.9%)에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응답자의 경우, '집안청소 및 관리'(85.7%), '식사'(81.0%)에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응답자의 경우 '금전관리'(68.8%), '식사'(58.3%)에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의 경우 '금전관리'(69.6%), '식사'(67.4%)에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퇴거자의 경우 '집안청소 및 관리'(77.3%), '식사'(70.5%)에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2〉 주로 받는 도움 유형 및 정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세면 및 개인위생 관리 | 이동 | 의사소통 | 집안청소 및 관리 | 건강관리 | 학습활동 |
|---|---|---|---|---|---|---|---|---|
| 전체 | | 90 | 47.8 | 53.3 | 51.1 | 70.0 | 53.3 | 37.8 |
| 성별 | 남성 | 58 | 44.8 | 43.1 | 46.6 | 69.0 | 51.7 | 32.8 |
| | 여성 | 32 | 53.1 | 71.9 | 59.4 | 71.9 | 56.3 | 46.9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42 | 61.9 | 59.5 | 54.8 | 85.7 | 52.4 | 40.5 |
| | 정신적장애 | 48 | 35.4 | 47.9 | 47.9 | 56.3 | 54.2 | 35.4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46 | 47.8 | 60.9 | 50.0 | 63.0 | 56.5 | 43.5 |
| | 퇴거자 | 44 | 47.7 | 45.5 | 52.3 | 77.3 | 50.0 | 31.8 |

| 구분 | | 사례수 | 금전관리 | 여가 및 사회참여 | 육아/양육 | 식사 | 옷 입고 벗기 | 전반적 일상생활 |
|---|---|---|---|---|---|---|---|---|
| 전체 | | 90 | 57.8 | 61.1 | 23.3 | 68.9 | 42.2 | 63.3 |
| 성별 | 남성 | 58 | 50.0 | 65.5 | 27.6 | 67.2 | 36.2 | 63.8 |
| | 여성 | 32 | 71.9 | 53.1 | 15.6 | 71.9 | 53.1 | 62.5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42 | 45.2 | 66.7 | 31.0 | 81.0 | 57.1 | 78.6 |
| | 정신적장애 | 48 | 68.8 | 56.3 | 16.7 | 58.3 | 29.2 | 5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46 | 69.6 | 63.0 | 19.6 | 67.4 | 41.3 | 58.7 |
| | 퇴거자 | 44 | 45.5 | 59.1 | 27.3 | 70.5 | 43.2 | 68.2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1일 평균 도움 받는 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약 9시간 이상'(평균 595.5분)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전년도 대비 약 6.0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3〉 1일 평균 도움 받는 시간 - 연도별

(단위: 명, %, 분)

| 구분 | | 사례수 | 8시간 미만 | 8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 24시간 | 평균 (분) | 모름/ 무응답 |
|---|---|---|---|---|---|---|---|
| 해당연도 | 2018년 | 119 | 34.5 | 50.4 | 10.9 | 651.6 | 4.2 |
| | 2019년 | 134 | 41.8 | 43.3 | 14.9 | 681.7 | 0.0 |
| | 2020년 | 151 | 47.7 | 39.1 | 13.2 | 601.5 | 0.0 |
| | 2021년 | 161 | 50.3 | 37.9 | 11.8 | 595.5 | 0.0 |

주) 주중, 주말을 포함한 1일 평균 도움 받는 시간을 재산출함. 이에 전년도 보고서 결과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성별로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약 9시간 이상'(평균 559.4분)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약 10시간 이상'(평균 653.2분)으로 나타나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도움 받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의 경우 하루 평균 '약 12시간 이상'(평균 730.5분)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의 경우 하루 평균 '약 8시간 이상'(평균 523.6분)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살펴보면, '이용자 등'의 경우 하루 평균 '약 10시간 이상'(평균 636.2분)으로 나타났으며, 퇴거자의 경우 '약 8시간 이상'(평균 521.3분)으로 나타났다.

〈표 4-134〉 1일 평균 도움 받는 시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분)

| 구분 | | 사례수 | 8시간 미만 | 8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 24시간 | 평균 (분) |
|---|---|---|---|---|---|---|
| 전체 | | 161 | 50.3 | 37.9 | 11.8 | 595.5 |
| 성별 | 남성 | 99 | 51.5 | 38.4 | 10.1 | 559.4 |
| | 여성 | 62 | 48.4 | 37.1 | 14.5 | 653.2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6 | 39.3 | 41.1 | 19.6 | 730.5 |
| | 정신적장애 | 105 | 56.2 | 36.2 | 7.6 | 523.6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4 | 46.2 | 40.4 | 13.5 | 636.2 |
| | 퇴거자 | 57 | 57.9 | 33.3 | 8.8 | 521.3 |

### (3) 필요한 도움 유형/정도 및 시간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유형과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식사'(76.8%), '집안청소 및 관리'(68.7%) 등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육아/양육'(34.3%), '세면 및 개인위생관리'(46.5%) 등은 도움 필요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 일상생활에 대해 도움 필요 정도는 '도움 필요함'이 69.7%, '도움 불필요함'이 30.3%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전반적 일상생활에 대해 '도움 필요함'의 비율이 69.7%로 전년도(72.8%) 대비 3.1%p 감소하였다.

〈표 4-135〉 필요한 도움 유형/정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전반적 일상생활 | | | 세면 및 개인위생관리 | | | 이동 | | | 의사소통 | | |
|---|---|---|---|---|---|---|---|---|---|---|---|---|---|---|
| | | | 필요 | 불필요 | 모름/무응답 | 필요 | 불필요 | 모름/무응답 | 필요 | 불필요 | 모름/무응답 | 필요 | 불필요 | 모름/무응답 |
| 해당연도 | 2018년 | 113 | 61.1 | 38.1 | 0.9 | 45.1 | 54.0 | 0.9 | 49.6 | 48.7 | 1.8 | 37.2 | 61.9 | 0.9 |
| | 2019년 | 130 | 66.9 | 33.1 | 0.0 | 48.5 | 51.5 | 0.0 | 59.2 | 40.8 | 0.0 | 39.2 | 60.8 | 0.0 |
| | 2020년 | 114 | 72.8 | 27.2 | 0.0 | 48.2 | 51.8 | 0.0 | 52.6 | 47.4 | 0.0 | 38.6 | 61.4 | 0.0 |
| | 2021년 | 99 | 69.7 | 30.3 | 0.0 | 46.5 | 53.5 | 0.0 | 57.6 | 42.4 | 0.0 | 58.6 | 41.4 | 0.0 |

| 구분 | | 사례수 | 집안청소 및 관리 | | | 건강관리 | | | 학습활동 | | | 금전관리 | | |
|---|---|---|---|---|---|---|---|---|---|---|---|---|---|---|
| | | | 필요 | 불필요 | 모름/무응답 | 필요 | 불필요 | 모름/무응답 | 필요 | 불필요 | 모름/무응답 | 필요 | 불필요 | 모름/무응답 |
| 해당연도 | 2018년 | 113 | 64.6 | 34.5 | 0.9 | 57.5 | 41.6 | 0.9 | 41.6 | 57.5 | 0.9 | 46.0 | 53.1 | 0.9 |
| | 2019년 | 130 | 77.7 | 22.3 | 0.0 | 53.1 | 46.9 | 0.0 | 41.5 | 58.5 | 0.0 | 46.9 | 53.1 | 0.0 |
| | 2020년 | 114 | 75.4 | 24.6 | 0.0 | 49.1 | 50.9 | 0.0 | 37.7 | 62.3 | 0.0 | 54.4 | 45.6 | 0.0 |
| | 2021년 | 99 | 68.7 | 31.3 | 0.0 | 55.6 | 44.4 | 0.0 | 50.5 | 49.5 | 0.0 | 57.6 | 42.4 | 0.0 |

| 구분 | | 사례수 | 여가 및 사회참여 | | | 육아/양육 | | | 식사 | | | 옷 입고 벗기 | | |
|---|---|---|---|---|---|---|---|---|---|---|---|---|---|---|
| | | | 필요 | 불필요 | 모름/무응답 | 필요 | 불필요 | 모름/무응답 | 필요 | 불필요 | 모름/무응답 | 필요 | 불필요 | 모름/무응답 |
| 해당연도 | 2018년 | 113 | 69.0 | 30.1 | 0.9 | 6.2 | 56.6 | 37.2 | 63.7 | 34.5 | 1.8 | 33.6 | 64.6 | 1.8 |
| | 2019년 | 130 | 76.2 | 23.8 | 0.0 | 33.1 | 66.9 | 0.0 | 86.2 | 13.8 | 0.0 | 34.6 | 65.4 | 0.0 |
| | 2020년 | 114 | 56.1 | 43.9 | 0.0 | 19.3 | 80.7 | 0.0 | 71.9 | 28.1 | 0.0 | 32.5 | 67.5 | 0.0 |
| | 2021년 | 99 | 63.6 | 36.4 | 0.0 | 34.3 | 65.7 | 0.0 | 76.8 | 23.2 | 0.0 | 51.5 | 48.5 | 0.0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성별로 남성의 경우 '식사'(77.8%), '집안청소 및 관리'(69.8%) 등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식사'(75.0%), '금전관리'(69.4%) 등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의 경우 '식사'(90.9%), '집안청소 및 관리'(79.5%) 등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정신적 장애의 경우 '금전관리'(70.9%), '식사'(65.5%) 등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은 '식사'(76.0%), '금전관리'(74.0%) 등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퇴거자의 경우 '식사'(77.6%), '집안청소 및 관리'(69.4%) 등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4-136〉 필요한 도움 유형/정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전반적 일상생활 | | 세면 및 개인위생관리 | | 이동 | | 의사소통 | |
|---|---|---|---|---|---|---|---|---|---|---|
| | | | 필요 | 불필요 | 필요 | 불필요 | 필요 | 불필요 | 필요 | 불필요 |
| 전체 | | 99 | 69.7 | 30.3 | 46.5 | 53.5 | 57.6 | 42.4 | 58.6 | 41.4 |
| 성별 | 남성 | 63 | 71.4 | 28.6 | 44.4 | 55.6 | 54.0 | 46.0 | 58.7 | 41.3 |
| | 여성 | 36 | 66.7 | 33.3 | 50.0 | 50.0 | 63.9 | 36.1 | 58.3 | 41.7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44 | 77.3 | 22.7 | 59.1 | 40.9 | 63.6 | 36.4 | 59.1 | 40.9 |
| | 정신적장애 | 55 | 63.6 | 36.4 | 36.4 | 63.6 | 52.7 | 47.3 | 58.2 | 41.8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50 | 70.0 | 30.0 | 48.0 | 52.0 | 62.0 | 38.0 | 60.0 | 40.0 |
| | 퇴거자 | 49 | 69.4 | 30.6 | 44.9 | 55.1 | 53.1 | 46.9 | 57.1 | 42.9 |

| 구분 | | 사례수 | 집안청소 및 관리 | | 건강관리 | | 학습활동 | | 금전관리 | |
|---|---|---|---|---|---|---|---|---|---|---|
| | | | 필요 | 불필요 | 필요 | 불필요 | 필요 | 불필요 | 필요 | 불필요 |
| 전체 | | 99 | 68.7 | 31.3 | 55.6 | 44.4 | 50.5 | 49.5 | 57.6 | 42.4 |
| 성별 | 남성 | 63 | 69.8 | 30.2 | 50.8 | 49.2 | 42.9 | 57.1 | 50.8 | 49.2 |
| | 여성 | 36 | 66.7 | 33.3 | 63.9 | 36.1 | 63.9 | 36.1 | 69.4 | 30.6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44 | 79.5 | 20.5 | 47.7 | 52.3 | 36.4 | 63.6 | 40.9 | 59.1 |
| | 정신적장애 | 55 | 60.0 | 40.0 | 61.8 | 38.2 | 61.8 | 38.2 | 70.9 | 29.1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50 | 68.0 | 32.0 | 66.0 | 34.0 | 66.0 | 34.0 | 74.0 | 26.0 |
| | 퇴거자 | 49 | 69.4 | 30.6 | 44.9 | 55.1 | 34.7 | 65.3 | 40.8 | 59.2 |

| 구분 | | 사례수 | 여가 및 사회참여 | | 육아/양육 | | 식사 | | 옷 입고 벗기 | |
|---|---|---|---|---|---|---|---|---|---|---|
| | | | 필요 | 불필요 | 필요 | 불필요 | 필요 | 불필요 | 필요 | 불필요 |
| 전체 | | 99 | 63.6 | 36.4 | 34.3 | 65.7 | 76.8 | 23.2 | 51.5 | 48.5 |
| 성별 | 남성 | 63 | 65.1 | 34.9 | 34.9 | 65.1 | 77.8 | 22.2 | 46.0 | 54.0 |
| | 여성 | 36 | 61.1 | 38.9 | 33.3 | 66.7 | 75.0 | 25.0 | 61.1 | 38.9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44 | 65.9 | 34.1 | 38.6 | 61.4 | 90.9 | 9.1 | 63.6 | 36.4 |
| | 정신적장애 | 55 | 61.8 | 38.2 | 30.9 | 69.1 | 65.5 | 34.5 | 41.8 | 58.2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50 | 68.0 | 32.0 | 36.0 | 64.0 | 76.0 | 24.0 | 56.0 | 44.0 |
| | 퇴거자 | 49 | 59.2 | 40.8 | 32.7 | 67.3 | 77.6 | 22.4 | 46.9 | 53.1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일상생활에 도움을 희망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93.9%가 도움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하루 평균 희망하는 도움 제공 시간으로는 '약 9시간 이상'(평균 594.7분)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도움 제공을 희망하는 비율은 전년도(93.0%) 대비 증가하였으나, 도움 제공 희망 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7〉 1일 평균 도움 제공 희망 시간 - 연도별

(단위: 명, %, 분)

| 구분 | | 사례 수 | 도움제공 희망비율 | 8시간 미만 | 8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 24시간 | 평균 (분) | 모름/ 무응답 |
|---|---|---|---|---|---|---|---|---|
| 해당연도 | 2018년 | 94 | 89.4 | 41.5 | 35.1 | 22.3 | 730.6 | 1.1 |
| | 2019년 | 128 | 98.5 | 33.6 | 45.9 | 20.5 | 701.2 | 0.0 |
| | 2020년 | 106 | 93.0 | 41.3 | 45.2 | 13.5 | 613.0 | 0.0 |
| | 2021년 | 93 | 93.9 | 50.5 | 33.3 | 16.1 | 594.7 | 0.0 |

주) 주중, 주말을 포함한 1일 평균 도움 제공 희망 시간을 재산출함. 이에 전년도 보고서 결과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하루 평균 '약 9시간 이상'(남성: 평균 591.9분, 여성 : 평균 599.6분) 정도의 도움을 제공 받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의 경우 하루 평균 '약 13시간 이상'(평균 801.4분), 정신적 장애의 경우 하루 평균 '약 7시간 이상'(평균 424.4분) 정도의 도움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의 경우 하루 평균 '약 9시간 이상'(평균 588.1분), 퇴거자의 경우 하루 평균 '약 10시간 이상'(평균 601.7분)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8〉 1일 평균 도움 제공 희망 시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분)

| 구분 | | 사례 수 | 8시간 미만 | 8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 24시간 | 평균 (분) |
|---|---|---|---|---|---|---|
| 전체 | | 93 | 50.5 | 33.3 | 16.1 | 594.7 |
| 성별 | 남성 | 59 | 50.8 | 33.9 | 15.3 | 591.9 |
| | 여성 | 34 | 50.0 | 32.4 | 17.6 | 599.6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42 | 35.7 | 33.3 | 31.0 | 801.4 |
| | 정신적장애 | 51 | 62.7 | 33.3 | 3.9 | 424.4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48 | 47.9 | 35.4 | 16.7 | 588.1 |
| | 퇴거자 | 45 | 53.3 | 31.1 | 15.6 | 601.7 |

### (4) 외출

최근 1개월 동안 외출 빈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거의 매일 외출한다는 비율이 4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 3-4회'(20.5%), '주 1-2회'(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거의 매일' 외출한다는 비율은 전년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거의 외출하지 않음'은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표 4-139〉 최근 1개월 동안 외출 빈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거의 외출 하지 않음 | 월 3회 이내 | 주 1-2회 | 주 3-4회 | 거의 매일 | 모름/ 무응답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2.1 | 6.3 | 11.8 | 17.4 | 61.1 | 1.4 |
| | 2019년 | 152 | 1.3 | 0.7 | 9.2 | 19.7 | 69.1 | 0.0 |
| | 2020년 | 159 | 20.8 | 6.3 | 21.4 | 22.0 | 29.6 | 0.0 |
| | 2021년 | 171 | 12.9 | 2.9 | 14.0 | 20.5 | 49.7 | 0.0 |

성별로 살펴보면, '거의 매일' 외출한다는 비율은 남성과 여성 각각 50.5%,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 3-4회' 외출한다는 비율이 각각 19.0%, 22.7%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의 경우 '거의 매일'(34.5%), '거의 외출하지 않음'(24.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의 경우 '거의 매일'(57.5%), '주 3-4회'(2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의 경우 '거의 매일'(50.5%), '주 3-4회'(24.8%)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퇴거자의 경우 '거의 매일'(48.4%), '거의 외출하지 않음'(1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40〉 최근 1개월 동안 외출 빈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거의 외출하지 않음 | 월 3회 이내 | 주 1-2회 | 주 3-4회 | 거의 매일 |
|---|---|---|---|---|---|---|---|
| 전체 | | 171 | 12.9 | 2.9 | 14.0 | 20.5 | 49.7 |
| 성별 | 남성 | 105 | 13.3 | 1.9 | 15.2 | 19.0 | 50.5 |
| | 여성 | 66 | 12.1 | 4.5 | 12.1 | 22.7 | 48.5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24.1 | 6.9 | 17.2 | 17.2 | 34.5 |
| | 정신적장애 | 113 | 7.1 | 0.9 | 12.4 | 22.1 | 57.5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9.2 | 2.8 | 12.8 | 24.8 | 50.5 |
| | 퇴거자 | 62 | 19.4 | 3.2 | 16.1 | 12.9 | 48.4 |

최근 1개월 동안 외출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기타를 제외하면 '외출하고 싶지 않음'(22.2%), '외출을 도와줄 사람이 없음'과 '밖에 나가서 할 것이 없거나 만날 사람이 없음'이 각 18.5%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41〉 최근 1개월 동안 자주 외출하지 않은 이유 (1순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외출하고 싶지 않음 | 외출을 도와줄 사람이 없음 | 밖에 나가서 할 것이 없거나 만날 사람이 없음 |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의 부족 | 의사소통의 어려움 |
|---|---|---|---|---|---|---|---|
| 해당연도 | 2018년 | 12 | 0.0 | 8.3 | 33.3 | 0.0 | 0.0 |
| | 2019년 | 3 | 33.3 | 33.3 | 0.0 | 0.0 | 0.0 |
| | 2020년 | 43 | 7.0 | 7.0 | 11.6 | 4.7 | 4.7 |
| | 2021년 | 27 | 22.2 | 18.5 | 18.5 | 7.4 | 3.7 |

| 구분 | | 사례수 | 경제적 어려움 |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 장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 | 장애인 교통수단 보유의 어려움 | 기타 |
|---|---|---|---|---|---|---|---|
| 해당연도 | 2018년 | 12 | 8.3 | 8.3 | 8.3 | 16.7 | 16.7 |
| | 2019년 | 3 | 0.0 | 0.0 | 0.0 | 33.3 | 0.0 |
| | 2020년 | 43 | 9.3 | 2.3 | 2.3 | 0.0 | 51.2 |
| | 2021년 | 27 | 0.0 | 0.0 | 0.0 | 0.0 | 29.6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밖에 나가서 할 것이 없거나 만날 사람이 없음'이 31.3%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외출하고 싶지 않음'과 '외출을 도와줄 사람이 없음'이 각 27.3%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의 경우 '외출하고 싶지 않음'이 27.8%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의 경우 '외출을 도와줄 사람이 없음'과 '밖에 나가서 할 것이 없거나 만날 사람이 없음'이 각 22.2%로 높게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의 경우 '밖에 나가서 할 것이 없거나 만날 사람이 없음'이 23.1%로 높게 나타났으며, 퇴거자의 경우 '외출하고 싶지 않음'이 28.6%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42〉 최근 1개월 동안 자주 외출하지 않은 이유 (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외출하고 싶지 않음 | 외출을 도와줄 사람이 없음 | 밖에 나가서 할 것이 없거나 만날 사람이 없음 |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의 부족 | 의사소통의 어려움 | 기타 |
|---|---|---|---|---|---|---|---|---|
| 전체 | | 27 | 22.2 | 18.5 | 18.5 | 7.4 | 3.7 | 29.6 |
| 성별 | 남성 | 16 | 18.8 | 12.5 | 31.3 | 6.3 | 6.3 | 25.0 |
| | 여성 | 11 | 27.3 | 27.3 | 0.0 | 9.1 | 0.0 | 36.4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18 | 27.8 | 16.7 | 16.7 | 5.6 | 5.6 | 27.8 |
| | 정신적장애 | 9 | 11.1 | 22.2 | 22.2 | 11.1 | 0.0 | 33.3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3 | 15.4 | 15.4 | 23.1 | 7.7 | 7.7 | 30.8 |
| | 퇴거자 | 14 | 28.6 | 21.4 | 14.3 | 7.1 | 0.0 | 28.6 |

주) 기타의견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등이 있음

외출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지하철/전철'과 '장애인 콜택시'가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도보/걸어다님'(16.4%), '일반버스, 저상버스'(1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43〉 외출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1순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지하철/전철 | 장애인 콜택시 | 도보/걸어다님 | 일반버스, 저상버스 | 휠체어 | 일반택시 | 자전거, 오토바이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44.4 | 24.3 | 5.6 | 13.2 | 2.8 | 0.7 | 2.8 |
| | 2019년 | 152 | 32.9 | 18.4 | 11.8 | 17.8 | 13.8 | 0.0 | 1.3 |
| | 2020년 | 159 | 34.6 | 24.5 | 9.4 | 18.2 | 6.3 | 1.3 | 1.3 |
| | 2021년 | 171 | 24.6 | 24.6 | 16.4 | 14.6 | 14.0 | 2.9 | 2.3 |

| 구분 | | 사례수 | 전동스쿠터 | 사회복지시설 버스 | 자가용 |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 기타* | 모름/무응답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2.1 | 2.1 | 0.7 | 0.7 | 0.0 | 0.7 |
| | 2019년 | 152 | 0.7 | 0.0 | 2.6 | 0.0 | 0.7 | 0.0 |
| | 2020년 | 159 | 0.6 | 2.5 | 0.6 | 0.0 | 0.6 | 0.0 |
| | 2021년 | 171 | 0.6 | 0.0 | 0.0 | 0.0 | 0.0 | 0.0 |

* 기타에는 활동지원인 자가용 등이 포함됨

성별로 살펴보면, '지하철/전철'을 이용하는 비율이 남성의 경우 23.8%, 여성의 경우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비율은 남성의 경우 22.9%, 여성의 경우 27.3%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46.6%), '휠체어'(34.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의 경우 '지하철/전철'(31.9%), '도보/걸어다님'(2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의 경우 '지하철/전철'(25.7%), '장애인 콜택시'(22.0%) 순으로 나타났으며, 퇴거자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29.0%), '휠체어'(25.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44〉 외출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지하철/전철 | 장애인콜택시 | 도보/걸어다님 | 일반버스, 저상버스 |
|---|---|---|---|---|---|---|
| 전체 | | 171 | 24.6 | 24.6 | 16.4 | 14.6 |
| 성별 | 남성 | 105 | 23.8 | 22.9 | 15.2 | 12.4 |
| | 여성 | 66 | 25.8 | 27.3 | 18.2 | 18.2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10.3 | 46.6 | 3.4 | 5.2 |
| | 정신적장애 | 113 | 31.9 | 13.3 | 23.0 | 19.5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25.7 | 22.0 | 21.1 | 19.3 |
| | 퇴거자 | 62 | 22.6 | 29.0 | 8.1 | 6.5 |
| 구분 | | 사례수 | 휠체어 | 일반택시 | 자전거, 오토바이 | 전동스쿠터 |
| 전체 | | 171 | 14.0 | 2.9 | 2.3 | 0.6 |
| 성별 | 남성 | 105 | 19.0 | 1.9 | 3.8 | 1.0 |
| | 여성 | 66 | 6.1 | 4.5 | 0.0 | 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34.5 | 0.0 | 0.0 | 0.0 |
| | 정신적장애 | 113 | 3.5 | 4.4 | 3.5 | 0.9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7.3 | 2.8 | 0.9 | 0.9 |
| | 퇴거자 | 62 | 25.8 | 3.2 | 4.8 | 0.0 |

## 2) 장애인 지원서비스

### (1) 장애인 보조기기

전체 응답자의 38.6%가 장애인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 중인 보조기기는 '전동휠체어'(71.2%), '수동휠체어'(21.2%), 'AAC'(10.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45〉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 여부 및 종류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용 여부 | | | | 사용 중인 보조기기(복수응답) | | | | | | | |
|---|---|---|---|---|---|---|---|---|---|---|---|---|---|
| | | 사례수 | 예 | 아니오 | 모름/무응답 | 전동휠체어 | 수동휠체어 | 목욕의자 | AAC | 목발 | 스쿠터 | 전동리프트 | 기타*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46.5 | 52.8 | 0.7 | 55.2 | 49.3 | 6.0 | 4.5 | 4.5 | 4.5 | 0.0 | 13.4 |
| | 2019년 | 152 | 45.4 | 54.6 | 0.0 | 76.8 | 56.5 | 2.9 | 5.8 | 1.4 | 1.4 | 5.8 | 15.9 |
| | 2020년 | 159 | 42.1 | 57.9 | 0.0 | 77.6 | 44.8 | 10.4 | 9.0 | 3.0 | 1.5 | 4.5 | 14.9 |
| | 2021년 | 171 | 38.6 | 61.4 | 0.0 | 71.2 | 21.2 | 3.0 | 10.6 | 3.0 | 3.0 | 0.0 | 16.7 |

* 기타에는 '워커', '지팡이', '발목보조기', '테블릿 PC' 등이 있음

성별로 남성의 경우 46.7%가 보조기기를 사용하며, 사용 중인 보조기기는 '전동휠체어'가 75.5%로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25.8%가 보조기기를 사용하며, 사용 중인 보조기기는 '전동휠체어'가 5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의 경우 86.2%가 보조기기를 사용하며, '전동휠체어'가 82.0%로 높게 나타났고, 정신적 장애의 경우 14.2%가 보조기기를 사용하며, 사용 중인 보조기기는 '전동휠체어'가 37.5%로 높게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의 경우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비율이 30.3%로 나타났으며, 사용 중인 보조기기로는 '전동휠체어'가 57.6%로 높게 나타났고, 퇴거자의 경우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비율은 53.2%로, 사용 중인 보조기기는 '전동휠체어'가 8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146〉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 여부 및 종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용 여부 | | | 사용 중인 보조기기(복수응답) | | | | | | | |
|---|---|---|---|---|---|---|---|---|---|---|---|---|
| | | 사례수 | 예 | 아니오 | 전동 휠체어 | 수동 휠체어 | 목욕 의자 | AAC | 목발 | 스쿠터 | 전동 리프트 | 기타* |
| 전체 | | 171 | 38.6 | 61.4 | 71.2 | 21.2 | 3.0 | 10.6 | 3.0 | 3.0 | 0.0 | 16.7 |
| 성별 | 남성 | 105 | 46.7 | 53.3 | 75.5 | 18.4 | 2.0 | 10.2 | 2.0 | 4.1 | 0.0 | 12.2 |
| | 여성 | 66 | 25.8 | 74.2 | 58.8 | 29.4 | 5.9 | 11.8 | 5.9 | 0.0 | 0.0 | 29.4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86.2 | 13.8 | 82.0 | 22.0 | 4.0 | 4.0 | 2.0 | 4.0 | 0.0 | 12.0 |
| | 정신적장애 | 113 | 14.2 | 85.8 | 37.5 | 18.8 | 0.0 | 31.3 | 6.3 | 0.0 | 0.0 | 31.3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30.3 | 69.7 | 57.6 | 24.2 | 3.0 | 18.2 | 0.0 | 0.0 | 0.0 | 24.2 |
| | 퇴거자 | 62 | 53.2 | 46.8 | 84.8 | 18.2 | 3.0 | 3.0 | 6.1 | 6.1 | 0.0 | 9.1 |

* 기타에는 '워커', '지팡이', '발목보조기', '테블릿 PC' 등이 있음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조기기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의견이 93.9%로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보조기기에 대한 만족도가 올해 93.9%로 전년도(85.1%) 대비 8.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7〉 장애인 보조기기 만족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불만족하는 편이다 | 만족하는 편이다 | 매우 만족 | 불만족 | 만족 |
|---|---|---|---|---|---|---|---|---|
| 해당연도 | 2018년 | 67 | 4.5 | 19.4 | 52.2 | 23.9 | 23.9 | 76.1 |
| | 2019년 | 68 | 2.9 | 26.5 | 54.4 | 16.2 | 29.4 | 70.6 |
| | 2020년 | 67 | 4.5 | 10.4 | 61.2 | 23.9 | 14.9 | 85.1 |
| | 2021년 | 66 | 0.0 | 6.1 | 75.8 | 18.2 | 6.1 | 93.9 |

성별로 보조기기 만족도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91.8%, 여성의 경우 100.0%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응답자의 경우 92.0%, 정신적 장애를 가진 응답자의 100.0%가 현재 사용중인 보조기기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의 경우 90.9%, 퇴거자의 경우 97.0%가 장애인 보조기기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8〉 장애인 보조기기 만족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불만족 하는 편이다 | 만족하는 편이다 | 매우 만족 | 불만족 | 만족 |
|---|---|---|---|---|---|---|---|---|
| 전체 | | 66 | 0.0 | 6.1 | 75.8 | 18.2 | 6.1 | 93.9 |
| 성별 | 남성 | 49 | 0.0 | 8.2 | 77.6 | 14.3 | 8.2 | 91.8 |
| | 여성 | 17 | 0.0 | 0.0 | 70.6 | 29.4 | 0.0 | 10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0 | 0.0 | 8.0 | 74.0 | 18.0 | 8.0 | 92.0 |
| | 정신적장애 | 16 | 0.0 | 0.0 | 81.3 | 18.8 | 0.0 | 10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33 | 0.0 | 9.1 | 66.7 | 24.2 | 9.1 | 90.9 |
| | 퇴거자 | 33 | 0.0 | 3.0 | 84.8 | 12.1 | 3.0 | 97.0 |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보조기기의 기능/성능이 미흡해서'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보조기기가 없어서', '구입 시 본인 부담 비용이 높아서'(각 25.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49〉 장애인 보조기기 불만족 이유 (1순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보조기기 기능/ 성능미흡 | 자신에게 필요한 보조기기 없어서 | 구입시 본인부담 비용 높아서 |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 및 보급절차 까다로워 | 수리비용 비싸서 | 기타 |
|---|---|---|---|---|---|---|---|---|
| 해당연도 | 2018년 | 16 | 37.5 | 12.5 | 18.8 | 6.3 | 6.3 | 18.8 |
| | 2019년 | 20 | 55.0 | 10.0 | 10.0 | 0.0 | 15.0 | 10.0 |
| | 2020년 | 10 | 50.0 | 20.0 | 20.0 | 10.0 | 0.0 | 0.0 |
| | 2021년 | 4 | 50.0 | 25.0 | 25.0 | 0.0 | 0.0 | 0.0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의 경우 '보조기기의 기능/성능이 미흡해서'(66.7%), '구입 시 본인부담 비용이 높아서'(33.3%)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퇴거자의 경우 '자신에게 필요한 보조기기가 없어서'(100.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50〉 장애인 보조기기 불만족 이유 (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보조기기의 기능/성능이 미흡해서 | 자신에게 필요한 보조기기가 없어서 | 구입시 본인부담 비용이 높아서 |
|---|---|---|---|---|---|
| 전체 | | 4 | 50.0 | 25.0 | 25.0 |
| 성별 | 남성 | 4 | 50.0 | 25.0 | 25.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4 | 50.0 | 25.0 | 25.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3 | 66.7 | 0.0 | 33.3 |
| | 퇴거자 | 1 | 0.0 | 100.0 | 0.0 |

### (2) 장애인보조기기 관련 필요한 정책

장애인 보조기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수리비용 제공 확대'가 5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품목 확대'(24.0%)가 높게 나타났다.

〈표 4-151〉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필요 정책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수리 비용 제공확대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품목 확대 | 장애인 보조기기 필요 인원 파악 | 장애인 보조기기 이용 대기시간 감소 |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및 관리 교육 실시 | 기타 | 없음 | 모름/무응답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61.8 | 20.8 | 1.4 | 0.0 | 2.1 | 4.2 | 6.9 | 2.8 |
| | 2019년 | 152 | 55.9 | 28.9 | 2.0 | 2.0 | 1.3 | 9.9 | 0.0 | 0.0 |
| | 2020년 | 159 | 58.5 | 23.9 | 3.8 | 2.5 | 2.5 | 0.6 | 3.8 | 4.4 |
| | 2021년 | 171 | 58.5 | 24.0 | 6.4 | 2.3 | 2.3 | 0.0 | 6.4 | 0.0 |

성별로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수리비용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남성 56.2%, 여성 62.1%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의 경우 75.9%, 정신적 장애의 경우 49.6%가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필요 정책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수리비용 제공 확대'를 꼽았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수리비용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이용자 등'의 경우 54.1%, 퇴거자의 경우 66.1%로 나타났다.

〈표 4-152〉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필요 정책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수리 비용 제공확대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품목 확대 | 장애인 보조기기 필요 인원 파악 | 장애인 보조기기 이용 대기시간 감소 |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및 관리 교육 실시 | 없음 |
|---|---|---|---|---|---|---|---|---|
| 전체 | | 171 | 58.5 | 24.0 | 6.4 | 2.3 | 2.3 | 6.4 |
| 성별 | 남성 | 105 | 56.2 | 25.7 | 7.6 | 1.9 | 1.9 | 6.7 |
| | 여성 | 66 | 62.1 | 21.2 | 4.5 | 3.0 | 3.0 | 6.1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75.9 | 17.2 | 6.9 | 0.0 | 0.0 | 0.0 |
| | 정신적장애 | 113 | 49.6 | 27.4 | 6.2 | 3.5 | 3.5 | 9.7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54.1 | 24.8 | 6.4 | 2.8 | 2.8 | 9.2 |
| | 퇴거자 | 62 | 66.1 | 22.6 | 6.5 | 1.6 | 1.6 | 1.6 |

### (3)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전체 응답자의 84.2%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이용한다는 응답은 올해 84.2%로 전년도(81.1%) 대비 3.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3〉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예 | 아니오 | 모름/ 무응답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70.8 | 28.5 | 0.7 |
| | 2019년 | 152 | 77.0 | 23.0 | 0.0 |
| | 2020년 | 159 | 81.1 | 18.9 | 0.0 |
| | 2021년 | 171 | 84.2 | 15.8 | 0.0 |

남성은 83.8%, 여성은 84.8%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응답자의 87.9%, 정신적 장애를 가진 응답자의 82.3%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의 경우 85.3%, 퇴거자의 경우 82.3%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4〉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예 | 아니오 |
|---|---|---|---|---|
| 전체 | | 171 | 84.2 | 15.8 |
| 성별 | 남성 | 105 | 83.8 | 16.2 |
| | 여성 | 66 | 84.8 | 15.2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87.9 | 12.1 |
| | 정신적장애 | 113 | 82.3 | 17.7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85.3 | 14.7 |
| | 퇴거자 | 62 | 82.3 | 17.7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월 평균 서비스 이용 시간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269.8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전년도(평균 287.1시간) 대비 약 17.3 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5〉 월평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간 - 연도별

(단위: 명, %, 시간)

| 구분 | | 서비스 이용시간 | | | | | | |
|---|---|---|---|---|---|---|---|---|
| | | 사례수 | 100시간 미만 | 100시간 이상 ~200시간 미만 | 200시간 이상 ~400시간 미만 | 400시간 이상 | 모름/무응답 | 평균 (시간) |
| 해당연도 | 2018년 | 102 | 14.7 | 36.3 | 14.7 | 31.4 | 2.9 | 306.7 |
| | 2019년 | 117 | 11.1 | 42.7 | 13.7 | 32.5 | 0.0 | 316.5 |
| | 2020년 | 133 | 8.3 | 48.1 | 19.5 | 24.1 | 0.0 | 287.1 |
| | 2021년 | 144 | 16.7 | 32.6 | 31.3 | 19.4 | 0.0 | 269.8 |

성별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월 평균 288.3시간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월 평균 240.8시간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시간이 월 평균 401.4시간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정신적 장애의 경우 월 평균 197.6시간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간이 월 평균 266.8시간으로 나타났고, 퇴거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 시간이 월 평균 275.3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4-156〉 월평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시간)

| 구분 | | 서비스 이용시간 | | | | | |
|---|---|---|---|---|---|---|---|
| | | 사례수 | 100시간 미만 | 100시간 이상 ~200시간 미만 | 200시간 이상 ~400시간 미만 | 400시간 이상 | 평균 (시간) |
| 전체 | | 144 | 16.7 | 32.6 | 31.3 | 19.4 | 269.8 |
| 성별 | 남성 | 88 | 17.0 | 33.0 | 26.1 | 23.9 | 288.3 |
| | 여성 | 56 | 16.1 | 32.1 | 39.3 | 12.5 | 240.8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1 | 19.6 | 13.7 | 19.6 | 47.1 | 401.4 |
| | 정신적장애 | 93 | 15.1 | 43.0 | 37.6 | 4.3 | 197.6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93 | 10.8 | 33.3 | 38.7 | 17.2 | 266.8 |
| | 퇴거자 | 51 | 27.5 | 31.4 | 17.6 | 23.5 | 275.3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의견이 89.5%로 '불만족한다' 10.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만족한다'는 의견이 89.5%로 전년도(82.8%) 대비 약 6.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7〉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만족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불만족 하는 편임 | 만족 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모름/ 무응답 | 불만족 | 만족 | 모름/ 무응답 |
|---|---|---|---|---|---|---|---|---|---|---|
| 해당연도 | 2018년 | 75 | 9.3 | 12.0 | 48.0 | 29.3 | 1.3 | 21.3 | 77.3 | 1.3 |
| | 2019년 | 97 | 7.2 | 47.4 | 35.1 | 10.3 | 0.0 | 54.6 | 45.4 | 0.0 |
| | 2020년 | 93 | 4.3 | 7.5 | 63.4 | 19.4 | 5.4 | 11.8 | 82.8 | 5.4 |
| | 2021년 | 76 | 3.9 | 6.6 | 69.7 | 19.7 | 0.0 | 10.5 | 89.5 | 0.0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만족도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87.8%, 여성은 92.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의 경우 89.2%, 정신적 장애의 경우 89.7%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 만족하는 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은 '이용자 등'과 '퇴거자' 모두 각 89.5%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표 4-158〉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만족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불만족 하는 편임 | 만족 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모름/ 무응답 | 불만족 | 만족 | 모름/ 무응답 |
|---|---|---|---|---|---|---|---|---|---|---|
| 전체 | | 76 | 3.9 | 6.6 | 69.7 | 19.7 | 0.0 | 10.5 | 89.5 | 0.0 |
| 성별 | 남성 | 49 | 6.1 | 6.1 | 71.4 | 16.3 | 0.0 | 12.2 | 87.8 | 0.0 |
| | 여성 | 27 | 0.0 | 7.4 | 66.7 | 25.9 | 0.0 | 7.4 | 92.6 | 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37 | 5.4 | 5.4 | 64.9 | 24.3 | 0.0 | 10.8 | 89.2 | 0.0 |
| | 정신적장애 | 39 | 2.6 | 7.7 | 74.4 | 15.4 | 0.0 | 10.3 | 89.7 | 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38 | 5.3 | 5.3 | 65.8 | 23.7 | 0.0 | 10.5 | 89.5 | 0.0 |
| | 퇴거자 | 38 | 2.6 | 7.9 | 73.7 | 15.8 | 0.0 | 10.5 | 89.5 | 0.0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과반수인 52.1%는 현재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월평균 134.1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충분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올해 52.1%로 전년도(67.7%) 대비 감소했으며, 추가 필요시간 또한 약 31.6시간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9〉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시간 충분여부 및 추가 필요시간 - 연도별

(단위: 명, %, 시간)

| 구분 | | 충분여부 | | | | 추가 필요시간 |
|---|---|---|---|---|---|---|
| | | 사례수 | 예 | 아니오 | 모름/무응답 | 평균(시간) |
| 해당연도 | 2018년 | 100 | 32.0 | 67.0 | 1.0 | 155.0 |
| | 2019년 | 117 | 29.1 | 70.9 | 0.0 | 133.3 |
| | 2020년 | 133 | 28.6 | 67.7 | 3.8 | 165.7 |
| | 2021년 | 144 | 47.9 | 52.1 | 0.0 | 134.1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48.9%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추가 필요시간은 월 평균 117.0시간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57.1%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추가 필요시간은 월 평균 157.2시간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의 경우 불충분하다는 의견은 45.1%, 추가 필요시간은 월 평균 87.7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의 경우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55.9%, 추가 필요시간은 월 평균 154.7시간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의 57.0%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추가 필요시간은 월 평균 144.9시간으로 나타났고, 퇴거자의 경우 불충분하다는 의견은 43.1%, 추가 필요시간은 월평균 108.3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4-160〉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시간 충분여부 및 추가 필요시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시간)

| 구분 | | 충분여부 | | | | 추가 필요시간 |
|---|---|---|---|---|---|---|
| | | 사례수 | 예 | 아니오 | 모름/무응답 | 평균(시간) |
| 전체 | | 144 | 47.9 | 52.1 | 0.0 | 134.1 |
| 성별 | 남성 | 88 | 51.1 | 48.9 | 0.0 | 117.0 |
| | 여성 | 56 | 42.9 | 57.1 | 0.0 | 157.2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1 | 54.9 | 45.1 | 0.0 | 87.7 |
| | 정신적장애 | 93 | 44.1 | 55.9 | 0.0 | 154.7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93 | 43.0 | 57.0 | 0.0 | 144.9 |
| | 퇴거자 | 51 | 56.9 | 43.1 | 0.0 | 108.3 |

### (4)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으로는 '주거지원'이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상생활 활동지원'(19.3%), '직업재활/취업'(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이 '일상생활 활동지원'이라는 응답은 전년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소득지원'이라는 응답은 전년도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표 4-161〉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1순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주거지원 | 일상생활 활동지원 | 직업재활/취업 | 자립생활을 원하지 않음 | 소득지원 (자립생활 정착지원금 포함)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36.8 | 16.7 | 11.8 | 3.5 | 20.8 |
| | 2019년 | 152 | 46.1 | 20.4 | 5.3 | 1.3 | 15.1 |
| | 2020년 | 159 | 45.9 | 9.4 | 15.1 | 0.0 | 20.1 |
| | 2021년 | 171 | 36.3 | 19.3 | 10.5 | 9.4 | 9.4 |

| 구분 | | 의료재활 | 이동편의 | 보조기기 | 자립생활을 생각해 본 적 없음 | 없음 | 모름/무응답 |
|---|---|---|---|---|---|---|---|
| 해당연도 | 2018년 | 2.1 | 0.0 | 1.4 | 4.9 | 0.7 | 1.4 |
| | 2019년 | 2.0 | 2.6 | 2.0 | 5.3 | 0.0 | 0.0 |
| | 2020년 | 5.7 | 1.9 | 1.9 | 0.0 | 0.0 | 0.0 |
| | 2021년 | 4.7 | 4.1 | 3.5 | 2.9 | 0.0 | 0.0 |

성별로 살펴보면, '주거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은 34.3%, 여성은 39.4%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상생활 활동지원'을 꼽은 비율이 남성은 15.2%, 여성은 25.8%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의 경우 '주거지원'(31.0%), '일상생활 활동지원'과 '직업재활/취업'이 각 12.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의 경우 '주거지원'(38.9%), '일상생활 활동지원'(23.0%)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은 '주거지원'(37.6%), '일상생활 활동지원'(22.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퇴거자의 경우 '주거지원'(33.9%), '직업재활/취업'(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62〉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주거지원 | 일상생활 활동지원 | 직업재활/취업 | 자립생활을 원하지 않음 |
|---|---|---|---|---|---|---|
| 전체 | | 171 | 36.3 | 19.3 | 10.5 | 9.4 |
| 성별 | 남성 | 105 | 34.3 | 15.2 | 13.3 | 7.6 |
| | 여성 | 66 | 39.4 | 25.8 | 6.1 | 12.1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31.0 | 12.1 | 12.1 | 10.3 |
| | 정신적장애 | 113 | 38.9 | 23.0 | 9.7 | 8.8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37.6 | 22.9 | 8.3 | 11.0 |
| | 퇴거자 | 62 | 33.9 | 12.9 | 14.5 | 6.5 |

| 구분 | | 소득지원 (자립생활 정착지원금 포함) | 의료재활 | 이동편의 | 보조기기 | 자립생활을 생각해 본 적 없음 |
|---|---|---|---|---|---|---|
| 전체 | | 9.4 | 4.7 | 4.1 | 3.5 | 2.9 |
| 성별 | 남성 | 11.4 | 5.7 | 5.7 | 4.8 | 1.9 |
| | 여성 | 6.1 | 3.0 | 1.5 | 1.5 | 4.5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10.3 | 6.9 | 8.6 | 3.4 | 5.2 |
| | 정신적장애 | 8.8 | 3.5 | 1.8 | 3.5 | 1.8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1.0 | 2.8 | 2.8 | 0.9 | 2.8 |
| | 퇴거자 | 6.5 | 8.1 | 6.5 | 8.1 | 3.2 |

### (5) 기관/시설 이동시간

집에서 기관 및 시설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시장/마트 등 일상용품 구매 장소',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까지는 걸어서 5분 ~ 10분 미만, '병, 의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까지는 걸어서 10분 ~ 30분 미만, '읍면동 사무소'는 걸어서 '5분 ~ 10분 미만'과 '10분 ~ 30분 미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163〉 기관/시설 이동시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시장, 마트 등 일상용품 구매 장소 | | | |
|---|---|---|---|---|---|---|
| | | | 걸어서 5분 미만 | 걸어서 5분 ~ 10분 미만 | 걸어서 10분 ~ 30분 미만 | 걸어서 30분 이상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9.7 | 37.5 | 44.4 | 8.3 |
| | 2019년 | 152 | 21.1 | 52.6 | 25.0 | 1.3 |
| | 2020년 | 159 | 11.9 | 39.6 | 42.8 | 5.7 |
| | 2021년 | 171 | 17.0 | 55.0 | 26.3 | 1.8 |

| 구분 | | 사례수 | 병, 의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 | | | |
|---|---|---|---|---|---|---|
| | | | 걸어서 5분 미만 | 걸어서 5분 ~ 10분 미만 | 걸어서 10분 ~ 30분 미만 | 걸어서 30분 이상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1.4 | 13.2 | 49.3 | 36.1 |
| | 2019년 | 152 | 2.0 | 11.8 | 48.0 | 38.2 |
| | 2020년 | 159 | 5.7 | 22.0 | 43.4 | 28.9 |
| | 2021년 | 171 | 5.3 | 22.8 | 45.6 | 26.3 |

| 구분 | | 사례수 | 읍면동 사무소 | | | |
|---|---|---|---|---|---|---|
| | | | 걸어서 5분 미만 | 걸어서 5분 ~ 10분 미만 | 걸어서 10분 ~ 30분 미만 | 걸어서 30분 이상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7.6 | 31.3 | 49.3 | 11.8 |
| | 2019년 | 152 | 3.9 | 26.3 | 58.6 | 11.2 |
| | 2020년 | 159 | 6.3 | 36.5 | 47.8 | 9.4 |
| | 2021년 | 171 | 7.6 | 42.1 | 42.1 | 8.2 |

| 구분 | | 사례수 | 사회복지시설 | | | | |
|---|---|---|---|---|---|---|---|
| | | | 걸어서 5분 미만 | 걸어서 5분 ~ 10분 미만 | 걸어서 10분 ~ 30분 미만 | 걸어서 30분 이상 | 모름/ 무응답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5.6 | 4.9 | 32.6 | 56.3 | 0.7 |
| | 2019년 | 152 | 3.9 | 7.9 | 34.9 | 53.3 | 0.0 |
| | 2020년 | 159 | 1.3 | 16.4 | 37.7 | 44.7 | 0.0 |
| | 2021년 | 171 | 4.1 | 23.4 | 43.9 | 28.7 | 0.0 |

| 구분 | | 사례수 |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 | | |
|---|---|---|---|---|---|---|
| | | | 걸어서 5분 미만 | 걸어서 5분 ~ 10분 미만 | 걸어서 10분 ~ 30분 미만 | 걸어서 30분 이상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9.0 | 40.3 | 41.7 | 9.0 |
| | 2019년 | 152 | 11.8 | 66.4 | 21.7 | 0.0 |
| | 2020년 | 159 | 13.2 | 48.4 | 34.0 | 4.4 |
| | 2021년 | 171 | 18.7 | 51.5 | 26.9 | 2.9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사회복지시설까지 걸어서 10분 ~ 30분 미만 걸린다는 비율이 49.5%로 가장 높았고, 여성의 경우 걸어서 30분 이상 걸린다는 비율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10분 ~ 30분 미만 걸린다는 비율이 신체적 장애의 경우 41.4%, 정신적 장애의 경우 45.1%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10분 ~ 30분 미만 걸린다는 비율이 '이용자 등'의 경우 44.0%, 퇴거자의 경우 43.5%로 조사되었다.

〈표 4-164〉 기관/시설 이동시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시장, 마트 등 일상용품 구매 장소 | | | |
|---|---|---|---|---|---|---|
| | | | 걸어서 5분 미만 | 걸어서 5분 ~ 10분 미만 | 걸어서 10분 ~ 30분 미만 | 걸어서 30분 이상 |
| 전체 | | 171 | 17.0 | 55.0 | 26.3 | 1.8 |
| 성별 | 남성 | 105 | 18.1 | 53.3 | 26.7 | 1.9 |
| | 여성 | 66 | 15.2 | 57.6 | 25.8 | 1.5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12.1 | 55.2 | 27.6 | 5.2 |
| | 정신적장애 | 113 | 19.5 | 54.9 | 25.7 | 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14.7 | 57.8 | 26.6 | 0.9 |
| | 퇴거자 | 62 | 21.0 | 50.0 | 25.8 | 3.2 |
| 구분 | | 사례수 | 병, 의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 | | | |
| | | | 걸어서 5분 미만 | 걸어서 5분 ~ 10분 미만 | 걸어서 10분 ~ 30분 미만 | 걸어서 30분 이상 |
| 전체 | | 171 | 5.3 | 22.8 | 45.6 | 26.3 |
| 성별 | 남성 | 105 | 4.8 | 19.0 | 47.6 | 28.6 |
| | 여성 | 66 | 6.1 | 28.8 | 42.4 | 22.7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0.0 | 20.7 | 44.8 | 34.5 |
| | 정신적장애 | 113 | 8.0 | 23.9 | 46.0 | 22.1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6.4 | 24.8 | 47.7 | 21.1 |
| | 퇴거자 | 62 | 3.2 | 19.4 | 41.9 | 35.5 |

| 구분 | | 사례수 | 읍면동 사무소 | | | |
|---|---|---|---|---|---|---|
| | | | 걸어서 5분 미만 | 걸어서 5분 ~ 10분 미만 | 걸어서 10분 ~ 30분 미만 | 걸어서 30분 이상 |
| 전체 | | 171 | 7.6 | 42.1 | 42.1 | 8.2 |
| 성별 | 남성 | 105 | 8.6 | 43.8 | 41.9 | 5.7 |
| | 여성 | 66 | 6.1 | 39.4 | 42.4 | 12.1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5.2 | 44.8 | 36.2 | 13.8 |
| | 정신적장애 | 113 | 8.8 | 40.7 | 45.1 | 5.3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8.3 | 39.4 | 44.0 | 8.3 |
| | 퇴거자 | 62 | 6.5 | 46.8 | 38.7 | 8.1 |

| 구분 | | 사례수 | 사회복지시설 | | | |
|---|---|---|---|---|---|---|
| | | | 걸어서 5분 미만 | 걸어서 5분 ~ 10분 미만 | 걸어서 10분 ~ 30분 미만 | 걸어서 30분 이상 |
| 전체 | | 171 | 4.1 | 23.4 | 43.9 | 28.7 |
| 성별 | 남성 | 105 | 4.8 | 24.8 | 49.5 | 21.0 |
| | 여성 | 66 | 3.0 | 21.2 | 34.8 | 40.9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0.0 | 25.9 | 41.4 | 32.8 |
| | 정신적장애 | 113 | 6.2 | 22.1 | 45.1 | 26.5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5.5 | 21.1 | 44.0 | 29.4 |
| | 퇴거자 | 62 | 1.6 | 27.4 | 43.5 | 27.4 |

| 구분 | | 사례수 |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 | | |
|---|---|---|---|---|---|---|
| | | | 걸어서 5분 미만 | 걸어서 5분 ~ 10분 미만 | 걸어서 10분 ~ 30분 미만 | 걸어서 30분 이상 |
| 전체 | | 171 | 18.7 | 51.5 | 26.9 | 2.9 |
| 성별 | 남성 | 105 | 19.0 | 53.3 | 25.7 | 1.9 |
| | 여성 | 66 | 18.2 | 48.5 | 28.8 | 4.5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13.8 | 44.8 | 39.7 | 1.7 |
| | 정신적장애 | 113 | 21.2 | 54.9 | 20.4 | 3.5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19.3 | 45.9 | 31.2 | 3.7 |
| | 퇴거자 | 62 | 17.7 | 61.3 | 19.4 | 1.6 |

### (6) 현재 주된 걱정

현재 가장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상생활 지원'이 2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거'(21.1%), '건강 악화'(18.7%), '장래 재정'(12.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본 결과, '특별히 걱정 없음'이 12.9%로 전년도(1.3%)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반면 '직업 및 취업'은 7.0%로 전년도(15.7%)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표 4-165〉 현재 주된 걱정 (1순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일상생활 지원 | 주거 | 건강악화 | 특별한 걱정 없음 | 장래 재정 | 직업 및 취업 | 결혼 | 문화·여가 활동 | 교육 | 기타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9.0 | 28.5 | 20.1 | 1.4 | 20.1 | 11.8 | 5.6 | 0.7 | 1.4 | 1.4 |
| | 2019년 | 152 | 7.9 | 31.6 | 16.4 | 15.1 | 15.8 | 9.2 | 2.0 | 0.7 | 1.3 | 0.0 |
| | 2020년 | 159 | 12.6 | 23.9 | 17.6 | 1.3 | 18.2 | 15.7 | 6.9 | 3.1 | 0.0 | 0.6 |
| | 2021년 | 171 | 22.8 | 21.1 | 18.7 | 12.9 | 12.3 | 7.0 | 2.3 | 1.2 | 0.6 | 1.2 |

성별로 남성의 경우 '일상생활 지원'(22.9%), '주거'(18.1%), '장래 재정'(17.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주거'(25.8%), '일상생활 지원'과 '건강 악화'가 각 22.7%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장애의 경우 '장래 재정'(24.1%), '건강 악화'(22.4%), '주거'(19.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의 경우 '일상생활 지원'(26.5%), '주거'(22.1%), '건강 악화'(16.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의 경우 '일상생활 지원'(29.4%), '주거'(24.8%), '건강 악화'(12.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퇴거자의 경우 '건강 악화'(29.0%), '장래 재정'(22.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66〉 현재 주된 걱정 (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일상생활 지원 | 주거 | 건강 악화 | 특별히 걱정 없음 | 장래 재정 | 직업 및 취업 | 결혼 | 문화·여가 활동 | 교육 | 기타 |
|---|---|---|---|---|---|---|---|---|---|---|---|---|
| 전체 | | 171 | 22.8 | 21.1 | 18.7 | 12.9 | 12.3 | 7.0 | 2.3 | 1.2 | 0.6 | 1.2 |
| 성별 | 남성 | 105 | 22.9 | 18.1 | 16.2 | 12.4 | 17.1 | 8.6 | 3.8 | 0.0 | 0.0 | 1.0 |
| | 여성 | 66 | 22.7 | 25.8 | 22.7 | 13.6 | 4.5 | 4.5 | 0.0 | 3.0 | 1.5 | 1.5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15.5 | 19.0 | 22.4 | 10.3 | 24.1 | 3.4 | 1.7 | 0.0 | 1.7 | 1.7 |
| | 정신적장애 | 113 | 26.5 | 22.1 | 16.8 | 14.2 | 6.2 | 8.8 | 2.7 | 1.8 | 0.0 | 0.9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29.4 | 24.8 | 12.8 | 11.9 | 6.4 | 9.2 | 1.8 | 1.8 | 0.0 | 1.8 |
| | 퇴거자 | 62 | 11.3 | 14.5 | 29.0 | 14.5 | 22.6 | 3.2 | 3.2 | 0.0 | 1.6 | 0.0 |

### (7) 미래 준비 정도

향후 미래의 계획에 대해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일상생활 지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음(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음,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은 편임)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이성교제 및 결혼'은 90.1%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이성교제 및 결혼'(90.5%), '교육'(71.4%), '직업 및 취업'(68.6%) 등의 순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이성교제 및 결혼'(89.4%), '주거'(69.7%), '직업 및 취업'(63.6%) 등의 순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장애의 경우 '이성교제 및 결혼'(86.2%), '직업 및 취업'(74.1%), '건강관리'(72.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의 경우 '이성교제 및 결혼'(92.0%), '교육'(65.5%), '직업 및 취업'(62.8%) 등의 순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의 경우 '이성교제 및 결혼'(91.7%), '주거'(69.7%), '직업 및 취업'(62.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퇴거자의 경우 '이성교제 및 결혼'(87.1%), '교육'(75.8%), '직업 및 취업'(7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67〉 미래 준비 정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직업 및 취업 | | 장래 재정 | | 이성교제 및 결혼 | | 주거 | |
|---|---|---|---|---|---|---|---|---|---|---|
| | | | 준비 | 미비 | 준비 | 미비 | 준비 | 미비 | 준비 | 미비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26.4 | 73.6 | 31.3 | 68.8 | 5.6 | 93.1 | 38.2 | 61.8 |
| | 2019년 | 152 | 17.1 | 82.9 | 13.8 | 86.2 | 8.6 | 91.4 | 15.8 | 84.2 |
| | 2020년 | 159 | 27.7 | 72.3 | 43.4 | 56.6 | 11.9 | 88.1 | 27.0 | 73.0 |
| | 2021년 | 171 | 33.3 | 66.7 | 39.8 | 60.2 | 9.9 | 90.1 | 36.8 | 63.2 |
| 구분 | | 사례수 | 건강관리 | | 교육 | | 문화 및 여가활동 | | 일상생활 지원 | |
| | | | 준비 | 미비 | 준비 | 미비 | 준비 | 미비 | 준비 | 미비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52.1 | 47.9 | 36.8 | 63.2 | 53.5 | 46.5 | 56.9 | 43.1 |
| | 2019년 | 152 | 32.2 | 67.8 | 37.5 | 62.5 | 34.2 | 65.8 | 31.6 | 68.4 |
| | 2020년 | 159 | 50.3 | 49.7 | 31.4 | 68.6 | 49.7 | 50.3 | 50.9 | 49.1 |
| | 2021년 | 171 | 42.7 | 57.3 | 33.9 | 66.1 | 45.6 | 54.4 | 53.2 | 46.8 |

〈표 4-168〉 미래 준비 정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직업 및 취업 | | 장래 재정 | | 이성교제 및 결혼 | | 주거 | |
|---|---|---|---|---|---|---|---|---|---|---|
| | | | 준비 | 미비 | 준비 | 미비 | 준비 | 미비 | 준비 | 미비 |
| 전체 | | 171 | 33.3 | 66.7 | 39.8 | 60.2 | 9.9 | 90.1 | 36.8 | 63.2 |
| 성별 | 남성 | 105 | 31.4 | 68.6 | 35.2 | 64.8 | 9.5 | 90.5 | 41.0 | 59.0 |
| | 여성 | 66 | 36.4 | 63.6 | 47.0 | 53.0 | 10.6 | 89.4 | 30.3 | 69.7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25.9 | 74.1 | 29.3 | 70.7 | 13.8 | 86.2 | 34.5 | 65.5 |
| | 정신적장애 | 113 | 37.2 | 62.8 | 45.1 | 54.9 | 8.0 | 92.0 | 38.1 | 61.9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37.6 | 62.4 | 45.9 | 54.1 | 8.3 | 91.7 | 30.3 | 69.7 |
| | 퇴거자 | 62 | 25.8 | 74.2 | 29.0 | 71.0 | 12.9 | 87.1 | 48.4 | 51.6 |
| 구분 | | 사례수 | 건강관리 | | 교육 | | 문화 및 여가활동 | | 일상생활 지원 | |
| | | | 준비 | 미비 | 준비 | 미비 | 준비 | 미비 | 준비 | 미비 |
| 전체 | | 171 | 42.7 | 57.3 | 33.9 | 66.1 | 45.6 | 54.4 | 53.2 | 46.8 |
| 성별 | 남성 | 105 | 40.0 | 60.0 | 28.6 | 71.4 | 41.0 | 59.0 | 48.6 | 51.4 |
| | 여성 | 66 | 47.0 | 53.0 | 42.4 | 57.6 | 53.0 | 47.0 | 60.6 | 39.4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27.6 | 72.4 | 32.8 | 67.2 | 29.3 | 70.7 | 46.6 | 53.4 |
| | 정신적장애 | 113 | 50.4 | 49.6 | 34.5 | 65.5 | 54.0 | 46.0 | 56.6 | 43.4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51.4 | 48.6 | 39.4 | 60.6 | 52.3 | 47.7 | 56.0 | 44.0 |
| | 퇴거자 | 62 | 27.4 | 72.6 | 24.2 | 75.8 | 33.9 | 66.1 | 48.4 | 51.6 |

### 3) 지역사회생활 지원

#### (1) 필요한 지원 빈도

지역사회생활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지원 빈도를 주요 생활 영역별로 조사한 결과, 지원 빈도가 높은 영역인 주 1회 이상(일 1회 이상, 1시간 1회 이상 포함)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장소 이동하기(교통)'(57.9%)와 '물건과 서비스 쇼핑하고 구입하기'(56.1%)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역사회에서 공공서비스 이용하기'와 '친구와 가족 방문하기', '좋아하는 지역사회 활동(교회, 자원봉사 등)에 참여하기'는 필요한 지원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월 1회 미만, 월 1회 이상) 영역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에서 장소 이동하기(교통)는 '월 1회 미만'(32.7%), '일 1회 이상'(29.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필요한 지원 빈도가 높은(주 1회 이상, 일 1회 이상, 1시간 1회 이상) 응답은 성별로 여성(59.1%),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62.1%),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61.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에서 레크리에이션/여가 활동 참여하기의 경우 '월 1회 미만'과 '주 1회 이상'이 각 31.0%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필요한 지원 빈도가 높은(주 1회 이상, 일 1회 이상, 1시간 1회 이상) 응답은 성별로 '여성'(56.1%), 장애유형별로 정신적 장애(50.4%),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47.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에서 공공서비스 이용하기 항목의 경우 '월 1회 이상'(32.7%), '월 1회 미만'(31.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필요한 지원 빈도가 높은(주 1회 이상, 일 1회 이상, 1시간 1회 이상) 응답은 성별로 '여성'(36.4%), 장애유형별로 '정신적 장애'(36.3%),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37.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친구와 가족 방문하기 항목의 경우 '월 1회 미만'(62.6%), '월 1회 이상'(1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요한 지원 빈도가 높은 응답(주 1회 이상, 일 1회 이상, 1시간 1회 이상)은 성별로 '여성'(28.8%),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22.4%),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22.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좋아하는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항목의 경우 '월 1회 미만'(45.6%), '주 1회

이상'(22.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필요한 지원 빈도가 높은 응답(주 1회 이상, 일 1회 이상, 1시간 1회 이상)은 성별로 남성(36.2%),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32.8%),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퇴거자(35.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물건과 서비스 쇼핑하고 구입하기 항목의 경우 '주 1회 이상'(39.8%), '월 1회 미만'(24.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필요한 지원 빈도가 높은 응답(주 1회 이상, 일 1회 이상, 1시간 1회 이상)은 성별로 남성(57.1%),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56.9%),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58.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 구성원과 상호작용하기 항목의 경우 '월 1회 미만'과 '주 1회 이상'이 각 32.2%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필요한 지원 빈도가 높은 응답(주 1회 이상, 일 1회 이상, 1시간 1회 이상)은 성별로 여성(54.5%), 장애유형별로 정신적 장애(51.3%),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53.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공건물과 장소 이용하기 항목의 경우 '주 1회 이상'(33.9%), '월 1회 미만'(28.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필요한 지원 빈도가 높은 응답(주 1회 이상, 일 1회 이상, 1시간 1회 이상)은 성별로 남성(48.6%), 장애유형별로 정신적 장애(51.3%),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49.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기관리 전략 배우기 항목의 경우 '월 1회 미만'(33.3%), '주 1회 이상'(26.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필요한 지원 빈도가 높은 응답(주 1회 이상, 일 1회 이상, 1시간 1회 이상)은 성별로는 여성(50.0%), 장애유형별로 정신적 장애(45.1%),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45.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4-169〉 필요한 지원 빈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1. 지역사회에서 장소 이동하기(교통) | | | | |
|---|---|---|---|---|---|---|---|
| | | | 월 1회 미만 | 월 1회 이상 | 주 1회 이상 | 일 1회 이상 | 모름/무응답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31.9 | 10.4 | 26.4 | 29.9 | 1.4 |
| | 2019년 | 152 | 22.4 | 9.2 | 30.9 | 37.5 | 0.0 |
| | 2020년 | 159 | 29.6 | 13.2 | 24.5 | 32.7 | 0.0 |
| | 2021년 | 171 | 32.7 | 9.4 | 28.1 | 29.8 | 0.0 |

| 구분 | | 사례수 | 2. 지역사회에서 레크리에이션/여가 활동 참여하기 | | | | |
|---|---|---|---|---|---|---|---|
| | | | 월 1회 미만 | 월 1회 이상 | 주 1회 이상 | 일 1회 이상 | 모름/무응답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38.2 | 17.4 | 34.7 | 8.3 | 1.4 |
| | 2019년 | 152 | 27.6 | 17.8 | 34.9 | 19.7 | 0.0 |
| | 2020년 | 159 | 30.2 | 6.9 | 32.1 | 30.8 | 0.0 |
| | 2021년 | 171 | 31.0 | 24.0 | 31.0 | 14.0 | 0.0 |

| 구분 | | 사례수 | 3. 지역사회에서 공공서비스 이용하기 | | | | |
|---|---|---|---|---|---|---|---|
| | | | 월 1회 미만 | 월 1회 이상 | 주 1회 이상 | 일 1회 이상 | 모름/무응답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41.0 | 22.2 | 27.1 | 8.3 | 1.4 |
| | 2019년 | 152 | 31.6 | 30.3 | 25.7 | 12.5 | 0.0 |
| | 2020년 | 159 | 33.3 | 10.7 | 17.0 | 39.0 | 0.0 |
| | 2021년 | 171 | 31.0 | 32.7 | 26.9 | 9.4 | 0.0 |

| 구분 | | 사례수 | 4. 친구와 가족 방문하기 | | | | |
|---|---|---|---|---|---|---|---|
| | | | 월 1회 미만 | 월 1회 이상 | 주 1회 이상 | 일 1회 이상 | 모름/무응답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59.7 | 20.1 | 16.0 | 2.8 | 1.4 |
| | 2019년 | 152 | 46.1 | 24.3 | 17.1 | 12.5 | 0.0 |
| | 2020년 | 159 | 30.2 | 21.4 | 34.6 | 13.8 | 0.0 |
| | 2021년 | 171 | 62.6 | 15.8 | 14.0 | 7.6 | 0.0 |

| 구분 | | 사례수 | 5. 좋아하는 지역사회 활동 | | | | |
|---|---|---|---|---|---|---|---|
| | | | 월 1회 미만 | 월 1회 이상 | 주 1회 이상 | 일 1회 이상 | 모름/무응답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38.9 | 6.9 | 46.5 | 6.3 | 1.4 |
| | 2019년 | 152 | 40.8 | 7.2 | 40.8 | 11.2 | 0.0 |
| | 2020년 | 159 | 30.2 | 6.3 | 35.2 | 28.3 | 0.0 |
| | 2021년 | 171 | 45.6 | 21.6 | 22.8 | 9.9 | 0.0 |

〈표 4-170〉 필요한 지원 빈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6. 물건과 서비스 쇼핑하고 구입하기 | | | | | |
|---|---|---|---|---|---|---|---|---|
| | | | 월 1회 미만 | 월 1회 이상 | 주 1회 이상 | 일 1회 이상 | 1시간 1회 이상 | 모름/ 무응답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34.7 | 14.6 | 40.3 | 9.0 | 0.0 | 1.4 |
| | 2019년 | 152 | 19.1 | 27.0 | 39.5 | 13.2 | 1.3 | 0.0 |
| | 2020년 | 159 | 37.7 | 15.7 | 15.7 | 13.8 | 17.0 | 0.0 |
| | 2021년 | 171 | 24.0 | 19.9 | 39.8 | 11.7 | 4.7 | 0.0 |

| 구분 | | 사례수 | 7. 지역사회 구성원과 상호작용하기 | | | | | |
|---|---|---|---|---|---|---|---|---|
| | | | 월 1회 미만 | 월 1회 이상 | 주 1회 이상 | 일 1회 이상 | 1시간 1회 이상 | 모름/ 무응답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43.1 | 16.7 | 27.1 | 10.4 | 1.4 | 1.4 |
| | 2019년 | 152 | 38.8 | 25.0 | 23.7 | 11.8 | 0.7 | 0.0 |
| | 2020년 | 159 | 23.3 | 35.8 | 25.2 | 15.7 | 0.0 | 0.0 |
| | 2021년 | 171 | 32.2 | 21.1 | 32.2 | 9.4 | 5.3 | 0.0 |

| 구분 | | 사례수 | 8. 공공건물과 장소 이용하기 | | | | | |
|---|---|---|---|---|---|---|---|---|
| | | | 월 1회 미만 | 월 1회 이상 | 주 1회 이상 | 일 1회 이상 | 1시간 1회 이상 | 모름/ 무응답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42.4 | 22.9 | 24.3 | 7.6 | 1.4 | 1.4 |
| | 2019년 | 152 | 29.6 | 32.9 | 26.3 | 10.5 | 0.7 | 0.0 |
| | 2020년 | 159 | 21.4 | 12.6 | 41.5 | 9.4 | 15.1 | 0.0 |
| | 2021년 | 171 | 28.1 | 24.6 | 33.9 | 8.8 | 4.7 | 0.0 |

| 구분 | | 사례수 | 9. 자기관리 전략 배우기 | | | | | |
|---|---|---|---|---|---|---|---|---|
| | | | 월 1회 미만 | 월 1회 이상 | 주 1회 이상 | 일 1회 이상 | 1시간 1회 이상 | 모름/ 무응답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46.5 | 23.6 | 20.1 | 7.6 | 0.7 | 1.4 |
| | 2019년 | 152 | 43.4 | 24.3 | 28.3 | 3.9 | 0.0 | 0.0 |
| | 2020년 | 159 | 25.8 | 20.8 | 18.2 | 16.4 | 18.9 | 0.0 |
| | 2021년 | 171 | 33.3 | 24.0 | 26.3 | 11.7 | 4.7 | 0.0 |

〈표 4-171〉 필요한 지원 빈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1. 지역사회에서 장소 이동하기(교통) | | | |
|---|---|---|---|---|---|---|
| | | | 월 1회 미만 | 월 1회 이상 | 주 1회 이상 | 일 1회 이상 |
| 전체 | | 171 | 32.7 | 9.4 | 28.1 | 29.8 |
| 성별 | 남성 | 105 | 34.3 | 8.6 | 21.9 | 35.2 |
| | 여성 | 66 | 30.3 | 10.6 | 37.9 | 21.2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25.9 | 12.1 | 20.7 | 41.4 |
| | 정신적장애 | 113 | 36.3 | 8.0 | 31.9 | 23.9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30.3 | 8.3 | 33.0 | 28.4 |
| | 퇴거자 | 62 | 37.1 | 11.3 | 19.4 | 32.3 |

| 구분 | | 사례수 | 2. 지역사회에서 레크리에이션/여가 활동 참여하기 | | | |
|---|---|---|---|---|---|---|
| | | | 월 1회 미만 | 월 1회 이상 | 주 1회 이상 | 일 1회 이상 |
| 전체 | | 171 | 31.0 | 24.0 | 31.0 | 14.0 |
| 성별 | 남성 | 105 | 31.4 | 30.5 | 22.9 | 15.2 |
| | 여성 | 66 | 30.3 | 13.6 | 43.9 | 12.1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36.2 | 29.3 | 20.7 | 13.8 |
| | 정신적장애 | 113 | 28.3 | 21.2 | 36.3 | 14.2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26.6 | 25.7 | 36.7 | 11.0 |
| | 퇴거자 | 62 | 38.7 | 21.0 | 21.0 | 19.4 |

| 구분 | | 사례수 | 3. 지역사회에서 공공서비스 이용하기 | | | |
|---|---|---|---|---|---|---|
| | | | 월 1회 미만 | 월 1회 이상 | 주 1회 이상 | 일 1회 이상 |
| 전체 | | 171 | 31.0 | 32.7 | 26.9 | 9.4 |
| 성별 | 남성 | 105 | 32.4 | 31.4 | 25.7 | 10.5 |
| | 여성 | 66 | 28.8 | 34.8 | 28.8 | 7.6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27.6 | 36.2 | 24.1 | 12.1 |
| | 정신적장애 | 113 | 32.7 | 31.0 | 28.3 | 8.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24.8 | 37.6 | 32.1 | 5.5 |
| | 퇴거자 | 62 | 41.9 | 24.2 | 17.7 | 16.1 |

| 구분 | | 사례수 | 4. 친구와 가족 방문하기 | | | |
|---|---|---|---|---|---|---|
| | | | 월 1회 미만 | 월 1회 이상 | 주 1회 이상 | 일 1회 이상 |
| 전체 | | 171 | 62.6 | 15.8 | 14.0 | 7.6 |
| 성별 | 남성 | 105 | 66.7 | 16.2 | 7.6 | 9.5 |
| | 여성 | 66 | 56.1 | 15.2 | 24.2 | 4.5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58.6 | 19.0 | 10.3 | 12.1 |
| | 정신적장애 | 113 | 64.6 | 14.2 | 15.9 | 5.3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64.2 | 12.8 | 18.3 | 4.6 |
| | 퇴거자 | 62 | 59.7 | 21.0 | 6.5 | 12.9 |

| 구분 | | 사례수 | 5. 좋아하는 지역사회 활동 | | | |
|---|---|---|---|---|---|---|
| | | | 월 1회 미만 | 월 1회 이상 | 주 1회 이상 | 일 1회 이상 |
| 전체 | | 171 | 45.6 | 21.6 | 22.8 | 9.9 |
| 성별 | 남성 | 105 | 42.9 | 21.0 | 24.8 | 11.4 |
| | 여성 | 66 | 50.0 | 22.7 | 19.7 | 7.6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44.8 | 22.4 | 20.7 | 12.1 |
| | 정신적장애 | 113 | 46.0 | 21.2 | 23.9 | 8.8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42.2 | 26.6 | 23.9 | 7.3 |
| | 퇴거자 | 62 | 51.6 | 12.9 | 21.0 | 14.5 |

| 구분 | | 사례수 | 6. 물건과 서비스 쇼핑하고 구입하기 | | | | |
|---|---|---|---|---|---|---|---|
| | | | 월 1회 미만 | 월 1회 이상 | 주 1회 이상 | 일 1회 이상 | 1시간 1회 이상 |
| 전체 | | 171 | 24.0 | 19.9 | 39.8 | 11.7 | 4.7 |
| 성별 | 남성 | 105 | 22.9 | 20.0 | 42.9 | 7.6 | 6.7 |
| | 여성 | 66 | 25.8 | 19.7 | 34.8 | 18.2 | 1.5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17.2 | 25.9 | 41.4 | 5.2 | 10.3 |
| | 정신적장애 | 113 | 27.4 | 16.8 | 38.9 | 15.0 | 1.8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18.3 | 22.9 | 42.2 | 14.7 | 1.8 |
| | 퇴거자 | 62 | 33.9 | 14.5 | 35.5 | 6.5 | 9.7 |

| 구분 | | 사례수 | 7. 지역사회 구성원과 상호작용하기 | | | | |
|---|---|---|---|---|---|---|---|
| | | | 월 1회 미만 | 월 1회 이상 | 주 1회 이상 | 일 1회 이상 | 1시간 1회 이상 |
| 전체 | | 171 | 32.2 | 21.1 | 32.2 | 9.4 | 5.3 |
| 성별 | 남성 | 105 | 31.4 | 26.7 | 26.7 | 8.6 | 6.7 |
| | 여성 | 66 | 33.3 | 12.1 | 40.9 | 10.6 | 3.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36.2 | 25.9 | 20.7 | 3.4 | 13.8 |
| | 정신적장애 | 113 | 30.1 | 18.6 | 38.1 | 12.4 | 0.9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27.5 | 19.3 | 41.3 | 10.1 | 1.8 |
| | 퇴거자 | 62 | 40.3 | 24.2 | 16.1 | 8.1 | 11.3 |

| 구분 | | 사례수 | 8. 공공건물과 장소 이용하기 | | | | |
|---|---|---|---|---|---|---|---|
| | | | 월 1회 미만 | 월 1회 이상 | 주 1회 이상 | 일 1회 이상 | 1시간 1회 이상 |
| 전체 | | 171 | 28.1 | 24.6 | 33.9 | 8.8 | 4.7 |
| 성별 | 남성 | 105 | 25.7 | 25.7 | 34.3 | 7.6 | 6.7 |
| | 여성 | 66 | 31.8 | 22.7 | 33.3 | 10.6 | 1.5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31.0 | 29.3 | 25.9 | 0.0 | 13.8 |
| | 정신적장애 | 113 | 26.5 | 22.1 | 38.1 | 13.3 | 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24.8 | 25.7 | 37.6 | 10.1 | 1.8 |
| | 퇴거자 | 62 | 33.9 | 22.6 | 27.4 | 6.5 | 9.7 |

| 구분 | | 사례수 | 9. 자기관리 전략 배우기 | | | | |
|---|---|---|---|---|---|---|---|
| | | | 월 1회 미만 | 월 1회 이상 | 주 1회 이상 | 일 1회 이상 | 1시간 1회 이상 |
| 전체 | | 171 | 33.3 | 24.0 | 26.3 | 11.7 | 4.7 |
| 성별 | 남성 | 105 | 36.2 | 25.7 | 22.9 | 8.6 | 6.7 |
| | 여성 | 66 | 28.8 | 21.2 | 31.8 | 16.7 | 1.5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41.4 | 20.7 | 22.4 | 5.2 | 10.3 |
| | 정신적장애 | 113 | 29.2 | 25.7 | 28.3 | 15.0 | 1.8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29.4 | 24.8 | 29.4 | 13.8 | 2.8 |
| | 퇴거자 | 62 | 40.3 | 22.6 | 21.0 | 8.1 | 8.1 |

### (2) 필요한 일일 지원 시간

주요 생활 영역별로 필요한 일일 지원 시간을 조사한 결과, 일일 2시간 이상 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는 '친구와 가족 방문하기'가 2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관리 전략 배우기'(19.9%), '지역사회에서 레크리에이션/여가 활동 참여하기'(19.3%), '지역사회 구성원과 상호작용하기'(1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원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없음) 영역으로는 '좋아하는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기'(31.0%), '친구와 가족 방문하기'(3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친구와 가족 방문하기'의 경우 필요한 지원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이었음을 고려하면, 해당 생활 영역에 대한 지원 욕구는 낮은 편이나 필요할 경우 많은 시간의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에서 장소 이동하기(교통) 항목은 '30분 ~ 2시간 미만'(43.9%), '없음'(23.4)%, '30분 미만'(18.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일 2시간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성별로 여성(15.2%),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20.7%), 자립생활주택 이용여부별로 퇴거자(16.1%)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에서 레크리에이션/여가 활동 참여하기의 경우 '30분 ~ 2시간 미만'(43.9%), '없음'(20.5%), '30분 미만'(16.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일 2시간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20.0%), 장애유형별로 정신적 장애(19.5%),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퇴거자(19.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에서 공공서비스 이용하기의 경우 '30분 ~ 2시간 미만'(46.8%), '30분 미만'(22.8%), '없음'(18.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일 2시간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14.3%),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17.2%),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퇴거자(14.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친구와 가족 방문하기의 경우 '없음'(30.4%), '30분 ~ 2시간 미만'(29.2%), '30분 미만'(18.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일 2시간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24.8%), 장애유형별로 정신적 장애(23.0%),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퇴거자(24.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좋아하는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기의 경우 '30분 ~ 2시간 미만'(36.3%), '없음'(31.0%), '30분 미만'(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일 2시간 이상 지원이 필

요하다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19.0%), 장애유형별로 정신적 장애(17.7%),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퇴거자(19.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물건과 서비스 쇼핑하고 구입하기 항목의 경우 '30분 ~ 2시간 미만'(53.8%), '없음'(19.3%), '30분 미만'(12.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일일 2시간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17.1%),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20.7%),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퇴거자(19.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 구성원과 상호작용하기 항목의 경우 '30분 ~ 2시간 미만'(42.1%), '없음'(20.5%), '30분 미만'(18.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일 2시간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21.9%),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22.4%),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퇴거자(22.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공건물과 장소 이용하기의 경우 '30분 ~ 2시간 미만'(50.3%), '없음'(17.0%), '30분 미만'(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일 2시간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20.0%), 장애유형별로 정신적 장애(17.7%),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퇴거자(17.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기관리 전략 배우기 항목의 경우 '30분 ~ 2시간 미만'(46.8%), '없음'(18.7%), '30분 미만'(14.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일 2시간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성별로 여성(21.2%), 장애유형별로 정신적 장애(21.2%),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22.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72〉 필요한 일일 지원 시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1. 지역사회에서 장소 이동하기(교통) | | | | | |
|---|---|---|---|---|---|---|---|---|
| | | | 없음 | 30분 미만 | 30분~2시간 미만 | 2~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 모름/무응답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31.3 | 4.9 | 31.9 | 16.0 | 13.9 | 2.1 |
| | 2019년 | 152 | 21.7 | 0.7 | 34.9 | 28.9 | 13.8 | 0.0 |
| | 2020년 | 159 | 47.2 | 28.9 | 14.5 | 9.4 | 0.0 | 0.0 |
| | 2021년 | 171 | 23.4 | 18.1 | 43.9 | 9.4 | 5.3 | 0.0 |

| 구분 | | 사례수 | 2. 지역사회에서 레크리에이션/여가 활동 참여하기 | | | | | |
|---|---|---|---|---|---|---|---|---|
| | | | 없음 | 30분 미만 | 30분~2시간 미만 | 2~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 모름/무응답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36.8 | 0.7 | 32.6 | 19.4 | 8.3 | 2.1 |
| | 2019년 | 152 | 27.6 | 2.0 | 30.9 | 21.7 | 17.8 | 0.0 |
| | 2020년 | 159 | 39.0 | 8.8 | 22.6 | 10.1 | 19.5 | 0.0 |
| | 2021년 | 171 | 20.5 | 16.4 | 43.9 | 10.5 | 8.8 | 0.0 |

| 구분 | | 사례수 | 3. 지역사회에서 공공서비스 이용하기 | | | | | |
|---|---|---|---|---|---|---|---|---|
| | | | 없음 | 30분 미만 | 30분~2시간 미만 | 2~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 모름/무응답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34.7 | 4.2 | 37.5 | 15.3 | 6.3 | 2.1 |
| | 2019년 | 152 | 30.3 | 4.6 | 41.4 | 15.8 | 7.9 | 0.0 |
| | 2020년 | 159 | 43.4 | 13.8 | 13.2 | 11.9 | 17.6 | 0.0 |
| | 2021년 | 171 | 18.1 | 22.8 | 46.8 | 7.6 | 4.7 | 0.0 |

| 구분 | | 사례수 | 4. 친구와 가족 방문하기 | | | | | |
|---|---|---|---|---|---|---|---|---|
| | | | 없음 | 30분 미만 | 30분~2시간 미만 | 2~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 모름/무응답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52.1 | 2.1 | 15.3 | 14.6 | 13.9 | 2.1 |
| | 2019년 | 152 | 42.8 | 2.0 | 19.7 | 23.7 | 11.8 | 0.0 |
| | 2020년 | 159 | 35.8 | 21.4 | 34.0 | 8.8 | 0.0 | 0.0 |
| | 2021년 | 171 | 30.4 | 18.7 | 29.2 | 13.5 | 8.2 | 0.0 |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5. 좋아하는 지역사회 활동 | | | | | |
|---|---|---|---|---|---|---|---|---|
| | | | 없음 | 30분 미만 | 30분~2시간 미만 | 2~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 모름/무응답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37.5 | 0.0 | 24.3 | 24.3 | 11.8 | 2.1 |
| | 2019년 | 152 | 40.1 | 3.3 | 28.3 | 19.7 | 8.6 | 0.0 |
| | 2020년 | 159 | 34.6 | 8.2 | 30.8 | 10.7 | 15.7 | 0.0 |
| | 2021년 | 171 | 31.0 | 15.2 | 36.3 | 12.3 | 5.3 | 0.0 |

| 구분 | | 사례수 | 6. 물건과 서비스 쇼핑하고 구입하기 | | | | | |
|---|---|---|---|---|---|---|---|---|
| | | | 없음 | 30분 미만 | 30분~2시간 미만 | 2~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 모름/무응답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33.3 | 6.3 | 34.7 | 17.4 | 6.3 | 2.1 |
| | 2019년 | 152 | 19.1 | 5.3 | 40.1 | 27.0 | 8.6 | 0.0 |
| | 2020년 | 159 | 40.3 | 15.7 | 17.0 | 8.8 | 18.2 | 0.0 |
| | 2021년 | 171 | 19.3 | 12.9 | 53.8 | 9.4 | 4.7 | 0.0 |

| 구분 | | 사례수 | 7. 지역사회 구성원과 상호작용하기 | | | | | |
|---|---|---|---|---|---|---|---|---|
| | | | 없음 | 30분 미만 | 30분~2시간 미만 | 2~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 모름/무응답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41.0 | 4.9 | 31.9 | 13.2 | 6.9 | 2.1 |
| | 2019년 | 152 | 38.8 | 3.9 | 29.6 | 21.1 | 6.6 | 0.0 |
| | 2020년 | 159 | 22.6 | 30.8 | 35.2 | 7.5 | 3.8 | 0.0 |
| | 2021년 | 171 | 20.5 | 18.1 | 42.1 | 10.5 | 8.8 | 0.0 |

| 구분 | | 사례수 | 8. 공공건물과 장소 이용하기 | | | | | |
|---|---|---|---|---|---|---|---|---|
| | | | 없음 | 30분 미만 | 30분~2시간 미만 | 2~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 모름/무응답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37.5 | 6.3 | 35.4 | 12.5 | 6.3 | 2.1 |
| | 2019년 | 152 | 29.6 | 3.3 | 35.5 | 23.7 | 7.9 | 0.0 |
| | 2020년 | 159 | 21.4 | 8.2 | 42.8 | 11.9 | 15.7 | 0.0 |
| | 2021년 | 171 | 17.0 | 15.2 | 50.3 | 10.5 | 7.0 | 0.0 |

| 구분 | | 사례수 | 9. 자기관리 전략 배우기 | | | | | |
|---|---|---|---|---|---|---|---|---|
| | | | 없음 | 30분 미만 | 30분~2시간 미만 | 2~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 모름/무응답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43.1 | 4.9 | 34.0 | 11.8 | 4.2 | 2.1 |
| | 2019년 | 152 | 43.4 | 3.3 | 27.6 | 15.1 | 10.5 | 0.0 |
| | 2020년 | 159 | 25.8 | 20.8 | 17.6 | 17.6 | 18.2 | 0.0 |
| | 2021년 | 171 | 18.7 | 14.6 | 46.8 | 11.7 | 8.2 | 0.0 |

〈표 4-173〉 필요한 일일 지원 시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1. 지역사회에서 장소 이동하기(교통) | | | | |
|---|---|---|---|---|---|---|---|
| | | | 없음 | 30분 미만 | 30분~2시간 미만 | 2~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
| 전체 | | 171 | 23.4 | 18.1 | 43.9 | 9.4 | 5.3 |
| 성별 | 남성 | 105 | 23.8 | 16.2 | 45.7 | 9.5 | 4.8 |
| | 여성 | 66 | 22.7 | 21.2 | 40.9 | 9.1 | 6.1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10.3 | 19.0 | 50.0 | 10.3 | 10.3 |
| | 정신적장애 | 113 | 30.1 | 17.7 | 40.7 | 8.8 | 2.7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22.0 | 17.4 | 46.8 | 10.1 | 3.7 |
| | 퇴거자 | 62 | 25.8 | 19.4 | 38.7 | 8.1 | 8.1 |

| 구분 | | 사례수 | 2. 지역사회에서 레크리에이션/여가 활동 참여하기 | | | | |
|---|---|---|---|---|---|---|---|
| | | | 없음 | 30분 미만 | 30분~2시간 미만 | 2~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
| 전체 | | 171 | 20.5 | 16.4 | 43.9 | 10.5 | 8.8 |
| 성별 | 남성 | 105 | 18.1 | 19.0 | 42.9 | 11.4 | 8.6 |
| | 여성 | 66 | 24.2 | 12.1 | 45.5 | 9.1 | 9.1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19.0 | 24.1 | 37.9 | 8.6 | 10.3 |
| | 정신적장애 | 113 | 21.2 | 12.4 | 46.9 | 11.5 | 8.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15.6 | 16.5 | 48.6 | 11.9 | 7.3 |
| | 퇴거자 | 62 | 29.0 | 16.1 | 35.5 | 8.1 | 11.3 |

| 구분 | | 사례수 | 3. 지역사회에서 공공서비스 이용하기 | | | | |
|---|---|---|---|---|---|---|---|
| | | | 없음 | 30분 미만 | 30분~2시간 미만 | 2~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
| 전체 | | 171 | 18.1 | 22.8 | 46.8 | 7.6 | 4.7 |
| 성별 | 남성 | 105 | 16.2 | 26.7 | 42.9 | 9.5 | 4.8 |
| | 여성 | 66 | 21.2 | 16.7 | 53.0 | 4.5 | 4.5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10.3 | 32.8 | 39.7 | 8.6 | 8.6 |
| | 정신적장애 | 113 | 22.1 | 17.7 | 50.4 | 7.1 | 2.7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15.6 | 19.3 | 54.1 | 9.2 | 1.8 |
| | 퇴거자 | 62 | 22.6 | 29.0 | 33.9 | 4.8 | 9.7 |

| 구분 | | 사례수 | 4. 친구와 가족 방문하기 | | | | |
|---|---|---|---|---|---|---|---|
| | | | 없음 | 30분 미만 | 30분~2시간 미만 | 2~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
| 전체 | | 171 | 30.4 | 18.7 | 29.2 | 13.5 | 8.2 |
| 성별 | 남성 | 105 | 28.6 | 21.9 | 24.8 | 14.3 | 10.5 |
| | 여성 | 66 | 33.3 | 13.6 | 36.4 | 12.1 | 4.5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24.1 | 27.6 | 29.3 | 6.9 | 12.1 |
| | 정신적장애 | 113 | 33.6 | 14.2 | 29.2 | 16.8 | 6.2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29.4 | 16.5 | 33.9 | 14.7 | 5.5 |
| | 퇴거자 | 62 | 32.3 | 22.6 | 21.0 | 11.3 | 12.9 |

| 구분 | | 사례수 | 5. 좋아하는 지역사회 활동 | | | | |
|---|---|---|---|---|---|---|---|
| | | | 없음 | 30분 미만 | 30분~2시간 미만 | 2~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
| 전체 | | 171 | 31.0 | 15.2 | 36.3 | 12.3 | 5.3 |
| 성별 | 남성 | 105 | 26.7 | 16.2 | 38.1 | 13.3 | 5.7 |
| | 여성 | 66 | 37.9 | 13.6 | 33.3 | 10.6 | 4.5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29.3 | 17.2 | 36.2 | 8.6 | 8.6 |
| | 정신적장애 | 113 | 31.9 | 14.2 | 36.3 | 14.2 | 3.5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25.7 | 17.4 | 40.4 | 12.8 | 3.7 |
| | 퇴거자 | 62 | 40.3 | 11.3 | 29.0 | 11.3 | 8.1 |

| 구분 | | 사례수 | 6. 물건과 서비스 쇼핑하고 구입하기 | | | | |
|---|---|---|---|---|---|---|---|
| | | | 없음 | 30분 미만 | 30분~2시간 미만 | 2~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
| 전체 | | 171 | 19.3 | 12.9 | 53.8 | 9.4 | 4.7 |
| 성별 | 남성 | 105 | 18.1 | 14.3 | 50.5 | 12.4 | 4.8 |
| | 여성 | 66 | 21.2 | 10.6 | 59.1 | 4.5 | 4.5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10.3 | 20.7 | 48.3 | 12.1 | 8.6 |
| | 정신적장애 | 113 | 23.9 | 8.8 | 56.6 | 8.0 | 2.7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14.7 | 13.8 | 60.6 | 8.3 | 2.8 |
| | 퇴거자 | 62 | 27.4 | 11.3 | 41.9 | 11.3 | 8.1 |

| 구분 | | 사례수 | 7. 지역사회 구성원과 상호작용하기 | | | | |
|---|---|---|---|---|---|---|---|
| | | | 없음 | 30분 미만 | 30분~ 2시간 미만 | 2~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
| 전체 | | 171 | 20.5 | 18.1 | 42.1 | 10.5 | 8.8 |
| 성별 | 남성 | 105 | 15.2 | 21.0 | 41.9 | 10.5 | 11.4 |
| | 여성 | 66 | 28.8 | 13.6 | 42.4 | 10.6 | 4.5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15.5 | 22.4 | 39.7 | 8.6 | 13.8 |
| | 정신적장애 | 113 | 23.0 | 15.9 | 43.4 | 11.5 | 6.2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17.4 | 17.4 | 47.7 | 11.0 | 6.4 |
| | 퇴거자 | 62 | 25.8 | 19.4 | 32.3 | 9.7 | 12.9 |

| 구분 | | 사례수 | 8. 공공건물과 장소 이용하기 | | | | |
|---|---|---|---|---|---|---|---|
| | | | 없음 | 30분 미만 | 30분~ 2시간 미만 | 2~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
| 전체 | | 171 | 17.0 | 15.2 | 50.3 | 10.5 | 7.0 |
| 성별 | 남성 | 105 | 15.2 | 15.2 | 49.5 | 13.3 | 6.7 |
| | 여성 | 66 | 19.7 | 15.2 | 51.5 | 6.1 | 7.6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10.3 | 17.2 | 55.2 | 6.9 | 10.3 |
| | 정신적장애 | 113 | 20.4 | 14.2 | 47.8 | 12.4 | 5.3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15.6 | 12.8 | 54.1 | 13.8 | 3.7 |
| | 퇴거자 | 62 | 19.4 | 19.4 | 43.5 | 4.8 | 12.9 |

| 구분 | | 사례수 | 9. 자기관리 전략 배우기 | | | | |
|---|---|---|---|---|---|---|---|
| | | | 없음 | 30분 미만 | 30분~ 2시간 미만 | 2~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
| 전체 | | 171 | 18.7 | 14.6 | 46.8 | 11.7 | 8.2 |
| 성별 | 남성 | 105 | 16.2 | 17.1 | 47.6 | 10.5 | 8.6 |
| | 여성 | 66 | 22.7 | 10.6 | 45.5 | 13.6 | 7.6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20.7 | 20.7 | 41.4 | 8.6 | 8.6 |
| | 정신적장애 | 113 | 17.7 | 11.5 | 49.6 | 13.3 | 8.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14.7 | 14.7 | 48.6 | 13.8 | 8.3 |
| | 퇴거자 | 62 | 25.8 | 14.5 | 43.5 | 8.1 | 8.1 |

### (3) 필요한 지원 유형

주요 생활 영역별로 필요한 지원 유형을 조사한 결과, '좋아하는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기'(31.0%), '친구와 가족 방문하기'(30.4%), '지역사회에서 장소 이동하기(교통)'(23.4%)가 필요한 지원 유형 '없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없음'을 제외하고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에서 장소 이동하기(교통)의 경우 '전체 신체 지원'(31.6%), '부분 신체 지원'(21.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35.2%),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58.6%),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퇴거자(38.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에서 레크리에이션/여가 활동 참여하기의 경우 '부분 신체 지원'(25.7%), '전체 신체 지원'(20.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분 신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28.6%),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32.8%),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퇴거자(27.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에서 공공서비스 이용하기 항목의 경우 '부분 신체 지원'(29.2%), '전체 신체 지원'(26.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부분 신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성별로 여성(33.3%),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31.0%),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30.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친구와 가족 방문하기 항목의 경우 '전체 신체 지원'(21.6%), '부분 신체 지원'(19.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신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23.8%),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41.4%),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퇴거자(24.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좋아하는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기의 경우 '부분 신체 지원'(22.8%), '전체 신체 지원'(19.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분 신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23.8%), 장애유형별로 정신적 장애(23.9%),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23.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물건과 서비스 쇼핑하고 구입하기의 경우 '전체 신체 지원'(26.9%), '부분 신체 지원'(23.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30.5%),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46.6%),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퇴거자(29.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 구성원과 상호작용하기의 경우 '언어/몸짓'과 '부분 신체 지원'이 각 22.8%로 높게 나타났으며, 언어/몸짓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성별로 여성(30.3%), 장

애유형별로 정신적 장애(31.9%),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28.4%)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분 신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26.7%),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32.8%),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퇴거자(27.4%)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공공건물과 장소 이용하기 항목의 경우 '부분 신체 지원'(27.5%), '전체 신체 지원'(22.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분 신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28.6%),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39.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기관리 전략 배우기 항목의 경우 '부분 신체 지원'(29.2%), '언어/몸짓'(19.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분 신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성별로 여성(30.3%),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31.0%),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31.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표 4-174〉 필요한 지원 유형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1. 지역사회에서 장소 이동하기(교통) | | | | | |
|---|---|---|---|---|---|---|---|---|
| | | | 없음 | 점검 | 언어/몸짓 | 부분신체 지원 | 전체신체 지원 | 모름/무응답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39.6 | 9.7 | 7.6 | 15.3 | 25.0 | 2.8 |
| | 2019년 | 152 | 22.4 | 11.2 | 5.9 | 21.7 | 38.8 | 0.0 |
| | 2020년 | 159 | 30.8 | 35.2 | 19.5 | 8.8 | 5.7 | 0.0 |
| | 2021년 | 171 | 23.4 | 8.8 | 14.6 | 21.6 | 31.6 | 0.0 |

| 구분 | | 사례수 | 2. 지역사회에서 레크리에이션/여가 활동 참여하기 | | | | | |
|---|---|---|---|---|---|---|---|---|
| | | | 없음 | 점검 | 언어/몸짓 | 부분신체 지원 | 전체신체 지원 | 모름/무응답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47.2 | 9.0 | 5.6 | 19.4 | 15.3 | 3.5 |
| | 2019년 | 152 | 28.3 | 9.9 | 9.9 | 18.4 | 33.6 | 0.0 |
| | 2020년 | 159 | 28.9 | 16.4 | 29.6 | 8.2 | 17.0 | 0.0 |
| | 2021년 | 171 | 20.5 | 14.0 | 19.3 | 25.7 | 20.5 | 0.0 |

| 구분 | | 사례수 | 3. 지역사회에서 공공서비스 이용하기 | | | | | |
|---|---|---|---|---|---|---|---|---|
| | | | 없음 | 점검 | 언어/몸짓 | 부분신체 지원 | 전체신체 지원 | 모름/무응답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44.4 | 6.9 | 8.3 | 16.0 | 20.8 | 3.5 |
| | 2019년 | 152 | 30.3 | 9.9 | 11.8 | 13.8 | 34.2 | 0.0 |
| | 2020년 | 159 | 35.2 | 19.5 | 17.0 | 11.3 | 17.0 | 0.0 |
| | 2021년 | 171 | 18.1 | 10.5 | 15.2 | 29.2 | 26.9 | 0.0 |

| 구분 | | 사례수 | 4. 친구와 가족 방문하기 | | | | | |
|---|---|---|---|---|---|---|---|---|
| | | | 없음 | 점검 | 언어/몸짓 | 부분신체 지원 | 전체신체 지원 | 모름/무응답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57.6 | 4.2 | 5.6 | 11.8 | 18.1 | 2.8 |
| | 2019년 | 152 | 42.1 | 5.9 | 9.2 | 17.1 | 25.7 | 0.0 |
| | 2020년 | 159 | 22.6 | 39.0 | 24.5 | 9.4 | 4.4 | 0.0 |
| | 2021년 | 171 | 30.4 | 12.9 | 15.2 | 19.9 | 21.6 | 0.0 |

| 구분 | | 사례수 | 5. 좋아하는 지역사회 참여하기 | | | | | |
|---|---|---|---|---|---|---|---|---|
| | | | 없음 | 점검 | 언어/몸짓 | 부분신체 지원 | 전체신체 지원 | 모름/무응답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48.6 | 9.0 | 5.6 | 15.3 | 18.1 | 3.5 |
| | 2019년 | 152 | 40.1 | 7.9 | 5.9 | 16.4 | 29.6 | 0.0 |
| | 2020년 | 159 | 22.0 | 13.8 | 39.6 | 9.4 | 15.1 | 0.0 |
| | 2021년 | 171 | 31.0 | 11.1 | 15.2 | 22.8 | 19.9 | 0.0 |

| 구분 | | 사례수 | 6. 물건과 서비스 쇼핑하고 구입하기 | | | | | |
|---|---|---|---|---|---|---|---|---|
| | | | 없음 | 점검 | 언어/몸짓 | 부분신체 지원 | 전체신체 지원 | 모름/무응답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39.6 | 9.7 | 10.4 | 17.4 | 20.1 | 2.8 |
| | 2019년 | 152 | 19.7 | 11.2 | 9.9 | 21.1 | 38.2 | 0.0 |
| | 2020년 | 159 | 28.9 | 20.1 | 18.2 | 12.6 | 20.1 | 0.0 |
| | 2021년 | 171 | 19.3 | 12.9 | 17.5 | 23.4 | 26.9 | 0.0 |

| 구분 | | 사례수 | 7. 지역사회 구성원과 상호작용하기 | | | | | |
|---|---|---|---|---|---|---|---|---|
| | | | 없음 | 점검 | 언어/몸짓 | 부분신체 지원 | 전체신체 지원 | 모름/무응답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47.9 | 11.1 | 6.3 | 11.8 | 19.4 | 3.5 |
| | 2019년 | 152 | 38.8 | 7.9 | 7.2 | 17.1 | 28.9 | 0.0 |
| | 2020년 | 159 | 28.3 | 29.6 | 25.2 | 11.9 | 5.0 | 0.0 |
| | 2021년 | 171 | 20.5 | 12.3 | 22.8 | 22.8 | 21.6 | 0.0 |

| 구분 | | 사례수 | 8. 공공건물과 장소 이용하기 | | | | | |
|---|---|---|---|---|---|---|---|---|
| | | | 없음 | 점검 | 언어/몸짓 | 부분신체 지원 | 전체신체 지원 | 모름/무응답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46.5 | 7.6 | 6.9 | 14.6 | 21.5 | 2.8 |
| | 2019년 | 152 | 28.9 | 7.9 | 11.2 | 19.1 | 32.9 | 0.0 |
| | 2020년 | 159 | 26.4 | 15.7 | 32.7 | 6.9 | 18.2 | 0.0 |
| | 2021년 | 171 | 17.0 | 10.5 | 22.2 | 27.5 | 22.8 | 0.0 |

| 구분 | | 사례수 | 9. 자기관리 전략 배우기 | | | | | |
|---|---|---|---|---|---|---|---|---|
| | | | 없음 | 점검 | 언어/몸짓 | 부분신체 지원 | 전체신체 지원 | 모름/무응답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47.9 | 11.8 | 8.3 | 12.5 | 16.0 | 3.5 |
| | 2019년 | 152 | 44.1 | 7.9 | 10.5 | 15.8 | 21.7 | 0.0 |
| | 2020년 | 159 | 30.8 | 24.5 | 15.1 | 12.6 | 17.0 | 0.0 |
| | 2021년 | 171 | 18.7 | 12.9 | 19.9 | 29.2 | 19.3 | 0.0 |

〈표 4-175〉 필요한 지원 유형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1. 지역사회에서 장소 이동하기(교통) | | | | |
|---|---|---|---|---|---|---|---|
| | | | 없음 | 점검 | 언어/몸짓 | 부분신체지원 | 전체신체지원 |
| 전체 | | 171 | 23.4 | 8.8 | 14.6 | 21.6 | 31.6 |
| 성별 | 남성 | 105 | 23.8 | 9.5 | 11.4 | 20.0 | 35.2 |
| | 여성 | 66 | 22.7 | 7.6 | 19.7 | 24.2 | 25.8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10.3 | 3.4 | 5.2 | 22.4 | 58.6 |
| | 정신적장애 | 113 | 30.1 | 11.5 | 19.5 | 21.2 | 17.7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22.0 | 9.2 | 19.3 | 22.0 | 27.5 |
| | 퇴거자 | 62 | 25.8 | 8.1 | 6.5 | 21.0 | 38.7 |

| 구분 | | 사례수 | 2. 지역사회에서 레크리에이션/여가 활동 참여하기 | | | | |
|---|---|---|---|---|---|---|---|
| | | | 없음 | 점검 | 언어/몸짓 | 부분신체지원 | 전체신체지원 |
| 전체 | | 171 | 20.5 | 14.0 | 19.3 | 25.7 | 20.5 |
| 성별 | 남성 | 105 | 18.1 | 14.3 | 18.1 | 28.6 | 21.0 |
| | 여성 | 66 | 24.2 | 13.6 | 21.2 | 21.2 | 19.7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19.0 | 3.4 | 5.2 | 32.8 | 39.7 |
| | 정신적장애 | 113 | 21.2 | 19.5 | 26.5 | 22.1 | 10.6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15.6 | 16.5 | 24.8 | 24.8 | 18.3 |
| | 퇴거자 | 62 | 29.0 | 9.7 | 9.7 | 27.4 | 24.2 |

| 구분 | | 사례수 | 3. 지역사회에서 공공서비스 이용하기 | | | | |
|---|---|---|---|---|---|---|---|
| | | | 없음 | 점검 | 언어/몸짓 | 부분신체지원 | 전체신체지원 |
| 전체 | | 171 | 18.1 | 10.5 | 15.2 | 29.2 | 26.9 |
| 성별 | 남성 | 105 | 16.2 | 13.3 | 15.2 | 26.7 | 28.6 |
| | 여성 | 66 | 21.2 | 6.1 | 15.2 | 33.3 | 24.2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10.3 | 6.9 | 3.4 | 31.0 | 48.3 |
| | 정신적장애 | 113 | 22.1 | 12.4 | 21.2 | 28.3 | 15.9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15.6 | 9.2 | 21.1 | 30.3 | 23.9 |
| | 퇴거자 | 62 | 22.6 | 12.9 | 4.8 | 27.4 | 32.3 |

| 구분 | | 사례수 | 4. 친구와 가족 방문하기 | | | | |
|---|---|---|---|---|---|---|---|
| | | | 없음 | 점검 | 언어/몸짓 | 부분신체지원 | 전체신체지원 |
| 전체 | | 171 | 30.4 | 12.9 | 15.2 | 19.9 | 21.6 |
| 성별 | 남성 | 105 | 28.6 | 14.3 | 15.2 | 18.1 | 23.8 |
| | 여성 | 66 | 33.3 | 10.6 | 15.2 | 22.7 | 18.2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24.1 | 6.9 | 5.2 | 22.4 | 41.4 |
| | 정신적장애 | 113 | 33.6 | 15.9 | 20.4 | 18.6 | 11.5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29.4 | 12.8 | 18.3 | 19.3 | 20.2 |
| | 퇴거자 | 62 | 32.3 | 12.9 | 9.7 | 21.0 | 24.2 |

| 구분 | | 사례수 | 5. 좋아하는 지역사회 활동 | | | | |
|---|---|---|---|---|---|---|---|
| | | | 없음 | 점검 | 언어/몸짓 | 부분신체지원 | 전체신체지원 |
| 전체 | | 171 | 31.0 | 11.1 | 15.2 | 22.8 | 19.9 |
| 성별 | 남성 | 105 | 26.7 | 12.4 | 14.3 | 23.8 | 22.9 |
| | 여성 | 66 | 37.9 | 9.1 | 16.7 | 21.2 | 15.2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29.3 | 8.6 | 1.7 | 20.7 | 39.7 |
| | 정신적장애 | 113 | 31.9 | 12.4 | 22.1 | 23.9 | 9.7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25.7 | 13.8 | 18.3 | 23.9 | 18.3 |
| | 퇴거자 | 62 | 40.3 | 6.5 | 9.7 | 21.0 | 22.6 |

| 구분 | | 사례수 | 6. 물건과 서비스 쇼핑하고 구입하기 | | | | |
|---|---|---|---|---|---|---|---|
| | | | 없음 | 점검 | 언어/몸짓 | 부분신체지원 | 전체신체지원 |
| 전체 | | 171 | 19.3 | 12.9 | 17.5 | 23.4 | 26.9 |
| 성별 | 남성 | 105 | 18.1 | 13.3 | 14.3 | 23.8 | 30.5 |
| | 여성 | 66 | 21.2 | 12.1 | 22.7 | 22.7 | 21.2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10.3 | 5.2 | 3.4 | 34.5 | 46.6 |
| | 정신적장애 | 113 | 23.9 | 16.8 | 24.8 | 17.7 | 16.8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14.7 | 15.6 | 22.9 | 21.1 | 25.7 |
| | 퇴거자 | 62 | 27.4 | 8.1 | 8.1 | 27.4 | 29.0 |

| 구분 | | 사례수 | 7. 지역사회 구성원과 상호작용하기 | | | | |
|---|---|---|---|---|---|---|---|
| | | | 없음 | 점검 | 언어/몸짓 | 부분신체지원 | 전체신체지원 |
| 전체 | | 171 | 20.5 | 12.3 | 22.8 | 22.8 | 21.6 |
| 성별 | 남성 | 105 | 15.2 | 16.2 | 18.1 | 26.7 | 23.8 |
| | 여성 | 66 | 28.8 | 6.1 | 30.3 | 16.7 | 18.2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15.5 | 6.9 | 5.2 | 32.8 | 39.7 |
| | 정신적장애 | 113 | 23.0 | 15.0 | 31.9 | 17.7 | 12.4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17.4 | 12.8 | 28.4 | 20.2 | 21.1 |
| | 퇴거자 | 62 | 25.8 | 11.3 | 12.9 | 27.4 | 22.6 |

| 구분 | | 사례수 | 8. 공공건물과 장소 이용하기 | | | | |
|---|---|---|---|---|---|---|---|
| | | | 없음 | 점검 | 언어/몸짓 | 부분신체지원 | 전체신체지원 |
| 전체 | | 171 | 17.0 | 10.5 | 22.2 | 27.5 | 22.8 |
| 성별 | 남성 | 105 | 15.2 | 13.3 | 19.0 | 28.6 | 23.8 |
| | 여성 | 66 | 19.7 | 6.1 | 27.3 | 25.8 | 21.2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10.3 | 5.2 | 5.2 | 39.7 | 39.7 |
| | 정신적장애 | 113 | 20.4 | 13.3 | 31.0 | 21.2 | 14.2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15.6 | 8.3 | 26.6 | 27.5 | 22.0 |
| | 퇴거자 | 62 | 19.4 | 14.5 | 14.5 | 27.4 | 24.2 |

| 구분 | | 사례수 | 9. 자기관리 전략 배우기 | | | | |
|---|---|---|---|---|---|---|---|
| | | | 없음 | 점검 | 언어/몸짓 | 부분신체지원 | 전체신체지원 |
| 전체 | | 171 | 18.7 | 12.9 | 19.9 | 29.2 | 19.3 |
| 성별 | 남성 | 105 | 16.2 | 16.2 | 20.0 | 28.6 | 19.0 |
| | 여성 | 66 | 22.7 | 7.6 | 19.7 | 30.3 | 19.7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20.7 | 8.6 | 6.9 | 31.0 | 32.8 |
| | 정신적장애 | 113 | 17.7 | 15.0 | 26.5 | 28.3 | 12.4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14.7 | 11.0 | 23.9 | 31.2 | 19.3 |
| | 퇴거자 | 62 | 25.8 | 16.1 | 12.9 | 25.8 | 19.4 |

### 4) 일상생활 소결

응답자 중 93.9%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 하였고, 69.7%는 전반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일상생활 유형 중 도움이 필요한 부문은 전체적으로 '식사(76.8%)', '집안청소 및 관리(68.7%)'로 나타났으나, 이는 장애유형,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에 따라 필요로 하는 도움 항목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신체적 장애' 와 '정신적 장애'의 도움 필요 부문에 대한 차이가 큰 항목은 '세면 및 개인위생관리', '이동', '집안청소 및 관리', '건강관리', '학습활동', '금전관리', '식사', '옷 입고 벗기'로 나타났다. 이 중 '세면 및 개인위생관리', '이동', '집안청소 및 관리', '식사', '옷 입고 벗기'[35]와 같이 신체적 활동이 요구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신체적 장애'의 도움에 대한 수요가 높고, '건강관리', '학습활동', '금전관리' 항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정신적 장애'의 도움 필요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36].

'퇴거자'와 '이용자 등'간 응답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항목은 '건강관리', '학습활동', '금전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이용자 등'(각각 66.0%, 66.0%, 74.0%)이 '퇴거자'(각각 44.9%, 34.7%, 40.8%)에 비해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시간(하루기준)은 '신체적 장애'(평균 약 13시간 이상(801.4분))가 '정신적 장애'(평균 약 7시간 이상(424.4분))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개월 동안의 외출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거의 매일' 외출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1년 49.7%로 2020년 29.6%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으나, 2019년 69.1%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다. 또한 '거의 외출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021년 12.9%로 2020년 20.8%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2019년 1.3%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특히 '신체적 장애'와 '퇴거자'의 '거의 외출하지 않음'의 비율이 각각 24.1%, 19.4%로 전체 평균(12.9%)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84.2%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자 중 89.5%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이용자 중 52.1%가 현재 지원받고 있는 서

35) 세면 및 개인위생관리(신체적 장애: 59.1%, 정신적 장애: 36.4%), 이동(신체적 장애: 63.6%, 정신적 장애 52.7%), 집안청소 및 관리(신체적 장애: 79.5%, 정신적 장애: 60.0%), 식사(신체적 장애: 90.9%, 정신적 장애: 65.5%), 옷 입고 벗기(신체적 장애: 63.6%, 정신적 장애: 41.8%)

36) 건강관리(신체적 장애: 47.7%, 정신적 장애: 61.8%), 학습활동(신체적 장애 36.4%, 정신적 장애 61.8%), 금전관리(신체적 장애 40.9%, 정신적 장애 70.9%)

비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월평균 134.1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정신적 장애'의 경우 '충분하지 않다'라는 비율이 55.9%, 추가 필요시간이 월 평균 154.7시간으로 '신체적 장애'(비율 45.1%, 시간 87.7시간)에 비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양에 대한 불만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립생활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주거지원(36.3%)', '일상생활 활동지원(19.3%)', '직업재활/취업(1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가장 걱정되는 부문과 유사한데, '일상생활 지원'(22.8%), '주거'(21.1%), '건강악화'(18.7%), '장래재정'(12.3%) 순이다.

'이용자'의 경우 '주거'에 대한 걱정의 비율(24.8%)이 높고, 주거를 위한 미래 준비 정도가 미비하다는 응답률(69.7%)이 높게 나타났다. '퇴거자'의 경우 '건강악화'와 '장래재정'에 대한 걱정의 비율이 각각 29.0%, 22.6%로 높고, 미래 준비 정도가 미비하다는 비율 또한 각각 72.6%, 71.0%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지원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지역사회에서 장소 이동하기(교통)'(29.8%), '물건과 서비스 쇼핑하고 구입하기'(16.4%), '자기관리 전략 배우기'(16.4%)의 경우 지원 빈도에 대해 '1일 1회 이상(1시간 1회 이상 포함)'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친구와 가족 방문하기'(21.7%), '자기관리 전략 배우기'(19.9%), '지역사회에서 레크리에이션/여가 활동 참여하기'(19.3%), '지역사회 구성원과 상호작용하기'(19.3%)의 경우 지원 시간에 대해 '1일 2시간 이상(2~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포함)'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활동에 필요한 지원 빈도는 낮은 편이나, 지원 시간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37].

주요생활의 필요한 지원 유형은 장애 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신체적 장애'의 경우 '부분신체지원'과 '전체신체지원'의 비율이 높으며, '정신적 장애'는 '점검'과 '언어/몸짓'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7) 특히 '친구와 가족 방문하기'의 경우 지원 빈도가 '월 1회 미만'의 응답 비율이 62.6%인 반면, 지원 시간은 '1일 2시간 이상(2~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포함)'의 응답 비율은 21.7%로 다른 유형 보다 높게 나타남

## 9 여가활동

### 1) 참여한 여가활동 유형 및 시간

지난 1개월 동안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텔레비전 보기'가 4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컴퓨터 또는 인터넷'(18.7%),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여가 활동'(11.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비교 결과, 여가활동 유형 중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여가활동'의 비율이 전년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텔레비전 보기'는 전년도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활동시간 기준으로는 '라디오 듣기'가 330.0분으로 가장 길었고, 다음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여가 활동'(260.5분), '텔레비전 보기'(253.5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남성의 경우 '텔레비전 보기'(41.0%), '컴퓨터 또는 인터넷'(25.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텔레비전 보기'(39.4%),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여가 활동'(18.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의 경우 '텔레비전 보기'(43.1%), '컴퓨터 또는 인터넷'(20.7%)으로 조사되었으며, 정신적 장애의 경우 '텔레비전 보기' (38.9%), '컴퓨터 또는 인터넷'(17.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의 경우 '텔레비전 보기'(35.8%), '컴퓨터 또는 인터넷'(17.4%) 순으로 나타났으며, 퇴거자의 경우 '텔레비전 보기'(48.4%), '컴퓨터 또는 인터넷'(21.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76〉 지난 1개월간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1순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텔레비전 보기 | 컴퓨터 또는 인터넷 |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여가활동 | 영화, 연극, 연주회 관람 | 집주변 산책 | 독서, 학습 | 예술활동 | 운동하기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41.0 | 16.0 | 1.4 | 6.3 | 4.9 | 2.8 | 6.9 | 4.9 |
| | 2019년 | 152 | 32.9 | 19.1 | 2.6 | 6.6 | 4.6 | 3.9 | 2.0 | 9.2 |
| | 2020년 | 159 | 55.3 | 18.2 | 3.1 | 3.1 | 2.5 | 1.3 | 3.1 | 1.9 |
| | 2021년 | 171 | 40.4 | 18.7 | 11.1 | 6.4 | 5.3 | 4.1 | 3.5 | 2.3 |

| 구분 | | 사례수 | 종교활동 | 라디오 듣기 | 휴식 | 자원봉사 활동 | 친구 및 가족 모임 | 동/식물 기르기 | 없음 | 기타*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2.8 | 2.1 | 2.1 | 0.0 | 2.8 | 0.7 | 2.1 | 3.5 |
| | 2019년 | 152 | 3.3 | 2.0 | 2.0 | 0.0 | 7.2 | 0.0 | 0.0 | 4.6 |
| | 2020년 | 159 | 0.6 | 2.5 | 3.8 | 0.0 | 0.6 | 2.5 | 0.6 | 0.6 |
| | 2021년 | 171 | 2.3 | 1.8 | 1.8 | 0.6 | 0.0 | 0.0 | 0.6 | 1.2 |

*기타에는 '퍼즐', '쇼핑', '경치구경', '야구장 관람' 등이 있음.

〈표 4-177〉 지난 1개월간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평균시간(분) - 연도별

(단위:분)

| 구분 | | 사례수 | 텔레비전 보기 | 컴퓨터 또는 인터넷 |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여가활동 | 영화, 연극, 연주회 관람 | 집주변 산책 | 독서, 학습 | 예술활동 | 운동하기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298.5 | 262.2 | 210.0 | 240.0 | 317.1 | 270.0 | 223.3 | 297.0 |
| | 2019년 | 152 | 269.7 | 230.2 | 190.0 | 154.7 | 229.3 | 225.0 | 272.3 | 168.6 |
| | 2020년 | 159 | 312.6 | 267.9 | 240.0 | 132.0 | 97.5 | 150.0 | 90.0 | 110.0 |
| | 2021년 | 171 | 253.5 | 158.4 | 260.5 | 114.5 | 76.7 | 98.6 | 95.0 | 60.0 |

| 구분 | | 사례수 | 종교활동 | 라디오 듣기 | 휴식 | 자원봉사 활동 | 친구 및 가족 모임 | 동/식물 기르기 | 없음 | 기타*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210.0 | 600.0 | 600.0 | - | 186.7 | - | - | 246.1 |
| | 2019년 | 152 | 138.9 | 280.0 | 181.7 | - | 220.0 | - | - | 210.0 |
| | 2020년 | 159 | 180.0 | 315.0 | 195.0 | - | 315.0 | 45.0 | - | 480.0 |
| | 2021년 | 171 | 172.5 | 330.0 | 240.0 | 240.0 | - | - | - | 180.0 |

*기타에는 '퍼즐', '쇼핑', '경치구경', '야구장 관람' 등이 있음.

〈표 4-178〉 지난 1개월간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및 시간 (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분, %)

| 구분 | | 사례수 | 텔레비전 보기 | 컴퓨터 또는 인터넷 |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여가 활동 | 영화, 연극, 연주회 관람 | 집주변 산책 | 독서, 학습 | 예술 활동 | 운동 하기 |
|---|---|---|---|---|---|---|---|---|---|---|
| 전체 | | 171 | 40.4 | 18.7 | 11.1 | 6.4 | 5.3 | 4.1 | 3.5 | 2.3 |
| 평균 활동시간(분) | | 171 | 253.5 | 158.4 | 260.5 | 114.5 | 76.7 | 98.6 | 95.0 | 60.0 |
| 성별 | 남성 | 105 | 41.0 | 25.7 | 6.7 | 5.7 | 4.8 | 3.8 | 1.0 | 2.9 |
| | 여성 | 66 | 39.4 | 7.6 | 18.2 | 7.6 | 6.1 | 4.5 | 7.6 | 1.5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43.1 | 20.7 | 6.9 | 6.9 | 6.9 | 5.2 | 1.7 | 1.7 |
| | 정신적장애 | 113 | 38.9 | 17.7 | 13.3 | 6.2 | 4.4 | 3.5 | 4.4 | 2.7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35.8 | 17.4 | 14.7 | 8.3 | 4.6 | 4.6 | 4.6 | 1.8 |
| | 퇴거자 | 62 | 48.4 | 21.0 | 4.8 | 3.2 | 6.5 | 3.2 | 1.6 | 3.2 |

| 구분 | | 사례수 | 종교 활동 | 라디오 듣기 | 휴식 | 자원봉사 활동 | 없음 | 기타 |
|---|---|---|---|---|---|---|---|---|
| 전체 | | 171 | 2.3 | 1.8 | 1.8 | 0.6 | 0.6 | 1.2 |
| 평균 활동시간(분) | | 171 | 172.5 | 330.0 | 240.0 | 240.0 | - | 180.0 |
| 성별 | 남성 | 105 | 2.9 | 0.0 | 1.9 | 1.0 | 1.0 | 1.9 |
| | 여성 | 66 | 1.5 | 4.5 | 1.5 | 0.0 | 0.0 | 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3.4 | 1.7 | 0.0 | 0.0 | 1.7 | 0.0 |
| | 정신적장애 | 113 | 1.8 | 1.8 | 2.7 | 0.9 | 0.0 | 1.8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2.8 | 2.8 | 0.9 | 0.0 | 0.0 | 1.8 |
| | 퇴거자 | 62 | 1.6 | 0.0 | 3.2 | 1.6 | 1.6 | 0.0 |

*기타에는 '퍼즐', '쇼핑', '경치구경', '야구장 관람' 등이 있음.

## 2) 여가활동 만족도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여가활동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함)는 의견이 89.8%로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만족한다'는 비율은 전년도(80.5%) 대비 9.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9〉 여가활동 만족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전혀 만족하지 않음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 만족하는 편이다 | 매우 만족함 | 모름/무응답 | 불만족 | 만족 |
|---|---|---|---|---|---|---|---|---|---|
| 전체 | 2018년 | 111 | 1.8 | 9.0 | 62.2 | 26.1 | 0.9 | 10.8 | 88.3 |
| | 2019년 | 130 | 0.0 | 6.9 | 78.5 | 14.6 | 0.0 | 6.9 | 93.1 |
| | 2020년 | 113 | 6.2 | 13.3 | 69.0 | 11.5 | 0.0 | 19.5 | 80.5 |
| | 2021년 | 98 | 2.0 | 8.2 | 80.6 | 9.2 | 0.0 | 10.2 | 89.8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여가활동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 90.3%, 여성 88.9%로 나타났으며,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 83.7%, 정신적 장애 94.5%,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 94.0%, 퇴거자 85.4%로 나타났다.

〈표 4-180〉 여가활동 만족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전혀 만족하지 않음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 만족하는 편이다 | 매우 만족함 | 모름/무응답 | 불만족 | 만족 |
|---|---|---|---|---|---|---|---|---|---|
| 전체 | | 98 | 2.0 | 8.2 | 80.6 | 9.2 | 0.0 | 10.2 | 89.8 |
| 성별 | 남성 | 62 | 0.0 | 9.7 | 80.6 | 9.7 | 0.0 | 9.7 | 90.3 |
| | 여성 | 36 | 5.6 | 5.6 | 80.6 | 8.3 | 0.0 | 11.1 | 88.9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43 | 4.7 | 11.6 | 74.4 | 9.3 | 0.0 | 16.3 | 83.7 |
| | 정신적장애 | 55 | 0.0 | 5.5 | 85.5 | 9.1 | 0.0 | 5.5 | 94.5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50 | 0.0 | 6.0 | 80.0 | 14.0 | 0.0 | 6.0 | 94.0 |
| | 퇴거자 | 48 | 4.2 | 10.4 | 81.3 | 4.2 | 0.0 | 14.6 | 85.4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몸이 아프거나 장애로 인해 참여할 수 없어서'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여가 정보 및 프로그램이 부족해서'(3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몸이 아프거나 장애로 인해 참여할 수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0.0%로 전년도(22.7%)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여가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부담스러워서'가 전년도(13.6%)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표 4-181〉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몸이 아프거나 장애로 인해 참여할 수 없어서 | 여가 정보 및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 여가 활동을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 여가활동 장소까지 거리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 | 여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 여가 시설이 좋지 않아서 | 기타 |
|---|---|---|---|---|---|---|---|---|---|
| 해당연도 | 2018년 | 12 | 25.0 | 0.0 | 16.7 | 0.0 | 41.7 | 0.0 | 16.7 |
| | 2019년 | 9 | 44.4 | 11.1 | 33.3 | 0.0 | 11.1 | 0.0 | 0.0 |
| | 2020년 | 22 | 22.7 | 13.6 | 22.7 | 0.0 | 13.6 | 4.5 | 22.7 |
| | 2021년 | 10 | 50.0 | 30.0 | 10.0 | 10.0 | 0.0 | 0.0 | 0.0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몸이 아프거나 장애로 인해 참여할 수 없어서'(50.0%), '여가 정보 및 프로그램이 부족해서'(33.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몸이 아프거나 장애로 인해 참여할 수 없어서'(50.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 정보 및 프로그램이 부족해서'와 '여가활동을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가 각각 25.0%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신체적 장애의 경우 '몸이 아프거나 장애로 인해 참여할 수 없어서'가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의 경우 '여가 정보 및 프로그램이 부족해서'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의 경우 '몸이 아프거나 장애로 인해 참여할 수 없어서', '여가 정보 및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여가활동 장소까지 거리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가 각 33.3%로 나타났으며, 퇴거자의 경우 '몸이 아프거나 장애로 인해 참여할 수 없어서'가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182〉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몸이 아프거나 장애로 인해 참여할 수 없어서 | 여가 정보 및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 여가활동을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 여가활동 장소까지 거리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 |
|---|---|---|---|---|---|---|
| 전체 | | 10 | 50.0 | 30.0 | 10.0 | 10.0 |
| 성별 | 남성 | 6 | 50.0 | 33.3 | 0.0 | 16.7 |
| | 여성 | 4 | 50.0 | 25.0 | 25.0 | 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7 | 57.1 | 14.3 | 14.3 | 14.3 |
| | 정신적장애 | 3 | 33.3 | 66.7 | 0.0 | 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3 | 33.3 | 33.3 | 0.0 | 33.3 |
| | 퇴거자 | 7 | 57.1 | 28.6 | 14.3 | 0.0 |

### 3) 여가활동 동반자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로 누구와 여가활동을 하는지 조사한 결과, 48.8%가 '혼자' 여가활동을 한다고 응답하였고, '활동지원사/시설종사자'(39.4%), '친구/동료'(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활동지원사/시설종사자'라는 응답비율이 전년도(32.9%)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친구/동료'라는 응답은 전년도(13.3%)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표 4-183〉 여가활동 동반자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혼자서 | 활동지원사/시설종사자 | 친구/동료 | 동호회 회원 | 가족 | 기타 |
|---|---|---|---|---|---|---|---|---|
| 해당연도 | 2018년 | 141 | 52.5 | 13.5 | 17.7 | 4.3 | 5.7 | 6.4 |
| | 2019년 | 152 | 65.1 | 8.6 | 19.7 | 3.3 | 3.3 | 0 |
| | 2020년 | 158 | 48.7 | 32.9 | 13.3 | 0.6 | 3.8 | 0.6 |
| | 2021년 | 170 | 48.8 | 39.4 | 9.4 | 1.8 | 0.6 | 0.0 |

성별로 남성의 경우 '혼자서'가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활동지원사/시설종사자'(41.3%), '친구/동료'(9.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혼자서'(53.0%), '활동지원사/시설종사자'(3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장애의 경우 '혼자서'(52.6%), '활동지원사/시설종사자'(36.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의 경우 '혼자서'(46.9%), '활동지원사/시설종사자'(4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은 '혼자서'(45.9%), '활동지원사/시설종사자'(42.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퇴거자의 경우 '혼자서'(54.1%), '활동지원사/시설종사자'(34.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184〉 여가활동 동반자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혼자서 | 활동지원사/시설종사자 | 친구/동료 | 동호회 회원 | 가족 |
|---|---|---|---|---|---|---|---|
| 전체 | | 170 | 48.8 | 39.4 | 9.4 | 1.8 | 0.6 |
| 성별 | 남성 | 104 | 46.2 | 41.3 | 9.6 | 1.9 | 1.0 |
| | 여성 | 66 | 53.0 | 36.4 | 9.1 | 1.5 | 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7 | 52.6 | 36.8 | 8.8 | 1.8 | 0.0 |
| | 정신적장애 | 113 | 46.9 | 40.7 | 9.7 | 1.8 | 0.9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45.9 | 42.2 | 10.1 | 1.8 | 0.0 |
| | 퇴거자 | 61 | 54.1 | 34.4 | 8.2 | 1.6 | 1.6 |

### 4) 여행

전체 응답자의 29.8%는 2020년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전년도(59.7%) 대비 약 29.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5〉 여행 여부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있음 | 없음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70.1 | 29.9 |
| | 2019년 | 152 | 73.0 | 27.0 |
| | 2020년 | 159 | 59.7 | 40.3 |
| | 2021년 | 171 | 29.8 | 70.2 |

성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 여행을 다녀온 비율이 남성 30.5%, 여성 28.8%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의 경우 17.2%, 정신적 장애의 경우 36.3%가 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은 33.9%, 퇴거자는 22.6%가 2020년에 여행을 다녀왔다고 응답하였다.

〈표 4-186〉 여행 여부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있음 | 없음 |
|---|---|---|---|---|
| 전체 | | 171 | 29.8 | 70.2 |
| 성별 | 남성 | 105 | 30.5 | 69.5 |
| | 여성 | 66 | 28.8 | 71.2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17.2 | 82.8 |
| | 정신적장애 | 113 | 36.3 | 63.7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33.9 | 66.1 |
| | 퇴거자 | 62 | 22.6 | 77.4 |

여행 경험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여행 횟수 및 일수를 조사한 결과, 국내 여행의 경우 평균 횟수는 1.9회이고 평균 일수는 3.0일로 나타났으며, 국외 여행을 다녀온 응답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국내 여행 횟수와 일수는 전년도(각각 2.0회, 4.1일) 대비 감소하였다.

〈표 4-187〉 여행횟수 및 일수 - 연도별

(단위: 명, 회, 일)

| 구분 | | 국내여행 | | | 국외여행 | | |
|---|---|---|---|---|---|---|---|
| | | 사례수 | 평균 여행횟수 | 평균 여행일수 | 사례수 | 평균 여행횟수 | 평균 여행일수 |
| 해당연도 | 2018년 | 95 | 2.1 | 4.8 | 8 | 1.0 | 19.1 |
| | 2019년 | 106 | 1.8 | 3.9 | 9 | 1.0 | 6.9 |
| | 2020년 | 92 | 2.0 | 4.1 | 12 | 1.2 | 7.2 |
| | 2021년 | 51 | 1.9 | 3.0 | - | - | - |

〈표 4-188〉 여행횟수 및 일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회, 일)

| 구분 | | 국내여행 | | | 국외여행 | | |
|---|---|---|---|---|---|---|---|
| | | 사례수 | 평균 여행횟수 | 평균 여행일수 | 사례수 | 평균 여행횟수 | 평균 여행일수 |
| 전체 | | 51 | 1.9 | 3.0 | - | - | - |
| 성별 | 남성 | 32 | 2.0 | 3.3 | - | - | - |
| | 여성 | 19 | 1.8 | 2.5 | - | - | -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10 | 1.9 | 2.9 | - | - | - |
| | 정신적장애 | 41 | 1.9 | 3.1 | - | - | -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37 | 1.7 | 2.6 | - | - | - |
| | 퇴거자 | 14 | 2.6 | 4.1 | - | - | - |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 5) 여가활동 소결

지난 1개월 동안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은 '텔레비전 보기'(40.4%), '컴퓨터 또는 인터넷'(18.7%),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여가 활동'(11.1%) 등 실내에서 하거나, 개인이 할 수 있는 유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38]. 반면, 영화, 연극, 연주회 관람(6.4%), 집주변 산책(5.3%), 운동하기(2.3%), 종교활동(2.3%) 등 실외에서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유형의 여가활동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 중 89.8%는 참여한 여가활동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퇴거자'의 경우 여가활동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4.6%로 '이용자 등'(6.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38)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48.8%는 혼자서 여가활동을 한다고 응답함

## 10 평생교육

### 1) 평생교육 참여 여부 및 비 참여 이유

평생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7%로, 전년도(28.9%) 대비 0.2%p 소폭 감소하였다.

〈표 4-189〉 평생교육 참여 경험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참여한 적 있음 | 참여한 적 없음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21.5 | 78.5 |
| | 2019년 | 152 | 39.5 | 60.5 |
| | 2020년 | 159 | 28.9 | 71.1 |
| | 2021년 | 171 | 28.7 | 71.3 |

평생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33.3%), 정신적 장애(29.2%), '이용자 등'(32.1%)가 각각 남성(25.7%), 신체적 장애(27.6%), 퇴거자(22.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90〉 평생교육 참여 경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참여한 적 있음 | 참여한 적 없음 |
|---|---|---|---|---|
| 전체 | | 171 | 28.7 | 71.3 |
| 성별 | 남성 | 105 | 25.7 | 74.3 |
| | 여성 | 66 | 33.3 | 66.7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27.6 | 72.4 |
| | 정신적장애 | 113 | 29.2 | 70.8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32.1 | 67.9 |
| | 퇴거자 | 62 | 22.6 | 77.4 |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41.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16.4%), '참여하고 싶은 교육프로그램이 없어서'(12.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평생교육에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가 전년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시간이 없어서'는 전년도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표 4-191〉 평생교육 비 참여 이유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 참여하고 싶은 교육프로그램이 없어서 | 평생교육에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 시간이 없어서 | 이동 및 편의 시설 부족으로 | 모름/무응답 | 기타* |
|---|---|---|---|---|---|---|---|---|---|---|
| 해당연도 | 2018년 | 113 | 47.8 | 23.9 | 8.0 | 4.4 | 3.5 | 3.5 | 2.7 | 6.2 |
| | 2019년 | 92 | 35.9 | 26.1 | 16.3 | 7.6 | 0.0 | 5.4 | 0.0 | 8.7 |
| | 2020년 | 113 | 38.9 | 17.7 | 12.4 | 5.3 | 10.6 | 5.3 | 1.8 | 8.0 |
| | 2021년 | 122 | 41.0 | 16.4 | 12.3 | 8.2 | 7.4 | 4.9 | 0.0 | 9.8 |

*기타 의견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애가 심해서',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인원 수 마감' 등이 있음.

성별로 남성의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46.2%),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15.4%), '참여하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31.8%),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1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의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50.0%),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9.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의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36.3%),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2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이용자 등'의 경우 40.5%, 퇴거자의 경우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가 '이용자 등'의 경우 14.9%, 퇴거자의 경우 18.8%로 나타났다.

〈표 4-192〉 평생교육 비 참여 이유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 교육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 참여하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 | 평생교육에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 시간이 없어서 | 이동 및 편의 시설 부족으로 | 기타* |
|---|---|---|---|---|---|---|---|---|---|
| 전체 | | 122 | 41.0 | 16.4 | 12.3 | 8.2 | 7.4 | 4.9 | 9.8 |
| 성별 | 남성 | 78 | 46.2 | 15.4 | 11.5 | 6.4 | 7.7 | 6.4 | 6.4 |
| | 여성 | 44 | 31.8 | 18.2 | 13.6 | 11.4 | 6.8 | 2.3 | 15.9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42 | 50.0 | 7.1 | 7.1 | 7.1 | 7.1 | 9.5 | 11.9 |
| | 정신적장애 | 80 | 36.3 | 21.3 | 15.0 | 8.8 | 7.5 | 2.5 | 8.8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74 | 40.5 | 14.9 | 12.2 | 10.8 | 9.5 | 4.1 | 8.1 |
| | 퇴거자 | 48 | 41.7 | 18.8 | 12.5 | 4.2 | 4.2 | 6.3 | 12.5 |

*주) 기타 의견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애가 심해서',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인원 수 마감' 등이 있음.

## 2)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실시기관

평생교육에 참여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취미 및 여가활동'이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습활동'(26.5%), '소득 창출 활동'(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취미 및 여가활동'의 비율은 전년도(8.7%)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학습활동'은 전년도(37.0%)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표 4-193〉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1순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취미 및 여가 활동 | 학습 활동 | 소득 창출 활동 | 건강 및 체육 활동 | 자원 봉사 활동 | 종교 활동 | 정치 사회 활동 | 기타 |
|---|---|---|---|---|---|---|---|---|---|---|
| 해당연도 | 2018년 | 31 | 19.4 | 25.8 | 22.6 | 9.7 | 3.2 | 9.7 | 0.0 | 9.7 |
| | 2019년 | 60 | 18.3 | 41.7 | 26.7 | 10.0 | 0.0 | 0.0 | 0.0 | 3.3 |
| | 2020년 | 46 | 8.7 | 37.0 | 23.9 | 13.0 | 0.0 | 6.5 | 2.2 | 8.7 |
| | 2021년 | 49 | 38.8 | 26.5 | 14.3 | 12.2 | 2.0 | 0.0 | 0.0 | 6.1 |

성별로 남성의 경우 '학습활동'(37.0%), '취미 및 여가활동'(33.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취미 및 여가활동'(45.5%), '소득 창출 활동'(22.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의 경우 '학습활동'(56.3%), '취미 및 여가활동'과 '소득 창출 활동'이 각각 18.8%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의 경우 '취미 및 여가활동'(48.5%), '건강 및 체육활동'(1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의 경우 '취미 및 여가활동'(48.6%), '학습활동'(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퇴거자의 경우 '학습활동' (42.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194〉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취미 및 여가 활동 | 학습 활동 | 소득 창출 활동 | 건강 및 체육 활동 | 자원봉사 활동 | 기타 |
|---|---|---|---|---|---|---|---|---|
| 전체 | | 49 | 38.8 | 26.5 | 14.3 | 12.2 | 2.0 | 6.1 |
| 성별 | 남성 | 27 | 33.3 | 37.0 | 7.4 | 11.1 | 3.7 | 7.4 |
| | 여성 | 22 | 45.5 | 13.6 | 22.7 | 13.6 | 0.0 | 4.5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16 | 18.8 | 56.3 | 18.8 | 0.0 | 0.0 | 6.3 |
| | 정신적장애 | 33 | 48.5 | 12.1 | 12.1 | 18.2 | 3.0 | 6.1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35 | 48.6 | 20.0 | 14.3 | 11.4 | 2.9 | 2.9 |
| | 퇴거자 | 14 | 14.3 | 42.9 | 14.3 | 14.3 | 0.0 | 14.3 |

평생교육에 참여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참여한 평생교육의 실시 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시설, 주민센터 등'이 7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민사회단체'(12.2%), '사설 문화센터/학원'(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사회복지시설, 주민센터 등'은 전년도(65.2%)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종교시설'과 '직장'은 전년도(각각 6.5%)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표 4-195〉 참여한 평생교육 실시 기관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사회복지시설, 주민센터 등 | 시민사회단체 | 사설 문화센터/학원 | 종교시설 | 직장 | 기타* |
|---|---|---|---|---|---|---|---|---|
| 해당연도 | 2018년 | 31 | 71.0 | 0.0 | 16.1 | 0.0 | 3.2 | 9.7 |
| | 2019년 | 60 | 80.0 | 6.7 | 6.7 | 0.0 | 0.0 | 6.7 |
| | 2020년 | 46 | 65.2 | 10.9 | 4.3 | 6.5 | 6.5 | 6.5 |
| | 2021년 | 49 | 79.6 | 12.2 | 4.1 | 2.0 | 2.0 | 0.0 |

*기타에는 '자립생활 프로그램', '장애인 야간학교' 등이 있음

성별로 '사회복지시설, 주민센터 등'이 남성의 경우 74.1%, 여성의 경우 8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민사회단체'가 남성의 경우 14.8%, 여성의 경우 9.1%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주민센터 등'(56.3%), '시민사회단체'(31.3%)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정신적 장애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주민센터 등'(90.9%), '사설 문화센터/학원'(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주민센터 등'(82.9%), '시민사회단체'(8.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퇴거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주민센터 등'(71.4%), '시민사회단체'(2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96〉 참여한 평생교육 실시 기관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사회복지시설, 주민센터 등 | 시민사회단체 | 사설 문화센터/학원 | 종교시설 | 직장 |
|---|---|---|---|---|---|---|---|
| 전체 | | 49 | 79.6 | 12.2 | 4.1 | 2.0 | 2.0 |
| 성별 | 남성 | 27 | 74.1 | 14.8 | 3.7 | 3.7 | 3.7 |
| | 여성 | 22 | 86.4 | 9.1 | 4.5 | 0.0 | 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16 | 56.3 | 31.3 | 0.0 | 6.3 | 6.3 |
| | 정신적장애 | 33 | 90.9 | 3.0 | 6.1 | 0.0 | 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35 | 82.9 | 8.6 | 5.7 | 0.0 | 2.9 |
| | 퇴거자 | 14 | 71.4 | 21.4 | 0.0 | 7.1 | 0.0 |

### 3) 평생교육 참여 빈도

평생교육에 참여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참여 빈도를 조사한 결과, '주 2회 이상'이 4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 1회 정도'(40.8%)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주 1회 정도'의 응답비율이 전년도(30.4%)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주 2회 이상'의 응답비율은 전년도(54.3%)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표 4-197〉 평생교육 참여 빈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월 1회 미만 | 월 1회 정도 | 2주에 1회 정도 | 주 1회 정도 | 주 2회 이상 |
|---|---|---|---|---|---|---|---|
| 해당연도 | 2018년 | 31 | 9.7 | 12.9 | 9.7 | 16.1 | 51.6 |
| | 2019년 | 60 | 1.7 | 6.7 | 0.0 | 23.3 | 68.3 |
| | 2020년 | 46 | 6.5 | 4.3 | 4.3 | 30.4 | 54.3 |
| | 2021년 | 49 | 4.1 | 2.0 | 4.1 | 40.8 | 49.0 |

성별로 살펴보면, '주 2회 이상'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남성의 경우 51.9%, 여성의 경우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의 경우 '주 1회 정도'(50.0%), '주 2회 이상'(25.0%)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의 경우 '주 2회 이상'(60.6%), '주 1회 정도'(36.4%)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의 경우 '주 2회 이상'(57.1%), '주 1회 정도'(34.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퇴거자의 경우 '주 1회 정도'(57.1%), '주 2회 이상'(28.6%)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98〉 평생교육 참여 빈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월 1회 미만 | 월 1회 정도 | 2주에 1회 정도 | 주 1회 정도 | 주 2회 이상 |
|---|---|---|---|---|---|---|---|
| 전체 | | 49 | 4.1 | 2.0 | 4.1 | 40.8 | 49.0 |
| 성별 | 남성 | 27 | 3.7 | 3.7 | 0.0 | 40.7 | 51.9 |
| | 여성 | 22 | 4.5 | 0.0 | 9.1 | 40.9 | 45.5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16 | 6.3 | 6.3 | 12.5 | 50.0 | 25.0 |
| | 정신적장애 | 33 | 3.0 | 0.0 | 0.0 | 36.4 | 60.6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35 | 2.9 | 2.9 | 2.9 | 34.3 | 57.1 |
| | 퇴거자 | 14 | 7.1 | 0.0 | 7.1 | 57.1 | 28.6 |

### 4) 평생교육 학비 부담

평생교육에 참여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학비를 주로 누가 부담하는지 조사한 결과,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5.1%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22.4%), '본인 스스로'(18.4%), '교육훈련기관'(4.1%)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년도(15.2%)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무료 프로그램'은 전년도(58.7%)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표 4-199〉 평생교육 학비 부담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무료 프로그램 |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 본인 스스로 | 교육 훈련 기관 | 부모/ 형제/ 자매 | 후원 단체 | 기타* |
|---|---|---|---|---|---|---|---|---|---|
| 해당연도 | 2018년 | 31 | 61.3 | 9.7 | 25.8 | 0.0 | 3.2 | 0.0 | 0.0 |
| | 2019년 | 60 | 78.3 | 10.0 | 5.0 | 0.0 | 1.7 | 1.7 | 3.3 |
| | 2020년 | 46 | 58.7 | 15.2 | 13.0 | 6.5 | 2.2 | 2.2 | 2.2 |
| | 2021년 | 49 | 55.1 | 22.4 | 18.4 | 4.1 | 0.0 | 0.0 | 0.0 |

*기타에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있음

성별로 살펴보면,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이 남성의 경우 48.1%, 여성의 경우 6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 25.9%, 여성 18.2%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이 신체적 장애의 경우 68.8%, 정신적 장애의 경우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응답한 비율이 신체적 장애 18.8%, 여성 24.2%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의 경우 '무료 프로그램'(57.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25.7%)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퇴거자의 경우 '무료 프로그램'(50.0%), '본인 스스로'(3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00〉 평생교육 학비 부담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무료 프로그램 |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 본인 스스로 | 교육 훈련기관 |
|---|---|---|---|---|---|---|
| 전체 | | 49 | 55.1 | 22.4 | 18.4 | 4.1 |
| 성별 | 남성 | 27 | 48.1 | 25.9 | 22.2 | 3.7 |
| | 여성 | 22 | 63.6 | 18.2 | 13.6 | 4.5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16 | 68.8 | 18.8 | 12.5 | 0.0 |
| | 정신적장애 | 33 | 48.5 | 24.2 | 21.2 | 6.1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35 | 57.1 | 25.7 | 11.4 | 5.7 |
| | 퇴거자 | 14 | 50.0 | 14.3 | 35.7 | 0.0 |

## 5) 평생교육 이동 시간

평생교육에 참여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참여를 위해 소요되는 왕복 이동 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47.4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60분 미만'이 6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평균 이동시간은 전년도(64.9분) 대비 약 17.5분 적게 나타났으며,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01〉 평생교육 참여를 위한 왕복 이동 시간 - 연도별

(단위: 명, %, 분)

| 구분 | | 사례수 | 60분 미만 | 60분 이상 ~ 120분 미만 | 120분 이상 | 평균 (분) |
|---|---|---|---|---|---|---|
| 해당연도 | 2018년 | 31 | 25.8 | 32.3 | 35.5 | 91.7 |
| | 2019년 | 60 | 45.0 | 35.0 | 20.0 | 68.2 |
| | 2020년 | 46 | 47.8 | 34.8 | 17.4 | 64.9 |
| | 2021년 | 49 | 65.3 | 24.5 | 10.2 | 47.4 |

주) 평균 이동 시간은 0시간(인터넷 강의)을 포함하여 산출함.

성별로 남성의 경우 '60분 미만'(66.7%), '60분 이상 ~ 120분 미만'(22.2%)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60분 미만'(63.6%), '60분 이상 ~ 120분 미만'(2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의 경우 '60분 미만'(62.5%), '60분 이상 ~ 120분 미만'(25.0%)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정신적 장애의 경우 '60분 미만'(66.7%), '60분 이상 ~ 120분 미만'(2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의 경우 '60분 미만'(62.9%), '60분 이상 ~ 120분 미만'(25.7%)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퇴거자의 경우 '60분 미만'(71.4%), '60분 이상 ~ 120분 미만'(2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02〉 평생교육 참여를 위한 왕복 이동 시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분)

| 구분 | | 사례수 | 60분 미만 | 60분 이상~120분 미만 | 120분 이상 | 평균(분) |
|---|---|---|---|---|---|---|
| 전체 | | 49 | 65.3 | 24.5 | 10.2 | 47.4 |
| 성별 | 남성 | 27 | 66.7 | 22.2 | 11.1 | 47.8 |
| | 여성 | 22 | 63.6 | 27.3 | 9.1 | 46.8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16 | 62.5 | 25.0 | 12.5 | 43.8 |
| | 정신적장애 | 33 | 66.7 | 24.2 | 9.1 | 49.1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35 | 62.9 | 25.7 | 11.4 | 49.1 |
| | 퇴거자 | 14 | 71.4 | 21.4 | 7.1 | 42.9 |

### 6) 향후 평생교육 참여 의향

향후 평생교육에 참여할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63.7%는 참여 의향을 보였고, 36.3%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참여 의향을 보인 비율은 전년도(74.9%)에 비해 약 11.2%p 감소하였다.

〈표 4-203〉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 참여를 고려해 보겠다 |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47.9 | 31.9 | 20.1 |
| | 2019년 | 152 | 23.7 | 51.3 | 25.0 |
| | 2020년 | 159 | 25.2 | 51.6 | 23.3 |
| | 2021년 | 171 | 36.3 | 38.0 | 25.7 |

성별로 살펴보면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참여를 고려해 보겠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은 남성은 60.0%, 여성은 69.7%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의 경우 46.6%, 정신적 장애의 경우 72.6%로 조사되었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은 73.4%, 퇴거자의 경우 46.8%가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4〉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 참여를 고려해 보겠다 |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
|---|---|---|---|---|---|
| 전체 | | 171 | 36.3 | 38.0 | 25.7 |
| 성별 | 남성 | 105 | 40.0 | 37.1 | 22.9 |
| | 여성 | 66 | 30.3 | 39.4 | 30.3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53.4 | 32.8 | 13.8 |
| | 정신적장애 | 113 | 27.4 | 40.7 | 31.9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26.6 | 43.1 | 30.3 |
| | 퇴거자 | 62 | 53.2 | 29.0 | 17.7 |

### 7) 참여 희망 평생교육 프로그램

향후 평생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한 응답자에게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취미 및 여가활동'이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득활동'(27.5%), '건강 및 체육활동'(1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05〉 참여 희망 평생교육 프로그램 (1순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취미 및 여가 활동 | 소득 활동 | 건강 및 체육 활동 | 학습 활동 | 종교 활동 | 자원 봉사 활동 | 정치 사회 활동 | 기타 |
|---|---|---|---|---|---|---|---|---|---|---|
| 해당연도 | 2018년 | 75 | 25.3 | 30.7 | 10.7 | 16.0 | 8.0 | 5.3 | 0.0 | 4.0 |
| | 2019년 | 116 | 37.1 | 17.2 | 16.4 | 21.6 | 4.3 | 0.0 | 0.9 | 2.6 |
| | 2020년 | 119 | 20.2 | 37.0 | 21.8 | 15.1 | 2.5 | 2.5 | 0.8 | 0.0 |
| | 2021년 | 109 | 30.3 | 27.5 | 17.4 | 14.7 | 4.6 | 3.7 | 1.8 | 0.0 |

성별로 남성의 경우 '소득활동'(30.2%), '취미 및 여가활동'(23.8%)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취미 및 여가활동'(39.1%), '소득활동'(2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의 경우 '소득활동'(44.4%), '학습활동'(22.2%)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정신적 장애의 경우 '취미 및 여가활동'(36.6%), '소득활동'(2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의 경우 '취미 및 여가활동'(31.3%), '소득활동'(26.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퇴거자의 경우 '소득활동'(31.0%), '취미 및 여가활동'(2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4-206〉 참여 희망 평생교육 프로그램 (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취미 및 여가활동 | 소득활동 | 건강 및 체육활동 | 학습활동 | 종교활동 | 자원봉사 활동 | 정치사회 활동 |
|---|---|---|---|---|---|---|---|---|---|
| 전체 | | 109 | 30.3 | 27.5 | 17.4 | 14.7 | 4.6 | 3.7 | 1.8 |
| 성별 | 남성 | 63 | 23.8 | 30.2 | 19.0 | 17.5 | 1.6 | 6.3 | 1.6 |
| | 여성 | 46 | 39.1 | 23.9 | 15.2 | 10.9 | 8.7 | 0.0 | 2.2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27 | 11.1 | 44.4 | 7.4 | 22.2 | 11.1 | 0.0 | 3.7 |
| | 정신적장애 | 82 | 36.6 | 22.0 | 20.7 | 12.2 | 2.4 | 4.9 | 1.2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80 | 31.3 | 26.3 | 15.0 | 16.3 | 5.0 | 3.8 | 2.5 |
| | 퇴거자 | 29 | 27.6 | 31.0 | 24.1 | 10.3 | 3.4 | 3.4 | 0.0 |

### 8) 평생교육 소결

2021년 조사결과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비율은 71.3%이며,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41.0%, '교육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16.4%, '참여하고 싶은 교육프로그램이 없어서' 12.3%로 나타났다.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의지가 있는 전체 응답자는 63.7%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93.9%,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 51.6%가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지를 보인다.

## 11 고용

지난주 돈을 벌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다는 응답은 48.5%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년도(40.9%) 대비 근로 비율은 7.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7〉 지난 주 1시간 이상 근로 여부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예 | 아니요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36.8 | 63.2 |
| | 2019년 | 152 | 31.6 | 68.4 |
| | 2020년 | 159 | 40.9 | 59.1 |
| | 2021년 | 171 | 48.5 | 51.5 |

성별로 근로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47.6%, 여성은 50.0%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의 경우 39.7%, 정신적 장애의 경우 53.1%가 지난주 돈을 벌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은 53.2%, 퇴거자는 40.3%로 나타나 '이용자 등'의 근로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208〉 지난 주 1시간 이상 근로 여부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예 | 아니요 |
|---|---|---|---|---|
| 전체 | | 171 | 48.5 | 51.5 |
| 성별 | 남성 | 105 | 47.6 | 52.4 |
| | 여성 | 66 | 50.0 | 5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39.7 | 60.3 |
| | 정신적장애 | 113 | 53.1 | 46.9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53.2 | 46.8 |
| | 퇴거자 | 62 | 40.3 | 59.7 |

지난주에 돈을 벌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했지만,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난주에 근로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기타(코로나로 인해)'가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20.0%), '농한기, 금어기 등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로 인해'(20.0%)로 나타났다.

〈표 4-209〉 지난주에 근로하지 않은 이유 - 연도별(2019, 2020, 2021)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 농한기, 금어기 등 주기적 으로 발생하는 이유로 인해 | 직장 내 혹은 조업 중단의 이유로 | 본인의 교육, 휴가 | 일시적 병, 사고, 후유증 | 기타* |
|---|---|---|---|---|---|---|---|---|
| 해당연도 | 2019년 | 2 | 50.0 | 0.0 | 0.0 | 0.0 | 0.0 | 50.0 |
| | 2020년 | 14 | 7.1 | 0.0 | 14.3 | 7.1 | 7.1 | 64.3 |
| | 2021년 | 5 | 20.0 | 20.0 | 0.0 | 0.0 | 0.0 | 60.0 |

*기타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임시 휴직', '건강이 좋지 않아서' 등이 있음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가 100.0%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기타(코로나로 인해)'가 75.0%, '농한기, 금어기 등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로 인해'가 25.0%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의 경우 '기타(코로나로 인해)'가 75.0%, '농한기, 금어기 등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로 인해'가 25.0%로 나타났으며, 퇴거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가 100.0%로 나타났다.

〈표 4-210〉 지난주에 근로하지 않은 이유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 농한기, 금어기 등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로 인해 | 기타* |
|---|---|---|---|---|---|
| 전체 | | 5 | 20.0 | 20.0 | 60.0 |
| 성별 | 남성 | 1 | 100.0 | 0.0 | 0.0 |
| | 여성 | 4 | 0.0 | 25.0 | 75.0 |
| 장애유형 | 정신적장애 | 5 | 20.0 | 20.0 | 6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4 | 0.0 | 25.0 | 75.0 |
| | 퇴거자 | 1 | 100.0 | 0.0 | 0.0 |

현재 근로 중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종사상 지위를 조사한 결과, 27.3%가 '상용근로자'이고, 68.2%는 '임시근로자', 3.4%는 '일용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반면, '임시근로자'의 비율은 전년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형태를 조사한 결과, 18.4%는 '전일제 근무'를 하고, 81.6%는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시간제 근무'의 비율이 전년도(68.0%) 대비 13.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1〉 근로 형태 및 근로시간 형태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근로 형태 | | | | | 근로시간 형태* | |
|---|---|---|---|---|---|---|---|---|---|
| | | | 상용근로자 | 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직원 미고용 | 급여를 받지 않고 가족사업 도움 | 전일제 | 시간제 |
| 해당연도 | 2018년 | 53 | 66.0 | 32.1 | 1.9 | 0.0 | 0.0 | 62.9 | 37.1 |
| | 2019년 | 50 | 48.0 | 50.0 | 2.0 | 0.0 | 0.0 | 62.5 | 37.5 |
| | 2020년 | 79 | 31.6 | 45.6 | 17.7 | 1.3 | 3.8 | 32.0 | 68.0 |
| | 2021년 | 88 | 27.3 | 68.2 | 3.4 | 1.1 | 0.0 | 18.4 | 81.6 |

* 근로형태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총 87명)로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종사상 지위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 여성(37.8%),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30.4%),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32.3%)의 경우 '상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근로시간 형태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 남성(24.0%),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26.1%),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퇴거자(32.0%)의 경우 '전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212〉 근로 형태 및 근로시간 형태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근로 형태 | | | | 근로시간 형태* | |
|---|---|---|---|---|---|---|---|---|
| | | | 상용 근로자 | 임시 근로자 | 일용 근로자 |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직원 미고용 | 전일제 | 시간제 |
| 전체 | | 88 | 27.3 | 68.2 | 3.4 | 1.1 | 18.4 | 81.6 |
| 성별 | 남성 | 51 | 19.6 | 74.5 | 3.9 | 2.0 | 24.0 | 76.0 |
| | 여성 | 37 | 37.8 | 59.5 | 2.7 | 0.0 | 10.8 | 89.2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23 | 30.4 | 60.9 | 8.7 | 0.0 | 26.1 | 73.9 |
| | 정신적장애 | 65 | 26.2 | 70.8 | 1.5 | 1.5 | 15.6 | 84.4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62 | 32.3 | 62.9 | 4.8 | 0.0 | 12.9 | 87.1 |
| | 퇴거자 | 26 | 15.4 | 80.8 | 0.0 | 3.8 | 32.0 | 68.0 |

* 근로형태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총 87명)로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 1) 직장이 있는 응답자

### (1) 직업 적성 부합 정도

직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직업이 자신의 적성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조사한 결과, '맞음'(맞는 편이다, 매우 맞는다)이라는 의견이 90.7%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전년도(85.4%) 대비 5.3%p 증가하였다.

〈표 4-213〉 현재 직업 적성 부합 정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전혀 맞지 않다 | 맞지 않는 편이다 | 맞는 편이다 | 매우 맞는다 | 맞지 않음 | 맞음 |
|---|---|---|---|---|---|---|---|---|
| 해당연도 | 2018년 | 46 | 2.2 | 15.2 | 43.5 | 39.1 | 17.4 | 82.6 |
| | 2019년 | 49 | 2.0 | 14.3 | 73.5 | 10.2 | 16.3 | 83.7 |
| | 2020년 | 48 | 6.3 | 8.3 | 77.1 | 8.3 | 14.6 | 85.4 |
| | 2021년 | 54 | 1.9 | 7.4 | 79.6 | 11.1 | 9.3 | 90.7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현재 직업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편이라는 의견은 성별로 여성(100.0%), 장애유형별로 정신적 장애(91.4%),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퇴거자(95.2%)의 경우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4-214〉 현재 직업 적성 부합 정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전혀 맞지 않다 | 맞지 않는 편이다 | 맞는 편이다 | 매우 맞는다 | 맞지 않음 | 맞음 |
|---|---|---|---|---|---|---|---|---|
| 전체 | | 54 | 1.9 | 7.4 | 79.6 | 11.1 | 9.3 | 90.7 |
| 성별 | 남성 | 33 | 3.0 | 12.1 | 78.8 | 6.1 | 15.2 | 84.8 |
| | 여성 | 21 | 0.0 | 0.0 | 81.0 | 19.0 | 0.0 | 10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19 | 0.0 | 10.5 | 73.7 | 15.8 | 10.5 | 89.5 |
| | 정신적장애 | 35 | 2.9 | 5.7 | 82.9 | 8.6 | 8.6 | 91.4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33 | 3.0 | 9.1 | 72.7 | 15.2 | 12.1 | 87.9 |
| | 퇴거자 | 21 | 0.0 | 4.8 | 90.5 | 4.8 | 4.8 | 95.2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 (2) 근무 일수 및 시간

직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근무 일수 및 시간을 조사한 결과, '1주 평균 근무 일수'는 4.2일, '1일 평균 근무 시간'은 5.1시간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근무 일수는 약 0.4일 증가하였고, 근무 시간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5〉 일주일 평균 근무 일수 및 하루 평균 근무 시간 - 연도별

(단위: 명, 일, 시간)

| 구분 | | 사례수 | 1주 평균 근무 일수 | 1일 평균 근무 시간 |
|---|---|---|---|---|
| 해당연도 | 2018년 | 53 | 4.6 | 6.2 |
| | 2019년 | 50 | 4.7 | 6.5 |
| | 2020년 | 75 | 3.8 | 5.2 |
| | 2021년 | 87 | 4.2 | 5.1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 여성(4.2일, 5.5시간),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4.4일, 5.2시간),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퇴거자(4.5일, 5.2시간)의 경우 1주 평균 근무 일수와 1일 평균 근무 시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216〉 일주일 평균 근무 일수 및 하루 평균 근무 시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일, 시간)

| 구분 | | 사례수 | 1주 평균 근무 일수 | 1일 평균 근무 시간 |
|---|---|---|---|---|
| 전체 | | 87 | 4.2 | 5.1 |
| 성별 | 남성 | 50 | 4.1 | 4.8 |
| | 여성 | 37 | 4.2 | 5.5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23 | 4.4 | 5.2 |
| | 정신적장애 | 64 | 4.1 | 5.1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62 | 4.0 | 5.0 |
| | 퇴거자 | 25 | 4.5 | 5.2 |

### (3) 주 36시간 미만 근로 이유

주 36시간 미만 근로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 36시간 미만 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장애로 인한 직업능력의 제한'(50.0%), '시간제 근로가 현재 직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므로'(1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시간제 근무를 선호해서'를 꼽은 비율이 전년도(7.5%)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시간제 근로가 현재 직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므로'를 꼽은 비율은 전년도(23.9%)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표 4-217〉 주 36시간 미만 근로 이유 (1순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장애로 인한 직업능력의 제한 | 시간제 근로가 현재 직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므로 | 시간제 근무를 선호해서 | 전일제 근무를 구하지 못해서 | 전일제 근무가 복지급여, 수당에 영향을 줄까봐 |
|---|---|---|---|---|---|---|---|
| 해당연도 | 2018년 | 27 | 44.4 | 7.4 | 3.7 | 7.4 | 18.5 |
| | 2019년 | 33 | 48.5 | 21.2 | 6.1 | 3.0 | 18.2 |
| | 2020년 | 67 | 46.3 | 23.9 | 7.5 | 3.0 | 4.5 |
| | 2021년 | 76 | 50.0 | 15.8 | 13.2 | 6.6 | 5.3 |

| 구분 | | 사례수 | 학업, 훈련과 같은 개인적인 이유로 | 장애치료를 위한 병원방문 | 기타 | 모름/무응답 |
|---|---|---|---|---|---|---|
| 해당연도 | 2018년 | 27 | 7.4 | 3.7 | 3.7 | 3.7 |
| | 2019년 | 33 | 0.0 | 0.0 | 3.0 | 0.0 |
| | 2020년 | 67 | 6.0 | 3.0 | 6.0 | 0.0 |
| | 2021년 | 76 | 2.6 | 0.0 | 6.6 | 0.0 |

주 36시간 미만 근로 이유에 대해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성의 경우 '장애로 인한 직업능력의 제한'이 52.3%로 여성(46.9%)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비교해보면, 신체적 장애의 경우 '장애로 인한 직업능력의 제한'이 57.9%로 정신적 장애(47.4%) 대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여부별로는 퇴거자의 경우 '장애로 인한 직업능력의 제한'이 73.7%로 '이용자 등'(42.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8〉 주 36시간 미만 근로 이유 (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장애로 인한 직업능력의 제한 | 시간제 근로가 현재 직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므로 | 시간제 근무를 선호해서 | 전일제 근무를 구하지 못해서 |
|---|---|---|---|---|---|---|
| 전체 | | 76 | 50.0 | 15.8 | 13.2 | 6.6 |
| 성별 | 남성 | 44 | 52.3 | 9.1 | 15.9 | 6.8 |
| | 여성 | 32 | 46.9 | 25.0 | 9.4 | 6.3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19 | 57.9 | 0.0 | 10.5 | 0.0 |
| | 정신적장애 | 57 | 47.4 | 21.1 | 14.0 | 8.8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57 | 42.1 | 19.3 | 17.5 | 5.3 |
| | 퇴거자 | 19 | 73.7 | 5.3 | 0.0 | 10.5 |

| 구분 | | 사례수 | 전일제 근무가 복지급여, 수당에 영향을 줄까봐 | 학업, 훈련과 같은 개인적인 이유로 | 기타 |
|---|---|---|---|---|---|
| 전체 | | 76 | 5.3 | 2.6 | 6.6 |
| 성별 | 남성 | 44 | 6.8 | 4.5 | 4.5 |
| | 여성 | 32 | 3.1 | 0.0 | 9.4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19 | 10.5 | 5.3 | 15.8 |
| | 정신적장애 | 57 | 3.5 | 1.8 | 3.5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57 | 7.0 | 3.5 | 5.3 |
| | 퇴거자 | 19 | 0.0 | 0.0 | 10.5 |

### (4) 희망 근로 시간

직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1주 평균 근로 시간을 조사한 결과, 1주 평균 18.6시간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년도(17.2시간)에 비해 약 1.4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9〉 희망하는 주 평균 근로 시간 - 연도별

(단위: 명, %, 시간)

| 구분 | | 사례수 | 10시간 미만 |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 40시간 이상 | 모름/ 무응답 | 평균 (시간) |
|---|---|---|---|---|---|---|---|---|---|
| 해당연도 | 2018년 | 44 | 13.6 | 9.1 | 18.2 | 13.6 | 43.2 | 2.3 | 28.7 |
| | 2019년 | 49 | 18.4 | 8.2 | 20.4 | 22.4 | 30.6 | 0.0 | 26.7 |
| | 2020년 | 48 | 45.8 | 10.4 | 14.6 | 12.5 | 16.7 | 0.0 | 17.2 |
| | 2021년 | 53 | 34.0 | 11.3 | 34.0 | 7.5 | 13.2 | 0.0 | 18.6 |

주) 근로를 희망하지 않는 대상자(희망 근로시간이 0시간인 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이에 전년도 보고서 결과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1주 평균 19.6시간을 희망하여 여성(16.9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10시간 미만'을 꼽은 비율의 경우 여성(40.0%)이 남성(30.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의 경우 1주 평균 23.1시간으로, 정신적 장애(16.1시간)에 비해 비교적 높았으며, '10시간 미만'을 꼽은 비율의 경우 정신적 장애(44.1%)가 신체적 장애(15.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퇴거자의 경우 1주 평균 21.8시간으로, '이용자 등'(16.5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10시간 미만'을 꼽은 비율의 경우 '이용자 등'(37.5%)이 퇴거자(28.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220〉 희망하는 주 평균 근로 시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시간)

| 구분 | | 사례수 | 10시간 미만 |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 40시간 이상 | 평균 (시간) |
|---|---|---|---|---|---|---|---|---|
| 전체 | | 53 | 34.0 | 11.3 | 34.0 | 7.5 | 13.2 | 18.6 |
| 성별 | 남성 | 33 | 30.3 | 15.2 | 30.3 | 9.1 | 15.2 | 19.6 |
| | 여성 | 20 | 40.0 | 5.0 | 40.0 | 5.0 | 10.0 | 16.9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19 | 15.8 | 10.5 | 42.1 | 15.8 | 15.8 | 23.1 |
| | 정신적장애 | 34 | 44.1 | 11.8 | 29.4 | 2.9 | 11.8 | 16.1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32 | 37.5 | 15.6 | 34.4 | 3.1 | 9.4 | 16.5 |
| | 퇴거자 | 21 | 28.6 | 4.8 | 33.3 | 14.3 | 19.0 | 21.8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주) 근로를 희망하지 않는 대상자(희망 근로시간이 0시간인 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함.

### (5) 직업 유형

직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업 유형을 조사한 결과, '단순노무 종사자'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서비스 종사자'(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단순노무 종사자'가 전년도(49.3%) 대비 가장 큰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서비스 종사자'는 전년도(18.7%)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표 4-221〉 직업 유형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관리자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사무 종사자 | 서비스 종사자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단순 노무 종사자 |
|---|---|---|---|---|---|---|---|---|---|---|
| 해당 연도 | 2018년 | 53 | 0.0 | 0.0 | 7.5 | 24.5 | 0.0 | 3.8 | 32.1 | 32.1 |
| | 2019년 | 50 | 0.0 | 2.0 | 4.0 | 16.0 | 2.0 | 2.0 | 4.0 | 70.0 |
| | 2020년 | 75 | 1.3 | 6.7 | 6.7 | 18.7 | 0.0 | 5.3 | 12.0 | 49.3 |
| | 2021년 | 87 | 0.0 | 1.1 | 8.0 | 11.5 | 0.0 | 6.9 | 5.7 | 66.7 |

전반적으로 '서비스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여성의 경우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비율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응답자의 경우 '사무 종사자'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4-222〉 직업 유형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관리자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사무 종사자 | 서비스 종사자 |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단순 노무 종사자 |
|---|---|---|---|---|---|---|---|---|---|---|
| 전체 | | 87 | 0.0 | 1.1 | 8.0 | 11.5 | 0.0 | 6.9 | 5.7 | 66.7 |
| 성별 | 남성 | 50 | 0.0 | 2.0 | 10.0 | 18.0 | 0.0 | 6.0 | 2.0 | 62.0 |
| | 여성 | 37 | 0.0 | 0.0 | 5.4 | 2.7 | 0.0 | 8.1 | 10.8 | 73.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23 | 0.0 | 4.3 | 17.4 | 21.7 | 0.0 | 4.3 | 0.0 | 52.2 |
| | 정신적장애 | 64 | 0.0 | 0.0 | 4.7 | 7.8 | 0.0 | 7.8 | 7.8 | 71.9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62 | 0.0 | 1.6 | 8.1 | 9.7 | 0.0 | 8.1 | 8.1 | 64.5 |
| | 퇴거자 | 25 | 0.0 | 0.0 | 8.0 | 16.0 | 0.0 | 4.0 | 0.0 | 72.0 |

### (6) 근속 기간

직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근속 기간을 조사한 결과, '1년 미만'이 47.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1~3년 미만'(33.3%), '3~5년 미만' (1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속 기간은 약 19.2개월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평균 근속 기간이 전년도(21.4개월) 대비 약 2.2개월 감소하였으며,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3〉 현재 직장 근속 기간 - 연도별

(단위: 명, %, 개월)

| 구분 | | 사례수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모름/ 무응답 | 평균 (개월) |
|---|---|---|---|---|---|---|---|---|---|
| 해당연도 | 2018년 | 53 | 20.8 | 37.7 | 13.2 | 11.3 | 15.1 | 1.9 | 51.5 |
| | 2019년 | 50 | 26.0 | 34.0 | 22.0 | 12.0 | 6.0 | 0.0 | 42.6 |
| | 2020년 | 75 | 50.7 | 28.0 | 13.3 | 5.3 | 2.7 | 0.0 | 21.4 |
| | 2021년 | 87 | 47.1 | 33.3 | 12.6 | 6.9 | 0.0 | 0.0 | 19.2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평균 근속 기간은 15.6개월, '1년 미만' 근무한 비율은 54.0%로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근속 기간을 보였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응답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15.2개월, '1년 미만' 근무한 비율은 52.2%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응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근속 기간을 보였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살펴보면, 퇴거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17.4개월, '1년 미만' 근무한 비율은 44.0%로 '이용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근속 기간을 보였다.

〈표 4-224〉 현재 직장 근속 기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개월)

| 구분 | | 사례수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모름/무응답 | 평균(개월) |
|---|---|---|---|---|---|---|---|---|---|
| 전체 | | 87 | 47.1 | 33.3 | 12.6 | 6.9 | 0.0 | 0.0 | 19.2 |
| 성별 | 남성 | 50 | 54.0 | 32.0 | 10.0 | 4.0 | 0.0 | 0.0 | 15.6 |
| | 여성 | 37 | 37.8 | 35.1 | 16.2 | 10.8 | 0.0 | 0.0 | 24.1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23 | 52.2 | 39.1 | 8.7 | 0.0 | 0.0 | 0.0 | 15.2 |
| | 정신적장애 | 64 | 45.3 | 31.3 | 14.1 | 9.4 | 0.0 | 0.0 | 20.6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62 | 48.4 | 32.3 | 9.7 | 9.7 | 0.0 | 0.0 | 19.9 |
| | 퇴거자 | 25 | 44.0 | 36.0 | 20.0 | 0.0 | 0.0 | 0.0 | 17.4 |

### (7) 근로 소득

직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근로 소득을 조사한 결과, '50~100만원 미만'이 44.8%로 가장 높았고, '50만원 미만'(42.5%), '100~150만원 미만'(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50~100만원 미만'의 비율이 전년도(30.7%)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50만원 미만'의 비율이 전년도(48.0%)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표 4-225〉 현재 직장 평균 급여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50만원 미만 | 50~100만원 미만 | 100~150만원 미만 | 150~200만원 미만 | 200~300만원 미만 | 300~500만원 미만 | 모름/무응답 |
|---|---|---|---|---|---|---|---|---|---|
| 해당연도 | 2018년 | 53 | 60.4 | 18.9 | 1.9 | 11.3 | 3.8 | 0.0 | 3.8 |
| | 2019년 | 50 | 54.0 | 26.0 | 4.0 | 10.0 | 4.0 | 0.0 | 2.0 |
| | 2020년 | 75 | 48.0 | 30.7 | 6.7 | 4.0 | 2.7 | 0.0 | 8.0 |
| | 2021년 | 87 | 42.5 | 44.8 | 8.0 | 2.3 | 1.1 | 1.1 | 0.0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50만원 미만'과 '50~100만원 미만'이 각각 42.0%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50~100만원 미만'(48.6%), '50만원 미만'(43.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의 경우 '50~100만원 미만'(47.8%), '50만원 미만'(30.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의 경우 '50만원 미만'(46.9%), '50~100만원 미만'(43.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은 '50~100만원 미만'(50.0%), '50만원 미만'(41.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퇴거자의 경우 '50만원 미만'(44.0%), '50~100만원 미만'(3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26〉 현재 직장 평균 급여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50만원 미만 | 50~100만원 미만 | 100~150만원 미만 | 150~200만원 미만 | 200~300만원 미만 | 300~500만원 미만 |
|---|---|---|---|---|---|---|---|---|
| 전체 | | 87 | 42.5 | 44.8 | 8.0 | 2.3 | 1.1 | 1.1 |
| 성별 | 남성 | 50 | 42.0 | 42.0 | 8.0 | 4.0 | 2.0 | 2.0 |
| | 여성 | 37 | 43.2 | 48.6 | 8.1 | 0.0 | 0.0 | 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23 | 30.4 | 47.8 | 8.7 | 4.3 | 4.3 | 4.3 |
| | 정신적장애 | 64 | 46.9 | 43.8 | 7.8 | 1.6 | 0.0 | 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62 | 41.9 | 50.0 | 8.1 | 0.0 | 0.0 | 0.0 |
| | 퇴거자 | 25 | 44.0 | 32.0 | 8.0 | 8.0 | 4.0 | 4.0 |

### (8) 직장만족도

직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장 만족도를 영역별로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92.6%(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전년도(87.5%) 대비 5.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직무자체(하는 일)'(83.3%), '근무시간'(83.3%), '직장 내 환경 및 안전'(87.0%)은 만족(만족하는 편임,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복리후생'은 만족한다는 비율이 70.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227〉 직장만족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총 보수 | | 고용 안정성 | | 직무자체 | | 근무시간 | | 복리후생 | |
|---|---|---|---|---|---|---|---|---|---|---|---|---|
| | | | 만족 | 불만족 | 만족 | 불만족 | 만족 | 불만족 | 만족 | 불만족 | 만족 | 불만족 |
| 해당 연도 | 2018년 | 46 | 52.2 | 47.8 | 76.1 | 23.9 | 78.3 | 21.7 | 84.8 | 15.2 | 73.9 | 26.1 |
| | 2019년 | 49 | 59.2 | 40.8 | 73.5 | 26.5 | 81.6 | 18.4 | 67.3 | 32.7 | 79.6 | 20.4 |
| | 2020년 | 48 | 68.8 | 31.3 | 75.0 | 25.0 | 83.3 | 16.7 | 83.3 | 16.7 | 75.0 | 25.0 |
| | 2021년 | 54 | 75.9 | 24.1 | 74.1 | 25.9 | 83.3 | 16.7 | 83.3 | 16.7 | 70.4 | 29.6 |

| 구분 | | 사례수 | 직장 내 환경 및 안전 | | 나의 발전 가능성 | |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 | 전반적인 만족도 | |
|---|---|---|---|---|---|---|---|---|---|---|
| | | | 만족 | 불만족 | 만족 | 불만족 | 만족 | 불만족 | 만족 | 불만족 |
| 해당 연도 | 2018년 | 54 | 87.0 | 13.0 | 74.1 | 25.9 | 79.6 | 20.4 | 92.6 | 7.4 |
| | 2019년 | 49 | 89.8 | 10.2 | 67.3 | 32.7 | 87.8 | 12.2 | 77.6 | 22.4 |
| | 2020년 | 48 | 87.5 | 12.5 | 68.8 | 31.3 | 89.6 | 10.4 | 87.5 | 12.5 |
| | 2021년 | 54 | 87.0 | 13.0 | 74.1 | 25.9 | 79.6 | 20.4 | 92.6 | 7.4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성별로 남성의 경우 '근무시간', '직장 내 환경 및 안전'이 각 87.9%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총 보수'에 대한 만족도가 9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의 경우 '직장 내 환경 및 안전'이 94.7%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의 경우 '직무자체(하는 일)', '직장 내 환경 및 안전'이 각 82.9%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살펴보면, '이용자 등'의 경우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8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퇴거자의 경우 '직장 내 환경 및 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100.0%로 높게 나타났다.

〈표 4-228〉 직장만족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총 보수 | | 고용 안정성 | | 직무자체 | | 근무시간 | | 복리후생 | |
|---|---|---|---|---|---|---|---|---|---|---|---|---|
| | | | 만족 | 불만족 | 만족 | 불만족 | 만족 | 불만족 | 만족 | 불만족 | 만족 | 불만족 |
| 전체 | | 54 | 75.9 | 24.1 | 74.1 | 25.9 | 83.3 | 16.7 | 83.3 | 16.7 | 70.4 | 29.6 |
| 성별 | 남성 | 33 | 63.6 | 36.4 | 78.8 | 21.2 | 78.8 | 21.2 | 87.9 | 12.1 | 63.6 | 36.4 |
| | 여성 | 21 | 95.2 | 4.8 | 66.7 | 33.3 | 90.5 | 9.5 | 76.2 | 23.8 | 81.0 | 19.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19 | 68.4 | 31.6 | 73.7 | 26.3 | 84.2 | 15.8 | 89.5 | 10.5 | 84.2 | 15.8 |
| | 정신적장애 | 35 | 80.0 | 20.0 | 74.3 | 25.7 | 82.9 | 17.1 | 80.0 | 20.0 | 62.9 | 37.1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33 | 78.8 | 21.2 | 69.7 | 30.3 | 78.8 | 21.2 | 78.8 | 21.2 | 75.8 | 24.2 |
| | 퇴거자 | 21 | 71.4 | 28.6 | 81.0 | 19.0 | 90.5 | 9.5 | 90.5 | 9.5 | 61.9 | 38.1 |

| 구분 | | 사례수 | 직장 내 환경 및 안전 | | 나의 발전 가능성 | |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 | 전반적인 만족도 | |
|---|---|---|---|---|---|---|---|---|---|---|
| | | | 만족 | 불만족 | 만족 | 불만족 | 만족 | 불만족 | 만족 | 불만족 |
| 전체 | | 54 | 87.0 | 13.0 | 74.1 | 25.9 | 79.6 | 20.4 | 92.6 | 7.4 |
| 성별 | 남성 | 33 | 87.9 | 12.1 | 69.7 | 30.3 | 72.7 | 27.3 | 87.9 | 12.1 |
| | 여성 | 21 | 85.7 | 14.3 | 81.0 | 19.0 | 90.5 | 9.5 | 100.0 | 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19 | 94.7 | 5.3 | 63.2 | 36.8 | 78.9 | 21.1 | 89.5 | 10.5 |
| | 정신적장애 | 35 | 82.9 | 17.1 | 80.0 | 20.0 | 80.0 | 20.0 | 94.3 | 5.7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33 | 78.8 | 21.2 | 84.8 | 15.2 | 87.9 | 12.1 | 90.9 | 9.1 |
| | 퇴거자 | 21 | 100.0 | 0.0 | 57.1 | 42.9 | 66.7 | 33.3 | 95.2 | 4.8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 (9) 근로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직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근로나 고용유지를 위해 받은 지원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 채용시 과정 단순화 등 배려 제공' 항목에 대해서 '지원 받음'의 비율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조기기나 장비제공', '근무지역 변경' 항목에 대해 '지원 받음'의 비율은 각 16.7%로 낮게 나타났다.

근로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향후 지원을 희망하는지 조사한 결과, '출퇴근 이동지원'이 35.7%로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고용주와 동료들의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32.5%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남성의 경우 '고용주와 동료들의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직무지원인, 근로지원인, 멘토서비스'를 지원 받았다는 비율이 각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희망하는 지원으로는 '출퇴근 이동지원'을 꼽은 비율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장애인 채용시 과정 단순화 등 배려 제공'을 지원 받았다는 비율이 42.9%로 가장 높았고, '고용주와 동료들의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희망한다는 비율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응답자의 경우 '장애인 채용시 과정 단순화 등 배려 제공'을 지원 받았다는 비율이 47.4%로 가장 높았고, '출퇴근 이동지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신적 장애를 가진 응답자의 경우에는 '직무지원인, 근로지원인, 멘토서비스'와 '유급휴가, 병가 등 복리후생제도 제공'을 지원 받은 비율이 각 31.4%로 높게 나타났고, '고용주와 동료들의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건물 내 편의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비율이 각 33.3%로 높게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살펴보면, '이용자 등'의 경우 '근무 및 근로시간 단축'과 '장애인 채용시 과정 단순화 등 배려 제공'을 지원 받은 비율이 각 33.3%로 높게 나타났으며, '출퇴근 이동지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37.5%로 높게 나타났다. 퇴거자의 경우 '직무지원인, 근로지원인, 멘토서비스', '장애인 채용시 과정 단순화 등 배려 제공', '유급휴가, 병가 등 복리후생제도 제공'을 지원 받은 비율이 각 38.1%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급휴가, 병가 등 복리후생제도 제공'을 희망하는 비율이 38.5%로 높게 나타났다.

〈표 4-229〉 근로나 고용유지를 위해 받은 지원 및 희망 여부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근무 및 근로시간 단축 | | | | | |
|---|---|---|---|---|---|---|---|
| | | 지원 여부 | | | 지원 희망 여부* | | |
| | | 사례수 | 받음 | 받지 않음 | 사례수 | 희망 | 비희망 |
| 해당연도 | 2018년 | 46 | 21.7 | 78.3 | 36 | 25.0 | 72.2 |
| | 2019년 | 49 | 44.9 | 55.1 | 27 | 18.5 | 81.5 |
| | 2020년 | 48 | 58.3 | 41.7 | 20 | 60.0 | 40.0 |
| | 2021년 | 54 | 27.8 | 72.2 | 39 | 20.5 | 79.5 |

| 구분 | | 작업량이나 직무조정 | | | | | |
|---|---|---|---|---|---|---|---|
| | | 지원 여부 | | | 지원 희망 여부 | | |
| | | 사례수 | 받음 | 받지 않음 | 사례수 | 희망 | 비희망 |
| 해당연도 | 2018년 | 46 | 21.7 | 78.3 | 36 | 19.4 | 77.8 |
| | 2019년 | 49 | 61.2 | 38.8 | 19 | 21.1 | 78.9 |
| | 2020년 | 48 | 62.5 | 37.5 | 18 | 55.6 | 44.4 |
| | 2021년 | 54 | 24.1 | 75.9 | 41 | 24.4 | 75.6 |

| 구분 | | 보조기기나 장비제공 | | | | | |
|---|---|---|---|---|---|---|---|
| | | 지원 여부 | | | 지원 희망 여부 | | |
| | | 사례수 | 받음 | 받지 않음 | 사례수 | 희망 | 비희망 |
| 해당연도 | 2018년 | 46 | 15.2 | 84.8 | 39 | 10.3 | 87.2 |
| | 2019년 | 49 | 28.6 | 71.4 | 35 | 8.6 | 91.4 |
| | 2020년 | 48 | 33.3 | 66.7 | 32 | 34.4 | 65.6 |
| | 2021년 | 54 | 16.7 | 83.3 | 45 | 13.3 | 86.7 |

| 구분 | | 고용주와 동료들의 장애인식개선 교육 | | | | | |
|---|---|---|---|---|---|---|---|
| | | 지원 여부 | | | 지원 희망 여부 | | |
| | | 사례수 | 받음 | 받지 않음 | 사례수 | 희망 | 비희망 |
| 해당연도 | 2018년 | 46 | 34.8 | 65.2 | 30 | 16.7 | 80.0 |
| | 2019년 | 49 | 65.3 | 34.7 | 17 | 0.0 | 100.0 |
| | 2020년 | 48 | 62.5 | 37.5 | 18 | 50.0 | 50.0 |
| | 2021년 | 54 | 25.9 | 74.1 | 40 | 32.5 | 67.5 |

| 구분 | | 건물 내 편의시설 설치 | | | | | |
|---|---|---|---|---|---|---|---|
| | | 지원 여부 | | | 지원 희망 여부 | | |
| | | 사례수 | 받음 | 받지 않음 | 사례수 | 희망 | 비희망 |
| 해당연도 | 2018년 | 46 | 41.3 | 58.7 | 27 | 3.7 | 92.6 |
| | 2019년 | 49 | 40.8 | 59.2 | 29 | 17.2 | 82.8 |
| | 2020년 | 48 | 58.3 | 41.7 | 20 | 45.0 | 55.0 |
| | 2021년 | 54 | 20.4 | 79.6 | 43 | 25.6 | 74.4 |

| 구분 | | 직무지원인, 근로지원인, 멘토서비스 | | | | | |
|---|---|---|---|---|---|---|---|
| | | 지원 여부 | | | 지원 희망 여부 | | |
| | | 사례수 | 받음 | 받지 않음 | 사례수 | 희망 | 비희망 |
| 해당연도 | 2018년 | 46 | 23.9 | 76.1 | 35 | 11.4 | 85.7 |
| | 2019년 | 49 | 44.9 | 55.1 | 27 | 25.9 | 74.1 |
| | 2020년 | 48 | 45.8 | 54.2 | 26 | 42.3 | 57.7 |
| | 2021년 | 54 | 31.5 | 68.5 | 37 | 29.7 | 70.3 |

| 구분 | | 근무지역 변경 | | | | | |
|---|---|---|---|---|---|---|---|
| | | 지원 여부 | | | 지원 희망 여부 | | |
| | | 사례수 | 받음 | 받지 않음 | 사례수 | 희망 | 비희망 |
| 해당연도 | 2018년 | 46 | 13.0 | 87.0 | 40 | 15.0 | 82.5 |
| | 2019년 | 49 | 26.5 | 73.5 | 36 | 16.7 | 83.3 |
| | 2020년 | 48 | 31.3 | 68.8 | 33 | 21.2 | 78.8 |
| | 2021년 | 54 | 16.7 | 83.3 | 45 | 15.6 | 84.4 |

| 구분 | | 출퇴근 이동지원 | | | | | |
|---|---|---|---|---|---|---|---|
| | | 지원 여부 | | | 지원 희망 여부 | | |
| | | 사례수 | 받음 | 받지 않음 | 사례수 | 희망 | 비희망 |
| 해당연도 | 2018년 | 46 | 13.0 | 87.0 | 40 | 15.0 | 82.5 |
| | 2019년 | 49 | 12.2 | 87.8 | 43 | 32.6 | 67.4 |
| | 2020년 | 48 | 27.1 | 72.9 | 35 | 40.0 | 60.0 |
| | 2021년 | 54 | 22.2 | 77.8 | 42 | 35.7 | 64.3 |

| 구분 | | 장애인 채용 시 과정 단순화 등 배려 제공 | | | | | |
|---|---|---|---|---|---|---|---|
| | | 지원 여부 | | | 지원 희망 여부 | | |
| | | 사례수 | 받음 | 받지 않음 | 사례수 | 희망 | 비희망 |
| 해당연도 | 2018년 | 46 | 37.0 | 63.0 | 29 | 13.8 | 82.8 |
| | 2019년 | 49 | 67.3 | 32.7 | 16 | 12.5 | 87.5 |
| | 2020년 | 48 | 64.6 | 35.4 | 17 | 47.1 | 52.9 |
| | 2021년 | 54 | 35.2 | 64.8 | 35 | 25.7 | 74.3 |

| 구분 | | 유급휴가, 병가 등 복리후생제도 제공 | | | | | |
|---|---|---|---|---|---|---|---|
| | | 지원 여부 | | | 지원 희망 여부 | | |
| | | 사례수 | 받음 | 받지 않음 | 사례수 | 희망 | 비희망 |
| 해당연도 | 2018년 | 46 | 37.0 | 63.0 | 29 | 20.7 | 75.9 |
| | 2019년 | 49 | 53.1 | 46.9 | 23 | 65.2 | 34.8 |
| | 2020년 | 48 | 62.5 | 37.5 | 18 | 50.0 | 50.0 |
| | 2021년 | 54 | 31.5 | 68.5 | 37 | 32.4 | 67.6 |

| 구분 | | 장애근로자를 위한 고충처리자나 노무관리사 면담 | | | | | |
|---|---|---|---|---|---|---|---|
| | | 지원 여부 | | | 지원 희망 여부 | | |
| | | 사례수 | 받음 | 받지 않음 | 사례수 | 희망 | 비희망 |
| 해당연도 | 2018년 | 46 | 28.3 | 71.7 | 33 | 27.3 | 69.7 |
| | 2019년 | 49 | 42.9 | 57.1 | 28 | 42.9 | 57.1 |
| | 2020년 | 48 | 50.0 | 50.0 | 24 | 54.2 | 45.8 |
| | 2021년 | 54 | 27.8 | 72.2 | 39 | 25.6 | 74.4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표 4-230〉 근로나 고용유지를 위해 받은 지원 및 희망 여부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근무 및 근로시간 단축 | | | | | |
|---|---|---|---|---|---|---|---|
| | | 지원 여부 | | | 지원 희망 여부 | | |
| | | 사례수 | 받음 | 받지 않음 | 사례수 | 희망 | 비희망 |
| 전체 | | 54 | 27.8 | 72.2 | 39 | 20.5 | 79.5 |
| 성별 | 남성 | 33 | 24.2 | 75.8 | 25 | 16.0 | 84.0 |
| | 여성 | 21 | 33.3 | 66.7 | 14 | 28.6 | 71.4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19 | 26.3 | 73.7 | 14 | 21.4 | 78.6 |
| | 정신적장애 | 35 | 28.6 | 71.4 | 25 | 20.0 | 8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33 | 33.3 | 66.7 | 22 | 27.3 | 72.7 |
| | 퇴거자 | 21 | 19.0 | 81.0 | 17 | 11.8 | 88.2 |

| 구분 | | 작업량이나 직무조정 | | | | | |
|---|---|---|---|---|---|---|---|
| | | 지원 여부 | | | 지원 희망 여부 | | |
| | | 사례수 | 받음 | 받지 않음 | 사례수 | 희망 | 비희망 |
| 전체 | | 54 | 24.1 | 75.9 | 41 | 24.4 | 75.6 |
| 성별 | 남성 | 33 | 21.2 | 78.8 | 26 | 19.2 | 80.8 |
| | 여성 | 21 | 28.6 | 71.4 | 15 | 33.3 | 66.7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19 | 31.6 | 68.4 | 13 | 15.4 | 84.6 |
| | 정신적장애 | 35 | 20.0 | 80.0 | 28 | 28.6 | 71.4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33 | 24.2 | 75.8 | 25 | 32.0 | 68.0 |
| | 퇴거자 | 21 | 23.8 | 76.2 | 16 | 12.5 | 87.5 |

| 구분 | | 보조기기나 장비제공 | | | | | |
|---|---|---|---|---|---|---|---|
| | | 지원 여부 | | | 지원 희망 여부 | | |
| | | 사례수 | 받음 | 받지 않음 | 사례수 | 희망 | 비희망 |
| 전체 | | 54 | 16.7 | 83.3 | 45 | 13.3 | 86.7 |
| 성별 | 남성 | 33 | 21.2 | 78.8 | 26 | 11.5 | 88.5 |
| | 여성 | 21 | 9.5 | 90.5 | 19 | 15.8 | 84.2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19 | 42.1 | 57.9 | 11 | 27.3 | 72.7 |
| | 정신적장애 | 35 | 2.9 | 97.1 | 34 | 8.8 | 91.2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33 | 18.2 | 81.8 | 27 | 11.1 | 88.9 |
| | 퇴거자 | 21 | 14.3 | 85.7 | 18 | 16.7 | 83.3 |

| 구분 | | 고용주와 동료들의 장애인식개선 교육 | | | | | |
|---|---|---|---|---|---|---|---|
| | | 지원 여부 | | | 지원 희망 여부 | | |
| | | 사례수 | 받음 | 받지 않음 | 사례수 | 희망 | 비희망 |
| 전체 | | 54 | 25.9 | 74.1 | 40 | 32.5 | 67.5 |
| 성별 | 남성 | 33 | 33.3 | 66.7 | 22 | 22.7 | 77.3 |
| | 여성 | 21 | 14.3 | 85.7 | 18 | 44.4 | 55.6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19 | 31.6 | 68.4 | 13 | 30.8 | 69.2 |
| | 정신적장애 | 35 | 22.9 | 77.1 | 27 | 33.3 | 66.7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33 | 27.3 | 72.7 | 24 | 33.3 | 66.7 |
| | 퇴거자 | 21 | 23.8 | 76.2 | 16 | 31.3 | 68.8 |

| 구분 | | 건물 내 편의시설 설치 | | | | | |
|---|---|---|---|---|---|---|---|
| | | 지원 여부 | | | 지원 희망 여부 | | |
| | | 사례수 | 받음 | 받지 않음 | 사례수 | 희망 | 비희망 |
| 전체 | | 54 | 20.4 | 79.6 | 43 | 25.6 | 74.4 |
| 성별 | 남성 | 33 | 24.2 | 75.8 | 25 | 20.0 | 80.0 |
| | 여성 | 21 | 14.3 | 85.7 | 18 | 33.3 | 66.7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19 | 31.6 | 68.4 | 13 | 7.7 | 92.3 |
| | 정신적장애 | 35 | 14.3 | 85.7 | 30 | 33.3 | 66.7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33 | 18.2 | 81.8 | 27 | 29.6 | 70.4 |
| | 퇴거자 | 21 | 23.8 | 76.2 | 16 | 18.8 | 81.3 |

| 구분 | | 직무지원인, 근로지원인, 멘토서비스 | | | | | |
|---|---|---|---|---|---|---|---|
| | | 지원 여부 | | | 지원 희망 여부 | | |
| | | 사례수 | 받음 | 받지 않음 | 사례수 | 희망 | 비희망 |
| 전체 | | 54 | 31.5 | 68.5 | 37 | 29.7 | 70.3 |
| 성별 | 남성 | 33 | 33.3 | 66.7 | 22 | 22.7 | 77.3 |
| | 여성 | 21 | 28.6 | 71.4 | 15 | 40.0 | 6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19 | 31.6 | 68.4 | 13 | 30.8 | 69.2 |
| | 정신적장애 | 35 | 31.4 | 68.6 | 24 | 29.2 | 70.8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33 | 27.3 | 72.7 | 24 | 33.3 | 66.7 |
| | 퇴거자 | 21 | 38.1 | 61.9 | 13 | 23.1 | 76.9 |

| 구분 | | 근무지역 변경 | | | | | |
|---|---|---|---|---|---|---|---|
| | | 지원 여부 | | | 지원 희망 여부 | | |
| | | 사례수 | 받음 | 받지 않음 | 사례수 | 희망 | 비희망 |
| 전체 | | 54 | 16.7 | 83.3 | 45 | 15.6 | 84.4 |
| 성별 | 남성 | 33 | 18.2 | 81.8 | 27 | 11.1 | 88.9 |
| | 여성 | 21 | 14.3 | 85.7 | 18 | 22.2 | 77.8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19 | 26.3 | 73.7 | 14 | 14.3 | 85.7 |
| | 정신적장애 | 35 | 11.4 | 88.6 | 31 | 16.1 | 83.9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33 | 9.1 | 90.9 | 30 | 16.7 | 83.3 |
| | 퇴거자 | 21 | 28.6 | 71.4 | 15 | 13.3 | 86.7 |

| 구분 | | 출퇴근 이동지원 | | | | | |
|---|---|---|---|---|---|---|---|
| | | 지원 여부 | | | 지원 희망 여부 | | |
| | | 사례수 | 받음 | 받지 않음 | 사례수 | 희망 | 비희망 |
| 전체 | | 54 | 22.2 | 77.8 | 42 | 35.7 | 64.3 |
| 성별 | 남성 | 33 | 27.3 | 72.7 | 24 | 33.3 | 66.7 |
| | 여성 | 21 | 14.3 | 85.7 | 18 | 38.9 | 61.1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19 | 31.6 | 68.4 | 13 | 46.2 | 53.8 |
| | 정신적장애 | 35 | 17.1 | 82.9 | 29 | 31.0 | 69.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33 | 27.3 | 72.7 | 24 | 37.5 | 62.5 |
| | 퇴거자 | 21 | 14.3 | 85.7 | 18 | 33.3 | 66.7 |

| 구분 | | 장애인 채용 시 과정 단순화 등 배려 제공 | | | | | |
|---|---|---|---|---|---|---|---|
| | | 지원 여부 | | | 지원 희망 여부 | | |
| | | 사례수 | 받음 | 받지 않음 | 사례수 | 희망 | 비희망 |
| 전체 | | 54 | 35.2 | 64.8 | 35 | 25.7 | 74.3 |
| 성별 | 남성 | 33 | 30.3 | 69.7 | 23 | 21.7 | 78.3 |
| | 여성 | 21 | 42.9 | 57.1 | 12 | 33.3 | 66.7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19 | 47.4 | 52.6 | 10 | 40.0 | 60.0 |
| | 정신적장애 | 35 | 28.6 | 71.4 | 25 | 20.0 | 8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33 | 33.3 | 66.7 | 22 | 22.7 | 77.3 |
| | 퇴거자 | 21 | 38.1 | 61.9 | 13 | 30.8 | 69.2 |

| 구분 | | 유급휴가, 병가 등 복리후생제도 제공 | | | | | |
|---|---|---|---|---|---|---|---|
| | | 지원 여부 | | | 지원 희망 여부 | | |
| | | 사례수 | 받음 | 받지 않음 | 사례수 | 희망 | 비희망 |
| 전체 | | 54 | 31.5 | 68.5 | 37 | 32.4 | 67.6 |
| 성별 | 남성 | 33 | 30.3 | 69.7 | 23 | 26.1 | 73.9 |
| | 여성 | 21 | 33.3 | 66.7 | 14 | 42.9 | 57.1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19 | 31.6 | 68.4 | 13 | 38.5 | 61.5 |
| | 정신적장애 | 35 | 31.4 | 68.6 | 24 | 29.2 | 70.8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33 | 27.3 | 72.7 | 24 | 29.2 | 70.8 |
| | 퇴거자 | 21 | 38.1 | 61.9 | 13 | 38.5 | 61.5 |

| 구분 | | 장애근로자를 위한 고충처리자나 노무관리사 면담 | | | | | |
|---|---|---|---|---|---|---|---|
| | | 지원 여부 | | | 지원 희망 여부 | | |
| | | 사례수 | 받음 | 받지 않음 | 사례수 | 희망 | 비희망 |
| 전체 | | 54 | 27.8 | 72.2 | 39 | 25.6 | 74.4 |
| 성별 | 남성 | 33 | 27.3 | 72.7 | 24 | 25.0 | 75.0 |
| | 여성 | 21 | 28.6 | 71.4 | 15 | 26.7 | 73.3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19 | 31.6 | 68.4 | 13 | 23.1 | 76.9 |
| | 정신적장애 | 35 | 25.7 | 74.3 | 26 | 26.9 | 73.1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33 | 30.3 | 69.7 | 23 | 26.1 | 73.9 |
| | 퇴거자 | 21 | 23.8 | 76.2 | 16 | 25.0 | 75.0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 2) 직장이 없는 응답자

### (1) 주관적 근로 역량

직장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근로 역량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을 할 수 있다'가 28.9%로 '일을 할 수 없다'(71.1%)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전년도(53.8%) 대비 24.9%p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1〉 자신의 근로 역량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일을 할 수 있다 | 일을 할 수 없다 |
|---|---|---|---|---|
| 해당연도 | 2018년 | 91 | 42.9 | 57.1 |
| | 2019년 | 102 | 42.2 | 57.8 |
| | 2020년 | 80 | 53.8 | 46.3 |
| | 2021년 | 83 | 28.9 | 71.1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일을 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2.4%로 남성(70.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응답자의 경우 '일을 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82.9%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응답자(62.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살펴보면, 퇴거자의 경우 '일을 할 수 없다고'한 비율이 80.6%로 '이용자 등'(63.8%)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4-232〉 자신의 근로 역량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일을 할 수 있다 | 일을 할 수 없다 |
|---|---|---|---|---|
| 전체 | | 83 | 28.9 | 71.1 |
| 성별 | 남성 | 54 | 29.6 | 70.4 |
| | 여성 | 29 | 27.6 | 72.4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35 | 17.1 | 82.9 |
| | 정신적장애 | 48 | 37.5 | 62.5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47 | 36.2 | 63.8 |
| | 퇴거자 | 36 | 19.4 | 80.6 |

### (2) 근로 지원 필요 여부 및 항목

현재 직장이 없으나 일을 할 수 있다고 한 응답자 중 91.7%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작업환경 변화, 보조장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5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년도(88.4%)에 비해 증가하였고, 가장 필요한 항목은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3〉 근로 지원 필요 여부 및 항목 (1순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필요 여부* | | 항목** | | | | | | | |
|---|---|---|---|---|---|---|---|---|---|---|---|---|
| | | | 필요함 | 필요치 않음 |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 탄력근무제, 근무시간 조정 | 직업훈련/재훈련 | 직무수행을 위한 보조기기 | 장애 맞춤형 작업환경 | 특별(무료) 운송수단이나 주차공간 | 직무수정 및 할당변경 | 기숙사 제공 |
| 해당 연도 | 2018년 | 39 | 76.9 | 23.1 | 60.0 | 0.0 | 13.3 | 3.3 | 23.3 | 0.0 | 0.0 | 0.0 |
| | 2019년 | 43 | 83.7 | 16.3 | 55.6 | 11.1 | 11.1 | 2.8 | 13.9 | 0.0 | 2.8 | 2.8 |
| | 2020년 | 43 | 88.4 | 11.6 | 57.9 | 18.4 | 5.3 | 5.3 | 13.2 | 0.0 | 0.0 | 0.0 |
| | 2021년 | 24 | 91.7 | 8.3 | 59.1 | 13.6 | 13.6 | 4.5 | 4.5 | 4.5 | 0.0 | 0.0 |

* 주관적 근로 역량에 '일을 할 수 있다'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 근로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해 '필요함'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성별로 남성의 경우 100.0%가 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75.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의 경우 100.0%가 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정신적 장애의 경우 88.9%가 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의 88.2%가 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퇴거자의 100.0%가 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지원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가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된 가운데, 여성의 경우 '탄력근무제,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33.3%로 높게 나타났다.

〈표 4-234〉 근로 지원 필요 여부 및 항목 (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필요 여부* | | 항목** | | | | | |
|---|---|---|---|---|---|---|---|---|---|---|
| | | | 필요함 | 필요치 않음 |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 탄력 근무제, 근무 시간 조정 | 직업 훈련/ 재훈련 | 직무 수행을 위한 보조 기기 | 장애 맞춤형 작업 환경 | 특별 (무료) 운송수단이나 주차공간 |
| 전체 | | 24 | 91.7 | 8.3 | 59.1 | 13.6 | 13.6 | 4.5 | 4.5 | 4.5 |
| 성별 | 남성 | 16 | 100.0 | 0.0 | 68.8 | 6.3 | 12.5 | 6.3 | 6.3 | 0.0 |
| | 여성 | 8 | 75.0 | 25.0 | 33.3 | 33.3 | 16.7 | 0.0 | 0.0 | 16.7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6 | 100.0 | 0.0 | 50.0 | 16.7 | 16.7 | 16.7 | 0.0 | 0.0 |
| | 정신적장애 | 18 | 88.9 | 11.1 | 62.5 | 12.5 | 12.5 | 0.0 | 6.3 | 6.3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7 | 88.2 | 11.8 | 60.0 | 13.3 | 13.3 | 0.0 | 6.7 | 6.7 |
| | 퇴거자 | 7 | 100.0 | 0.0 | 57.1 | 14.3 | 14.3 | 14.3 | 0.0 | 0.0 |

* 주관적 근로 역량에 '일을 할 수 있다'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 근로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해 '필요함'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 (3) 구직활동

현재 직장이 없으나 일을 할 수 있다고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83.3%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비율은 전년도(88.4%)에 비해 5.1%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5〉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 여부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알아보았다 | 직장을 구하지 않았다 | 모름/ 무응답 |
|---|---|---|---|---|---|
| 해당연도 | 2018년 | 39 | 12.8 | 84.6 | 2.6 |
| | 2019년 | 43 | 9.3 | 90.7 | 0.0 |
| | 2020년 | 43 | 11.6 | 88.4 | 0.0 |
| | 2021년 | 24 | 16.7 | 83.3 | 0.0 |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의 경우 각각 81.3%, 87.5%가 직장을 구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의 경우 50.0%가 직장을 구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정신적 장애의 경우 94.4%로 조사되었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의 94.1%가, 퇴거자의 경우 57.1%가 직장을 구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표 4-236〉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 여부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알아보았다 | 직장을 구하지 않았다 |
|---|---|---|---|---|
| 전체 | | 24 | 16.7 | 83.3 |
| 성별 | 남성 | 16 | 18.8 | 81.3 |
| | 여성 | 8 | 12.5 | 87.5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6 | 50.0 | 50.0 |
| | 정신적장애 | 18 | 5.6 | 94.4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7 | 5.9 | 94.1 |
| | 퇴거자 | 7 | 42.9 | 57.1 |

### 3)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응답자

#### (1)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업을 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타를 제외하면 '자격요건이나 직업관련 경험 또는 기술 부족'이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장애나 질병 등 건강상 문제로 인해'와 '장애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해'가 각 15.0%로 높게 나타났다.

〈표 4-237〉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1순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자격 요건이나 직업관련 경험 또는 기술 부족으로 | 장애나 질병 등 건강상 문제로 인해 | 장애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 학업 및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고 싶어서 | 나이가 너무 많아서/ 어려서 |
|---|---|---|---|---|---|---|---|
| 해당연도 | 2018년 | 33 | 18.2 | 27.3 | 9.1 | 6.1 | 6.1 |
| | 2019년 | 39 | 33.3 | 20.5 | 12.8 | 17.9 | 0.0 |
| | 2020년 | 38 | 26.3 | 21.1 | 7.9 | 5.3 | 2.6 |
| | 2021년 | 20 | 25.0 | 15.0 | 15.0 | 10.0 | 5.0 |

| 구분 | | 사례수 | 가족에 대한 양육/ 돌봄으로 인해 | 시간이나 임금이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 받고 있는 복지 혜택에 영향을 줄까봐 | 고용주/ 동료의 장애인식 부족 및 차별로 인해 | 기타* | 모름/ 무응답 |
|---|---|---|---|---|---|---|---|---|
| 해당연도 | 2018년 | 33 | 0.0 | 12.1 | 9.1 | 3.0 | 6.1 | 3.0 |
| | 2019년 | 39 | 0.0 | 0.0 | 10.3 | 0.0 | 5.1 | 0.0 |
| | 2020년 | 38 | 0.0 | 10.5 | 13.2 | 2.6 | 10.5 | 0.0 |
| | 2021년 | 20 | 5.0 | 5.0 | 0.0 | 0.0 | 20.0 | 0.0 |

*기타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등이 있음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자격요건이나 직업관련 경험 또는 기술부족으로', '장애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해'가 각 23.1%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자격요건이나 직업관련 경험 또는 기술부족으로'와 '장애나 질병 등 건강상 문제로 인해'가 각 28.6%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장애의 경우 기타를 제외하면 '장애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해'가 33.3%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의 경우 '자격요건이나 직업관련 경험 또는 기술부족으로'가 29.4%로 높게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살펴보면, '이용자 등'의 경우 '자격요건이나 직업관련 경험 또는 기술부족으로'가 25.0%로 높게 나타났으며, 퇴거자의 경우 기타를 제외하면 '자격요건이나 직업관련 경험 또는 기술부족으로'와 '장애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해'가 각 25.0%로 높게 나타났다.

〈표 4-238〉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자격요건이나 직업관련 경험 또는 기술 부족으로 | 장애나 질병 등 건강상 문제로 인해 | 장애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 학업 및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고 싶어서 |
|---|---|---|---|---|---|---|
| 전체 | | 20 | 25.0 | 15.0 | 15.0 | 10.0 |
| 성별 | 남성 | 13 | 23.1 | 7.7 | 23.1 | 7.7 |
| | 여성 | 7 | 28.6 | 28.6 | 0.0 | 14.3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3 | 0.0 | 0.0 | 33.3 | 0.0 |
| | 정신적장애 | 17 | 29.4 | 17.6 | 11.8 | 11.8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6 | 25.0 | 18.8 | 12.5 | 12.5 |
| | 퇴거자 | 4 | 25.0 | 0.0 | 25.0 | 0.0 |

| 구분 | | 사례수 | 나이가 너무 많아서/ 어려서 | 가족에 대한 양육/돌봄으로 인해 | 시간이나 임금이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 기타* |
|---|---|---|---|---|---|---|
| 전체 | | 20 | 5.0 | 5.0 | 5.0 | 20.0 |
| 성별 | 남성 | 13 | 7.7 | 7.7 | 0.0 | 23.1 |
| | 여성 | 7 | 0.0 | 0.0 | 14.3 | 14.3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3 | 0.0 | 0.0 | 0.0 | 66.7 |
| | 정신적장애 | 17 | 5.9 | 5.9 | 5.9 | 11.8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6 | 6.3 | 6.3 | 6.3 | 12.5 |
| | 퇴거자 | 4 | 0.0 | 0.0 | 0.0 | 50.0 |

*기타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등이 있음

### (2)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동안 실시한 활동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동안 실시한 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재충전을 위한 휴식',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참여', '문화/예술/창작활동 참여'가 각 15.0%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참여'가 전년도(2.6%) 대비 12.4%p 증가한 반면, '재충전을 위한 휴식'은 전년도(28.9%) 대비 13.9%p 감소하였다.

〈표 4-239〉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동안 실시한 활동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아무것도 하지 않음 | 재충전을 위한 휴식 |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참여 | 문화/예술/창작활동 참여 | 자원봉사 활동 참여 | 공부를 위해 학교/대학교에 입학 | 직업훈련 | 집안일 혹은 가족구성원 양육/돌봄 | 여행/휴가/레저활동 | 자격증 준비 | 기타 | 모름/무응답 |
|---|---|---|---|---|---|---|---|---|---|---|---|---|---|---|
| 해당 연도 | 2018년 | 33 | 33.3 | 6.1 | 9.1 | 15.2 | 3.0 | 3.0 | 0.0 | 0.0 | 3.0 | 0.0 | 24.2 | 3.0 |
| | 2019년 | 39 | 35.9 | 15.4 | 10.3 | 5.1 | 0.0 | 7.7 | 15.4 | 2.6 | 5.1 | 2.6 | 0.0 | 0.0 |
| | 2020년 | 38 | 18.4 | 28.9 | 2.6 | 5.3 | 0.0 | 15.8 | 13.2 | 10.5 | 5.3 | 0.0 | 0.0 | 0.0 |
| | 2021년 | 20 | 20.0 | 15.0 | 15.0 | 15.0 | 10.0 | 10.0 | 5.0 | 0.0 | 0.0 | 0.0 | 10.0 | 0.0 |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참여'가 28.6%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응답자의 경우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참여'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신적 장애를 가진 응답자의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음', '재충전을 위한 휴식', '문화/예술/창작활동 참여'가 각 17.6%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살펴보면, '이용자 등'의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음', '재충전을 위한 휴식',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참여'가 각 18.8%로 높게 나타났고, 퇴거자의 경우 '문화/예술/창작활동 참여'가 50.0%로 높게 나타났다.

〈표 4-240〉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동안 실시한 활동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아무것도 하지 않음 | 재충전을 위한 휴식 |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참여 | 문화/예술/창작 활동 참여 | 자원봉사 활동 참여 | 공부를 위해 학교/대학교 입학 | 직업훈련 | 기타 |
|---|---|---|---|---|---|---|---|---|---|---|
| 전체 | | 20 | 20.0 | 15.0 | 15.0 | 15.0 | 10.0 | 10.0 | 5.0 | 10.0 |
| 성별 | 남성 | 13 | 30.8 | 15.4 | 7.7 | 15.4 | 7.7 | 7.7 | 7.7 | 7.7 |
| | 여성 | 7 | 0.0 | 14.3 | 28.6 | 14.3 | 14.3 | 14.3 | 0.0 | 14.3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3 | 33.3 | 0.0 | 66.7 | 0.0 | 0.0 | 0.0 | 0.0 | 0.0 |
| | 정신적장애 | 17 | 17.6 | 17.6 | 5.9 | 17.6 | 11.8 | 11.8 | 5.9 | 11.8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6 | 18.8 | 18.8 | 18.8 | 6.3 | 6.3 | 12.5 | 6.3 | 12.5 |
| | 퇴거자 | 4 | 25.0 | 0.0 | 0.0 | 50.0 | 25.0 | 0.0 | 0.0 | 0.0 |

### (3) 향후 구직 의향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구직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구직 의향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55.0%로 나타났고, '잘 모르겠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5.0%로 나타났다. 반면, 향후 구직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구직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전년도(76.3%)에 비해 약 21.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1〉 향후 구직 의향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예 | 아니요 | 잘 모르겠음 |
|---|---|---|---|---|---|
| 해당연도 | 2018년 | 33 | 66.7 | 6.1 | 27.3 |
| | 2019년 | 39 | 89.7 | 2.6 | 7.7 |
| | 2020년 | 38 | 76.3 | 5.3 | 18.4 |
| | 2021년 | 20 | 55.0 | 20.0 | 25.0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57.1%),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100.0%), 자립생활주택 이용여부별로는 퇴거자(75.0%)의 경우 구직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242〉 향후 구직 의향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예 | 아니요 | 잘 모르겠음 |
|---|---|---|---|---|---|
| 전체 | | 20 | 55.0 | 20.0 | 25.0 |
| 성별 | 남성 | 13 | 53.8 | 15.4 | 30.8 |
| | 여성 | 7 | 57.1 | 28.6 | 14.3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3 | 100.0 | 0.0 | 0.0 |
| | 정신적장애 | 17 | 47.1 | 23.5 | 29.4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6 | 50.0 | 25.0 | 25.0 |
| | 퇴거자 | 4 | 75.0 | 0.0 | 25.0 |

### 4) 고용 소결

고용과 관련하여 근로형태와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임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비율이 63.3%이며, 상용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가 68.0%로 나타났다[39]. 직업유형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49.3%를 차지하며, 근속기간은 '1년 미만'이 50.7%에 해당된다. 소득은 48.0%가 '5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직장만족도'는 87.5%가 만족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총 보수'(68.8%)와 '나의 발전 가능성'(68.8%)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근로나 고용유지를 위해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사항으로는 '근무 및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비율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작업량이나 직무조정'(55.6%), '고용주와 동료들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50.0%), '유급휴가, 병가 등 복리후생제도 제공'(50.0%), '장애근로자를 위한 고충처리자나 노무관리사 면담'(54.2%) 또한 응답자 중 절반 이상 지원 받기를 희망하였다.

직장이 없는 응답자 중 53.8%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이 중 11.6%만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88.4%는 근로를 위해 작업환경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9) 전체 근로자 중 36시간 미만 근로자가 84.8%를 차지함

## 12 경제상황

### 1) 소득

#### (1) 개인 소득

개인의 월평균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84.2%(월평균 소득 없음 3.5% 포함)가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3〉 개인 월평균소득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50만원 이하 | 50만원~100만원 이하 | 100만원~200만원 이하 | 200만원 초과 | 없음 | 모름/무응답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15.3 | 70.1 | 9.7 | 1.4 | 2.1 | 1.4 |
| | 2019년 | 152 | 15.1 | 65.8 | 14.5 | 1.3 | 3.3 | 0.0 |
| | 2020년 | 159 | 19.5 | 44.7 | 15.7 | 0.6 | 19.5 | 0.0 |
| | 2021년 | 171 | 21.1 | 59.6 | 14.6 | 1.2 | 3.5 | 0.0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정신적 장애'와 '이용자 등'의 경우 '50만원 이하(소득 없음 포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적 장애'와 '퇴거자'의 경우 '100만원~200만원 이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244〉 개인 월평균소득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50만원 이하 | 50만원~100만원 이하 | 100만원~200만원 이하 | 200만원 초과 | 없음 | 모름/무응답 |
|---|---|---|---|---|---|---|---|---|
| 전체 | | 171 | 21.1 | 59.6 | 14.6 | 1.2 | 3.5 | 0.0 |
| 성별 | 남성 | 105 | 21.9 | 60.0 | 13.3 | 1.9 | 2.9 | 0.0 |
| | 여성 | 66 | 19.7 | 59.1 | 16.7 | 0.0 | 4.5 | 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12.1 | 58.6 | 19.0 | 3.4 | 6.9 | 0.0 |
| | 정신적장애 | 113 | 25.7 | 60.2 | 12.4 | 0.0 | 1.8 | 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22.9 | 63.3 | 9.2 | 0.9 | 3.7 | 0.0 |
| | 퇴거자 | 62 | 17.7 | 53.2 | 24.2 | 1.6 | 3.2 | 0.0 |

### (2) 가구 소득

조사 대상자 가구 소득 유무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가 가구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5〉 가구 소득 유무(총) - 연도별

(단위: 명, %, 만원)

| 구분 | | 사례수 | 소득 유무 | | |
|---|---|---|---|---|---|
| | | | 있음 | 없음 | 모름/무응답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90.3 | 9.7 | 0.0 |
| | 2019년 | 152 | 97.4 | 2.0 | 0.7 |
| | 2020년 | 159 | 57.9 | 0.6 | 41.5 |
| | 2021년 | 171 | 100.0 | 0.0 | 0.0 |

〈표 4-246〉 가구 소득 유무(총)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만원)

| 구분 | | 사례수 | 소득 유무 | | |
|---|---|---|---|---|---|
| | | | 있음 | 없음 | 모름/무응답 |
| 전체 | | 171 | 100.0 | 0.0 | 0.0 |
| 성별 | 남성 | 105 | 100.0 | 0.0 | 0.0 |
| | 여성 | 66 | 100.0 | 0.0 | 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100.0 | 0.0 | 0.0 |
| | 정신적장애 | 113 | 100.0 | 0.0 | 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100.0 | 0.0 | 0.0 |
| | 퇴거자 | 62 | 100.0 | 0.0 | 0.0 |

조사대상자 가구 소득 유무를 영역별로 조사한 결과, 소득이 발생하는 영역은 '공적이전소득'이 90.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근로소득'(66.1%), '개인재산/금융/연금 소득'(35.7%), '사적이전소득'(32.7%), '사업/부업소득'(32.2%), '비경상소득'(32.2%)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47〉 가구 소득 유무(영역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만원)

| 구분 | | 사례수 | 근로소득 | | 사업/부업소득 | |
|---|---|---|---|---|---|---|
| | | | 소득 유무 | | 소득 유무 | |
| | | | 있음 | 없음 | 있음 | 없음 |
| 전체 | | 171 | 66.1 | 33.9 | 32.2 | 67.8 |
| 성별 | 남성 | 105 | 64.8 | 35.2 | 34.3 | 65.7 |
| | 여성 | 66 | 68.2 | 31.8 | 28.8 | 71.2 |
| 장애유형 | 신체장애 | 58 | 62.1 | 37.9 | 25.9 | 74.1 |
| | 정신장애 | 113 | 68.1 | 31.9 | 35.4 | 64.6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68.8 | 31.2 | 38.5 | 61.5 |
| | 퇴거자 | 62 | 61.3 | 38.7 | 21.0 | 79.0 |

| 구분 | | 사례수 | 개인재산/금융/연금 소득 | | 사적이전소득 | |
|---|---|---|---|---|---|---|
| | | | 소득 유무 | | 소득 유무 | |
| | | | 있음 | 없음 | 있음 | 없음 |
| 전체 | | 171 | 35.7 | 64.3 | 32.7 | 67.3 |
| 성별 | 남성 | 105 | 37.1 | 62.9 | 36.2 | 63.8 |
| | 여성 | 66 | 33.3 | 66.7 | 27.3 | 72.7 |
| 장애유형 | 신체장애 | 58 | 29.3 | 70.7 | 27.6 | 72.4 |
| | 정신장애 | 113 | 38.9 | 61.1 | 35.4 | 64.6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44.0 | 56.0 | 38.5 | 61.5 |
| | 퇴거자 | 62 | 21.0 | 79.0 | 22.6 | 77.4 |

| 구분 | | 사례수 | 공적이전소득 | | 비경상소득 | |
|---|---|---|---|---|---|---|
| | | | 소득 유무 | | 소득 유무 | |
| | | | 있음 | 없음 | 있음 | 없음 |
| 전체 | | 171 | 90.6 | 9.4 | 32.2 | 67.8 |
| 성별 | 남성 | 105 | 92.4 | 7.6 | 35.2 | 64.8 |
| | 여성 | 66 | 87.9 | 12.1 | 27.3 | 72.7 |
| 장애유형 | 신체장애 | 58 | 93.1 | 6.9 | 25.9 | 74.1 |
| | 정신장애 | 113 | 89.4 | 10.6 | 35.4 | 64.6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89.9 | 10.1 | 37.6 | 62.4 |
| | 퇴거자 | 62 | 91.9 | 8.1 | 22.6 | 77.4 |

## 2) 생활비

### (1) 가구 생활비

조사 대상자 가구의 생활비 지출 유무를 조사한 결과, 모든 응답자의 가구에서 생활비의 지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8〉 가구 지출 유무(총) - 연도별

(단위: 명, %, 만원)

| 구분 | | 사례수 | 지출 유무 | | |
|---|---|---|---|---|---|
| | | | 있음 | 없음 | 모름/무응답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97.2 | 1.4 | 1.4 |
| | 2019년 | 152 | 99.3 | 0.0 | 0.7 |
| | 2020년 | 159 | 89.3 | 1.3 | 9.4 |
| | 2021년 | 171 | 100.0 | 0.0 | 0.0 |

〈표 4-249〉 가구 지출 유무(총)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만원)

| 구분 | | 사례수 | 지출 유무 | | |
|---|---|---|---|---|---|
| | | | 있음 | 없음 | 모름/무응답 |
| 전체 | | 171 | 100.0 | 0.0 | 0.0 |
| 성별 | 남성 | 105 | 100.0 | 0.0 | 0.0 |
| | 여성 | 66 | 100.0 | 0.0 | 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100.0 | 0.0 | 0.0 |
| | 정신적장애 | 113 | 100.0 | 0.0 | 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100.0 | 0.0 | 0.0 |
| | 퇴거자 | 62 | 100.0 | 0.0 | 0.0 |

가구의 생활비 지출 유무를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출이 발생하는 영역은 식료품비가 100.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생필품비'(86.5%), '교통/통신비'와 '의류비'가 각각 8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육 및 교육비'는 36.3%, '보조기기 구입, 유지비'는 36.8%로 상대적으로 지출 발생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4-250〉 가구 지출 유무(영역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만원)

| 구분 | | 사례수 | 식료품비 | | | 집세,월세 | | | 의류비 | | |
|---|---|---|---|---|---|---|---|---|---|---|---|
| | | | 지출 유무 | | | 지출 유무 | | | 지출 유무 | | |
| | | | 있음 | 없음 | 모름/무응답 | 있음 | 없음 | 모름/무응답 | 있음 | 없음 | 모름/무응답 |
| 전체 | | 171 | 100.0 | 0.0 | 0.0 | 52.6 | 47.4 | 0.0 | 84.8 | 15.2 | 0.0 |
| 성별 | 남성 | 105 | 100.0 | 0.0 | 0.0 | 57.1 | 42.9 | 0.0 | 79.0 | 21.0 | 0.0 |
| | 여성 | 66 | 100.0 | 0.0 | 0.0 | 45.5 | 54.5 | 0.0 | 93.9 | 6.1 | 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100.0 | 0.0 | 0.0 | 65.5 | 34.5 | 0.0 | 70.7 | 29.3 | 0.0 |
| | 정신적장애 | 113 | 100.0 | 0.0 | 0.0 | 46.0 | 54.0 | 0.0 | 92.0 | 8.0 | 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100.0 | 0.0 | 0.0 | 37.6 | 62.4 | 0.0 | 89.0 | 11.0 | 0.0 |
| | 퇴거자 | 62 | 100.0 | 0.0 | 0.0 | 79.0 | 21.0 | 0.0 | 77.4 | 22.6 | 0.0 |

| 구분 | | 사례수 | 보육 및 교육비 | | | 보건의료비 | | | 주거관련 비용 | | |
|---|---|---|---|---|---|---|---|---|---|---|---|
| | | | 지출 유무 | | | 지출 유무 | | | 지출 유무 | | |
| | | | 있음 | 없음 | 모름/무응답 | 있음 | 없음 | 모름/무응답 | 있음 | 없음 | 모름/무응답 |
| 전체 | | 171 | 36.3 | 63.7 | 0.0 | 59.6 | 40.4 | 0.0 | 59.1 | 40.9 | 0.0 |
| 성별 | 남성 | 105 | 36.2 | 63.8 | 0.0 | 61.9 | 38.1 | 0.0 | 63.8 | 36.2 | 0.0 |
| | 여성 | 66 | 36.4 | 63.6 | 0.0 | 56.1 | 43.9 | 0.0 | 51.5 | 48.5 | 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25.9 | 74.1 | 0.0 | 65.5 | 34.5 | 0.0 | 70.7 | 29.3 | 0.0 |
| | 정신적장애 | 113 | 41.6 | 58.4 | 0.0 | 56.6 | 43.4 | 0.0 | 53.1 | 46.9 | 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36.7 | 63.3 | 0.0 | 54.1 | 45.9 | 0.0 | 45.0 | 55.0 | 0.0 |
| | 퇴거자 | 62 | 35.5 | 64.5 | 0.0 | 69.4 | 30.6 | 0.0 | 83.9 | 16.1 | 0.0 |

| 구분 | | 사례수 | 교통/통신비 | | | 교양/오락비 | | | 생필품비 | | |
|---|---|---|---|---|---|---|---|---|---|---|---|
| | | | 지출 유무 | | | 지출 유무 | | | 지출 유무 | | |
| | | | 있음 | 없음 | 모름/무응답 | 있음 | 없음 | 모름/무응답 | 있음 | 없음 | 모름/무응답 |
| 전체 | | 171 | 84.8 | 15.2 | 0.0 | 53.8 | 46.2 | 0.0 | 86.5 | 13.5 | 0.0 |
| 성별 | 남성 | 105 | 79.0 | 21.0 | 0.0 | 57.1 | 42.9 | 0.0 | 86.7 | 13.3 | 0.0 |
| | 여성 | 66 | 93.9 | 6.1 | 0.0 | 48.5 | 51.5 | 0.0 | 86.4 | 13.6 | 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77.6 | 22.4 | 0.0 | 41.4 | 58.6 | 0.0 | 79.3 | 20.7 | 0.0 |
| | 정신적장애 | 113 | 88.5 | 11.5 | 0.0 | 60.2 | 39.8 | 0.0 | 90.3 | 9.7 | 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90.8 | 9.2 | 0.0 | 54.1 | 45.9 | 0.0 | 87.2 | 12.8 | 0.0 |
| | 퇴거자 | 62 | 74.2 | 25.8 | 0.0 | 53.2 | 46.8 | 0.0 | 85.5 | 14.5 | 0.0 |

| 구분 | | 사례수 | 보조기기 구입, 유지비 | | | 기타생활비용 | | |
|---|---|---|---|---|---|---|---|---|
| | | | 지출 유무 | | | 지출 유무 | | |
| | | | 있음 | 없음 | 모름/무응답 | 있음 | 없음 | 모름/무응답 |
| 전체 | | 171 | 36.8 | 63.2 | 0.0 | 42.1 | 57.9 | 0.0 |
| 성별 | 남성 | 105 | 39.0 | 61.0 | 0.0 | 43.8 | 56.2 | 0.0 |
| | 여성 | 66 | 33.3 | 66.7 | 0.0 | 39.4 | 60.6 | 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41.4 | 58.6 | 0.0 | 41.4 | 58.6 | 0.0 |
| | 정신적장애 | 113 | 34.5 | 65.5 | 0.0 | 42.5 | 57.5 | 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35.8 | 64.2 | 0.0 | 38.5 | 61.5 | 0.0 |
| | 퇴거자 | 62 | 38.7 | 61.3 | 0.0 | 48.4 | 51.6 | 0.0 |

### (2) 가구 월평균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조사대상자 가구의 월평균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조사한 결과, '지출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0.9%로 전년도(10.7%) 대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지출의 발생 비율은 각각 38.6%, 36.8%이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출 발생 비율이 남성(40.0%), 정신적 장애(40.7%), 퇴거자(41.9%)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종 세금의 경우 마찬가지로 남성(40.0%), 정신적 장애(38.1%), 퇴거자(40.3%)의 경우 지출 발생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4-251〉 가구 월평균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 연도별

(단위: 명, %, 만원)

| 구분 | | 사례수 | 지출 유무 | | |
|---|---|---|---|---|---|
| | | | 있음 | 없음 | 모름/무응답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14.6 | 83.3 | 2.1 |
| | 2019년 | 152 | 10.5 | 88.8 | 0.7 |
| | 2020년 | 159 | 10.7 | 58.5 | 30.8 |
| | 2021년 | 171 | 40.9 | 59.1 | 0.0 |

〈표 4-252〉 가구 월평균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만원)

| 구분 | | 사례수 | 사회보험료 | | | 각종 세금 | | |
|---|---|---|---|---|---|---|---|---|
| | | | 지출 유무 | | | 지출 유무 | | |
| | | | 있음 | 없음 | 모름/무응답 | 있음 | 없음 | 모름/무응답 |
| 전체 | | 171 | 38.6 | 61.4 | 0.0 | 36.8 | 63.2 | 0.0 |
| 성별 | 남성 | 105 | 40.0 | 60.0 | 0.0 | 40.0 | 60.0 | 0.0 |
| | 여성 | 66 | 36.4 | 63.6 | 0.0 | 31.8 | 68.2 | 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34.5 | 65.5 | 0.0 | 34.5 | 65.5 | 0.0 |
| | 정신적장애 | 113 | 40.7 | 59.3 | 0.0 | 38.1 | 61.9 | 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36.7 | 63.3 | 0.0 | 34.9 | 65.1 | 0.0 |
| | 퇴거자 | 62 | 41.9 | 58.1 | 0.0 | 40.3 | 59.7 | 0.0 |

### (3) 가구 월평균 저축

조사대상자의 가구 중 저축을 하고 있는 비율은 81.9%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87.9%), 정신적 장애(92.0%), '이용자 등'(88.1%)의 경우 저축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253〉 가구 월평균 저축 - 연도별

(단위: 명, %, 만원)

| 구분 | | 사례수 | 저축 유무 | | |
|---|---|---|---|---|---|
| | | | 저축함 | 저축하지 않음 | 모름/무응답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74.3 | 22.9 | 2.8 |
| | 2019년 | 152 | 85.5 | 13.8 | 0.7 |
| | 2020년 | 159 | 76.1 | 12.6 | 11.3 |
| | 2021년 | 171 | 81.9 | 18.1 | 0.0 |

〈표 4-254〉 가구 월평균 저축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만원)

| 구분 | | 사례수 | 저축 유무 | | |
|---|---|---|---|---|---|
| | | | 저축함 | 저축하지 않음 | 모름/무응답 |
| 전체 | | 171 | 81.9 | 18.1 | 0.0 |
| 성별 | 남성 | 105 | 78.1 | 21.9 | 0.0 |
| | 여성 | 66 | 87.9 | 12.1 | 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62.1 | 37.9 | 0.0 |
| | 정신적장애 | 113 | 92.0 | 8.0 | 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88.1 | 11.9 | 0.0 |
| | 퇴거자 | 62 | 71.0 | 29.0 | 0.0 |

### (4) 가정 생활비 부담

가정에서 지출하는 생활비 중 부담되는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없음'(11.7%)를 제외하면, '식료품비'가 6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보건의료비'(8.2%), '집세, 월세'(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식료품비'가 전년도(59.7%)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생필품비'가 전년도(3.8%)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표 4-255〉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 (1순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식료품비 (외식비 포함) | 없음 | 보건 의료비 | 집세, 월세 | 교통/ 통신비 | 의류비 | 보육 및 교육비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57.6 | 12.5 | 2.8 | 2.1 | 12.5 | 2.1 | 0.7 |
| | 2019년 | 152 | 51.3 | 25.7 | 3.3 | 3.3 | 8.6 | 0.7 | 0.7 |
| | 2020년 | 159 | 59.7 | 14.5 | 1.9 | 5.7 | 5.0 | 1.9 | 1.9 |
| | 2021년 | 171 | 64.3 | 11.7 | 8.2 | 5.3 | 3.5 | 2.3 | 1.2 |

| 구분 | | 사례수 | 주거 관련 비용 | 교양/ 오락비 | 생필품비 | 보조기기 구입, 유지비 | 기타 생활 비용 | 모름/ 무응답 | 기타 |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1.4 | 1.4 | 6.3 | 0.0 | 0.0 | 0.7 | 0.0 |
| | 2019년 | 152 | 1.3 | 2.0 | 0.0 | 2.0 | 0.7 | 0.0 | 0.7 |
| | 2020년 | 159 | 1.3 | 0.6 | 3.8 | 2.5 | 0.0 | 0.0 | 1.3 |
| | 2021년 | 171 | 1.2 | 0.6 | 0.6 | 0.6 | 0.6 | 0.0 | 0.0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식료품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응답자와 자립생활주택 퇴거자의 경우 '보건의료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비교적 높게 조사되었다.

〈표 4-256〉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 (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식료품비 (외식비 포함) | 없음 | 보건 의료비 | 집세, 월세 | 교통/ 통신비 | 의류비 |
|---|---|---|---|---|---|---|---|---|
| 전체 | | 171 | 64.3 | 11.7 | 8.2 | 5.3 | 3.5 | 2.3 |
| 성별 | 남성 | 105 | 61.9 | 11.4 | 8.6 | 7.6 | 2.9 | 1.0 |
| | 여성 | 66 | 68.2 | 12.1 | 7.6 | 1.5 | 4.5 | 4.5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56.9 | 12.1 | 13.8 | 6.9 | 3.4 | 0.0 |
| | 정신적장애 | 113 | 68.1 | 11.5 | 5.3 | 4.4 | 3.5 | 3.5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71.6 | 11.0 | 6.4 | 2.8 | 2.8 | 3.7 |
| | 퇴거자 | 62 | 51.6 | 12.9 | 11.3 | 9.7 | 4.8 | 0.0 |

| 구분 | | 사례수 | 보육 및 교육비 | 주거 관련 비용 | 교양/ 오락비 | 생필품비 | 보조기기 구입, 유지비 | 기타 생활 비용 |
|---|---|---|---|---|---|---|---|---|
| 전체 | | 171 | 1.2 | 1.2 | 0.6 | 0.6 | 0.6 | 0.6 |
| 성별 | 남성 | 105 | 1.0 | 1.9 | 1.0 | 1.0 | 1.0 | 1.0 |
| | 여성 | 66 | 1.5 | 0.0 | 0.0 | 0.0 | 0.0 | 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3.4 | 0.0 | 0.0 | 0.0 | 1.7 | 1.7 |
| | 정신적장애 | 113 | 0.0 | 1.8 | 0.9 | 0.9 | 0.0 | 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0.0 | 0.0 | 0.9 | 0.0 | 0.9 | 0.0 |
| | 퇴거자 | 62 | 3.2 | 3.2 | 0.0 | 1.6 | 0.0 | 1.6 |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 (5) 경제 관련 의사결정자

생활비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자를 조사한 결과, '전적으로 내가 결정함'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의논해서 함께 결정'(31.6%), '주로 내가 결정하고, 주변인이 약간 돕는 정도임'(1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전적으로 내가 결정함'에 대한 비율이 전년도(42.8%)에 비해 감소한 반면, '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결정함'의 응답비율은 전년도(2.5%)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구입 및 이사에 대한 의사결정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의논해서 함께 결정'(42.7%), '전적으로 내가 결정함'(26.3%), '주로 내가 결정하고, 주변인이 약간 돕는 정도임'(14.0%)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결정함'의 비율은 전년도(5.0%) 대비 증가한 반면, '전적으로 내가 결정함'의 비율은 전년도(31.4%) 대비 감소하였다.

금전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자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의논해서 함께 결정'(45.0%), '전적으로 내가 결정함'(31.6%), '주로 내가 결정하고, 주변인이 약간 돕는 정도임'(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의논해서 함께 결정'의 비율은 전년도(38.4%) 대비 증가한 반면, '전적으로 내가 결정함'의 비율은 전년도(36.5%) 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57〉 경제 관련 의사결정자 - 연도별(2020, 2021)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전적으로 내가 결정함 | 주로 내가 결정하고, 주변인이 약간 돕는 정도임 | 가족과 의논해서 함께 결정 | 주로 가족이 결정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의논해서 함께 결정 | 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결정함 | 기타 |
|---|---|---|---|---|---|---|---|---|---|
| 생활비 지출 | | | | | | | | | |
| 해당연도 | 2020년 | 159 | 42.8 | 24.5 | 2.5 | 0.0 | 27.7 | 2.5 | 0.0 |
| | 2021년 | 171 | 35.7 | 19.3 | 1.2 | 1.2 | 31.6 | 9.9 | 1.2 |
| 주택구입 및 이사 | | | | | | | | | |
| 해당연도 | 2020년 | 159 | 31.4 | 17.6 | 2.5 | 0.6 | 40.9 | 5.0 | 1.9 |
| | 2021년 | 171 | 26.3 | 14.0 | 1.8 | 2.3 | 42.7 | 12.9 | 0.0 |
| 생활비 지출 | | | | | | | | | |
| 해당연도 | 2020년 | 159 | 36.5 | 18.2 | 1.9 | 1.9 | 38.4 | 3.1 | 1.9 |
| | 2021년 | 171 | 31.6 | 13.5 | 1.8 | 1.2 | 45.0 | 6.4 | 0.6 |

〈표 4-258〉 경제 관련 의사결정자 (1. 생활비 지출)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전적으로 내가 결정함 | 주로 내가 결정하고, 주변인이 약간 돕는 정도임 | 가족과 의논해서 함께 결정 | 주로 가족이 결정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의논해서 함께 결정 | 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결정함 | 기타 |
|---|---|---|---|---|---|---|---|---|---|
| 전체 | | 171 | 35.7 | 19.3 | 1.2 | 1.2 | 31.6 | 9.9 | 1.2 |
| 성별 | 남성 | 105 | 47.6 | 16.2 | 1.0 | 0.0 | 21.9 | 12.4 | 1.0 |
| | 여성 | 66 | 16.7 | 24.2 | 1.5 | 3.0 | 47.0 | 6.1 | 1.5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56.9 | 19.0 | 1.7 | 3.4 | 13.8 | 5.2 | 0.0 |
| | 정신적장애 | 113 | 24.8 | 19.5 | 0.9 | 0.0 | 40.7 | 12.4 | 1.8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27.5 | 20.2 | 0.9 | 0.0 | 38.5 | 11.0 | 1.8 |
| | 퇴거자 | 62 | 50.0 | 17.7 | 1.6 | 3.2 | 19.4 | 8.1 | 0.0 |

〈표 4-259〉 경제 관련 의사결정자 (2. 주택구입 및 이사)-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전적으로 내가 결정함 | 주로 내가 결정 하고, 주변인이 약간 돕는 정도임 | 가족과 의논해서 함께 결정 | 주로 가족이 결정함 |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와 의논해서 함께 결정 | 주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가 결정함 |
|---|---|---|---|---|---|---|---|---|
| 전체 | | 171 | 26.3 | 14.0 | 1.8 | 2.3 | 42.7 | 12.9 |
| 성별 | 남성 | 105 | 34.3 | 14.3 | 1.9 | 1.0 | 33.3 | 15.2 |
| | 여성 | 66 | 13.6 | 13.6 | 1.5 | 4.5 | 57.6 | 9.1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46.6 | 15.5 | 5.2 | 3.4 | 19.0 | 10.3 |
| | 정신적장애 | 113 | 15.9 | 13.3 | 0.0 | 1.8 | 54.9 | 14.2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16.5 | 14.7 | 0.0 | 1.8 | 53.2 | 13.8 |
| | 퇴거자 | 62 | 43.5 | 12.9 | 4.8 | 3.2 | 24.2 | 11.3 |

〈표 4-260〉 경제 관련 의사결정자 (3. 금전관리)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전적으로 내가 결정함 | 주로 내가 결정 하고, 주변인이 약간 돕는 정도임 | 가족과 의논해서 함께 결정 | 주로 가족이 결정함 |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와 의논해서 함께 결정 | 주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가 결정함 | 기타 |
|---|---|---|---|---|---|---|---|---|---|
| 전체 | | 171 | 31.6 | 13.5 | 1.8 | 1.2 | 45.0 | 6.4 | 0.6 |
| 성별 | 남성 | 105 | 41.0 | 14.3 | 1.0 | 0.0 | 37.1 | 6.7 | 0.0 |
| | 여성 | 66 | 16.7 | 12.1 | 3.0 | 3.0 | 57.6 | 6.1 | 1.5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56.9 | 13.8 | 3.4 | 3.4 | 17.2 | 3.4 | 1.7 |
| | 정신적장애 | 113 | 18.6 | 13.3 | 0.9 | 0.0 | 59.3 | 8.0 | 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22.0 | 13.8 | 0.9 | 0.0 | 56.0 | 7.3 | 0.0 |
| | 퇴거자 | 62 | 48.4 | 12.9 | 3.2 | 3.2 | 25.8 | 4.8 | 1.6 |

### 3) 경제상황 소결

응답자의 81.9%가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영역 중 '식료품비'(100.0%)의 지출 비율과 '식료품비'에 대한 부담률이 6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체적장애'와 '퇴거자'의 경우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이 각각 65.5%, '69.4%'로 평균(50.6%)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보건의료비'에 대한 부담률 또한 '13.8%', '11.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생활비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자를 지출 영역별로 살펴보면, 생활비 지출의 경우 응답자 '본인'이 주된 의사결정자라고 응답한 비율(전적으로 내가 결정함, 주로 내가 결정하고, 주변인이 약간 돕는 정도임)이 55.0%인 반면, 주택구입 및 이사, 금전관리의 경우는 각각 40.3%, 45.1%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경향이 있다. 응답자의 특성별로는 '여성', '정신적 장애', '이용자 등'이 경제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40]

40) 생활비 지출에 대한 주된 의사결정자를 '본인 외' 라고 응답한 비율(가족과 의논해서 함께 결정, 주로 가족이 결정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의논해서 함께 결정, 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결정함)은 '여성'(59.1%), '정신적 장애'(55.7%), '이용자 등'(52.3%)이며, 주택구입 및 이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본인 외'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72.8%), '정신적 장애'(70.8%), '이용자 등'(68.8%)임. 마지막으로 금전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본인 외'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71.2%), '정신적 장애'(68.1%), '이용자 등'(64.2%)임

## 13 사회참여

### 1) 복지서비스

#### (1) 장애인 복지서비스

24가지 장애인 복지서비스별로 이용률을 살펴본 결과, '장애인활동지원'이 8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장애인 연금'(82.5%), '에너지 바우처'(7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률이 10.0% 이상인 복지서비스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하는(만족하는 편임, 매우 만족) 비율이 높은 서비스로 '장애인의료비 지원'(96.0%), '가사/간병 방문 지원'(94.0%), '에너지 바우처'(90.0%) 등으로 나타난 반면,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72.7%)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남성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83.8%)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장애인 연금'(79.0%), '에너지 바우처'(6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장기요양'과 '장애인 창업지원'의 이용률은 각각 4.8%로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이용률이 10.0% 이상인 서비스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하는(만족하는 편임, 매우 만족) 비율이 높은 서비스로 '가사/간병 방문 지원'(94.4%), '장애인자립자금 대여'(92.9%), '이동통신요금 감면'(92.1%)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만족도는 69.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장애인 연금'의 이용률이 8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장애인활동지원'(84.8%) 순으로 나타난 반면, '노인장기요양',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 창업지원'의 이용률은 각각 1.5%로 낮게 조사되었다. 이용률이 10.0% 이상인 서비스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하는(만족하는 편임, 매우 만족) 비율이 높은 서비스로 '중증장애인지원고용'(100.0%), '장애인의료비 지원'(95.6%), '장애인 일자리사업'(95.0%)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62.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장애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의 이용률이 8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장애인 연금'(84.5%), '에너지 바우처'(79.3%)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노인장기요양'(5.2%)의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

었다. 이용률이 10.0% 이상인 서비스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하는(만족하는 편임, 매우 만족) 비율이 높은 서비스로 '가사/간병 방문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비수급자 초기정착 생계비 지원'의 만족도가 100.0%로 나타난 반면, '장애/장애아동 수당'의 만족도는 76.9%로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정신적 장애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82.3%), '장애인 연금'(81.4%), '에너지 바우처'(65.5%)의 순으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장애인 창업지원'(1.8%)의 이용률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용률이 10.0% 이상인 서비스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하는(만족하는 편임, 매우 만족) 비율이 높은 서비스로 '장애인의료비 지원'(98.4%), '장애인일자리사업'(96.9%),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90.0%)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만족도는 69.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살펴보면, '이용자 등'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85.3%), '장애인 연금'(82.6%), '에너지 바우처'(69.7%) 등의 순으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장애인 창업지원'의 이용률은 1.8%로 낮게 조사되었다. 이용률이 10.0% 이상인 서비스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하는(만족하는 편임, 매우 만족) 비율이 높은 서비스로 '장애인의료비 지원'(95.7%),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지원'과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의 만족도가 각각 92.3%로 높게 나타난 반면,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만족도는 66.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퇴거자의 경우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의 이용률이 각각 82.3%로 높게 나타난 반면, '노인장기요양'의 이용률은 3.2%로 낮게 나타났다. 이용률이 10.0% 이상인 서비스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하는(만족하는 편임, 매우 만족) 비율이 높은 서비스로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저소득장애인 진단/검사비 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전세자금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100.0%로 높게 나타났다.

〈표 4-261〉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률 및 만족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장애인 연금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77.1 | 111 | 4.5 | 25.2 | 58.6 | 11.7 |
| | 2019년 | 152 | 92.8 | 141 | 5.7 | 39.0 | 48.9 | 6.4 |
| | 2020년 | 159 | 85.5 | 136 | 4.4 | 25.7 | 57.4 | 12.5 |
| | 2021년 | 171 | 82.5 | 141 | 1.4 | 12.8 | 73.0 | 12.8 |

| 구분 |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15.3 | 22 | 0.0 | 13.6 | 68.2 | 18.2 |
| | 2019년 | 152 | 3.9 | 6 | 0.0 | 33.3 | 50.0 | 16.7 |
| | 2020년 | 159 | 34.6 | 55 | 9.1 | 7.3 | 74.5 | 9.1 |
| | 2021년 | 171 | 29.2 | 50 | 0.0 | 6.0 | 72.0 | 22.0 |

| 구분 | | 장애/장애아동 수당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53.5 | 77 | 5.2 | 41.6 | 42.9 | 9.1 |
| | 2019년 | 152 | 89.5 | 136 | 6.6 | 41.2 | 47.8 | 4.4 |
| | 2020년 | 159 | 60.4 | 96 | 8.3 | 28.1 | 47.9 | 15.6 |
| | 2021년 | 171 | 55.0 | 94 | 0.0 | 13.8 | 62.8 | 23.4 |

| 구분 | | 장애인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4.9 | 7 | 0.0 | 14.3 | 57.1 | 28.6 |
| | 2020년 | 152 | 0.0 | 10 | 20.0 | 20.0 | 40.0 | 20.0 |
| | 2021년 | 171 | 9.9 | 17 | 0.0 | 23.5 | 58.8 | 17.6 |

| 구분 | | 장애인활동지원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63.9 | 92 | 5.4 | 18.5 | 53.3 | 21.7 |
| | 2019년 | 152 | 74.3 | 113 | 7.1 | 32.7 | 49.6 | 10.6 |
| | 2020년 | 159 | 84.9 | 135 | 3.0 | 20.0 | 63.0 | 14.1 |
| | 2021년 | 171 | 84.2 | 144 | 7.6 | 10.4 | 58.3 | 23.6 |

| 구분 | | 에너지 바우처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50.0 | 72 | 4.2 | 12.5 | 72.2 | 11.1 |
| | 2019년 | 152 | 78.3 | 119 | 2.5 | 24.4 | 64.7 | 8.4 |
| | 2020년 | 159 | 78 | 124 | 1.6 | 12.9 | 70.2 | 15.3 |
| | 2021년 | 171 | 70.2 | 120 | 0.8 | 9.2 | 69.2 | 20.8 |

| 구분 |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6.3 | 9 | 0.0 | 22.2 | 33.3 | 44.4 |
| | 2019년 | 152 | 12.5 | 19 | 5.3 | 42.1 | 52.6 | 0.0 |
| | 2020년 | 159 | 17.0 | 27 | 14.8 | 29.6 | 40.7 | 14.8 |
| | 2021년 | 171 | 11.1 | 19 | 0.0 | 15.8 | 68.4 | 15.8 |

| 구분 |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25.0 | 36 | 5.6 | 16.7 | 58.3 | 19.4 |
| | 2019년 | 152 | 38.2 | 58 | 10.3 | 24.1 | 58.6 | 6.9 |
| | 2020년 | 159 | 38.4 | 61 | 1.6 | 32.8 | 50.8 | 14.8 |
| | 2021년 | 171 | 26.3 | 45 | 2.2 | 11.1 | 71.1 | 15.6 |

| 구분 | | 저소득장애인 진단/검사비 지원 | | | | | | |
|---|---|---|---|---|---|---|---|---|
| | | 이용률 | | | | 만족도*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19.4 | 28 | 0.0 | 7.1 | 60.7 | 28.6 |
| | 2019년 | 152 | 13.2 | 20 | 0.0 | 25.0 | 65.0 | 10.0 |
| | 2020년 | 159 | 61.0 | 97 | 2.1 | 16.5 | 68.0 | 13.4 |
| | 2021년 | 171 | 42.7 | 73 | 2.7 | 11.0 | 68.5 | 17.8 |

| 구분 |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 | | | | |
|---|---|---|---|---|---|---|---|---|
| | | 이용률 | | | | 만족도*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11.8 | 17 | 0.0 | 29.4 | 58.8 | 11.8 |
| | 2019년 | 152 | 33.6 | 51 | 2.0 | 17.6 | 72.5 | 7.8 |
| | 2020년 | 159 | 37.1 | 59 | 1.7 | 32.2 | 59.3 | 6.8 |
| | 2021년 | 171 | 36.3 | 62 | 1.6 | 11.3 | 74.2 | 12.9 |

| 구분 |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 | | | | |
|---|---|---|---|---|---|---|---|---|
| | | 이용률 | | | | 만족도*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2.1 | 3 | 0.0 | 0.0 | 100.0 | 0.0 |
| | 2019년 | 152 | 0.7 | 1 | 0.0 | 100.0 | 0.0 | 0.0 |
| | 2020년 | 159 | 7.5 | 12 | 0.0 | 16.7 | 58.3 | 25.0 |
| | 2021년 | 171 | 8.8 | 15 | 0.0 | 26.7 | 40.0 | 33.3 |

| 구분 | | 노인장기요양 | | | | | | |
|---|---|---|---|---|---|---|---|---|
| | | 이용률 | | | | 만족도*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0.7 | 1 | 0.0 | 0.0 | 0.0 | 100.0 |
| | 2019년 | 152 | 0.0 | 0 | 0.0 | 0.0 | 0.0 | 0.0 |
| | 2020년 | 159 | 2.5 | 4 | 25.0 | 50.0 | 25.0 | 0.0 |
| | 2021년 | 171 | 3.5 | 6 | 0.0 | 16.7 | 83.3 | 0.0 |

| 구분 | | 이동통신요금 감면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해당연도 | 2020년 | 159 | 80.5 | 128 | 3.9 | 18.8 | 59.4 | 18.0 |
| | 2021년 | 171 | 64.9 | 111 | 0.9 | 9.9 | 70.3 | 18.9 |

| 구분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해당연도 | 2020년 | 159 | 25.2 | 40 | 2.5 | 20.0 | 72.5 | 5.0 |
| | 2021년 | 171 | 19.9 | 34 | 2.9 | 11.8 | 67.7 | 17.6 |

| 구분 |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56.3 | 81 | 2.5 | 3.7 | 74.1 | 18.5 |
| | 2019년 | 152 | 59.2 | 90 | 2.2 | 8.9 | 61.1 | 27.8 |
| | 2020년 | 159 | 77.4 | 123 | 2.4 | 13.0 | 65.0 | 19.5 |
| | 2021년 | 171 | 59.1 | 101 | 2.0 | 2.0 | 70.3 | 25.7 |

| 구분 | | 장애인일자리사업(재정지원)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13.9 | 20 | 0.0 | 20.0 | 65.0 | 10.0 |
| | 2019년 | 152 | 22.4 | 34 | 0.0 | 17.6 | 67.6 | 14.7 |
| | 2020년 | 159 | 32.1 | 51 | 2.0 | 21.6 | 49.0 | 27.5 |
| | 2021년 | 171 | 29.8 | 51 | 2.0 | 3.9 | 72.5 | 21.6 |

| 구분 | | 중증장애인지원고용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0.7 | 1 | 0.0 | 100.0 | 0.0 | 0.0 |
| | 2020년 | 159 | 17 | 27 | 11.1 | 18.5 | 66.7 | 3.7 |
| | 2021년 | 171 | 18.1 | 31 | 6.5 | 6.5 | 64.5 | 22.6 |

| 구분 |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6.9 | 10 | 0.0 | 20.0 | 50.0 | 20.0 |
| | 2019년 | 152 | 12.5 | 19 | 0.0 | 21.1 | 78.9 | 0.0 |
| | 2020년 | 159 | 8.2 | 13 | 7.7 | 53.8 | 38.5 | 0.0 |
| | 2021년 | 171 | 12.9 | 22 | 4.5 | 22.7 | 54.5 | 18.2 |

| 구분 |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4.9 | 2 | 50.0 | 50.0 | 0.0 | 0.0 |
| | 2019년 | 152 | 0.0 | 7 | 0.0 | 14.3 | 71.4 | 14.3 |
| | 2020년 | 159 | 7.5 | 12 | 16.7 | 33.3 | 33.3 | 16.7 |
| | 2021년 | 171 | 7.0 | 12 | 0.0 | 8.3 | 75.0 | 16.7 |

| 구분 | | 장애인 창업지원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해당연도 | 2020년 | 159 | 2.5 | 4 | 25.0 | 50.0 | 25.0 | 0.0 |
| | 2021년 | 171 | 3.5 | 6 | 16.7 | 16.7 | 66.7 | 33.3 |

| 구분 |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6.9 | 10 | 0.0 | 20.0 | 50.0 | 20.0 |
| | 2019년 | 152 | 12.5 | 19 | 0.0 | 21.1 | 78.9 | 0.0 |
| | 2020년 | 159 | 8.2 | 13 | 7.7 | 53.8 | 38.5 | 0.0 |
| | 2021년 | 171 | 12.9 | 22 | 4.5 | 22.7 | 54.5 | 18.2 |

| 구분 |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4.9 | 2 | 50.0 | 50.0 | 0.0 | 0.0 |
| | 2019년 | 152 | 0.0 | 7 | 0.0 | 14.3 | 71.4 | 14.3 |
| | 2020년 | 159 | 7.5 | 12 | 16.7 | 33.3 | 33.3 | 16.7 |
| | 2021년 | 171 | 7.0 | 12 | 0.0 | 8.3 | 75.0 | 16.7 |

| 구분 | | 장애인 창업지원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해당연도 | 2020년 | 159 | 2.5 | 4 | 25.0 | 50.0 | 25.0 | 0.0 |
| | 2021년 | 171 | 3.5 | 6 | 16.7 | 16.7 | 66.7 | 33.3 |

주) 만족도는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함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4-262〉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률 및 만족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장애인 연금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전체 | | 171 | 82.5 | 141 | 1.4 | 12.8 | 73.0 | 12.8 |
| 성별 | 남성 | 105 | 79.0 | 83 | 2.4 | 13.3 | 71.1 | 13.3 |
| | 여성 | 66 | 87.9 | 58 | 0.0 | 12.1 | 75.9 | 12.1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84.5 | 49 | 0.0 | 14.3 | 73.5 | 12.2 |
| | 정신적장애 | 113 | 81.4 | 92 | 2.2 | 12.0 | 72.8 | 13.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82.6 | 90 | 2.2 | 16.7 | 68.9 | 12.2 |
| | 퇴거자 | 62 | 82.3 | 51 | 0.0 | 5.9 | 80.4 | 13.7 |

| 구분 |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전체 | | 171 | 29.2 | 50 | 0.0 | 6.0 | 72.0 | 22.0 |
| 성별 | 남성 | 105 | 34.3 | 36 | 0.0 | 5.6 | 69.4 | 25.0 |
| | 여성 | 66 | 21.2 | 14 | 0.0 | 7.1 | 78.6 | 14.3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48.3 | 28 | 0.0 | 0.0 | 89.3 | 10.7 |
| | 정신적장애 | 113 | 19.5 | 22 | 0.0 | 13.6 | 50.0 | 36.4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20.2 | 22 | 0.0 | 9.1 | 59.1 | 31.8 |
| | 퇴거자 | 62 | 45.2 | 28 | 0.0 | 3.6 | 82.1 | 14.3 |

| 구분 | | 장애/장애아동 수당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전체 | | 171 | 55.0 | 94 | 0.0 | 13.8 | 62.8 | 23.4 |
| 성별 | 남성 | 105 | 55.2 | 58 | 0.0 | 13.8 | 58.6 | 27.6 |
| | 여성 | 66 | 54.5 | 36 | 0.0 | 13.9 | 69.4 | 16.7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44.8 | 26 | 0.0 | 23.1 | 53.8 | 23.1 |
| | 정신적장애 | 113 | 60.2 | 68 | 0.0 | 10.3 | 66.2 | 23.5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58.7 | 64 | 0.0 | 14.1 | 62.5 | 23.4 |
| | 퇴거자 | 62 | 48.4 | 30 | 0.0 | 13.3 | 63.3 | 23.3 |

| 구분 | | 장애인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전체 | | 171 | 9.9 | 17 | 0.0 | 23.5 | 58.8 | 17.6 |
| 성별 | 남성 | 105 | 12.4 | 13 | 0.0 | 23.1 | 61.5 | 15.4 |
| | 여성 | 66 | 6.1 | 4 | 0.0 | 25.0 | 50.0 | 25.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20.7 | 12 | 0.0 | 16.7 | 58.3 | 25.0 |
| | 정신적장애 | 113 | 4.4 | 5 | 0.0 | 40.0 | 60.0 | 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5.5 | 6 | 0.0 | 33.3 | 50.0 | 16.7 |
| | 퇴거자 | 62 | 17.7 | 11 | 0.0 | 18.2 | 63.6 | 18.2 |

| 구분 | | 장애인활동지원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전체 | | 171 | 84.2 | 144 | 7.6 | 10.4 | 58.3 | 23.6 |
| 성별 | 남성 | 105 | 83.8 | 88 | 8.0 | 8.0 | 63.6 | 20.5 |
| | 여성 | 66 | 84.8 | 56 | 7.1 | 14.3 | 50.0 | 28.6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87.9 | 51 | 3.9 | 2.0 | 70.6 | 23.5 |
| | 정신적장애 | 113 | 82.3 | 93 | 9.7 | 15.1 | 51.6 | 23.7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85.3 | 93 | 8.6 | 11.8 | 54.8 | 24.7 |
| | 퇴거자 | 62 | 82.3 | 51 | 5.9 | 7.8 | 64.7 | 21.6 |

| 구분 | | 에너지 바우처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전체 | | 171 | 70.2 | 120 | 0.8 | 9.2 | 69.2 | 20.8 |
| 성별 | 남성 | 105 | 68.6 | 72 | 1.4 | 11.1 | 62.5 | 25.0 |
| | 여성 | 66 | 72.7 | 48 | 0.0 | 6.3 | 79.2 | 14.6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79.3 | 46 | 2.2 | 4.3 | 78.3 | 15.2 |
| | 정신적장애 | 113 | 65.5 | 74 | 0.0 | 12.2 | 63.5 | 24.3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69.7 | 76 | 1.3 | 11.8 | 67.1 | 19.7 |
| | 퇴거자 | 62 | 71.0 | 44 | 0.0 | 4.5 | 72.7 | 22.7 |

| 구분 |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전체 | | 171 | 11.1 | 19 | 0.0 | 15.8 | 68.4 | 15.8 |
| 성별 | 남성 | 105 | 13.3 | 14 | 0.0 | 7.1 | 71.4 | 21.4 |
| | 여성 | 66 | 7.6 | 5 | 0.0 | 40.0 | 60.0 | 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17.2 | 10 | 0.0 | 10.0 | 70.0 | 20.0 |
| | 정신적장애 | 113 | 8.0 | 9 | 0.0 | 22.2 | 66.7 | 11.1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7.3 | 8 | 0.0 | 37.5 | 37.5 | 25.0 |
| | 퇴거자 | 62 | 17.7 | 11 | 0.0 | 0.0 | 90.9 | 9.1 |

| 구분 |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전체 | | 171 | 26.3 | 45 | 2.2 | 11.1 | 71.1 | 15.6 |
| 성별 | 남성 | 105 | 32.4 | 34 | 2.9 | 11.8 | 70.6 | 14.7 |
| | 여성 | 66 | 16.7 | 11 | 0.0 | 9.1 | 72.7 | 18.2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63.8 | 37 | 2.7 | 8.1 | 73.0 | 16.2 |
| | 정신적장애 | 113 | 7.1 | 8 | 0.0 | 25.0 | 62.5 | 12.5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18.3 | 20 | 5.0 | 25.0 | 55.0 | 15.0 |
| | 퇴거자 | 62 | 40.3 | 25 | 0.0 | 0.0 | 84.0 | 16.0 |

| 구분 | | 저소득 장애인 진단/검사비 지원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전체 | | 171 | 42.7 | 73 | 2.7 | 11.0 | 68.5 | 17.8 |
| 성별 | 남성 | 105 | 46.7 | 49 | 2.0 | 8.2 | 69.4 | 20.4 |
| | 여성 | 66 | 36.4 | 24 | 4.2 | 16.7 | 66.7 | 12.5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48.3 | 28 | 3.6 | 10.7 | 71.4 | 14.3 |
| | 정신적장애 | 113 | 39.8 | 45 | 2.2 | 11.1 | 66.7 | 2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44.0 | 48 | 4.2 | 16.7 | 60.4 | 18.8 |
| | 퇴거자 | 62 | 40.3 | 25 | 0.0 | 0.0 | 84.0 | 16.0 |

| 구분 |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전체 | | 171 | 36.3 | 62 | 1.6 | 11.3 | 74.2 | 12.9 |
| 성별 | 남성 | 105 | 35.2 | 37 | 2.7 | 10.8 | 73.0 | 13.5 |
| | 여성 | 66 | 37.9 | 25 | 0.0 | 12.0 | 76.0 | 12.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50.0 | 29 | 3.4 | 10.3 | 72.4 | 13.8 |
| | 정신적장애 | 113 | 29.2 | 33 | 0.0 | 12.1 | 75.8 | 12.1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30.3 | 33 | 3.0 | 15.2 | 69.7 | 12.1 |
| | 퇴거자 | 62 | 46.8 | 29 | 0.0 | 6.9 | 79.3 | 13.8 |

| 구분 |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전체 | | 171 | 8.8 | 15 | 0.0 | 26.7 | 40.0 | 33.3 |
| 성별 | 남성 | 105 | 6.7 | 7 | 0.0 | 14.3 | 28.6 | 57.1 |
| | 여성 | 66 | 12.1 | 8 | 0.0 | 37.5 | 50.0 | 12.5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8.6 | 5 | 0.0 | 0.0 | 100.0 | 0.0 |
| | 정신적장애 | 113 | 8.8 | 10 | 0.0 | 40.0 | 10.0 | 5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5.5 | 6 | 0.0 | 50.0 | 16.7 | 33.3 |
| | 퇴거자 | 62 | 14.5 | 9 | 0.0 | 11.1 | 55.6 | 33.3 |

| 구분 | | 노인장기요양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전체 | | 171 | 3.5 | 6 | 0.0 | 16.7 | 83.3 | 0.0 |
| 성별 | 남성 | 105 | 4.8 | 5 | 0.0 | 20.0 | 80.0 | 0.0 |
| | 여성 | 66 | 1.5 | 1 | 0.0 | 0.0 | 100.0 | 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5.2 | 3 | 0.0 | 0.0 | 100.0 | 0.0 |
| | 정신적장애 | 113 | 2.7 | 3 | 0.0 | 33.3 | 66.7 | 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3.7 | 4 | 0.0 | 25.0 | 75.0 | 0.0 |
| | 퇴거자 | 62 | 3.2 | 2 | 0.0 | 0.0 | 100.0 | 0.0 |

| 구분 | | 이동통신요금 감면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전체 | | 171 | 64.9 | 111 | 0.9 | 9.9 | 70.3 | 18.9 |
| 성별 | 남성 | 105 | 60.0 | 63 | 0.0 | 7.9 | 71.4 | 20.6 |
| | 여성 | 66 | 72.7 | 48 | 2.1 | 12.5 | 68.8 | 16.7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70.7 | 41 | 0.0 | 7.3 | 73.2 | 19.5 |
| | 정신적장애 | 113 | 61.9 | 70 | 1.4 | 11.4 | 68.6 | 18.6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65.1 | 71 | 1.4 | 12.7 | 64.8 | 21.1 |
| | 퇴거자 | 62 | 64.5 | 40 | 0.0 | 5.0 | 80.0 | 15.0 |

| 구분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전체 | | 171 | 19.9 | 34 | 2.9 | 11.8 | 67.6 | 17.6 |
| 성별 | 남성 | 105 | 14.3 | 15 | 0.0 | 13.3 | 80.0 | 6.7 |
| | 여성 | 66 | 28.8 | 19 | 5.3 | 10.5 | 57.9 | 26.3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15.5 | 9 | 0.0 | 0.0 | 88.9 | 11.1 |
| | 정신적장애 | 113 | 22.1 | 25 | 4.0 | 16.0 | 60.0 | 2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21.1 | 23 | 4.3 | 13.0 | 60.9 | 21.7 |
| | 퇴거자 | 62 | 17.7 | 11 | 0.0 | 9.1 | 81.8 | 9.1 |

| 구분 |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전체 | | 171 | 59.1 | 101 | 2.0 | 2.0 | 70.3 | 25.7 |
| 성별 | 남성 | 105 | 53.3 | 56 | 1.8 | 1.8 | 69.6 | 26.8 |
| | 여성 | 66 | 68.2 | 45 | 2.2 | 2.2 | 71.1 | 24.4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65.5 | 38 | 5.3 | 2.6 | 71.1 | 21.1 |
| | 정신적장애 | 113 | 55.8 | 63 | 0.0 | 1.6 | 69.8 | 28.6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64.2 | 70 | 1.4 | 2.9 | 70.0 | 25.7 |
| | 퇴거자 | 62 | 50.0 | 31 | 3.2 | 0.0 | 71.0 | 25.8 |

| 구분 | | 장애인일자리사업(재정지원)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전체 | | 171 | 29.8 | 51 | 2.0 | 3.9 | 72.5 | 21.6 |
| 성별 | 남성 | 105 | 29.5 | 31 | 3.2 | 3.2 | 71.0 | 22.6 |
| | 여성 | 66 | 30.3 | 20 | 0.0 | 5.0 | 75.0 | 2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32.8 | 19 | 5.3 | 5.3 | 63.2 | 26.3 |
| | 정신적장애 | 113 | 28.3 | 32 | 0.0 | 3.1 | 78.1 | 18.8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28.4 | 31 | 3.2 | 6.5 | 64.5 | 25.8 |
| | 퇴거자 | 62 | 32.3 | 20 | 0.0 | 0.0 | 85.0 | 15.0 |

| 구분 | | 중증장애인지원고용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전체 | | 171 | 18.1 | 31 | 6.5 | 6.5 | 64.5 | 22.6 |
| 성별 | 남성 | 105 | 16.2 | 17 | 11.8 | 11.8 | 76.5 | 0.0 |
| | 여성 | 66 | 21.2 | 14 | 0.0 | 0.0 | 50.0 | 5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17.2 | 10 | 10.0 | 0.0 | 70.0 | 20.0 |
| | 정신적장애 | 113 | 18.6 | 21 | 4.8 | 9.5 | 61.9 | 23.8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22.0 | 24 | 8.3 | 4.2 | 62.5 | 25.0 |
| | 퇴거자 | 62 | 11.3 | 7 | 0.0 | 14.3 | 71.4 | 14.3 |

| 구분 |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전체 | | 171 | 12.9 | 22 | 4.5 | 22.7 | 54.5 | 18.2 |
| 성별 | 남성 | 105 | 12.4 | 13 | 7.7 | 23.1 | 46.2 | 23.1 |
| | 여성 | 66 | 13.6 | 9 | 0.0 | 22.2 | 66.7 | 11.1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15.5 | 9 | 11.1 | 11.1 | 77.8 | 0.0 |
| | 정신적장애 | 113 | 11.5 | 13 | 0.0 | 30.8 | 38.5 | 30.8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13.8 | 15 | 6.7 | 26.7 | 40.0 | 26.7 |
| | 퇴거자 | 62 | 11.3 | 7 | 0.0 | 14.3 | 85.7 | 0.0 |

| 구분 |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전체 | | 171 | 7.0 | 12 | 0.0 | 8.3 | 75.0 | 16.7 |
| 성별 | 남성 | 105 | 10.5 | 11 | 0.0 | 9.1 | 72.7 | 18.2 |
| | 여성 | 66 | 1.5 | 1 | 0.0 | 0.0 | 100.0 | 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15.5 | 9 | 0.0 | 11.1 | 66.7 | 22.2 |
| | 정신적장애 | 113 | 2.7 | 3 | 0.0 | 0.0 | 100.0 | 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4.6 | 5 | 0.0 | 20.0 | 60.0 | 20.0 |
| | 퇴거자 | 62 | 11.3 | 7 | 0.0 | 0.0 | 85.7 | 14.3 |

| 구분 | | 장애인 창업지원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전체 | | 171 | 3.5 | 6 | 16.7 | 16.7 | 66.7 | 0.0 |
| 성별 | 남성 | 105 | 4.8 | 5 | 20.0 | 20.0 | 60.0 | 0.0 |
| | 여성 | 66 | 1.5 | 1 | 0.0 | 0.0 | 100.0 | 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6.9 | 4 | 0.0 | 25.0 | 75.0 | 0.0 |
| | 정신적장애 | 113 | 1.8 | 2 | 50.0 | 0.0 | 50.0 | 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1.8 | 2 | 50.0 | 0.0 | 50.0 | 0.0 |
| | 퇴거자 | 62 | 6.5 | 4 | 0.0 | 25.0 | 75.0 | 0.0 |

| 구분 | |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지원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전체 | | 171 | 10.5 | 18 | 0.0 | 11.1 | 77.8 | 11.1 |
| 성별 | 남성 | 105 | 14.3 | 15 | 0.0 | 13.3 | 73.3 | 13.3 |
| | 여성 | 66 | 4.5 | 3 | 0.0 | 0.0 | 100.0 | 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15.5 | 9 | 0.0 | 11.1 | 77.8 | 11.1 |
| | 정신적장애 | 113 | 8.0 | 9 | 0.0 | 11.1 | 77.8 | 11.1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11.9 | 13 | 0.0 | 7.7 | 76.9 | 15.4 |
| | 퇴거자 | 62 | 8.1 | 5 | 0.0 | 20.0 | 80.0 | 0.0 |

| 구분 | | 장애인전세자금지원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전체 | | 171 | 10.5 | 18 | 11.1 | 0.0 | 77.8 | 11.1 |
| 성별 | 남성 | 105 | 13.3 | 14 | 14.3 | 0.0 | 71.4 | 14.3 |
| | 여성 | 66 | 6.1 | 4 | 0.0 | 0.0 | 100.0 | 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17.2 | 10 | 10.0 | 0.0 | 90.0 | 0.0 |
| | 정신적장애 | 113 | 7.1 | 8 | 12.5 | 0.0 | 62.5 | 25.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5.5 | 6 | 33.3 | 0.0 | 66.7 | 0.0 |
| | 퇴거자 | 62 | 19.4 | 12 | 0.0 | 0.0 | 83.3 | 16.7 |

| 구분 | | 비수급자 초기정착 생계비 지원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전체 | | 171 | 8.2 | 14 | 7.1 | 7.1 | 85.7 | 0.0 |
| 성별 | 남성 | 105 | 8.6 | 9 | 11.1 | 0.0 | 88.9 | 0.0 |
| | 여성 | 66 | 7.6 | 5 | 0.0 | 20.0 | 80.0 | 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10.3 | 6 | 0.0 | 0.0 | 100.0 | 0.0 |
| | 정신적장애 | 113 | 7.1 | 8 | 12.5 | 12.5 | 75.0 | 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6.4 | 7 | 0.0 | 14.3 | 85.7 | 0.0 |
| | 퇴거자 | 62 | 11.3 | 7 | 14.3 | 0.0 | 85.7 | 0.0 |

| 구분 | |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 | | | | | |
|---|---|---|---|---|---|---|---|---|
| | | 이용률 | | 만족도* | | | | |
| |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전체 | | 171 | 18.7 | 32 | 3.1 | 9.4 | 46.9 | 40.6 |
| 성별 | 남성 | 105 | 20.0 | 21 | 4.8 | 9.5 | 52.4 | 33.3 |
| | 여성 | 66 | 16.7 | 11 | 0.0 | 9.1 | 36.4 | 54.5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20.7 | 12 | 8.3 | 8.3 | 66.7 | 16.7 |
| | 정신적장애 | 113 | 17.7 | 20 | 0.0 | 10.0 | 35.0 | 55.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11.9 | 13 | 7.7 | 0.0 | 61.5 | 30.8 |
| | 퇴거자 | 62 | 30.6 | 19 | 0.0 | 15.8 | 36.8 | 47.4 |

주) 만족도는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함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만족하는(만족하는 편임, 매우 만족) 비율이 91.7%로, 불만족하는(매우 불만족,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비율인 8.3%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263〉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 연도별

(단위: 명, %, 만원)

| 구분 |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모름/ 무응답 불만족 | 불만족 | 만족 |
|---|---|---|---|---|---|---|---|---|---|
| 해당연도 | 2018년 | 113 | 2.7 | 24.8 | 59.3 | 10.6 | 2.7 | 27.4 | 69.9 |
| | 2019년 | 130 | 1.5 | 33.1 | 56.2 | 9.2 | 0.0 | 34.6 | 65.4 |
| | 2020년 | 114 | 5.3 | 22.8 | 64.0 | 7.9 | 0.0 | 28.1 | 71.9 |
| | 2021년 | 96 | 1.0 | 7.3 | 87.5 | 4.2 | 0.0 | 8.3 | 91.7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 남성 91.8%, 여성 91.4%가 복지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응답자의 경우 93.0%, 정신적 장애를 가진 응답자의 경우 90.6%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살펴보면, '이용자 등'의 89.8%, 퇴거자의 93.6%가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64〉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모름/ 무응답 | 불만족 | 만족 |
|---|---|---|---|---|---|---|---|---|---|
| 전체 | | 96 | 1.0 | 7.3 | 87.5 | 4.2 | 0.0 | 8.3 | 91.7 |
| 성별 | 남성 | 61 | 0.0 | 8.2 | 85.2 | 6.6 | 0.0 | 8.2 | 91.8 |
| | 여성 | 35 | 2.9 | 5.7 | 91.4 | 0.0 | 0.0 | 8.6 | 91.4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43 | 2.3 | 4.7 | 88.4 | 4.7 | 0.0 | 7.0 | 93.0 |
| | 정신적장애 | 53 | 0.0 | 9.4 | 86.8 | 3.8 | 0.0 | 9.4 | 90.6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49 | 2.0 | 8.2 | 85.7 | 4.1 | 0.0 | 10.2 | 89.8 |
| | 퇴거자 | 47 | 0.0 | 6.4 | 89.4 | 4.3 | 0.0 | 6.4 | 93.6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 (2)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난 1년간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한 비율은 70.8%이며, 이용 횟수는 월평균 7.0회로 나타났다.

〈표 4-265〉 사회복지시설 이용 경험 및 횟수 - 연도별

(단위: 명, %, 회)

| 구분 | | 이용 경험 | | | 월평균 이용 횟수* | |
|---|---|---|---|---|---|---|
| | | 사례수 | 있음 | 없음 | 사례수 | 평균 (회) |
| 해당연도 | 2018년 | 144 | 54.9 | 45.1 | 79 | 7.0 |
| | 2019년 | 152 | 80.3 | 19.7 | 122 | 7.8 |
| | 2020년 | 159 | 76.7 | 23.3 | 122 | 7.2 |
| | 2021년 | 171 | 70.8 | 29.2 | 121 | 7.0 |

* 이용 횟수는 사회복지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대상으로 조사함. 평균은 모름/무응답 제외

성별로 남성의 경우 이용률은 63.8%, 월평균 이용 횟수는 6.2회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이용률은 81.8%, 월평균 이용 횟수는 8.1회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의 경우 이용률은 41.4%, 월평균 이용 횟수는 3.0회로 조사되었으며, 정신적 장애의 경우 이용률은 85.8%, 월평균 이용 횟수는 8.0회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의 이용률은 78.9%, 월평균 이용 횟수는 7.8회로 나타났으며, 퇴거자의 이용률은 56.5%, 월평균 이용 횟수는 5.0회로 조사되었다.

〈표 4-266〉 사회복지시설 이용 경험 및 횟수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회)

| 구분 | | 이용 경험 | | | 월평균 이용 횟수* | |
|---|---|---|---|---|---|---|
| | | 사례수 | 있음 | 없음 | 사례수 | 평균 (회) |
| 전체 | | 171 | 70.8 | 29.2 | 121 | 7.0 |
| 성별 | 남성 | 105 | 63.8 | 36.2 | 67 | 6.2 |
| | 여성 | 66 | 81.8 | 18.2 | 54 | 8.1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41.4 | 58.6 | 24 | 3.0 |
| | 정신적장애 | 113 | 85.8 | 14.2 | 97 | 8.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78.9 | 21.1 | 86 | 7.8 |
| | 퇴거자 | 62 | 56.5 | 43.5 | 35 | 5.0 |

* 이용 횟수는 사회복지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대상으로 조사함. 평균은 모름/무응답 제외

지난 1년간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각종 여가프로그램 이용'이 64.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자리사업 참여와 구직서비스 이용'(18.2%), '친목도모'(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각종 여가프로그램 이용'이라는 응답은 남성 56.7%, 여성 74.1%로 나타났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는 45.8%, 정신적 장애는 69.1%로 나타났고,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살펴보면, '이용자 등'의 경우 67.4%, 퇴거자의 경우 57.1%로 조사되었다.

〈표 4-267〉 사회복지시설 이용 이유 (1순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각종 여가 프로그램 이용 | 일자리사업 참여와 구직 서비스 이용 | 친목도모 | 언어, 물리치료 등 재활 프로그램 이용 | 자원봉사 활동 참여 |
|---|---|---|---|---|---|---|---|
| 해당연도 | 2018년 | 79 | 58.2 | 7.6 | 11.4 | 7.6 | 3.8 |
| | 2019년 | 122 | 54.1 | 10.7 | 13.9 | 7.4 | 1.6 |
| | 2020년 | 122 | 54.9 | 13.9 | 9.0 | 9.8 | 1.6 |
| | 2021년 | 121 | 64.5 | 18.2 | 7.4 | 3.3 | 1.7 |

| 구분 | | 사례수 | 보장구 수리 및 구입 |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 | 기타* | 모름/ 무응답 |
|---|---|---|---|---|---|---|
| 해당연도 | 2018년 | 79 | 2.5 | 1.3 | 6.3 | 1.3 |
| | 2019년 | 122 | 1.6 | 2.5 | 8.2 | 0.0 |
| | 2020년 | 122 | 1.6 | 0.8 | 8.2 | 0.0 |
| | 2021년 | 121 | 1.7 | 0.8 | 2.5 | 0.0 |

* 기타에는 '심리치료', '동료 상담', '공부' 등이 있음

〈표 4-268〉 사회복지시설 이용 이유 (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각종 여가 프로그램 이용 | 일자리사업 참여와 구직 서비스 이용 | 친목도모 | 언어, 물리치료 등 재활 프로그램 이용 |
|---|---|---|---|---|---|---|
| 전체 | | 121 | 64.5 | 18.2 | 7.4 | 3.3 |
| 성별 | 남성 | 67 | 56.7 | 19.4 | 9.0 | 6.0 |
| | 여성 | 54 | 74.1 | 16.7 | 5.6 | 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24 | 45.8 | 20.8 | 8.3 | 8.3 |
| | 정신적장애 | 97 | 69.1 | 17.5 | 7.2 | 2.1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86 | 67.4 | 17.4 | 5.8 | 4.7 |
| | 퇴거자 | 35 | 57.1 | 20.0 | 11.4 | 0.0 |

| 구분 | | 사례수 | 자원봉사 활동 참여 | 보장구 수리 및 구입 |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 | 기타* |
|---|---|---|---|---|---|---|
| 전체 | | 121 | 1.7 | 1.7 | 0.8 | 2.5 |
| 성별 | 남성 | 67 | 1.5 | 3.0 | 0.0 | 4.5 |
| | 여성 | 54 | 1.9 | 0.0 | 1.9 | 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24 | 0.0 | 8.3 | 0.0 | 8.3 |
| | 정신적장애 | 97 | 2.1 | 0.0 | 1.0 | 1.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86 | 1.2 | 1.2 | 1.2 | 1.2 |
| | 퇴거자 | 35 | 2.9 | 2.9 | 0.0 | 5.7 |

* 기타에는 '심리치료', '동료 상담', '공부' 등이 있음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만족하는 편임, 매우 만족) 비율이 99.2%로 대부분의 이용자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남성의 경우 98.5%, 여성의 경우 100.0%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는 95.8%, 정신적 장애는 100.0%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은 100.0%, 퇴거자는 97.1%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4-269〉 사회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 연도별

(단위: 명, %, 만원)

| 구분 |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모름/무응답 불만족 | 불만족 | 만족 |
|---|---|---|---|---|---|---|---|---|---|
| 해당연도 | 2018년 | 79 | 1.3 | 12.7 | 55.7 | 29.1 | 1.3 | 13.9 | 84.8 |
| | 2019년 | 122 | 0.0 | 9.8 | 62.3 | 27.9 | 0.0 | 9.8 | 90.2 |
| | 2020년 | 122 | 2.5 | 10.7 | 64.8 | 22.1 | 0.0 | 13.1 | 86.9 |
| | 2021년 | 121 | 0.0 | 0.8 | 82.6 | 16.5 | 0.0 | 0.8 | 99.2 |

〈표 4-270〉 사회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전혀 만족하지 않음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함 | 모름/무응답 | 불만족 | 만족 |
|---|---|---|---|---|---|---|---|---|---|
| 전체 | | 121 | 0.0 | 0.8 | 82.6 | 16.5 | 0.0 | 0.8 | 99.2 |
| 성별 | 남성 | 67 | 0.0 | 1.5 | 79.1 | 19.4 | 0.0 | 1.5 | 98.5 |
| | 여성 | 54 | 0.0 | 0.0 | 87.0 | 13.0 | 0.0 | 0.0 | 10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24 | 0.0 | 4.2 | 79.2 | 16.7 | 0.0 | 4.2 | 95.8 |
| | 정신적장애 | 97 | 0.0 | 0.0 | 83.5 | 16.5 | 0.0 | 0.0 | 10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86 | 0.0 | 0.0 | 83.7 | 16.3 | 0.0 | 0.0 | 100.0 |
| | 퇴거자 | 35 | 0.0 | 2.9 | 80.0 | 17.1 | 0.0 | 2.9 | 97.1 |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만족하지 않는 응답자들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이용할만한 프로그램이 없어서'를 꼽았다.

〈표 4-271〉 사회복지시설 불만족 이유 (1순위) - 연도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이용할만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 시설(설비, 위생)이 좋지 않아서 | 집에서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해서 | 서비스 제공자들이 불친절하여 | 프로그램 대기기간이 길어서 | 프로그램 비용이 비싸서 | 기타* |
|---|---|---|---|---|---|---|---|---|---|
| 해당연도 | 2018년 | 11 | 36.4 | 0.0 | 9.1 | 0.0 | 27.3 | 0.0 | 27.3 |
| | 2019년 | 12 | 66.7 | 16.7 | 0.0 | 8.3 | 8.3 | 0.0 | 0.0 |
| | 2020년 | 16 | 25.0 | 18.8 | 12.5 | 12.5 | 6.3 | 6.3 | 18.8 |
| | 2021년 | 1 | 100 | 0.0 | 0.0 | 0.0 | 0.0 | 0.0 | 0.0 |

*기타에는 '기력 부족', '상담할 사람이 없음' 등이 있음

〈표 4-272〉 사회복지시설 불만족 이유 (1순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이용할만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
|---|---|---|---|
| 전체 | | 1 | 100.0 |
| 성별 | 남성 | 1 | 10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1 | 10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퇴거자 | 1 | 100.0 |

### (3) 지역사회 활동

전체 응답자에게 하루 평균 지역사회 활동 시간을 조사한 결과,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하루 평균 '1시간 미만' 지역사회 활동을 한다는 응답이 대부분 높게 나타난 가운데,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응답자의 경우 '5~6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립생활주택 '이용자 등'의 경우 '1~2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게 조사되었다.

〈표 4-273〉 하루 평균 지역사회 활동 시간 - 연도별(2019, 2020, 2021)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1시간 미만 | 1~2시간 | 3~4시간 | 5~6시간 | 7~8시간 | 9~10 시간 | 10시간 초과 |
|---|---|---|---|---|---|---|---|---|---|
| 해당연도 | 2019년 | 152 | 23.7 | 14.5 | 8.6 | 18.4 | 11.8 | 15.8 | 7.2 |
| | 2020년 | 159 | 28.9 | 25.2 | 18.2 | 15.7 | 8.2 | 1.9 | 1.9 |
| | 2021년 | 171 | 33.9 | 22.8 | 15.2 | 16.4 | 8.2 | 2.3 | 1.2 |

〈표 4-274〉 하루 평균 지역사회 활동 시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시간)

| 구분 | | 사례수 | 1시간 미만 | 1~2시간 | 3~4시간 | 5~6시간 | 7~8시간 | 9~10 시간 | 10시간 초과 |
|---|---|---|---|---|---|---|---|---|---|
| 전체 | | 171 | 33.9 | 22.8 | 15.2 | 16.4 | 8.2 | 2.3 | 1.2 |
| 성별 | 남성 | 105 | 32.4 | 20.0 | 14.3 | 21.0 | 7.6 | 2.9 | 1.9 |
| | 여성 | 66 | 36.4 | 27.3 | 16.7 | 9.1 | 9.1 | 1.5 | 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44.8 | 17.2 | 8.6 | 20.7 | 5.2 | 1.7 | 1.7 |
| | 정신적장애 | 113 | 28.3 | 25.7 | 18.6 | 14.2 | 9.7 | 2.7 | 0.9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26.6 | 28.4 | 17.4 | 17.4 | 8.3 | 1.8 | 0.0 |
| | 퇴거자 | 62 | 46.8 | 12.9 | 11.3 | 14.5 | 8.1 | 3.2 | 3.2 |

지역사회 활동 중 주로 시간을 소비하는 활동으로는 '일'이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개인유지 활동'(21.1%), '문화관광 및 스포츠/레포츠 활동'(11.7%), '학습 활동'(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가정관리'가 전년도(5.0%) 대비 4.4%p 증가한 반면, '종교 활동'의 비율이 전년도(8.2%) 대비 5.3%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75〉 지역사회 활동 중 주로 시간을 소비하는 활동(1순위) - 연도별(2019, 2020, 2021)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일 | 개인유지 활동 | 문화관광 및 스포츠 레포츠 활동 | 학습 활동 | 가정관리 | 교제 활동 | 종교 활동 | 참여 및 봉사 활동 | 기타 |
|---|---|---|---|---|---|---|---|---|---|---|---|
| 해당연도 | 2019년 | 123 | 26.0 | 8.1 | 22.0 | 19.5 | 0.8 | 12.2 | 7.3 | 0.0 | 4.1 |
| | 2020년 | 159 | 34.6 | 17.0 | 13.2 | 12.6 | 5.0 | 8,2 | 8.2 | 1.3 | 0.0 |
| | 2021년 | 171 | 36.8 | 21.1 | 11.7 | 9.9 | 9.4 | 5.3 | 2.9 | 2.9 | 0.0 |

〈표 4-276〉 지역사회 활동 중 주로 시간을 소비하는 활동(1순위) - 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일 | 개인유지 활동 | 문화관광 및 스포츠 레포츠 활동 | 학습 활동 | 가정관리 | 교제 활동 | 종교 활동 | 참여 및 봉사 활동 |
|---|---|---|---|---|---|---|---|---|---|---|
| 전체 | | 171 | 36.8 | 21.1 | 11.7 | 9.9 | 9.4 | 5.3 | 2.9 | 2.9 |
| 성별 | 남성 | 105 | 35.2 | 20.0 | 13.3 | 11.4 | 10.5 | 2.9 | 3.8 | 2.9 |
| | 여성 | 66 | 39.4 | 22.7 | 9.1 | 7.6 | 7.6 | 9.1 | 1.5 | 3.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32.8 | 25.9 | 5.2 | 1.7 | 20.7 | 3.4 | 6.9 | 3.4 |
| | 정신적장애 | 113 | 38.9 | 18.6 | 15.0 | 14.2 | 3.5 | 6.2 | 0.9 | 2.7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38.5 | 21.1 | 14.7 | 11.0 | 5.5 | 5.5 | 2.8 | 0.9 |
| | 퇴거자 | 62 | 33.9 | 21.0 | 6.5 | 8.1 | 16.1 | 4.8 | 3.2 | 6.5 |

지역사회 활동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하는(만족하는 편임, 매우 만족) 비율은 90.9%로 나타났다.

성별로 남성의 경우 만족도는 88.9%, 여성은 94.4%로 나타났으며,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는 84.1%, 정신적 장애의 경우 96.4%,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이용자 등'은 94.0%, 퇴거자는 87.8%로 조사되었다.

〈표 4-277〉 지역사회 활동 만족도 - 연도별(2019, 2020, 2021)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불만족 | 만족 |
|---|---|---|---|---|---|---|---|---|
| 해당연도 | 2019년 | 118 | 0 | 6.8 | 69.5 | 23.7 | 6.8 | 93.2 |
| | 2020년 | 114 | 3.5 | 10.5 | 71.9 | 14 | 14.0 | 86.0 |
| | 2021년 | 99 | 0.0 | 9.1 | 84.8 | 6.1 | 9.1 | 90.9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표 4-278〉 지역사회 활동 만족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전혀 만족하지 않음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함 | 불만족 | 만족 |
|---|---|---|---|---|---|---|---|---|
| 전체 | | 99 | 0.0 | 9.1 | 84.8 | 6.1 | 9.1 | 90.9 |
| 성별 | 남성 | 63 | 0.0 | 11.1 | 82.5 | 6.3 | 11.1 | 88.9 |
| | 여성 | 36 | 0.0 | 5.6 | 88.9 | 5.6 | 5.6 | 94.4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44 | 0.0 | 15.9 | 81.8 | 2.3 | 15.9 | 84.1 |
| | 정신적장애 | 55 | 0.0 | 3.6 | 87.3 | 9.1 | 3.6 | 96.4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50 | 0.0 | 6.0 | 86.0 | 8.0 | 6.0 | 94.0 |
| | 퇴거자 | 49 | 0.0 | 12.2 | 83.7 | 4.1 | 12.2 | 87.8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 2) 삶의 만족도[41)]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삶의 만족도를 10점 척도를 통해 조사하여 평균값을 구한 결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평균 7.05점으로 조사되어, 전년도(6.96점)에 비해 0.09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영역별로 살펴보면, '직업'(7.16점), '주거환경'(7.15점), '사회적 관계'(6.99점) 등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수입'(6.27점)의 만족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4-279〉 삶의 만족도 - 연도별

(단위: 명, 점)

| 구분 | | 사례수 | 건강 | 수입 | 주거 환경 | 학교 생활 | 직업 | 결혼 생활 | 사회적 관계 | 전반적 만족도 |
|---|---|---|---|---|---|---|---|---|---|---|
| 해당연도 | 2018년 | 113 | 6.68 | 5.60 | 7.24 | 6.18 | 7.35 | 7.73 | 7.09 | 7.05 |
| | 2019년 | 130 | 6.84 | 5.90 | 7.32 | 8.08 | 7.20 | 8.10 | 7.05 | 7.02 |
| | 2020년 | 114 | 6.75 | 5.60 | 6.51 | 6.83 | 6.15 | 6.68 | 6.80 | 6.96 |
| | 2021년 | 99 | 6.92 | 6.27 | 7.15 | 6.92 | 7.16 | 5.78 | 6.99 | 7.05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성별로 남성의 경우 만족도가 높은 영역은 '주거환경'(6.79점), '학교생활'(6.78점), '사회적 관계'(6.73점)로 나타났으며,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평균 6.81점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의 경우 '직업'(7.95점), '주거환경'(7.78점), '건강'(7.47점) 영역에서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평균 7.47점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장애의 경우 '직업'(6.84점), '학교생활'(6.76점), '사회적 관계'(6.61점) 영역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평균 6.57점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장애의 경우 '주거환경'(7.65점), '직업'(7.33점), '사회적 관계'(7.29점) 영역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고,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평균 7.44점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 살펴보면, '이용자 등'의 경우 '건강'(7.52점), '사회적 관계'(7.34점), '주거환경'(7.20점)에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평균 7.26점으로 나타났다. 퇴거자의 경우 '학교생활'(7.56점), '직업'(7.45점), '주거환경'(7.10점) 영역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 삶의 만족도 평균은 6.84점으로 나타났다.

41) 삶의 만족도 영역 중 결혼생활의 경우 사례수가 적은 관계로 해석에서 제외함.

〈표 4-280〉 삶의 만족도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점)

| 구분 | | 사례수* | 건강 | 수입 | 주거 환경 | 학교 생활 | 직업 | 결혼 생활 | 사회적 관계 | 전반적 만족도 |
|---|---|---|---|---|---|---|---|---|---|---|
| 전체 | | 99 | 6.92 | 6.27 | 7.15 | 6.92 | 7.16 | 5.78 | 6.99 | 7.05 |
| 성별 | 남성 | 63 | 6.60 | 5.86 | 6.79 | 6.78 | 6.68 | 6.17 | 6.73 | 6.81 |
| | 여성 | 36 | 7.47 | 6.97 | 7.78 | 7.25 | 7.95 | 5.00 | 7.44 | 7.47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44 | 6.48 | 5.64 | 6.52 | 6.76 | 6.84 | 5.71 | 6.61 | 6.57 |
| | 정신적장애 | 55 | 7.27 | 6.71 | 7.65 | 7.05 | 7.33 | 6.00 | 7.29 | 7.44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50 | 7.52 | 6.63 | 7.20 | 6.38 | 6.97 | 0.0 | 7.34 | 7.26 |
| | 퇴거자 | 49 | 6.31 | 5.87 | 7.10 | 7.56 | 7.45 | 5.78 | 6.63 | 6.84 |

주) 대리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함
* 일부 영역(수입, 학교생활, 직업, 결혼생활)의 사례수는 해당없음과 모름/무응답을 제외함
· 영역 별 사례수: 수입 81명, 학교생활 39명, 직업 55명, 결혼생활 9명
** 삶의 만족도는 각 영역별로 10점 척도로 조사하여 평균값으로 계산함.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음을 의미함

현재 삶의 만족도가 낮은 편인 응답자(10점 척도에서 1~4점 응답자)를 대상으로 불만족 이유가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반적 삶의 만족도'의 경우 16.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세부영역별로 살펴보면, '건강' 23.1%, '수입' 35.0%, '주거환경' 25.0%, '학교생활' 25.0%, '직업' 20.0%, '사회적 관계' 36.4%에 해당하는 비율이 코로나19로 인해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81〉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불만족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건강 | 수입 | 주거 환경 | 학교 생활 | 직업 | 결혼 생활 | 사회적 관계 | 전반적 만족도 |
|---|---|---|---|---|---|---|---|---|---|
| 전체 | | 23.1 | 35.0 | 25.0 | 25.0 | 20.0 | 100.0 | 36.4 | 16.7 |
| 성별 | 남성 | 18.2 | 41.2 | 30.0 | 33.3 | 25.0 | 100.0 | 44.4 | 20.0 |
| | 여성 | 5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0.0 | 55.6 | 25.0 | 33.3 | 0.0 | 100.0 | 25.0 | 20.0 |
| | 정신적장애 | 50.0 | 18.2 | 25.0 | 0.0 | 33.3 | 0.0 | 66.7 | 0.0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33.3 | 40.0 | 33.3 | 25.0 | 20.0 | 0.0 | 33.3 | 0.0 |
| | 퇴거자 | 20.0 | 30.0 | 16.7 | 0.0 | 0.0 | 100.0 | 37.5 | 33.3 |

* 영역 별 사례수: 건강(13명), 수입(20명), 주거환경(12명), 학교생활(4명), 직업(5명), 결혼생활(2명), 사회적 관계(11명), 전반적 만족도(6명)

### 3) 코로나19 관련 어려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에 경험한 방역 관련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정보 획득(감염 발생상황, 방역지침 등)'의 경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32.7%로 나타났으며, '방역장비 구비 · 이용(마스크, 손소독제의 구매 및 이용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6%로 나타났다.

'정보 획득(감염 발생상황, 방역지침 등)'에서 어려움을 겪은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37.1%), 여성(25.8%)로 나타났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32.8%), 정신적 장애(32.7%)로 조사되었고,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27.5%), 퇴거자(41.9%)로 나타났다.

'방역장비 구비 · 이용(마스크, 손소독제의 구매 및 이용 등)'에서 어려움을 겪은 비율은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27.6%), 여성(19.7%)로 나타났고,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32.8%), 정신적 장애(20.4%)로 나타났고,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18.3%), 퇴거자(35.5%)로 조사되었다.

〈표 4-282〉 방역 관련 어려움 경험(정보획득)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전혀 어려움 없음 | 어려움 없는 편임 | 어려운 편임 | 상당히 어려웠음 | 어려움 없는 편 | 어려운 편 |
|---|---|---|---|---|---|---|---|---|
| 전체 | | 171 | 22.2 | 45.0 | 28.1 | 4.7 | 67.3 | 32.7 |
| 성별 | 남성 | 105 | 20.0 | 42.9 | 32.4 | 4.8 | 62.9 | 37.1 |
| | 여성 | 66 | 25.8 | 48.5 | 21.2 | 4.5 | 74.2 | 25.8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20.7 | 46.6 | 25.9 | 6.9 | 67.2 | 32.8 |
| | 정신적장애 | 113 | 23.0 | 44.2 | 29.2 | 3.5 | 67.3 | 32.7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27.5 | 45.0 | 22.9 | 4.6 | 72.5 | 27.5 |
| | 퇴거자 | 62 | 12.9 | 45.2 | 37.1 | 4.8 | 58.1 | 41.9 |

〈표 4-283〉 방역 관련 어려움 경험(방역장비 구비 및 이용)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전혀 어려움 없음 | 어려움 없는 편임 | 어려운 편임 | 상당히 어려웠음 | 어려움 없는 편 | 어려운 편 |
|---|---|---|---|---|---|---|---|---|
| 전체 | | 171 | 26.3 | 49.1 | 21.6 | 2.9 | 75.4 | 24.6 |
| 성별 | 남성 | 105 | 23.8 | 48.6 | 24.8 | 2.9 | 72.4 | 27.6 |
| | 여성 | 66 | 30.3 | 50.0 | 16.7 | 3.0 | 80.3 | 19.7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24.1 | 43.1 | 27.6 | 5.2 | 67.2 | 32.8 |
| | 정신적장애 | 113 | 27.4 | 52.2 | 18.6 | 1.8 | 79.6 | 20.4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30.3 | 51.4 | 15.6 | 2.8 | 81.7 | 18.3 |
| | 퇴거자 | 62 | 19.4 | 45.2 | 32.3 | 3.2 | 64.5 | 35.5 |

코로나19로 인해 걱정되는 것을 조사한 결과 '걱정되는 부분 없음'(11.7%)을 제외하면, '감염위험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여가생활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29.2%), '교육 · 훈련 지연, 중단'(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감염위험이나 건강상의 문제'를 꼽은 비율이 대부분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여성의 경우 '여가생활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꼽은 비율이 36.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4-284〉 코로나19로 인해 걱정되는 것 - 성/장애유형/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감염 위험이나 건강상의 문제 | 여가생활 및 대인 관계의 어려움 | 걱정되는 부분 없음 | 교육·훈련 지연, 중단 | 사회 서비스 이용 에서의 어려움 | 기타 |
|---|---|---|---|---|---|---|---|---|
| 전체 | | 171 | 42.7 | 29.2 | 11.7 | 7.6 | 7.0 | 1.8 |
| 성별 | 남성 | 105 | 46.7 | 24.8 | 12.4 | 4.8 | 8.6 | 2.9 |
| | 여성 | 66 | 36.4 | 36.4 | 10.6 | 12.1 | 4.5 | 0.0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58 | 58.6 | 24.1 | 8.6 | 3.4 | 5.2 | 0.0 |
| | 정신적장애 | 113 | 34.5 | 31.9 | 13.3 | 9.7 | 8.0 | 2.7 |
|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 | 이용자 등 | 109 | 36.7 | 30.3 | 12.8 | 11.9 | 5.5 | 2.8 |
| | 퇴거자 | 62 | 53.2 | 27.4 | 9.7 | 0.0 | 9.7 | 0.0 |

### 4) 사회참여 소결

지난 1년간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한 응답자 비율은 70.8%이며, 이용 이유는 '각종 여가 프로그램 이용'이 64.5%로 가장 높았다. 또한 이용자의 대부분(99.2%)이 시설 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은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김용득, 2018)[42]으로, 응답자 특성상 이용률이 낮은 '신체적 장애'(41.4%), '퇴거자'(56.5%)의 시설 접근성을 높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루 평균 지역사회 활동 시간은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33.9%로 가장 높으며, 지역사회 활동 중 주로 '일'(36.8%)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중 90.9%는 지역사회 활동에 만족하다고 하였다. 탈시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활동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역할 제공과 지원이 필요하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응답자 중 32.7%는 감염 확산 기간에 '정보 획득(감염 발생 상황, 방역지침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24.6%는 '방역장비 구비 · 이용(마스크, 손소독제의 구매 및 이용 등)'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걱정되는 것은 '감염 위험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퇴거자'의 경우 '이용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역 관련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이 높고, 코로나19로 인해 걱정되는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났다[43]. 이를 통해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용자에 비해 지역사회에서 따로 거주하고 있는 퇴거자가 코로나19에 대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2) 탈시설 장애인에게는 거주지원서비스(residential support service)와 함께 지역사회에서의 일상과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지원서비스(non-residential community support service)가 제공되어야 함.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은 지역사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이용자가 방문하여 낮 시간을 잘 보내도록 돕는 '통소형 낮 활동 서비스(day services, dat activity service)를 제공하는 곳임. (출처) 김용득. (2018). 탈시설과 지역사회중심 복지서비스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자립과 상호의존을 융합하는 커뮤니티 케어. 보건사회연구. 38(3), 492-520.

43) '퇴거자' 중 41.9%(이용자 등 27.5%)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 중 '정보 획득'의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35.5%(이용자 등 18.3%)는 '방역장비 구비·이용'에 어려움을 경험하였음.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걱정되는 것에 대해 '감염 위험이나 건강상의 문제'의 비율은 53.2%임(이용자 36.7%)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 Ⅴ. 결 론

## 1 결론

2021년 종단연구는 최종적으로 171명 조사 완료하였다. 이 중 62명은 자립생활 주택을 통해 시설에서 퇴소 후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2021년 조사에 참여하였다.

〈표 5-1〉 조사연도별 참여 인원

(단위: 명)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 |
|---|---|---|---|---|
| 입주대기자 | 4 | 17 | 5 | - |
| 입주자 | 94 | 88 | 110 | 109 |
| 퇴거자 | 46 | 47 | 44 | 62 |
| 계 | 144 | 152 | 159 | 171 |

2021년 조사참여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61.4%, 여성이 38.6% 이다. 조사대상자의 연령대별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40대'가 26.9%로 가장 많았고, 남성의 경우 '40대'가 27.6%로 가장 많았고, 여성의 경우 '20대(19~29세)'가 27.3%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수단을 살펴보면, '음성-불완전한 수준'(40.4%), '몸짓'(4.1%), 'AAC(보완 대체 소통)'(2.9%), '필담', '수어'(각각 1.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90%는 매개로 하여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사회관계

가족, 친구/이웃,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정서적 도움 및 지지를 받고 있다고 여기는 비중(긍정)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18: 44.1% → '19: 37.2% → '20: 63% → '21: 68%).[44]

가족관계 만족도 중 '부모와의 관계'의 긍정(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적인 응답은 75.9%, '형제/자매/친척과의 관계'는 76.7%, '배우자와의 관계'는 77.8%로 나타났다. 세 문항 중, '부모와의 관계'와 '형제/자매/친척과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

44) 각 연도에서 가족, 주변사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모두에게 정서적 지지를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를 '긍정'으로 분류함. 4개년 모두 참여한 대상자만을 분석함. 세 개 항목 중 응답이 없는 항목이 있는 대상자는 분석에서 제외함

은 전년도(각각 61.7%, 62,3%) 대비 증가한 반면, '배우자와의 관계'는 전년도(88.9%) 대비 11.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정서적 도움 및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긍정적 응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18: 47.0% → '19: 48.6% → '20: 60.7% → '21: 72.5%), '주변사람'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부터의 정서적 도움 및 지지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5-2〉 정서적 도움 및지지 - 연도별

| 구분 | | 해당연도 | | | |
|---|---|---|---|---|---|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나는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 | 사례수 | 66 | 72 | 56 | 40 |
| | 부정 | 53 | 51.4 | 39.3 | 27.5 |
| | 긍정 | 47 | 48.6 | 60.7 | 72.5 |
| | 계 | 100 | 100 | 100 | 100 |
|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 | 사례수 | 102 | 120 | 92 | 87 |
| | 부정 | 17.6 | 15 | 9.8 | 11.5 |
| | 긍정 | 82.4 | 85 | 90.2 | 88.5 |
| | 계 | 100 | 100 | 100 | 100 |
| 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 | 사례수 | 111 | 129 | 98 | 95 |
| | 부정 | 10.8 | 5.4 | 12.2 | 4.2 |
| | 긍정 | 89.2 | 94.6 | 87.8 | 95.8 |
| | 계 | 100 | 100 | 100 | 100 |

단위: 명, (%)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부정 | 19 (55.9) | 27 (62.8) | 10 (37) | 8 (32) |
| 긍정 | 15 (44.1) | 16 (37.2) | 17 (63) | 17 (68) |
| 합계 | 34 (100) | 43 (100) | 27 (100) | 25 (100) |

* '18년-'20년 모두 응답한 대상자만 분석. 대리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지역사회 내에서 이웃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 인식은 전체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 15.87점 → '20: 15.77점 → '21: 15.06점).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동네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중이 각각 64.6%, 50.5%, '38.4%'로 2020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네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경계 한다'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2020년 대비 약 9%p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에서 구성원과의 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활동의 참여를 권장하고, 상호간에 친밀한 교류를 통해 정서적 지원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정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서비스 확대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3) 주거

조사대상자의 주택 마련방법은 정부제공이 88.9%로 2020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주택제공(62.6%)과 주택자금 제공(19.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립생활 주택 '퇴거자'의 경우에는 집주변 편의시설 확대(12.9%)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다. 거주 지역에서의 일상생활 불편을 느끼는 이유로는 시장, 마트, 은행 등의 생활시설, 대중교통의 부족 등으로 응답한 비율이 2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지원주택 서비스에 대한 전체 인지율은 2020년에 비해 22.7%p 높은 65.7%로 나타났으며,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향후 지원주택 서비스 이용의향 역시 자립생활 주택 이용 여부,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에 비해 26.3%p 높은 79.8%가 지원주택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주택알선 지원으로 2020년 조사와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개인의 위생이나 건강관리 의사소통 등에 대한 지원 욕구에 비해 주택, 주택환경 관리(시설관리, 집안청소 및 관리, 공과금 및 임대료 관리)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주거 영역의 응답결과를 종합해보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 주거안정에 대한 지원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다.

### 4) 건강

전반적 건강상태에 대한 응답변화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건강상태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8.9%로 직년년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에 따른 건강상태 긍정적 인지율 격차는 소폭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18: 8.12%p → '19: 8.84%p → '20: 14.75%p → '21: 10%p). 영양관리상태 분류결과 '영영관리 개선'이 33.3%로 2020년(45.9%)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주일 평균 패스트푸드 섭취 수가 4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1년 9.9%로 전년도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18: 12.5%p → '19: 7.9%p → '20: 7.5%p → '21: 9.9%p). 그리고 주기적으로 운동하지 않는 응답자는 전체의 41.5%로 2020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퇴거자'와 '이용자 등' 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며(18.3%p), 뿐만 아니라 1회 평균 운동 시간이 30분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8: 26.0%p → '19: 19.5%p → '20: 28.2%p → '21: 37.0%p). 주기적으로 운동 하지 않는 이유의 29.6%가 '운동을 싫어해서'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운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가 18.3%이다. 건강영역의 응답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식생활 관리, 운동의 필요성, 운동 방법 등 건강수준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건강증진 활동과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5) 의료

지난 6개월 간 의료기관 이용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3.3%이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질병치료'와 '장애, 합병증/후유증(재활)치료'가 각각 75.7%, 2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건강검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47.4%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정보 부족'이 15.8%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신체적 장애의 경우, '건강검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40.0%), '이동의 어려움'과 '장애인 관련 전문 인력 부족'이 각 20.0%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의 경우 '건강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검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55.6%), '정보 부족'(22.2%)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과 퇴거자의 경우 '건강검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각각 36.4%, 6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당사자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만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이 증가하고, 만족할 만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가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지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건강관리가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장애인 콜택시나 활동 보호자들을 활용하여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장애인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김석진과 정진성, 2018).[45] 병원이용을 위한 이동 편의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6) 심리상태

자아존중감 정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위요인들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보면, 퇴거자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거자'와 '이용자 등'의 자아존중감 정도 차이는 2020년 0.1점에서 0.21점으로 커졌다. 특히 '4.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다'에 대해 자립생활주택 '이용자 등'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2018: 2.97점 →2019: 2.89점 → 2020: 3.05 → 2021: 3.12), 퇴거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8: 2.86점 → 2019: 2.74점 → 2020: 2.65점 → 2021: 2.63점). '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항목에서 '퇴거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데 반해[46], '이용자 등'은 수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18: 3.13점 → '19: 2.98점 → '20: 2.93점 → '21: 2.88점). 자아존중감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지지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5) 김석진, 정진성. (2018).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이용한 장애인의 건강검진 현황 및 거강형태(신체활동 등)에 대한 소고. 35(2), 433-444.

46) '18: 2.89점 → '19: 2.94점 → '20: 3.0점 → '21: 2.82점

### 7) 일상생활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도움 유형별로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집안청소 및 관리'(70.0%), '식사'(68.9%) 등에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서도 '집안청소 및 관리'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집안관리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보여 진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의 경우 '집안청소 및 관리'(85.7%), '식사'(81.0%)에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는 '금전관리'(68.8%), '식사'(58.3%)에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이용 여부별로는 '이용자 등'의 경우 '금전관리'(69.6%), '식사'(67.4%)에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퇴거자의 경우 '집안청소 및 관리'(77.3%), '식사'(70.5%)에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식사 지원에 대한 욕구가 크며, 장애유형에 따른 일상생활 지원을 받고 있는 분야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요로 하는 도움의 유형과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만족도는 93.9%로 2020년 85.1%, 2019년 70.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거자의 보조기기 만족도는 자립생활주택 '이용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주로 도움을 받는 부분은 집안청소 및 관리(70.0%), 식사(68.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거자와 자립생활주택 '이용자 등'과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퇴거자의 경우 집안청소 및 관리, 식사, 전반적 일상생활에 대한 욕구가 '이용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장애유형에 따른('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 차이가 큰 항목은 '금전관리', '학습활동', '집안청소 및 관리'이다. 주거공간 안에서 생활하는데 필요로 하는 도움에 대해서는 신체장애인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관리' 항목에 대해서는 신체적장애인(40.9%)보다 정신적장애인(70.9%)의 도움 필요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주거지원(36.6%)', '일상생활 활동지원(19.3%)', '직업재활/취업(1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걱정되는 항목과 유사한데, 현재 걱정되는 항목으로는 '일상생활 지원(22.8%)' '주거(21.1%)', '건강악화(18.7%)' 순 이다. 특히 퇴거자의 경우 건강악화(29.0%), 장래재정(22.6%)에 대한 걱정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강관리를 위

한 미래 준비 정도가 미비하다는 응답은 72.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가장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상생활 지원'이 2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거'(21.1%), '건강 악화'(18.7%), '장래 재정'(12.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미래의 계획에 대해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일상생활 지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음(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음,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은 편임)의 비율이 5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퇴거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건강 및 일상생활에 관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시설 퇴소 이후 자립생활에서 주거와 재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재정과 건강관리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8) 여가활동

장애인들의 여가활동 참여기회 확대는 장애인의 여가기능 향상을 통한 심리적·정신적 풍요로운 삶의 살 수 있게 하고, 사회적 기능 향상을 통한 사회적 재활 촉진과 자립생활 증진 등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목표인 사회통합 실현에 긍정적 작용을 할 것이다 김선규, 이한선, 2010).[47]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 조사결과, 여가활동에 만족한다[48](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함)는 의견이 89.8%로 직전년도 80.5%와 비교하여 약 9%p 높게 나타났다(이용자 등: 94.0%, 퇴거자: 85.4%).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 활동은 '텔레비전 보기'가 4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컴퓨터 또는 인터넷'(18.7%),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여가 활동'(11.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균 활동시간 기준으로는 '라디오 듣기'가 330.0분으로 가장 길었고, 다음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여가활동'(260.5분), '텔레비전 보기'(253.5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비교 결과, 여가활동 유형 중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여가활동'의 비율이 전년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텔레비전 보기'는 전년도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로 누구와 여가활동을 하는지 조사한 결과, 48.8%가 '혼자' 여가활동을 한다고 응답하였고, '활동지원사/시설종사자'(39.4%), '친구/동료'(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활동지

47) 김선규, 이한선. (2010). 장애인의 여가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지적장애연구. 12(1), 123-147.
48)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여가활동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임

원사/시설종사자'라는 응답비율이 전년도(32.9%)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친구/동료'라는 응답은 전년도(13.3%)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Alexandris (2002)는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적절한 여가동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사회관계, 삶의 질 등의 향상을 촉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텔레비전 보기 등 수동적 여가활동 보다는 야외활동 및 스포츠와 같은 능동적 여가활동이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임영명, 차태현. (2018).에서 재인용)[49]. 여가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와 야외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 9) 평생교육

평생교육의 역할은 생애 주기에 따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서 자립생활 실현에 필요한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다 (이창호, 2013; 조창빈와 김두영, 2016 에서 재인용)[50]. 조사결과, 평생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7%로,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41.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16.4%), '참여하고 싶은 교육프로그램이 없어서'(1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비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5.1%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향후 평생교육에 참여할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63.7%는 참여 의향을 보였다('이용자 등': 73.4%, 퇴거자: 46.7%). 이들 중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취미 및 여가활동'이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근 들어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은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기반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으로 지역사회내 자립생활 뿐 아니라 사회통합 역시 강조하고 있다 (최윤영과 이세희, 2020에서 재인용)[51]. 평생교육이 공통된 관심 주제에 대한 소통

49) 임영명, 차태현. (2018).에서 재인용. (출처) 임영명, 차태현. (2018). 국내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관한 요인.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8). 293-299.; J. K. Lee, D. K. Kim & M. S. Lee. (2007). Influences of Leisure time and Leisure activity pattern according to implementation of 40-time workweek system on the changes of satisfaction with Leisure, job, and Life of Korean employee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6(2), 301-316.

50) 조창빈, 김두영. (201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현황 및 요구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7(4). 1-24.

51) 최윤영, 이세희. (2020). 장애인 평생교육의 인식 및 과제에 관한 연구.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4), 133-139.

www.koo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는 자립생활의 필요한 기능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10) 고용

직업은 개개인의 삶의 형태와 그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직업이라는 의미는 단순한 생계수단이라는 의미 이상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아실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사회의 한구성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도록 하는 도구이다(박지순. (2015)에서 재인용)[52]. 지난주 돈을 벌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다는 응답은 48.5%로 전년도(40.9%) 대비 근로 비율은 7.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18: 36.8% → '19: 31.6% → '20: 40.9% → '21: 48.5%). 그러나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비율('18: 34% → '19: 52% → '20: 63.3% → '21: 71.6%)과 근로시간이 시간제('18: 37.1% → '19: 37.5% → '20: 68% → '21: 81.6%)인 경우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주에 돈을 벌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했지만,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난주에 근로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기타(코로나로 인해)'가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20.0%), '농한기, 금어기 등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로 인해'(20.0%)로 나타났다.

직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업 유형을 조사한 결과, '단순노무 종사자'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서비스 종사자'(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약 47% 이상이 1년 미만 근무로, 현재 직장의 평균 급여가 50만원 미만인 비율이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18: 60.4 → '19: 54% → '20: 48% → '21: 42.5%).

직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장 만족도를 영역별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만족도는 92.6%(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전년도(87.5%) 대비 5.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보수와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연도별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근로를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일을 도와 줄 수 있는 사람', '탄력근무제·근무시간 조정', '직업훈련/재훈련'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요

52) 박지순. (2015). 장애인 취업자에게 제공된 직무 관련 배려경험이 장애수용과 직무만족,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재활복지공학회 논문지. 9(3). (출처) 나운환, 장애학: 통합재활적 적근, 나눔의 집, 211. 2008.

건이나 직업관련 경험 또는 기술부족 등의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은 25.0%,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구직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구직 의향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55.0%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등 직업 경험을 통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구직을 원하지 않거나 취업 동기가 낮은 장애인들의 개인의 심리적 강점 또는 삶의 만족감을 향상시킨다면, 이를 통해 고용의 동기가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류승아, 2021).[53]

### 11) 경제상황

지출이 가장 많은 영역은 식료품비 이며,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 역시 식료품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내가 결정한다가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주택 구입 및 이사, 금전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역시 '사회복지지시설 종사자와 의논해서 함께 결정' 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퇴거자'의 경우 생활비 지출, 주택구입 및 이사와 금전관리 모두 '전적으로 스스로 결정한다'는 비율이 각각 50%, 43.5%,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립생활 주택 이용자 중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의논하여 경제 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만, 퇴거이후에는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퇴거 이후 경제관리 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

### 12) 사회참여

지역사회 활동의 참여는 자립생활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지역사회 활동 중 주로 시간을 소비하는 활동으로는 '일'이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개인유지 활동'(21.1%), '문화관광 및 스포츠/레포츠 활동'(11.7%), '학습활동'(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활동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9.1%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사회 활동의 참여를 통해 자립생활을 유지 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53) 류승아. (2021). 장애인 고용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 인문논총. 55. 73-95.

2021년 조사에는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에 경험한 방역 관련 어려움을 조사하였다. '정보 획득(감염 발생상황, 방역지침 등)'의 경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32.7%로 나타났으며, '방역장비 구비 · 이용(마스크, 손소독제의 구매 및 이용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6%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걱정되는 것으로는 '감염위험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여가생활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29.2%), '교육 · 훈련 지연, 중단'(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거자'는 '이용자 등'에 비해 '정보획득'과 '방역장비 구비 및 이용'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비중이 약 1.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감정기, 최복천, 송정문. (2012).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인식 및 지원욕구에 관한 연구: 경상남도 지역사례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37, 7-48.

강정배, 김현지, 김태용. (2018). 서울시 탈시설 종단연구(2018년).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강정배, 김현지, 김태용. (2019). 서울시 탈시설 종단연구(2019년).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강정배, 김현지, 김태용, 이혜수. (2020). 서울시 탈시설 종단연구(2020년).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강정배, 김동기, 오미애, 윤상용, 최현수, 김민, 김현지, 김태용. (2018). 장애인패널 예비조사.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백종만. (1998). 사회복지수용시설 수용자의 인권실태. 국회인권포럼 제3회 정책 심포지움. 국가인권포럼.

김문길, 김태완, 오미애, 박형존, 신재동, 정희선, 이주미, 이병재, 박나영, 이봉주, 김태성, 안상훈, 박정민, 이상록, 정원오, 이서윤, 김화선, 함선유. (2016). 2016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선규, 이한선. (2010). 장애인의 여가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지적장애연구. 12(1), 123-147.

김성희, 황주희, 이민경, 강민희, 김동주, 심석순, 정희경. (2013).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득, 김미옥, 허곤, 이승기, 서동명, 전미자, 김진우, 윤덕찬, 김동기, 장기성. (2015).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운영기준 등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보고서. 서울: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정연. (2011). 자기결정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경도장애학생의 선택하기 기술과 사회적 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정희, 김경란, 강정배, 성명진, 윤덕찬, 유경민, 송기호, 나영희. (2015). 탈시설(발달장애인) 모델 개발 연구. 서울: 서울시청,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정희, 김영미, 염경진. (2009). 생활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방안 연구.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성희, 이연희, 오욱찬, 황주희, 오미애, 이민경, 이난희, 오다은, 강동욱, 권선진, 오혜경, 윤상용, 이선우. (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운환, 장애학: 통합재활적 적근, 나눔의 집, 211. 2008.

도남희, 김정숙, 하민경. (2013). 영유아생활시간조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류승아. (2021). 장애인 고용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 인문논총. 55. 73-95.
박지순. (2015). 장애인 취업자에게 제공된 직무 관련 배려경험이 장애수용과 직무 만족,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재활복지공학회 논문지. 9(3).
서종균. (2009).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정책의 과제. 국토연구, 61, 81-102.
이만우, 김은표. (2017).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의 개선방안.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이창호(2013). 대학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모형 개발. 평택, 한국복지대학교.
임영명, 차태현. (2018). 국내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관한 요인.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8). 293-299.
조창빈, 김두영. (201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현황 및 요구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7(4). 1-24.
조창빈, 김두영. (201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현황 및 요구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7(4). 1-24.
제임스 콘로이. (2015). The Pennhurst Longitudinal Study: Science and Public Policy. 2015 장애인정책 국제포럼.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
최윤영, 이세희. (2020). 장애인 평생교육의 인식 및 과제에 관한 연구.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4), 133-139.
임예직, 박혜원, 이기영, 정광진, 김언아. (2017). 2017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경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2017). 2017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한현민, 신진숙, 윤광보, 강미라, 이영철, 김향지, 김남순, 김원경, 민천식. (2011). 지원정도척도(SIS). 서울: 시그마프레스
Beadle, B. J., Mansell, J., Kozma, A. (2007). Deinstitutionalization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al disorders*, 20(5), 437-442.
Braddock, D. L., Hemp, R. E., Tanis, E. S., Wu, J., & Haffer. L. (2017). *The State of the States in Intellectual Disabilities(11th edition)*. University of Colorado.
Charlie. L., Sheryl. L., & Shannon. K. (2010). *Behavioral Outcomes of Deinstitutionalization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and/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ird Decennial Review of U.S. Studies, 1977-2010.* Policy Research Brief. University of Minnesota.
Duane, F. S. (2003). *The Disability Rights Movement: From Deinstitutionalization to Self-determinati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James, W. C., & Valerie J. B. (1985). *Pennhurst Longitudinal Study*. Temple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University.

J. K. Lee, D. K. Kim, and M. S. Lee. (2007). Influences of Leisure time and Leisure activity pattern according to implementation of 40-time workweek system on the changes of satisfaction with Leisure, job, and Life of Korean employee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6(2), 301-316.

Rosenberg, M. (1979).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NY: Basic Books.

Wehmeyer, M. L. (1995). T*he Arc's Self-Determination Scale*. Arlington, TX: The Arc National Headquarters.

www.koddi.or.kr 한국정보인재개발원

# 부 록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 부록 1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종단분석

## 1. 주관적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 1) 분석개요 및 분석결과[54)]

#### (1) 분석자료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는 사회관계, 주거, 건강, 의료 및 경제상황 등 다양한 항목을 조사한다. 본 분석은 2018년-2020년까지 조사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최종분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부록1 표 1-1〉 분석대상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입주자 | 94 | 74 | 66 |
| 퇴거자 | 46 | 47 | 43 |
| 계 | 140 | 121 | 109 |

2018년도 1차 조사는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및 퇴거자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들을 추적조사한 결과 2019년도과 2020년도에는 각각 121명과 109명의 조사가 완료되어, 이들을 분석대상으로 고려하였다. 이들의 응답패턴은 다음과 같다.

〈부록1 표 1-2〉 분석대상의 응답패턴

| 응답패턴 | 인원(명) | 비율(%) | 누적(명) |
|---|---|---|---|
| 111 | 102 | 72.9 | 102 |
| 110 | 19 | 13.6 | 121 |
| 101 | 7 | 5.0 | 128 |
| 100 | 12 | 8.6 | 140 |
| 계 | 140 | 100 | - |

주) 1: 응답, 0: 응답안함. 111은 2018(1차)-2020(3차)까지의 모든 조사에 참여한 겨우임

54) 본 절의 분석은 정병철 교수(시립대학교 통계학과)가 수행하였음

〈부록1 표 1-2〉를 살펴보면, 2018-2020년도 3개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한 대상은 102명 이다. 2018년과 2019년도 2개 년도에만 조사된 응답자는 19명을 약 13.6%를 차지하였고, 2018년과 2020년에 조사된 응답자는 7명(5.0%), 2018년도에만 조사된 응답자도 12명(8.6%)으로 나타났다.

### (2)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는 삶의 주요 영역별로 만족도[55]를 조사하고 있으며, 본 분석에서는 전체를 응답대상으로 하는 다음 3문항을 활용하여 삶의 만족도 변수로 활용하였다.

(1) 현재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어떠하십니까?
(2) 현재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어떠하십니까?
(3) 현재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어떠하십니까?

각 문항은 모두 10점 척도로 '매우 불만족'이면 1점이고 '매우 만족'이면 10점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고려한 삶의 만족도는 3점에서 30점사이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주요 독립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교육수준, 연령, 시설입주상태, 장애유형, 직업유무, 한달 수입을 고려하였고,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록1 표 1-3〉 인구사회학적 특성

| 독립변수 | 변수설명 |
|---|---|
| 성(GENDER) | 남성=1, 여성=0 |
| 교육수준(EDU) | 초등이하=1, 중학교=2, 고등학교=3, 대학이상=4 |
| 연령(AGE) | 연령(만) |
| 시설입주상태(TYPE) | 입주=1, 퇴거=0 |

55) 건강, 수입, 주거환경, 학교생활(평생교육 포함), 직업, 결혼생활, 사회적 관계,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대해 영역별로 조사하고 있다.

| 독립변수 | 변수설명 |
|---|---|
| 장애유형(DIS_TYPE) | 정신적 장애=1, 신체적 장애=2 |
| 직업유무(JOB) | 있음=1, 없음=0 |
| 월평균소득(INC) | 50만원이하=1, 50-100만원=2, 100만원초과=3 |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중에서 교육수준(EDU)과 한달수입(INC)은 연속형 변수로 고려하였고, 나머지 변수들은 더미변수로 취급하였다.

### ② 정서적 도움과 지지

본 연구에서 정서적 도움과 지지 수준(HELP_S) 변수로 다음 2개 변수를 활용하였다.

| |
|---|
| (1)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br>(2) 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 |

위 문항은 모두 4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그렇다" 4점으로 측정되었다. 정서적 도움과 지지수준(HELP_S 점수)은 2문항의 합으로 산정하였으며, 값의 범위는 최소 2점에서 최대 8점이다.

### ③ 미래를 위한 준비수준

본 연구에서 미래를 위한 준비수준(FUTURE_S)으로는 영역별 미래 준비 정도 문항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 | |
|---|---|
| (1) 직업 및 취업<br>(2) 장래 재정<br>(3) 이성교제 및 결혼<br>(4) 주거 | (5) 건강관리<br>(6) 교육<br>(7) 문화 및 여가활동<br>(8) 일상생활지원 |

각 문항은 모두 4점 척도이며,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음"은 1점이고, "모두 준비되어 있음"은 4점이다. 미래를 위한 준비수준(FUTURE_S) 점수는 위에 나타난 8문항의 합 점수를 이용하였으며, 최소 8점부터 최대 32점까지 나타날 수 있다.

④ 자아존중감

본 연구가 자아존중감은 다음과 같은 10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내가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4)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다
(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6)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7)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9) 나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0)나는 나 자신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각 문항은 모두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측정되었다. 이 중 (3), (6), (9), (10)은 역문항으로 역코딩하여 활용하였다. 자아존중감(SELF_ESTEEM) 변수는 10개 문항의 합으로 측정하였다. 10개 문항의 합을 구하기 전에 이들 문항간의 문항내적 일치도를 측정한 결과 Cronbach's alhpa 값이 0.831로 나타나 이들 문항은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분석방법

본 분석은 서울시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어떤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가장 먼저 각 변수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수들 간의 차이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정, 분산분석 및 다변량분산분석법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최종으로는 패널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각 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하였다. 모든 분석은 SAS 9.4와 STATA1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①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고려한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부록1 표 1-4〉에 나타나 있다.

〈부록1 표 1-4〉 일반적 특성

| 특성 | | 연도 | | |
|---|---|---|---|---|
| | | 2018 | 2019 | 2020 |
| 성별 | 여성 | 39(27.86) | 37(30.58) | 32(29.36) |
| | 남성 | 101(72.14) | 84(69.42) | 77(70.64) |
| 교육 수준 | 초교이하 | 51(36.43) | 51(42.15) | 45(41.28) |
| | 중학교 | 19(13.57) | 13(10.74) | 20(18.35) |
| | 고등학교 | 56(40.00) | 48(39.67) | 34(31.19) |
| | 대학이상 | 14(10.00) | 9(7.44) | 10(9.17) |
| 연령대 | 20대 | 35(25.00) | 27(22.31) | 22(20.18) |
| | 30대 | 36(25.71) | 30(24.79) | 23(21.10) |
| | 40대 | 37(26.43) | 33(27.27) | 32(29.36) |
| | 50대 | 20(14.29) | 21(17.36) | 21(19.27) |
| | 60이상 | 12(8.57) | 10(8.26) | 11(10.09) |
| 입주 상태 | 퇴거 | 46(32.86) | 47(38.84) | 43(39.45) |
| | 입주 | 94(67.14) | 74(61.16) | 66(60.55) |
| 장애 유형 | 신체적 장애 | 72(51.43) | 65(53.72) | 59(54.13) |
| | 정신적 장애 | 68(48.57) | 56(46.28) | 50(45.87) |
| 직업 유형 | 상용직 | 34(24.29) | 23(19.01) | 17(15.60) |
| | 일용직 | 18(12.86) | 23(19.01) | 38(34.86) |
| | 없음 | 88(62.86) | 75(61.98) | 54(49.54) |
| 월평균 소득 | 50만원이하 | 21(15.00) | 9(7.44) | 17(15.60) |
| | 50-100만원 | 94(67.14) | 80(66.12) | 59(54.13) |
| | 100만원초과 | 25(17.86) | 32(26.45) | 33(30.28) |
| 합계 | | 140 | 121 | 109 |

성별을 살펴보면, 2018년도에는 여성이 39명(27.86%) 조사되고, 남성이 101명(72.14%) 조사되었고, 응답자의 성별 비율은 2019년과 2020년도가 유사하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각 년도에서 초등학교이하와 고등학교가 각각 40%가까이 나타나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각 년도에서 연령대는 20대에서 60대까지 고르게 조사되었으며, 자립생활주택 입주상태에서는 퇴거자가 약 40% 정도 입주자가 약 6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은 각 년도에서 신체적 장애인의 비율이 정신적 장애인 비율보다 약간 높게 조사되었다. 직업유형으로는 2018년도 조사(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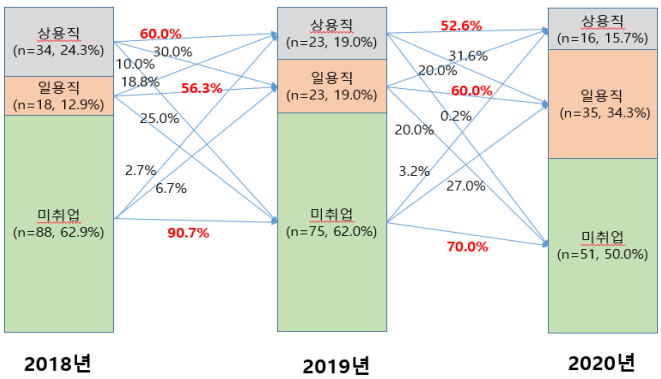
에서는 '없음' 비율이 62.86%로 높게 나타나고, 상용직 및 일용직은 각각 24.29%와 12.86%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 조사에서는 '직업 없음' 비율과 상용직 비율은 각각 49.54%와 15.6%로 2018년도에 비하여 줄어든 반면 일용직 비율은 34.86%로 2018년에 비하여 아주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각 년도에서 50-100만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② 분석대상의 동적 변화

패널 데이터 사용의 장점 중 하나는 각 응답자들의 동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직업의 종류(상용직, 일용직, 미취업)과 월평균소득(50만원미만, 50만원-100만원, 100만원초과) 등 2개의 변수를 고려하여 응답대상 장애인들의 동적변화 모습을 파악하였다.

#### 가. 직업형태에 대한 동적변화

다음 [부록1 그림-1]은 응답자들의 직업형태에 대한 동적변화를 나타내고, 〈부록1 표 1-5〉는 이들을 종합한 전이확률을 각각 나타낸다.




[부록1 그림-4] 직업형태에 대한 연도별 동적변화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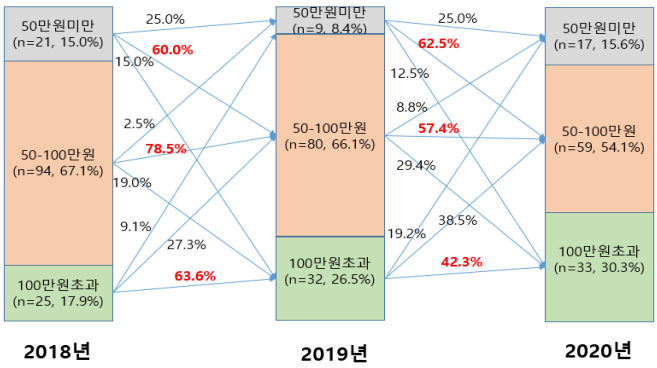
〈부록1 표 1-5〉 직업형태에 대한 추정된 전이확률

| | | 이후 직업형태 | | | 합계 |
|---|---|---|---|---|---|
| | | 상용직 | 일용직 | 미취업 | |
| 이전 직업형태 | 상용직 | 58.00% | 30.00% | 12.00% | 100.00% |
| | 일용직 | 18.42% | 60.53% | 21.05% | 100.00% |
| | 미취업 | 2.82% | 16.20% | 80.99% | 100.00% |
| 합계 | | 17.39% | 26.52% | 56.09% | 100.00% |

[부록1 그림-1]과 〈부록1 표 1-5〉을 살펴보면, 상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유지되는(전이되는) 비율은 평균 58.00%로 나타나고,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전이되는 비율을 30.00%로 나타나고 있다. 일용직에서는 다음년도에 일용직으로 전이되는 비율(60.53%)이 가장 높았으며, 일용직에서 미취업상태로 전이되는 비율도 21.05%로 높게 나타났다. 미취업 상태에서는 미취업상태로 전이되는 비율이 80.99%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미취업에서 상용직으로 전이되는 비율은 2.82%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나. 소득그룹에 대한 동적변화

[부록1 그림-2]은 응답자들의 월평균소득에 대한 동적변화를 나타내고, 〈부록1 표 1-6〉은 이들을 종합한 전이확률을 각각 나타낸다.




[부록1 그림-6] 월평균소득의 연도별 동적변화

〈부록1 표 1-6〉 월평균소득 그룹에 대한 추정된 전이확률

| | | 이후 월평균소득 그룹 | | | 합계 |
|---|---|---|---|---|---|
| | | 50만원미만 | 50-100만원 | 100만원 초과 | |
| 이전 월평균소득 그룹 | 50만원미만 | 25.00% | 60.71% | 14.29% | 100.00% |
| | 50-100만원 | 7.84% | 69.28% | 22.88% | 100.00% |
| | 100만원초과 | 14.29% | 32.65% | 53.06% | 100.00% |
| 합계 | | 11.30% | 60.43% | 28.26% | 100.00% |

[부록1 그림-2]과 〈부록1 표 1-6〉를 살펴보면, 월평균소득 그룹이 이전 년도에 50만원 미만에서 이후 년도에 50만원 미만 그룹으로 전이되는 비율은 평균 25%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50-100만원 그룹으로 전이되는 비율은 60.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이 50-100만원 그룹에서는 다음년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비율은 69.2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100만원 초과 그룹으로 전이되는 비율도 22.88%로 나타났다. 반면 이 그룹에서 다음년도에 50만원 미만으로 전이되는 비율은 7.84%로 낮게 나타났다. 소득이 100만원 초과 그룹에서는 다음년도에도 100만원 초과 그룹으로 전이되는 비율은 53.06%로 소득을 유지하는 비율은 전체 중의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100만원 초과그룹에서 다음년도에 50-100만원 그룹으로 전이되는 비율은 32.65%로 나타났고, 50만원 미만그룹으로 전이되는 비율은 11.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③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만족도에 대한 차이검정

이번 절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대, 연령대, 직업, 수입, 입주상태, 장애유형)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도별 t 검정, 연도별 ANOVA 및 다변량 분산분석(N=62)을 실시하였다. 다변량 분산분석은 연도별 분석이 아니라 연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집단간 평균차이를 검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다변량 분산분석을 고려한다고 하자.

이때 $\mu_{1,t}$를 남성의 $t$년도의 삶의 만족도 평균이라 정의하고, $\mu_{2,t}$를 여성의 $t$년도의 삶의 만족도 평균이라 정의한다면, 다변량 분산분석은 3개년도에 얻어진 삶의 만족도의 평균이 성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검정하는 검정법으로 귀무가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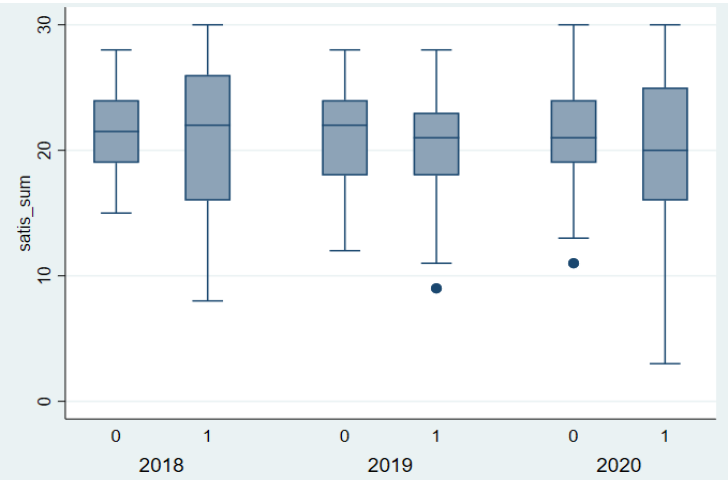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H_0 : \begin{pmatrix} \mu_{1,2018} \\ \mu_{1,2019} \\ \mu_{1,2020} \end{pmatrix} = \begin{pmatrix} \mu_{2,2018} \\ \mu_{2,2019} \\ \mu_{2,2020} \end{pmatrix}$와 같이 정의된다. 따라서 다변량 분산분석은 전체 연도의 삶의 만족도 평균을 동시에 검정하는 방법이므로, 각 년도의 삶의 만족도가 모두 측정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검정을 실시한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동안 삶의 만족도가 측정된 응답자는 모두 62명으로 나타나, 이들 응답자만 대상으로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분석

다음 [부록1 그림-3]는 연도별 성별 삶의 만족도 점수의 분포 그래프를 나타낸다. [부록1 그림-3]를 살펴보면, 각 연도에서 성별 삶의 만족도 점수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부록1 표 1-7〉은 삶의 만족도에 성별 차이가 있는가를 연도별로 검정한 T 검정과 연도를 종합하여 검정한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이다. 각 년도에서 T통계량 값이 작게 나타나 성별 만족도의 평균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들을 동시에 고려한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에서도 성별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1 그림-8] 연도별 성별 삶의 만족도 분포

〈부록1 표 1-7〉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성별차이 검정(연도별 T검정과 다변량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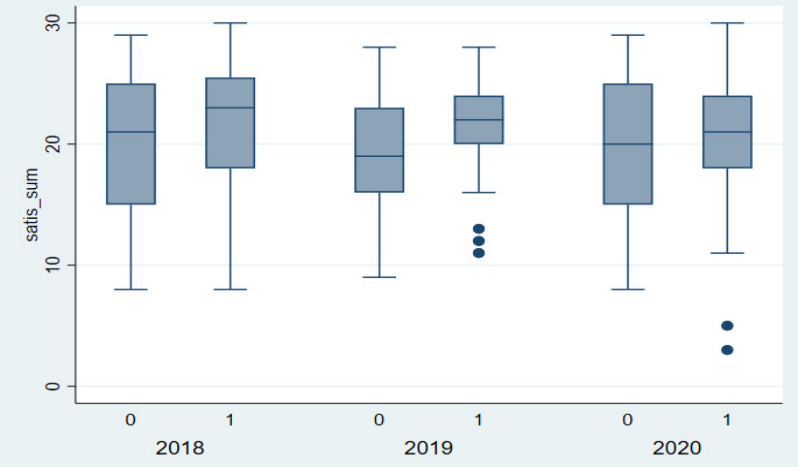
| | | 일변량 분석(연도별 독립 t검정) | | | | |
|---|---|---|---|---|---|---|
| | | 연도 | n | 평균 | 표준편차 | T통계량 |
| 성별 | 여성 | 2018 | 26 | 21.42 | 3.56 | 0.57 |
| | 남성 | | 81 | 20.73 | 5.87 | |
| | 여성 | 2019 | 33 | 21.21 | 4.53 | 0.77 |
| | 남성 | | 76 | 20.54 | 4.05 | |
| | 여성 | 2020 | 22 | 21.05 | 4.62 | 0.89 |
| | 남성 | | 59 | 19.71 | 6.43 | |

| 다변량 분산분석(n=62) | | | |
|---|---|---|---|
| 통계량 | Value | F Value | Pr 〉 F |
| Wilks' Lambda | 0.956 | 0.880 | 0.457 |
| Pillai's Trace | 0.044 | 0.880 | 0.457 |
| Hotelling-Lawley Trace | 0.046 | 0.880 | 0.457 |
| Roy's Greatest Root | 0.046 | 0.880 | 0.457 |

나. 자립생활주택 입주상태(입주, 퇴거)별 삶의 만족도 차이 분석

다음 [부록1 그림-4]과 〈부록1 표 1-8〉는 연도별 입주상태별 삶의 만족도 점수의 분포 그래프와 삶의 만족도에 입주상태별 차이가 있는가를 연도별로 검정한 T 검정과 연도를 종합하여 검정한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를 각각 나타낸다. [부록1 그린-4]〉과 〈부록1 표 1-8〉을 살펴보면, 2018년과 2020년도에는 입주상태별 삶의 만족도의 평균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9년도에는 입주상태별 삶의 만족도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입주자의 삶의 만족도 평균이 퇴거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3개년을 모두 고려한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에서는 입주상태별 삶의 만족도의 평균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168).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부록1 그림-9] 연도별 입주상태(퇴거=0, 입주=1)별 삶의 만족도 분포

〈부록1 표 1-8〉 삶의 만족도에 대한 입주상태별 차이 검정(연도별 T검정과 다변량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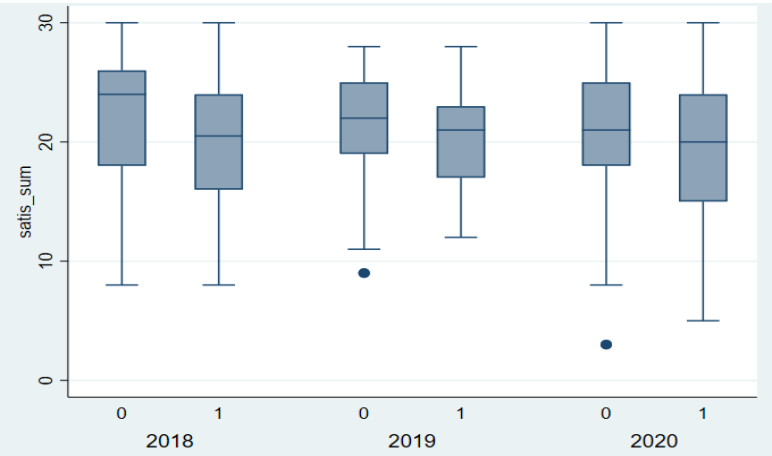
| | | 일변량 분석(연도별 독립 t검정) | | | | |
|---|---|---|---|---|---|---|
| | | year | 관측값 수 | 평균 | 표준편차 | T |
| 입주 상태 | 퇴거 | 2018 | 43 | 19.98 | 5.55 | -1.46 |
| | 입주 | | 63 | 21.52 | 5.23 | |
| | 퇴거 | 2019 | 47 | 19.21 | 4.49 | -3.48*** |
| | 입주 | | 62 | 21.90 | 3.57 | |
| | 퇴거 | 2020 | 39 | 19.23 | 5.95 | -1.22 |
| | 입주 | | 42 | 20.86 | 6.00 | |

| 다변량 분산분석(n=62) | | | |
|---|---|---|---|
| 통계량 | Value | F Value | Pr 〉 F |
| Wilks' Lambda | 0.917 | 1.740 | 0.168 |
| Pillai's Trace | 0.083 | 1.740 | 0.168 |
| Hotelling-Lawley Trace | 0.090 | 1.740 | 0.168 |
| Roy's Greatest Root | 0.090 | 1.740 | 0.168 |

주) *: p〈0.1, **: p〈0.05, ***: p〈0.001.

다. 장애유형(정신장애, 신체장애)별 삶의 만족도 차이 분석

다음 [부록1 그림-5]와 〈부록1 표 1-9〉 는 연도별 장애유형별 삶의 만족도 점수의 분포 그래프와 삶의 만족도에 장애유형별 차이가 있는가를 연도별로 검정한 T 검정과 연도를 종합하여 검정한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를 각각 나타낸다. [부록1 그림-5]와 〈부록1 표 1-8〉 을 살펴보면, 각 년도에서 신체적 장애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정신적 장애의 경우 삶의 만족도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3개년을 모두 고려한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에서도 신체적 장애의 경우 삶의 만족도 평균이 정신적 장애의 경우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34).




[부록1 그림-11] 연도별 장애유형(신체적 장애=0, 정신적 장애=1)별 삶의 만족도 분포

〈부록1 표 1-9〉 삶의 만족도에 대한 장애유형별 차이 검정(연도별 T검정과 다변량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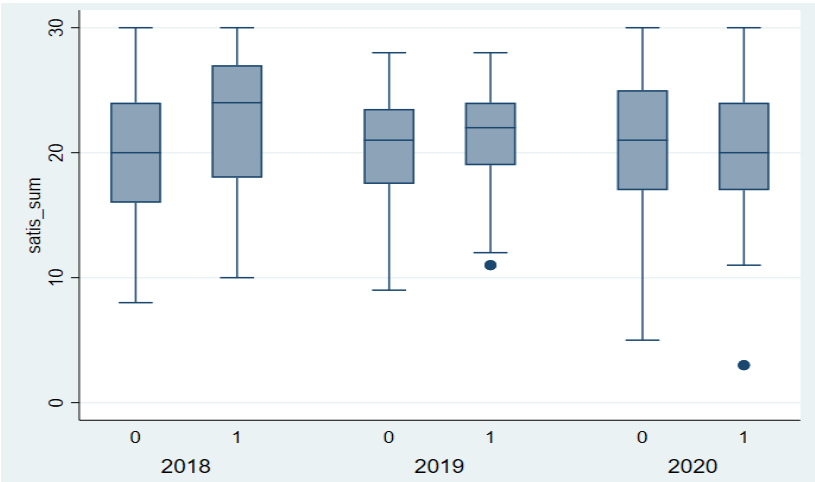
| | | 일변량 분석(연도별 독립 t검정) | | | | |
|---|---|---|---|---|---|---|
| | | 연도 | 관측값 수 | 평균 | 표준편차 | T |
| 장애유형 | 신체적장애 | 2018 | 49 | 22.27 | 5.19 | 2.47* |
| | 정신적장애 | | 58 | 19.74 | 5.32 | |
| | 신체적장애 | 2019 | 54 | 21.69 | 4.17 | 2.37* |
| | 정신적장애 | | 55 | 19.82 | 4.04 | |
| | 신체적장애 | 2020 | 39 | 20.72 | 6.10 | 0.93 |
| | 정신적장애 | | 42 | 19.48 | 5.90 | |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 다변량 분산분석(n=62) | | | |
|---|---|---|---|
| 통계량 | Value | F Value | Pr 〉 F |
| Wilks' Lambda | 0.863 | 3.080 | 0.034 |
| Pillai's Trace | 0.137 | 3.080 | 0.034 |
| Hotelling-Lawley Trace | 0.159 | 3.080 | 0.034 |
| Roy's Greatest Root | 0.159 | 3.080 | 0.034 |

라. 직업유무별 삶의 만족도 차이 분석

다음 [부록1 그림-6]와 〈부록1 표 1-10〉는 연도별 직업유무별 삶의 만족도 점수의 분포 그래프와 통계적 가설검정의 결과를 각각 나타낸다. [부록1 그림-6]와 〈부록1 표 1-9〉를 살펴보면, 2018년도에만 직업이 있는 응답자의 삶의 만족도 평균이 직업이 없는 응답자보다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2019년과 2020년에는 두 집단간 평균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년을 모두 고려한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에서도 직업유무별 삶의 만족도의 평균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190).




[부록1 그림-13] 연도별 직업유무(없음=0, 있음=1)별 삶의 만족도 분포

〈부록1 표 1-10〉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직업유무별 차이 검정(연도별 T검정과 다변량 검정)

| | | 일변량 분석(연도별 독립 t검정) | | | | |
|---|---|---|---|---|---|---|
| | | 연도 | n | 평균 | 표준편차 | T통계량 |
| JOB | 없음 | 2018 | 62 | 19.81 | 5.26 | -2.52* |
| | 있음 | | 45 | 22.40 | 5.26 | |
| | 없음 | 2019 | 64 | 20.17 | 4.25 | -1.71 |
| | 있음 | | 45 | 21.56 | 4.02 | |
| | 없음 | 2020 | 44 | 20.00 | 6.13 | -0.12 |
| | 있음 | | 37 | 20.16 | 5.91 | |

| 다변량 분산분석(n=62) | | | |
|---|---|---|---|
| 통계량 | Value | F Value | Pr 〉 F |
| Wilks' Lambda | 0.922 | 1.640 | 0.190 |
| Pillai's Trace | 0.078 | 1.640 | 0.190 |
| Hotelling-Lawley Trace | 0.085 | 1.640 | 0.190 |
| Roy's Greatest Root | 0.085 | 1.640 | 0.190 |

마. 양적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다음 〈부록1 표 1-11〉은 종속변수로 고려한 삶에 대한 만족도와 설명변수로 고려한 정서적 도움, 미래준비 및 자아존중감과의 연도별 상관계수를 나타낸다.

〈부록1 표 1-11〉 각 연도별 변수간 상관계수

| 연도 | 변수 | satis_sum (만족도) | help_s (정서적 도움) | future_s (미래준비) | self_esteem (자아존중감) |
|---|---|---|---|---|---|
| 2018년 | satis_sum (만족도) | 1.000 (n=107) | | | |
| | help_s (정서적도움) | 0.055 (n=96) | 1.000 (n=98) | | |
| | future_s (미래준비) | 0.272** (n=106) | 0.031 (n=97) | 1.000 (n=139) | |
| | self_esteem (자아존중감) | 0.413*** (n=107) | 0.214* (n=98) | 0.121 (n=109) | 1.000 (n=110) |

| 연도 | 변수 | satis_sum (만족도) | help_s (정서적 도움) | future_s (미래준비) | self_esteem (자아존중감) |
|---|---|---|---|---|---|
| 2019년 | satis_sum (만족도) | 1.000 (n=109) | | | |
| | help_s (정서적도움) | 0.436*** (n=100) | 1.000 (n=100) | | |
| | future_s (미래준비) | 0.160 (n=109) | -0.162 (n=100) | 1.000 (n=121_ | |
| | self_esteem (자아존중감) | 0.425*** (n=109) | 0.248* (n=100) | 0.143 (n=109) | 1.000 (n=109) |
| 2020년 | satis_sum (만족도) | 1.000 (n=81) | | | |
| | help_s (정서적도움) | 0.401*** (n=61) | 1.000 (n=61) | | |
| | future_s (미래준비) | 0.289** (n=81) | 0.200 (n=61) | 1.000 (n=109) | |
| | self_esteem (자아존중감) | 0.423*** (n=81) | 0.354** (n=61) | 0.510*** (n=81) | 1.000 (n=81) |

* : p<0.1, ** : p<0.05, *** : p<0.01

〈부록1 표 1-11〉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고려된 삶의 만족도와 상관계수가 높은 변수는 자아존중감(corr=0.413, 425, 423 : 2018, 2019, 2020)이었으며, 정서적 도움과 미래에 대한 준비도 삶의 만족도와 각 년도에서 양(+)의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패널회귀모형을 이용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파악

앞 절의 기초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활용하여 서울시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데이터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조사된 패널 데이터이기 때문에 패널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가. 패널회귀모형

먼저 다음과 같은 패널회귀모형을 고려해보자.

$$Y_{it} = X_{it}'\beta + u_{it}, \quad i = 1,\cdots,N;\ t = 1,\cdots,T \text{[56]} \tag{1}$$

여기서 $i$는 개체(individual)를 나타내는 첨자이고, $t$는 시간을 나타내는 첨자이다. $Y_{it}$는 $i$번째 개체의 $t$시점에서 관측된 반응변수(종속변수)의 관측치(삶의 만족도 점수)이고 $X_{it}$는 $i$번째 개체의 $t$시점에서 관측된 $k\times 1$ 설명변수 벡터(성, 연령, …, 자아존중감, 미래준비 등)를 나타내고, $\beta$는 $k\times 1$ 회귀계수 벡터를 나타내며, $u_{it}$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식 (1)의 회귀모형을 벡터와 행렬형태로 표현하면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Y = X\beta + u, \tag{2}$$

여기서 $Y$는 $NT\times 1$ 반응변수 벡터를 나타내고 $X$는 $NT\times k$ 설명변수 행렬을 나타내고, $u$는 $NT\times 1$ 오차항 벡터를 나타낸다.

만일 나머지 오차항이 독립이고 동일한 확률분포를 따른다면, 보통의 최소제곱(ordinary least squares) 추정방법을 통하여 회귀계수 $\beta$를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hat{\beta}_{OLS} = (X'X)^{-1}X'Y. \tag{3}$$

그러나 만일 식 (1)의 오차항 $u_{it}$에 개체효과(individual effect)가 존재한다면 식 (3)에 나타난 OLS 추정량은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제 식 (1)에 나타난 패널회귀모형에서 오차항이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고 가정하자.

$$u_{it} = \mu_i + \nu_{it}, \tag{4}$$

56) 이론전개의 편의상 균형패널을 가정하였다. 불균형패널에서도 추정방법이나 검정방법 및 해석방법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여기서 $\mu_i$는 개체효과를 나타내고, $\nu_{it}$는 나머지 오차항으로 서로 독립이며 동일한 $N(0,\sigma_\nu^2)$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식 (4)와 같이 오차항에 개체효과가 존재하는 모형을 일원오차성분모형이라 한다. 따라서 식 (1)의 회귀모형과 식 (2)의 행렬표현은 다음과 같이 바꿔 쓸 수 있다.

$$Y_{it} = X_{it}'\beta + \mu_i + \nu_{it}$$
$$Y = X\beta + (I_N \otimes \iota_T)\mu + \nu, \quad (5)$$

여기서 $\iota_T$는 모든 원소가 1로 이루어진 $T\times 1$ 벡터를 나타내며, $\mu = (\mu_1 \cdots \mu_N)'$는 $N\times 1$인 개체효과 벡터를 나타낸다. 또한 내고, $\nu$는 $NT\times 1$인 나머지 오차항 벡터를 나타낸다.

이때 식 (4)에서 개체효과 $\mu_i$를 $N(0,\sigma_\mu^2)$을 따르는 확률변수로 가정하는 모형을 랜덤효과모형이라 한다. 이 경우 관측될 수 없는 개체효과는 $\mu_i$의 분산 $\sigma_\mu^2$에 의하여 표현되는 모형이다. 이와 같이 $\mu_i$를 확률변수로 가정하는 랜덤효과모형은 고정효과모형과 달리 추정해야 할 모수가 줄어드므로 자유도의 손실을 줄일 수 있어 좀 더 효과적인 추정을 실시할 수 있다. 더불어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추정할 수 없는 시간에 불변한 변수(예, 성별 등)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랜덤효과모형에서는 $\mu_i$와 $\nu_{it}$가 모두 확률변수이므로 오차항의 분산-공분산 행렬이 $\sigma^2 I$의 형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OLS 추정량은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며, 이러한 특성에 맞는 회귀계수에 추정량을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랜덤효과모형의 분산-공분산 행렬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Omega = (I_N \otimes J_T)\sigma_\mu^2 + (I_N \otimes I_T)\sigma_\nu^2, \quad (6)$$

여기서 $J_T$는 모든 원소가 1로 이루어진 $T\times T$ 행렬을 나타낸다.

식 (6)과 같이 오차항의 분산-공분산 행렬이 $\sigma^2 I$와 같은 형태가 아닌 경우, 회귀계수 $\beta$에 대한 추정은 일반화최소제곱(generalized least squares; GLS) 추정방법을 사용해야한다. 이 경우 $\beta$에 대한 GLS 추정량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hat{\beta}_{GLS} = (X'\Omega^{-1}X)^{-1}X'\Omega^{-1}Y. \tag{7}$$

식 (7)에서 GLS 추정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Omega^{-1}$의 유도가 필요하다. $\Omega^{-1}$를 구하기 위하여 식 (6)의 분산-공분산행렬에서 $J_T$를 $T\overline{J_T}$로 치환하고 $E_T = I_T - \overline{J_T}$로 정의하면, $I_T = \overline{J_T} + E_T$로 바꿔쓸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의하에서 식 (6)의 분산-공분산행렬은 다음과 같이 재표현할 수 있다.

$$\begin{aligned}\Omega &= T\sigma_\mu^2(I_N \otimes \overline{J_T}) + \sigma_\nu^2(I_N \otimes \overline{J_T}) + \sigma_\nu^2(I_N \otimes E_T), \\ &= (T\sigma_\mu^2 + \sigma_\nu^2)(I_N \otimes \overline{J_T}) + \sigma_\nu^2(I_N \otimes E_T) \\ &= \sigma_1^2 P + \sigma_\nu^2 Q\end{aligned} \tag{8}$$

식 (8)과 같은 분산-공분산행렬을 갖는 경우 $P$행렬과 $Q$행렬의 직교성을 이용하면 $\Omega^{-1}$는 다음과 같이 쉽게 구해진다.

$$\Omega^{-1} = \frac{1}{\sigma_1^2}P + \frac{1}{\sigma_\nu^2}Q. \tag{9}$$

따라서 식 (7)의 GLS 추정량은 식 (9)에 나타난 $\Omega^{-1}$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식 (7)에서 얻어지는 GLS 추정량은 분산성분 $\sigma_\mu^2$과 $\sigma_\nu^2$이 알려졌다는 가정하에서 구해지는 추정량으로, 일반적으로 이들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이론적인 추정량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자료분석에서 식 (7)에 나타난 GLS 추정량을 구하는 방법은 분산성분을 먼저 추정하고, 회귀계수를 재추정하는 2단계 추정방법과 분산성분과 회귀계수를 동시에 추정하는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ML) 방법 등 2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랜덤효과모형에서 2단계 추정방법으로는 Fuller and Battese(1973), Wallace and Hussain(1969), Amemiya(1971) 및 Swamy and Arora(1972) 등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추정과정에 대해서는 Baltagi(2001)를 참고하기 바란다.

### 나. 삶의 만족도에 대한 패널회귀분석 추정결과

앞 절에서 설명한 반응변수와 설명변수들의 관계를 패널회귀모형으로 추정한 결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과를 제공하고자 한다. 종속변수로는 삶의 만족도(SATIS_SUM)를 고려하였고, 독립변수로는 성, 연령 등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정서적 도움과 지지(HELP_S), 미래에 대한 준비(FUTURE_S) 및 자아존중감(SELF_ESTEEM) 등 9개 변수를 고려하였다. 다음 〈부록1 표 1-12〉에서는 분석결과의 비교를 위하여 개체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최소제곱추정량(OLS)을 같이 제공하였다.

〈부록1 표 1-12〉을 통해, 먼저 AIC와 BIC를 이용하여 두 모형의 적합결과를 비교해보면, 랜덤효과모형의 AIC와 BIC가 각각 1505.96과 1552.08로 나타나 랜덤효과를 무시한 OLS모형보다 더 적절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랜덤효과모형에서 개체효과의 존재유무에 대한 가설검정($H_0 : \sigma_\mu^2 = 0$)의 결과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이 가설에 대한 BP 검정결과, BP통계량값은 10.47(p=0.0006)로 나타나, 개체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분산 중에서 개체효과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인 $\rho$의 값은 0.232로 나타나 총 변동 중에서 개체효과는 23.2%의 변동을 나타내었다.

회귀계수에 대한 추정결과는 두 모형의 추정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랜덤효과모형의 추정결과를 통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보면, 연구에서 고려한 9개의 독립변수 중에서 월평균소득(inc_g), 정서적 도움과 지지(help_s) 및 자아존중감(self_esteem) 등 3개의 변수가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정서적 도움과 지지 점수가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1 표 1-12〉 삶의 만족도에 랜덤효과를 무시한 OLS 추정결과와 랜덤효과를 가정한 일원오차성분모형의 추정결과

| 변수 | OLS | | | 랜덤효과를 가정한 일원오차성분모형에서 추정 | | |
|---|---|---|---|---|---|---|
| | 추정값 | 표준오차 | t통계량 | 추정값 | 표준오차 | t통계량 |
| int. | 5.139 | 3.425 | 1.500 | 6.172 | 3.465 | 1.780 |
| gender | -0.140 | 0.654 | -0.210 | -0.134 | 0.721 | -0.190 |
| age | -0.023 | 0.031 | -0.740 | -0.029 | 0.033 | -0.880 |
| edu | -0.598 | 0.337 | -1.780 | -0.623 | 0.340 | -1.830 |
| inc_g | 0.630 | 0.490 | 1.280 | 0.938 | 0.488 | 1.920* |
| type | 1.028 | 0.681 | 1.510 | 1.092 | 0.716 | 1.520 |
| dis_type | -0.401 | 0.658 | -0.610 | -0.348 | 0.717 | -0.480 |
| help_s | 0.599 | 0.239 | 2.500* | 0.567 | 0.229 | 2.480* |
| self_esteem | 0.355 | 0.071 | 4.980*** | 0.315 | 0.072 | 4.400*** |
| future_s | 0.121 | 0.079 | 1.540 | 0.121 | 0.075 | 1.610 |
| logL | -745.540 | | | -740.980 | | |
| AIC | 1513.080 | | | 1505.960 | | |
| BIC | 1552.080 | | | 1552.080 | | |
| $\sigma_\mu^2$<br>$H_0 : \sigma_\mu^2 = 0$ | - | | | 4.587<br>BP=10.47(p=0.0006) | | |
| $\sigma_\nu^2$ | - | | | 15.184 | | |
| $\rho$ | - | | | 0.232 | | |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 2) 주관적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관련 선행연구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삶의 만족에 영향을 마치는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병화와 이송희(2020)[57]는 경기도의 146개 거주시설 401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학적특성으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ADL 수준이 높을수록 탈시설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요인으로는 입소기간과 시설만족도가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입소기간이 길고 시설만족도가 낮을수록 탈시설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탈시설 의향에 영향을 미친 자립요인으로는 자립생활지원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지역사회의 자립지원서비스 정도가 높을수록 탈시설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타인의 시선이나 선입견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탈시설 의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정순둘과 김미리(2019)[58]는 SSK(Social Sciences Korea)사업단의 2017 연령통합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만45세 이상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2수준으로 구성된 다층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1수준 요인은 개인 요인, 2수준은 지역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개인 요인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자본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참여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지역요인의 경우는 지역의 사회복지 예산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양적 증가보다는 실제 이용 가능한 시설과 서비스 인지가 더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문지현과 김다혜(2018)[59]는 총 824명의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비 부족 경험이 없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인적 요인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사회단체활동 빈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지역주민을 돕는 정도와 지역주민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

57) 본 문단은 「이병화, 이송희. (2020),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보건과복지, 22(2), 7-32.」에서 발췌하여 요약·정리 하였다.
58) 본 문단은 「정순둘, 김미리. (2019), 서비스지원에 대한 인지와 사회참여가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층분석, 한국사회복지학, 71(1), 27-46.」에서 발췌하여 요약·정리 하였다.
59) 본 문단은 「문지현, 김다혜. (2018),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탐색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 44-54.」에서 발췌하여 요약·정리 하였다. 경기연구원의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났다. 계속해서 지역사회환경 차원의 요인으로 공공도서관, 문화원, 영화관, 박물관 등 생활문화 기반 시설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명일과 이은진, 김준표(2019)[60]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삶의 만족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정도의 관계, 우울수준 및 주관적 건강과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이 낮아지고 주관적 건강상태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정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 있어 우울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으며, 우울수준이 낮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박지현과 최성은(2018)[61]은 농촌지역 거주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경기 남부 농촌형 지역의 거주 노인과 지역사회복지관 이용 노인 183명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및 스트레스, 사회관계망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가족, 친지, 지인과 같은 1차 사회관계망이 높을수록, 경로당, 계모임, 사회단체 등과 같은 2차 사회관계망이 높을수록, 사회복지사, 공무원, 의사 등 전문분야의 아는 사람 등 3차 사회적 관계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종합해 보면, 삶의 만족도는 인구학적 특성(연령, 학력수준 등), 주관적 건강수준, 스트레스, 우울과 같은 개인적 요인, 사회관계망, 사회서비스 이용 정도와 같은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음 알 수 있다.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대부분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요인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와 우울수준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삶의 만족수준에 사회적 요인의 영향이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가까운 지인부터 공무원, 의사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서비스의 이용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향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60) 본 문단은 「김명일, 이은진, 김준표. (2019),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수준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 우울과 주관적 건강수준의 다중 매개효과 검증, 사회과학연구, 30(2), 141-161.」에서 발췌하여 요약·정리 하였다.

61) 본 문단은 「박지현, 최성은. (2020), 농촌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노인의 주관적 건강요인과 다차원적 사회관계망, 한국웰니스학회지, 15(3), 351-365.」에서 발췌하여 요약·정리 하였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 참고문헌

김명일, 이은진, 김준표(2019).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수준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 우울과 주관적 건강수준의 다중 매개효과 검증. 사회과학연구. 30(2), 141-161.

문지현, 김다혜. (2018).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탐색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 44-54.

박금령, 최병호. (2019). 주거취약계층의 주관적 건강 수준과 삶의 만족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비주택 거주 가구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9(2), 500-518.

박윤화, 임현철. (2020). 주거취약계층과 중산층의 주거만족도 결정요인 비교 분석. GRI 연구논총. 22(1), 273-300.

박지현, 최성은. (2020). 농촌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노인의 주관적 건강요인과 다차원적 사회관계망. 한국웰니스학회지. 15(3), 351-365.

안용진. (2019). 물리적 근린환경 특성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만족도에 미친 영향. GRI 연구논총. 21(1), 241-260.

이병화, 이송희. (2020).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보건과복지, 22(2), 7-32.

이수정, 남궁미. (2020). 소득계층별 주거환경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국정관리연구. 13(3), 121-146.

정순둘, 김미리. (2019). 서비스지원에 대한 인지와 사회참여가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층분석, 한국사회복지학, 71(1), 27-46.

정현, 문상호. (2020). 주거환경이 주거만족에 미치는 영향: 장기전세주택(SHift)과 민간전세주택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2020.12, 129-149.

최순희, 윤현숙, 김영범, 임연옥. (2018). 노인의 주거환경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도시와 농촌 지역 비교-. 노인복지연구. 73(1), 111-132.

Amemiya, T. (1971). The estimation of variances in a variance components model,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2, 1-13

Baltagi, B. H. (2001). Econometric Analysis of Panel Data, Wiley, Chichester.

Fuller, W. A. and Battese, G. E. (1973). Transformations for estimation of linear models with nested error structure,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68, 626-632.

Swamy, P. A. V. B. and Arora, A. A. (1972). The exact finite sample properties of the estimators of coefficients in the error components regression models,

Econometrica 40, 261-275.
Wallace, T. D. and Hussain, A. (1969). The use of error components models in combining cross-section and time-series data, Econometrica 37, 55-72.

www.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 2. 의료이용 영향요인

### 1) 분석개요 및 분석결과[62)]

#### (1) 분석자료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는 사회관계, 주거, 건강, 의료 및 경제상황 등 다양한 항목을 조사한다. 본 분석은 2018년-2020년까지 조사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최종분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부록1 표 2-1〉 분석대상 응답자의 연도별 분포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입주자 | 94 | 74 | 66 |
| 퇴거자 | 46 | 47 | 43 |
| 계 | 140 | 121 | 109 |

2018년도 1차 조사는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및 퇴거자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들을 추적조사한 결과 2019년도과 2020년도에는 각각 121명과 109명의 조사가 완료되어, 이들을 분석대상으로 고려하였다. 이들의 응답패턴은 다음과 같다.

〈부록1 표 2-2〉 분석대상들의 응답패턴

| 응답패턴 | | | |
|---|---|---|---|
| 응답패턴 | 인원(명) | 비율(%) | 누적(명) |
| 111 | 102 | 72.9 | 102 |
| 110 | 19 | 13.6 | 121 |
| 101 | 7 | 5.0 | 128 |
| 100 | 12 | 8.6 | 140 |
| 계 | 140 | 100 | - |

주) 1: 응답, 0: 응답안함

62) 본 분석은 정병철 교수(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가 수행하였음

〈부록1 표 1-2〉를 살펴보면, 2018-2020년도 3개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한 대상은 102명으로 나타나 3개년도 패널유지율은 약 72.9%로 나타났다. 2018년과 2019년도 2개 년도에만 조사된 응답자는 19명을 약 13.6%를 차지하였고, 2018년과 2020년에 조사된 응답자는 7명(5.0%)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도에만 조사된 응답자도 12명(8.6%)으로 나타났다.

### (2) 반응변수 및 독립변수 설정

본 연구에서는 반응변수로 크게 2개의 변수를 정의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반응변수에 대한 정의 및 설명은 〈부록1 표 2-3〉에 나타나있다.

〈부록1 표 2-3〉 반응변수 1과 반응변수 2에 대한 정의 및 설명

| | |
|---|---|
| 반응변수 1 (MEDYN) | "지난 6개월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
| 반응변수 2 (M_FRQ) | "지난 6개월동안 의료기관 방문회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

반응변수 1은 연도별 응답이 이항형(예, 아니오)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반응변수 2는 연도별 응답이 도수형(횟수)으로 이루어졌다. 다음 〈부록1 표 2-4〉는 [반응변수 1]으로 고려된 연도별 의료기관 방문여부를 나타낸다.

〈부록1 표2-4〉 연도별 의료기관 방문여부

| 연도 | 의료기관 방문여부(medyn) | | 합계 |
|---|---|---|---|
| | 0(없음) | 1(있음) | |
| 2018 | 17(12.14) | 123(87.86) | 140 |
| 2019 | 24(19.83) | 97(80.17) | 121 |
| 2020 | 54(49.54) | 55(50.46) | 109 |

〈부록1 표 2-4〉의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대상 패널에서 2018년도에 2018년도에 의료기관에 방문한 사람은 조사대상의 87.9%로 나타나고, 2019년도에는 80.2% 및 2020년도에는 50.46%로 각각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반응변수 1으로 고려

된 연도별 의료기관 방문여부는 이항패널의 형태로 얻어졌으므로 추후 자료분석에서 패널로짓모형을 사용하여 모형화 할 것이다.

다음 〈부록1 표 2-5〉는 연도별 [반응변수 2]으로 고려된 연도별 외래진료 횟수를 나타낸다. 〈부록1 표 2-5〉에 나타난 연도별 외래진료 횟수를 살펴보면 2018년도에 외래진료가 없는 사람은 137명(무응답을 제외) 중에서 18명으로 나타났고, 11번이상인 사람도 18명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에는 외래진료가 없는 사람은 전체 조사대상 109명중에서 56명으로 나타나고, 11번 이상인 사람은 5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횟수 데이터를 반응변수로 고려하는 경우, 보통 포아송 및 음이항 분포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부록1 표 2-5〉 연료별 외래진료 횟수

| count | 연도별 6개월 동안 외래진료 횟수(M_frq) | | |
|---|---|---|---|
| | 2018 | 2019 | 2020 |
| 0 | 18 | 24 | 56 |
| 1 | 23 | 14 | 13 |
| 2 | 23 | 17 | 15 |
| 3 | 11 | 10 | 7 |
| 4 | 5 | 2 | 3 |
| 5 | 3 | 4 | 1 |
| 6 | 19 | 21 | 1 |
| 7 | 1 | 0 | 1 |
| 8 | 1 | 1 | 3 |
| 9 | 1 | 0 | 0 |
| 10 | 14 | 7 | 4 |
| 11+ | 18 | 20 | 5 |
| 합계 | 137 | 120 | 109 |

본 연구에서 고려한 주요 독립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① 인구사회학적 변인

성별, 교육수준, 연령대, 시설입주상태, 장애유형, 직업유무, 한달 수입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였고,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록1 표 2-6〉 사회인구학적 변수 및 변수설명

| 독립변수 | 변수설명 |
|---|---|
| 성(GENDER) | 남성=1, 여성=0 |
| 연령대(AGE_g) | 연령대(20대, 30대, 40대, 50대, 60이상) |
| 시설입주상태(TYPE) | 입주=1, 퇴거=0 |
| 장애유형(DIS_TYPE) | 정신적 장애=1, 신체적 장애=0 |
| 직업유무(JOB) | 있음=1, 없음=0 |

위의 표에 나타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중에서 연령대(AGE_G)는 양적 변수로 고려하였고, 나머지 변수들은 더미변수로 취급하였다.

② 건강과 관련한 설명변수

본 연구에서 고려한 반응변수가 의료기관 방문여부와 방문횟수이므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건강과 관련한 설명변수를 고려하였다.

〈부록1 표 2-7〉 건강과 관련한 설명변수 및 변수설명

| 독립변수 | 변수설명 |
|---|---|
| 만성질환의 수 (CH_CNT) | 만성질환이 수 (0-22) |
| 건강상태(HEALTH_S) | 본인이 생각한 6개월간 전반적인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1, 나쁜편이다=2, 좋은편이다=3, 매우좋다=4) |
| 사보험가입여부 (P_INSUR) | 가입=1, 미가입=0 |
| 건강검진여부 (MED_CHECK) | 검진=1, 미검진=0 |
| 1주일동안 주기적으로 하는 운동횟수(EX_FRQ) | 운동횟수(0 - 7) |
| 1달동안 친구와 만나는 횟수(F_FRQ) | 1) 1년에 1-2회 = 0.125<br>2) 3개월에 1-2회 =0.5<br>3) 1개월에 1-2회 =1.5<br>4) 1주일에 1-2회 =6.5<br>5) 거의매일(주4회이상) =20 |

### (3) 분석방법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조사한 패널자료로서( 140명), 응답한 장애인들의 의료기관 방문여부(지난 6개월 동안) 및 외래진료 횟수가 어떤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가장 먼저 각 변수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최종적인 모형화 과정에서 6개월동안 의료기관 방문여부(MEDYN)는 이항패널자료이므로 패널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외래진료 횟수(M_FRQ)는 랜덤효과를 가정한 패널응이항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은 SAS 9.4와 STATA1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①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고려한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부록1 표 2-8〉에 나타나 있다.

〈부록1 표 2-8〉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 특성 | | 연도 | | |
|---|---|---|---|---|
| | | 2018 | 2019 | 2020 |
| 성별 | 여성 | 39(27.86) | 37(30.58) | 32(29.36) |
| | 남성 | 101(72.14) | 84(69.42) | 77(70.64) |
| 연령대 | 20대 | 35(25.00) | 27(22.31) | 22(20.18) |
| | 30대 | 36(25.71) | 30(24.79) | 23(21.10) |
| | 40대 | 37(26.43) | 33(27.27) | 32(29.36) |
| | 50대 | 20(14.29) | 21(17.36) | 21(19.27) |
| | 60이상 | 12(8.57) | 10(8.26) | 11(10.09) |
| 입주 상태 | 퇴거자 | 46(32.86) | 47(38.84) | 43(39.45) |
| | 입주자 | 94(67.14) | 74(61.16) | 66(60.55) |
| 장애 유형 | 신체적 장애 | 72(51.43) | 65(53.72) | 59(54.13) |
| | 정신적 장애 | 68(48.57) | 56(46.28) | 50(45.87) |
| 직업 유무 | 있음 | 52(37.14) | 46(38.02) | 55(50.46) |
| | 없음 | 88(62.86) | 75(61.98) | 54(49.54) |
| 합계 | | 140 | 121 | 109 |

성별을 살펴보면, 2018년도에는 여성이 39명(27.86%) 조사되고, 남성이 101명(72.14%) 조사되었고, 성별 조사비율은 2019년과 2020년도에도 유사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각 년도에서 연령대는 20대에서 60대까지 고르게 조사되었으며, 자립생활주택 입주상태에서는 퇴거상태가 약 40% 정도 입주상태가 약 6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년도에서 장애유형으로는 신체적 장애의 비율이 정신적 장애 비율보다 약간 높게 조사되었다. 직업유무로는 2018년도 최초 조사에서는 없음 비율이 62.86%로 높게 나타났지만, 2020년 조사에서는 직업 없음 비율이 49.54%로 2018년에 비하여 약간 낮게 나타났다.

### ② 건강과 관련한 설명변수들의 일반적 특성

다음 〈부록1 표 2-9〉은  건강과 관련한 설명변수들의 연도별 빈도표를 나타낸다. 〈부록1 표 2-9〉을 살펴보면 만성질환의 수는 각 년도에서 0-2개 사이의 비율이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각 년도에서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좋은 편(3, 4)이라 생각한 사람의 비율이 70%이상으로 나타났다. 사보험이 가입한 비율은 연도별로 20-30%수준에 그쳤으며,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대략 70-80% 수준으로 나타났다. 1주일동안 평균운동일수는 각 연도별로 0이 40-55%로 나타났고, 나머지 값들은 고르게 분포하였다. 한 달 동안 친구와 만나는 횟수는 각 연도별로 양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0회에서 1년에 1-2회(0.125) 만나는 비율이 연도별로 27-43%사이에 나타나고, 일주일에 1-2반(6.5)과 거의 매일(20) 만나는 비율이 연도별로 33-50% 사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록1 표 2-9〉 건강과 관련된 변수들의 기초통계

| 특성 | | 연도 | | |
|---|---|---|---|---|
| | | 2018 | 2019 | 2020 |
| 만성질환 수 | 0 | 65(46.43) | 61(50.41) | 47(43.12) |
| | 1 | 51(36.43) | 44(36.36) | 26(23.85) |
| | 2 | 15(10.71) | 12(9.92) | 25(22.94) |
| | 3+ | 9(6.43) | 4(3.31) | 11(10.08) |
| 건강상태 | 1 | 7(5.04) | 1(0.83) | 3(2.75) |
| | 2 | 30(21.58) | 29(23.97) | 21(19.27) |

| 특성 | | 연도 | | |
|---|---|---|---|---|
| | | 2018 | 2019 | 2020 |
| | 3 | 81(58.27) | 76(62.81) | 75(68.81) |
| | 4 | 21(15.11) | 15(12.40) | 10(9.17) |
| 사보험여부 | 미가입 | 97(69.29) | 99(81.82) | 89(81.65) |
| | 가입 | 43(30.71) | 22(18.18) | 20(18.35) |
| 건강검진여부 | 미검진 | 38(27.14) | 24(19.83) | 32(29.36) |
| | 검진 | 102(72.86) | 97(80.17) | 77(70.64) |
| 운동횟수 | 0 | 66(47.14) | 53(43.80) | 61(55.96) |
| | 1 | 19(13.57) | 14(11.57) | 12(11.01) |
| | 2 | 20(14.29) | 12(9.92) | 6(5.50) |
| | 3 | 14(10.00) | 19(15.70) | 14(12.84) |
| | 4+ | 21(15.00) | 23(19.00) | 16(14.68) |
| 1달동안 친구와 만나는 횟수 | 0(없음) | 41(29.93) | 34(28.10) | 18(16.51) |
| | 0.125 | 20(14.60) | 6(4.96) | 12(11.01) |
| | 0.5 | 9(6.57) | 7(5.79) | 8(7.34) |
| | 1.5 | 15(10.95) | 33(27.27) | 16(14.68) |
| | 6.5 | 25(18.25) | 24(19.83) | 27(24.77) |
| | 20 | 27(19.71) | 17(14.05) | 28(25.69) |

### (4) 의료기관 방문여부(MEDYN)에 대한 모형화

이번 절에서는 반응변수로 고려된 지난 6개월 동안 의료기관 방문여부에 대한 모형화를 고려하고자 한다. 다음 〈부록1 표 2-10〉는 분석대상 패널데이터의 일부를 나타낸다.

〈부록1 표 2-10〉 패널데이터 일부

| nid | year | 의료기관 방문여부 medyn | 외래진료 횟수 m_frq | 성 gender | 입주상태 type | 장애유형 dis_type | 만성질환 수 ch_cnt |
|---|---|---|---|---|---|---|---|
| 1 | 2018 | 1 | 6 | 0 | 1 | 1 | 1 |
| | 2019 | 1 | 50 | 0 | 1 | 1 | 1 |
| | 2020 | 0 | 0 | 0 | 0 | 1 | 0 |

| nid | year | 의료기관 방문여부 medyn | 외래진료 횟수 m_frq | 성 gender | 입주상태 type | 장애유형 dis_type | 만성질환 수 ch_cnt |
|---|---|---|---|---|---|---|---|
| 2 | 2018 | 1 | 1 | 0 | 1 | 1 | 0 |
| | 2019 | 1 | 24 | 0 | 1 | 1 | 1 |
| | 2020 | 1 | 40 | 0 | 1 | 1 | 1 |
| 3 | 2018 | 1 | 3 | 1 | 0 | 1 | 0 |
| | 2019 | 1 | 5 | 1 | 0 | 1 | 2 |
| | 2020 | 0 | 0 | 1 | 0 | 1 | 3 |

〈부록1 표 2-10〉을 살펴보면 nid가 1번인 응답자는 여성이면서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2018년과 2019년도에는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하고 있었으나 2020년도는 퇴거자인 경우 이다. 이 응답자는 2018년과 2019년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였지만(MEDYN=1), 2020년에는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모든 응답자들도 nid가 1번인 응답자와 마찬가지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의료기관 방문여부를 반응변수로 고려할 경우, 반응변수의 값이 0과 1 둘중 하나밖에 없으므로 정규분포 가정하에서 분석되는 보통의 패널회귀모형을 적용하지 못하고, 이항패널자료에 대한 모형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항패널자료에 대한 모형화에 앞서 먼저 횡단면에서 이항반응자료에 대한 분석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① 이항반응자료에 대한 모형화

먼저 반응변수가 0과 1로 이루어진 이항반응변수에 대한 회귀모형의 경우, 오차항에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보통의 회귀모형은 적용하지 못한다. 하지만 보통의 선형모형을 확장한 형태의 일반화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 GLM)의 경우 이항반응변수, 포아송분포를 따르는 반응변수 등 다양한 반응변수를 모형화할 수 있는 보다 일반적인 모형이다.

GLM의 공통된 세 가지 구성요소는 랜덤성분(random component), 체계적성분(systematic component) 및 연결함수(link function)이다. 랜덤성분은 반응변수의 확률분포를 규정하고, 체계적 성분은 모형의 예측변수로 사용되는 설명변수를 규정하며, 연결함수는 체계적성분과 랜덤성분의 기댓값을 연결시켜주는 함수이다(Agresti,, 2013; 정광모, 최용석, 2009).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의료기관 방문여부(MEDYN)가 반응변수(Y)인 경우, Y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Y의 랜덤성분은 이항분포이다. 이 경우 반응변수 Y의 기댓값을 $E(Y)=\pi$ 라 했을 때, 이 값은 설명변수의 수준에 따라 변한다. GLM의 체계적 성분 중에서 선형예측식은 설명변수들의 일차결합 $\beta_0+\beta_1x_1+\cdots\beta_kx_k$를 나타낸다. GLM의 연결함수는 Y의 기댓값을 $E(Y)=\pi$와 선형예측식 $\beta_0+\beta_1x_1+\cdots\beta_kx_k$를 연결해 주는 함수이다. 의료기관 방문여부(MEDYN)가 반응변수(Y)인 경우, $E(Y)=\pi$로 나타나며 $\pi$의 값은 0과 1사이에서 움직인다. 반면 체계적성분에서 선형예측식 $\beta_0+\beta_1x_1+\cdots\beta_kx_k$의 값은 $(-\infty,\infty)$사이에서 움직이므로 둘을 연결시켜주는 함수로서 다음과 같은 로짓연결함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log\left(\frac{\pi}{1-\pi}\right)=\beta_0+\beta_1x_1+\cdots+\beta_kx_k. \quad (1)$$

이항분포를 따르는 이항반응변수에 식 (1)에 나타난 연결함수를 사용한 모형을 로지스틱 회귀모형이라 부른다. 식 (1)의 로짓연결함수에서 성공의 확률 $\pi$와 설명변수간에는 다음과 같은 비선형의 관계가 존재한다.

$$\pi(x)=\frac{\exp(\beta_0+\beta_1x_1+\cdots+\beta_kx_k)}{1+\exp(\beta_0+\beta_1x_1+\cdots+\beta_kx_k)}.$$

이항반응자료에 대한 또 다른 연결함수로서 다음과 같은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Phi^{-1}(\pi)=\beta_0+\beta_1x_1+\cdots+\beta_kx_k. \quad (2)$$

식(2)에서 $\Phi^{-1}$는 표준정규분포의 누적분포함수의 역함수를 나타낸다. 이항분포를 따르는 이항반응변수에 식 (2)에 나타난 연결함수를 사용한 모형을 프로빗 회귀모형이라 부른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특정한 회귀계수(예, $\beta_1$)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는 설명변수 $x_2,\cdots,x_k$가 고정된 상태에서 $x_1$이 한 단위 변했을 때, 성공의 오즈 $\left(\frac{\pi(x)}{1-\pi(x)}\right)$, 즉 (성공확률/실패확률)이 $\exp(\beta_1)$배 만큼 증가한다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이항반응자료에 대한 로짓모형이나 프로빗모형 모두 추정방법으로는 최대가

능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해야한다.

다음 〈부록1 표 2-11〉에 나타난 결과는 2018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측정된 의료기관 방문여부(MEDYN)를 반응변수로 고려하고, 성(gender), 연령대(age_g), 직업유무(job), 자립생활주택 입주상태(type), 장애유형(dis_type), 만성질환의수(ch_cnt), 운동일수(ex_frq), 사보험가입여부(p_insur), 주관적 건강상태(health_s), 이웃과 만나는 횟수(f_frq) 건강검진여부(med_check) 등 11개의 변수를 설명변수로 고려하여 실시한 로지스틱회귀모형과 프로빗모형의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이 분석에서 각 패널별로 2018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총 3개년도의 의료기관 방문여부 변수가 존재하여 패널데이터이기 때문에 개체효과가 존재할 것이지만, 〈부록1 표 2-11〉의 결과는 이러한 개체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모형의 추정결과를 나타낸다.

〈부록1 표 2-11〉 의료기관 방문여부(MEDYN)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모형과 프로빗모형의 추정결과

| 변수 | 로지스틱회귀모형 | | | 프로빗모형 | | |
|---|---|---|---|---|---|---|
| | Estimate | Standard Error | Wald Chi-Square | Estimate | Standard Error | Wald Chi-Square |
| Intercept | 1.381 | 0.887 | 2.430 | 0.844 | 0.510 | 2.740 |
| gender | 0.159 | 0.288 | 0.310 | 0.090 | 0.169 | 0.280 |
| age_g | -0.142 | 0.114 | 1.550 | -0.080 | 0.067 | 1.400 |
| job | 0.176 | 0.277 | 0.410 | 0.085 | 0.161 | 0.280 |
| type | 0.555 | 0.303 | 3.370a | 0.337 | 0.179 | 3.530a |
| dis_type | 0.073 | 0.299 | 0.060 | 0.052 | 0.174 | 0.090 |
| ch_cnt | 0.509 | 0.166 | 9.390** | 0.264 | 0.088 | 9.000** |
| ex_frq | 0.010 | 0.061 | 0.030 | 0.009 | 0.036 | 0.060 |
| p_insur | 0.152 | 0.315 | 0.230 | 0.073 | 0.181 | 0.160 |
| health_s | -0.354 | 0.211 | 2.810a | -0.211 | 0.120 | 3.100a |
| f_frq | -0.039 | 0.017 | 5.540* | -0.023 | 0.010 | 5.120* |
| med_check | 0.683 | 0.281 | 5.920* | 0.391 | 0.167 | 5.510* |
| logL | -190.940 | | | -191.650 | | |
| AIC | 405.880 | | | 407.300 | | |
| BIC | 452.710 | | | 454.130 | | |

* : p〈0.10, ** : p〈0.05, *** : p〈0.01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부록1 표 2-11〉의 하단에 나타난 logL은 각 모형의 추정결과 얻어진 최대로그가능도 값이며 AIC와 BIC는 모형선택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값들이다. 여러 모형의 적합을 비교할 때, AIC와 BIC가 작은 모형이 선호된다.

〈부록1 표 2-11〉의 결과를 살펴보면, AIC와 BIC는 두 모형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로지스틱 회귀모형이 프로빗모형에 비하여 약간 작게 나타나 로지스틱회귀모형이 프로빗모형에 비하여 약간 나은 적합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모형에서 회귀계수 추정치는 약간 차이가 나타나지만 두 모형 모두 만성질환의 수(ch_cnt), 친구와 만나는 횟수(f_frq), 검강검진여부(med_check) 등 3변수가 의료기관 방문여부 확률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립생활주택의 입주상태(type)과 주관적 건강상태(health_s) 등 2변수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무시할 수 없는 설명변수로 나타났다. 그 외에 본 연구에서 고려한 나머지 모든 변수들은 의료기관 방문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록1 표 2-11〉를 살펴보면, 두 모형 모두 만성질환의 수가 많아질수록 의료기관 방문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친구를 만나는 횟수가 적을수록, 건강검진을 받을수록 의료기관 방문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을수록 의료기관 방문확률이 높아지고, 퇴거자보다 입주자의 의료기관 방문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1 표 2-11〉의 로지스틱회귀모형을 이용하여 회귀계수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실시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다른 변수들을 고정했을 때, 만성질환이 1개 증가할수록 의료기관을 방문할 오즈(방문확률/미방문확률)는 exp(0.509)=1.663배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친구를 1회 더 만날수록 의료기관을 방문할 오즈는 exp(-0.039)=0.962배씩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할 오즈가 exp(0.683)= 1.980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주택 입주자는 퇴거자에 비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할 오즈가 exp(0.555)=1.742배 높아졌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1점 높아질수록 의료기관 방문 오즈는 exp(-0.352)=0.702배씩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② 이항패널반응자료에 패널로짓 및 패널프로빗 모형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연도별로 얻어진 의료기관 방문여부(MEDYN)는 이

항패널자료이다. 이제 이러한 이항패널자료가 반응변수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패널로짓모형(panel logit model) 및 패널프로빗모형(panel probit model)을 고려해 보자(Agresti, 2003). 먼저 $Y_{ij}$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보자.

$$Y_{it}=\begin{cases}1 & \text{if } i\text{번째 패널이 } t\text{번째시점에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0 & \text{if } i\text{번째 패널이 } t\text{번째시점에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않은 경우}\end{cases}.$$

이 경우 $Y_{it}$의 확률분포는 $B(1,\pi_{it})$로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E(Y_{it})=\pi_{it}$가 된다. 이 자료는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관측되지 않은 개체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개체효과를 고려하면서 연결함수를 로짓연결함수를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모형화 할 수 있다.

$$\log\left(\frac{\pi_{it}}{1-\pi_{it}}\right)=\beta_0+\beta_1 x_{1,it}+\cdots+\beta_k x_{k,it}+u_i, \tag{4}$$

식 (4)에서 $u_i$는 관측되지 않는 개체의 효과를 나타내며, $u_i \sim N(0,\sigma_u^2)$와 같은 랜덤성분으로 가정한다. 만일 식 (4)에서 $u_i$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표 13〉에 나타난 로지스틱회귀모형의 추정결과의 이론적인 모형이 된다. 이항패널반응자료에 식 (4)와 같이 정의하는 모형을 패널로짓모형이라 한다.

또다른 연결함수의 형태로 다음과 같은 프로빗 연결함수를 사용하여 이항패널반응자료에 대한 모형화를 실시할 수 있다.

$$\Phi^{-1}(\pi_{it})=\beta_0+\beta_1 x_{1,it}+\cdots+\beta_k x_{k,it}+u_i, \tag{5}$$

식 (5)에서 $u_i$는 관측되지 않는 개체의 효과를 나타내며, $u_i \sim N(0,\sigma_u^2)$와 같은 랜덤성분으로 가정한다. 이항패널반응자료에 식 (5)와 같은 연결함수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모형을 패널프로빗모형이라 한다.

이항패널반응자료에 대한 패널로짓모형과 패널프로빗 모형을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모수추정을 위한 가능도 함수가 폐쇄적인 형태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자세하 살펴보면, 먼저 $Y_{it}$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식 (4)의 연결함수를 갖는 경우, $Y_{it}$의 로그가능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log L(Y_{it}) = \sum_{i=1}^{N} \log(L_i), \tag{5}$$

여기서 $L_i$는 $Y_{i1}, \cdots, Y_{iT}$의 로그가능도 함수로서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begin{aligned} L_i &= \int f(Y_{i1,} \cdots, Y_{iT,} u_i) du_i = \int f(Y_{i1}, \cdots, Y_{iT} | u_i) g(u_i) du_i \\ &= \int \prod_{t=1}^{T} (\pi_{it}(x_{it}'\beta + u_i))^{y_{it}} (1 - \pi_{it}(x_{it}'\beta + u_i))^{y_{it}} \frac{1}{\sqrt{2\pi}\sigma_u} exp(-u_i^2/2\sigma_u^2) du_i \\ &= \int \prod_{t=1}^{T} \left( \frac{\exp(x_{it}'\beta + u_i)}{1 + \exp(x_{it}'\beta + u_i)} \right)^{y_{it}} \left( \frac{1}{1 + \exp(x_{it}'\beta + u_i)} \right)^{1 - y_{it}} \frac{1}{\sqrt{2\pi}\sigma_u} exp(-u_i^2/2\sigma_u^2) du_i \end{aligned} \tag{6}$$

식 (6)에 나타난 $L_i$가 폐쇄적인 형태로 구해지지 않기 때문에 식 (5)에 나타난 $Y_{it}$들의 로그가능도함수가 폐쇄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경우, 수치적인 방법을 통하여 $L_i$를 먼저 근사화시킨 후 식 (5)의 로그가능도 함수를 최대화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Gauss-Hermite quadrature 방법이다(Naylor and Smith, 1982).

다음 〈부록1 표 2-12〉은 의료기관 방문여부(MEDYN)에 대하여 패널로짓모형과 패널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추정결과를 나타낸다. 〈부록1 표 2-12〉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개체효과를 나타내는 분산항 $\sigma_\mu^2$의 추정값이 패널로짓모형에서는 0.000015(SE=0.0589)으로 나타나고, 패널프로빗모형에서는 0.0052 (SE=0.1101)로 나타나 두 모형 모두 개체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고려한 의료기관 방문여부 데이터에 대한 패널로짓모형과 패널프로빗모형은 랜덤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로지스틱회귀모형과 프로빗모형으로 각각 축소된다. 따라서 〈부록1 표 2-12〉에 나타난 패널로짓모형과 패널프로빗모형의 추정결과는 〈부록1 표 2-11〉와 거의 동일한 추정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부록1 표 2-12〉의 추정결과에 대한 해석은 5.1절에 나타난 〈부록1 표 2-11〉의 결과해석과 동일하게 해석하면 될 것이다.

〈부록1 표 2-12〉 의료기관 방문여부(MEDYN)에 대한 패널로짓모형과 패널프로빗모형의 추정결과

| 변수 | 패널로짓모형 | | | 패널프로빗모형 | | |
|---|---|---|---|---|---|---|
| | Estimate | Standard Error | Wald Chi-Square | Estimate | Standard Error | Wald Chi-Square |
| Intercept | 1.381 | 0.887 | 2.430 | 0.853 | 0.514 | 2.760 |
| gender | 0.159 | 0.288 | 0.310 | 0.089 | 0.170 | 0.270 |
| age_g | -0.142 | 0.114 | 1.550 | -0.080 | 0.068 | 1.416 |
| job | 0.176 | 0.277 | 0.410 | 0.084 | 0.162 | 0.270 |
| type | 0.555 | 0.303 | 3.370a | 0.338 | 0.185 | 3.349a |
| dis_type | 0.073 | 0.299 | 0.060 | 0.052 | 0.175 | 0.084 |
| ch_cnt | 0.509 | 0.166 | 9.390** | 0.264 | 0.088 | 8.940** |
| ex_frq | 0.010 | 0.061 | 0.030 | 0.009 | 0.036 | 0.063 |
| p_insur | 0.152 | 0.315 | 0.230 | 0.073 | 0.182 | 0.160 |
| health_s | -0.354 | 0.211 | 2.810a | -0.213 | 0.122 | 3.100a |
| f_frq | -0.039 | 0.017 | 5.540* | -0.023 | 0.010 | 4.973* |
| med_check | 0.683 | 0.281 | 5.920* | 0.393 | 0.170 | 5.336* |
| 개체효과($\sigma_\mu^2$) | 0.000015(SE=0.059) | | | 0.0052(SE=0.1101) | | |
| logL | -190.940 | | | -191.650 | | |
| AIC | 407.880 | | | 409.300 | | |
| BIC | 454.710 | | | 456.130 | | |

a : p<0.10, * : p<0.05, ** : p<0.01, *** : p<0.001

본 연구에서는 2018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의료기관 방문여부(MEDYN)를 성, 연령대, 사보험가입여부, 만성질환의 수 등 다양한 설명변수를 고려한 패널로짓모형과 패널프로빗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장 먼저 이항패널반응자료에 대하여 개체효과가 존재하는지 체크하였다. 그 결과, 현재 고려한 의료기관 방문여부(MEDYN)에는 개체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체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로지스틱 회귀모형과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의료기관 방문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두 모형의 적합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두 모형 모두 만성질환의 수가 많아질수록 의료기관 방문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친구를 만나는 횟수가 적을수록, 건강검진을 받을수록 의료기관 방문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가 낮을수록 의료기관 방문확률이 높아지고, 퇴거자보다 입주자의 의료기관 방문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www.koo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 (5) 외래진료 횟수(M_FRQ)에 대한 모형화

이번 장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외래진료 횟수(M_FRQ)를 반응변수로 고려한 모형화를 고려하고자 한다. M_FRQ에 대한 연도별 빈도표는 2장의 반응변수 설정 부분의 〈부록1 표 2-13〉에 나타나 있다. 〈부록1 표 2-13〉에 나타난 연도별 외래진료 횟수와 같이 도수형 반응변수를 모형화하는 경우, 보통 포아송 분포를 이용하여 모형화한다. 하지만 포아송 모형은 보통 평균과 분산이 동일한 자료에 적합이 잘 된다고 알려져 있고, 분산이 평균보다 크게 나타나는 과대산포가 존재하는 데이터의 모형화에서는 적합도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Cameron and Trivedi, 2013), 분석대상 데이터에서 반응변수로 고려된 M_FRQ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도별로 평균과 분산을 계산한 결과는 다음 〈부록1 표 2-13〉에 나타나 있다.

〈부록1 표 2-13〉 연도별 외래진료 횟수의 평균과 분산

| 연도 | 외래진료 횟수 (M_frq) | |
|---|---|---|
| | 평균 | 분산 |
| 2018 | 7.13 | 146.01 |
| 2019 | 7.44 | 150.85 |
| 2020 | 3.08 | 65.32 |

〈부록1 표 2-13〉를 살펴보면, 연도별 외래진료 횟수(M_frq)의 표본분산은 표본평균에 비하여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예, 2020년도, 표본분산=65.32〉표본평균=3.08). 이와 같이 평균에 비하여 분산이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과대산포(overdispersion)라 한다. 과대산포는 실제 도수자료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처럼 과대산포가 존재하는 도수자료를 포아송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게 되면(포아송 모형은 평균과 분산이 같다는 가정), 모형의 적합이 좋지 않게 되므로 보통 과대산포를 조절할 수 있는 음이항(negative binomial)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외래진료 횟수가 3개년 동안 측정한 패널 데이터이므로 랜덤효과를 가정한 음이항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모형화하고자 한다. 반응변수가 도수형인 도수형 패널자료에 대한 패널음이항회귀모형의 모형화에 앞서 먼저 횡단면에서 도수자료에 대한 음이항회귀모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① 도수형 반응자료에 대한 음이항회귀모형

먼저 반응변수가 과대산포가 존재하는 도수형 자료인 경우, 인과모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형은 음이항 모형이다. 음이항 분포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Cameron and Trivedi, 2013).

$$f(y)=\frac{\Gamma(\tau^{-1}+y)}{\Gamma(\tau^{-1})\Gamma(y+1)}(1+\tau\mu)^{-1/\tau}(1+1/\tau\mu)^{-y},\ y=0,1,2,\cdots \qquad (7)$$

확률변수 $Y$가 식 (7)의 음이항 확률분포를 갖는 경우 $Y\sim NB(\mu,\tau)$라 정의한다. 식 (7)에서 $\tau$는 산포를 나타내는 모수로 항상 0보다 큰 값을 갖으며, $\tau=0$인 경우 이 식은 평균이 $\mu$인 포아송 분포로 축소된다. 식 (7)의 분포를 갖는 확률변수 $Y$의 평균과 분산은 각각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E(X)=\mu, \qquad V(X)=\mu(1+\tau\mu). \qquad (8)$$

식 (8)에서 볼 수 있듯이 음이항 분포는 분산이 평균보다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산포모수 $\tau$를 통하여 허용하므로, 과대산포가 존재하는 도수형 반응변수에 대한 모형화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형이다.

이제 음이항 회귀모형을 고려해보자. 반응변수 Y의 기댓값을 $E(Y)=\mu$라 했을 때, 이 값은 설명변수의 수준에 따라 변한다. 이때 $Y$의 평균 $\mu$는 항상 0보다 큰 값을 갖으므로 연결함수로는 함수로서 다음과 같은 로그연결함수를 사용하고자 한다(Cameron and Trivedi, 2013).

$$\log(\mu)=\beta_0+\beta_1x_1+\cdots+\beta_kx_k. \qquad (9)$$

식 (7)에 나타난 음이항 분포를 따르는 도수형 반응변수에 식 (9)에 나타난 로그연결함수를 사용한 일반화선형모형을 음이항회귀모형이라 부른다. 식 (9)의 로그연결함수에서 $Y$ 의 평균 $\mu$와 설명변수간에는 다음과 같은 비선형의 관계가 존재한다.

$$\mu(x)=\exp(\beta_0+\beta_1x_1+\cdots+\beta_kx_k).$$

도수반응자료에 대한 음이항회귀모형의 경우 추정방법으로는 최대가능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이때 음이항회귀모형의 로그가능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log L = \sum_{i=1}^{n}\left[\left(\sum_{j=0}^{y_i-1}\log(j+\tau^{-1})\right)-\log y_{i!}\right. \\ \left.-(y_i+\tau^{-1})\log(1+\tau\mu_i)+y_i\log\tau+y_i\mu_i\right] \quad (10)$$

식 (10)에 나타난 로그가능도함수는 폐쇄적인 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Newton-Raphson 방법 등의 수치적인 방법을 통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해야 한다.

다음 〈부록1 표 2-14〉에 나타난 결과는 2018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측정된 외래진료 횟수(M_FRQ)를 반응변수로 고려하고, 성(gender), 연령대(age_g), 이웃과 만나는 횟수(f_frq) 건강검진여부(med_check) 등 11개의 변수를 설명변수로 고려하여 실시한 음이항회귀모형의 결과를 나타낸다. 이 분석에서는 각 패널별로 2018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총 3개년도의 외래진료 횟수 변수가 존재하여 개체효과가 존재할 수 있지만, 현재 고려한 음이항회귀모형에서는 개체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음이항회귀모형과 비교를 위하여 과대산포를 허용하지 않는 포아송회귀모형의 분석결과도 〈부록1 표 2-14〉에 같이 제시하였다.

〈부록1 표 2-14〉 외래진료 횟수(M_FRQ)에 대한 포아송회귀모형과 음이항회귀모형의 추정결과

| 변수 | 포아송 회귀모형 | | | 음이항 회귀모형 | | |
|---|---|---|---|---|---|---|
| | Estimate | S.E. | Wald Chi-Square | Estimate | S.E. | Wald Chi-Square |
| Intercept | 2.903 | 0.141 | 424.73*** | 2.835 | 0.564 | 25.240*** |
| gender | −0.158 | 0.048 | 10.970*** | −0.122 | 0.181 | 0.450 |
| age_g | −0.116 | 0.020 | 35.460*** | −0.126 | 0.077 | 2.690 |
| job | −0.637 | 0.051 | 158.200*** | −0.620 | 0.174 | 12.630*** |
| type | −0.284 | 0.052 | 30.370*** | −0.275 | 0.188 | 2.130 |
| dis_type | 0.072 | 0.051 | 2.010 | −0.030 | 0.189 | 0.030 |
| ch_cnt | 0.159 | 0.023 | 47.500*** | 0.228 | 0.098 | 5.430* |
| ex_frq | −0.013 | 0.010 | 1.570 | 0.013 | 0.040 | 0.100 |
| p_insur | 0.252 | 0.052 | 23.850*** | 0.321 | 0.198 | 2.630 |
| health_s | −0.264 | 0.032 | 67.160*** | −0.248 | 0.122 | 4.100* |
| f_frq | −0.005 | 0.003 | 3.090 | −0.004 | 0.011 | 0.130 |
| med_check | 0.452 | 0.055 | 67.180*** | 0.380 | 0.189 | 4.050* |

| 변수 | 포아송 회귀모형 | | | 음이항 회귀모형 | | |
|---|---|---|---|---|---|---|
| | Estimate | S.E. | Wald Chi-Square | Estimate | S.E. | Wald Chi-Square |
| 산포모수 ($\tau$) | - | | | 1.987(SE=0.170) | | |
| logL | -2403.28 | | | -970.530 | | |
| AIC | 4830.56 | | | 1967.060 | | |
| BIC | 4877.26 | | | 2017.650 | | |

* : p<0.05, ** : p<0.01, *** : p<0.001

〈부록1 표 2-14〉에 나타난 결과를 통해 포아송 회귀모형과 음이항 회귀모형의 적합결과를 비교해보면, 음이항 회귀모형의 AIC와 BIC가 각각 1967.060과 2017.650으로 나타나 포아송회귀모형의 AIC(4830.56)와 BIC(4877.26)보다 월등히 작게 나타났다. 즉, 현재 고려한 외래진료 횟수 자료의 분석에는 음이항 회귀모형이 포아송 회귀모형에 비하여 월등히 나은 모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이항 회귀모형에서 산포모수 $\tau$는 1.987로 추정되어 반응변수로 고려한 외래진료 횟수(M_FRQ)에는 과대산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포모수가 0이라는 가설검정($H_0 : \tau = 0$) 결과, LR 통계량 값이 2865.49 (p<0.0001)로 나타나 산포모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포아송회귀모형보다는 음이항회귀모형이 더 나은 모형으로 나타났다.

이제 음이항회귀모형에서 회귀계수에 대한 해석을 실시해보자. 설명변수로 고려한 11개의 변수 중에서 직업유무, 만성질환의 수, 건강상태 점수 및 건강검진 여부 등 4개의 변수가 외래진료 횟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7개의 변수는 외래진료 횟수의 평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추정된 회귀계수의 부호를 이용하면 직업이 없을수록, 만성질환 갯수가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 수준이 낮을수록 및 건강검진을 받았을수록 외래진료 횟수의 평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직업이 있는 사람은 직업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외래진료 횟수의 평균이 exp(-0.620)=0.538배 낮게 나타났다. 만성질환의 수(ch_cnt)가 1개 더 많아할수록 외래진료 횟수 평균이 exp(0.228)= 1.256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상태 점수가 1점 증가할수록 외래진료 횟수의 평균이 exp(-0.248)=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0.781배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외래진료 횟수의 평균이 exp(0.380)= 1.463배 더 높게 나타났다.

### ② 도수형 패널반응자료에 패널음이항회귀모형

〈부록1 표 2-1〉에 나타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연도별로 얻어진 외래진료 횟수(M_FRQ)는 도수형 패널자료이다. 이제 이러한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패널음이항회귀모형(panel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을 고려해보자.

먼저 $Y_{it}$를 $i$번째 패널이 $t$시점에 관측된 외래진료 횟수라 하자. 〈표 14〉를 통해, 연도별 반응변수에는 과대산포가 존재하므로 $Y_{it}$의 확률분포는 $NB(\mu_{it}, \tau)$로 고려할 수 있다. 반응변수 $Y_{it}$는 여러 연도에 반복측정된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관측되지 않은 개체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개체효과를 고려하면서 로그연결함수를 사용한다면 $E(Y_{it}) = \mu_{it}$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로그연결함수를 적용하여 모형화 할 수 있다(Booth, et al., 2003; Rabe-Hesketh and Skrondal, 2022).

$$\log(\mu_{it}) = \beta_0 + \beta_1 x_{1,it} + \cdots + \beta_k x_{k,it} + u_i, \tag{11}$$

식 (11)에서 $u_i$는 관측되지 않는 개체의 효과를 나타내며, $u_i \sim N(0, \sigma_u^2)$와 같은 랜덤성분으로 가정한다. 만일 식 (11)에서 $u_i$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록1 표 2-15〉에 나타난 음이항회귀모형의 추정결과의 이론적인 모형이 된다. 반응변수 $Y_{it}$의 확률분포로 음이항분포 $NB(\mu_{it}, \tau)$를 가정하고, 식 (11)에 나타난 연결함수를 사용하는 모형을 패널음이항회귀모형이라 한다.

도수형패널반응자료에 대한 패널음이항회귀모형을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모수추정을 위한 가능도 함수가 폐쇄적인 형태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Y_{it}$가 음이항분포 $NB(\mu_{it}, \tau)$를 따르고, 식 (11)의 연결함수를 갖는 경우, $Y_{it}$의 로그가능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log L(Y_{it}) = \sum_{i=1}^{N} \log(L_i), \tag{12}$$

여기서 $L_i$는 $Y_{i1},\cdots,Y_{iT}$의 로그가능도 함수로서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L_i = \int f(Y_{i1,}\cdots,Y_{iT,}u_i)du_i = \int f(Y_{i1},\cdots,Y_{iT}|u_i)g(u_i)du_i \quad (13)$$
$$= \int \prod_{t=1}^{T}\left(f(y_{it})\frac{1}{\sqrt{2\pi}\,\sigma_u}exp(-u_i^2/2\sigma_u^2)\right)du_i$$

식 (13)에서 $f(y_{it})$는 식 (7)의 음이항 분포에 식 (11)의 $\mu_{it}$를 적용한 확률밀도함수를 나타낸다. 식 (13)에 나타난 $L_i$가 폐쇄적인 형태로 구해지지 않기 때문에 식 (12)에 주어진 $Y_{it}$들의 로그가능도함수가 폐쇄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경우 수치적인 방법을 통하여 $L_i$를 근사화시킨 후 식 (12)의 로그가능도 함수를 최대화하는 방법을 사용해야한다.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Gauss-Hermite quadrature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SAS에서는 PROC GLIMMIX 또는 PROC NLMIXED를 사용하면 분석할 수 있고, STATA에서는 MENBREG 함수를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다음 〈부록1 표 2-15〉은 연도별 외래진료 횟수(M_FRQ)에 대하여 패널음이항회귀모형을 용하여 추정한 추정결과를 나타낸다. 비교를 위하여 과대산포를 고려하지 않는 패널포아송회귀모형의 결과를 〈부록1 표 2-15〉에 같이 제시하였다.

〈부록1 표 2-15〉 외래진료 횟수(M_FRQ)에 대한 패널포아송회귀모형과 패널음이항 회귀모형의 추정결과

| 변수 | 포아송 회귀모형 | | | 음이항 회귀모형 | | |
|---|---|---|---|---|---|---|
| | Estimate | S.E. | Wald Chi-Square | Estimate | S.E. | Wald Chi-Square |
| Intercept | 0.795 | 0.411 | 3.764 | 2.124 | 0.638 | 11.089*** |
| gender | -0.031 | 0.261 | 0.014 | -0.061 | 0.228 | 0.073 |
| age_g | -0.059 | 0.081 | 0.533 | -0.071 | 0.090 | 0.624 |
| job | -1.267 | 0.094 | 182.25*** | -0.653 | 0.194 | 11.357*** |
| type | 0.618 | 0.137 | 20.521*** | -0.008 | 0.232 | 0.002 |
| dis_type | 0.160 | 0.245 | 0.423 | 0.051 | 0.230 | 0.048 |
| ch_cnt | 0.298 | 0.038 | 62.568*** | 0.227 | 0.096 | 5.523* |

www.koo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 변수 | 포아송 회귀모형 | | | 음이항 회귀모형 | | |
|---|---|---|---|---|---|---|
| | Estimate | S.E. | Wald Chi-Square | Estimate | S.E. | Wald Chi-Square |
| ex_frq | 0.103 | 0.018 | 32.376*** | 0.011 | 0.041 | 0.078 |
| p_insur | 0.918 | 0.095 | 92.544*** | 0.384 | 0.219 | 3.063a |
| health_s | -0.056 | 0.059 | 0.903 | -0.239 | 0.137 | 3.028a |
| f_frq | -0.020 | 0.004 | 25.705*** | -0.008 | 0.011 | 0.504 |
| med_check | 0.262 | 0.090 | 8.526** | 0.352 | 0.205 | 2.958a |
| 산포모수 ($\tau$) | - | | | 1.332(SE=0.166) | | |
| 개체효과 분산($\sigma_u^2$) | 1.667(SE=0.243) | | | 0.626(SE=0.182) | | |
| logL | -1370.88 | | | -958.87 | | |
| AIC | 2767.76 | | | 1945.74 | | |
| BIC | 2818.35 | | | 2000.22 | | |

a : p<0.10, * : p<0.05, ** : p<0.01, *** : p<0.001

〈부록1 표 2-15〉에서 먼저 과대산포를 고려하지 않는 두 개의 포아송 모형을 비교해보자. 개체효과를 고려한 패널포아송회귀모형의 AIC (2767.76)와 BIC (2818.35)는 개체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포아송회귀모형(표 15 참조)의 AIC(4830.56)와 BIC(4877.26)보다 매우 작게 나타나 개체효과를 고려한 패널회귀모형이 좀 더 나은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IC와 BIC의 비교를 통하여 과대산포를 허용하는 두 개의 음이항 모형의 비교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즉, 개체효과를 고려하는 패널음이항회귀모형이 이를 고려하지 않는 음이항회귀모형(표 15의 결과 참조)에 비하여 좀 더 나은 모형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패널포아송회귀모형과 패널음이항회귀모형의 적합결과를 비교해보면, 패널음이항회귀모형의 AIC(1945.74)와 BIC(2000.22)가 패널포아송회귀모형의 AIC(2767.76)와 BIC(2818.35)보다 매우 작게 나타나 패널음이항회귀모형이 패널포아송회귀모형에 비하여 월등히 나은 모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패널음이항 회귀모형에서 산포모수 $\tau$는 1.332로 추정되어 반응변수로 고려한 외래진료 횟수(M_FRQ)에는 과대산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체효과 분

산($\sigma_u^2$)의 추정값은 0.626(SE=0.182)로 나타나 아주 크지는 않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체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하면, 현재 반응변수로 고려한 연도별 외래진료 횟수(M_FRQ)에 대한 모형으로는 패널음이항회귀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이제 〈부록1 표 2-15〉에 나타난 패널음이항회귀모형의 추정결과를 통해 회귀계수에 대한 해석을 실시해보자. 설명변수로 고려한 11개의 설명변수중에서 직업유무(job)와 만성질환의 수(ch_cnt)는 외래진료 횟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상태 점수(health_s), 건강검진 여부(med_check) 및 사보험가입여부(p_insur)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10%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무시할 수는 없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외의 나머지 6개의 변수는 외래진료 횟수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추정된 회귀계수의 부호를 이용하면 직업이 없을수록, 만성질환이 많을수록, 건강상태 점수가 낮을수록, 건강검진을 받았을수록 및 사보험에 가입했을수록 외래진료 횟수의 평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변수들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직업이 있는 사람은 직업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외래진료 횟수의 평균이 exp (-0.653)=0.520배 낮게 나타났다. 만성질환의 수(ch_cnt)가 1개 더 많아할수록 외래진료 횟수의 평균이 exp(0.227)= 1.254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상태 점수가 1점 증가할수록 외래진료 횟수의 평균이 exp(-0.239)= 0.787배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외래진료 횟수의 평균이 exp(0.352)= 1.421배 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외래진료 횟수의 평균이 exp(0.384)=1.468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도수형으로 얻어진 외래진료 횟수(M_FRQ)를 성, 연령대, 사보험가입여부, 만성질환의 수 등 다양한 설명변수를 고려한 도수패널자료에 대한 모형화를 실시하였다. 도수패널자료에 대한 분석모형으론는 보통 패널포아송모형과 패널음이항모형이 존재한다.

패널포아송모형은 도수형 패널자료에 과대산포(분산이 평균보다 크게 나타나는 현상)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인 반면, 패널음이항모형은 과대산포까지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연도별 외래진료 횟수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M_FRQ)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 이 변수에는 과대산포가 심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패널음이항회귀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비교대상으로 패널포아송회귀모형의 결과도 같이 제시하였다.

외래진료 횟수(M_FRQ)에 대한 분석결과 과대산포와 더불어 개체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분석모형으로는 패널음이항회귀모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회귀계수의 부호를 이용하면 직업이 없을수록, 만성질환이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검진을 받았을수록 및 사보험에 가입했을수록 외래진료 횟수의 평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Naylor, J. C., and Smith, A. F. M. (1982). Applications of a method for the efficient computation of posterior distribution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C 31: 214–225.

Agresti, A. (2013). Categorical Data Analysis, Wiley-Interscience, New Jersy.

정광모, 최용석 (2009). 범주형 자료분석 개론, 자유아카데미.

Cameron, A. C. and Trivedi, P. K. (2013). Regression Analysis of Cout Data,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Booth, J. G., Casella, G., Friedl, H. and Hobert, J. P. (2003). Negative Binomial Loglinear Mixed Models, Statistical Modelling 3, 179–191.

Rabe-Hesketh, S., and Skrondal., A. (2022). Multilevel and Longitudinal Modeling Using Stata. 4th ed. College Station, TX: Stata Press.

김수연, 손민성, 김귀현, 최만규.(2020),노인 만성질환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40(3), 152-177.

문정화, 강민아.(2016), 독거노인의 미충족 의료와 영향요인, 보건사회연구, 36(2), 480-510.

박은주(2016), 만성질환자별 주관적 건강상태와 의료시설 이용행태,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9(4), 404-413.

정윤경.(2021),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망과 외래진료 이용의 종단적 관계에 대한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8(1), 37-47.

전보영, 권순만, 이혜재, 김홍수.(2011), 장애노인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회지, 31(1), 171-188.

황홍구, 정현식.(2017), 장애인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항기술학회, 18(5), 219-225.

www.koo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 2) 의료이용 영향 요인관련 선행연구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이용에 영향을 마치는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전보영, 권순만, 이혜재, 김홍수(2011)[63]의 연구에서는 Andersen의 의료이용 행동모형을 기반으로 장애노인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자료는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활용하였고, 의료이용을 외래 이용여부 및 횟수, 외래 본인부담금, 입원이용 여부 및 일수, 입원료 중 본인부담금 변수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외래 및 입원 이용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만성질환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내부 장애를 가진 노인에 대한 보건관리체계 구축, 저소득층 장애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경제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황홍구, 정현식(2019)[64]은 제6차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만 19세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의료서비스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때 의료서비스이용은 의료 미치료 여부를 보정하여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20대와 30대인 경우,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의료 미치료 비율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신적 장애보다 외부 신체적 장애, 내부기관 장애가 비교적 의료 미치료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 '나쁨'인 경우가 '좋음'보다 의료 미치료 확률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 미치료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제도 개선 및 복지사업의 불평등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박은주(2016)[65]는 만성질환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의료시설 이용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자료는 2012년 고령화패널을 활용하였고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만성간질환, 뇌혈관 질환자로 제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만성질환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보다 여성인 경우에 '나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계속해서 만성질환자의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료시설은 병·의원으로 나

63) 본 문단은 「전보영, 권순만, 이혜재, 김홍수.(2011), 장애노인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회지, 31(1), 171-188.」에서 발췌하여 요약·정리 하였다.

64) 본 문단은 「황홍구, 정현식.(2017), 장애인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항기술학회, 18(5), 219-225.」에서 발췌하여 요약·정리 하였다.

65) 본 문단은 「박은주(2016), 만성질환자별 주관적 건강상태와 의료시설 이용행태,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9(4), 404-413.」에서 발췌하여 요약·정리 하였다.

타났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쁨'에 가까울수록 병·의원, 보건소의 이용 횟수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만성질환별 접근이 필요하며,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문정화와 강민아(2016)[66]는 독거노인의 미충족 의료 현황과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자료는 2014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의료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성별, 연령, 지역, 독거노인의 취약계층 특성으로서 독거기간과 독거 자발성을 포함한 소인요인, 가구소득, 외출 시 불편유무, 의료기관까지 소요기간, 사회적지지 등의 기능요인, 주관적 건강평가, 만성질환 개수, 기능재한유무, 영양상태평가, 우울증 등을 필요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비자발적 독거인 경우 미충족 의료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의료기관까지 소요시간이 짧을수록, 가까운 지인의 수가 적을수록, 자녀관계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의료 미충족 확률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계속해서 보유한 만성질환 개수가 많을수록, 기능재한이 있는 경우에 의료 미충족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 여부와 영양상태가 주의 혹은 고위험일수록 의료 미충족 확률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독거노인의 취약요인을 기반으로 포괄적인 보건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사회적 지지가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바, 이를 활용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정윤경(2021)[67]는 고령화패널 5차부터 7차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른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의료이용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망은 가구 구성, 타인과 만나는 빈도, 사회적 단체 참여로 살펴보았으며 의료이용은 외래진료 횟수를 활용하였다. 살펴본 결과, 지인들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는 노인들에 비해 2주에 한 번 혹은 그 미만으로 만나는 노인들의 외래진료 횟수가 유의미하게 적게 나타났다. 또한 두 개 이상의 사회적 단체에 참여하는 경우 외래진료 횟수와 정적이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관계망 외의 요인들 중에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노인보다 의료보호 대상인 노인이 비교적 외래진료가 높게 나타났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외래진료 이용이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의료이용을 외래진료 이용으로 제한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나 사회적 관계망

66) 본 문단은 「문정화, 강민아.(2016), 독거노인의 미충족 의료와 영향요인, 보건사회연구, 36(2), 480-510.」에서 발췌하여 요약·정리 하였다.

67) 본 문단은 「정윤경.(2021),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망과 외래진료 이용의 종단적 관계에 대한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8(1), 37-47.」에서 발췌하여 요약·정리 하였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odi.or.kr

이 협소하고 타인과의 접촉이 적은 노인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체나 모임이 노인들의 적절한 의료이용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김수연, 손민성, 김귀현, 최만규(2020)[68]는 고령화연구패널 6차, 7차 자료를 활용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노인 만성질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다. 만성질환이 있는 65세~74세 노인을 분석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의료서비스이용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해당 연구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은 입원이용과 외래이용의 횟수로 정의하였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하고 건강보험 대상자로 제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보다 미가입자의 경우 입원 및 외래 의료이용 비율이 낮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 외에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현재 노동을 하지 않는 경우, 스스로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평가할수록, 4대 만성질환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 입원 의료이용의 여부와 횟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평가할수록 외래 의료이용과 외래 의료이용 횟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보유한 만성질환개수가 많을수록 입원 의료이용 횟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만성질환을 보유한 노인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만성질환을 보유하지 않은 노인들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 및 건강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장애인, 노인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대상들의 의료이용은 주관적 건강수준, 영양상태, 사회관계망, 만성질환 보유 및 개수, 민간건강보험가입 여부 등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장애인의 탈시설 후 지역사회 내에서 정착하는데 있어 개인의 건강 관리 및 건가 유지를 위한 의료서비스 이용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장애인의 의료이용 현황 및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68) 본 문단은 「김수연, 손민성, 김귀현, 최만규.(2020),노인 만성질환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40(3), 152-177.」에서 발췌하여 요약·정리 하였다.

## 참고문헌

김수연, 손민성, 김귀현, 최만규.(2020),노인 만성질환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40(3), 152-177.

문정화, 강민아.(2016), 독거노인의 미충족 의료와 영향요인, 보건사회연구, 36(2), 480-510.

박은주(2016), 만성질환자별 주관적 건강상태와 의료시설 이용행태,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9(4), 404-413.

정윤경.(2021),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망과 외래진료 이용의 종단적 관계에 대한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8(1), 37-47.

전보영, 권순만, 이혜재, 김홍수.(2011), 장애노인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회지, 31(1), 171-188.

황홍구, 정현식.(2017), 장애인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항기술학회, 18(5), 219-225.

# 부록 2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 조사표

## 서울시 탈시설 종단연구 조사표

2021072001-0 ID :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서울시 탈시설 종단연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의거 장애인 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평가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이에 개발원은 장애인 정책 개선방안 및 대안 수립 등의 정책지원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시 탈시설 종단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탈시설 종단연구는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복지서비스 현황 등을 파악하여 향후 장애인 관련 정책 수립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의 설문참여는 장애인복지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의 응답시간은 약 1시간 가량 소요될 예정입니다. 문항 응답의 기준 시점은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 현재(2020년 8월부터 현 조사시점)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마운 마음을 담아 작은 답례품을 드립니다. 항상 귀댁에 번영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응답자 식별항목은 통계 집계 시 모두 삭제되며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자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2021년 8월

[ 조사주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 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실시기관 ] NEXT

| 응답자 ID | | | | 협조 기관명 |
|---|---|---|---|---|
| | | | | |

| 대리응답자 (대리응답한 경우만 기재) | | | |
|---|---|---|---|
| 대리응답자 성명 | | 응답자와의 관계 | |
| 대리응답자 연락처 | ( ) _____ - _____ | | |
| 조사완료 소요시간 | 총 _____분 | 총 방문횟수 | 총 _____회 |

| 면접원 기본사항 | | | | |
|---|---|---|---|---|
| 본 면접 조사는 면접지침사항 내용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 면접원 성명 :<br>ID _____ | S/V 확인<br>_____ | 검증원 확인<br>_____ | 에디터확인<br>_____ |

# A. 일반현황

해당차수 조사 | 해당차수 미조사 | 해당차수 문항 수정

다음은 귀하의 일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1 ~ 문8)

문 1. 성별은 무엇입니까?

조사차수 | '18(1차) | '19(2차) | '20(3차) | '21(4차)

1) 남자 2) 여자

문 2. 태어난 년도는 언제입니까?

조사차수 | '18(1차) | '19(2차) | '20(3차) | '21(4차)

[ ][ ][ ][ ] 년

**문 2. 출생연도**
-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생년(4자리 응답 : yyyy)을 응답받도록 합니다.
- 응답 범위 : 1900년 ~ 2020년 (2021년 이후가 될 수 없습니다.)

문 3.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조사차수 | '18(1차) | '19(2차) | '20(3차) | '21(4차)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전문대 (3년제 이하)
5) 대학교 (4년제 이상)
6) 대학원 이상
7) 무학 (만 7세 이상)

**문 3. 최종 학력**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력을 정규교육으로 봅니다.
- 검정고시 합격한 경우는 정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 기능훈련, 직업훈련, 입시학원은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최종학력은 모두 '졸업' 을 기준으로 응답받습니다. (예 : 중학교 재학/휴학/중퇴 → '초등학교' 로 응답)

문 4. 장애가 발생한 시기와 원인은 무엇입니까?

조사차수 | '18(1차) | '19(2차) | '20(3차) | '21(4차)

| 발생원인 | 발생년도 |
|---|---|
| 1) 선천적 원인 | |
| 2) 출생시 원인 | |
| 3) 후천적 원인 | [ ][ ][ ][ ] 년 |

**문 4. 장애발생 원인 및 시기**
- 발생원인이 선/후천 모두 해당되는 경우 선천적 원인으로 체크합니다.
- 선천적 원인 : 유전성, 다낭성신증, 다운증후군, 발육기형, 모체 감염, 염색체이상, 원인미상
- 출생시 원인 : 조산, 난산, 출산시 외상, 미상
- 발생년도를 모를 경우, 대략 언제쯤 장애가 발생하였는지를 응답받습니다. 응답자가 나이(예: 만 7세)로 응답할 경우, 년도로 환산하여 기입합니다.
- 발생년도(4자리 응답 : yyyy)는 출생년도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출생년도≤발생년도)
- 발생년도는 2021년 이후일 수 없습니다. (발생년도≤2021)
- 발생원인이 '3) 후천적 원인' 인 경우 발생년도(시기)를 응답받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 <2>

A. 일반현황

문 5.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는 무엇입니까? 장애인복지카드에 등록된 주 장애를 기준으로 응답받습니다.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주 장애유형 | 주 장애정도 | 중복장애 유형 |
|---|---|---|
| 1) 지체장애<br>2) 뇌병변장애<br>3) 시각장애<br>4) 청각장애<br>5) 언어장애<br>6) 안면장애<br>7) 신장장애<br>8) 심장장애<br>9) 간장애<br>10) 호흡기장애<br>11) 장루·요루장애<br>12) 뇌전증장애<br>13) 지적장애<br>14) 자폐성장애<br>15) 정신장애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br>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1) 지체장애<br>2) 뇌병변장애<br>3) 시각장애<br>4) 청각장애<br>5) 언어장애<br>6) 안면장애<br>7) 신장장애<br>8) 심장장애<br>9) 간장애<br>10) 호흡기장애<br>11) 장루·요루장애<br>12) 뇌전증장애<br>13) 지적장애<br>14) 자폐성장애<br>15) 정신장애<br>16) 중복장애 없음 |

문 5. 장애유형 및 등급
- 복지카드에 등록되어 있는 유형과 장애정도를 응답받습니다.
- 중복장애가 2개 이상인 경우 장애정도가 높은 것 '하나' 만 응답받습니다.
- 중복장애가 없는 경우 '⑯ 중복장애 없음' 을 응답받습니다.
- 중복장애 유형은 주 장애유형과 동일할 수 없습니다. (예) 주 장애유형 : ① 지체장애 → ②~⑯ 응답 가능)

문 6.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순위 무응답 허용)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1순위 | | 2순위 | |
|---|---|---|---|

| 보기 | | | |
|---|---|---|---|
| | 1) 수어 | 4) 음성 - 불완전한 수준 | 7) 기타 ( ) |
| | 2) 필담 | 5) 음성 - 완전한 문장 | |
| | 3) 몸짓 | 6) AAC(보완대체소통) | |

문 6.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수단
- 1순위와 2순위에 동일한 보기항목을 응답할 수 없습니다.
- [응답확인] 주장애 유형 혹은 중복장애 유형(문 5) '④ 청각장애'가 아닌데 '① 수어'를 선택하는 경우 응답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예) 귀하가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정보접근 수단이 '수어'가 맞으십니까?
- ① 수어는 손을 사용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
- ② 필담은 글로 써서 의사소통하는 방법
- ③ 몸짓은 손, 발, 표정 등을 활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방법
- ④ 음성-불완선한 수준은 한두 개의 단어를 조합하여 의사소통하는 수준
- ⑤ 음성-완전한 문장은 동사, 주어 등을 사용하고, 높임말로 답변하는 등 문장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
- ⑥ 스마트폰(AAC 기계)에서 텍스트를 입력 후 스마트폰 소리로 의사를 전달하거나, 스마트 폰(또는 AAC 기계)을 클릭해서 음성을 전달하는 의사소통을 말함
  * AAC(보완·대체 의사소통)란 말과 언어 표현 및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기, 그림카드 등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보완하거나(augment) 대체적인(alternative) 방법을 사용하는 것

문 7.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가장 최근에 입소한 기준)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 | | | |
|---|---|---|---|---|
| | | | | 년 |

문 8. 장애인 시설에서 퇴소(자립생활주택 이용) 연도는 언제 입니까? (가장 최근에 퇴소한 기준)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 | | | |
|---|---|---|---|---|
| | | | | 년 |

# B. 사회관계

다음은 귀하의 **사회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은 **가족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9. **[대리응답 제외]** 다음은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차수 | '18(1차) | '19(2차) | '20(3차) | '21(4차)

| 내용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만족 | 매우 만족 | 해당없음 |
|---|---|---|---|---|---|
| 1. 나와 부모의 관계 | 1 | 2 | 3 | 4 | 9 |
| 2. 나와 형제/자매/친척과의 관계 | 1 | 2 | 3 | 4 | 9 |
| 3. 나와 배우자의 관계 | 1 | 2 | 3 | 4 | 9 |

문 9. 가족관계
- 부모, 형제자매, 친척, 배우자가 없을 경우 ⑨ 해당없음에 응답받습니다.

문 10. 가족(부모, 형제자매, 자녀)과 얼마나 자주 연락(전화, 메일, 만남 등)을 하십니까?

조사차수 | '18(1차) | '19(2차) | '20(3차) | '21(4차)

1) 해당 없음
2) 만나지 않음
3) 1년에 1회 정도
4) 1년에 2~3회 정도
5) 1개월 1회 정도
6) 1개월 2~3회 정도
7) 1주에 1회 이상

문 10. 가족과 연락
- 가족은 부모, 형제자매, 자녀를 의미하며, 가족이 없을 경우 '① 해당없음'에 응답받습니다.
-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역시 '① 해당없음'에 응답받습니다.
- 연락은 전화, 메일, 만남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11.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지내는 사람(친구, 이웃 등)이 몇 명 정도입니까?
단, 온라인 상(예, 페이스북) 친구는 제외합니다.

조사차수 | '18(1차) | '19(2차) | '20(3차) | '21(4차)

□□ 명 (0명인 경우 → 문 12번으로 이동)

문 11. 가까이 지내는 친구, 이웃, 지인 수
- 개인적인 문제나 가족 문제, 진로 문제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0명으로 응답한 경우 **문 12번**으로 이동합니다.
- 응답 범위 : 0명 이상 ~ 99명 이하

문 11-1. (문 11. 1명 이상 응답자) **지난 1년 동안** 위에 언급한 사람(친구, 이웃 등)을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조사차수 | '18(1차) | '19(2차) | '20(3차) | '21(4차)

1) 1년에 1-2회 정도
2) 3개월에 1-2회 정도
3) 1개월에 1-2회 정도
4) 1주일에 1-2회 정도
5) 거의 매일 (주 4회 이상)

문 11-1. 만남 빈도
- 문 11. 친구 '1명 이상'인 경우 응답받습니다.
- 전화통화는 만남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 <4>

B. 사회관계

문 12. 어려움이 있을 때 주로 의논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없음
2) 배우자
3) 부모님
4) 전문상담사/의료진
5) 주변 친구/지인
6) 형제, 자매
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8) 인터넷 모임/카페
9) 기타( )

문 12. 어려움이 있을 때 주로 의논하는 사람(2020 추가문항)
- 배우자가 없을 경우 '② 배우자'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부모님이 없을 경우 '③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형제, 자매가 없을 경우 '⑥ 형제, 자매'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문 13. **[대리응답 제외]** 가족, 친구/이웃,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과 같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 **정서적 도움 및 지지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내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편 이다 | 매우 그렇다 | 해당 없음 |
|---|---|---|---|---|---|
| 1. 나는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 | 1 | 2 | 3 | 4 | 9 |
| 2.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 | 1 | 2 | 3 | 4 | 9 |
| 3. 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 | 1 | 2 | 3 | 4 | 9 |

문 13. 정서적 도움 및 지지
- 1. 가족이 없을 경우 '⑨ 해당없음'을 선택합니다.
-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예) 종합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시설, 결핵·한센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자활후견기관, 복합노인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보육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등

문 14. **[대리응답 제외]** 동네와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내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편 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다. | 1 | 2 | 3 | 4 |
| 2. 나는 거리에서 우리 동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 | 1 | 2 | 3 | 4 |
| 3. 우리 동네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경계한다. | 1 | 2 | 3 | 4 |
| 4. 나는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 1 | 2 | 3 | 4 |
| 5.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 1 | 2 | 3 | 4 |
| 6. 나는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 | 1 | 2 | 3 | 4 |

문 14. 지역사회 관계 (2019 추가)
- '우리 동네'는 직장, 학교 등의 장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B. 사회관계

문 15.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모임 또는 단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자주 참여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순위 무응답 허용)

| 조사차수 | '18(1차) | '19(2차) | '20(3차) | '21(4차) |
|---|---|---|---|---|

| 1순위 | | 2순위 | |
|---|---|---|---|

1) 자조모임
2) 종교단체
3) 친목회/친목계
4) 온라인 커뮤니티
5) 동호회
6) 자원봉사단체
7) 시민단체
8) 기타 ( )
9) 어느 모임이나 단체에도 참여한 적 없다.

**문 15. 사회연결망 (2019 추가문항)**

- ①자조모임:비슷한 질병과 심리사회적 문제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서로의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고 그 해결을 지지해 주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자신의 삶을 조절하기 위한 자발적인 모임
- 자립생활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도 모임의 성격일 경우 포함됩니다.
- 타인 또는 단체와의 관계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 및 단체 활동만 포함됩니다.
- 업무를 하거나 또는 단순한 자립생활센터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20 보기 수정) ⑧노조 및 직능단체, ⑨정당, ⑩지역모임/향우회 삭제

# C. 주거

다음은 귀하가 살고 있는 공간 등에 대해 여쭈어보겠습니다. 각각의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16. 현재 살고 있는 주택형태는 무엇입니까?

| 조사차수 | '18(1차) | '19(2차) | '20(3차) | '21(4차) |
|---|---|---|---|---|

※ 본 문항은 조사원이 방문한 응답자의 주택의 형태, 아파트 이름 등을 통해 주택형태를 파악하여 해당 항목에 응답하도록 합니다.

1) 장애인거주시설 (→ **문 17번으로 이동**)
2) 아파트
3) 다세대 주택
4) 연립주택, 빌라 등
5) 영업 건물 내 주택(오피스텔 등)
6) 단독주택, 선원주택 등
7) 기타 (  )

**문 16. 거주장소**
-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 기타는 1가지만 응답받습니다.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는 '① 장애인거주시설'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문 16-1. (문16의 2~7 응답자) 현재 주택점유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조사차수 | '18(1차) | '19(2차) | '20(3차) | '21(4차) |
|---|---|---|---|---|

1) 월세, 반전세 (보증금 있음)
2) 사글세 (보증금 없음)
3) 자가 (자기집)
4) 전세
5) 국민임대주택
6) 영구임대주택
7) 기타 (  )

**문 16-1. 주거점유 형태**
-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예, 기타: 행복주택, 5년-10년 공공임대, 친인척 집 등)
- 기타는 1가지만 응답받습니다.
- 주거소유 형태를 응답받습니다.
- 월세, 반전세: 매달 일정 금액의 돈을 내는 방식
- 사글세: 몇 개월치씩 목돈을 내고 매월 월세를 제하는 방식
- 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외에도,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자가로 응답받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30년 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한 주택(LH, SH)
-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문 16-2. (문16의 2~7 응답자) 현재 사는 집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마련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순위 무응답 허용)

| 조사차수 | '18(1차) | '19(2차) | '20(3차) | '21(4차) |
|---|---|---|---|---|

| 1순위 | | 2순위 | |
|---|---|---|---|

| 보기 | 1) 본인 스스로<br>2) 가족의 도움<br>3) 대출 | 4) 정부 제공<br>5) 기타(  ) |
|---|---|---|

**문 16-2. 현재 사는 집 마련 방법**
- 문 16-1에서 ③자가 응답자 중, 해당 집을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② 가족의 도움'으로 응답받습니다.
-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 기타는 1가지만 응답받습니다.
-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순위에 '④ 정부 제공'에 응답받고, 2순위는 응답 받지 않습니다.

C. 주거

문 16-3. (문16의 2~7 응답자) 현재 살고 있는 집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또는 평

문 16-3. 집의 크기
- 공급면적이 아닌 실평수(전용면적, 사용면적)로 응답받습니다.
- 단위는 평 또는 ㎡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받습니다.
- 응답 범위 : 1평(3.3㎡) 이상 ~ 999평(3,296.7㎡) 이하. 1평은 3.3㎡입니다.

문 16-4. (문16의 2~7 응답자)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방 개수는 몇 개입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조사원이 방 개수를 파악하여 기입합니다.

개

문 16-4. 방 개수
- 응답 범위 : 1개 이상 ~ 99개 이하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는 본인이 사용하는 방의 개수만 응답할 수 있습니다.

문 16-5. (문16의 2~7 응답자) 현재 살고 있는 집에는 어떤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매개시설의 장애인 편의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2) 내부시설의 장애인 편의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3) 위생시설의 장애인 편의 (화장실(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 · 탈의실)
4) 안내시설의 장애인 편의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5) 기타 장애인 편의 ( )
6) 장애인 편의시설 없음

문 16-5. 편의시설 설치
- 각 항목이 1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설치된 것으로 선택함
- 본 문항은 조사원이 집 내부의 편의시설을 파악하여 기입합니다.
- (2019) '6)장애인 편의시설 없음' 보기 추가

문 17. 함께 살고 있는 가족(동거자 포함, 거주시설은 기관 총인원)은 몇 명입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본인 제외) 명 **(0명인 경우 → 문18번으로 이동)**

문 17. 가족(동거인) 수
- 본인은 제외하고 응답받습니다.
- 1인 가구의 경우 '0명'으로 응답받습니다.

문 17-1. (문17의 1명 이상 응답자)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동거자 포함)과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매우 좋지 않다 | 좋지 않은 편이다 | 좋은 편이다 | 매우 좋다 |
|---|---|---|---|
| 1 | 2 | 3 | 4 |

문 17-1. 가족(동거자)와의 관계
- 문17의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1명 이상일 경우만 응답받습니다.

문 18. 지난 1년 이내 이사하신 적이 있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1년 사이 이사한적 없음
2) 거주할 집을 사서
3) 소득이 줄어서
4) 교통이 불편해서
5) 자립생활주택 이용 종료
6) 직장 이동, 이직 등
7) 집 계약이 만료되어
8) 기타 ( )

문 18. 이사 이유
-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 기타는 1가지만 응답받습니다.

C. 주거

문 19. 향후 살고 싶은 주택형태는 무엇입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단독주택, 전원주택 등
2) 아파트
3) 다세대 주택
4) 연립주택, 빌라 등
5) 영업 건물 내 주택(오피스텔 등)
6) 기타 ( )

**문 19. 향후 살고 싶은 주택형태**
-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 기타는 1가지만 응답받습니다.

문 20.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임대주택 건설과 같은 주택제공
2) 주택자금 제공
3) 주택개조 사업 확대
4) 집주변 편의시설 확대
5) 기타 ( )

**문 20.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
- ④ 집주변 편의시설 확대는 수퍼마켓, 병원, 관공서, 학교,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교통 등을 의미합니다.
-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 기타는 1가지만 응답받습니다.

문 21. **[대리응답 제외]**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매우 불편하다 | 불편한 편이다 | 편한 편이다 | 매우 편하다 |
|---|---|---|---|
| → 문 21-1 이동 | | → 문 22 이동 | |
| 1 | 2 | 3 | 4 |

문 21-1. **[대리응답 제외]** (문 21의 1, 2 응답자) 불편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편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순위 무응답 허용)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1순위 | | 2순위 | |
|---|---|---|---|

**보기**
1) 시장, 마트, 은행 등 생활시설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불편
2)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불편
3) 대중교통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불편
4) 녹지공간, 공원 등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불편
5)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불편
6) 기타 ( )

**문 21-1. 거주지역 일상생활 불편 이유**
- 1순위와 2순위에 동일한 보기항목을 응답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 기타는 1가지만 응답받습니다.
- ⑤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예) 종합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시설, 결핵·한센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지활후견기관, 복합노인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보육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등

C. 주거

다음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인 지원주택 서비스에 대해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원주택은 지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주택 운영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 지원주택 개념(공공임대주택 + 주거서비스)
- 발달장애인이 자신이 생활하게 될 집을 선택(소유 또는 임차 계약)할 수 있고,
- 주거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의 욕구에 맞추어 제공받을 수 있고,
- 주거 생활 전반을 장애인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주택

문 22. 장애인 지원주택 서비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예 2) 아니오

문 23. 향후 장애인 지원주택 서비스를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예 2) 아니오 (→ 문 23-1.로 이동)

문 23-1. 이용할 의향이 없으시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자립생활에 대한 계획이 없음
2) 주택마련 비용(구입자금, 보증금 등)의 어려움
3) 경제적 부담(월세, 공과금, 생활비 등)
4) 가족 및 주위사람들의 반대
5)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돌봄 필요
6) 자립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외로움
7) 기타( )

문 24.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주거유지지원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 | | |
|---|---|---|
| 주택관련 서비스 | ① 주택 알선 지원<br>③ 공과금 및 임대료 관리 | ② 시설 관리 (시설 수리 등) |
| 생활지원 서비스 | ④ 집안청소 및 관리<br>⑥ 금전관리 (저축, 가계부 쓰기 등)<br>⑧ 이동 (길 안내하기, 버스타고 내리기 등)<br>⑩ 학습활동 (언어배우기, 쓰기, 말하기 등) | ⑤ 식사 지원 (식사준비, 먹기, 처우기)<br>⑦ 의사소통 지원 (대화하기, 전화하기, 문자 쓰기 등)<br>⑨ 개인위생관리 (목욕, 대소변, 손/발톱관리 등) |
| 관계지원 서비스 | ⑪ 심리 상담 | ⑫ 지역사회 모임 연계 |
| 안전지원 서비스 | ⑬ 안전 대응<br>⑮ 건강관리 (약 챙겨 먹기, 상처치료, 운동 등) | ⑭ 인권침해 대응<br>⑯ 24시간 긴급 대응 지원 |
| | ⑰ 기타( ) | ⑱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 |

- 1순위, 2순위에 '⑱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 을 응답할 경우, 후순위는 응답 받지 않습니다.
- '⑰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기타는 1가지만 응답받습니다.

문 24-1. 위의 서비스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으십니까?

1) 있음 (적을 것: ) 2) 없음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 <10>

# D. 건강

문 25. 지난 **6개월간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어떠합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매우 나쁘다 | 나쁜 편이다 | 좋은 편이다 | 매우 좋다 |
|---|---|---|---|
| 1 | 2 | 3 | 4 |

문 21. 전반적인 건강상태
- 설문 당일이 아닌 지난 6개월입니다.

문 26. **만성질병(질환)이** 있습니까? 있다면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없음
2) 암(위,간,폐,기관지등)
3) 관절염, 요통, 좌골통, 나스르
4) 위염, 위궤양, 십이장궤양 등
5) 만성간염, 간경변
6) 당뇨병
7) 갑상선질환
8) 고혈압,저혈압
9) 중풍,뇌혈관질환
10) 심근경색증, 협심증
11) 폐결핵,결핵
12) 만성기관지염(심한기래,기침)
13) 천식
14) 백내장, 녹내장
15) 만성중이염
16) 만성신부전증(만성신장질환)
17) 골절, 탈골 및 사고로 인한 후유증
18) 골다공증
19) 정신질환(우울증 등)
20)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21) 뇌선증(구 간질)
22) 기타( )

문 26. 만성질병유형
- 기타는 1가지만 응답받습니다.
- (2019 신규 보기) ⑳ 이상지질혈증, ㉑ 뇌전증

문 27. 1주일 중 **주기적으로 하는 운동 횟수와 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치료용 재활운동 제외, 운동시간의 분은 **10분 단위**로 응답)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주일 평균 [ ][ ] 회 1회 평균 [ ][ ] 시간 [ ][ ] 분

(0회인 경우 → 문 27-2번으로 이동)

문 27. 운동일수와 시간
- 1주일 평균 운동 횟수가 '0회'인 경우, 운동 시간을 응답받지 않고 문 27-2로 이동합니다.
-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재활운동은 제외합니다.
- 1회 평균 운동시간의 분은 **10분 단위**로 응답받습니다. 평균 운동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 '10'으로 표기합니다.
- 1주일 평균 횟수 '1회 이상'인 경우, 1회 평균 운동 시간 응답범위 : 10분 이상 ~ 720분(12시간) 이하
- 주기적으로 하는 운동이란 운동을 위하여 계획(하루 30분, 1시간 등)을 세워놓고 이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 27-1. (문 27의 1주일 평균 운동 횟수 **1회 이상** 응답자) 주로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치료용 재활운동 제외)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걷기
2) 달리기
3) 자전거
4) 수영
5) 등산
6) 헬스 및 필라테스
7) 보치아
8) 기타( ) (→ 문 28번으로 이동)

문 27-1. 운동 유형
- 문 23. 평균 운동횟수 1회 이상인 경우만 응답받습니다.
-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재활운동은 제외합니다.
-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 기타는 1가지만 응답받습니다.
- (2019 신규 보기) ⑦ 보치아

D. 건강

문 27-2. (문 27의 1주일 평균 운동 횟수 **0회** 응답자)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여
2) 운동을 도와줄 보호자가 없어서
3) 운동을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4) 운동 방법을 잘 몰라서
5) 비용이 부담되어서
6) 운동할 장소가 부족하여
7) 운동을 싫어해서
8) 운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9) 기타 ( )

(→ 문 28번으로 이동)

문 28. 자신의 몸무게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적당하다 2) 저체중이다 3) 과체중이다

문 28. 주관적 몸무게
- 임신 중일 경우 임신 전 몸무게에 대한 생각을 응답받습니다.

문 29.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하루 평균 [ ][ ] 시간 [ ][ ] 분

문 29. 수면시간
- 응답 범위 : 1시간 이상 ~ 24시간 미만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표기합니다.
- [응답확인]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 이하 혹은 12시간 이상인 경우 응답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예) 귀하의 실제 수면시간이 2시간이 맞으십니까?**
- 누워서 핸드폰을 하는 시간이 아닌 실제 잠을 자려고 누운 시간으로 응답받습니다.

문 30. 하루에 **평균 몇 회 정도** 식사하십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1회 미만
2) 1회
3) 2회
4) 3회
5) 4회 이상

문 30. 하루 식사 수
-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이 하루 동안 먹는 끼니 수를 의미합니다.
- 끼니는 아침, 점심, 저녁과 같이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먹는 밥. 또는 그렇게 먹는 일을 의미. 본 문항에서 간식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1회 미만'의 경우 2일에 1회 식사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문 30-1. 하루 동안 먹는 평균 식사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매우 적게 먹는다 | 적게 먹는다 | 적당하다 | 많이 먹는다 | 매우 많이 먹는다 |
|---|---|---|---|---|
| 1 | 2 | 3 | 4 | 5 |

문 30-1. 하루 식사량
- 성인 권장 하루 칼로리를 묻는 것이 아닌 응답자가 생각하는 하루 식사량을 응답받도록 합니다.

문 30-2. 1주일 동안 식사 대신 **라면, 패스트푸드**는 몇 번 정도 드십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주일 평균 [ ][ ] 번

문 30-2. 라면, 햄버거 등 섭취 수
- 응답 범위 : 0번 ~ 21번 이하
- 단, 문 30의 하루 식사수가 1회 이하(1,2)인 경우, 응답 범위 : 0회 이상 ~ 7회 이하,
  하루 식사수가 2회인 경우, 응답 범위 : 0회 이상 ~ 14회 이하
- 응답은 끼니가 아닌 횟수입니다.

D. 건강

문 31. 치아나 틀니, 잇몸 등 입안(치과)의 문제로 음식을 씹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전혀 불편하지 않다 | 거의 불편하지 않은 편이다 | 불편한 편이다 | 매우 불편하다 |
|---|---|---|---|
| 1 | 2 | 3 | 4 |

문 32. 다음은 식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응답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내용 | 예 | 아니오 |
|---|---|---|
| 1. 질병(건강) 때문에 먹는 음식의 양이나 종류를 바꾸고 있다 | 1 | 2 |
| 2. 과일, 채소 또는 유제품(우유 등)을 거의 먹지 않는다 | | |
| 2-1. 과일 | 1 | 2 |
| 2-2. 채소 | 1 | 2 |
| 2-3. 유제품 | 1 | 2 |
| 3. 거의 매일 3잔 이상의 술을 마신다 | 1 | 2 |
| 4. 돈이 부족해 필요한 음식을 구입 못할 때도 있다 | 1 | 2 |
| 5. 거의 매번 혼자서 식사한다 | 1 | 2 |
| 6. 하루에 세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약(처방 및 비처방)을 복용한다 | 1 | 2 |
| 7. 지난 6개월 사이 일부러 체중을 조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5㎏ 이상 줄거나 늘었다 | 1 | 2 |
| 8. 장보고, 음식 만들고, 식사하는 것이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다 | 1 | 2 |
| 9.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이 먹거나 빨리 먹는다 | 1 | 2 |

문 33.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암보험, 심혈관질환보험, 사고보장보험 등 의료비를 보조해주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였습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가입했음 (→ 문 33-1 이동)
2) 가입하지 않았음 (→ 문 33-2 이동)
3) 모름 (→ E.의료 문 34 이동)

문 33-1. (문 33의 1 응답자) 가입한 민간의료보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 ] 개

문 33-1. 보험 개수
- 응답 범위 : 1개 이상 ~ 99개 이하

문 33-2. (문 33의 1, 2 응답자)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에 가입하려다 장애로 인해 가입을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예
2) 아니오

# E. 의료

문 34. 지난 **6개월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용 및 입원 횟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단, **출산은 제외**됩니다.)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 |
|---|---|
| 1) 예 | 외래진료횟수 총 [ ][ ] 회 응급실 이용횟수 총 [ ][ ] 회<br>입원횟수 총 [ ][ ] 회 입원일수 총 [ ][ ][ ] 일 |
| 2) 아니오 | (→ 문 35번으로 이동) |

**문 34. 6개월간 의료기관 이용 여부 및 횟수**
- 동일병원에서 각각 다른 진료과목을 2회 이상 진료한 경우 2회로 표시하고, 2곳 이상의 병원을 동일한 진료과목으로 이용한 경우도 2회로 표시합니다.
- 순회진료를 받은 경우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장기입원환자가 180일 입원한 경우, 조사원은 입원횟수를 1회로 체크하고 입원일수는 180일로 기록합니다.
- 종합병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도 횟수에 포함됩니다.
- 외래진료횟수 응답 범위 : 0회 이상 ~ 99회 이하
- 지난 6개월간 의료기관 입원 일수는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6개월 동안 계속 입원한 경우에도 180일로 응답).
- 입원일수는 입원횟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입원횟수 ≤ 입원일수).

문 34-1. (문 34의 1 응답자) 지난 **6개월간** 의료기관을 이용한 주된 이유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장애, 합병증/후유증 (재활)치료
2) 일반적인 질병치료
3) 사고로 인한 처치
4) 요양 및 휴식
5) 성형/정형/고정
6) 기타 ( )

**문 34-1. 의료기관 이용 이유**
- ② 일반적인 질병치료는 감기, 고혈압, 두통 등의 치료를 의미합니다.
-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 기타는 1가지만 응답받습니다.
- 출산한 경우, '기타' 선택 후 출산으로 기입합니다.

문 34-2. (문 34의 1 응답자) 지난 **6개월** 동안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 유형은 무엇입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병/의원
2) 종합/대학병원
3) 한방 병/의원
4) 보건소/보건의료원
5) 기타 ( )

**문 34-2. 이용 의료기관 유형**
-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 기타는 1가지만 응답받습니다.

E. 의료

문 34-3. (문 34의 1 응답자) 지난 **6개월** 동안 이용한 의료 관련 재활치료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자주 이용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순위 무응답 허용)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1순위 | | 2순위 | |
|---|---|---|---|

| 보기 | | |
|---|---|---|
| | 1) 없음 | 6) 놀이치료 |
| | 2) 물리치료 | 7) 미술치료 |
| | 3) 작업치료 | 8) 행동치료 |
| | 4) 언어치료 | 9) 운동치료 |
| | 5) 음악치료 | 10) 기타 ( ) |

**문 34-3. 의료관련 재활치료 서비스**
- 문 34. 의료기관 이용/입원 경험 '① 예'인 경우 응답받습니다.
- 1순위와 2순위에 동일한 보기항목을 응답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 기타는 1가지만 응답받습니다.
- 1순위에 '① 없음' 선택 시 2순위는 응답 받지 않습니다.
- 투석치료 등은 재활치료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 35. 집에서 주로 이용하는 병원까지 이동하는데 평균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15분 미만
2) 15분 - 30분 미만
3) 30분 - 60분 미만
4) 1시간 - 2시간 미만
5) 2시간 이상

**문 35. 병원까지 이동시간**
- 본 문항은 최근 6개월이 아닌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주로 이용한 병원까지 평균 이동시간을 말합니다.
- 이동시간은 걸어서, 버스, 택시, 전동휠체어에 상관없이 주로 이용한 방법을 기준으로 응답받습니다.

문 36. 현재 장애로 인하여 의사가 처방한 약을 **3개월 이상** 복용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면 **하루 평균** 몇 개(알)를 복용하십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예 → ( 하루 평균 [ ][ ] 알 )
2) 아니오

**문 36. 복용 알약 개수**
- 의사가 처방한 약 복용 여부 '① 예'로 선택한 경우 알약 개수를 기입합니다.
- 알약 개수 응답 범위 : 1알 이상 ~ 99알 이하

E. 의료

문 37.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예 (→ 문 37-1 이동)
2) 아니오 (→ 문 37-2 이동)

문 37-1. (문 37의 1 응답자) 최근에 받은 건강검진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받은 건강검진은 총 몇 회입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최근 검진시기 [ ][ ][ ][ ] 년 총 검진횟수(누적) [ ][ ][ ] 회

**문 37-1. 건강검진 시기, 횟수**
- 문 37. 검진받은 경험이 '① 예'인 경우만 응답받습니다.
- 총 검진횟수(누적) 응답 범위 : 1회 이상 ~ 999회 이하
- 검진년도(4자리 응답 : yyyy)는 출생년도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출생년도≤검진년도)
- 검진년도는 2021년 이후일 수 없습니다.(검진년도≤2021)
- 응답자가 가장 최근에 받은 건강검진 년도와 금년까지 포함해서 총 건강검진 횟수(누적)를 표기합니다.
- 본인부담 종합건강검진, 산업장 특수건강검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1차 건강검진, 정부의 노인 건강검진 등 포함

문 37-2. (문 37의 2 응답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경제적 부담
2) 이동의 어려움
3) 의료장비 부족
4) 장애인관련 전문 인력 부족
5) 정보부족
6) 건강검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7) 이유 없이 거부당함
8) 기타 ( )

**문 37-2. 건강검진 받지 못하는 이유**
- 문 37. 검진받은 경험이 '② 아니오'인 경우만 응답받습니다.
- '⑦ 이유 없이 거부당함'은 본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이유를 설명받지 못한 등의 상황입니다.

# F. 심리상태

문 38. **[대리응답 제외]**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보기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내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1 | 2 | 3 | 4 |
| 2. 나는 내가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 1 | 2 | 3 | 4 |
| 3. 나는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 1 | 2 | 3 | 4 |
| 4.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다 | 1 | 2 | 3 | 4 |
| 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 1 | 2 | 3 | 4 |
| 6.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 1 | 2 | 3 | 4 |
| 7.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 1 | 2 | 3 | 4 |
| 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 1 | 2 | 3 | 4 |
| 9. 나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 1 | 2 | 3 | 4 |
| 10. 나는 나 자신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1 | 2 | 3 | 4 |

문 39. **[대리응답 제외]** 다음은 스스로 결정을 잘 내리고 행동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보기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내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나는 아침에 스스로 옷을 골라 입는다 | 1 | 2 | 3 | 4 |
| 2. 나는 집에서 내가 스스로 맡아서 하는 일이 있다 (예: 화분 물 주기, 강아지 밥 주기, 쓰레기 버리기) | 1 | 2 | 3 | 4 |
| 3. 나는 친구들을 잘 사귄다 | 1 | 2 | 3 | 4 |
| 4. 나는 가게에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살 줄 안다 | 1 | 2 | 3 | 4 |
| 5. 나는 자유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 1 | 2 | 3 | 4 |
| 6.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나서서 한다 | 1 | 2 | 3 | 4 |
| 7. 나는 동호회 활동 및 단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 1 | 2 | 3 | 4 |
| 8. 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 | 1 | 2 | 3 | 4 |
| 9. 나는 내 방 정리를 스스로 한다 | 1 | 2 | 3 | 4 |
| 10. 나는 용돈을 스스로 계획하여 사용한다 | 1 | 2 | 3 | 4 |
| 11. 나는 평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 | 1 | 2 | 3 | 4 |
| 12. 나는 친구들과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잘 이야기한다. | 1 | 2 | 3 | 4 |
| 13. 나는 친구들이 나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친구들에게 기분이 나쁘다고 말한다 | 1 | 2 | 3 | 4 |
| 14. 나는 내가 할 일을 스스로 결정한다 | 1 | 2 | 3 | 4 |
| 15. 나는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1 | 2 | 3 | 4 |

F. 심리상태

| 내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6.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1 | 2 | 3 | 4 |
| 17. 나는 친구들과 어울려 하는 활동을 잘한다 | 1 | 2 | 3 | 4 |
| 18. 나는 새로운 친구를 잘 사귀는 법을 알고 있다 | 1 | 2 | 3 | 4 |
| 19.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 | 1 | 2 | 3 | 4 |
| 20.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기분을 표현할 수 있다 | 1 | 2 | 3 | 4 |
| 21.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 | 1 | 2 | 3 | 4 |
| 22. 나는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좋다 | 1 | 2 | 3 | 4 |
| 23. 내가 좋아하는 친구는 그 친구도 나를 좋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 | 2 | 3 | 4 |
| 24.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 1 | 2 | 3 | 4 |
| 25. 나는 나를 좋아한다 | 1 | 2 | 3 | 4 |
| 26. 다른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다 | 1 | 2 | 3 | 4 |
| 27. 나는 내가 무엇이든 잘 할 것이란 자신감이 있다 | 1 | 2 | 3 | 4 |
| 28. 내가 바라는 것과 가족(부모님 등)이 바라는 것이 다를 때 나는 가족을 잘 설득하여 내가 바라는 일을 한다 | 1 | 2 | 3 | 4 |
| 29.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그 일을 하고야 만다 | 1 | 2 | 3 | 4 |
| 30. 친구들이 나에게 섭섭한 행동을 했을 때 나는 당황하지만 그 친구들과 다시 잘 지내는 법을 안다 | 1 | 2 | 3 | 4 |
| 31. 깜빡 잊고 준비물을 챙겨오지 못하면 나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물을 구한다. (예: 동료에게 빌리기, 가족에게 전화하기 등) | 1 | 2 | 3 | 4 |
| 32. 나는 내가 바라는 미래계획(장래희망 등)이 있고 미래계획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 1 | 2 | 3 | 4 |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 <18>

# G. 일상생활

다음은 귀하의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도움, 가사참여 현황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 대해 여쭈어보겠습니다. 각각의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40.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많이 도와주는 순서대로 **2순위까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순위 무응답 허용)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1순위 | | 2순위 | |
|---|---|---|---|

| 보기 | | |
|---|---|---|
| | 1) 없음 (→ 문 41 이동) | 8) 유료 간병인/가정봉사원 |
| | 2) 배우자 | 9) 활동보조인 |
| | 3) 부모 | 10) 무료 간병인/가정봉사원 |
| | 4)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 11) 요양보호사 |
| | 5) 형제자매 | 12) 종교단체 관계자 |
| | 6) 친인척 | 13) 사회복지사 |
| | 7) 친구 및 이웃 | 14) 기타 ( ) |

문 40. 일상생활 도와주는 사람
- 1순위와 2순위에 동일한 보기항목을 응답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 기타는 1가지만 응답받습니다.
- 6. 친인척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등이 포함됩니다.
- 1순위에 '① 없음' 선택 시 2순위는 응답받지 않습니다.
- '① 없음'을 선택 시 문 41로 이동하시고, 그 외를 선택한 경우 문 40-1로 이동합니다.

문 40-1. **[대리응답 제외]** (문 40의 2~14 응답자) 주로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유형 | 전혀 도움받지 않음 | 거의 도움받지 않는 편임 | 도움받고 있는 편임 | 전적으로 도움받음 |
|---|---|---|---|---|
| 1. 세면 및 개인위생관리 (목욕, 대소변, 손/발톱 관리 등) | 1 | 2 | 3 | 4 |
| 2. 이동 (휠체어 밀어주기, 길 안내하기, 버스 타고 내리기 등) | 1 | 2 | 3 | 4 |
| 3. 의사소통 (대화하기, 전화하기, 문자 쓰기 등) | 1 | 2 | 3 | 4 |
| 4. 집안청소 및 관리 | 1 | 2 | 3 | 4 |
| 5. 건강관리 (약 챙겨 먹기, 상처처료, 운동 등) | 1 | 2 | 3 | 4 |
| 6. 학습활동 (언어 배우기, 쓰기, 말하기 등) | 1 | 2 | 3 | 4 |
| 7. 금전관리 (저축, 가계부 쓰기 등) | 1 | 2 | 3 | 4 |
| 8. 여가 및 사회참여 (여행, 쇼핑 등) | 1 | 2 | 3 | 4 |
| 9. 육아/양육 | 1 | 2 | 3 | 4 |
| 10. 식사(식사준비, 먹기, 치우기) | 1 | 2 | 3 | 4 |
| 11. 옷 입고 벗기 | 1 | 2 | 3 | 4 |
| 12. 기타 ( ) | 1 | 2 | 3 | 4 |
| 13. 전반적 일상생활 | 1 | 2 | 3 | 4 |

문 40-1. 도움제공여부
- 문 40. 일상생활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 '① 없음'을 제외한 경우 응답받습니다.
-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 기타는 1가지만 응답받습니다.

G. 일상생활

문 40-2. (문 40의 2~14 응답자) 현재 일상생활에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활동 지원 포함)로부터 매일 **몇 시간 정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30분 단위**로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주중 평균 1일 기준 [ ][ ] 시간 [ ][ ] 분

주말(공휴일) 평균 1일 기준 [ ][ ] 시간 [ ][ ] 분

문 40-2. 도움제공 시간
- 문 40. 일상생활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 '① 없음'을 제외한 경우 응답받습니다.
- 응답 범위 - 주중: 0시간~24시간 이하, 주말 : 0시간~24시간 이하
- 주중 및 주말 도움 제공 시간의 합계는 30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 30분 단위로 응답받으며, 단, 0분 ~ 30분인 경우 '30분'으로 표기합니다.

문 41. **[대리응답 제외]** 귀하가 도움이 필요한 일상생활 유형과 정도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유형 | 전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음 | 거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편임 | 도움이 필요한 편임 |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 |
|---|---|---|---|---|
| 1. 전반적 일상생활 | 1 | 2 | 3 | 4 |
| 2. 세면 및 개인위생관리 (목욕, 대소변, 손/발톱 관리 등) | 1 | 2 | 3 | 4 |
| 3. 이동 (휠체어 밀어주기, 길 안내하기, 버스 타고 내리기 등) | 1 | 2 | 3 | 4 |
| 4. 의사소통 (대화하기, 전화하기, 문자 쓰기 등) | 1 | 2 | 3 | 4 |
| 5. 집안청소 및 관리 | 1 | 2 | 3 | 4 |
| 6. 긴강관리 (약 챙겨 먹기, 상처치료, 운동 등) | 1 | 2 | 3 | 4 |
| 7. 학습활동 (언어 배우기, 쓰기, 말하기 등) | 1 | 2 | 3 | 4 |
| 8. 금전관리 (저축, 가계부 쓰기 등) | 1 | 2 | 3 | 4 |
| 9. 여가 및 사회참여 (여행, 쇼핑 등) | 1 | 2 | 3 | 4 |
| 10. 육아/양육 | 1 | 2 | 3 | 4 |
| 11. 식사(식사준비, 먹기, 처우기) | 1 | 2 | 3 | 4 |
| 12. 옷 입고 벗기 | 1 | 2 | 3 | 4 |
| 13. 기타 ( ) | 1 | 2 | 3 | 4 |

문 41. 도움이 필요한 일상생활 유형과 정도
-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 기타는 1가지만 응답받습니다.
- **유형 1~13까지 모두 '① 전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음'으로 응답할 경우 문 42로 이동합니다.**

문 41-1. 문 41번에서 응답하신 생활 유형에 대해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도움받기를 원하십니까? **30분 단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주중 평균 1일 기준 [ ][ ] 시간 [ ][ ] 분

주말(공휴일) 평균 1일 기준 [ ][ ] 시간 [ ][ ] 분

문 41-1. 도움제공 희망 시간
- 응답 범위 - 주중: 0시간~24시간 이하, 주말 : 0시간~24시간 이하
- 주중 및 주말 도움 제공 시간의 합계는 30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 30분 단위로 응답받으며, 단, 0분 ~ 30분인 경우 '30분'으로 표기합니다.

문 42. 최근 1개월 동안 어느 정도 외출하셨습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거의 외출하지 않음 (→ 문 42-1 이동)
2) 월 3회 이내 (→ 문 42-1 이동)
3) 주 1-2회 (→ 문 43 이동)
4) 주 3-4회 (→ 문 43 이동)
5) 거의 매일 (→ 문 43 이동)

G. 일상생활

문 42-1. (문 42의 1, 2 응답자만) 자주 외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이유를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순위 무응답 허용)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1순위 | | 2순위 | |
|---|---|---|---|

보기

| | |
|---|---|
| 1) 외출을 도와줄 사람이 없음 | 6) 밖에 나가서 할 것이 없거나 만날 사람이 없음 |
| 2)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버스, 콜택시 등)의 부족 | 7) 외출하고 싶지 않음 |
| 3) 장애인 교통수단 보유의 어려움 (자가용 개조, 면허취득, 휠체어 고장 등) | 8) 의사소통의 어려움 |
| 4)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경사로, 음성신호, 유도블럭) | 9) 경제적 어려움 (쓸 돈이 없어서) |
| 5) 장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 (주변 시선, 장애인식) | 10) 기타 ( ) |

**문 42-1. 외출을 자주 하지 않은 이유**
- 문 42. ①, ② 인 경우 응답받습니다.
- 1순위와 2순위에 동일한 보기항목을 응답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 기타는 1가지만 응답받습니다.

문 43. 외출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주로 이용하는 수단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순위 무응답 허용)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1순위 | | 2순위 | |
|---|---|---|---|

보기

| | | |
|---|---|---|
| 1) 일반버스, 저상버스 | 5) 사회복지시설 버스 | 9) 전동스쿠터 |
| 2) 일반택시 | 6)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 10) 휠체어 |
| 3) 지하철/전철 | 7) 자전거, 오토바이 | 11) 도보/걸어다님 |
| 4) 장애인콜택시 | 8) 자가용 | 12) 기타 ( ) |

**문 43. 교통수단**
- 1순위와 2순위에 동일한 보기항목을 응답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 기타는 1가지만 응답받습니다.
- ⑤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예) 종합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시설, 결핵·한센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자활후견기관, 복합노인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보육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등
- ⑥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영 지원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노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과 대중교통수단 연계지점을 중심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귀하가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지원서비스**에 대해 여쭈어보겠습니다. 각각의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44.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보조기기가 있습니까? 있다면 보조기기 이름을 최대 5개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예 → ( 사용하는 보조기기 : ) (→ 문 44-1 이동)
2) 아니오 (→ 문 45 이동)

**문 44. 보조기기 사용**
-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다에 '① 예'로 답한 경우 보조기기의 명칭을 응답받습니다.
- 보조기기 예시) 독서확대기, 음성시계, 지팡이, 전동휠체어, 전동 스쿠터, 보청기, 목욕의자, 의사소통기기 등

G. 일상생활

문 44-1. (문 44의 1 응답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조사차수 | '18(1차) | '19(2차) | '20(3차) | '21(4차) |
|---|---|---|---|---|

1) 매우 불만족 (→ 문 44-2 이동)
2) 거의 불만족하는 편이다 (→ 문 44-2 이동)
3) 만족하는 편이다 (→ 문 45 이동)
4) 매우 만족 (→ 문 45 이동)

문 44-1. 현재 사용하는 장애인보조기기 만족도
- 문 44 장애인보조기기를 하나라도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 만족도를 응답받도록 합니다.

문 44-2. (문 44-1의 1, 2 응답자) 장애인보조기기에 **불만족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순위 무응답 허용)

| 조사차수 | '18(1차) | '19(2차) | '20(3차) | '21(4차) |
|---|---|---|---|---|

| 1순위 | | 2순위 | |
|---|---|---|---|

| 보기 |
|---|
| 1) 자신에게 필요한 보조기기가 없어서 |
| 2) 보소기기의 기능/성능이 미흡해서 |
| 3) 구입 시 본인부담 비용이 높아서 |
| 4) 장애인보조기기 신청 및 보급절차가 까다로워서 |
| 5) 장애인보조기기의 지원품목이 부족해서 |
| 6) 수리비용이 비싸서 |
| 7) 보조기기 이용을 위한 대기기간이 길어서 |
| 8) 기타 ( ) |

문 44-2. 장애인보조기기 불만족 이유
- 문 44-2. 보조기기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 혹은 '② 거의 불만족하는 편이다'인 경우 응답받습니다.
- 1순위와 2순위에 동일한 보기항목을 응답할 수 없습니다.
- 해당 문항에 대해 1가지만 해당되는 경우 2순위는 응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2순위 무응답 허용)**
-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 기타는 1가지만 응답받습니다.

문 45. **장애인보조기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차수 | '18(1차) | '19(2차) | '20(3차) | '21(4차) |
|---|---|---|---|---|

1)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수리 비용 제공 확대
2)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품목 확대
3) 장애인 보조기기 필요 인원 파악
4) 장애인 보조기기 이용 대기시간 감소
5)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및 관리 교육 실시
6) 기타 ( )

문 45 . 장애인보조기기 관련 정책
-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 기타는 1가지만 응답받습니다.

문 46. 현재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 조사차수 | '18(1차) | '19(2차) | '20(3차) | '21(4차) |
|---|---|---|---|---|

1) 예 (→ 문 46-1번으로 이동) 2) 아니오 (→ 문 47번으로 이동)

문 46.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중증장애인(기존 1~3급)에서 2019.07.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대상 확대) 중,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및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제외하고, 소득수준, 장애유형과 상관없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사지원이나 이동보조 등의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G. 일상생활

문 46-1. (문 46의 1 응답자)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1달 기준으로 몇 시간** 이용하고 계십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장애인 활동지원시간 (a) | 월 평균 [ ][ ][ ] 시간 |
|---|---|

문 46-1. 지원시간
- 문 46. 서비스 이용 여부 '① 예'인 경우 응답받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시간은 72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a ≤ 720 )
- 지원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표기합니다.

문 46-2. **[대리응답 제외]** (문 46의 1 응답자) 현재 이용하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매우 불만족 | 거의 불만족하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 1 | 2 | 3 | 4 |

문 46-2. 서비스 만족도
- 문 46 서비스 이용 여부 '① 예'인 경우 응답받습니다.

문 46-3. (문 46의 1 응답자) 현재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지 않다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지원받고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예 2) 아니오 월 평균 [ ][ ][ ] 시간

문 46-3. 지원시간 충분성
- 문 46. 서비스 이용 여부 '① 예'인 경우 응답받습니다.
- 문 46-1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간이 720시간인 경우, '① 예'로 응답받습니다.
- '② 아니오' 라고 응답한 경우, 문 46-1 응답과 합하여 720시간이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응답 범위 : 1시간 이상 ~ 720 – (문 46-1 응답값) 시간 이하
- 1시간 미만인 경우 '1'로 표기합니다.

문 47.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2순위 무응답 허용)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1순위 | | 2순위 | |
|---|---|---|---|

| 보기 | | |
|---|---|---|
| | 1) 자립생활을 원하지 않음 | 6) 의료재활 |
| | 2) 직업재활/취업 | 7) 이동편의 |
| | 3) 주거지원 | 8) 일상생활 활동지원 |
| | 4) 보조기기 | 9) 자립생활을 생각해 본 적 없음 |
| | 5) 소득지원(자립생활정착지원금 포함) | 10) 기타( ) |

문 47. 자립생활 지원
- 1순위와 2순위에 동일한 보기항목을 응답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 기타는 1가지만 응답받습니다.
- ① 자립생활을 원하지 않음 및 ⑨ 자립생활을 생각해 본 적 없음 선택 시, 2순위 응답은 받지 않습니다.
- ② 취업 서비스는 직업재활시설 및 보호작업장 이용,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포함합니다.
- ④ 보조기기 서비스는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을 위해 필요한 재활보조기기 및 생활편의용품을 포함합니다.
- ⑥ 의료재활 서비스는 의료를 포함한 서비스로 장애로 인한 재활치료, 의료비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 ⑦ 이동편의 서비스는 장애인 콜택시, 활동보조인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단, 대중교통 이용요금할인을 받는 것은 제외합니다.

G. 일상생활

문 48. 집에서부터 다음과 같은 기관/시설들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도보(걸어서 이동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구분 | 걸어서 5분 미만 | 걸어서 5분-10분 미만 | 걸어서 10분-30분 미만 | 걸어서 30분 이상 |
|---|---|---|---|---|
| 1. 시장, 마트 등 일상용품 구매 장소 | 1 | 2 | 3 | 4 |
| 2. 병, 의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 | 1 | 2 | 3 | 4 |
| 3.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 1 | 2 | 3 | 4 |
| 4. 사회복지시설 | 1 | 2 | 3 | 4 |
| 5.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 1 | 2 | 3 | 4 |

**문 48. 기관/시설 이동시간**
-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한 시간 기준으로 응답받습니다.
-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예) 종합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시설, 결핵·한센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자활후견기관, 복합노인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보육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등

문 49. 현재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순위 무응답 허용)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1순위 | | 2순위 | |
|---|---|---|---|

| 보기 | | |
|---|---|---|
| | 1) 직업 및 취업 | 6) 교육 |
| | 2) 장래 재정 | 7) 문화·여가활동 |
| | 3) 결혼 | 8) 건강 악화 |
| | 4) 주거 | 9) 특별히 걱정 없음 |
| | 5) 일상생활 지원 | 10) 기타 ( ) |

**문 49. 현재 주된 걱정**
- 1순위로 '⑨ 특별히 걱정 없음'을 선택 시, 2순위 응답은 받지 않습니다.
- 2순위로 '⑨ 특별히 걱정 없음'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문 50. 향후 미래의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 다음의 각 항목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항목 |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음 |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은 편임 | 준비되어 있는 편임 | 모두 준비되어 있음 |
|---|---|---|---|---|
| 1. 직업 및 취업 | 1 | 2 | 3 | 4 |
| 2. 장래 재정 | 1 | 2 | 3 | 4 |
| 3. 이성교제 및 결혼 | 1 | 2 | 3 | 4 |
| 4. 주거 | 1 | 2 | 3 | 4 |
| 5. 건강관리 | 1 | 2 | 3 | 4 |
| 6. 교육 | 1 | 2 | 3 | 4 |
| 7. 문화 및 여가활동 | 1 | 2 | 3 | 4 |
| 8. 일상생활 지원 | 1 | 2 | 3 | 4 |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 <24>

G. 일상생활

다음은 지역사회생활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51. 귀하가 다음 지역사회생활 활동을 할 때 어떤 유형의 지원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현재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귀하에게 필요한 정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생활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차수 | '18(1차) | '19(2차) | '20(3차) | '21(4차) |
|---|---|---|---|---|

| 주요생활 | 필요한 지원 유형 | | | | | → 필요한 지원 빈도 | | | | | 필요한 일일 지원 시간 | | | | |
|---|---|---|---|---|---|---|---|---|---|---|---|---|---|---|---|
| | 없음 | 점검 | 언어/몸짓 | 부분 신체 지원 | 전체 신체 지원 | 월 1회 미만 | 월 1회 이상 | 주 1회 이상 | 일 1회 이상 | 1시간 1회 이상 | 없음 | 30분 미만 | 30분 ~ 2시간 미만 | 2~ 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
| 1. 지역사회에서 장소 이동하기(교통) | 0 | 1 | 2 | 3 | 4 | 0 | 1 | 2 | 3 | | 0 | 1 | 2 | 3 | 4 |
| 2. 지역사회에서 레크리에이션/여가 활동 참여하기 | 0 | 1 | 2 | 3 | 4 | 0 | 1 | 2 | 3 | | 0 | 1 | 2 | 3 | 4 |
| 3. 지역사회에서 공공서비스 이용하기 | 0 | 1 | 2 | 3 | 4 | 0 | 1 | 2 | 3 | | 0 | 1 | 2 | 3 | 4 |
| 4. 친구와 가족 방문하기 | 0 | 1 | 2 | 3 | 4 | 0 | 1 | 2 | 3 | | 0 | 1 | 2 | 3 | 4 |
| 5. 좋아하는 지역사회 활동(교회, 자원봉사 등)에 참여하기 | 0 | 1 | 2 | 3 | 4 | 0 | 1 | 2 | 3 | | 0 | 1 | 2 | 3 | 4 |
| 6. 물건과 서비스 쇼핑하고 구입하기 | 0 | 1 | 2 | 3 | 4 | 0 | 1 | 2 | 3 | 4 | 0 | 1 | 2 | 3 | 4 |
| 7. 지역사회 구성원과 상호작용하기 | 0 | 1 | 2 | 3 | 4 | 0 | 1 | 2 | 3 | 4 | 0 | 1 | 2 | 3 | 4 |
| 8. 공공건물과 장소 이용하기 | 0 | 1 | 2 | 3 | 4 | 0 | 1 | 2 | 3 | 4 | 0 | 1 | 2 | 3 | 4 |
| 9. 자기관리 전략 배우기 | 0 | 1 | 2 | 3 | 4 | 0 | 1 | 2 | 3 | 4 | 0 | 1 | 2 | 3 | 4 |

**문 51. 지역사회 생활 지원요구**

- 현재 해당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가정하여 질문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감안하지 않습니다.
  * 예) 정부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10시간 받고 있다면, 일일 지원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응답받습니다
- 지원빈도는 해당 생활을 할 때 지원이 필요한 횟수를 기준으로 응답받습니다.
  * 예) 지역사회에서 장소 이동하기:지하철을 월 몇 회 정도 이용하는지를 묻고(월 2회 외출), 이용할 때 지원은 몇 번 필요한지(월 1번 필요)를 물어 응답

| 지원유형 | 지원빈도 | 일일 지원시간 |
|---|---|---|
| 어떤 유형의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가? | 이 활동을 위한 지원이 얼마나 자주 필요한가? | 이 영역의 지원이 필요한 보통 날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지원해야 하는가? |
| 0 = 없음 | 0 = 필요 없거나 1개월에 1회 미만 | 0 = 없음 |
| 1 = 점검 | 1 = 1개월에 1회 이상(1주에 1회는 아님) | 1 = 30분미만 |
| 2 = 언어/몸짓 촉구 | 2 = 1주에 1회 이상(1일 1회는 아님) | 2 = 30분~2시간 미만 |
| 3 = 부분 신체 지원 | 3 = 1일 1회 이상(1시간에 1회는 아님) | 3 = 2~4시간 미만 |
| 4 = 전체 신체 지원 | 4 = 1시간에 1회이상 | 4 = 4시간 이상 |

# H. 여가활동

문 52. **지난 1개월 동안**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과 하루 평균 시간은 어떠합니까? 주된 활동을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시간은 **30분 단위**로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2순위 무응답 허용)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 | | |
|---|---|---|---|
| 1순위 | | 활동시간 | 하루 평균 [ ][ ] 시간 [ ][ ] 분 |
| 2순위 | | 활동시간 | 하루 평균 [ ][ ] 시간 [ ][ ] 분 |

| 보기 | | |
|---|---|---|
| | 1) 없음 (→ 문 55번으로 이동) | 9) 휴식(낮잠, 목욕탕가기) |
| | 2) 텔레비전 보기(TV로 영화시청 포함) | 10) 자원봉사 활동 |
| | 3) 라디오 듣기 | 11) 친구 및 가족모임 |
| | 4) 영화, 연극, 연주회 관람 | 12) 종교 활동 |
| | 5) 컴퓨터 또는 인터넷 | 13) 집주변 산책 |
| | 6) 운동하기(헬스, 축구, 수영 등) | 14) 동/식물 기르기 |
| | 7) 예술 활동(악기연주, 글쓰기, 춤 등) | 15)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여가활동 |
| | 8) 독서, 학습(언어공부, 강의듣기 등) | 16) 기타 ( ) |

문 52. 여가활동
- 활동시간은 **30분 단위**로 응답받습니다.
- 1순위와 2순위에 동일한 보기항목을 응답할 수 없습니다.
- 1순위에 '① 없음' 선택 시 2순위는 응답받지 않습니다.
-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 기타는 1가지만 응답받습니다.
- 아간 수면시간은 여가활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타에 여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텔레비전 보기, 음악 및 라디오 듣기, 영화, 독서, 게임 등의 여가활동에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경우 ⑮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여가활동'으로 응답받습니다.
- (2019 신규 보기) ⑮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여가활동

문 53. **[대리응답 제외]** (문 52의 2~16 응답자) 현재 여가활동에 만족하십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전혀 만족하지 않음 (→ 문 53-1번으로 이동)
2)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 문 53-1번으로 이동)
3) 만족하는 편이다 (→ 문 54번으로 이동)
4) 매우 만족함 (→ 문 54번으로 이동)

문 53-1. **[대리응답 제외]** (문 53의 1, 2 응답자)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몸이 아프거나 장애로 인해 참여할 수 없어서
2) 여가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3) 여가 정보 및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4) 여가활동을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5) 여가 시설이 좋지 않아서(설비, 위생 문제)
6) 여가활동 장소까지 거리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
7) 여가활동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8) 기타( )

문 53-1. 여가만족 않는 이유
- 문 53 여가활동 만족도에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혹은 '② 만족하지 않음'인 경우 응답받습니다.
- ③ 여가 정보 및 프로그램이 부족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여가활동을 찾을 수 없어서'와 동일합니다.
-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 기타는 1가지만 응답받습니다.

H. 여가활동

문 54. (문 52의 2~16 응답자) 주로 누구와 여가활동을 합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혼자서
2) 가족
3) 친구/동료
4) 동호회 회원
5) 활동지원사/시설종사자
6) 기타 ( )

문 54. 여가활동 동반자
- ② 가족은 혈연관계를 의미합니다.
- ③ 친구/동료에는 자립생활주택에서 같이 살고 있는 장애인, 코디네이터 등을 포함합니다.

- (2019 신규 보기) ⑥ 활동지원사 →(2020 보기 변경) ③ 친구/동료, ④ 동호회 회원, ⑤ 활동지원사/시설종사자

문 55. 귀하는 **작년(2020.1.1~2020.12.31)에 여행**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있음 **(→ 문 55-1 이동)**
2) 없음 **(→ I.평생교육 문 56 이동)**

문 55 여행 여부
- 여행이란 국내와 국외여행을 모두 포함하며, 기분전환, 휴식, 여가를 목적으로 현재 생활하는 지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 비숙박, 당일여행 등도 포함됩니다.

문 55-1. (문 55의 1 응답자) **작년(2020.1.1~2020.12.31)**에 귀하께서 다녀오신 여행의 횟수와 기간(일수)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구분 | 여행 횟수 | 여행 일수 |
|---|---|---|
| 1. 국내여행 | 회 | 일 |
| 2. 국외여행 | 회 | 일 |

문 55-1. 국내/국외 여행 횟수와 일수
- 지난 1년간 국내여행과 국외여행을 모두 다녀온 경우, 국내여행/국외여행 각각의 여행 횟수와 일수를 모두 응답받습니다.
- 여행 횟수와 여행 일수는 365회(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0 ≤ 국내여행 ≤ 365, 0 ≤ 국외여행 ≤ 365) 단, 국내여행 및 국외여행의 횟수(일수)의 합은 1 이상, 365 이하입니다. (1 ≤ 국내여행 + 국외여행 ≤ 365)
- 여행 일수는 여행 횟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여행 횟수 ≤ 여행 일수)
- 여행 일수는 모든 여행 일수를 합산하여 기재해 주십시오.
- **예시) 만약 국내 여행을 2박 3일로 1번, 1박 2일로 1번 다녀온 경우, 총 여행 횟수는 2번, 여행 일수는 5일입니다.**

| 구분 | 여행 횟수 | 여행 일수 |
|---|---|---|
| 1. 국내여행 | 2 회 | 5 일 |
| 2. 국외여행 | 회 | 일 |

# I. 평생교육

문 56. 지난 1년간 평생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참여한 적 있음 (→ 문 57번으로 이동)
2) 참여한 적 없음 (→ 문 56-1번으로 이동)

**문 56. 평생교육 정의**
-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정규과정, 대학교 과정 이외에 교양, 직업 훈련 등에 참여하는 것이 평생교육입니다.

문 56-1. (문 56의 2 응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평생교육에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2)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3) 참여하고 싶은 교육프로그램이 없어서
4)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5)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6) 시간이 없어서
7) 기타 ( )

(→ 문 62로 이동)

**문 56-1. 평생교육 참여하지 않은 이유**
- 문 56 '② 참여한 적 없음'인 경우 응답받습니다.
- 문항 응답 후 문 62번 '평생교육참여의향'으로 이동합니다.

문 57. (문 56의 1 응답자) 주로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순위 무응답 허용)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1순위 | | 2순위 | |
|---|---|---|---|

| 보기 | | |
|---|---|---|
| | 1) 소득 창출 활동(직업교육) | 5) 건강 및 체육활동 |
| | 2) 자원봉사활동 | 6) 종교활동 |
| | 3) 학습(언어, 컴퓨터)활동 | 7) 정치사회활동 |
| | 4) 취미 및 여가(독서, 수필 등)활동 | 8) 기타 ( ) |

**문 57. 평생교육 프로그램**
- 문 56. '① 참여한 적 있음'인 경우 응답받습니다.
- 해당 문항에 내해 1가지만 해당되는 경우 2순위는 응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 1순위와 2순위에 동일한 보기항목을 응답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 기타는 1가지만 응답받습니다.

문 58. (문 56의 1 응답자) 참여한 평생교육은 어디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었습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사회복지시설, 주민센터 등
2) 사설 문화센터/학원
3) 종교시설
4) 직장
5) 시민사회단체
6) 기타 ( )

**문 58. 참여한 평생교육**
- 문 56. '① 참여한 적 있음'인 경우 응답받습니다.
-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 기타는 1가지만 응답받습니다.
- ① 사회복지시설, 주민센터는 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시군구민 회관, 동읍면 주민센터, 문화예술회관 등이 포함됩니다.
- (2019) 기존보기 2) 사설 문화센터, 3) 사설학원 통합 및 4) 초/중/고 부설 삭제.

문 59. (문 56의 1 응답자) 참여한 평생교육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셨습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월 1회 미만
2) 월 1회 정도
3) 2주에 1회 정도
4) 주 1회 정도
5) 주 2회 이상

**문 59. 참여 빈도**
- 문 56 '① 참여한 적 있음'인 경우 응답받습니다.

문 60. (문 56의 1 응답자) 평생교육 학비는 주로 누가 부담 혹은 지원합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무료 프로그램
2) 본인 스스로
3) 부모/형제/자매
4) 친/인척
5) 후원단체
6) 교육훈련기관 (학교 등)
7)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8) 기타 ( )

**문 60. 학비 부담**
- 문 56 '① 참여한 적 있음'인 경우 응답받습니다.
-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 기타는 1가지만 응답받습니다.
- 무료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자체가 무료인 것을 의미합니다.
- 학비 지원을 받아 본인의 지출이 없는 경우는 '① 무료 프로그램'이 아닌 지원한 사람 및 기관을 기준으로 응답받습니다.
- 본인의 직장에서 교육비를 지원해 준 경우 '② 본인 스스로'에 응답받습니다.
- (2020 보기 변경) ③부모, ④형제/자매를 ③부모/형제/자매로 변경

문 61. (문 56의 1 응답자) 평생교육 참여를 위한 이동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왕복** 소요시간을 **10분 단위로** 응답하여 주세요.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왕복 [ ][ ][ ] 분

**문 61. 평생교육 참여 소요시간**
- 문 56 '① 참여한 적 있음'인 경우 응답받습니다.
- 10분 단위로 응답을 받습니다. (예) 1시간 → 60분으로 응답)
- 10분 미만인 경우 '10'으로 표기합니다.
- 응답 범위 : 10분 이상 ~ 300분 이하
-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다면 '0분'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문 62. 앞으로(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 J.고용(취업) 문 63 이동)**
2) 참여를 고려해 보겠다. **(→ 문 62-1 이동)**
3)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 문 62-1 이동)**

**문 62.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의향이 '없는'(①) 경우 문 63번으로 이동합니다.
-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의향이 '있는'(②~③) 경우 문 62-1번으로 이동합니다.

문 62-1. (문 62의 2~3 응답자)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활동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순위 무응답 허용)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1순위 | | 2순위 | |
|---|---|---|---|

보기
1) 소득활동(직업교육)
2) 자원봉사활동
3) 학습(언어, 컴퓨터)활동
4) 취미 및 여가(독서, 수필 등)활동
5) 건강 및 체육활동
6) 종교활동
7) 정지사회활동
8) 기타 ( )

**문 62-1.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희망 활동**
- 문 62.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의향이 '있는'(②~③) 경우 응답받습니다.
- 1순위와 2순위에 동일한 보기항목을 응답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 (2020 보기 수정) ⑧천목단체활동 삭제

# J. 고용(취업)

다음은 고용(취업)에 대해 여쭈어보겠습니다. 각각의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63~문 65)

문 63. 지난주에 돈을 벌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예 (→ 문 65 이동) 2) 아니요 (→ 문 64 이동)

문 64. (문 63의 2 응답자) 지난주에 **일하지 않았지만**, 귀하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있음 (→ 문 64-1 이동) 2) 없음 (→ 문 74 이동)

문 64. 일자리 유무
- 문 63. 돈을 벌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는지에 대해 '② 아니오'로 답한 경우 응답받습니다.
- '① 있음' 선택 시 문 64-1로 이동, '② 없음' 선택 시 문 74로 이동합니다.

문 64-1. (문 64의 1 응답자) **지난주**에 일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일시적 병, 사고, 후유증
2) 본인의 교육, 휴가(연차휴가 포함)
3) 가족문제로 인해
4)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5) 직장 내 혹은 조업 중단의 이유로
6) 농한기, 금어기 등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로 인해
7) 기타 ( )

문 64-1. 일하지 않은 이유
- 문 64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 유무에 대해 '① 있음'으로 답한 경우 응답받습니다.

문 65. 종사상 지위 및 근로시간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종사상 지위 | 근로시간 형태 | |
|---|---|---|
| 1) 상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다.<br>2) 임시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다<br>3)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다 | 1) 전일제 2) 시간제 | → 문 66 이동 |
| 4) 자영업을 하면서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br>5)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직원이 고용되어 있지 않다<br>6) 급여를 받지 않고 가족사업(일)을 돕는다 | | → 문 84 이동 |

문 65. 종사상 지위 및 근로시간 형태
- 보기 ①번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정해진 채용절차에 따라 입사된 자
- 보기 ②번은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인 자
- 보기 ③번은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 혹은 1일 단위로 계약되어 있는 자
- 보기 ④번은 자기책임 하에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한사람 이상의 유급종업원을 두고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 보기 ⑤번은 본인 혼자(1인 사업체) 또는 무급종업원을 두고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 보기 ⑥번은 1주일에 18시간 이상 혈연관계(동거여부와 상관없음)에 있는 가족의 사업을 돕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근로시간 형태는 종사상 지위에서 '① 상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다. ② 임시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다. ③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다'를 응답한 경우 응답받습니다.
- 아래 주어진 근로조건에 해당하면 **②시간제**입니다. 아래에 하나라도 속하지 않는 경우는 '① 전일제'에 해당합니다.
  - **파트타임 또는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하거나,**
  -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거나,**
  -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J. 고용(취업)

다음은 직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문 66~문 73)

문 66. **[대리응답 제외]** (문 65의 1, 2, 3 응답자) 현재 직업이 자신의 적성에 얼마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전혀 맞지 않다 | 맞지 않는 편이다 | 맞는 편이다 | 매우 맞는다 |
|---|---|---|---|
| 1 | 2 | 3 | 4 |

문 66. 적성 부합 정도
- 문 65에서 임금 근로자(①상용, ②임시, ③일용)인 경우 응답받습니다.

문 67. (문 65의 1, 2, 3 응답자) **지난 4주 동안** 귀하의 **1주일 평균 근무일수 및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일주일 평균 근무일수: [ ] 일 ■ 하루 평균 근무시간: [ ][ ] 시간

문 67. 근로시간
- 주 평균 근무시간 = 일주일 평균 근무일수 x 하루 평균 근무시간
- 일반적으로 전일제 근로자는 36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는 36시간 미만 근로합니다.
- [응답확인] 문 65의 '① 전일제' 응답자가 주 평균 36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응답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예) 5시간=> 지난 4주 동안 귀하의 1주일 평균 근로 시간이 **5시간**이 맞습니까?
- [응답확인] 문 65의 '② 시간제' 응답자가 주 평균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응답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예) 40시간=> 지난 4주 동안 귀하의 1주일 평균 근로 시간이 **40시간**이 맞습니까?
- 직장은 물론 재택근무 시간도 포함됩니다.

(주 평균 36시간 미만 근로 → 문 67-1 이동, 주 평균 36시간 이상 근로 → 문 68 이동)

문 67-1. (문 67의 주 평균 36시간 미만 근로자) 주 36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순위 무응답 허용)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1순위 | | 2순위 | |
|---|---|---|---|

| 보기 | | |
|---|---|---|
| | 1) 장애로 인한 직업능력의 제한 | 6) 전일제 근무가 복지급여, 수당에 영향을 줄까봐 |
| | 2) 시간제 근로가 현재 직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므로 | 7) 아동양육 및 가사노동으로 인해 |
| | 3) 전일제 근무를 구하지 못해서 | 8) 학업, 훈련과 같은 개인적인 이유로 |
| | 4)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기 위해 | 9) 장애치료를 위한 병원방문 |
| | 5) 시간제 근무를 선호해서 | 10) 기타 ( ) |

문 67-1. 36시간 미만 근로 이유
- 문 67의 주 평균 36시간 미만 근로자(일주일 평균 근무일수 x 하루 평균 근무시간)에게만 응답받습니다.
- 1순위와 2순위에 동일한 보기항목을 응답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 기타는 1가지만 응답받습니다.

문 68. **[대리응답 제외]** (문 65의 1, 2, 3 응답자) 현재 귀하의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1주일에 몇 시간 정도 일하고 싶으십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주일 평균 [ ][ ] 시간

문 68. 희망 근로시간
- 응답 범위 : 0시간 이상 ~ 52시간 이하
- 현재 업무환경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희망하는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을 응답받습니다.

J. 고용(취업)

문 69. (문 65의 1, 2, 3 응답자) 귀하가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주로 하는 일 [ ] 직업코드 [아래 보기에서 선택]

| 직업코드 보기 | |
|---|---|
| | 1) 관리자 (5급 이상 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 |
| |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변호사, 의사, 건축사, 교수, 연구원, 예술가, 스포츠 등) |
| | 3) 사무 종사자 (차장 이하 사무직, 초중고 교사, 6급 이하 공무원 등) |
| | 4) 서비스 종사자 (경찰, 소방원, 미용사, 간병인, 조리사 외 기타 서비스원 등) |
| | 5) 판매 종사자 (상점 점원, 세일즈맨, 방문 판매원, 텔레마케터 등) |
| |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농업, 임업, 어업 등) |
| |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운전기사, 세탁, 선반, 목공, 기능공, 기계 정비사, 제봉사, 제빵사 등) |
| |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제조업 생산직, 현장직업, 일용노무직, 기관사, 택시 · 버스 기사 등) |
| | 9) 단순노무 종사자 (배달원, 집배원, 택배원, 미화원, 경비원 등) |

문 70. (문 65의 1, 2, 3 응답자) 현재 직장 또는 사업체에서의 근무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 ] 년 [ ][ ] 개월

문 70. 근무기간
-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무개월 수만 기입합니다. (예) 0년 9개월
- 응답 범위는 '년'과 '개월'입니다.
- 근무기간이 1달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기입합니다. (예) 0년 1개월

문 71. (문 65의 1, 2, 3 응답자) 현재 직장에서 받는 한 달 평균 급여(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수당 등 포함)은 얼마입니까?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말씀해 주세요. (금액을 모르는 경우 소득 범주로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한 달 평균 [ ][ ] 억 [ ][ ][ ][ ] 만원 (십 일 / 천 백 십 일) 또는 소득 범주 [ ]

문 71. 한 달 평균 소득
- 세금, 보험료 등 각종 공제액을 공제하기 전의 총 수령액을 기준으로 파악하고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로도 받은 경우는 시가로 환산하여 포함합니다.
- 연봉, 주급 등으로 응답 시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기재합니다.
- 월급 외에 상여금, 보너스, 등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포함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지난 3개월간의 모든 임금근로 소득을 합쳐서 3개월 평균 소득으로 파악합니다.
- 취업한지 아직 1개월이 되지 않은 사람은 향후 받기로 되어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파악합니다.
- 한 달 평균 임금이 10만원 미만 또는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시 확인합니다.
- 정확한 소득 금액을 모르는 경우, 소득 범주(범주형)로 응답받습니다.

[한 달 평균 소득 범주형]

| | |
|---|---|
| 1) 50만원 미만 | 5) 200~300만원 미만 |
| 2) 50~100만원 미만 | 6) 300~500만원 미만 |
| 3) 100~150만원 미만 | 7) 500~1,000만원 미만 |
| 4) 150~200만원 미만 | 8) 1,000만원 이상 |

J. 고용(취업)

다음은 귀하의 **직장관련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 만약 최근 이직을 한 경험이 있다면,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72. **[대리응답 제외]** (문 65의 1, 2, 3 응답자) 다음은 직장과 관련된 만족도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항 목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 1. 총 보수 | 1 | 2 | 3 | 4 |
| 2. 고용 안정성 | 1 | 2 | 3 | 4 |
| 3. 직무자체(하는 일) | 1 | 2 | 3 | 4 |
| 4. 근무시간 | 1 | 2 | 3 | 4 |
| 5. 복리후생 | 1 | 2 | 3 | 4 |
| 6. 직장 내 환경 및 안전 | 1 | 2 | 3 | 4 |
| 7. 나의 발전 가능성 | 1 | 2 | 3 | 4 |
| 8.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 1 | 2 | 3 | 4 |
| 9. 전반적인 만족도 | 1 | 2 | 3 | 4 |

문 73. **[대리응답 제외]** (문 65의 1, 2, 3 응답자) 다음의 지원 사항들 중에서 귀하의 근로나 고용유지를 위해 받은 지원 여부와 희망 여부를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희망 여부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지원 사항 | 받았음 | | 받지 않은 경우 향후 지원 희망 여부 | |
|---|---|---|---|---|
| | 예 | 아니요 | 희망 | 비희망 |
| 1. 근무 및 근로시간 단축 | 1 | 2 | 1 | 2 |
| 2. 작업량이나 직무조정 | 1 | 2 | 1 | 2 |
| 3. 보조기기나 장비제공 | 1 | 2 | 1 | 2 |
| 4. 고용주와 동료들의 장애인식개선 교육 | 1 | 2 | 1 | 2 |
| 5. 건물 내 편의시설 설치(예, 핸드레일, 화장실, 승강기 등) | 1 | 2 | 1 | 2 |
| 6. 직무지원인, 근로지원인, 멘토서비스 | 1 | 2 | 1 | 2 |
| 7. 근무지역 변경 | 1 | 2 | 1 | 2 |
| 8. 출퇴근 이동지원 | 1 | 2 | 1 | 2 |
| 9. 장애인 채용시 과정 단순화 등 배려 제공 | 1 | 2 | 1 | 2 |
| 10. 유급휴가, 병가 등 복리후생제도 제공 | 1 | 2 | 1 | 2 |
| 11. 장애근로자를 위한 고충처리자나 노무관리사 면담 | 1 | 2 | 1 | 2 |
| 12. 기타 ( ) | 1 | 2 | 1 | 2 |

(→ K. 경제상황 문 90으로 이동)

문 73 받거나 받고 싶은 지원
- 장애인이 다음의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면 받았음에 모두 '아니오'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 '받았음'에 '② 아니오'로 응답한 장애인은 '받고 싶음'에 대한 응답을 받습니다.
-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 기타는 1가지만 응답받습니다.

다음은 **직장이 없는 응답자(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문입니다.(문 74~문 80)

문 74. (문 64의 2 응답자) 자신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일을 할 수 있다 (→ 문 75로 이동)
2) 일을 할 수 없다 (→ K. 경제상황 문 90로 이동)

문 75. (문 74의 1 응답자) 자신이 직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작업환경 변화, 보조장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필요함 (→ 문 75-1번으로 이동) 2) 필요하지 않음 (→ 문 76번으로 이동)

문 75. 필요 사항
- 문 74의 '① 일을 할 수 있습니다'인 경우 응답받습니다.

문 75-1. (문 75의 1 응답자) 어떤 보조장비 마련이나 작업환경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다음 보기 중에서 필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순위 무응답 허용)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1순위 | | 2순위 | |
|---|---|---|---|

| 보기 | |
|---|---|
| | 1)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
| | 2) 직무수행을 위한 보조기기가 필요하다 |
| | 3) 장애 맞춤형 작업환경(사람 제외)이 필요하다 |
| | 4) 탄력근무제,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
| | 5) 직업훈련/재훈련이 필요하다 |
| | 6) 직무(일)를 수정하거나 다르게 할당되어야 한다 |
| | 7) 특별(무료)운송수단이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 |
| | 8) 기숙사가 제공되어야 한다 |
| | 9) 기타( ) |

문 75-1. 필요 항목
- 문 75의 '① 필요함'인 경우 응답받습니다.
- 1순위와 2순위에 동일한 보기항목을 응답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 기타는 1가지만 응답받습니다.

문 76. (문 74의 1 응답자) **지난 4주** 동안 돈을 벌기 위해 식상을 구하려 했습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알아보았다 (→ 문 77번으로 이동)
2) 직장을 구하지 않았다 (→ 문 81번으로 이동)

문 76. 구직활동
- 문 74의 '① 일을 할 수 있다'인 경우 응답받습니다.
- 구직활동이란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 구직등록이나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시험 응시, 일자리 상담 및 의뢰, 사업체 방문, 취업박람회 참석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지 마음가짐으로만 구직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 77. (문 76의 1 응답자) **지난 4주** 동안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 어떠한 활동들을 하였습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구직 활동 | 예 | 아니요 |
|---|---|---|
| 1.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등 공공 취업알선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구직자로 등록했다 | 1 | 2 |
| 2. 직업소개소 등 민간취업알선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구직자로 등록했다 | 1 | 2 |
| 3. 공공/민간/사업체/학교의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했다 | 1 | 2 |
| 4. 구인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연락했다 | 1 | 2 |
| 5. 지인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았다 | 1 | 2 |
| 6. 이력서 제출 후 고용주와 만나 면담을 하였다 | 1 | 2 |

문 77. 구직 활동
- 문 76의 '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알아보았다'인 경우 응답받습니다.

J. 고용(취업)

문 78. (문 76의 1 응답자) 직장을 알아본 지 대략 얼마나 됐습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 | 년 | | | 개월 |
|---|---|---|---|---|---|

문 78. 구직활동 기간
- 문 76의 '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알아보았다'인 경우 응답받습니다.
- 응답 범위는 '년'과 '개월'로 받습니다.
- 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개월 수'만 기입합니다. 예) 0년 9개월
- 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기입합니다.
- 구직활동기간은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시험 응시, 일자리 상담 및 의뢰, 사업체 방문, 취업박람회 참석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문 79. (문 76의 1 응답자) 직장을 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순위 무응답 허용)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1순위 | | 2순위 | |
|---|---|---|---|

| 보기 | |
|---|---|
| | 1) 장애나 질병 등 건강상 문제로 인해 |
| | 2) 장애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
| | 3) 자격요건이나 직업관련 경험 또는 기술부족으로 |
| | 4) 나이가 너무 많아서/어려서 |
| | 5) 학업 및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어서 |
| | 6) 받고 있는 복지혜택에 영향을 줄까봐 |
| | 7) 가족에 대한 양육/돌봄으로 인해 |
| | 8) 고용주/동료의 장애인식 부족 및 차별로 인해 |
| | 9) 시간이나 임금이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
| | 10) 가족, 지인의 반대로 인해 |
| | 11) 기타( ) |

문 79. 구직 애로사항
- 문 76의 '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알아보았다'인 경우 응답받습니다.
- 1순위와 2순위에 동일한 보기항목을 응답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 기타는 1가지만 응답받습니다.

문 80. (문 76의 1 응답자) 다음 중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순위 무응답 허용)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1순위 | | 2순위 | |
|---|---|---|---|

(→ K. 경제상황 문 90으로 이동)

| 보기 | |
|---|---|
| | 1) 취업 정보제공 및 기회 확대 |
| | 2) 이력서 작성, 면접 기술 등 구직역량 강화 |
| | 3) 전문기관의 구직상담 및 취업 알선 |
| | 4) 고등교육 참여를 위한 특별전형 확대 |
| | 5) 직업교육 및 현장훈련 제공 |
| | 6)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 제도 개선 |
| | 7) 장애인을 위한 별도 작업장 필요 |
| | 8) 채용과정에서 편의제공(채용과정 단순화, 시험시간 연장) |
| | 9) 창업지원(창업컨설팅, 자금융자 등) 제공 |
| | 10) 장애인 채용 가산점 제공 |
| | 11) 기타 ( ) |

문 80. 취업 필요사항
- 문 76의 '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알아보았다'인 경우 응답받습니다.
- 1순위와 2순위에 동일한 보기항목을 응답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 기타는 1가지만 응답받습니다.

J. 고용(취업)

다음은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문입니다.(문 81~문 83)

문 81. (문 76의 2 응답자) **지난 4주** 동안 직업을 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순위 무응답 허용)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1순위 | | 2순위 | |
|---|---|---|---|

**보기**

1) 장애나 질병 등 건강상 문제로 인해
2) 장애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3) 자격요건이나 직업관련 경험 또는 기술부족으로
4) 나이가 너무 많아서/어려서
5) 학업 및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어서
6) 받고 있는 복지혜택에 영향을 줄까봐
7) 가족에 대한 양육/돌봄으로 인해
8) 고용주/동료의 장애인식 부족 및 차별로 인해
9) 시간이나 임금이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10) 가족, 지인의 반대로 인해
11) 기타( )

**문 81. 구직하지 않은 이유**
- 문 76의 '② 직장을 구하지 않았다'인 경우 응답받습니다.
- 1순위와 2순위에 동일한 보기항목을 응답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 기타는 1가지만 응답받습니다.

문 82. (문 76의 2 응답자)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동안에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집안일 혹은 가족구성원 양육/돌봄
2) 재충전을 위한 휴식
3)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참여
4) 자원봉사활동 참여
5) 여행/휴가/레저활동
6) 문화/예술/창작활동 참여
7) 공부를 위해 학교/대학교 입학
8) 자격증 준비
9) 아무것도 하지 않음
10) 기타 ( )

**문 82. 주 활동**
- 문 76의 '② 직장을 구하지 않았다'인 경우 응답받습니다.
-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 기타는 1가지만 응답받습니다.

문 83. (문 76의 2 응답자)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직업을 갖고 싶습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예
2) 아니요
3) 잘 모르겠음

**문 83. 향후 구직 의향**
- 문 76의 '② 직장을 구하지 않았다'인 경우 응답받습니다.

(→ K. 경제상황 문 90으로 이동)

J. 고용(취업)

다음은 비임금근로자(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문입니다.(문 84~문 89)

| 면접원 확인용 (문항 로직 확인용) | |
|---|---|
| 문 65의 응답 번호 | |

문 84. (문 65의 4, 5, 6 응답자) 이 일자리(사업체)는 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항 목 |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 |
|---|---|---|
| 사업내용 | 의류 세탁, 수선 | 산업코드 (코드표 참고) |

| 구분 | 산업 코드 | 산업내용 |
|---|---|---|
| A.농업, 임업 및 어업(01~03) | 1 | 농업 |
| | 2 | 임업 |
| | 3 | 어업 |
| B.광업(05~08) | 5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 | 6 | 금속 광업 |
| | 7 |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
| | 8 | 광업 지원 서비스업 |
| C.제조업(10~34) | 10 | 식료품 제조업 |
| | 11 | 음료 제조업 |
| | 12 | 담배 제조업 |
| | 13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
| | 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 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 | 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 19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 | 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24 | 1차 금속 제조업 |
|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 | 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27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28 | 전기장비 제조업 |
|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32 | 가구 제조업 |
|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 | 34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35) | 3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E.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36~39) | 36 | 수도사업 |
| | 37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 | 38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 | 39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F.건설업(41~42) | 41 | 종합 건설업 |
| | 42 | 전문직별 공사업 |
| G.도매 및 소매업(45~47) | 45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 | 46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 | 47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 H.운수 및 창고업(49~52) | 49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 | 50 | 수상 운송업 |
| | 51 | 항공 운송업 |
| | 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J. 고용(취업)

| 구분 | 산업 코드 | 산업내용 |
|---|---|---|
| I.숙박 및 음식점업(55~56) | 55 | 숙박업 |
| | 56 | 음식점 및 주점업 |
| J.정보통신업(58~63) | 58 | 출판업 |
| | 59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 | 60 | 방송업 |
| | 61 | 통신업 |
| | 6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 63 | 정보서비스업 |
| K.금융 및 보험업(64~66) | 64 | 금융업 |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 66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 L.부동산업(68) | 68 | 부동산업 |
| M.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 | 70 | 연구개발업 |
| | 71 | 전문서비스업 |
| | 72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 | 73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N.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74~76) | 74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 | 75 | 사업지원 서비스업 |
| | 76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 O.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P.교육 서비스업(85) | 85 | 교육 서비스업 |
|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 86 | 보건업 |
| | 87 | 사회복지 서비스업 |
| R.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90~91) | 90 |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 91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 94 | 협회 및 단체 |
| | 95 | 수리업 |
| | 96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T.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 97 | 가구 내 고용활동 |
| | 98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 U.국제 및 외국기관(99)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84. 사업내용**
- "사업내용"은 응답자 본인이 아닌 일자리(직장)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업체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기능을 명시해야 합니다. 가급적 주생산품을 포함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코드"는 코드표에서 확인 후 중분류 수준(두자리)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문 85. (문 65의 6 응답자) 현재 일자리의 사업주는 귀하와 어떤 관계입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귀하외의 관계코드: [ ][ ]

| 관계 코드표 | | |
|---|---|---|
| | 01) 응답자의 아버지 | 20) 응답자의 배우자 |
| | 02) 응답자의 어머니 | 21) 응답자의 자녀의 배우자 |
| | 03) 응답자의 배우자의 아버지 | 31) 응답자의 형제/자매 |
| | 04) 응답자의 배우자의 어머니 | 41) 응답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
| | 05) 응답자의 조부 | 51) 응답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 | 06) 응답자의 조모 | 61) 응답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 | 07) 응답자의 배우자의 조부 | 97) 혈연 관계가 아닌 다른 가구원 |
| | 08) 응답자의 배우자의 조모 | 98) 기타 친인척 |
| | 11) 응답자의 자녀 | |

**문 85. 사업주와 관계**
- 문 65. '⑥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만 응답받습니다.
- 관계코드표를 확인하여 응답받습니다.
- 코드표 숫자가 비연속적이니 꼼꼼히 확인하여 기입합니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 <38>

J. 고용(취업)

문 86. (문 65의 4, 5, 6 응답자) 귀하께서 이 일자리(사업체)에서 일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창업시기**를 말씀해 주세요.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 ][ ][ ] 년 [ ][ ] 월

문 86. 사업내용
-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상관없이 현재의 일자리(직장)를 창업하였거나 일하게 된 시기를 말합니다.
- 농림어업과 같이 시작 시기가 애매한 경우는 일한 대가(현물/현금 포함)를 처음으로 받은 시기를 응답받습니다.
- 근무시작 시점이 생년월일 전일 수는 없습니다.
- 근무시작 시점이 현 조사월 후(>조사당시 년월)일 수는 없습니다.

문 87. (문 65의 4, 5 응답자) 이 일자리(사업체)를 시작한 주요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관련 기술이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서
2)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서(성공할 것 같아서)
3) 사업을 물려받게 되어서
4) 주변 사람의 권유로
5) 내 장애 상황에 부합해서
6) 업무시간 조절 등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7) 가사, 육아 등을 병행하려고
8) 임금근로자 취업을 원했으나 어려워서
9) 이런 종류의 사업 말고는 대안이 없어서(다른 사업은 어려워서)
10) 기타( )

문 87. 일자리(사업체) 시작 동기
- 문 65. '④, ⑤ 자영업자'인 경우만 응답받습니다.

문 88. (문 65의 6 응답자) 귀하께서 이 일자리(사업체)에서 일하시게 된 주요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가구원이 도움을 필요로 해서(인력이 부족해서)
2) 가업을 잇기 위해서
3) 일자리에서 본인의 장애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4) 업무시간 조절 등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5) 가사, 육아 등을 병행하려고
6) 다른 취업이나 창업이 어려워서
7) 기타( )
8) 특별히 없음

문 88. 일자리(사업체) 시작 동기
- 문 65. '⑥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만 응답받습니다.

문 89. (문 65의 4, 5, 6 응답자) 이 일자리(사업체)에서 실제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일주일 평균 근무일수: [ ] 일 ■ 하루 평균 근무시간: [ ][ ] 시간

문 89. 일자리(사업체) 근무일수 및 시간
-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일시휴직 또는 계절적 요인으로 잠시 일을 쉴 경우 등은 일이 있을 때의 통상적인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응답합니다.
- 식사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응답받습니다.
- 일주일 평균 근무일수는 1-7까지 응답 가능합니다.
-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24까지 응답 가능합니다.
- 하루 평균 16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하는 경우 다시 확인합니다.

# K. 경제상황

다음은 귀하 및 가구의 소득과 소비에 대해 여쭈어보겠습니다. 각각의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생활주택 입주자인 경우, 함께 거주하는 사람은 가구원이 아닙니다. 단 퇴거자의 경우, 응답자와 최근 6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 사람을 가구원으로 정의합니다.)

문 90. 귀하의 한 달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작년 (2020년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현금소득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현물 제외). (※ 문 91의 1~6에 해당 되는 소득 모두 포함)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50만원 이하
2) 5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3)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4) 200만원 초과
5) 없음

문 91. 귀 가구의 한 달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작년 (2020년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현금소득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소득의 종류 | 금액(원) | 소득 범주 (금액 응답이 어려운 경우에만) |
|---|---|---|
| 1. 근로소득 | 월 □□ 억 □□□□ 만원 (십 일 / 천 백 십 일) | ( ) |
| 2. 사업부업소득 | 월 □□ 억 □□□□ 만원 (십 일 / 천 백 십 일) | ( ) |
| 3. 개인재산금융연금소득 | 월 □□ 억 □□□□ 만원 (십 일 / 천 백 십 일) | ( ) |
| 4. 사적이전소득 | 월 □□ 억 □□□□ 만원 (십 일 / 천 백 십 일) | ( ) |
| 5. 공적이전소득 | 월 □□ 억 □□□□ 만원 (십 일 / 천 백 십 일) | ( ) |
| 6. 비경상소득 | 월 □□ 억 □□□□ 만원 (십 일 / 천 백 십 일) | ( ) |
| 월평균 가구 소득(계) = (1) + (2) + (3) + (4) + (5) + (6) | - | - |

문 91. 소득

- (1) 근로소득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현금, 현물을 의미합니다(예, 임금, 수당, 봉사료 등).
- (2) 사업부업소득은 비법인기업의 주인이 사업체를 운영하여 얻은 순수익이며, 생산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3) 개인재산금융연금소득은 소유한 재산을 타인이 사용한 대가로 받은 순수익입니다(예, 임대, 이자, 연금소득 등)
- (4) 사적이전소득은 비동거 가구원, 친척 등에게 용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주기적으로 받는 현금 또는 현물을 의미합니다. 비정기적이거나 일시적인 증여나 상속은 비경상소득에 해당됩니다.
- (5) 공적이전소득은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정부, 비영리단체, 다른 가구에서 받은 현금, 재화, 서비스를 포함합니다(예, 사회보험금, 기초연금, 장애인수당, 참전용사수당 등).
- (6) 비경상소득은 비정기적 소득으로 경조소득, 복권당첨금, 일시금으로 받은 보험금, 연금,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 금액 응답이 어려운 경우, 범주형(아래 참고)으로 응답받습니다.
- 월 평균 가구 소득(계)는 문 90의 한 달 평균 근로 소득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2020년 가구의 월 소득 범주형]

1. 12만원 미만
2. 12만원 이상 24만원 미만
3. 24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4. 60만원 이상 120만원 미만
5. 12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
6. 240만원 이상 360만원 미만
7. 36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8. 6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9. 1,200만원 이상 2,400만원 미만
10. 2,4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11. 6,000만원 이상 1억 2천만원 미만
12. 1억 2,000만원 이상 3억 6,000만원 미만
13. 3억 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14. 6억원 이상

K. 경제 상황

문 92. 귀 가구의 한 달 생활비 등은 어느 정도인지 **작년 (2020년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생활비 유형 | 가구 전체 | 소비 범주 (금액 응답이 어려운 경우에만) |
|---|---|---|
| 1. 식료품비(외식비 포함) | 월 □□□□ 만원 (천 백 십 일) | ( ) |
| 2. 집세, 월세 | 월 □□□□ 만원 (천 백 십 일) | ( ) |
| 3. 의류비(옷, 신발 구입비 포함) | 월 □□□□ 만원 (천 백 십 일) | ( ) |
| 4. 보육 및 교육비 | 월 □□□□ 만원 (천 백 십 일) | ( ) |
| 5. 보건의료비 | 월 □□□□ 만원 (천 백 십 일) | ( ) |
| 6. 주거관련 비용(전기/수도/냉난방, 관리비 등) | 월 □□□□ 만원 (천 백 십 일) | ( ) |
| 7. 교통/통신비 | 월 □□□□ 만원 (천 백 십 일) | ( ) |
| 8. 교양/오락비 | 월 □□□□ 만원 (천 백 십 일) | ( ) |
| 9. 생필품비 | 월 □□□□ 만원 (천 백 십 일) | ( ) |
| 10. 보조기기 구입, 유지비 | 월 □□□□ 만원 (천 백 십 일) | ( ) |
| 11. 기타생활비용 (경조사비, 내구재구입 등 포함) | 월 □□□□ 만원 (천 백 십 일) | ( ) |
| **월평균 생활비(계) = (1) + … + (11)** | - | - |
| 12.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월 □□□□ 만원 (천 백 십 일) | ( ) |
| 13. 각종 세금(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 월 □□□□ 만원 (천 백 십 일) | ( ) |
| **월평균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계) = (12) + (13)** | - | - |
| 14. 저축(은행 예·적금만을 포함) | 월 □□□□ 만원 (천 백 십 일) | ( ) |

**문 92. 생활비**

- 응답범위 : 0만원 이상 ~ 9,999만원 이하
- 문 16-1 주택점유 형태를 "① 월세, 반전세" 또는 "② 사글세"로 응답 후 가구 생활비 '(2) 집세,월세'에 0원으로 응답한 경우 응답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 5. 보건의료비는 의약품, 의료서비스, 입원서비스, 치과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 11. 기타생활비용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지출로 인테리어비, 이사비용, 경조사비, 부채상환비, 민간보험비 등을 포함합니다.
- 금액 응답이 어려운 경우, 범주형(아래 참고)으로 응답받습니다.

**[2020년 가구의 한 달 평균 소비 범주형]**

1. 3만원 미만
2.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3.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4.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5.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6.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7.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8.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9.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0.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1.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2. 1,000만원 이상

K. 경제 상황

문 93. 가정에서 지출하는 생활비 중 부담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부담되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순위 무응답 허용)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1순위 | | 2순위 | |
|---|---|---|---|

**보기**

1) 없음
2) 식료품비(외식비 포함)
3) 집세, 월세
4) 의류비(옷, 신발 구입비 포함)
5) 보육 및 교육비
6) 보건의료비
7) 주거관련비용(전기/수도/냉난방)
8) 교통/통신비
9) 교양/오락비
10) 생필품비
11) 보조기기 구입, 유지비
12) 기타생활비용(경조사비, 내구재구입 등 포함)
13) 기타 ( )

**문 93. 가정 생활비 부담**

- ⑫ 기타생활비용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지출로 인테리어비, 이사비용, 경조사비, 부채상환비 등을 포함합니다.
- 1순위에 '① 없음' 선택 시 2순위는 응답받지 않습니다.
- 1순위와 2순위에 동일한 보기항목을 응답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기타는 1가지만 응답받습니다.
- [응답확인] 생활비-(1) 식료품비(문 92)가 "0원"인데, ② 식료품비로 선택한 경우, 응답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 [응답확인] 생활비-(2) 집세,월세(문 92)가 "0원"인데, ③ 집세,월세로 선택한 경우, 응답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 [응답확인] 생활비-(3) 의류비(문 92)가 "0원"인데, ④ 의류비로 선택한 경우, 응답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 [응답확인] 생활비-(4) 보육 및 교육비(문 92)가 "0원"인데, ⑤ 보육및교육비로 선택한 경우, 응답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 [응답확인] 생활비 -(5) 보건의료비(문 92)가 "0원"인데, ⑥ 보건의료비로 선택한 경우, 응답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 [응답확인] 생활비-(6) 주거관련비용(문 92)가 "0원"인데, ⑦ 주거관련비용로 선택한 경우, 응답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 [응답확인] 생활비-(7) 교통/통신비(문 92)이 "0원"인데, ⑧ 교통/통신비로 선택한 경우, 응답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 [응답확인] 생활비-(8) 교양/오락비(문 92)이 "0원"인데, ⑨ 교양/오락비로 선택한 경우, 응답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 [응답확인] 생활비-(9) 생필품비(문 92)이 "0원"인데, ⑩ 생필품비로 선택한 경우, 응답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 [응답확인] 생활비-(10) 보조기기 구입, 유지비(문 92)이 "0원"인데, ⑪ 보조기기 구입, 유지비로 선택한 경우, 응답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 [응답확인] 생활비-(11) 기타생활비(문 92)이 "0원"인데, ⑫ 기타생활비로 선택한 경우, 응답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문 94. 다음과 같은 일을 결정할 때 주로 누가 결정합니까?

| 항 목 | [보기] 참고 |
|---|---|
| (1) 생활비 지출 | |
| (2) 주택구입 및 이사 | |
| (3) 금전관리(예금, 적금, 통장관리 등) | |

**보기**

1) 전적으로 내가 결정함
2) 주로 내가 결정하고, 주변인이 약간 돕는 정도임
3) 가족과 의논해서 함께 결정
4) 주로 가족이 결정함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의논해서 함께 결정
6) 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결정함
7) 기타( )

**문 94. 경제 관련 의사결정자**

- 가족이 없을 경우 '③ 가족과 의논해서 함께 결정', '④ 주로 가족이 결정함'에 응답받지 않습니다.

# L. 사회참여

다음은 **장애 관련 복지서비스**에 대해 여쭈어보겠습니다. 각각의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95. 다음 장애인관련 복지서비스 중 **이용한 경험**이 있는 서비스와 그에 따른 만족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만족도는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복 지 정 보 | 이용경험 | |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만족도 | | | |
|---|---|---|---|---|---|---|
| | 있음 | 없음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1. 장애인 연금 | 1 | 2 | 1 | 2 | 3 | 4 |
| 2. 가사/간병 방문 지원 | 1 | 2 | 1 | 2 | 3 | 4 |
| 3. 장애/장애아동 수당 | 1 | 2 | 1 | 2 | 3 | 4 |
| 4. 장애인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 1 | 2 | 1 | 2 | 3 | 4 |
| 5. 장애인활동지원 | 1 | 2 | 1 | 2 | 3 | 4 |
| 6. 에너지 바우처 | 1 | 2 | 1 | 2 | 3 | 4 |
| 7.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 1 | 2 | 1 | 2 | 3 | 4 |
| 8.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1 | 2 | 1 | 2 | 3 | 4 |
| 9. 저소득장애인 진단/검사비 지원 | 1 | 2 | 1 | 2 | 3 | 4 |
| 10.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1 | 2 | 1 | 2 | 3 | 4 |
| 1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1 | 2 | 1 | 2 | 3 | 4 |
| 12. 노인장기요양 | 1 | 2 | 1 | 2 | 3 | 4 |
| 13. 이동통신요금 감면 | 1 | 2 | 1 | 2 | 3 | 4 |
| 14.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1 | 2 | 1 | 2 | 3 | 4 |
| 15. 장애인의료비 지원 | 1 | 2 | 1 | 2 | 3 | 4 |
| 16. 장애인일자리사업(재정지원) | 1 | 2 | 1 | 2 | 3 | 4 |
| 17. 중증장애인지원고용 | 1 | 2 | 1 | 2 | 3 | 4 |
| 18.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 1 | 2 | 1 | 2 | 3 | 4 |
| 19.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1 | 2 | 1 | 2 | 3 | 4 |
| 20. 장애인 창업지원 | 1 | 2 | 1 | 2 | 3 | 4 |
| 21.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지원 | 1 | 2 | 1 | 2 | 3 | 4 |
| 22. 장애인전세자금지원 | 1 | 2 | 1 | 2 | 3 | 4 |
| 23. 비수급자 초기정착 생계비 지원 | 1 | 2 | 1 | 2 | 3 | 4 |
| 24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 1 | 2 | 1 | 2 | 3 | 4 |
| 25. 기타( ) | 1 | 2 | 1 | 2 | 3 | 4 |

• 25가지 항목별 이용경험 '① 있음'인 경우 만족도를 응답받습니다.
(1) 장애인 연금 :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합니다.
(2) 가사/간병 방문 지원 :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장애/장애아동 수당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 장애인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 차량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이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공동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제공합니다.
(5) 장애인활동지원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 에너지 바우처 : 에너지 바우처(난방카드)를 지급하여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동절기의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7)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용을 장기 저리로 빌려 주는 서비스입니다.
(8)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9) 저소득장애인 진단/검사비 지원 : 장애인 등록 진단 비용과 장애 심사를 받기 위한 검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10)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정보화 생활을 개선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합니다.
(1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취약계층의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심판절차 비용과 후견인 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12) 노인장기요양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지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되는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13) 이동통신요금 감면 :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14)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성인 발달장애인이 평일 낮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참여를 높입니다.
(15) 장애인의료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16) 장애인일자리사업(재정지원)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장애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로 구분됩니다.
(17) 중증장애인지원고용 :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직장적응을 위한 현장체험을 통하여 구직 장애인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직무 및 직장적응을 위해 선배지·훈련 후 고용하는 방식으로 사전 훈련(6일 이내)후 현장훈련(기본 3주 최대7주까지 연장)실시, 훈련사업체에 직무지도원을 배치합니다.
(18)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경제적 안정을 위해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19) 취업성공패키지 :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 등을 말합니다. 장애인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심층상담 및 훈련, 취업알선 등의 단계별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과 고용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 장애인 창업지원 :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1)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지원: 서울시 거주 15~34세 이하(21년부터 39세로 확대) 중증장애인의 성인기 전환 및 자립자금 미련을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참여자가 일정금액(월 10~20만원) 적금 시 서울시가 월 15만원 매칭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2) 장애인전세자금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 보증금을 일정기간 무료로 제공하여 주거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 비수급자 초기정착 생계비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초기 정착에 필요한 생계비를 최대 12개월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4)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시설 퇴소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퇴소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한 사업입니다.
(25) 기타에는 시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등이 있습니다.

문 95-1. **[대리응답 제외]**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수준은 어떻습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매우 불만족 |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만족하는 편임 | 매우 만족 |
|---|---|---|---|
| 1 | 2 | 3 | 4 |

문 96. 지난 1년간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으십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이용하였음 (→ 문 96-1 이동)
2) 이용하지 않았음 (→ 문 97 이동)

문 96-1. (문 96의 1 응답자) **한 달 평균** 보통 몇 회 정도 이용하셨습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 ] 회

문 96-1. 사회복지시설 이용 횟수
-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시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예) 종합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시설, 결핵·한센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지활후견기관, 복합노인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보육시설, 성메메피해지원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등
- 문 96. 사회복지시설 '① 이용하였음'인 경우 응답받습니다.
- 응답 범위 : 1회 이상 ~ 31회 이하

문 96-2. (문 96의 1 응답자)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순위 무응답 허용)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1순위 | | 2순위 | |
|---|---|---|---|

보기

| | |
|---|---|
| 1) 각종 여가프로그램 이용 | 5)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 |
| 2) 언어, 물리치료 등 재활프로그램 이용 | 6) 보장구 수리 및 구입 |
| 3) 일자리사업 참여와 구직서비스 이용 | 7) 친목도모 |
| 4) 자원봉사활동 참여 | 8) 기타 ( ) |

문 96-2 이용이유
- 문 96. 사회복지시설 '① 이용하였음'인 경우 응답받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예) 종합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시설, 결핵·한센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자활후견기관, 복합노인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보육시설, 성매매피해자원시설,성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등
- 1순위와 2순위에 동일한 보기항목을 응답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 기타는 1가지만 응답받습니다.
- 각종 여가프로그램은 춤, 수영을 포함하는 운동, 서예, 꽃꽂이, 컴퓨터 등을 의미합니다.

문 96-3. (문 96의 1 응답자)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만족하십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전혀 만족하지 않음 **(→ 문 96-4 이동)**
2)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 문 96-4 이동)**
3) 만족하는 편임 **(→ 문 97 이동)**
4) 매우 만족함 **(→ 문 97 이동)**

문 96-3. 이용이유
-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예) 종합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시설, 결핵·한센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정신보건시설, 자활후견기관, 복합노인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보육시설, 성매매피해자원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등

문 96-4. (문 96-3의 1, 2 응답자)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순위 무응답 허용)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1순위 | | 2순위 | |
|---|---|---|---|

보기

| | |
|---|---|
| 1) 시설(설비, 위생)이 좋지 않아서 | 5) 집에서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해서 |
| 2) 이용할만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 6) 프로그램 비용이 비싸서 |
| 3) 프로그램 대기기간이 길어서 | 7) 서비스 제공자들이 불친절하여 |
| 4) 이용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 8) 기타 ( ) |

문 96-4. 불만족 이유
- 문 96-3. 사회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혹은 '②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인 경우 응답받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예) 종합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시설, 결핵·한센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자활후견기관, 복합노인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보육시설, 성매매피해자원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등
- 1순위와 2순위에 동일한 보기항목을 응답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선택 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합니다.
- 기타는 1가지만 응답받습니다.

문 97. 지역사회 활동(집이 아닌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일주일 평균 [ ][ ] 시간 또는 하루 평균 [ ][ ] 시간

문 97. 지역사회 활동
- 지역사회 활동이란 직장, 취미활동, 장보기 등 본인의 집이 아닌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할 경우 시설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 지역사회 활동이 하루 평균 18시간 이상인 경우 재확인 및 어떤 활동인지 응답받습니다.

문 98. 지역사회 활동(집이 아닌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중 주로 시간을 소비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1순위 | | 2순위 | |
|---|---|---|---|

보기

| | |
|---|---|
| 1) 일 (직장 등) | 6) 가정관리 |
| 2) 학습활동 (평생교육원 등) | 7) 참여 및 봉사활동 |
| 3) 교제활동 (친구, 연인 등) | 8) 개인유지 활동 |
| 4) 종교활동 | 9) 기타 ( ) |
| 5) 문화·관광 및 스포츠·레포츠 활동 | |

문 98. 주로 하는 지역사회 활동
- 주로 하는 2가지의 지역사회 활동을 응답받습니다. 2순위가 없을 경우 응답받지 않습니다.
- 1) 일 : 노동 또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경제적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행동과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직장을 구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 2) 학습활동: 학교활동, **학교행사 등의 참여, 학교, 학원, 평생교육원 등**의 체계적 학습 과정을 수강하는 행동 또는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행동, 스스로 학습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지 않고 스스로 하는 학습활동을 포함합니다.
- 3) 교제활동 : 동호회, 반상회 등과 같은 공식모임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대면 교제하는 것으로 가족, 동료 등과 대화하기 등을 의미합니다.
- 4) 종교활동 : 교회, 성당, 절 등에서 예배·집회 참가와 같은 종교활동
- 5) 문화·관광 및 스포츠·레포츠 활동 : 연극, 영화감상, 스포츠관람 등 문화활동 및 관광 활동, 스포츠, 산책, 등산, 아침에 산책, 맨손체조, 수영 등의 개인운동 등이 포함됩니다.
- 6) 가정관리 : 가구의 가정생활을 유지 및 관리를 위한 행동으로 남의 집 가사 일을 돕는 행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수리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받는 행동, 애완 동·식물 돌보기, 상품 매장 쇼핑과 같이 가족이나 가구유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행동, 금융기관, 관공서 등**의 이용도 포함됩니다.
- 7) 참여 및 봉사활동 : 국가나 사회를 위한 의무적이거나 자발적인 참여활동으로 자원봉사, 공동주택 쓰레기 분리수거 당번, 반상회 참가, 각종 사회복지시설 봉사, 하천정화 활동, 자연보호 캠페인, 헌혈하기, 전문 있는 사람을 산책 시켜주기, 전문 있는 사람 돕기 등을 의미합니다.
- 8) 개인유지 활동: 수면, 식사 및 간식, 개인건강관리(자신의 건강관리나 회복과 관련된 것으로 **의료서비스 받기, 병원진찰, 물리치료 받기, 안경, 의족, 목발 등 맞춤, 이미용 관련 서비스 받기** 등을 포함합니다.

문 99. **[대리응답 제외]** 현재 지역사회 활동(집이 아닌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전혀 만족하지 않음
2)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3) 만족하는 편이다
4) 매우 만족함

L. 사회참여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해 여쭈어보겠습니다.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100. **[대리응답 제외]** 다음은 현재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현재 만족도를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조사자는 '현재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어떠하십니까'와 같은 형태로 물어봅니다.

| 영역 | 해당 없음 | 매우 불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 | 불만족하신 이유가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
| 1. 건강 | | 1 2 3 4 5 6 7 8 9 10 | 1 | 2 |
| 2. 수입 | 0 | 1 2 3 4 5 6 7 8 9 10 | 1 | 2 |
| 3. 주거환경 | | 1 2 3 4 5 6 7 8 9 10 | 1 | 2 |
| 4. 학교생활(평생교육 포함) | 0 | 1 2 3 4 5 6 7 8 9 10 | 1 | 2 |
| 5. 직업 | 0 | 1 2 3 4 5 6 7 8 9 10 | 1 | 2 |
| 6. 결혼생활 | 0 | 1 2 3 4 5 6 7 8 9 10 | 1 | 2 |
| 7. 사회적 관계 | | 1 2 3 4 5 6 7 8 9 10 | 1 | 2 |
| 8. 전반적 삶의 만족도 | | 1 2 3 4 5 6 7 8 9 10 | 1 | 2 |

문 100. 현재 삶의 만족도
- 설문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당없음'을 선택하고 다음 항목을 응답받습니다.
  (4) 학교생활은 평생교육을 포함하며, 현재 재학생이 아닌 경우 '해당없음' 응답
  (5) 직업의 경우 취업자가 아닌 경우 '해당없음' 응답
  (6) 결혼생활의 경우 결혼(사실혼, 동거 포함)이 아닌 경우 '해당없음' 응답
  또한, 문 9-3) 나와 배우자의 관계에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 '해당없음' 응답.
- (2) 수입, (5) 직업, (6) 결혼생활은 만 19세 이상만 응답 가능합니다.

문 101.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간(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에 방역 관련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 구분 | 전혀 어려움 없음 | 어려움 없는 편임 | 어려운 편임 | 상당히 어려웠음 |
|---|---|---|---|---|
| 1) 정보 획득(감염 발생상황, 방역지침 등) | ① | ② | ③ | ④ |
| 2) 방역장비 구비·이용(마스크, 손소독제의 구매 및 이용 등) | ① | ② | ③ | ④ |

문 102. 코로나19로 인해 앞으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사차수 '18(1차) '19(2차) '20(3차) '21(4차)

1) 걱정되는 부분 없음
2) 교육 · 훈련 지연, 중단
3) 감염위험이나 건강상의 문제
4) 여가생활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5) 사회서비스 이용(예: 활동지원서비스, 돌봄 등)에서의 어려움
6) 기타( )




#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 (2021)

발 행 일 : 2021년 11월
발 행 인 : 최경숙
발 행 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5층
Tel. 02-3433-0600
Fax. 02-3433-9567
http://www.koddi.or.kr
편집·인쇄 : 누보

ISBN 978-89-6921-423-2(93330)

※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무단 복사하는 것을 금합니다.